장편소설 《살아서 돌아오라》에 대하여

장편소설 《살아서 돌아오라》의 작가 율리안 쎄묘노브는 주체20(1931)년에 이전 쏘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신문 《쁘라우다》와 《리쩨라뚜르나야 가제따》, 잡지 《오고뇨크》의 기자로서 여러해동안 유럽과 아시아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주체48(1959)년에 중편소설 《외교간첩》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았으며 주체54(1965)년부터는 《갈림길》이라는 표제밑에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위한 보석》, 《암호는 필요없다》, 《갈림길》, 《세번째 트럼프장》, 《회오리바람소좌》, 《봄날의 열일곱순간》, 《대표를 위한 폭탄》등 속편형식의 중장편소설들을 련속 창작발표하여 독자들속에 재능있는 작가로 알려졌다. 장편소설 《살아서 돌아오라》는 그 마지막속편이다. 이밖에도 율리안 쎄묘노브는 중편소설 《따스통신사는 위임에 의하여 성명한다》를 비롯하여 여러편의 실화소설들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러한 공로로 하여 로련국가상수상자, 공훈예술가로 되였다. 그의 작품들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번역출판되였다.

율리안 쎄묘노브의 작품들이 가지고있는 일관한 특징은 실재한 력사적사실들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년대기적성격을 띠고있다는 점이며 작품들에서 정탐실화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량립될수 없는 두 사상간의 심각하고도 첨예한 정치적대립, 다시말하여 사회주의사상과 파시즘, 혁명사상과 반혁명사상간의 날카로운 대립을 뚜렷이 형상적으로 강조하고있다는 점이다.

작가는 소설의 주인공 막씸 막씨모위치 이싸예브(가명은 슈틀리쯔)가 10월혁명이 승리한 직후 체까(전로 반혁명, 태업, 투기행위반대비상위원회)위원장 제르쥔스끼의 과업을 받고 부르죠아에스또니야에 침투해 들어가는것으로부터 속편형식의 소설을 시작하였다.

장편소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위한 보석》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있다. 주인공 이싸예브는 에스또니야에서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투쟁무대를 원동으로 옮긴다. 1920년대 초엽 백파도

당들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간섭책동으로 말미암아 씨비리 원동지구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었다. 이싸예브는 제르쥔스끼로부터 다시 새로운 과업을 받고 울라지보스또크에 둥지를 틀고있던 백파도당들속으로 뚫고들어간다. 장편소설 《암호는 필요없다》에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있다.

로동계급의 원쑤들, 사회주의의 극악한 적들과의 투쟁속에서 어느덧 세월은 흘러 운명은 이싸예브를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옮겨가게 한다. 그는 에스빠냐에서의 활동을 거쳐 다시 파쑈도이췰란드로 침투하여 불굴의 투쟁을 벌려나간다. 독자들은 이전쏘련텔레비죤예술영화 《17일동안에 있은 일》(중편소설 《봄날의 열일곱순간》을 각색한것임)을 통하여 소설의 주인공이 파쑈교형리들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였다는것도 알고있으며 그가 스위스국경을 넘어 베른으로 들어갔다는것도 잘 알고있다.

장편소설 《살아서 돌아오라》는 주인공 이싸예브가 스위스에서 다시 도이췰란드로 되돌아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소설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가고있던 주체34(1945)년 3월중순경부터 5월초순까지의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주인공 이싸예브는 도이췰란드로 되돌아오라는 게스타포두목 뮬러의 지시를 받고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도이췰란드로 되돌아가는가 아니면 프랑스국경을 넘어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러나 주인공은 파쑈놈들이 어떤 교활하고 파렴치한 음모를 꾸미고있는지 모르는데 어찌 제 한목숨만 건지겠다고 물러설수 있겠는가고 생각하며 위험이 기다리고있는 곳으로 떠날것을 단호히 결심한다.

뮬러가 슈틸리쯔(이싸예브)를 도이췰란드로 되돌아오라고 지시한데는 까닭이 있었다. 그는 전쟁이 자기들의 패망으로 끝나리라는것이 명백해진 시각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몹시 고심하고있었다. 그는 자기가 살아날 길을 틔워놓기 위하여 에쓰에쓰비밀조직을 만들어놓고 그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와 유럽나라의 은행들에 거액의 돈을 예금하는 한편 에쓰에쓰핵심들을 해외로 빼돌리고있었다. 그는 슈틸리쯔가 쏘련정탐이라는것을 알게 된 때부터 그를 리용하여 모스크바에 비밀을 제공해주고 그대신 목숨을 건져달라고 청해보리라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면 준비해놓은 통로를 통해 외국으로 도

망칠 계획이였다.

쉘렌베르그도 슈틀리쯔를 리용하려고 꾀하고있었다. 그는 히믈러와 손을 잡고 미, 영대표들과 비밀회담을 벌려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힘을 합쳐 동부전선에서 붉은군대의 공격을 저지시키려고 하였다. 쉘렌베르그는 자기의 이 기도를 실현하는데서 슈틀리쯔를 스위스로 보내여 슐라그목사와 련계를 취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파쑈도이췰란드의 패망이 눈앞으로 각일각 다가옴에 따라 파쑈우두머리들속에서는 모순과 알륵관계가 더욱더 우심해져갔다.

보르만은 쉘렌베르그가 벌리고있는 비밀회담이 성공하여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국, 영국과 힘을 합쳐 쏘련의 공격을 제지시킨 다음 자기가 이끄는 새 도이췰란드를 세울 계획이였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히틀러를 없애버려야 했고 게링그, 히믈러 등 방해되는 세력을 제거해야만 했다. 보르만은 이러한 기도가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모스크바에 손을 내밀어 평화조약을 체결할 생각이였다. 만일 이것마저 실현되지 않으면 라틴아메리카나 유럽 나라들에 꾸려놓은 기지로 도망칠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그는 뮬러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라틴아메리카로 도망칠 잠수함까지 대기시키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이싸예브가 보내온 정보를 통해 파쑈도이췰란드의 우두머리들이 미국전략정보국과 비밀접촉을 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시급히 수습하지 않는다면 전후 유럽정치정세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었다. 쏘련은 이싸예브가 제공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에게 동맹국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라고 압력을 가하여 적들의 음흉하고 비렬한 음모를 제때에 파탄시켜버린다.

뮬러는 붉은군대가 파쑈군대를 무찌르고 베를린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도 비밀을 넘겨주는 대가로 목숨을 건져달라고 한 자기들의 제의에 대하여 모스크바에서 대답이 있기를 기다리며 슈틀리쯔에게 갖은 악형을 다 가한다.

작품의 마지막장에서 인류에게 그처럼 큰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파쑈두목, 인간교살자인 히틀러는 부하인 보르만의 총에 맞아 죽어버리며 보르만과 뮬러는 라틴아메리카로 도망친다. 한편 이싸예브

는 몸에 중상을 입어 운신조차 할수 없는 몸이였으므로《살아서 돌아오라》는 본부의 지시를 집행하지 못한채 에스빠냐로 가지 않을수 없게 된다.

그러면 장편소설 《살아서 돌아오라》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소설은 무엇보다먼저 파쑈우두머리들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음흉한 음모책동과 비렬한 결탁관계를 형상적으로 해부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결코 변할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생활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소설 전반에서 자기 명을 다 산 제국주의의 말기증상으로서의 파시즘의 단말마적발악과 사멸과정을 생동한 화폭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도이췰란드파시즘의 멸망은 상대적의미일뿐이지 결코 종국적인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는것도 형상적으로 강조하고있다. 소설에서 보는것처럼 히틀러를 떠받들고있던 파쑈의 무리들은 멸망의 운명에 직면하자 패망후 새로운 파시즘의 재생을 위한 지반을 꾸리는 한편 어제날의 적이였던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서슴없이 손을 잡는다. 이것은 미제의 비호밑에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시초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제국주의는 곧 전쟁을 의미하며 파시즘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국주의자들에 대하여서는 추호의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그와는 오직 비타협적이고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 완전히 타승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체득하게 된다. 소설은 다음으로 10월혁명직후에는 백파도당들속에, 그후에는 파쑈도이췰란드의 비밀경찰내부에 깊이 침투하여 불굴의 정탐활동을 벌려온 주인공 이싸예브의 형상을 통하여 당에 의하여 교양된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한 인간,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진 인간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와 비관을 모르고 꿋꿋이 싸워나간다는것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소설은 청소년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고 혁명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차 례

마지막연극은 시작되였다

《한스, 〈마이바흐－3〉으로 가자구. 좀 서둘러야겠네.》

뮬러는 운전사에게 말하였다.

《마이바흐－3》이란 헬렌이 지도하는 포츠담의 소나무숲속에 들어앉은 도이췰란드군총참모부소속 《동부외국군》정보국건물을 암호로 부르는 말이다. 여기 소나무숲속에는 륙군원수 카이젤과 총참모장 구데리안의 본부, 호진게르의 작전국, 도이췰란드군의 중추를 이루는 요들대장의 작전기구들이 자리잡고있었다.

(카이젤과 요들은 전쟁이 끝난지 이태가 지나 뉴른베르그재판에 따라 교수형을 당하고 그들의 부하였던 호진게르는 4년후에 나토군사령관으로 되였으며 헬렌은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정보국장으로 되였다. 그리고 구데리안은 도이췰란드련방군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군사리론가로 되였다.)

뮬러는 뒤좌석에 앉아 몸을 반쯤 뒤로 젖히였다. 뮬러의 운전사 한스는 꼭 세해째 그의 운전사로 일해오고있는데 삽살개처럼 주인에게 충실하였다. 한스는 뮬러의 아들 프리쯔를 특별히 귀여워하였다. 그는 뮬러가 만류하였으나 공부가 끝나기 바쁘게 자동차로 프리쯔를 학교에서 집으로 태워오고 달마다 번지지 않고 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가서 놀다오군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뮬러를 위하여 아버지의 목장에서 특별히 장만한 집짐승고기를 가져오는것을 잊지 않았다.

엿새전에 프리쯔가 다니는 학교관할구역 게스타포책임자가 뮬러를 찾아왔다. 그는 학교 교직원들속에 박아넣은 밀정이 제공한 자료라고 하면서 이런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것은 프리쯔가 풍자영화 《독재자》에 나오는 희극배우 챠플린이 히틀러의 흉내를 내는것을 보고 머리빗을 꺾어 코수염을 해붙이고 앞머리칼을 쓸어내리여 이마를 반쯤 가리운 다음 제법 히틀러의 목소리까지 내가면서 모든 민족사회주의자들에게 신성한것으로 되여있는 《도이췰란드사람들은 누구나 땅을 가질 권리가 있다!》, 《아리아인은 누구나 일자리를 보장받을

것이다!》, 《도이췰란드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며 그들은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바쳐 자기의 자유를 수호할것이다!》라는 구호를 제멋대로 고쳐서 지껄이였는데 첫번째 구호는 《도이췰란드사람들은 공동묘지에서 한평방메터의 땅을 가지게 될것이다!》라고 하였고 두번째 구호는《아리아인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수용소가 차례질것이다!》라고 고쳤으며 세번째 구호는 《자유를 지켜 싸우기를 거절하는자는 즉각 교수형에 처할것이다!》라고 하였다는것이다.

구역게스타포책임자는 아직 도이췰란드사람들의 생존방식이 어떤것인지도 모르는 풋내기이고 숙맥같은자였다. 그는 이 한장의 통보가 자기를 벼락출세시키는데 도움을 줄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고있었다.

《고맙소, 친구. 당신은 민족사회당의 참된 당원답게 행동했소.》

뮬러는 손끝이 저려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것을 느끼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마 다른 사람들같으면 나를 위해 밀정을 죽여버리고 그가 제공한 자료도 다 없애치우고말았을거요. 그거야 병을 악화시키는거나 다름없는것이지. 민족의 위업에 자기 모든 시간을 깡그리 바치고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방종한 녀석이 무슨 짓을 할지 알수 없구만. 우리 에쓰에쓰형제들사이에는 오직 진실만 있어야 하오. 이것은 우리의 신조와도 같소. 나는 당신을 케니히스베르그(현재 깔리닌그라드)게스타포 부책임자로 임명하오. 자, 특별관직을 수여받고 에쓰에쓰대장 칼텐브룬너각하의 명령으로 감사를 받게 됨을 축하하오.》

《하일 히틀러!》

《하일 히틀러!》

《친구, 당신에게 한가지 부탁이 있소. 이번에는 순전히 동지적인 부탁인데…》

《어서 말씀하십시오, 중장각하!》

뮬러의 얼굴에 싸늘한 웃음이 비껴갔다.

《아, 알겠소. 당신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어도 편안치 못할거요. …당신은 잠을 잘 때 좋은 꿈을 꿀테지. 아마 꿈에 새들도 종종 보았으리라고 생각하오. 바바리야의 잔잔한 가을호수가에 있는 학같은거말이요.》

《중장각하, 학은 보았던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는 본래부터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그저 자고깨면 기분이 거뜬하고 눈을 뜨자부터 일에 부대끼다보니 밤에 무슨 꿈을 꿨던지 다 잊어버리고말지요…》

《낮에야 꿈이 있을리가 있나. 배가 부르면 졸음이 오고 악몽이 좀 있겠지… 자, 그럼 내 부탁을 말하겠소. 당신은 오늘중으로 내 아들 프리쯔놈을 구역군사모집부로 보내여 거기서 동부전선으로 떠나보내야겠소. 나는 그따위 녀석을 더이상 집에 두고싶지 않소. 알겠소? 나는 그 누구도 전선과 후방에서 우리 모든 승리의 창조자인 도이췰란드민족의 위대한 총통을 모독하는것을 용서하지 않을거요. 후에 나한테 전화를 걸어주오. 내 부관 슐쯔가 전화를 받을거요. 그에게 프리쯔녀석이 몇시에 어느 도로를 지나 어느 부대로 가는가 알려주오. 알겠소?》

《알겠습니다. 중장각하!》

구역게스타포책임자는 발뒤축을 딱 소리나게 모두어붙이며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순간 뮬러는 그의 머리가 상고머리를 쳐올린 한스의 것과 신통히도 같은데 놀랐다. 목은 또 얼마나 굵고 긴지 어느것이 머리고 어느것이 목인지 분간하기가 힘들었다. 뮬러는 리하르드 샤프스에게 자기 아들 프리쯔를 없애버릴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뮬러는 자기가 1920년대에 일하던 뮨헨경찰서 4과에 옛친구들을 《예비》로 장악하고있었을뿐아니라 리하르드 샤프스, 로버트 그룬드레헤, 요제프 루아 등 세명의 수인들을 살인전문가로 장악하고있었다.

뮬러는 뮨헨경찰서 4과를 통하여 이 살인전문가들을 감방안에 있는 범인들뿐만아니라 드러내놓은 대상들과 공작하는 특수밀정들로 리용하고있었다.

프리쯔는 오데르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해되였다. 이것은 프리쯔가 볼쉐위크야만들을 반대하는 투쟁전선에서 위대한 도이췰란드의 위업을 지켜 영웅적으로 희생되였다는 소식을 확증해주었다.

(구역게스타포책임자는 케니히스베르그에서 처리될것이다. 이것은 요제프 루아가 하면 된다. 프리쯔를 밀고한 밀정과 프리쯔가 한 행동에 대하여 알고있는 제일 가까운 친구 세명은 로버트 그룬드레헤가 없애버릴것이다. 그리고 프리쯔와 한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애는 지금 병원에 있으니 퇴원해나오자마자 샤프스가 처리하면 될것

이다.
  사내애가 열다섯살이 넘도록 제 애비를 따를줄 모르고 친구가 되지 못하는거야 남이지 뭔가. 혈통문제에 대하여서는 겝벨쓰나 관심을 가지라지. 정신도 온전치 못한 미물같은 아들녀석때문에 고문대에 꺼꾸로 매달리다니. 총통이 내놓은 새로운 법에 의하면 바로 이런 운명이 나를 기다릴수 있다. 이것은 나의 숙망에도 배치된다. 쉘렌베르그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오늘 당장 나를 가두어넣고 고문을 가했을것이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벌을 내릴 때 넋을 빼앗아가는 법이다. 프리쯔에게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 벌을 내린것이다.)
  뮬러는 《동부외국군》정보국이 들어있는 빨간 2층벽돌집옆에 이르러 차에서 내리기전에 한스에게 가풀(화학제)로 만든 곽을 내밀며 말하였다.
《한스, 속을 넣고 만든 빵인데 들어보라구. 순대도 맛이 좋고 비게는 자네가 즐기는 마그데부르그것이 아니지만 그리 나쁘지는 않네. 내가 오래 있지 않을터이니 차를 대피호에 넣지 않아도 좋아.》
  뮬러는 차에서 내려 현관에 들어섰다.
《안녕하오, 헬렌씨.》
《하일 히틀러, 뮬러중장!》
  헬렌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주 걸어나오며 인사를 했다.
  뮬러는 벌쭉 웃으며 비양조로 말했다.
《우리는 중장이 아니라 중위로 있는 편이 썩 안전한 때에 살고있는가 보오. 그렇지 않소?》헬렌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당신들, 특정한 도이췰란드인들은 모든 생활현상을 하나의 질서에 억지로 얽어매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감정과 당신들이 주장하는 론리가 서로 다른데 그렇게 되겠는가말이요? 그렇게 하다가는 아마 대혼란이 벌어질거요.》
《나는 론리와 감정간에 그런 편관이 없다고 보오.》
  뮬러는 헬렌의 맞은편 안락의자에 가 털썩 주저앉았다.
《당신이 내가 말하는 이러한 편관에 대하여 인차 리해하였더라면 아마 나는 여기에 앉아있기는 고사하고 동부전선의 어느 엄폐호에서 얼어죽은지도 오랬을거요.》
《당신은 괜히 나를 기본적수로 생각하는구만. 당신한테야 나보다

더 강력한 적이 있지 않소. 당신도 그것을 알텐데 그러는구만. 감정과 론리간의 련관도 그렇지만 로씨야에 대한 당신의 그 해박한 지식이 제일 믿음직한 담보일것 같소. 론리요 뭐요 하는 말은 순박한 농군들에게나 가서 하면 좋을것 같구만.》

《그렇게 하지.》

헬렌은 벌쭉 웃었다.

《사람의 감정은 천성적인것이고 론리는 자기 힘으로 얻어지는것이라고 보오. 이 량자가 하나로 결합되면 일이 성공적으로 시작되는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최근 몇해동안 마치 둘로 동강난 생활을 하고있는것 같단말이요. 감정은 우리에게 하나를 가리키는데 론리—다시말하여 지시에 복종하고 명령을 집행하여야 할 임무는 전혀 다른쪽으로 비뚫어달아나는구만. 그렇지 않소?》

《그거야 물론이지.》

《자, 그러니 보오. 특정한 도이췰란드사람들인 당신들은 서로 량립할수 없는것을 결합시켜보려고 헛되이 시도하다가 슬픔으로 가득찬 모순에 빠지고말지 않았나말이요.…》

《헬렌씨, 첫째로 나는 도이췰란드사람이 아니라 바바리야사람이요. 둘째로 나는 사리에 맞지도 않는 오늘의 우리 론리를 늘 감정과 분리시키지 않았소.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난 당신이 무엇때문에 특정한 도이췰란드인에 대하여 말하는지 모르겠구만.》

《뮬러씨, 난 당신이 자기 주장만 고집할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론쟁은 그만둡시다. 하긴 나 역시 순수한 도이췰란드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프로씨야와 네데를란드사람의 피를 받았다는거야 모를수 없지. 그런데 당신은 중장이나 소장과 같은 장성급이면 적들의 눈에 악한놈으로 보일테지만 중위쯤 되면 괜찮다는거겠지?》

《그렇소.》

《하긴 당신은 나보다 좀 더 불행한건 사실이요. 당신은 동방과 서방에서 다같이 증오를 받지만 나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볼수 있지. 비록 한쪽에서 크레믈리가 나를 죽일놈이라고 욕하고있지만 다른쪽에선 서방과 특히 미국에 있는 유태인계금융재벌들이 내 사업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있으니까 내 죄가 어느 정도 감면되고있다고

봐야지.》
《이제야 모든걸 알겠소.》
뮬러는 후—한숨을 내쉬였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도 어떻게 하든지 팔릴수 있지만 늙은이 뮬러는 중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변장을 한다 해도 로씨야놈들과 미국놈들한테서 총살을 면할수 없다는거겠지?》
《아니요. 당신은 바바리야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도이췰란드사람이지. 아마 당신의 선조들도 브란데브르그나 한노베르에서 태여났겠지요. 나는 당신이 가엾구려. 당신과 나는 다름아닌 바로 도이췰란드제국의 추억과 같다고 볼수 있소. 나의 추억은 크레믈리를 반대하는데 돌려진것이라면 당신의 추억은 크레믈리, 다우닝거리, 백악관, 엘리제궁전을 반대하는데로 돌려졌지. 그러니 우리를 총살하는거야 잘못된것이라고 봐야지.》
《아니. 당신은 나를 쉘렌베르그와 혼돈하는구만.》
뮬러는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당신은 나로 하여금 공감을 가지도록 하는 방향에서 사색하였다고 보오.… 참 구데리안이 당신의 〈붉은 성서〉사본을 우리한테 좀 넘겨달라니까 거절하더군. 어떻게 된 일이요?》
《뮬러씨, 구데리안은 다만 수표를 했을뿐이지 거절은 내가 했댔소.》
헬렌은 게스타포에서 《붉은 성서》를 한부만 넘겨달라고 하는것을 거절하면서 그것이 빚어낼 후과를 예견하지 못했던것은 아니다.
이 책에는 쏘련의 정치활동가들, 장군들, 설계가들, 상들에 대한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헬렌은 로씨야땅에 묻어두었던 첩보망에서 입수된 자료들과 그밖에 전화도청, 포로심문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이 책을 만든것이다.
그는 제2차세계대전시기 쏘련인민을 배신하여 파쑈도이췰란드의 편에 서있던 반혁명분자이며 적 군단장인 블라쏘브와 두달동안 함께 지내고 담화하면서 이미 《성서》에 담겨져있는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반역자가 가져다준 새로운 내용을 보충하였다.
《붉은 성서》는 헬렌의 공적중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었다. 세계에서 그 누구도 헬렌만큼 많은 자료를 가지고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정치첩보활동을 기본으로 하고있던 쉘렌베르그를 포함하여 그 어느 첩

보기관도 헬렌이 알고있는것을 몰랐다.

다만 헬렌은 현대첩보기관이 몇해씩 내다보고 여유있게 시한탄을 설치해놓아야 한다는것을 잊었던지 아니면 모르고있은것 같았다.

그는 히믈러의 밑에서 일하면서 몹시 일에 부대꼈다. 히믈러는 될수록 많은 성과를 히틀러에게 보고하려고 아래사람들을 못살게 들볶았다. 그러나 《예비법》대로 살아가고있던 도이췰란드군대는 승리의 나날에도 있을수 있는 패배에 대하여 생각해야 했고 복수와 반공격, 새로운 섬멸적타격을 미리 준비하여야 했다.

《헬렌씨, 사람들은 당신을 잘못 생각할수 있소. 그래서 내가 오늘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찾아온거요.》

뮬러가 하는 말이였다.

《뮬러씨, 그런 말로써 사람을 유혹하지 말아주기 바라오. 히틀러에게는 오직 하나의 희망밖에 남은것이 없소. 그게 뭔지 아오? 우리 군대란말이요. 한해전만해도 아니 반년전까지도 도이췰란드제국에서 제일 무서운 기관은 게스타포였소. 하지만 당신들은 지금 우리가 없이는 아무런 의의도 못가지오. 이젠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나를 당신들의 손에 넘기지 못할거요. 더는 게스타포가 무섭지 않단말이요.》

《그거 참 장하구만. 나는 원래 당신처럼 용감한 사람을 좋아하오. 나는 어려서부터 겁쟁이였소. 바로 겁쟁이들이 이 비밀경찰에 들어오는거라오. 강권을 리용하여 사람들을 다스려보자는거겠지… 내 당신에게 한가지 권고할것이 있소. 별장에 있는 안해와 아이들에게 두개 소대가량의 병사들을 보내여 잘 보호하는게 좋을것 같구만. 지금처럼 무시무시한 세월에는 언제나 불쌍한 녀자들과 아이들이 먼저 피해를 입거든…》

뮬러는 무겁게 몸을 일으켜 나들문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그러자 헬렌은 당황하여 소리쳤다.

《뮬러씨, 당신은 정신이 나가지 않았소. 정신이 나가지 않았나말이요. 어서 돌아와 앉소.》

뮬러는 공손히 되돌아와 다시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제법 주인처럼 푸접좋게 한마디 던졌다.

《헬렌씨, 커피라도 한잔 대접해야 옳지 않소?》

헬렌은 자기를 수습하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커피는 대접하겠소. 헌데 당신도 에쓰에쓰대원들을 배치해야 하지 않겠소? 당신한테도 안해와 자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소?》

《나한테도 가족이 있었지. 그런데 아들녀석은 동부전선에서 전사해버렸소. 그리고 녀편네는 죽여버릴 생각이지. 그래 그것때문에 나를 불러세웠소?》

《그런데 당신은 〈붉은 성서〉가 어디에 필요해서 요구하는거요?》

《당신을 우리 일에 한몫 끼우게 하려고 그랬지.》

《그건 어떤 일이게?》

《일인즉 아주 간단한거라오. 나한테 모스크바와 련결된 통로가 하나 생겼는데 당신의 그 〈붉은 성서〉가 크레믈리의 수중에 들어만 가면 그 결과로 상상도 못할 굉장한 반응이 일어날거요. 블라쏘브의 기억력은 비상하였소. 배신자는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망각하는것을 예리하게 기억하거든. 론리와 감정의 밀접한 결합, 더러운 인간인 자기에게 모든 청렴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기도—이것이 배신자들에게 있는것 같소. 배신행위란 참 흥미있는것인가 보오. 배신자는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청렴한 사람들을 찾는것이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스러우면 내가 여기 사무실에서 〈성서〉를 놓고 작업하도록 하지. 좋기는 그 〈붉은 성서〉가 칼텐브룬너나 히믈러의 철궤속에만 있으면 제격일텐데.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걸 가져갈수 있지 않겠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여 당신은 내가 한생을 바쳐온 그 일에 함께 참가시켜 달라는거요?》

헬렌은 입귀를 실룩거리며 쓰겁게 웃었다.

《바로 그렇소! 정확히 표현했소.》

《그럼 당신은 그 대가로 저 불쌍한 까나리스를 도와주어야겠소.》

《까나리스는 칼텐브룬너가 직접 취급하고있다오.》

《하지만 도이췰란드와 총통에게 충실한 애국자 까나리스가 고통을 겪고있는 그 수용소에 당신네 사람들이 있지 않소.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수 있을텐데.》

《헬렌씨, 당신은 론리, 론리하더니 도대체 그 론리가 어디에 있소? 방금 당신은 제입으로 오늘 도이췰란드에서 제일 강력한것은 군대이고 게스타포는 말석으로 밀려났다고 해놓구선 이제 와서 우리 사람들이 모든걸 다할수 있다고 하니 이건 모순된 소리가 아니요.》

뮬러는 넌지시 헬렌을 넘겨다보고 제 말이 분명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헬렌은 낚시를 덥석 받아물것 같았다. 이 군인 신분의 프로씨야떨거지야, 썩 사라져라.

《좋소. 그럼 이렇게 약속합시다. 나는 총통의 명령으로 이미 처형당한 륙군원수 위쯜레벤과 트레스꼬브장군의 친척들을 없애버리게 된것을 취소시키겠소. 그리고 역시 총통의 명령으로 처형당한 롬멜원수의 가족들을 수용소로 보낼것을 히믈러가 비준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취소시키겠다는걸 약속하오. 그리고 불행한 까나리스의 운명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누구의 지시로 그가 아직까지 처형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하는것이 누구에게 유익한가 하는걸 죄다 알아보겠소. 어떻소, 약속이 그만하면 마음에 드오?》

헬렌은 벌쭉 웃으며 송수화기를 들고 부관을 찾아 커피 두잔을 들여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아무말없이 철궤를 열고 《붉은 성서》를 꺼내여 아쉽고 시틋한 표정으로 뮬러에게 내밀었다.

뮬러는 책을 받아들고 몇장 벌컥벌컥 넘기다가 벙글벙글 웃으며 말을 건넸다.

《이게 상품이겠소?》

《아니요. 그건 상품이라기보다 우리의 미래라고 보는것이 더 정확할거요.》

커피를 날라온 부관이 방에서 나가자 뮬러는 다시 물었다.

《어느 부분을 복사하면 되겠소?》

《당신이 하고싶은곳을 하구려. 하지만 통채로 복사해선 안되겠소.》

《그러면 대체로 얼마만한 량을 허락할테요?》

《마지막 4분의 1을 허락하겠소.》

《그럼 그렇게 약속합시다. 당신은 또 나한테 요구할것이 없소?》

《요구할게 있지.》

《뭔데? 어서 말해보오.》

헬렌은 뮬러를 빤히 쳐다보며 히쭉 웃었다.

《어느 계집을 하나 친해서 실컷 놀아나보오. 당신 나이에야 례사로운 일이 아니겠소. 당신이 우리 가족에 대하여 걱정을 해주는데 나도 그런 걱정을 해줘야 도리가 옳지.…》

그 말에 뮬러는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헬렌씨, 나는 맑스를 좋아한다오. 〈상품과 화폐〉에 관한 맑스의 정의는 우리 늙은 사람들의 귀맛에 꼭 맞는다니까. 그것은 명확하고 그 어떤 감정이라는것도 없지.》
《어서 커피를 드시오. 다 식는구만.》
《본래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소. 그러나 누구와 이렇게 동무해서 마시는 때는 마다하지 않는다오. 아마 공동질서를 지키는데 습관된 탓인가보오.》
뮬러는 사무실로 돌아와 부관을 보고 차를 좀 진하게 끓여달라고 이르고는 무슨 새 소식이 없는가고 물었다. 그는 부관의 대답을 듣고나서 모를 일이라는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얼굴에 시틋한 미소를 짓고 물고기에 먹이를 던져주기 시작했다.
뮬러는 슈틀리쯔가 돌아왔다고 하니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다. 그는 슈틀리쯔가 돌아오리라고는 거의 믿지 않았었다. 뮬러가 이처럼 생각하는데는 그럴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었던것이다. 그는 이미 스위스에 조직해놓은 감시조로부터 슈틀리쯔가 로씨야정탐기관과 련계를 맺고있다는 보고를 받았던것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무엇때문인가?

슈틀리쯔는 적갈색 참나무잎이 두텁게 깔린 땅에서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여기저기에 파란 연록색 풀들이 돋아나고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슈틀리쯔는 그것이 마치 애어린 소녀인양 애처롭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승용차안의 라지오에서는 녀가수 마리카 록크가 부르는 4월의 열일곱순간에 대한 노래의 마지막구절이 울려나오고있었다. 노래는 나무들이 원무곡에 맞추어 빙글빙글 돌아가고 갈매기가 벼랑에 부딪쳐 바다물에 떨어질지언정 누구도 그것을 돕지 못할것이라는 내용이였다. 마리카의 목소리는 약간 갈린듯했다. 그래서인지 더 부드럽고 가슴을 파고드는것 같았다. 손풍금반주의 마지막 여운이 끝나고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방송원이 최근 전선소식을 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땅크병들의 영웅주의》에 대하여, 《류프르파페 공중무사들의 혁혁한 승리》에 대하여, 《불패의 에쓰에쓰부대들의 반공격》에 대하여 지껄여댔다.

슈틀리쯔는 승용차에 다가가서 라지오를 끈 다음 차를 몰고 베를린으로 향하였다. 그는 지금 자기 혼자만이 느끼고있는 한적감과 고독감을 더 끌어보려는듯 차를 천천히 몰아갔다.

그는 이제 세시간후 베를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있을가 하는것을 생각해보기도 싫었고 또 상상해볼수도 없었다.

슈틀리쯔는 운전대를 지그시 틀어잡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써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허사였다. 그럴수록 갖가지 의문들이 집요하게 머리를 쳐들었다. 이러한 의문은 또다시 끝없는 사색을 불러일으켰고 그 어떤 행동의 시초를 예언해주었다.

슈틀리쯔는 갈피를 잡을수 없이 갈마드는 사색에서 벗어나보려고 이번에는 싸쉔까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처녀의 모습은 그들이 헤여졌던 1922년의 그때로부터 늘 슈틀리쯔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추억은 어쩐지 불안하고 영원히 되돌려세울수 없는 아득한 일로 느껴졌다. 어느새 또 하나의 도로표시말뚝을 지나쳤다.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이백삼십키로메터가 남았군. 그러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 모든 일이 잘되겠지. 정확히 말하면 모든것이 잘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터인데 내가 그렇게 처신한거야 없지 않은가. 과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나쁜 일이 있을리가 있겠는가?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것은 생활을 가장 론리성없이 하는데서 오는거지 … 참 내가 하고있는짓을 보지. 자화자찬하다니. 실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뜻이야 그렇지 뭔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칭찬해주면 몹시 좋아하는 법이다. 하기에 누구든지 칭찬해주지 않으면 우쭐거리지도 않는다. 헌데 히틀러란놈은 젊어서부터 수천사람들이 자기에게 보내는 요란한 박수소리와 그들이 자기 이름을 웨치는 소리를 들어온것 같다. 사람들이 어느때 가서 히틀러의 행동을 정신병의사들처럼 분석해볼 때가 있겠는지 바이 흥미가 없지 않다. 정신병환자인 히틀러, 네놈은 인민들을 통치할것이 아니라 료양소에서 휴식하면서 신경계통이나 치료하는게 좋을것 같다. 그림을 그릴수도 있겠지. 수채화는 신경계통을 안정시켜주는데 나쁘지 않을거

야. 사람들에게 제가 쓴 시를 읽어주어도 박수를 받을게 아닌가. 처녀들은 달콤한 운률을 몹시 즐겨하지… 아니야, 신성한 시문학에 정신병자를 접근시켜서는 안된다. 〈시문학에 접근시켜서는 안된다.〉—이것은 무서운 말이다. …슈틀리쯔, 네가 지금 이처럼 험담을 하는건 수치야… 그러지 않아도 시문학자체가 도덕적으로 건전치 못한 모든것을 배격할텐데…》

슈틀리쯔는 사령부에서 그바달라하라근방의 전선을 넘겨 자기를 파견하였던 1937년 가을에 있었던 명절이 생각났다. 그때 그는 《베를린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공화에스빠냐에 배겨있던 에쓰디첩보망과 사업할 필요성》이 제기된듯이 면밀히 위장을 했었다. 슈틀리쯔는 파견지로 가는 《통로》에서 그리샤를 만났다. 그는 1921년에 슈틀리쯔가 제르쥔스끼의 과업을 받고 고호란에서 금강석을 탈취해오기 위해 딸린에 갔을 때 친교를 맺은 사람이였다. 그리샤는 에스또니야에 있던 체까의 망책인 쉘레헤스의 동생일뿐아니라 슈틀리쯔와도 련계를 가지고있었다.

그리샤는 왈렌씨야근방의 자그마한 독립가옥으로 이싸예브(슈틀리쯔의 본명)를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블라지미르 안또노브—오브센꼬, 미하일 꼴쪼브, 로지온 말리놉쓰끼, 하드지 무라뜨, 야꼬브 스무슈께위치, 로만 깔멘이 와있었다. 막씸 이싸예브는 안또노브—오브센꼬가 제르쥔스끼에게 자주 다니던 오래전 혁명시기부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있었다.

로지온 말리놉쓰끼는 이싸예브를 울라지보스또크로 파견한 블류헤르에게 오군하던 사람이다. 에스빠냐공화국 항공대 고문단 단장으로 있는 야꼬브 스무슈께위치와는 블류헤르, 미하일 보로진 등이 중국에서 혁명적인 홍군조직을 돕고있던 시기에 이미 련계가 끊어져버렸었다. 이싸예브는 동무들속에서 겨우 하루밤을 보냈다. 그들은 온밤을 밝혀가며 친근한 벗들에 대하여 추억을 나누었다. 이싸예브는 에스빠냐주재 총령사로 있던 안또노브—오브센꼬와 함께 자그마한 방으로 들어갔다. 안또노브는 에스빠냐에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있었다. 그는 이싸예브에게 자리를 권한 다음 담배불을 붙여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막씸, 나는 지금 자네가 자기를 조국으로 소환시켜달라는 의견을 제기하리라는것을 알고있네. 친구, 나는 자네가 힘이 지쳤다는것도

알고있고 모든것을 다 알고있지. 하지만 자네의 제기를 조국에 전달하지 않겠네. 파시즘과의 투쟁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지 않나. 이 투쟁은 장기적이고 류혈적인 싸움으로 될걸세.》

안또노브—오브센꼬는 담배를 깊숙이 빨아들여 진한 연기를 내뿜으며 이싸예브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고나서 얼굴에 이상야릇한 미소를 짓는것이였다.

《나는 군인으로서 1905년 소위때로부터쳐도 32년의 복무년한을 가진 사람이네. 이에 대하여서는 자네도 알고있지 않나. 나는 모든 군사명령이 어떻다는걸 다 알고있지. 하지만 규정에도 없는 한가지 명령이 있다는걸 알고있나? 〈살아서 돌아올것을 명령한다.〉 이런 명령말이요. …》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에서는 알고…》

《조국에서는 모든걸 다 알고있네. 알겠나? 모든걸 다 알고있단말이요.》

…

이싸예브는 《살아서 돌아올것을 명령한다. 문제는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행동하는것이다. 량심을 저버린 대가로 얻어진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에 불과한것이다. …》라고 한 안또노브의 말을 다시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겨보았다.

그의 머리속에는 1927년 상해에서 멘쥔스끼로부터 도이췰란드민족사회주의운동내부에 침투하라는 명령을 받던 일이 떠올랐다. 이싸예브는 히틀러의 사상에 깊이 파고들수록 본부에서 광신자 히틀러를 위험한 존재로 보지 않으며 그가 정권을 잡지 못할것이라고 혼돈하고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싸예브는 멘쥔스끼가 세상을 떠난 후 1933년에 가서야 비로소 멘쥔스끼의 말이 옳았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벌써 6년전에 가장 무서운것은 나치스들이 정권을 잡는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무서운 일이 현실로 도래한것이다.

슈틀리쯔는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히틀러란놈이 어떻게 되여 정권을 잡을수 있었던지 그 원인을 딱히 알수 없었다. 물론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사이에 존재하였던 알륵관계와 공동전선이 이룩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극우익반동들이 승리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렇다고 하필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된건 무엇때문인가? 1930년대초 도이췰란드에는 보수적이고

완고한 반공적립장에 선 극히 위험한 세력들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군대와 《도이췰란드민족당》은 세력이 제일 강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두 련합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히틀러가 잡게 되였는가? 《사회주의》라는 화려한 너울과 그것이 로동계급에게 던진 매혹때문인가? 《사회주의》너울과 함께 민족의 우위를 내세워서인가? 다시말하여 모스크바의 비위에 거슬리게 《사회주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으로 되고있는 국제공산당의것도 아니요 가장 우수한 인종인 도이췰란드민족의것이라고 했기때문인가? 과연 광신적인 민족주의가 자기 발전의 시초에 력사의 기억을 흐리게 할만큼 그렇게도 강력하고 눈먼것이란말인가? 더듬어보건대 인종주의사상에 토대했던 어느 한 민족운동도 종국적인 승리를 해본 일이 없으며 또 할수도 없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문제다. 그러면 히틀러는 어떻게 하여 괴테와 와그너, 헤겔과 하이네, 베토벤과 바흐를 낳은 인민을 우롱할수 있었겠는가? 정말 인민들은 나라에 빵과 빠다가 없는 죄를 유태인과 집시들 그리고 국제공산당의 《음모》에 들씌우는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단말인가? 혹시 도이췰란드사람들이 현존상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씌우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한것은 아닐가? 히틀러놈이 권세없고 몽매한 사람들의 약점을 리용하여 이처럼 비렬한 놀음을 꾸며낼수 있지 않을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노리는것보다 더한 죄는 없는것이다. 이것이 처음 한때에는 리득을 가져다줄지 몰라도 마지막결과는 너무도 명백하다. 궁극에 가서는 민족적모욕과 파산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그런데 히틀러는 지금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꿈꾸어왔는가? 그는 오직 자기 하나만을 과신하며 살아왔다. 실제로 그는 자기의 모든 사고과정을 요란한 박수와 자기 이름을 웨쳐대는 군중들의 목소리를 언제나 전제로 하였다. … 아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가 천성적으로 마음이 얼마나 선량한가 하는것을 검열해보아야 한다. 선량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것이다.…

슈틀리쯔의 온몸이 무거운 피로에 휩싸였다. 저멀리 앞에 베를린시내가 어슴푸레하게 보이였다. 높고 맑은 하늘에 꾸역꾸역 솟아오르는 화장터의 스산한 연기만 보아도 그것이 도이췰란드제국의 수도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다. 요즘 영국과 미국비행기들이 매일 밤낮으로 폭격을 들이대고있었다.

슈틀리쯔는 이제 다시 차를 세우고 땅에 내려 주저앉기만한다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끝내 되돌아서고말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있었다. 바젤로 되돌아가서 국경을 넘어서기만하면 이백메터도 되나마나한곳에 자그마한 려관이 있을텐데 거기 가면 잠도 실컷 잘수 있지 않겠는가. 그 려관이 역과 마주앉아있어서 차소리가 좀 들리기는 하지만 그만하면 거리가 퍼그나 조용한 편이라고 볼수 있지. 구슬픈 기적소리를 남기며 떠나가는 기차의 동음에 귀를 기울이는것은 또 얼마나 좋은가. 슈틀리쯔는 어렸을적에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모스크바부근의 작은 역으로 갔던 일이 생각났다. 그 역을 말라호브까라고 부른것 같았다. 그들은 오래동안 한모양으로 서서 레루이음새를 넘어가는 차바퀴의 둔탁한 소음에 귀를 기울이며 서있었다. …아니다. 지금 멈춰서서는 안된다. 베를린으로 가서 목욕을 하고 커피를 진하게 끓여 마신 다음 일에 착수해야지. 슈틀리쯔는 세굽이를 채 이르지 못하고 갑자기 차를 멈춰세웠다. 푸른 빛갈의 사나운 눈을 가진 검은 고양이가 길을 가로질러 건너간것이다.

슈틀리쯔는 여기에서 자기를 뒤쫓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것을 알았다.

슈틀리쯔는 발동을 끄고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좀더 기다려보자. 아무렴 내가 이만한거야 기다려내지 못할가. 어쨌든 검은 고양이란놈이 한낮이 기울어 내가 더러운 지옥으로 돌아가기도전에 길을 건너가지 않았는가…)

하지만 슈틀리쯔는 검은 고양이는 다만 론리적이고 랭철한 기본지각층으로 하여금 발동을 끄도록 손에 명령을 내리게 한 하나의 동기에 불과하였다는것을 지각의 다른 층을 통하여 깨달았다. 사람마다 지능정도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복잡한 사색이 많을수록 대뇌피질에 있는 이 신비로운 지각층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것이다.

(다시한번 모든것을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나의 사색이 뒤엉키기 시작한것은 베를린으로 돌아갈것을 동의한 순간부터였지.

나는 이에 동의함으로써 자기에게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린것이나 다름없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병적인 인간만이 공포심을 모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내가 베를린으로 돌아갈것을 약속하면서 그

어떤 한쪼각의 기대라도 가졌단말인가? 그거야 두말할것도 없지. 그러면 무엇에 기대를 가지였던가? 모든 면에 기대를 가졌댔지… 령감, 그것도 대답인가, 그것을 대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단순하다. 자기자신을 희롱해선 안된다. 너는 목사의 누이와 그 자식들이 제일 약한 고리들중의 하나라는것을 알고있지. 그들을 끌어다가 게스타포에 잡아넣으면 나는 살길이 막히고만다. 물론 그들을 빼오는것이 실천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증명서들도 믿음직한것을 가지고있고 또 그곳으로 미군이 곧 들어올것이다. 하지만 내가 플러이슈너는 안전할것이라고 확고히 믿었는데 그도 없어지지 않았는가.

그럼 목사자신은 어떤가? 게스타포가 그를 해칠수 있을런지? 그럴수 없다.… 게스타포는 목사를 베른에서 끌어내올수가 없다. 게스타포는 이전과 같은 힘을 가지고있지 못하다. 하긴 내가 게스타포의 힘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다가 쉘렌베르그놈이 뮬러와 손을 잡을수 있지 않을가? 그러면 《칼텐브룬너와 보르만이 어떤 방법으로 월프와 덜레스사이의 회담에 대하여 알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그는 먼저 물을것이다. 나는 자기를 방어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생각은 떠오르지 않고 게다가 고양이까지 길을 건너갔다.

할수 없지. 이왕지사 기다리던것이니 누가 고양이 건너간 길을 넘어설 때까지 내처 기다려보자… 헌데 국경경비대에서 도이췰란드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사진을 비밀리에 고착시키는 그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수도 있지 않는가? 뮬러도 지금 이 순간 까쨔와 나의 사진을 보고있는지 알게 뭐람?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아니, 그가 무엇때문에 나를 보고 누구와 접촉하였는가 묻겠는가? 그는 나에 대한 감시를 조직해놓고 내가 포츠담이나 비들린그에서 나에게 넘겨준 련락원들과 접촉만하면 당장에 죽여버릴텐데.)

슈틸리쯔는 피로에 잠긴 눈을 쳐들었다. 승용차안의 타원형 거울속에 한적한 도로가 비치였다. 그러나 길바닥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결코 마음놓을수는 없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 나라에서는 내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서너명 시켜 내가 매번 차를 타고 어디로 다니며 나를 찾아오는 승용차며 모터찌클이며 자전거며 행인들이 어디로 다니는가 하는것을 감시할데 대한 과업을 얼마든지 줄수 있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 군말없이 자기가 감시하였던것을 글로 쓰거나 전화로 통보할게 아닌가.… 참 내

가 기본문제를 놓치고있군. 보나마나 쉘렌베르그가 나에게 그것을 물을텐테. 그는 보통때와 마찬가지로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짓고 내가 월프를 위해 공작하던 그 나날에 스위스에서 한 사업에 대하여 글로 쓰라고 할테지. 그는 자기 사무실에서 내가 목사와 만났던 장소며 내가 사용한 전화번호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장악하고 보고를 하라고 할것이다. 쉘렌베르그는 베른에서 나에 대한 감시를 얼마든지 조직할수 있었다.… 나는 스위스에 가면 집으로 돌아갈 허락을 받게 될것이라고 확신하였지. 헌데 검토를 잘 이겨내지 못한것 같다. 어디에서 흔적을 남길수 있었던지 기억을 더듬어보자. 그렇지. 사달은 플러이슈너가 들어있던 려관에서부터 시작되였다. 뮬러는 게스타포의 《블류멘슈트라쎄》비밀아지트에 나의 암호문을 가져간 그 사람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부리부리한 눈에 키가 작고 담대한 플러이슈너는 뮬러에게 그런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있었고 그가 들어있는 려관에 찾아가군했다는 사실은 —만일 그것이 외적감시에 의해 포착되였다면— 나의 죄과를 증명하는 하나의 체계내에서 부족한 고리로 될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로 되는가? 그렇지, 이건 그야말로 단순한 리치이다. 쉘렌베르그가 《나에게는 스위스에서 제멋대로 돌아치는 목사가 필요한것이 아니라 여기 감방속에 갇혀있는 목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목사를 잡아오라고 요구할것이 틀림없다. 나는 공작상 이것이 타당치 못하다고 대답할테다. 우리가 슐라그목사를 장악하고있으면 스위스에서 그 어떤 훌륭한 접촉이든 마음만 먹으면 척척 할수 있을거라고 구슬려야지. 열두시까지는 아직도 십분이란 시간이 있다. 좀 더 생각해보자. 모든 련계를 끊어버리면 어떨가? 거짓말로 자기 마음을 안정시켜보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쉘렌베르그는 론리적인 판단에 주의를 돌리지 않을것이다. 그는 썩어빠진 이 도이췰란드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힘만을 중시하는 자이다. 강도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악마들은 그 어떤 결정이든 제멋대로 만들어내고 행동에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있다. 이자들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다시 선거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제거할수도 없는것이다. 오직 이 국가가 망할 때라야만 이자들

도 함께 매장될것이다. …참 내가 망할놈의 고양이때문에 이렇게 길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오분동안이나 있으면 나한테 영향이 있을수 있지. 이것은 오직 공개된 사업을 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지. 뮬러가 리해하고있는데 의하면 어느 한 탐정도 사람들의 주의가 자기한테 쏠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아, 이게 무슨 행동이람, 슈틀리쯔! 아니, 내가 처음부터 고양이에 대한 생각을 꾸며냈던가! 아니면 지금 비로소 문득 떠오른 생각인가? 대답하고싶지 않다. 이것도 한갖 자기에 대한 변명에 불과한것이라고 봐야지… 나는 뮬러에게도 쉘렌베르그에게도 대답하지 않을뿐더러 그들로 하여금 묻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오직 한사람, 내가 반드시 처음으로 만나야 할 보르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는 그에게 슐라그목사가 얻어낸 월프와 덜레스간의 회담에 관한 록음테프를 가져다 줄것이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영국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했던지? 《분렬하여 통치하라.》

옳지 그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고있는 집에서 보르만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안된다. 아니, 뮬러가 벌써 제 심복들을 거기에 앉혀놓았겠는데 내가 왜 거기에서 전화할 생각을 한담!)

슈틀리쯔는 발동을 건 다음 차를 시내로 몰아갔다. 지하철도역을 비롯하여 몇군데는 아직 공중전화가 살아있었다. 피쉘막트에 있는 어느 술집같은데서 전화를 걸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위험한 짓이였다. 거기에서 전화하면 구역게스타포에서 모조리 도청을 하거니와 고틀리브자신이 몹시 눈을 밝히였다. 제국의 법에 따라 1934년 6월 17일부터 모든 식당, 려관, 술집, 카페, 맥주집 주인들은 당국과 협력하여 거동이 조금이라도 수상해보이는 손님들에 대하여 신고하게끔 되여있었다. 례하면 맥주집에 찾아온 손님이 면도를 하지 않았거나 옷을 허름하게 입었을 경우와 이와는 반대로 옷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입었거나 특히 외국산옷을 입었을 때, 손님이 울거나 멋없이 크게 웃는 경우, 한마디로 말하여 손님에게 어딘가 다른 사람과 색다른데가 조금만 있으면 즉시 게스타포에 신고하여야 했다. 집시와 유태인들은 식당과 카페, 려관출입이 금지되여있었고 전쟁이 시작되자부터는 도이췰란드에 끌려온 프랑스로동자들과 뽈스까, 유고슬라비아, 쏘련에서 끌려온 《이주민들》은 공동장소에 나타날수 없었던만큼 전면적인 감시를 포함한 이러한 탄압체계는 총통

이 그처럼 열을 올려 《특권인종》이라고 씨벌여대고있는 도이췰란드사람들을 얽어매기 위한것이였다. 바로 이 《특권인종》들이 지금 철조망없는 대수용소에 갇혀 살고있는것이다. 그런데도 겝벨쓰의 선전수단들은 《도이췰란드공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하여 매일 매시각 요란하게 떠들고있다.

슈틀리쯔는 《아돌프 히틀러—플라쯔》지하철도역근방에 차를 멈춰세운 다음 뽀얗게 먼지를 들쓴 《호리흐》를 돌아보면서 먼저 자동차에 오른 먼지부터 씻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가는 경찰에서 자기들의 선을 통해 즉시 통보할수 있었다.

얼마후 슈틀리쯔는 공중전화기에 열쁘펜니히(도이췰란드의 화페단위로 100분의 1마르크)동전 두잎을 밀어넣고 생각해보았다.

(내가 만일 보르만에게 먼저 전화를 걸면 당장 뮬러와 엇서게 될것이다. 뮬러는 나를 보고《슈틀리쯔, 보라구, 내가 자네를 얼마나 쉽게 쟁취했나. 십분도 안걸려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던가. 아니다. 뮬러를 홀시해서는 안된다. 어쨌든 그는 지금 나에게서 첫번째인물이다.… 나는 뮬러의 부관 숄쯔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가 자기 상관에게 내가 돌아왔다는것과 나에게 극히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 만나게 해달란다는것을 말하게 해야 한다. 그다음에 보르만에게 전화를 걸자. 그렇지. 슈틀리쯔, 제때에 생각을 잘했다. 더하기에서 합치는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놓는다고 그 합이 달라지는것은 아니다. 그렇고말고, 달라질수가 없지. 술집에서 그 젊은이가 나에게 도이췰란드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전달한 순간부터 나를 괴롭히던 저주로운 문제를 머리속에서 털어버린것이 잘못된것은 아니였다. 물론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보는것이 옳을것이다. 나는 자기에게 《왜 돌아와야 하는가?》하는것을 묻기가 두렵다. 혹시 내가 스위스에서 우리 로씨야신문을 읽으면서도 조국에서 여기 앉아있는 나보다 도이췰란드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에 대하여 더 많은것을 알고있다는것을 리해못한것은 아닐가?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슈틀리쯔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연과학박물관옆에 세워둔 차안에서 보르만과 만나고나서야 자기가 도이췰란드로 다시 돌아온것이 모스크바에 유익한것이라는것을 어느정도 리해할수 있었다.

옳소, 바로 그렇소.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축하하오

《오, 슈틀리쯔, 안녕한가. 자네를 이렇게 보게 되여 정말 반갑네. 어서 앉게.》뮬러는 반색하며 말하였다.

순간 그의 왼쪽 볼편이 경련이 일듯 푸들거렸다.

《내 사과술을 마시고싶지 않나?》

《어디 좀 마셔봅시다.》

《마그데부르그비게도 맛보려나?》

《그거야 물론이지요.》

뮬러는 서가에 설치된 랭동기를 열고 거기에서 물방울이 뽀얗게 서린 사과술병과 얄팍하게 썬 희붉은 비게가 담긴 그릇 그리고 조개통졸임을 꺼내여 휴계실에 있는 작은 상우에 올려놓았다.

《담배를 피우고싶으면 피우게.》

《감사합니다.》슈틀리쯔는 뮬러를 쳐다보며 껄껄 웃었다.

《왜 그렇게 웃나?》

《내가 언제인가 유태인작가 숄롬 알레힘이 쓴 책을 읽은 일이 있는데 거기에 〈안된다고 하지만 꼭 원하는것이면 할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더군요.》

《거 참, 흥미있군!》이렇게 말하며 뮬러는 술잔을 쳐들었다.

《자네가 무사히 돌아온걸 축하해서 그리고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걸 축하해서, 겸하여 자네의 해박한 어문학지식을 축하해서 한잔씩 들자구.》

슈틀리쯔는 단숨에 잔을 비우고 비게를 들었다. 듣던바대로 정말 별맛이였다.

《그런데 방금 하신 어문학지식이란 무엇을 념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난 도이췰란드에서 출판한 유태인들이 쓴 책이름을 죄다 알고있는데 그중에는 숄롬 알레힘이란 이름이 없던가보오. 그가 쓴 책은 로씨야에서만 출판한줄로 알고있는데…》

《옳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빠리에서도 그가 쓴 책을 세번 출판했습니다.》
《제기랄, 알레힘인지 뭔지 그까짓거나 자꾸 말해서 뭘하겠나.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친척들중에 유태인이 있다면 그걸 숨기지 않겠네. 이제 곧 미국에서 사람이 오고 쓰딸린도 자기 대표로 일리야 에렌브르그를 보낸다고 하니 이게 아주 필요하거든. 좋아, 그건 그렇고 이젠 보르만과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 한번 말해보게. 자네 그걸 글로 적어오지는 않았나?》
《아니올시다. 앞으로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겁니다.》
《그건 왜 그러나?》
《내가 처음 보르만과 만난 후에 그는 당신에 대한 태도를 싹 바꾸어버렸기때문이지요. 당신도 그한테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보르만이 그 말을 하던가?》
《그가 안하면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네 상관이며 내 친구인 쉘렌베르그도 할수 있지 않나?》
《쉘렌베르그는 내가 슐라그목사와 영미대표와의 배신적인 회담을 추동했다는걸 알게 되면 단통 나를 재판에 넘겨버리고말겁니다.》
《그럼 슐라그는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가? 그의 배후에 누가 있나말이야? 그가 우리 게스타포와 련결되여있는가 아니면 민족사회당과 련결되여있는가? 슐라그는 변절자였고 지금도 변절자야. 쉘렌베르그는 베른에 누구를 보내는가 하는걸 알고있어. 하지만 그는 아직 나를 보고 당신을 〈적의 공모자〉로서 취급해보라는 부탁은 하지 않더군…》
《이제 그런 부탁을 할겁니다.》
《자네 보르만에게 이런 말을 했나?》
《물론.》
《그래 보르만이 뭐라고 하던가?》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이 보르만과 이 문제를 미리 토론하지 않았는가 하는걸 느꼈습니다.》
뮬러는 고뿌에 또 술을 나누어 부은 다음 잔을 들어 투명한 액체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머리를 저었다.
《슈틀리쯔, 어떻게 되여 우리모두가 정치에 말려들게 되였나?》
《우리가 무슨 정치인들인가요? 첩보일군들이지.》
《이 세상에서 진짜 정치인들이란 바로 첩보일군들이란말일세. 그

들은 메달 앞면뿐만아니라 뒤면도 어떻게 생겼다는걸 다 알고있어. 다시말하여 절대적진리를 알고있지. 하지만 정치인들은 뱀처럼 도사리고앉아 쇠돈 한면을 가지고 〈오를랸까〉(쇠돈을 던져서 앞뒤 어느 면이 나오겠는가를 맞히기내기하는 유희)놀음을 놀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는 안돼.》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들의 사업은 언제나 환상적인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탐낸다니까.…》
《보르만이 나를 보고 자네의 안전을 지켜주라고 말하더군. 그러니까 자넨 이번에도 알아맞췄나보군. 그래 스위스에서 잠은 잘 잤는가?》
《그저 여기에서 자듯했소.》
《그러나 거기야 폭격도 없구 조용하지 않나.》
《난 폭격에 영 감각이 무딘 사람이랍니다.》
《하하하, 임자 정말 숙명론자가 아닌가?》
《좋을대로 생각하십시오.》
하고 말하고나서 슈틀리쯔는 한숨을 내쉬였다.
《자, 그럼 말 좀 해보게. 보르만이 뭐라고 하던가?》
《보르만은 쉘렌베르그가 스위스에서 공작을 계속하는 한편 스톡홀름에서 새 작전을 준비하고있는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넨 비밀회담을 파탄시키는 전문가로서 쉘렌베르그의 궁냥을 알아낼 과업을 받았겠지?》
《받았지요.》
《하지만 보르만도 그렇고 임자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 않나?》
《그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럼 뮬러의 게스타포와 선량한 아버지인 이 뮬러가 임잘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나?》
《물론 도와주어야지요.》
《나는 임자 상급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구만. 그것때문에 이틀째나 머리를 앓고있으나 신통한 궁리가 떠올라야지. 슈틀리쯔, 임자 한번 생각되는바가 있으면 말해보게. 임자야 총명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 아닌가. … 자, 어디 생각하고있는걸 대담하게 말해보라구. 그럼 내가 잘못된것은 고쳐주면 되지 않겠나.…》

《중장각하, 당신도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데 소인이 받은 지혜로 무슨 신통한 궁리를 해내겠습니까.》

《아, 아, 슈틀리쯔, 나는 그렇게 아양을 부리는걸 좋아하지 않아. 자네는 본시 아양을 떨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하기엔 너무도 총명하단말이야. … 그럼 어디 월프에 대한 공작을 어떻게 했는지 전 과정을 말해보게. 제일 처음부터말이야. 참 영국놈들이 재판심리에서 류추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것은 그리 잘못된게 아니거든. 자, 말해보라구. …》

슈틀리쯔는 검토가 시작되였다는것을 알았다.

(이자는 내가 자기에게 전 공작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들어보려고 한다. 그는 첩보망을 통하여 들어온 자료와 내가 한 전화내용을 해득한 자료, 감시자들로부터 들어온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를 검토하여볼것이다. 그리고 이제 곧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 아니면 그 어느 다른곳에 설치된 록음기스위치를 넣으러 갈것이다. 그가 나와 마주앉아 손으로 주머니안에 들어있는 록음기스위치를 주무르겠는가. 뮬러는 너무나도 큰 전문가이다. 그는 미리 계약당사자를 타진해보고있다.)

그러나 뮬러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책상에 놓여있는 길다란 선에 매달린 조종개페기를 자기 앞으로 끄당겨놓고 그것을 눌렀다.

《내가 전부 록음을 할테니 함께 들어보고 잘 리해되지 않는 대목이 있으면 다시 들어보고 분석을 해보자구. 그렇게 하는데 동의하오?》

《물론입니다.》

슈틀리쯔는 뮬러에 대하여 그리고 특수한 그의 론리에 대하여 다시한번 놀랍게 생각했다.

《이렇게 되여 나는 슐라그목사와 공작할 임무를 받게 되였는데 쉘렌베르그는 월프와 덜레스간의 회담이 파탄되거나 이 비밀이 총통에게 새들어가는 경우 월프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사를 틀어쥐고있는것 같았습니다. 슐라그와 접촉해보니 흥미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립장도 있고 대담하고 존경할만한 사람이였습니다. 슐라그는 도이칠란드인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를 누릴수 있게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을 결심입니다. 슐라그목사는 평화주의자(정의의 전쟁까지도 포함한 모든 전쟁의 포기를 선포하는 부르죠아평화주의

자)들과의 련계도 깊고 그의 이름은 바티칸에도 잘 알려져있습니다. 그는 전 도이췰란드수상 브류닝그와도 친분관계가 두터웠다고 합니다. 이번에 슐라그는 평화에 관한 회담에서 몇몇 거물급들의 이름을 걸고 알렌 덜레스와 접촉하게 되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렌 덜레스의 말에 의하면 슐라그는 나라의 질서를 유지할수 있고 도이췰란드가 완전히 로씨야의 속물로 되지 않도록 하며 얄타에서 결정된것이 실현되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세력에 의거할 발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슐라그는 브류닝그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았는데 그에 의하면 덜레스가 월프대장과 비밀회담을 시작했다는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이에 대하여 아직 보르만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당신을 찾아온 가장 중요한것도 바로 이것인데 슐라그는 월프와의 공작을 계획한것이 당신의 친구이며 나의 상급인 쉘렌베르그뿐만아니라 총참모부와 외무성의 매우 위력한 세력들이였다는겁니다. …》

《그게 사실인가?》뮬러는 쿨럭쿨럭 기침을 하며 물었다. 슈틀리쯔는 뮬러가 제 목소리가 록음될것 같아 나오지도 않는 기침을 일부러 톺아올린다는것을 알았다. 기침을 하면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모양이였다. 그러나 슈틀리쯔는 뮬러가 총참모부와 외무성이라는 말이 나오자 귀가 솔깃하여 즉시에 사실을 요구하였다는것을 알았다.

(아무렴 사실이고말고. 다만 내가 목사에게 나의 의도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은것이 잘못인것 같다. 이제 네놈들이 목사에게 접근하기 시작할것이다. …뮬러가, 그렇지 바로 뮬러가 나를 스위스로 보내도록 모든것을 다해야 한다. 나는 심문과정에—이것은 심문이라고 봐야지—뮬러에게 꼭 필요한 그 무엇이 밑바닥에 남도록 행동해야 한다. 그러자면 낚시가 필요하다. 다만 일을 너무 서두르지만 말자. 지쳐버린 이 인간에게 환상을 불러일으켰으면 좋으련만… 헌데 환상을 어떻게 불러일으키겠는가? 옳지, 그의 개인적인 리해관계로써 불러일으켜보자. 뮬러는 령리한놈이다. 그는 지금 모든것이 망해빠진 판국이라 오직 자기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해야 한다는것을 알고있다.

뮬러도 히틀러의 한갖 인질에 불과하다. 이들은 모두 비겁분자들

이고 부들부들 몸을 떠는 마니아병환자 히틀러의 손아귀에 틀어잡힌 인질들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되였는가? 자기를 우상화하지 말라!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나치스들은 히틀러에 대한 숭배가 자기들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자리에 올려세워주리라고, 전 인류우에 군림시키리라고 믿었다. 교양이 부족하고 지식이 빈곤하면 언제나 이런 론리밖에 나오지 않는 법이다. 학습은 누구나 다 즐겨하는것이 아니다. 아이들에게는 억지로 력사를 배워주고 외국어를 가르쳐주는것이다. 민족사회주의교리는 일이 끝나면 스포츠경기나 유흥과 오락을 더 즐기고 저녁이면 맥주잔으로 세월을 보내는 건달군들에게나 맞는것이다.)

《비록 슐라그가 나한테 모든걸 다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흥미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는 앞으로 흥정할 몫으로 많은 예비를 남겨둔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도 그의 론리는 절대적으로 사리에 맞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월프가 지난해 말에 어떻게 되여 총통의 개인참모장자리에서 굴렀는가 하는것이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슈틀리쯔는 뮬러를 찬찬히 바라보며 그가 무슨 말을 할것인가 기다렸다. 그러나 뮬러는 아무 말도 없었다.

《중장각하, 당신은 자기 목소리가 내 목소리와 함께 록음될것 같아 그러는거지요?》

뮬러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였다.

《좋습니다. 알만합니다. 그럼 방금 내가 한 〈중장각하〉하는 말은 없애버리지요. 록음테프가 스웨리예제품이라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이어도 잘 붙을뿐만아니라 듣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을겁니다.

그럼 또 계속하겠습니다. 월프가 〈떨어진것〉은 공작의 첫단계라고 볼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베를린의 이 건물안에서 구상되였다는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월프를 북부이딸리아군집단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데 동의를 주게 되여있는 총참모부를 끌어들이는것이였는데 총참모부는 대장 구데리안의 비준을 받아 동의를 주었습니다. 헌데 월프가 이딸리아로 들어가는 문제는 무쏠리니정부와 외교적통로를 통해 합의를 보게 되여있었다고 합니다. 도이췰란드와 이딸리아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교환한 각서가 지금 외무성에 보관되여있습니다. 월프는 당신과 내가 입고있는 에쓰에쓰의

이 검은 제복을 날래게 푸른색 군복으로 바꾸어입었지요. 전쟁에서 서로 싸우는 두 군대의 장군들이 회담장에 서로 마주앉는 일이야 드문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것은 아르덴에서 동맹군들에 대한 우리 공격이 있기 전야에 있은 일이지요. 정말 이런 공작이 사전에 꾸며졌을가요? 더우기 슐라그는 쉘렌베르그가 까나리스를 체포하였을 때 까나리스해군제독이 그에게 월프대장과 덜레스와의 접촉을 보장하여주는 믿음직한 선을 알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당신과 내가 목사와 진행한 공작만 아니였더라도 아마 이 회담이 성사되였을런지도 모르지요. 당신은 사실인가고 물었는데 나는 아귀가 딱 맞아떨어지는 목사의 생각을 이야기했을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지요. 물론 총참모부안에서 누가 구데리안의 월프를 북부이딸리아군집단부사령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겠는가 하는걸 세밀히 검토해보아야지요. 쉘렌베르그는 모름지기 자기 개인선을 리용했던지 아니면 군대안에 있는 가장 믿음직한 선을 통해 행동할수 있었을겁니다. 총참모부에서 구데리안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헬렌이라고 합니다.

헬렌의 사업은 내적으로 쉘렌베르그의 제2선이 벌리고있는 활동과 련결되여있으니까 혹시 헬렌이 아닐가요?》

그 말에 뮬러는 록음기스위치를 끄고 슈틀리쯔쪽으로 몸을 기웃하며 물었다.

《슐라그가 자네에게 헬렌의 이름을 부르던가?》

《아니지요.》

《그럼 자넨 헬렌이 쉘렌베르그와 가까운 사이라고 볼만한 근거라도 있는가?》

《그런 근거는 없고 그저 추측했을뿐입니다.》

《알고도 그러는건 아니겠지?》

《원 그럴리가 있습니까. 제 마음은 아이들처럼 순진한데요.》

뮬러는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언제부터인지는 딱히 알수 없으나 그는 슈틀리쯔가 자기 생각을 읽고있는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비밀리에 하고있는 자기의 행동과 남모르게 품고있는 생각도 앞질러 알고있는것 같은감을 느꼈다. 슈틀리쯔가 로씨야비밀기관과 련계를 맺고있다는 정보(이것은 여기 사무실에서 당장 쏴죽여도 마땅할 정보자료였다.)를 받기전에는 이런 추측을 해보는것이 흥미가 있을런지 모르나 지금은 저 오스트리아정신병자 히틀러때문에 빠져버린 암담한 처

지와 난생처음으로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져서인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지금 슈틀리쯔를 보고 로씨야정탐과 련계를 맺지 않았는가 물으면 어떨가? 그러면 아마 흠칠 놀랄테지. 그가 놀라와하는걸 보면 나도 아까처럼 무섭지는 않을거야. 아니다. 나는 그럴 권리가 없다. 슈틀리쯔는 내 주패장과도 같다. 제일 높은 주패목을 누르자면 그를 리용해야 한다. 이것은 피를 동반하는 류혈적인 연극이다. 만일 슈틀리쯔가 자기에 대하여 내가 무엇인가 알고있다는것을 느끼게 되면 일은 끝장이다.)

《자, 그럼 좋네. 헬렌과 관련된 문제는 흥미있구만. 고맙네, 슈틀리쯔. 자넨 목사와 련계를 어떻게 가지자는 약속을 했겠지?》

《예, 했습니다.》

《복선으로 했겠지?》

《예.》

《나한테 그의 주소를 알려줄수 있겠나?》

《물론이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국경초소에서 통보가 왔는데 자네가 웬 녀자와 같이 국경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

《아닙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는 끼른슈타인부인과 그의 두 아이를 국경저쪽으로 넘겨보내주었습니다.》

《그건 어떤 녀자인가?》

《피난민이였습니다. 그 녀자의 남편은 우리 나라 꾸르프공장에서 시계기술자로 일하다가 잘못되였나봅니다. …폭격이 금방 끝난 때였는데 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길섶에 서있는것이 불쌍해보여서…》

《아이들은 몇살이나 되던가?》

《모두 어린것들이였습니다. 하나는 젖먹이어린앤데 정확히 몇살이나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위스땅에 들어서서 그 녀자는 어디서 내렸는가?》

《베른에서 내렸습니다.》

《호텔부근에서말이지?》

《예.》

《호텔이름은 뭐든가?》

《〈금관〉호텔이라고 합니다.》

뮬러는 어깨를 으쓱하며 혼자말로 주절거렸다.
《스위스공화정권이 왜 그렇게 포악무도한 왕국이 쓰던 이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거든?》
《내 생각엔 우리 도이췰란드에서 오래지 않아 이와는 반대로 모든 호텔이름을 〈공화〉라는 단어를 따다 짓지 않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빼앗긴것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하지요.》
《음 그럴수도 있지. 베를린에도 아마 〈로씨야궁전〉, 〈깔린까〉, 〈싸모와르〉란 이름을 가진 호텔이 생겨날걸세.》
《그리고 뮨헨에는 〈윌도프 아스토리야〉, 〈펜실바냐〉같은것이 생겨나고.》하고 슈틀리쯔는 뒤를 이었다.
뮬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팔다리를 쭉 펴 기지개를 하면서 물었다.
《자넨 〈위르 쥐냐〉려관에서 누굴 찾았나?》
《그럼 당신은 스위스에서도 나를 감시했는가요?》
《아니요. 감시가 아니라 자넬 보호해주었지.》
《그렇다면 대답하지요. 나는 그 려관에서 슐라그목사와 접촉한 한 교수를 찾았댔습니다.》
《그건 왜? 목사가 제발로 려관에 찾아오지 않았던가?》
《안전을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주었던겁니다. 그런데 교수는 목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후에 알아본데 의하면 그는 도이췰란드에 깊이 잠복하여있는 어떤 그루빠를 대표하고있는 사람인데 무슨 까닭에서인지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는 참 박식한 사람이였습니다.》
뮬러는 웃옷 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종이쪽지를 꺼내여 슈틀리쯔앞에 펼쳐놓았다.
《바로 그 교수가 우리 비밀아지트에 이 암호편지를 가져왔던거네. 생각나나? 내가 자넬 감방에 넣을 때 자네한테 보여주던거말이야. 흥미있지 않나? 암호는 그 매혹적인 젊은 녀자무전수에게서 발견된것과 꼭 같네.》
슈틀리쯔는 자기의 암호문을 보자 갖가지 생각이 일시에 떠올랐다.
(이제 이자가 나를 보고 왼손으로 글을 써보라고 하면 어쩐다? 미리 여기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과연 이것은 파멸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혹시 이자가 연극을 노는건 아닌가? 뮬러가 보르만에

게 내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보르만이 나에게 그것을 옮길리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할것인가?)

《중장각하, 당신은 나를 의심하는겁니까?》

《그렇네, 어느정도 의심하지.》

《어느정도 의심합니까?》

《나는 임자가 연극을 시작했다는걸 의심하네. 하지만 임자라고 왜 그렇게 하지 않겠나? 나도 인간으로서 임자를 리해하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제 생각을 하고있으니까…》

《그럼 내가 정말 그런 연극을 놀고있으면 어쩔텝니까? 당신이 비록 적의 포소리가 터지기 바쁘게 떠나갈 생각을 하고있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의거하지 않고 연극을 논다는게 어디 될말입니까? 당신은 아직도 나에게 누구와 함께 어디로 어떻게 떠날것인가 하는걸 말하지 않았지요? 당신은 기업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난 당신의 기업소에 돈이 아니라 생명을 바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참을성있게 목사와 사업했던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래게 목사의 누이와 아이들을 어디다 숨기고 불쌍한 아이스만은 목까지 매달번했겠구만? 지금 그 녀자는 어디 있는가?》

《스웨리예에 있지요.》

《거짓말 말게.》

《거짓말이면 묻지 말지 묻긴 왜 묻습니까?》

《그럼 내가 그 녀자를 찾아내면 목사가 나를 자네들의 패에 받아줄것 같은가?》

《내가 목사와 사업하는걸 당신이 승인하면 받아줄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업을 계속하는거지요.》

《그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건가?》

《그것은 슐라그가 현실적인 력량을 대표하는 인물로 되게 하자는 겁니다. 쉘렌베르그가 아니라 슐라그가말입니다.》

《자넨 덜레스가 그렇게 쉽게 립장을 바꿀것 같은가? 그리고 그에게서 내 이름이 월프이름보다 더 매혹적일것이라고 생각하나? 히믈러나 총참모부나 외교관들이나 할것없이 누구도 나를 월프처럼 자기들의 공작에 끌어들이려는 사람이 없네. 내가 겁쟁이라는건 바보도 알고있단말일세.》

《그렇지만 당신은 군부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꺾어놓고 우리 사업에 돌려세우는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수 있지 않습니까. 덜레스는 월프와의 회담은 실패했지만 그들과 마주앉는걸 마다하지 않을겁니다.》
《자네 쉘렌베르그와 언제 만나기로 했나?》
《당신이 알고있을텐데요.…》
《그의 전화기가 고장나서 우리 말을 잘 듣지 못하는구만.》
《7시 30분에 만나게 되여있습니다.》
《그를 만나면 〈쓰딸린은 누구에게서 베른에서 있은 회담에 대하여 알게 되였습니까?〉이런 질문을 해보게.》
《중장각하에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슈틀리쯔, 자네가 쉘렌베르그에게 그걸 묻고 그의 대답을 들어보라는거야. 이게 전부네.》
《중장각하, 당신은 내가 쉘렌베르그의 방에서 살아나오리라고 확신합니까?》
《확신하네. 다만 걱정스러운것은 자네가 래일아침 바벨스베르그에 있는 자기 방에서 무사히 깨여나겠는지 그건 확신할수 없구만. 그래서 내 운전사를 자네한테 붙여줄가 하네… 그렇네, 운전사를 붙여주지. 자네는 오른손을 다쳐서 차를 몰기가 힘들거네. 쉘렌베르그에게 이에 대하여 말하라구…》
뮬러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지방에 어느새 숄쯔가 나타났다.
《한스가 어디 있나?》
《여기서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를 방에 데리고 들어오게.》
잠시후 운전사가 들어왔다.
《한스, 오늘부터 이 사람을 돌봐줘야겠네. 이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있단말이야. 알겠나? 자넨 아래층에서 자면서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어선 안되네.내 친구는 모험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네. 자네는 나와 불쌍한 프리쯔를 대하듯 한발자국도 떨어지지 말고 잘 돌봐야 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중장각하!》

에쓰에쓰비밀조직

에쓰에쓰비밀조직을 내올것을 구상한것은 뮬러였다.

그는 에쓰에쓰의 골간을 이루는 자들을 구원하자면 1945년 3월, 지금부터 구상을 하지 않고서는 도이췰란드제국이 망해빠진 다음에는 어렵고 실천적으로 불가능하리라는것을 알았다. 그래서 뮬러는 누가 자기의 구상을 지지해주기만하면 에쓰에쓰성원들을 라틴아메리카와 에스빠냐 그리고 뽀르뚜갈과 친도적인 경향을 가진 아랍이슬람교국가들에 떠나보내기 위한 믿음직한 통로를 개설하는데 투자할수 있었고 동시에 지중해연안에 장차 에쓰에쓰의 거점을 꾸리기 위해 자그마한 호텔들과 주택들, 자동차와 뽀트같은것을 구입할수 있었다. 그밖에도 에쓰에쓰조직을 위해 일할 외국인들을 모집하고 국경뿐만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경찰들과 항공, 선박회사들에 첩보망을 꾸려놓을수 있었다.

뮬러는 바티칸과 련계가 밀접한 밀정들을 통하여 스무살난 보르만의 아들 알로이즈가 바티칸에서 오래지 않아 선교사의 벼슬을 하게 된다는것을 알았다.이것은 물론 나치스도덕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그러나 알로이즈는 물러서지 않았을뿐더러 이러한 행동에 대한 히틀러의 동의까지 받았다. 뮬러는 보르만이 제 아들 알로이즈가 민족사회주의승리를 위해 앞으로 차례질 벼슬도 마다하고 종교법왕의 측근자들속에 침투할 목적으로 바티칸에 갔노라고 히틀러를 구슬렸을것이라고 생각했다.

3월말경에 가서야 뮬러는 보르만이 에쓰에쓰와는 별도로 자기에게 충실한 민족사회당의 당원들을 세계 각지에 빼돌리기 위한 비밀통로를 준비하고있다는것을 확증해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보르만은 베를린과 련계를 맺고있는 바티칸외무성의 일부 교인들을 리용할 계획이였다.

뮬러는 보르만의 비밀통로를 알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썼으나 보르만은 엄격히 비밀을 지켜왔다. 그러나 뮬러는 중립국들에 주재하는 도이췰란드대사관안에서 전범자로 선포될수 있다고 보아지는 일부

민족사회당원들을 모두 다른 나라들에 은밀히 실어가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는 자료를 알아냈다.
 뮬러는 보르만에게 그가 아무리 아닌보살을 해도 보다 많은것을 알고있다고 옆구리를 쿡 찔러보았다.
 하지만 보르만은 뮬러에게 눈도 쳐들지 않고 차겁게 내쏘았다.
《그래 어쨌다는거요? 가령 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에서 뭔가 의심하는게 있소? 그들이 뭐 사리사욕을 채우던가? 아니면 나한테 뭔가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게 있소?》
 (이자는 언제면 나와 속을 털어놓겠는가? 이자는 무엇인가 늘 경계하면서 하던 말을 채 하지 않는다. 또 누구도 믿지 않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 그러면 왜 슈틀리쯔와 만난 후에 나를 보고 공동행동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했는가? 언제면 보르만이 실무일군들을 믿지 않고서는 안된다는걸 알게 되겠는지? 어느때 가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는지?)
《보르만씨, 나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도하고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더욱 그러하지요. 하지만 기술적문제들은 지어 그것이 민족사회당일군들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그런 문제는 당신이 손을 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문제는 나와 같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지 정치인들이 할 일이 아니지요. 당신의 적수들이 이걸 알기만하면 아마 당신이 패배주의에 빠졌다고 규탄하고 볼레가 책임진 나치스당 해외부서가 존재하고있고 볼쉐위크들이 베를린근방에서 격파당하고 승리가 가까와오는데 류사한 조직은 무엇하러 만들어내느냐고 떠들어댈겁니다. 그래서 내 회사는 전쟁이 도이췰란드의 비참한 패배로 끝나는 경우에 수십만의 충실한 민족사회주의투사들을 구원해줄 비밀중앙을 만드는데 동의를 얻어볼가 합니다. 나는 지금 일부 우리 외교관들과 군인들속에 단독평화가 가능하다는 여론이 나돌고있는 것으로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싶습니다. 이런 변절자들은 해외에서 버젓이 활개치며 살아갈 권리가 없지요. 나는 이제 나의 친위병들을 파견하여 세계의 그 어디에서든지 이자들을 감시하고 어떤 범죄적행동도 짓뭉개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쉘렌베르그에게 라틴아메리카에서 양키들과 빨갱이들을 반대하는 폭동이 성숙되여가고있는듯한 자료를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할 생각입니다. 총

통께서도 이런 공격정신이 마음에 드실겁니다. 지금 형편에서 이것은 총통에게 상처의 아픔을 덮게 하는 진정제와도 같이 느껴질겁니다.…》

《좋은 제의요. 그걸 어디 글로 한번 써보오. 내가 당신이 제기하는걸 총통이 리해하도록 잘 설명해보겠소. 그런데 당신은 뭔가 좀 준비해놓은게 없소?》

보르만은 손으로 코끝을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나는 이미 믿음직한 사람들을 도이칠란드제국에서 안전한 곳으로 비밀리에 옮겨가기 위한 통로를 준비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무료로 리용할수 있는 호텔들이 있고 라틴아메리카에는 주인없는 돛배들도 많은데 먼 친척들을 통하면 그런것들을 절반값에 살수 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준비가 다되였는데 나에게 행동승인이 요구됩니다. 당신은 해외에서 우리 사람들의 활동이 쉘렌베르그의 첩보망에 의해 속속들이 드러나고있다는것을 알고계시지요. 그러니 히믈러가 나를 보고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사람들을 빼돌리는가?〉하고 물을건 뻔하지요.》

《만일 내가 먼저 당신에게 그런걸 물으면 어떻게 하겠소?》

《그럼 대답하지요. 나한테는 지금 빠라과이, 아르헨띠나, 뽀르뚜갈, 에스빠냐, 싱가포르, 칠레국적으로 된 목사증명서, 운전사면허증, 공증서 등 7만여개의 훌륭한 증명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 사업의 리익을 대표하는 7천여명의 에쓰에쓰성원들과 담화도 진행하였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젊고 날파람있고 똑똑해보였습니다.… 한번은 내가 통로를 검열해보기 위해 놀음을 놀아보았는데 내 친구 한사람에게 가짜증명서를 주어 스위스국경을 넘은 다음 다시 이딸리아국경을 통과하여 로마에 들어가 내가 준 증명서를 바티칸증명서로 바꾸라고 했지요.》

《당신은 바티칸에도 누가 있소?》

보르만은 느닷없이 물었다.

《내가 이제 명단을 주겠습니다. 이딸리아사람들의 이름과 자꾸 혼돈해서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고맙소. 그게 흥미있어보이는구만. 난 바티칸에 대하여서는 전혀 아는것이 없소.》

보르만은 시치미를 딱 잡아뗐다.

뮬러는 또다시 생각을 굴리였다.

(무엇때문에 늘 거짓말인가? 무슨 흠집이 있어서 그러는가? 너의 아들 알로이즈는 지금 바티칸에 있지 않는가?)

《어서 계속하오.》

보르만은 재촉하였다.

뮬러는 후－한숨을 쉬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친구를 보고 그가 도이췰란드나 스위스 혹은 이딸리아에서 불들리기만하면 련계를 끊어버리고 아예 도움을 주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것이 전투환경에서와 같이 진행되여야 한다고 했지요.》

뮬러는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국제전보용지를 꺼내서 보르만에게 내밀었다.

《이건 뭐요?》

보르만은 뜨아해하며 물었다.

《이걸 좀 보십시오.… 그는 벌써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소식을 보냈습니다.… 암호전보에는 이렇게 씌여있습니다.〈에스빠냐회사 광고대리인으로 취직함. 뿐뜨 아레나스근방의 한적한 곳에 집 두채를 구할수 있음. 중형발동선과 잠수함도 얻을수 있음. 4만딸라의 돈이 요구됨. 아직 세명을 더 받을수 있음. 바티칸에서 아무 말썽없이 증명서를 바꾸었음.〉》

《당신은 이런 방법으로 세계도처에 새로운 에쓰에쓰첩보망을 조직할수 있다는거겠구만?》

《로씨야에는 곤난하지요. 하지만 우리 력량이 강한 라틴아메리카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보낸 그 젊은 친구는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소?》

《다섯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달에 벌써 당신은 패망한 후에 자기 사람들을 구원할 생각을 했겠소? 당신은 도이췰란드제국을 너무 일찌기 장사지내는게 아니요?》

그러자 뮬러는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1943년 2월 우리가 쓰딸린그라드에서 패전하자 벌써 장례

식이 도이췰란드제국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알았지요.》
《당신은 어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거요?!》
《보르만씨, 당신네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전에 벌써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총통에게 충실할것이요. 총통은 최후승리를 굳게 믿고있소!》
뮬러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우고 쿨럭쿨럭 기침을 했다.
《나는 자기에 대한 불신임을 느낄 때면 몹시 당황해진답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서로 성실치 못하게 대하던 시기는 끝나고 이젠 서로 진실을 말할 때가 된것 같은데…》
보르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오락가락하더니 창문옆에 다가가 이마를 유리창에 지그시 붙인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하였다.
《뮬러씨, 당신의 그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여있는지 그거나 한번 말해보오. 당신들은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떻게 외국과 련계를 맺으려는거요? 그리고 현재 인원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는 어느정도 불어나겠는지? 또한 조직성원들의 선발원칙은 어떻게 되여있고 성원후보자를 누가 확인하는가 하는것이요. 아마 조직성원들의 가족들도 문제로 제기될테지? 그리고 세계 각곳에 널려있는 성원들사이의 련계는 어떻게 취하고 본부는 어디에 두려고 하오? 본부의 기구도 알고싶구만. 명령은 누가 어떤 형식으로 떨구게 되는지?》
뮬러는 보르만이 참모부와 그의 구조에 대하여 다시말하여 누가 비밀조직의 책임자로 되겠는가 하는 기본문제에 대하여 제일 관심이 갔으나 그런것은 마치 부차적인듯 제일 마지막에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쿨럭쿨럭 기침을 했다. 그러나 뮬러는 보르만의 연극을 받아들이고 그가 제기한 순차대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이 조직의 구조는 두층으로 되여있습니다. 초시기에 우리는 조직의 첫번째층을 비밀은행련합체로 부르자고 하는데 그것은 쓰딸린, 루즈벨트, 쳐칠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전범자로 규정된 에쓰에쓰장교들을 구원할 때 쓰려는것입니다. 이들은 민족사회당, 제국안전총국, 군부의 기구들에 복무하였다는것으로 하여 모두다 례외없이 전범자로 규정될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도이췰란드에 너무도 빤드름하게 알려져있기때문에 숨을래야 숨을곳이 없지요. 게다가 우리는 나라가 망한 후에 배신행위가 광란적으로 일어나리라는것을 알

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믿음직한 에쓰에쓰성원들을 미리 다른 나라에 빼돌려야지요. 그리고 조직의 두번째 층은 앞으로 투쟁을 계속하기 위하여 세계 도처에 거점을 꾸리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외국과의 련계는 우리가 속히 빼돌리게 될 그 장교들이 맺어줄겁니다. 겝벨쓰의 선전은 나무랄데가 없는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멀리서 보면 가까이에서보다 다르게 보이지요. 게다가 다행히 똑똑한 놈들도 많지 않은가 봅니다. 사람들은 귀가 벌쭉하여 믿고있지요. 그래서 아르헨띠나, 빠라과이, 에스빠냐, 뽀르뚜갈에는 매우 유리한 사업환경이 조성되여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직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버마, 보르네오같은데서 우리의 전투적인 동맹자인 일본친구들이 가지고있는 가능성을 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도 전통적으로 보면 런던이나 카나다와 련결된 대상업기지들이 있고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 좋은 길이 있지요.… 나는 당신이 내가 승인을 받지 않고 좀 자의대로 행동했지만 그쯤한걸 나무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미 자동차, 화학, 항공회사의 내 친구들과 아시아의 이 지역에 지점을 내오는게 어떻겠는가 토론해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영국과 미국이 성을 내며 거절하겠지요. 그러나 경제는 감정보다 강한것이라는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 서방경제가 도이췰란드가 없이 한걸음이나 움직여낼것 같습니까?》

《기업체들이 당신에게 문건으로 자기들의 계획을 적어냈소?》

뮬러는 피식 코웃음을 쳤다.

《보르만씨, 기업체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것 같습니까?》

《왜 안한다고 그러오?》

《그들은 관청에 들어앉아있는 당신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는겁니다. 승인만 받으면 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주일이면 제기된 의견을 작성할수 있을겁니다.》

《그다음에는 동맹국들이 알게 되겠구만. 그들은 뮬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여 이런 전망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가 퍽 놀랄거요. 이렇든 저렇든 제기된 모든것이 잘되리라고 보오.》

《이게 전부입니다. 아니, 전부가 아니지요. 당신이 옳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미처 비밀이 새나갈수 있다는걸 생각못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보르만도 늘 과오만 범하는건 아닌 모양이지? 때로는 쓸소리도 하는가보군.》

보르만은 껄껄 웃었다.
《어서 계속하오.》
《에쓰에쓰비밀조직에 인입된 성원수에 대하여 말한다면 지금 수자를 찍어서 말하기 힘들지만 대체로 3만명가량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원칙에서 계산한거요?》
《내가 만일 2년전에 벌써 이런 계산이 꼭 필요할것이라고 인정할수 있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던 시초에 승리만이 아니라 패배할수도 있다는것을 확고한 법칙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런 계산체계를 세워놓았을겁니다. 이것은 그리 나쁘지 않은 체계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지금 나는 매우 유치한 길로 가지 않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구원해야 할 내 기구의 인원 200명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의 의도를 허락하시면 나는 로씨야, 우크라이나, 뽈스까, 프랑스, 에스빠냐, 유태인담당 지도자들과 공업 및 은행들에 대한 감독자들, 사상문제와 교회, 청년단체들을 담당했던 사람들, 수용소에서 일하던 일부 사람들을 지금 미리 준비된 지역으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거점으로 정한 지역으로서는 마드리드, 바르쎌로나, 바티칸, 리스봉,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같은 도시들입니다.》
보르만은 세계지도를 한참이나 쳐다보더니 얼굴에 미소를 띠우며 말했다.
《로정이 아주 구체적이요. 괜찮소.》
《로정을 보면 물론 여기에 시간상 요인으로 하여 일정한 비용이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스타포부서 책임자들도 모두 내 사람들인것은 아닙니다. 칼텐브룬너가 종종 자기가 비호하는 사람들을 올려놓았으니까요. 그러니 자기 부하라고 해서 전적으로 의거할수는 없지요. 그러나 함부르그, 오슬로, 쾨뻰하븐같은데는 내가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꼭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당신이 허락만 하시면 내가 그들에게 명단을 작성하라고 과업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문건으로 만들지 말고 말로 하도록 해야지요. 인원선발은 나에게 맡기고 당신은 그것을 검토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자들의 가족들에게는 남편들이 희생된것으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좀 가혹하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가족들이 사방으로 남편들을 찾아다닐겁니다. 그

러면 적들이 그들의 뒤를 밟을수 있고 나중에는 우리 일에 대하여 알아낼게 아닙니까. 세계 여러 지역에 널려져있는 그루빠들사이의 련계문제는 당신이 말한 본부에 대한 문제와 련결시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민족사회당 당총재의 에쓰에쓰담당특별보좌관이라는 또하나의 직무를 비준하여준다면 이 계획은 훨씬 무게있게 되여 내가 지금 당장 모든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수 있을것입니다. … 물론 그러한 직무는 어떤 경우에도 문건으로 고착시켜선 안되리라고 봅니다.》

《당신은 내 친구 히믈러의 이름을 잊은건 아니요? 누구도 아직 그를 에쓰에쓰부총통의 직무에서 해임시킨 사람이 없소.》

《그를 해임시키도록 해야지요.》

뮬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부총통이 지하실에서 사는것을 질색한다는것을 알고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또 뭐요? 어서 말하오. 말을 도중에서 끊는건 례절없는 행동이지.》

《부총통은 당신과 적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를 우리 일에 끌어들이려 합니까? 그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럼 칼텐브룬너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오?》

보르만은 생각에 잠겨 물었다.

《그가 왜 조직의 책임자가 되지 못하겠소? 당신은 참모장 겸 부책임자가 될수 있지 않겠소?》

《나는 칼텐브룬너를 믿을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그럴만한 근거라도 있소?》

《있구말구요.》

《뭐요? 말해보오.》

뮬러는 머리를 외로 저었다.

《미안합니다만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어느때도 밀고자가 되여본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직접 칼텐브룬너를 검토해보면 내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될겁니다.》

《그건 어떤 방법으로말이요?》

《당신이 칼텐브룬너에게 까나리스와 사업해보라는 과업을 줘보십시오.》

보르만은 흠칠 놀랐다.

《무엇때문에 꼭 까나리스와말이요?》

《보르만씨, 나는 당신에게 할수 있는 말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뮬러는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보르만은 다시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우리 에쓰에쓰비밀조직을 무엇이라고 부르려고 하오?》
《나는 이 조직의 이름을 략어로 〈오데싸〉라고 지었습니다. 〈오데싸〉를 우리 조직이라고 불러주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뮬러, 일을 시작하오. 그러되 우리 조직의 출발점이 여기 도이췰란드제국의 수도 베를린이 되도록 잘 생각해보오. 그리고 예비본부도 수도에 두어야겠소. 이제 시가전이 벌어지게 될거요. 그렇소. 바로 그렇소. 당신은 이러한 혼돈속에서 방향을 옳게 잡아가지고 몸을 피하려면 지하실이며 지하철도같은것도 잘 알아두어야 할게 아니요?》

숨막힐듯한 봉쇄속에서

《슈틀리쯔, 당신은 왜 제 스스로 이마에 총알을 박지 않았소?》
쉘렌베르그는 녀자손같이 부드러운 손을 슈틀리쯔의 어깨우에 얹으며 이렇게 물었다.
《내가 장례는 훌륭히 치르어줄걸 담보하지.》
《나는 론리학자입니다. 나같은 류의 인간들은 사건을 너무 서두르는것을 두려워한답니다. 그것은 내가 만일 쓰러지면 한시간도 되기전에 살아있는 내가 더 쓸모있다는것이 밝혀지겠으니까요.》
《나한테는 당신이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걸 그랬소.》
《월프와 덜레스와의 회담이 파탄된것을 누구에게 넘겨씌우려고말입니까?》
쉘렌베르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였다.
《물론 그렇소.… 그럼 뮬러와 한 이야기나 좀 말해보지.》
《우리는 스위스에서 진행한 공작에 대하여 이야기했던겁니다.》
《솔직히 말해보오. 뮬러가 뭘 말했소?》
《그는 나보다 더 많은걸 알고있더군요. 모든걸 죄다 알고있더란말입니다.》

《뮬러가 모든걸 다 알고있다면 당신은 벌써 고문대에 올라선지도 오랬을거요. 그리고 나도 아마 까나리스와 한감방에 들었을게고. 그는 자기에게 허용된 범위의 일이나 알지 다는 몰라. 나에게는 뮬러가 또 필요하게 됐소. 이제 우리가 누구를 시켜서 뮬러에게 가짜정보를 제공해주어야겠소. 왜 내가 당신이 일을 망쳐먹었는데도 이렇게 털어놓고 말하는지 알겠소?》

《일은 내가 망쳐먹은게 아니지요.》

《그럼 누구요?》

《우리가 함께 망쳐먹었지요. 무엇보다 월프가말입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거요?》

《생각하지 않구요. 늘 생각하고있지요. 그렇다면 내가 일을 망쳐먹었는데 당신은 왜 나와 털어놓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뮬러와 그렇게 짝자꿍이를 하는게 얼마나 무분별한 행동인가 하는걸 알라고 좀 그랬댔소. 우리 정탐기관은 물에 가라앉았다가도 솟아오를수 있지만 뮬러의 게스타포는 물에 가라앉고말 운명에 처해있단말이요. 당신은 정말 뮬러한테 가군했댔소?》

《그럼요.》

《뮬러가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당신을 불렀단말이요?》

《소장각하, 당신은 모든걸 잘 알고있지 않습니까. 내가 슐라그목사를 스위스로 넘겨보낸 바젤근방의 우리 통로에 있는 국경초소의 장교가 뮬러에게 흡수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은 당신이 정한 통로라고 하지만 결국 게스타포의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역리용되고있었다는것입니다. 뮬러는 이 장교를 통하여 슐라그에게 감시를 붙여놓았습니다. 스위스에는 아직도 뮬러의 세력이 강한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각하, 우리가 공작계획에 예견한대로 슐라그는 덜레스의 관심을 끄는 인물이였습니다. 목사는 덜레스를 월프에게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력사가 짧은 미국이고보니 그럭저럭 첩보공작은 조직하고있으나 경험이 어리여 모조리 폭로되고있지요. 뮬러는 목사가 나와 련결되여있다고 하여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알고있는것은 나한테 백분의 하나도 말하지 않지요. 나는 우리가 여기서 한 이야기도 죄다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법이야말로 승냥이법이지요. 하긴 그 회사를 내가 만들어낸건 아니지만…》

《나도 만들지 않았소.… 당신은 우리가 한 이야기중에서 뮬러에게

뭘 말하려고 하오?》
《각하가 허락하는걸 이야기하지요.…》
쉘렌베르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한동안 방안을 거닐다가 책장옆에 멈춰서서 뚜껑이 낡은 책을 끄집어내여 몇장 벌컥벌컥 번지더니 읽기 시작하였다.

풍자와 해학의 아버지 스비프트는 벌써 어려서부터 자기가 광증에 걸리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어느날 그는 정원에서 윤그와 함께 산책하던중 나무꼭대기의 나무잎이 다 떨어진것을 보았다. 스비프트는 윤그에게《나도 꼭 저것처럼 머리정수리로부터 죽기 시작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생의 말년까지 고관대작의 높은 벼슬로 당당히 살아가던 스비프트는 제일 초라한 술집들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밤낮 트럼프놀이군들, 강도들, 방탕한 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선교사로서 반종교내용의 책을 썼는데 스비프트에 대하여 사람들은《그에게는 주교의 칭호를 주기보다 세례를 다시 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스비프트는 자기자신에 대하여 《머리가 둔하고 귀가 어두우며 무맥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썼다. 자기모순에 찬 그의 말은 놀랄만한것이였다. 사랑하는 녀인이였던 스쩰라가 사망하였을 때 그는 절망에 빠져버렸다. 그러나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그는 《하인에 대한 편지》를 썼다. 그후 몇달 지나 스비프트는 기억력을 잃게 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은 여전히 면도칼처럼 날카로왔다. 얼마 지나 그는 인간증오병에 걸려 방구석에 처박혀 글을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한해를 고독하게 보냈다. 스비프트는 음식도 밀어버렸으며 문지방에 몸종이 나타나면 광증을 일으키군하였다. 그는 온몸이 헌데투성이였으나 정신은 잃지 않아 늘 《나는 정신병자다!》라는 말을 반복하군하였다. 스비프트는 완전한 허탈상태에 빠져버렸다. 그러나 종종 그의 머리속에는 그전과 같이 풍자적인 말마디들이 되살아났다. 그가 죽기 몇달전에 그를 위해 전광장식이 설치되자 스비프트는《이 정신병자들이 주위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아가지 않았으면…》라고 말하였다. 세상을 떠나기전에 그는 1만 1천파운드를 정신병자몫으로 주는것을 거절하고 유서를 남기였다. 그는 늘 자기를 괴롭히던 정신적고통을 표현하여 이런 비문을 남기였다.

《여기에 스비프트가 안치되여있다. 그의 심장은 멸시로 하여 더는 터지지 않을것이다.》

쉘렌베르그는 책을 제자리에 꽂아넣고 슈틀리쯔에게 홱 몸을 돌리였다.
《당신은 내가 왜 이 책을 읽었는지 알만하오?》
《뮬러의 진짜 속심이 뭔가 하는걸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읽는게 아닙니까?》
《뮬러는 보르만을 위해 일하고있소. 당신도 이것을 알고있소?》
《소장각하, 그 짧은 대목이나 읽어서야 보르만의 속심을 알수 없지요.》
《슈틀리쯔, 가련한 보르만의 심장은 주위사람들을 너무 멸시하다가 터져버렸소. 그는 터진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있소.…》
(쉘렌베르그, 네놈도 그 어떤 음모에 나를 끌어들일 궁리를 하고있다. 이자들은 모두 무엇인가 알고있는데 나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나를 놓고 연극을 꾸미고있는것이 분명하다. 내가 그것을 똑똑히 모르면 살아남을수도 없을것이다. 뮬러와 쉘렌베르그가 함께 연극을 놀고있는건 아닌가? 이자들이 서로 자기들의 견해를 나눌수도 있지 않을가? 그런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들이 묻는 말이 어떻게 그처럼 정확하고 군말이 없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나한테 유리한것이다.)
《별일없습니다. 심장은 터졌지만 간장과 혈관, 신장과 뇌수가 제대로 움직이면 그럭저럭 살아갈수 있지요. 이런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대신 머리속에 다른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궁리가 있기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슈틀리쯔는 말하였다.
《오! 당신은 정말 총명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같으면 용서하지 않겠지만 당신은 용서했던거요, 슈틀리쯔, 당신은 내가 그걸 바라건 바라지 않건 관계없이 내가 하는 일을 죄다 손금보듯 알고있구만. 그러니 당신한테 뭘 더 숨기겠소. 당신은 내가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있다는것을 확신하면 어떻게 행동한다는걸 잘 알고있겠지. 우리는 수닭처럼 서로 마주서서 말싸움질이나 하는 코흘리개아이들이 아니요. … 우리는 우리의 상급인 히믈러부총통이 무엇을 생각하고있고 총통의 후계자 게링그 제1부총통이 무엇을 생각하고있

으며 구데리안과 헬렌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에 도청장치가 없다고 안심하면서 자기들끼리 마음놓고 지껄인 소리도 다 알수 있지만 보르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건 내나 당신이나 알수 없소. 슈틀리쯔, 내 생각엔 보르만이 가까운 앞날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오?》

《당신이 잘못 본것 같습니다. 그는 총통과 떼여놓을수 없는 사람입니다.》

《슈틀리쯔, 그런게 아니요. 보르만은 부총통 슈트라쎄르와 떼여놓을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를 배반하고말았소. 그뿐인줄 아오? 보르만은 또한 돌격대장이였고 민족사회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던 에른스트 렘과 막역한 사이라고 하였는데 결국 그를 살해하는데까지 참가했댔소. 당부총재였던 헤쓰를 배반한것도 보르만이였지.…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 털어놓고 말하는지 알겠소? 이전에는 이렇게 까밝힌 일이 없었소. 알만하오?》

《잘 모르겠는데요.》

《슈틀리쯔, 이제 곧 쥬꼬브가 베를린을 들이칠거요. 우리가 비록 젤롭스크고지에서 쥬꼬브의 땅크를 며칠동안은 견지해낼수는 있겠지만 이렇게만 되면 끝장이요. 오늘저녁 헬렌이 총통에게 로씨야무력이 우리보다 다섯배이상 된다고 보고했다오. 이건 사실이요. 내 귀로 직접 들었으니까. 당신은 무너지는 우리 건물의 벽돌장에 깔려 죽고싶소? 나는 그러고싶지 않구만. 자, 내 손을 잡고 내가 하는 일을 함께 하겠다고 맹세를 다지오. 여기서 우리 둘이, 아니 셋이서 도망치잔말이요.》

《세번째사람은 누가 됩니까?》

쉘렌베르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세번째사람이 뮬러면 어떨것 같소?》

《그럼 당신은 내가 없는동안에 뮬러와 관계를 개선하였는가요?》

《난 뮬러와 좋은 관계를 가질수 없소. 그저 실무적관계나 가질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봤을뿐이요. 그가 하는 일이란 고작 살궁리를 하는거라오.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선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결심이요.》

《당신은 뮬러가 당신의 발에 연덩이를 매달아 물에 처넣으려 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슈틀리쯔, 뮬러는 우리모두를 물에 처넣어 죽이려 하고있소. 그러니 나와 당신을 따로 가르지 말란말이요. 뮬러는 많은 자료를 알고있소. 그는 〈붉은 관현악단〉이라는 암호를 가진 로씨야간첩망을 적발했는데 나도 그때 그를 도와 해외공작을 지휘했댔지. 뮬러는 어떤 사건이든지 일단 종결짓고는 모든 통로를 다 끊어버리는것이 아니라 예비선을 꼭 남겨둔다오. 모스크바에서 그 통로를 리용하여 새로운 정탐을 파견하기를 기다리느라고 그러는건지 뮬러는 이런 예비선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소.》

(혹시 웨딘그와 포츠담에 파견된 무전수들도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리는것이 아닐가? 그럴수도 있어. 그럼 내가 그들이 기다리는 첫 손님이 될테지.)

슈틀리쯔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쉘렌베르그는 성냥을 득 그어 담배불을 붙인 다음 밀납을 먹인 성냥가치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한참이나 들고보다가 그것을 재털이에 던져버리고 말을 이었다.

《뮬러는 한때 깊이 잠복한 로씨야정탐망사건을 취급하고있었는데 나는 1940년말에야 그것을 알게 되였소. 당신도 그것을 잘 기억하고있을거요.》

《생각나구말구요.》

슈틀리쯔는 대답했다.

어찌 그 일을 잊을수 있으랴. 그 공작조가 드러나면서 슈틀리쯔는 자칫하면 폭로될번했다. 한 망원이 놈들의 고문에 굴복하여 불기 시작한것이 그만 망전체를 폭로시킬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슈틀리쯔는 변절자와 한번도 접선한 일이 없었다. 게다가 슈틀리쯔와 련계를 가지고있던 공작원이 심문과정에 예심원의 방 창문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여버렸던것이다.

《뮬러는 슐쯔 보이젠과 하르나크사건을 취급하였댔소. 그는 이 소조에서 어떤 사람들이 남아서 숨어있는가 하는것도 알고있소. 또한 뮬러는 안똔 줴프꼬브사건을 취급했소. 나는 그가 6월 20일음모(히틀러에 대한 암살음모)참가자들에 대하여서도 물론 많은것을 알고있다는건 말하지 않겠소. 지금 도이췰란드땅에 있는 로씨야정탐망에 접근하고있는 서방사람들은 이런 음모사건에 별로 흥미가 없어하오. 하긴 덜레스란 사람은 좀 사정이 달랐지.》

《소장각하, 덜레스는 지금도 장군들의 그 음모사건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것처럼 덜레스가 도이췰란드땅에 있는 로씨야정탐망에 첫째가는 관심을 가지고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자료들이 아주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뮬러가 우리 문건을 전부 안고있다가 교수형을 당하지 않을가요?》

《도이췰란드제국이 패망한 직후에 인차 잡히면 그럴수도 있소. 그러나 현조건에서 우리의 임무는 필요한걸 미리 빼돌리는거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을걸. 초기 몇달동안에는 붙잡힐것 같아 우려할수도 있겠지. 그러나 걱정할건 없소. 머리의 열이 점차 식어지고 그때의 감정도 차츰 가라앉을거란말이요.》

《뮬러도 역시 어떻게 떠난다는걸 알고있습니까?》

《아무렴 여부가 있을라구. 그는 누구보다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있소.》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이구말구. 난 그걸 다 알고있소. 뮬러에게도 내가 알고있다는걸 암시했지. 그는 내 힘이 어느정도라는걸 알고있는 사람이요. 뮬러가 가지고있는 로씨야문제에 대한 깊은 파악이 우리의 동맹을 더 귀중한것으로 만들어주었나보오. 우리는 그 어떤 상담소 비슷한것으로 될거요. 현금주문을 받아서 빠라과이같은데 송금도 하구. 이건 내 구상인데 실천을 하자고보니 사람이 필요하구만. 두사람은 있어야겠소. 그중에서 한명은 유태인혼혈아가 돼야 하오. 물론 순수한 유태인은 안되오. 한두대에 넘어갈 얼치기면 더 좋지. 에이흐만에게 훌륭하게 만들어놓은 인물카드가 있소. 유태인을 공작에 끌어들이기전에 당신이 그와 사업을 잘해보오.》

《어떤 공작에말입니까?》

《우리는 그를 스위스로 보내려 하오. 그가 스위스에서 뭘 해야 하는가 하는건 후에 알려주겠소. 또 그가 접선해야 할 사람의 이름도 알려주겠소. 우리는 수용소에 갇히여 죽게 된 불쌍한 유태인들을 광신자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오.》

《소장각하, 첫째로 난 아직 누구와 사업해야 할지도 모르고있고 둘째로는 이 사람에게 무슨 준비를 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쉘렌베르그는 슈틀리쯔의 말은 듣지 못한듯 또 담배를 붙여물고

제 말만 계속했다.

《두번째사람은 다그마르 프라이따흐라고 하오.》

쉘렌베르그는 슈틀리쯔에게 문건을 내밀었다.

《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료해한 다음 돌려주오. 이 녀자는 참 보기드문 녀자요. 인물도 곱지만 똑똑하기가 이를데 없소. 그리고 어머니는 스웨리예녀자요. 당신은 늦어서 닷새동안에 이 녀자를 잘 준비시켜 스톡홀름으로 보내야겠소. 련락형식과 방법은 연구해보오. 프라이따흐는 스톡홀름에서 어문학박사, 스칸디나비아어전문가로서 스웨리예왕국도서실에 들어가 도이칠란드어와 스칸디나비아어의 공통점을 연구하는체하면서 베르나도트백작의 가정에 접근하도록 해야하오. 알겠소? 슈틀리쯔, 난 베르나도트백작과 연극을 놀아볼가하오. 뮬러가 그러는데 당 부총재 보르만이 당신의 이름을 안다고 그러더군. 당신은 베른에 있는 우리 대사관 참사와 만났던거지? 아마 그래서 보르만이 당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것 같소. 그러니까 당신은 한동안 칼텐브룬너와 뮬러에게서 피해를 볼것 같지는 않소. 그러나 보르만이 베르나도트에 대하여 알게 되는 날이면 내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줄터이니 내가 용서하지 않겠소. 여기 이 사무실에서 당신을 총살해버리고말테요. 알겠소?》

《알겠습니다. 소장각하. 당신은 나를 정말 궁지에 몰아넣을셈이군요. 이제부터 밀정들이 걸음마다 내뒤를 따라다니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엿듣겠지요. 그럴테면 그러라지요. 난 오히려 그렇게 사는것이 더 재미있는걸요. 당신은 나를 이 방에서 쏴죽이겠다고 하지만 그건 온당치 못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것은 당신에게 만회할수 없는 무서운 타격으로 되리라는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돌아가도 좋습니까?》

쉘렌베르그는 마비가 온듯 한동안 옴짝하지 않았다. 그의 눈길에 심한 자책과 고뇌의 빛이 어리였다. 그러나 그는 흔연히 미소를 지으며 너그럽게 말했다.

《당신 정신이 나가지 않았소?》

《소장각하, 우리모두가 다 죽을건 뻔하지만 난 정신착란증으로는 죽지 않을겁니다.》

《그럼 당신은 왜 나를 위협했는지 그거나 말해보오.》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슈틀리쯔, 당신이 어떻게 감히…》
《감히 말할수 있지요.》
슈틀리쯔는 쉘렌베르그의 말허리를 단호히 꺾어버렸다.
《소장각하, 이제는 모든것이 끝장입니다. 지금은 상급도 없고 하급도 없지요. 그저 똑똑한 사람들과 머저리만이 있을뿐입니다. 그리고 박식한 사람들과 암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배는 우리 사회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좋은것과 나쁜것을 만천하에 발가놓을겁니다. 여기엔 그 어떤 관용성도 없지요. 다만 진실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것입니다. 하기에 지금은 내가 당신의 관심을 끄는것 못지 않게 당신 역시 내 관심속에 있다는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총통이 엄금시켰지만 몰래 하느님을 믿는답니다.》
쉘렌베르그는 의자에서 무겁게 몸을 일으킨 다음 뒤짐을 지고 방안을 천천히 거닐다가 창문옆에 우뚝 멈춰섰다. 눈앞에는 폭풍에 날아나지 않게 유리창에 십자로 붙여놓은 허연 반창고만이 얼른거렸다. 그는 후 무겁게 한숨을 내쉬고는 가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슈틀리쯔, 당신은 점점 내 마음에 드오. 당신이 한 말이 다 옳소. 우리 고위급들이 나라를 망쳐먹은건 사실이요. 당신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소. 가시오. 에이흐만에게 가서 똑똑하면서도 용감한 유태인이나 하나 찾아주오. 그는 나의 개인대표로서 스위스유태인공동체책임자와 전 스위스대통령 무지를 만나야 하오. 그가 무슨 장사를 하며 값은 어떻게 정하겠는가 하는건 후에 당신이 내가 준 과업을 집행하고 나에게 〈유태인은 사업에 착수할 준비가 되였습니다. 만일 그가 우리를 배반하면 나는 자총하고말겠습니다.〉 하고 보고할 때 알려주겠소. 어떻소, 이렇게 하는게 마음에 들겠소?》
슈틀리쯔는 머리를 끄덕이고는 맥없이 소리쳤다.
《하일 히틀러!》

× ×

뮬러는 슈틀리쯔를 무섭게 쏘아보며 씨벌였다.
《옳아, 자넨 내 사업을 정확히 알아맞혔어. 내가 일을 시작한것도 사실이고 쉘렌베르그와 일련의 문제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자고 한것

도 사실이야. 그리고 또 실지 앞으로 덜레스가 파견한자들과 장사를 하려고 문건도 준비하고있지. 내 운전사 한스가 자네에 대하여 모든걸 나한테 보고하게 된것도 사실이네. 그러나 이건 자네가 쉘렌베르그가 준 과업을 수행할 때 그가 자네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노릇이라는걸 알아야 하네. 슈틀리쯔, 덤비지 말고 침착하라구! 쉘렌베르그가 자네없이는 어쩔수 없다고 느끼도록 그에게 딱 붙으란말이야. 그리고 보르만앞에서 나한테 속을 터놓듯이 아무 말이나 해선 안되네. 쉘렌베르그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볼줄 알지만 보르만은 그런 기질이 없어. 언제 한번 실천은 못해봤으니까… 남에게 지시를 주기는 쉽지만 그걸 실천하는 일이 어디 간단한가.》

뮬러는 구석쪽으로 가서 육중한 철궤문을 열고 문건을 하나 꺼내여 슈틀리쯔앞에 놓았다.

《이건 해군제독 까나리스에 대한 자료요. 방법이 좀 졸렬한데는 있으나 그런건 개의치 말고 읽어보게. 원문이네. 여기에 씌여진것을 보면 내가 왜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가 하는걸 알게 될걸세. 난 로씨야와 미국간의 싸움을 념두에 두는거요. 오직 이것만이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줄테니까. 읽어보게. 난 자네를 자신처럼 믿는단말이요. 자네도 이걸 읽어보고 알아야 해.》

문건에는 이러한 내용이 씌여있었다.

백악관 측근자의 통보에 의하면 루즈벨트대통령은 1941년 여름 미전략정보국을 조직할데 대한 지령을 내렸다. 전략정보국은 정치첩보사업과 적대국들에 대한 《흑색》선전을 진행하게 되여있다. 전략정보국장자리에는 쉰여덟살난 윌리암 죠제프 도노완이 들어앉았다. 미국에서는 그를 《야만》이라고 부르고있다. 공화당출신인 도노완은 집권당인 루즈벨트민주당의 공개적인 적수이며 아일랜드 카톨릭교도이다. 도노완은 성질이 사납고 무슨 일에서나 제가 똑 제일이라고 우쭐거리는자이다. 그리고 그는 백만장자이며 월가의 대자본가들을 대변하는 변호사회의 회장이다.

도노완은 전략정보국장자리에 들어앉자바람으로 루즈벨트대통령의 측근자의 한사람이였던 로버트와 충돌하였다. 로버트로 말하면 대통령의 모든 연설작성자였다. 그러므로 그는 대통령의 보좌관격으로 제일 중요한 부서에 배치되여있었다.

모든 구상은 실지 사업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영향하에서 실천에

옮겨지는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고 고치는것은 그 구상을 내놓은 사람이 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는것이다.
루즈벨트의 초기구상은 전략정보국을 륙해공군합동참모부에 배속시키려는것이였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참가자로서 미국의 최고훈장을 세개씩이나 수여받은 도노완은 전략정보국을 합동참모부에서 분리하는데 성공하고야말았다.
우수한 작전가였던 도노완의 두뇌는 비상하게 움직이였다. 그는 웨스트 포인트사관학교 졸업생들 다시말하여 군부출신의 간부군인들을 많이 전략정보국에 끌어들임으로써 우선 장성급들을 안심시키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민》들에게 뒤문을 열어놓고 미국의 대기업체들과 은행의 리익을 대변하는자들을 끌어들이였다. 미국에서는 교육기관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것이 아니라 기업체들로부터 받으면서 동시에 기업체들에 과학과 기술로써 봉사해주는것이다. 이런 실정에서 전략정보국에도 역시 공업과 금융계의 거두들과 함께 가장 우수한 교수들이 들어왔다.
도노완은 초시기 이런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긁어모아 참모부를 꾸렸다. 그는 아래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껄이였다.
《친구들, 우리는 어떤 일이나 달성하려는 목적을 알고 시작해야 하오. 우리는 국무성 관료주의자들만 쳐다보고서는 한발자국도 전진할수 없소. 외교사업이란 공식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일은 제일 시초부터 그렇지 않소. 우리가 국무성의 비난이나 막을 생각을 하고 군대와 협동하려 든다면 이들은 서로 협동하여 우리를 못살게 굴고 자기들에게 복종시키려 할것이요. 군대에야 얼마나 큰 권한이 부여되여있소. 그들은 종횡무진으로 넓은 땅을 공격하고 강점할수 있지만 우리 일은 이런것과 아무런 공통성이 없소. 우리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야 하오. 우리는 로마, 방코크, 베를린, 마드리드에서의 정세발전추이를 단순히 아는데만 그칠것이 아니라 이러한 추이를 조직하여야 하오. 그리고 사람들을 키우고 여론을 조성하며 지하당과 수상재목감을 미리 골라 준비시켰다가 일단 유사시에 우리 국무성이 그들과 사업하도록 해야 하오. 군대도 물론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지. 미국을 위하여 우리는 그늘속에 숨어있어야 하오. 승리자의 월계관은 사진기자들앞에 나서도 일없을 사람들에게 씌워

주잔말이요. 원래 큰일을 하는 사람은 떠들썩하게 소문을 내는걸 좋아하지 않소. 우리는 큰일을 위해 손을 좀 쉬여야겠소. 우리에게는 돈이 얼마든지 있소.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품값을 물어주는 방법을 배우는것이 중요한것이요. 당신들은 수전노짓을 하거나 쩨쩨하게 놀아선 안된다는걸 명심하시오. 모험은 어떤것이든 다 지지해야 하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영원히 필요한 비밀조사기구를 내오려고 하오. 그래야만 우리 일군들의 일손을 덜어줄수 있겠거든. 우리는 오늘뿐만아니라 래일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오. 도이췰란드는 멸망에 직면했소. 어느 나라도 두 전선을 펼쳐놓고서는 결코 승리할수 없는 법이요. 우리는 지금부터 앞으로 미국이 존재하게 될 그러한 세계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겠소.》

도노완은 뛰여난 웅변술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공화당대표로 두번씩이나 뉴욕부지사와 지사로 출마한 경력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지어 루즈벨트대통령까지도 설복시킬줄 알았다. 도노완은 전선에서도 싸워보았고 담이 커서 무슨 일이든 책임지는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수하의 고위급인물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유일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1918년 로씨야에 파견된 우리 원정군에 복무할 때 내 나이가 너무 어렸다는것이요. 우리 멍텅구리들은 〈볼쉐위크들은 곧 망할것이다〉이렇게 지껄였댔소. 볼쉐위크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저절로 망하지 않소. 내가 그때 힘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하면 께렌스끼를 뻬쩨르부르그에 되돌려앉히겠는가 하는걸 알았을거요.》

도노완은 미국에서 전략정보국을 뒤받침해주는 억만장자들을 등에 업고있었기때문에 처음부터 일판을 크게 벌려놓고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 일군들을 보고 종종 이렇게 말하군했다.

《그것이 비록 의심스러운 접촉일지라도 겁나하지 말아야 하오. 가능한 모든곳에서 동맹자들을 찾아내는것이 필요한것이요. 나는 쓰딸린을 우리 전략정보국 부국장자리에 앉히는것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두말없이 그에게 내 맞은편 사무실을 내주고 히틀러가 망할때까지 그와 가장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겠소.》

미전략정보국의 기본부서는 조사 및 분석부였다. 여기에는 군사대학출신들과 법률가들, 각종 기사들이 다 모여들었다. 이 부는 샤만

켄트가 지도하였다.

그러나 전략정보국에서 그 크기와 위치로 보아 두번째가는《로동운동부》를 조직할 때만은 워싱톤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국내비밀사업에서 제노라 하던 련방수사국장 후버는 그러지 않아도 도노완이 세계적판도에서 정치정보사업을 벌리고있는것을 잔뜩 심술이 나서 지켜보다가 앞장에서 반대해나섰다. 후버는 월가의 백만장자 도노완이 모든 해외공작을 독판치기할만한 준비가 되여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후버는 자기 보호자였던 상원의원 트루맨을 찾아가 이렇게 지껄여댔다.

《〈로동운동부〉를 만들어낸것이 도노완의 구상이 아니라 군부와 뉴욕상원의원 로버트 바그너의 비호를 받는 헤버 블란케호스트대좌의 구상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허용할수 없는것이지요. 도노완은 지금 로동운동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던 사람들을 미국의 중요한 국가기관에 끌어들이고있습니다. 지어 그는 유태인법률가 아르뚜르 골드베르그를 부장으로까지 임명하였습니다. 이자의 부모들은 로씨야에서 우리한테 망명하여왔습니다.》

하지만 트루맨은 이렇다할 대답이 없이 후버의 말을 묵묵히 들으면서 이따금 수첩에 이름들을 적어넣었다.

사실 듣고보니 생각되는바가 없지 않았다. 도노완은 아르뚜르 골드베르그에게 에스빠냐에서 로씨야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프랑꼬군대와 도이췰란드항공상 게링그의 비행대와 맞서 싸운 《린컨대대》의 몇몇 사람들까지 부서에 끌어들이는것을 허용하였다. 이밖에도 도노완은 전에 독점재벌을 적극 반대하고 폭동참가자들을 지지하여나섰던 직업동맹일군들도 받아들이였다.

그러나 도노완은 후버를 골려주는것이 얼마나 깨고소한지 웃음이 절로 났다.

《내가 조사 및 분석부에 이전 도이췰란드공산당원이였던 허버트 맥쿠제를 받아들였다는것을 후버가 알면 뭐라고 하겠는지 들어보고 싶구만. 후버는 미국에서 깽이나 간첩은 잡을줄 알아도 국제관계에 대해선 암둔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급진세력의 도움이 없이 강점국들에 가서 지하조직들과 사업할것 같소? 절대로 그렇게 못할거요. 히틀러도이췰란드에서 그 누구도 맥쿠제만큼 정세를 정확히 분석할줄 아는 사람이 없소. 때가 오면 우리는 좌익세력들과도 련계

를 끊어버릴것이요. 그러나 아직은 이르오. 이것은 좌익세력들이 나치스를 격파하는데 기여하게 하고 유럽에서 우리의 위력을 강화해준 다음에 할것이요. 후버가 주장하는대로 우리가 〈순결한〉사람들로써만 대렬을 꾸린다면 아이를 낳아도 사생아만 낳게 될거란말이요. 사람이 일을 하지 문건이 일을 하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군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아지는 사람들을 전략정보국기구에 받아들이는 모험을 해도 눈을 꾹 감고 허락해주자는거요.

당신들이 잘 알고있는 전략정보국 반탐부장인 법률가 제임스 매피를 좀 보오. 그는 언제나 우리 기업체들의 리익을 옹호해왔소.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 소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모조리 알기 위해 직업동맹 특히 좌익적인 경향을 가진 직업동맹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거요.》

도노완은 전략정보국에서 발간하는 첫 뷸레찐(이것은 주로 정보자료를 묶어서 만든 책과 같은것이였다.)이 백악관에 들어가기 시작하던 때에 이렇게 말하였다. 전략정보국의 젊은 패들인 아르뚜르 슐레씬져, 레오나드 미케(국무성 고문 1960년까지 로므니아주재 미국대사), 레이 클라인(미중앙정보국 부국장, 1969년부터 미국무성 정보국장) 등이 주동이 되여 뷸레찐을 만들었다. 여기에 담긴 정보자료는 매우 흥미있고 객관적인것들이였다. 도노완의 활동은 더욱 자유분방해졌다. 런던, 아프리카, 중국, 인디아 등지로 첩보사업이 옮겨가기 시작했다. 실지 사업은 여유있게 진행되여갔다. 도노완은 또한 심리전의 참모부인 《심리작전부》라는것도 만들어냈다. 여기서는 도이췰란드, 일본 등 강점지역들에 대한 방송프로를 짜고 유럽항전운동을 위한 삐라도 만들어냈으며 지하조직들을 위한 신문자료들을 꾸며냈다. 《심리작전부》는 앞으로 써먹을 편집일군들, 론설원들, 이름난 기자들을 탐색하였다. 다시말하여 유럽지식인들과의 련계가 이루어져갔다.

도노완은 《심리작전부》에 좌익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는만큼 부서들사이의 균형을 능숙하게 보장하면서 《특수비밀정보부》와 《특수작전부》라는것을 만들어냈다. 그는 중요 부서들의 사업을 조절하는데서 이런 방법을 적용하였다. 례하면 좌익적인 철학가 허버트 맥쿠제가 자기 분석자료를 자기 부장에게 제출한다면 의례히 우익적이고 반쏘감정이 매우 강한 백만장자 쥰누스 모르간,

그의 친동생인 헨리, 백만장자 반데벨드, 백만장자 듀폰 등이 앉아있도록 만들어놓았다. 미국의 대은행가들과 기업체들은 자기들의 리익을 위하여 저저마다 전략정보국내에서 중요한 자리를 요구하였다.
포스톤은행부총재라고 하는자는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의 모든 지하조직들과의 련계를 가지고있는 정탐군이였다.
미국에서 제일 큰 《왈터 톰프손》광고회사는 자기 사람을 전략정보국 계획부장자리에 들여앉히는데 성공하였다. 도노완은 그에게 런던주재 《심리작전부》책임자, 까히라주재 전략정보부책임자를 겸임시켜주었다.
《스탄다르 올》석유회사는 부꾸레슈띠지하조직과 련계를 가지고 로므니아의 석유산지들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기 위하여 망을 조직할 목적으로 에스빠냐와 스위스에 주재할 전략정보부 망책의 자리를 자기 회사에 줄것을 요구하였다. 이 회사는 붉은군대가 도이췰란드의 반항을 짓부시며 부꾸레슈띠에 아직 들어서지 않고있던 1944년 8월 30일 로므니아의 미하일황제가 안또네스꾸원수를 퇴직시키고 히틀러에게 전쟁을 선포한 직후에 월가의 변호사회에서 도노완의 막역한 친구 라쎌 도르를 책임자로 한 전략정보국 특별사절단을 로므니아에 들이밀기 위하여 무기와 선물, 비행기를 구입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전략정보국은 한개 려단 무력을 까히라에서 로므니아로 이동시켜 로므니아에 있던 도이췰란드첩보기관의 자료들과 석유공업발전과 관련한 귀중한 과학자료들을 가로챌수 있었다.
미국 최대의 영화업체인 《파라모운트픽체즈》는 스웨리예에 있는 전략정보국의 첩보망에서 중요한 자리를 요구하였다. 바로 이 중립국을 통하여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훌륭한 련계를 가질수 있었고 또 대상품시장을 얻을수 있었던것이다.
《골드만 젝스》은행업체들은 도노완이 북부아프리카에 첩보망을 꾸리는데 이백만딸라나 되는 돈을 대주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한몫 단단히 보려는 심산에서 한 일이였다.
멜론의 은행업체들은 룩셈부르그, 제네바, 마드리드에서 전략정보국 첩보망의 요직을 줄것을 요구하였다. 이 은행업체는 전략정보국과 사전에 프랑스의 빠리가 해방되면 프랑스에 펼쳐놓을 전략정보국 지부장자리를 제공받기로 합의까지 보았다. 멜론의 녀동생 알리싸는

전략정보국의 주요 참모성원이며 미첩보기관에서도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볼수 있는 미전략정보국 런던지부책임자의 아들 브류스와 결혼했다. 브류스의 아버지는 미국회 상원의원이며 백만장자였다.

미전략정보국이 소위 반파쑈적인 경향을 가진 조직으로서 갓 태여났고 로씨야가 도이췰란드군과의 싸움에서 주력을 이루고있으며 공산당, 사회당과 같은 좌익세력들이 도이췰란드를 반대하는 빨찌산투쟁에서 주도적역할을 담당하고있고 백악관과 크레믈리사이의 관계가 전례없이 밀접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노완은 전략정보국에 《로씨야그루빠》를 끌어들이였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미국에 망명하여온 사람들이였다.

그런데 련방수사국장 후버는 미국의 우익지도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도 모르고 화가 나서 몸살이 날 지경이였다.

1942년 1월 어느날 전략정보국의 두 젊은 요원이 미국주재 에스빠냐대사관의 경비원을 꼬이여 대사관에 침입한 다음 변신원방에 들어가 암호책을 꺼내여 촬영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밤중에 후버의 서기가 침실에 뛰여들어와 후버를 흔들어깨웠다. 후버는 서기의 말을 듣고보니 분하기 짝이 없었다. 도노완이 이제는 미련방수사국의 사업에까지 손을 뻗치다니.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전화로 련방수사국 부국장을 찾았다.

《이제 곧 도노완에 대한 공작을 준비해야겠소. 우리가 그만큼 놀림을 받아왔으면 됐소. 더는 못참겠단말이요.》

몇달 지나 도노완의 부하들은 또다시 프랑꼬대사관(미국주재 에스빠냐대사관을 말함)에 침습하였다. 후버의 명령에 따라 련방수사국 자동차들이 대사관을 포위하고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리하여 전략정보국의 첩자들은 모두 체포되고 이베리아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수립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던 암호해득공작은 파탄되고말았다.

도노완은 이튿날아침 성이 독같이 올라 백악관에 나타났다.

후버도 백악관의 부름을 받고 달려왔다. 그는 전례없이 밝은 얼굴로 친절하게 말하였다.

《여보게 친구, 당신네 사람들이 대사관에 있는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그렇게 했겠나! 난 정말 당신네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네. 자네가 한마디만 귀뜀해줬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걸 그

랬구만! 하긴 자네도 자기의 옛친구인 이 후버를 잊었던게로구만…》
이 일이 있은 때로부터 몇달이 썩 지난 후에야 두 《적수》들간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도노완은 미국주재 에스빠냐대사관에 대한 습격사건이 사실은 전략정보국이 이미전에 해외에서 벌려오던 공작과 련관된것이라고 하면서 후버에게 실토정하였던것이다. 도노완이 해외에서 벌렸다는 작전이란 대체로 이러한것이였다. 미영군대가 북부아프리카에 상륙하여 그곳에 있던 도이췰란드군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자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와 영국수상 쳐칠은 에스빠냐의 독재자 프랑꼬가 북부아프리카로 들어가도록 도이췰란드군에게 문을 열어주겠는가 혹은 중립을 지키겠는가 하는데 주의를 돌리고있었다. 만일 문을 열어준다면 미영군은 아프리카의 북부해안과 차단되게 되며 바다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을수 없게 되기때문이였다. 물론 프랑꼬는 변함없이 도이췰란드에 호의를 품고있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두 갈래의 길에서 동요하지 않을수 없었다. 도이췰란드군대를 에스빠냐땅에 들여놓았다가 혹시 히틀러가 단 한명의 도이췰란드병사도 에스빠냐땅에 머물지 않을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독재자의 자리를 잃을수도 있었고 나라를 먹힐수도 있었다. 프랑꼬는 또한 도이췰란드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영국과 미국으로 하여금 독재제도를 인정케 하고 자기를 에스빠냐민족의 리익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존재로 인정받을수 있는것이였다.
그러는동안 도이췰란드첩보기관은 프랑꼬에게 부단한 압력을 가하였다.
마드리드에는 서방식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이 강했다. 그들은 앞으로 세계가 오직 민족사회주의공동체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꼬는 어느 길을 택할지 예언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어차피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것을 미리 예언해야만 했다.
도노완은 사건을 빨리 추진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허용할수 있는 전망을 단순히 리해하고 타산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자기 첩자들에게 프랑꼬로 하여금 미영군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할것을 지시하였다. 도노완은 자기가 흔히 하고있는 《균형》놀음을 벌려 자기 개인대표를 외교관의 탈을 씌워 마드리드에 보냈다. 그는 시카고의 백만장자 도날드 스틸이라는자였다. 스틸은 마드리드에 오

자바람으로 에스빠냐의 고위인물들과 사귀였다. 그는 자기가 철저한 반공분자이고 한때 로씨야에 파견된 미원정군에 속하여 백파군을 도와 빨갱이들과 싸웠노라고 가는곳마다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후 화장품기업체의 한 기업가인 그레고리 토마스가 도날드 스틸을 교대하였다. 그는 스틸이 만들어놓은 믿음직한 선들을 그대로 넘겨받아가지고 그가 시작한 사업을 공고히 해나갔다. 그에게서 녀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일은 결코 생소한것이 아니였다. 향수병은 뢰물이 아니라 호의의 표시로 되는것이다. 에스빠냐에서는 그 무엇도 이러한 호의적인 행동보다 더 높이 평가되는것은 없었다. 이것은 비밀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프랑꼬에게 이르기까지 고위급인물들에게 아첨할수 있는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열쇠였다.

바로 이무렵 런던에서 전략정보국 에스빠냐지부장 도운스가 전 공화에스빠냐대통령 후안 네그린을 만나 그에게 프랑꼬가 만일 련합군측에 붙어 에스빠냐땅에 히틀러를 들여놓으면 공민전쟁이 일어날수도 있고 대중적인 빨찌산투쟁은 불가피한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에스빠냐에는 빨찌산투쟁이 일어날 아무런 기미도 없었다.

에스빠냐비밀경찰은 도운스의 전략정보국 요원들을 모조리 체포하여 마드리드의 지하감방에 가두어넣고 고문을 들이댔다. 그러자 몇몇 놈팽이들이 고문에 굴복하여 자기들은 마로끄에서 미국놈들이 보내여 비밀리에 왔다는것을 실토하였다.

에스빠냐 외무상은 미국대사를 불러 엄중히 항의하였다.

《이것은 우리 내정에 대한 전례없는 간섭행동이다! 이것은 포고하지 않은 침략의 한 형태라고 말할수 있다. 당신들은 지금 우리 나라에서 류혈적인 비극을 준비하고있다.》

바로 이 시각 마드리드에 있던 미전략정보국의 다른 요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향수병공작을 계속하는 한편《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프랑꼬가 도이췰란드군대에게 에스빠냐에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준다면 백악관은 간첩들을 계속 들여보낼것이다.》라는 말을 파다하게 퍼뜨려놓았다.

빨찌산투쟁이 일어날것 같아 잔뜩 겁을 집어먹고있던 프랑꼬는 복잡한 접촉경로를 통하여 도이췰란드군대를 에스빠냐땅에 들여놓지 않겠다는것을 워싱톤에 알리였다.

이러한 통보가 미국에 날아오자 미국무성은 에스빠냐주재 미국대

사를 시켜 《공산테로단》을 에스빠냐에 들여보낸것은 미군이나 첩보기관이 아니라 에스빠냐공화주의자들과 미국공산주의자들의 모험적행동이였다는것을 프랑꼬에게 인식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험주의자들에게 재정적방조를 준자는 《국가기관에서 쫓겨났다》고 하였다. 도운스가 미전략정보국 에스빠냐지부장자리에서 해임된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그는 두달도 못되여 미군사령관 아이젠하워참모부 《특수작전고문》으로 임명되였다.

에스빠냐주재 미국대사는 이전에는 도노완과 그의 사람들이라면 그처럼 무섭게 반대해나서던것이 도노완과 《친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때로부터 그는 대사관에서 전략정보국 장교를 자기의 첫째가는 방조자로 대하였다.

그러나 뮬러도 쉘렌베르그도 지어 까나리스도 그다음날 후버가 도노완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고 초청하였다는 자료는 가지고있지 못했다. 저녁시간은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흘러갔다.

어제까지 서로 앙숙이던 두 적수가 갑자기 친구로 변하였다.

후버는 련방수사국의 두 요원을 전략정보국 반탐지도자로 넘겨주는데 동의하였다.

《그래 읽어보니 어떤가? 까나리스가 재미있게 자료를 묶은것 같지 않나?》

뮬러가 묻는 말이였다.

《아주 흥미있습니다.》

슈틀리쯔는 뮬러에게 문건을 돌려주며 대답했다.

《그런데 미전략정보국이 벌린 작전에 대한 자료는 1942년에 끝나고 말았는가요?》

뮬러는 입귀를 실룩하며 웃었다.

《슈틀리쯔, 난 죽음이 닥쳐오는 순간에는 정보를 받는데 별로 흥미없어하는 사람인가보오.》

그러나 쉘렌베르그나 뮬러나 그리고 민족사회당 대외부나 할것없이 전략정보국 유럽책임자 알렌 덜레스의 형인 억만장자 죤 덜레스가 공화당대통령후보 토마스의 선거전깜빠니야에서 대외정책부문을 맡아가지고 루즈벨트대통령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공

산주의위협에 대처하여 단호한 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한 때로부터 그리고 그가 오랜 친구인 도노완에게서 직접 많은 자료를 넘겨받은 때로부터 도노완의 처지가 급격히 악화되였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루즈벨트대통령은 전략정보국사업을 누가 검토하고있고 전망계획에 예견되지 않은 공작을 벌리도록 누가 재정적으로 도와주며 어느 기업체가 국가의 정치첩보기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정보를 받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볼것을 지시하였다.

대통령은 제공된 자료를 알아보고 자기 측근자의 한 사람인 호프킨스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도노완을 전략정보국에서 제거할 때가 되였다고 생각하지 않소?》

《무슨 근거로 말입니까?》

《근거야 명백하지 않소.》

대통령은 손가락으로 자기앞에 놓여있는 문건을 가리켰다.

《도노완은 토마스가 선거에서 패하자 토마스의 선거전깜빠니야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략정보국의 요직에 올려놓았소. 또 그들모두가 묘하게도 도이칠란드에 대한 공작을 계획하는 부서들에 들여배졌단말이요.

그들은 이전부터 련계를 가지고있던 히틀러의 금융업자들을 리용해보려고 꾀하고있소.》

이 이야기는 슈틀리쯔가 도이칠란드로 돌아온 후인 1945년 3월에 백악관에서 진행되였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것이 큰것과 작은것, 우스운것과 비극적인것, 저속한것과 고상한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선으로 련결되여있다.

때로는 운명의 이러저러한 교차를 론리적으로 설명할수 없고 그것이 우연한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느껴지는 우연성은 사실 발전에서 보이지 않는 상수들중의 하나와 같은것이다.

음모를 꾸미는 게스타포(1)

베를린중심구역에는 폭격이 한창이였다. 그러나 바벨스베르그에는 다행히 비행기가 날아들지 않아 구역에서 전기를 끄지 않았다.

그래서 수수떡같이 벌거우리한 전등불이나마 볼수 있었다.

《한스, 나한테는 사탕을 두지 말게. 난 커피에 사카린을 넣어 마신다네.》

슈틀리쯔는 운전사를 보고 말하였다.

그러자 부엌쪽에서 한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볼젠각하는 그렇게 여위였지요. 우리 주인어른이 그렇게 식사료법을 지킨답니다. 늘 굶다싶이 하지요.》

《인디아 유교철학이 그렇게 굶는게 제일 좋다고 한다오. 그러니까 우리 도이췰란드사람들이 거의 모두 배를 곯고있으니 유익한 조건에서 살고있다고 말할수 있겠구만.》

그러나 한스는 슈틀리쯔의 말에 아무 대답도 없었다. 아마 뮬러가 한스에게 여러가지 정황에 맞게 처신을 잘하라고 지시를 준것 같았다.

(혹시 내가 제김에 놀란것 아닐가? 내 신변을 지키라고 한스를 붙였을수도 있지 않는가? 도이췰란드는 나라가 아니라 거미를 가득 채운 거대한 통과 같다. 여기서는 행동론리를 리해하는것이 실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자기 예측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한스를 피하여 무전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는가? 베를린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내가 뮬러에게 특별한 연극을 놀고있는듯한 암시를 준것은 잘한 일이였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두자. 비록 뮬러와 정식으로 이런 말은 해보지 않았지만 모든것을 미루어보아 그것이 뮬러의 마음에 든것이 틀림없다.)

슈틀리쯔는 생각을 굴리였다.

한스는 정말 뛰르끼예식으로 커피를 잘 끓이였다.

《한스, 누가 이렇게 커피끓이는 법을 배워주었나?》

《이건 중장각하의 아들 프리쯔에게서 배웠지요. 그애는 학자소년

이였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알고있는데다가 늘 그림도 없는 책이나 교과서같은것만 읽었지요. 그가 바로 커피끓이는 진짜방법을 책에서 알아냈는데 커피그릇을 전기곤로에 올려놓는것이 아니라 거품이 일며 커피가 끓기 시작할 때까지 곤로우에 들고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리쯔는 이것을 외국말로 멋들어지게 말했는데 뭐라고 했더라… 옳지, 이제야 생각납니다.…〈맛의 폭발효과〉라고 했습니다.》

《지금 뮬러중장의 아들이 어디 있는가?》

한스는 그 말에는 대답도 않고 슈틀리쯔에게 쵸콜레트를 권하였다.

《볼젠각하, 이걸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만든건데 맛이 괜찮지요.》

《한스, 자넨 아직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했지.》

《그리고 이 비게도 좀 맛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옛날식으로 가공한건데 사이사이에 붉은색비게가 끼우니 보기 좋지요?》

《참, 그렇구만》

슈틀리쯔는 한스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알고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 집에서 가공한 비게가 훌륭하군. 그런데 한스는 어디 태생인가?》

《볼젠각하, 난 마그덴부르그에서 출생했습니다. 간노베방향의 굽인돌이와 함부르그를 가리키는 도로표식판이 생각납니까? 우리 집은 바로 그 갈림길 길섶에 바투 나앉아있습니다. 지붕우에 높다란 첨탑이 서있는 옛날집인데 지금도 화려하지요.》

《한스, 난 지금도 종종 그쪽으로 다니지만 그런 집을 본 생각이 나지 않는구만. 혹시 빨간 기와를 이고 대들보에 갈색칠을 한 집이 아니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생각이 나는 모양이지요?》

《생각이 나오. 한스, 자넨 정말 커피를 잘 끓였구만. 힘들지 않으면 좀더 끓여줄수 없겠나?》

《볼젠각하, 그렇게 하지요.》

《참, 자네 커피가 다 식는구만. 마저 마시고 끓이라구.》

《일없습니다. 난 식은걸 좋아합니다. 뮬러중장의 아들 프리쯔가

나한테 〈크림커피〉를 만드는 법을 배워주었습니다. 그런걸 맛본적이 있습니까?》
《어떤것을 말이요? 길죽한 잔에 식은 커피를 붓고 거기에 에스키모를 떠올려놓은걸 그러오?》
《예, 바로 그겁니다.》
《맛을 봤소. 별맛이더군. 그런데 자넨 〈카푸찐〉커피란걸 마셔본일이 있나?》
《전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중세기에 카푸찐족들이 살고있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나? 아니, 그 세계를 방랑하던 승려들말이야.》
《난 승려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반역자들이니까요.》
《아니, 왜 그들모두가 반역자겠나?》
《안그럴리 있습니까. 우리는 볼쉐위크와 미국놈들을 소멸하기 위해 싸워야겠는데 그들은 평화에 대해서만 지껄이니까요.》
《하긴 그건 옳은 말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카푸찐〉커피란건 말이요. 자네가 말한것과는 반대야. 뜨거운 커피에 에스키모를 두는데 크림이 녹아서 쵸콜레트같은 거품이 부풀어오르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나 마셔보겠는지…자, 이젠 가서 커피를 끓이라구. 한서너잔 준비하게. 나도 자네처럼 식은걸 좋아하니까 한잔은 일을 좀 하다가 마셔야겠어.》
한스가 나가자 슈틀리쯔는 주머니에서 수면제알약을 꺼내여 한스의 잔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담배를 붙여물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다가 송수화기를 들고 다그마르 프라이따흐에게 전화를 걸었다. 거의 바스성대에 가까운 녀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듣기가 좋았다. 슈틀리쯔는 이런 목소리를 좋아했다. 키가 껑두룩한 스포츠형의 녀성들의 목소리가 대체로 이러한것이다.
《전화로 실례합니다. 교수선생이지요? 저의 이름은 막쓰 볼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볼젠씨. 저는 지금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던참이랍니다.》
《기억컨대 부인의 눈은 파랗댔지요?》
슈틀리쯔가 묻는 말이였다.
《저녁에, 특히 폭격이 있을 때 불을 끄면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대체로 당신이 한 말이 맞았어요. 저의 눈은 고양이눈처럼 파란 빛갈이지요.》

《좋습니다. 부인은 언제쯤이면 시간을 내여 저를 만날수 있을것 같습니까?》

《아무때건 오세요. 당신의 댁은 어디에 있는가요?》

《수림속에 있지요. 바벨스베르그말입니다.》

《난 포츠담에 살고있어요. 바로 그옆이예요.》

《밤에 몇시쯤이면 주무십니까?》

《폭격이 없으면 늦어서 잠자리에 들어요.》

《그럼 폭격할 땐 언제 주무시는가요?》

《그런 때엔 수면제를 먹고 일찌기 잔답니다.》

《나는 방금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동무들과 몇마디 인사나 하고 다시 부인께 전화를 걸지요. 부인이 허락만 하시면 오늘밤 늦어서라도 찾아가려고 합니다.》

슈틀리쯔는 송수화기를 놓으면서 생각해보았다.

(내가 한 말들은 모두 록음되였을것이다. 그럴테면 그러라지. 문제는 언제쯤이면 뮬러에게 록음한 내용을 해득하여 들여가겠는가 하는데 있다. 지금 당장에 들여갈가? 아니면 래일? 이러나저러나간에 내가 집을 나설만한 구실은 있다. 뮬러의 운전사 한스가 얼마나 강한지 이제 두고보자. 그는 40분후면 쓰러져서 두시간동안 죽은듯이 잠잘것이다. 이것은 약재가 담보하여준다. 혹시 한스가 커피를 안마시면 잠들지 않을수도 있지. 그러면 산보나 함께 하자고 데리고나가 포츠담에 갔다오면 되지 않겠는가. 다그마르부인은 무전수가 살고있는 집에서부터 멀지 않은곳에 살고있다. 혹시 다그마르집에 뜨락으로 빠지는 뒤문이 있지 않을가? 그러면 울타리를 살짝 넘어들어갔다 나오면 그만이겠는데. 어서 빨리 모스크바에 이젠 보르만도 서방과의 비밀회담을 방해하지 않고있으며 스위스와 스웨리예에서도 고위급인물들이 이에 개입하고있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얼마후 한스가 부엌에서 나왔다. 그는 슈틀리쯔의 잔에 커피를 붓고 자기는 수면제가 섞인 식은것을 마시였다. 그리고나서 슈틀리쯔를 보고 자기가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와 닭알을 가지고 료리를 맛있게 할줄 아는데 아침에 잡숫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한스, 고맙네. 하지만 나한테 식모로 쓸 처녀애가 오니까 걱정할

건 없네. 그애가 식사를 준비할테니까.》
《볼젠각하, 뮬러중장이 그러는데 그 처녀애가 폭격에 그만 잘못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슬픈 소식을 전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였다던가?》
《각하, 제가 또 홍당무볶음도 할줄 안답니다.》
한스는 대답하지 않기로 된 말은 들은척도 안했다.
《한스, 내 식모가 언제 잘못되였는지 묻지 않나?》
《각하, 전 그런걸 모릅니다. 나는 다만 내가 알고있는건만 대답하게 되여있습니다.》
《그것 보오. 그렇게 설명을 하니 얼마나 좋은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하고 왕청같은 소리를 하는건 교양이 부족한 표현이지. 그렇지 않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건 정말 도덕이 없는 행동이지요. 원래 나는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지요.》
《저쪽으로 가세나. 자네가 있을 방을 가르쳐주지.》
《뮬러중장은 내가 아래층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각하가 있는 2층으로 누구도 들여놓지 않아야 합니다. 각하가 허락하시면 밤에는 쏘파에서 자려고 합니다. 쏘파를 계단가까이에 끌어다놓게 해주십시오.》
《안되오. 2층에는 위생실이 없으니까 내가 자네한테 불편을 줄수 있지 않나.》
《그건 괜찮습니다. 난 인차 잠들어버릴테니까요.》
《이 말은 자네한테 하는것이 아니고 나를 두고 하는 말이네. 난 공연히 사람들을 걱정시키는걸 좋아하지 않아. 좌우간 의자를 계단옆에 끌어다놓겠으면 놓으라구. 그러나 매번마다 내가 자네를 걱정시키지 않게 약간 옆으로 다닐수 있는 짬을 내놓으라구.》
《각하, 뮬러중장은…》
《자넨 군사칭호가 뭐요? 오장이요? 난 대좌요.》
《각하, 난 당신을 지켜주게 되여있습니다. 나한테 명령을 주는건 뮬러중장뿐입니다. 그래서…》
《자넨 그럼 내가 뮬러에게 전화를 걸어줄걸 바라는가?》
《그렇습니다. 각하, 저한테 성을 내지 마십시오. 각하는 지휘관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병사를 용서하겠습니까?》

《좋소, 한스. 그럼 송수화기를 이리 보내오. 전화선이 길어서 여기까지 올거요.》

한스는 송수화기를 넘겨주고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우며 하품을 했다. 그는 자기가 상관앞에서 도덕이 없는짓을 했다고 생각하자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다.

《각하, 커피를 반잔만 더 마실수 없습니까?》

《어서 그렇게 하게. 왜 잠을 잘못 잤던게지?》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분주히 다니다나니 지쳤나봅니다.》

슈틀리쯔는 전화로 뮬러의 부관 숄쯔를 찾았다.

《안녕하오. 부관, 나요, 슈틀리쯔요. 뮬러각하와 좀 련결시켜줄수 없소?》

《그렇게 하지요. 대좌각하.》

《고맙소.》

뮬러는 송수화기를 들고 슈틀리쯔의 말을 한참이나 듣더니 껄껄 웃었다.

《벌써 신경발작이 시작된게 아니요? 우리 한스가 잘했구만. 하지만 계속 그래서야 안되지. 여보게, 하지만 둔한 사람은 변절할줄 모른다는것만은 알아두라구, 한스를 바꾸어주게.》

슈틀리쯔는 한스에게 송수화기를 내밀었다. 한스는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 한참이나 뮬러의 말을 듣더니 슈틀리쯔가 또 전화를 하겠느냐고 묻는듯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슈틀리쯔는 아무말도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목욕탕으로 갔다.

얼마후 돌아와보니 한스는 쏘파에 퍼더버리고앉아 손으로 눈두덩을 문질렀다.

《그러지 말고 누워서 쉬라구. 오늘은 자네가 나한테 더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고맙습니다. 각하, 그런데 내가 방해되지 않을가요?》

《아니요, 방해는 무슨 방해. 절대 그렇지 않소.》

《때로는 내가 코를 고니까 하는 말입니다.》

《일없다니까. 내가 잘 때 귀에 약솜을 박고 잘테니 마음놓고 실컷 코를 골라구. 하불은 함롱우에 있네. 어디 있는지 알지?》

《예, 알고있습니다.》

한스는 20분도 못되여 잠이 들었다.
슈틀리쯔는 그에게 모포를 덮어주고 밖으로 나와 차고로 갔다.
차가 뜨락에서 나가자 한스는 비칠거리며 쏘파에서 일어나 전화기가 있는쪽으로 가서 송수화기를 들고 뮬러를 찾았다.
《떠나갔습니다.》
한스의 말이였다.
《나도 알고있어. 고맙네, 한스. 이젠 그가 돌아와도 깨나지 말고 푹 자라구. 정말 장한 일을 했네.》
슈틀리쯔는 무전수가 살고있는 작은 3층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골목길에 차를 세워놓고 뒤를 살펴본 다음 천천히 집쪽으로 갔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성냥을 그어 문패를 비쳐보았다. 3층집에는 네세대가 살고있었다.
무전수는 빠울 로르흐라는 사람이였다. 그는 나이지숙한 베를린토배기였다.
슈틀리쯔가 귀속말로 암호를 대자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로르흐는 자그마한 두칸짜리 방에서 살고있었다. 그는 수자가 가득 적혀있는 종이쪽지 두개를 슈틀리쯔에게 넘겨주었다.
《이건 언제 받았습니까?》
슈틀리쯔가 묻는 말이였다.
《어제밤에 받았지요.》
첫번째쪽지에는 《왜 소식이 늦어지는가? 매일같이 새로운 자료가 오기를 기다린다. 본부에서.》라고 씌여있었다.
그리고 두번째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우리가 알고있는 정보에 의하면 쉘렌베르그는 스웨리예에서 특수공작을 추진시키고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가? 만일 사실이라면 쉘렌베르그가 접촉하고있는 자들의 이름을 알려달라. 본부.》
《무전기는 어디 있습니까?》
《감추어놓았지요.》
《지금 무전기를 가지러 갔다올수 없겠습니까?》
로르흐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래일 저녁때쯤 가져올가 합니다.》
《오늘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난 아침 여섯시에 일을 나갔다가 저녁 다섯시가 돼야 돌아오니까요.》

《그럼 래일이나 모레 어느 하루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 계십시오. 그러되 아프다고 핑게대고 집에 왕진을 청해야겠습니다. 댁의 전화번호는 달라지지 않았겠지요?》

《달라지지 않았지요.》

《내가 전화를 걸겠습니다. 지금 사정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낼수 없게 되였지요. 당신은 지금도 개털을 깎는 일을 하고있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은 리발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찌기 병원에 리발하러 가지요.》

《전화번호는 이전에 전화번호책에 써있던 그대로이겠지요?》

《그럼요.》

《시내에 개털깎는 사람이 아직 몇명이나 남아있습니까?》

《녀자 둘이 있지요. 그들은 털이 굽실굽실한 애완용삽살개털을 전문으로 깎는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귀속말로 말하는가요? 여긴 안전하니까 마음을 놓으십시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슈틀리쯔는 여전히 소곤소곤 말하였다.

《여기가 안전하다는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웬일인지 오늘은 이렇게 피곤하고 신경이 날카로와져서 그런것이니 량해하여주십시오.》

《차를 진하게 끓여드릴가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혹시 내 운전사가 전화를 걸고 내가 못오면 당신을 데리러 올수 있습니다. 운전사의 이름은 한스입니다. 차번호가 에쓰에쓰차번호라고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오지 못하면 개털을 깎아달라고 부탁할테니 아무 일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꼭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암호문을 받아주십시오. 래일 내가 오기전까지 보내야 합니다.》

암호문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쉘렌베르그는 이미 이야기된것처럼 스웨리예와 스위스에서 새로운 비밀회담을 시작하였다. 접촉인물들로서는 스톡홀름의 베르니도트와 스위스의 무지 등이다. 나는 스톡홀름에 있는 베르니도트백작

에게 다그마르 프라이따흐라는 서른여섯살난 녀자를 침투시킬 과업을 받고있다. 쉘렌베르그는 장사군이였던 녀인의 남편이 히틀러를 비난하는 말을 했다는 죄로 가두어넣고 녀인을 공작에 끌어들이였다.
 뮬러는 나에게 감시를 붙이고있다. 보르만이 나에게 덜레스의 리익을 대변하고있는 중립국과의 회담에 대하여 엄격히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것으로 보아 그도 역시 서방과의 접촉에 대하여 알고있는것 같다. 더우기 보르만은 크레믈리가 이것을 알아서는 안된다고 오금을 박고있다. 유쓰따쓰.》
 뮬러는 슈틀리쯔에게 붙여놓은 감시소조책임자로부터 슈틀리쯔가 로르흐와 접촉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로르흐의 주소를 적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
《고맙소. 일을 아주 잘했소. 이젠 감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소. 그가 다그마르 프라이따흐에게 갈터이니 가서 푹 쉬라구.》
 뮬러는 곧 암호해득부서의 어문학박사 게르베르트 니체대좌를 불렀다.
《박사, 내가 당신에게 적의 암호전문중에서 몇가지 단어를 알려줄터이니 그 암호문을 해득할수 있겠소?》
《수자묶음은 얼마나 긴것들입니까? 그리고 암호문중에서 당신이 알고있는 단어는 얼마나 됩니까? 또한 그것이 어떤 말들인지 하는걸 알려줄수 없습니까?》
《으흠… 박사, 당신은 그 말들을 모르는게 더 좋아… 당신은 내가 불러주는 단어들을 리용하여 암호문을 해득해보오. …만일 우리 기관내에서 우리 둘외에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면 나는 당신에게 더 긴말을 하지 않겠소.… 암호문에는 〈다그마르〉, 〈스톡홀름〉,〈스위스〉, 〈덜레스〉,〈뮬러〉,〈쉘렌베르그〉,〈베르나도트〉라는 단어들이 틀림없이 들어있을거요. 그리고 우리 민족사회당 당원들에게 그처럼 신성하게 불리우는 〈게링그〉, 〈히믈러〉, 〈보르만〉과 같은 이름들이 도발적인 의미에서 씌여졌을게 틀림없소. 아마 도이췰란드민족의 위대한 총통의 이름도 있을거요. 난 아직 이 암호전문이 어떤 암호로 되여있는지 알수 없으나 그 로씨야녀자무전수가 사용하던 암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구만.》
《슈틀리쯔가 병원에서 체포한 로씨야녀자말입니까?》
《그렇소. 슈틀리쯔가 그 녀자를 체포했던거지. 당신이 옳게 말

했소.》뮬러는 철궤에서 암호문을 꺼내여 니체앞에 펼쳐놓았다.
《이 수자를 가지고 여기에 〈월프〉, 〈덜레스〉,〈슐라그〉, 〈목사〉,〈뮬러〉,〈스위스〉,〈베른〉,〈쉘렌베르그〉라는 단어를 첨가해보오. 히믈러며 보르만의 이름이 아주 나쁘게 씌여졌을거요. 다는 몰라도 이 단어들중에서 대부분이 이 수자속에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오. 내가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잘테니 해득이 끝나면 슐쯔부관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오. 그러면 인차 나를 깨울거요.…》

슐쯔는 아침 여섯시 날이 환히 밝아서야 뮬러를 깨웠다.

하늘은 높다란 재빛구름으로 덮여있었다. 간밤에는 폭격이 없은탓에 거리엔 화염도 볼수 없고 화장터의 그을음도 날리지 않았다.

니체박사는 뮬러의 책상우에 해득된 암호문을 가져다놓았다.

《쉘렌베르그는 히믈러의 동의를 얻어 스웨리예에서 미국인들과 회담을 벌리려고 한다. 나는 자유롭게 행동할수 있는 승인을 얻었다. 속히 접선을 요구한다. 내가 베른으로 떠나보낸 목사가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줄것이다. 유쓰따쓰.》

뮬러는 눈을 감고앉아 가볍게 몸을 흔들었다. 그의 입가에 가벼운 미소가 어리였다. 슈틀리쯔가 뮬러, 쉘렌베르그, 보르만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로르흐를 통하여 날려보낸 암호문을 받아쥐였을 때 뮬러의 기쁨이란 뭐라고 표현할수 없으리만큼 컸다. 그는 어린 시절 정원에 봄이 찾아오면 포도밭을 가꾸는 할아버지의 일손을 도와 밭머리를 뛰여다니던 그때의 기쁨, 그러한 만족을 느끼였다.

뮬러가 그처럼 기뻐하는데는 까닭이 있었다. 그는 슈틀리쯔를 자기 의사의 맹목적인 집행자로 만들려던것을 달성하였다. 이제부터 크레믈리와 백악관사이에 있을수 있는 충돌문제는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다. 그렇게만 되면 뮬러는 구원될것이다. 설사 로씨야와 미국사이에 무장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로씨야정탐기관에서 보르만과 뮬러가 평화회담에 어떤 태도를 보일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기때문에 뮬러와 보르만이 살구멍은 얼마든지 있었다. 바로 이 두사람에게 비밀회담을 중지하는가 아니면 촉진시키는가 하는것이 달려있었던것이다.

미래의 복수를 위한 다리

보르만은 아직 채 밝지 않은 이른새벽 베를린을 떠나 포츠담으로 향하였다. 여기 포츠담의 수림속에는 울타리를 높이 둘러막고 뮬러가 선발한 민족사회당의 로당원 다섯명과 에쓰에쓰장교 세명이 지키고있는 자그마한 독립건물이 외로이 서있었다. 이 건물에는 박사 멘겔레가 꾸린 《아이 — 2》특수실험실이 들어있었다. 보르만은 이 병원의 이름을 암호로 이렇게 불렀고 그 이름자체를 극비에 붙이고있었다. 지어 보르만은 총통에게마저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바로 이곳으로 지난밤 차창을 가린 자동차로 사나이들이 실려왔다. 이들은 모두 보르만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선발된 그가 신임하는 사람들이였다.

멘겔레는 여기서 정형수술을 전문으로 하고있었다. 오늘은 그로쓰소장이 첫 수술을 하였다. 그는 1920년대에 법정에서 보르만을 살려준 《옛루사》인 친구의 아들이였다. 옛친구는 변호사들에게 보르만이 감행한 살인죄를 그가 볼쉐위크테로분자와의 싸움에서 정당방위를 한것으로 주장하라고 일러주었던것이다. 그때로부터 스물두해가 지난 오늘 보르만은 친구의 아들 그로쓰를 앞으로 미국의 유태복고주의자들속에 침투시킬 준비를 시키고있었다. 그로쓰는 영국이톤대학을 졸업하여 영어에 능통하고 에이흐만밑에서 일도 해보고 왈테르 라우프와 함께 유태인아이들을 살륙하는데도 참가하였었다.

멘겔레는 그로쓰의 코모양을 몰라보게 만들어놓고 그가 팔뚝에 먹실로 새겼던 에쓰에쓰번호대신에 수용소의 독가스감방에서 유태인들을 질식시켜 죽이기전에 그들의 몸에 불로 지져 썼던 수자와 꼭같은 《1,507,842》라는 번호를 새겨넣었다. 두번째로 《아이 — 2》실험실로 실려온것은 루돌프 위틀로프였다. 그는 로씨야에서 자라면서 교육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가 씨멘스무역회사에 있으면서 한때 로씨야에 주재하고있었던것이다. 그 덕에 루돌프는 로씨야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말도 익히였다. 그는 뮬러가 《붉은 관현악단》사건을 취급할 때 거기에 참가하였었다. 지금 보르만은 그를 볼쉐위크후

방에 침투시킬 준비를 시키고있었다. 멘겔레는 루돌프의 이마에 흠집을 만들고 로씨야포로의 왼쪽어깨에서 벗겨낸 살갗에 쓰딸린의 초상화를 그리고 《도이췰란드강점자들에게 죽음을!》이라는 글을 써서 그의 몸에 이식해붙이였다. 멘겔레는 세번째로 클라우스 네만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였다. 네만은 급진적인 아랍의 군주제도반대자들 속에 침투하게 되여있었다.

보르만은 이 세사람을 일일이 만나볼 생각이였다. 그들은 비밀준수원칙에 따라 서로 보아선 안되였다.

보르만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거리를 승용차로 달리면서 선발된 세사람과 진행할 담화에서 모든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아직도 대답할수 없었다. 그들을 적후방깊이 침투시키려 한다고 할지, 아니면 지금 누구나 다 알고있는 내용에 대하여, 다시말하여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였다. 이제 몇달내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쟁은 끝날것이다. 당신들에게는 민족사회주의를 복구하는 위업에 자기를 바쳐야 할 무거운 임무가 맡겨져있다. 우리 운동의 견인력은 세계제패를 위한 강자들의 투쟁에서 우리가 가장 월등한 아리아민족대표들에게 허용할수 있는 모든것을 공개적으로 명백히 선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이췰란드사람들만이 절대적으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말을 삼가해야 할것이였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지위에 오르려는 공상을 어김없이 실현할수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민족적우월성의 불길을 들었어야 할것이였다. 그렇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과오를 명심해야 한다. 당신들은 추억과 공상을 간직하고있어야 할 사람들이다. 민족사상의 불길이 전세계를 휩쓸 때 도이췰란드사람들은 어쨌든 세계의 주인으로 될것이다. 무계급이란 말은 아리숭한 유태인들의 사상에 물젖은 맑스주의자들의 허황한 소리다. 로씨야볼쉐위크들이 떠드는 〈국제적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매개 민족은 오직 자기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하고있다. 하나의 혈통,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만이 아무런 모순도 없을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리아인들의 행복한 사회를 담보하여주는것이다.》라는 말을 할지 알수 없어 망설이였다.

보르만은 이 세사람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아직은 발표하지 않은 총통의 후계자—자기자신에게 일정한 손실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고 모든걸 털어놓고 말해줄수도 없었다. 보르만은 자기가 직접 선정한 이 세사람들모두가 히틀러를 광신적으로 숭배하는 정신으로 길들여진자들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만일 이 자들에게 도이췰란드제국이 끝장날 때가 오래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겠는지 예측할수 없었다. 이자들중에서 누가 히틀러에게 편지를 보내여 보르만이 반역자라고 할수 있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반역자를 당장 재판에 넘기자고 요구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몇몇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총통이 전쟁에서 패배당했다.》는 말을 했다고 밀고하여온 자료들이 있지 않은가. 제국재판소소장 프레이슬러는 보르만에게 아이들이 밀고한 자료를 보이고나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넉두리를 하였다.

《우리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애국자들만 가지고있으면 이 세상 어떤 적이든지 타승할수 있을것입니다.》

보르만은 종잡을수 없이 갈마드는 갖가지 어지러운 생각을 쫓아버렸다. 보르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였다. 그는 자기의 말과 행동뿐아니라 자기 생각까지도 통제할줄 알았다. 그러나 보르만은 3월초 문화유물보관문제와 관련하여 이틀동안 오스트리아의 린쯔(거기에는 로씨야, 뽈스까, 프랑스에서 빼앗아온 9억 7천만딸라에 달하는 그림과 조각품들이 쌓여있었다.)에 가서 후퇴하여온 외무성과 벌가리아, 흐르바쯔까, 마쟈르, 슬로벤스꼬 《망명정부들》이 들어있는 독립건물을 보고 어제날 강대국이라고 하던 도이췰란드제국의 가련한 몰골을 느끼였고 이제는 끝장이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전선에서 당하고있는 패배나 모든것이 붕괴되고있다는 뮬러의 보고나 사람들이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고있다는 민족사회당 지방조직들에서 올라온 자료가 아니라 해도 패망할 날이 각일각 다가오고있다는 강한 의식이 그에게서 깡그리 힘을 빼앗아갔다. 그래도 지하대본영에서 총통의 옆에 있을 때와 제정된 질서가 매일같이 엄격히 준수되고 통신이 한순간도 멎음이 없이 보장되고있을 때 그리고 히틀러가 상들의 보고와 지도를 놓고 작전을 벌릴 때에는 다소 마음이 안정되여있었다. 제국의 지하대본영은 지심이 깊어 폭음이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보르만에게는 언제나 진수성찬만 차례졌으며 에쓰에쓰장교들은 예나 다름없이 화려한 옷차림그대로이고 장군들은 보고

자료를 안고 시시각각 찾아왔다.

아직도 여기 지하실에는 강력한 도이췰란드의 환영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 도이췰란드는 여전히 단마르크, 이딸리아, 네데를란드, 노르웨이를 타고앉아있고 에쓰에쓰군대가 오스트리아에 뻗치고있었다.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마쟈르에도 주둔군이 머물러있었다. 다만 걱정스러운것은 동부전선이였다. 온 민족이 목숨바쳐 나라를 지켜야겠는데 누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려 하겠는가?! 이제 빨갱이들이 모조리 살륙하려고 달려들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어차피 도이췰란드 사람들은 개개의 집과 산림, 벌과 고간을 지켜야 할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육체적생존에 관하여 이야기되고있는것인데 혈통속에 숨은 잠재력은 그 무엇보다 우세한것이다.

보르만은 그때 린쯔에서 돌아오자 처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총통의 지시를 기다릴것 없이 자체로 결심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그때까지만해도 자기가 살 구멍을 뚜진다는것이 어쩐지 무섭게만 느껴졌다. 그는 자기에게서 이런 생각이 완전히 성숙되였다는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그는 이런 생각을 밀어버릴수도 있었다.그러나 쥬꼬브원수가 베를린을 들이칠 준비를 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로젠베르그가 쏘련신문들인 《쁘라우다》와 《크라스나야 즈베즈다》의 사설을 읽어주었을 때 보르만은 동요만하고있을 때가 아니라는것을 알았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했다.

근간에 와서 보르만은 겝벨쓰가 자기를 도와주자 그와의 련계를 밀접히 하면서 게링그, 히믈러, 립벤트로프, 로젠베르그를 배척하는 길로 나갔다.

4월초 어느날 겝벨쓰는 볼쉐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 알렉싼드로브가 《크라스나야 즈베즈다》지에 발표한 론설을 번역해가지고 보르만을 찾아왔다. 론설은 《에렌부르그동지는 단순하게 생각하고있다.》라는 표제로 씌여졌다.

《로씨야놈들이 우리 도이췰란드사람들과 왈쯔춤을 추자고 하는구만.》 겝벨쓰는 호탕하게 웃었다.

보르만은 론설을 주의깊게 읽어보았다. 론설은 도이췰란드사람들이라고 하여 모두가 적인것은 아니며 그들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쓰고 계속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후 두 부류의 도이췰란

드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할 때가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겝벨쓰는 쓰딸린이 도이췰란드사람들은 언제나 미개한 아시아사람들의 적으로 남아있으리라고 철없는 생각을 하고있다고 비웃었지만 보르만은 자기 생각에 몸이 오싹 떨렸다.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모스크바가 이 보르만에게 손을 내밀면 어쩐다? 어찌 이 론설에 그런 의미가 없다고만 보겠는가?)

보르만은 바로 이러한 견지에 토대하여 3월말경에 구출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제부터 쉘렌베르그나 히믈러나 할것없이 서방과 접촉하는것을 방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더우기 음모자들의 리익은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않고 뮬러가 그들을 도와주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되 이 비밀회담에 대한 소식이 매일 매 시각 모스크바에 흘러가도록 하는것이 필요했다. 모스크바가 어느 한 때에 가면 히믈러와 덜레스가 손을 잡게 될것이고 볼쉐위크를 반대하는 유럽공동전선이 실현될 날이 오래지 않다고 불안에 떨도록 하자.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러자면 히믈러가 이 회담에서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총통을 설복하여 서부전선에서 많은 부대들을 동부전선으로 옮겨놓게 해야 한다. 그 이후의 사업은 총참모부에서 구데리안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크렙스를 앉혀놓는것이다. 그는 한때 모스크바주재 도이췰란드군사무관을 지낸바도 있어 로씨야말에 능했다. 크레믈리는 이러한 인사이동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결심을 내릴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 서부전선이 열리고 그들의 군대가 베를린에 밀려들 때 쓰딸린에게 평화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다.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히믈러를 리용하고 다른편으로는 도이췰란드군대와 구데리안, 케쎌린그, 헬렌과 같은자들이 이끄는 그 최고사령부는 아무런 조종능력도 못가지고있다는것으로 쓰딸린을 놀래우면서 그에게 얄타협정은 빈 종이장에 불과하다는것을 증명하는 문건을 넘겨주어 그로하여금 미국이 베를린과 나아가서 전유럽을 타고앉는가 아니면 보르만이 이끄는 새 도이췰란드, 다시말하여 미국을 밀어내고 모스크바(이 경우에 모스크바의 최고지위를 인정하고)와 영예로운 평화를 이룩하려는 보르만의 도이췰란드를 인정하는가 하는것을

생각케 하자. 그는 자기 모순에 찬 결심을 내릴수 있다.
그러나 다음순간 보르만은 시간이 너무도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결쳐야 할 단계는 많으나 시간이 없었다. 급변하는 정세는 균형을 바로잡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균형만 잘 잡으면 도망치지 않고도 살아날 구멍수가 생길것만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보르만은 갑자기 슈틀리쯔생각이 났다.
보르만은 베를린으로 돌아오자 뮬러에게 전화를 걸어 구데리안과 헬렌에 대한 자료를 묶어가지고 자기한테 오라고 지시했다. 보르만은 뮬러를 보고 누구를 통하면 히믈러가 서방대표와 접촉하고있다는 정보가 크레믈리에 들어가게 할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슈틀리쯔는 베를린에 돌아온 후에 체포되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보르만이 히틀러의 승인도 없이 모험적으로 시작한 공작에서 부족한 공백을 메워주는 귀중한 고리로 되였다. 도이췰란드에서 국가공무원들은 이전에는 직무상 관등급에 따라 임무와 권리가 정확히 규정된 자기 위치에서 치차와 같이 맞물려 일해왔다면 지금은 상층부에 앉아있는자들이 아래일군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말할것도 없고 목숨도 담보할 힘이 없다고 보고 어떻게 하면 레루에서 탈선하여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렬차에서 뛰여내릴것인가, 이 한가지 생각뿐이였다. 도이췰란드에서 《2인자》라고 하는 게링그를 포함하여 도이췰란드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 죽지 않고 살아남을수 있다는 담보가 있으면 히틀러도 인질로 바칠 심사였다.
뮬러는 보르만의 이야기를 듣고나자 그 어떤 경우에도 슈틀리쯔가 로씨야정탐기관과 관계를 가지고있다는데 대하여 말해서는 안된다고 마음먹었다. 뮬러에게도 자기대로의 구출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계획이 보르만의 구상과 련결되여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제가 한가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슈틀리쯔가 베를린에 돌아오면 그를 어느 장소로 불러서 이런 문제를 특별히 강조해주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당신이 오늘부터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는 이미 수행한 과업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는것이다. 당신은 쉘렌베르그와 그의 부하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당신은 회담소식이 총통에게 전해져 그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크레믈리에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담에 대

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아직은 누가 스톡홀름과 스위스에서 진행될 회담의 성과를 리용하게 되겠는지 알수 없으나 그 어떤 경우에도 모스크바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도록 해야 한다.〉이렇게 말입니다.》

보르만은 바싹 신경이 곤두서서 뮬러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아무말도 묻지는 않았다. 그에게는 민족사회당 고위급지도자들 대개가 그러하듯이 소소한 일을 놓고 가타부타 할것이 아니라 대범하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의 생활적인 신조가 있었다. 작은 일은 아래일군들이 할 일이지 결코 웃사람들이 비칠바가 아니라는것이다. 만일 뮬러가 보르만에게 슈틀리쯔에 대하여 이러저러한것을 알려주어 그가 일정한 결심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이것이 어느정도 보르만의 사업에 저애가 되지 않을수 없으나 책임은 결국 뮬러가 지게 될것이다. 공작을 꾸민것도 뮬러가 아닌가. 설마 그가 좀 의심스러운데가 있기로서니 함부로 이 보르만을 걸고야들겠는가? 물론 그러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다 혹시 걸고들면 어쩐다? 아니다. 모략의 전문가인 뮬러가 그렇게 서투르게 일을 처리할수 없다. 그는 공작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니 머리속에 기본구상이나 남겨놓고 쓸데없는 생각은 밀어던져야 한다. 자질구레한 일이야 전문가들이나 할 일이지 정치가인 이 보르만이 손을 댈 일인가. 나야 기본구상이나 내놓으면 되는거고 그걸 집행하는건 아래일군들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의 법과 같은것이고 우리의 도덕으로 되여버렸다. 누구도 이러한 정신에 어긋나게 행동하지는 않을것이다. 나는 지금 유럽의 운명을 놓고 걱정하고있다. 그런만큼 뮬러의 비밀경찰은 이 보르만을 어떻게 잘 도와줄것인가 하는 생각이나 하라지. 책임은 게스타포가 져야 한다. 일이 비뚤어지기만하면 그들을 추궁할것이다. 머리속에 있는 구상은 결코 기소(재판심의행정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를 말함)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것이다.

보르만은 《아이－2》실험실에 도착할무렵에야 비로소 가장 적합한 담화형식이 떠올랐다. 그것은 오늘 이 장소가 민족사회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함께 싸워나갈 벗들사이의 유쾌하고 허심한 좌담회와 같은것으로 되게 하여야겠다는 생각이였다.

아지트며 은행구좌번호와 같은 실무적인 문제들은 이미전에 알려

주었다. 련락형식도 약속되여있으니 이제 남은것은 작별인사말뿐이였다.
사람들은 떠나기 앞서 한마디씩이나마 말을 남겨야 했다. 하지만 그로쓰는 별로 할 말이 없을것이다. 사실 그로쓰는 자기 일에 놀랄만큼 능통했다. 하긴 실천가인 에이흐만의 밑에서 일해왔으니 그럴만도 한 일이였다. 실천가들은 알프레드 로젠베르그와 같은 리론가들보다 사업에 들어가서는 비할바없이 우월한것이다. 루돌프 위틀로프는 로씨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있었다. 뮬러도 그렇지만 칼텐부룬너도 그의 실무적수완을 높이 평가하고있다. 클라우스네이만은 알렉싼드리야에서 출생했다. 그의 아버지는 헤쓰와도 친분관계가 깊었다고 한다. 보르만은 한사람씩 일일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의 초점은 전세계적범위에서 민족사회주의사상을 부흥시켜야 한다는데 두었다. 이들은 바로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만 했다.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객관적인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는것이다. 보르만은 히틀러가 집권한 직후에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은 노벨상수상자 까를 폰 오쎄쯔끼의 말을 인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도이췰란드대통령 힌덴브르그원수가 히틀러를 불러서 그에게 《민족통일》정부를 구성할것을 위임하기 바로 직전에 오쎄쯔끼는 이런 글로써 사태의 본질을 까밝히였다.
《간신은 대지주들이 자기들의 처지가 악화되고있다는것을 느낄 때, 농민들이 권리를 찾기 시작하고 그들이 같은 혈통의 도이췰란드 지주들이 자기들을 략탈하는 바로 거기에서 진리를 보았을 때 그리고 로씨야의 맑스주의자들이나 미국의 부르죠아지들이나 근본이 천한 유태인자본가들이 아니라 로동자들이 끝없는 론쟁과 파업을 중지하고 로동에 확고히 발을 붙이는 경우에 얻을수 있는 그러한 정세를 대공업이 느낄 때에 생겨나는것이다.》
(괜찮아, 내가 이제 오쎄쯔끼가 한 《간신》에 대한 말을 들려줄테다. 내 입에서 이런 말을 직접 들으라지. 이들도 이제 적들속에서 살게 될터이니 좀 모욕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비유법에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데 습관되여야 할게 아닌가.…)
멘겔레는 정문에서 보르만을 맞이했다.
《각하, 오늘 당신은 정말 기분이 좋아보입니다!》
《그런가 보오.》라고 대답하며 보르만은 손가락으로 멘겔레의 뺨을 살짝 건드려주었다.

불행한 녀인 (1)

《여기에 고대민요요 민요서사시요 신화요 하는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그마르 프라이따흐는 호호호 웃으며 말하였다.

《자, 그런 쓸데없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술이나 마시세요!》

슈틀리쯔가 생각했던것처럼 다그마르 프라이따흐는 키가 큰 녀자였는데 얼굴은 퍽 곱게 생겼다. 프라이따흐는 길다란 다리를 용케 구부려 일본녀자들처럼 의자에 앉았다.

《그래 어째서 쓸데없는 소리란말입니까?》

슈틀리쯔는 달짝지근한 스웨리예술을 한잔 쭉 들이키고나서 이렇게 물었다.

《그거야 아주 간단하지요. 훌륭한 가문의 녀자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가정에 포로되지 않을수도 있고 또 하고싶은 일도 할수 있으니까요. 나는 한때 총참모부에서 장교로 근무할 꿈을 꿨드랬어요. 나한테는 작전계획을 세우는것과 같은 일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나는 놀음을 놀아도 인형을 가지고논것이 아니라 주석으로 주물하여 만든 놀이감병사를 가지고놀았답니다. 나한테는 지금도 유럽에서 제일 훌륭한 놀이감을 수집하여놓은것이 그대로 있어요. 붉은군대병사도 있고… 후에 내가 그걸 보여주겠어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나를 어문학전문가로 키워주었답니다. 이게 무슨 과학인가요? 이건 과학이 아니예요. 이건 보다 실용적인 측면이 더 많아요. 이를테면 기술자가 식당을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것을 비유해 말할수 있다고 봐요. 그러자면 기술자는 매염제(화학에서 색붙임약)를 먹인 나무는 어떤데 쓰고 문발은 어떻게 치는가 하는걸 잘 알아야지요.》

슈틀리쯔는 벙글벙글 웃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좀 협소한데는 있지만 스칸디나

비아문학과 도이췰란드문학을 련결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총참모부에서 일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 두 어종이 어원적기초가 같고 의미도 같다는것을 증명할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스웨리예를 도이췰란드에 병합시키는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아야지요.》

《참 한심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나는 이미 오래전에 어문학적인 동일성에 대하여 증명하였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나는 책에서 로씨야의 많은 민요서사시들을 우리가 만들었다는것을 읽은적이 있어요. 로씨야귀족들의 선조가 우리 스칸디나비아—도이췰란드귀족들이였으니까요. 그들이 바로 로씨야에 서사문학을 날라다가 퍼뜨려놓았지요. 그러다가 슬라브인들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민요서사시들을 다시 여기로 끌어왔어요.》

《그게 과학적인 말씀인가요? 아니면 로씨야를 우리에게 병합하여야 한다는것을 쉽게 론증하기 위해 당신이 또 주석을 붙여서 총참모부 놀이감을 만든건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로씨야군 총참모부가 도이췰란드를 로씨야에 병합하려는 론거를 세울거예요.》

프라이따흐는 제풀에 깔깔 웃었다.

《술을 또 부을가요?》

《마음대로 하세요. 참 나한테 치즈도 있는데 빵과 함께 들지 않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시장기도 느껴지는데…》

프라이따흐는 가볍게 몸을 일으켜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짧다란 치마밑으로 길고 미끈한 다리가 드러났다. 슈틀리쯔는 지금껏 기이하고도 몹시 유감스러울 정도의 법칙과 같은 현상을 보아왔다. 그것은 흔히 얼굴이 곱게 생긴 녀성들은 육체미가 없었고 손이 고운 녀성들은 다리가 가늘었다. 그리고 머리단장이 화려한 녀성들은 대체로 목이 볼품없이 밭았다. 하지만 프라이따흐는 빠진데가 없었다. 자연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라는 가혹한 론리를 무시하고 이 녀자에게는 모든 선의를 베풀었다.

프라이따흐는 부쩨르브로드(뻐터, 치즈, 꼴바싸 등을 넣은 빵쪼각)도 맛있게 만들었다.

《자, 이젠 술도 마시고 빵도 잡수세요.》

프라이따흐는 다시 의자에 가볍게 올라앉았다. 그리고는 슈틀리쯔를 정찬 눈길로 바라보며 말하는것이였다.
《난 남자들이 음식을 먹는걸 보기가 아주 재미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스칸디나비아—로씨야민요서사시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지 않으렵니까?》
《당신은 참 이상하군요. 언제나 그렇게 지성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서야 녀자들을 잠자리에 부르는가요? 난 당신과 같은 남자라면 당장에 잠자리에 들겠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당신은 그저 모르는체하는군요. 당신같은 남자들에게는 녀자들이 인차 반해버리고말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요?》
《당신에게는 믿음성이 있으니까요.》
《그게 전부인가요?》
《그럼 어디 더 요구되는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 나한테 개목도리를 구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아요.그럼 내가 당신의 개가 되겠어요.》
《당신은 개를 좋아하는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꼭 이딸리아사람들이 묻듯하시네.에스빠냐사람들도 그렇고, 아무튼 도이칠란드사람같지 않게 물어요. 도이칠란드사람치고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당신에게 〈브리뜨바〉라는 별명을 하나 지어주지요. 좋습니까?》
《아무렇게 하든지 다 좋아요.》
《그러니까 민요서사시에 대하여…》
《또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지 말고 담배나 있으면 좀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어쩐지 담배를 피우고파요.》
《그럼 원래 담배를 안피우십니까?》
《피우던걸 끊었어요. 중학교때에 벌써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정말 장한 일을 했습니다. 하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떼기 힘든 버릇도 전쟁때엔 쉽게 뗄수 있지요.》

《로씨야의 쑤워로브장군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옳습니다. 그런데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가 원수인줄로 알고있는데.》
《틀렸어요. 그는 대원수였답니다.》
《그건 그렇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놀러 온것이 참 기쁩니다.》
《당신이 놀러 왔어요? 내가 알건대는 사업하러 온것 같은데.》
《좌우간 사업이면 사업이라고 합시다. 난 당신이 처사를 잘해주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헌데 당신은 이전에 내 동료들중에서 누구와 련계를 가졌댔습니까?》
《난 그런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게 되여있어요? 나의 상급이 그렇게 지시를 주었어요.》
《나한테만은 말해도 일없습니다.》
《할수 있다면 말하겠어요. 그는 예곤 로렌쓰라고 했어요.》
《정말 로렌쓰라고 했습니까? 혹시 가명이 아닌가요? 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주 매력있게 생겼더군요. 내 남편을 도와주었어요. 아니, 혹시 도와주는척했는지도 모르지요.》
《당신은 왜 그에 대하여 과거에 있은 일처럼 이야기합니까?》
《그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폭격에 다리를 다쳤지요.》
《자, 그럼 스칸디나비아—도이췰란드—로씨야서사문학에 대하여 좀 말해보지요. 그게 아주 흥미있을것 같구만. 또 마시지 않으렵니까?》
《당신은 술에 취한 녀자들을 좋아하세요?》
《글쎄 어떻다고 할지. 둘 다 취해버려야 구속을 느끼지 않지요. 이를테면 정구장에서 수준이 꼭같은 사람들이 짝패가 되여 놀듯이말입니다.》
《당신은 왜 서사문학에 대하여 그처럼 관심을 가지는거예요?》
《그건 당신이 나의 관심을 끌기때문이지요. 사람을 잘 알려면 그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말하는걸 들어봐야 한답니다.》
《당신은 남자들 소리를 하는군요. 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녀자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먹이며 남편에게 점심은 어떻게 끓여 대접하고 남편이 불안하게 자지나 않는가를 지켜보는걸 보아야 알수 있답니다. 하긴 난 심리학자는 아니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자

꾸 보세요?》
《당신을 좀 잘 봐두고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묻지 않아요. 왜 자꾸 보는가구.》
《자, 이젠 말씀해보시지요.》
《당신은 로어를 아세요?》
《사전을 가지고 책은 좀 읽을수 있지요.》
《그럼 핀란드서사문학은 알아요? 에스또니야 까렐리야서사문학은요? 핀란드서사시는 참 듣기가 좋답니다. 그런걸 알아요?》
《아니, 잘 모릅니다. 그런걸 피뜩 들어본 생각은 납니다. 당신에게 번역문이 있습니까?》
《우리는 번역술이 너무 낮아서 변변히 번역을 못한답니다. 하지만 로씨야사람들은 번역을 아주 잘하지요.》
《로씨야사람들은 어떻게 되여 그렇게 잘하는가요?》
《로씨야에는 유럽과 아시아가 접경되여있고 언어도 여러가지가 혼합되여있어요.》
《그러니까 핀란드서사시가 듣기 좋단말이지요.》
《로씨야에는 꾈리완장수에 대한 민요서사시도 있답니다. 내가 우리 서사문학과 대비적으로 분석해보았는데 류사한데가 아주 많더군요. 그리고 무로메쯔장수에 대한 민요서사시는 또 어떻구요. 그건 정말 우리 서사문학과 류사하답니다.》
프라이따흐는 놀랄만큼 발음이 류창했다. 그는 제법 제 나라 말처럼 로씨야이름을 거침없이 불렀다. 슈틀리쯔는 그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손에 들고있는 담배대만 보면서 만지작거렸다.
프라이따흐는 호—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우리 서사문학이나 로씨야민요서사시나 할것없이 참 흥미있는것들이지요. 이것들은 다같이 〈사람이여! 이 땅우에 영원히 살기만 바라지 말고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고 더 높은 영광의 령마루를 향하여 돌진하라. 그대들의 이름이 후세에 길이 남을진대 죽음인들 두려우랴. 더 높이 오를수록 그대들의 이름은 더더욱 확고히 남게 되리.〉하는걸 보여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자꾸 웃기만 하세요?》
《왜 웃느냐구요? 그 말을 듣기가 재미있어서 그럽니다.》
《또 마시세요.》
《그러다가 내가 이 집 술을 몽땅 들창내면 어쩔려고 그럽니까?》

《나는 스웨리예대사관에서 눅은 값으로 술을 산답니다.》
《그다음을 계속하십시오.》
《뭘 계속하라는거예요? 아까 하던 이야기말이지요? 그럼 계속하겠어요. 로씨야에 블라지미르라는 공작이 있었는데 그는 백성들에게 세례를 시키군하더니 그 이름이 신성화되여 붉은 해라는 별명까지 받았답니다. 공작을 점점 더 떠받들어올리고 그를 찬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에 대한 아름다운 민요서사시까지 생겨났어요. 공작의 명성이 높다보니 그 덕을 입어 도브린이라는 그의 삼촌까지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지요. 삼촌은 무로메쯔장수의 친우이고 전우였답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 대한 서사문학이 나오면 당신도 아마 히뜰러부총통이 지닌 영광의 빛발속에 들게 되겠지요. 참 멋지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정말 멋질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영광을 지닐만한 근거는 어디 있는가요? 혹시 내가 블라지미르공작이나 무로메쯔장수의 덕을 입게 된건 아니겠는지?》
《글쎄요. 어떨는지. 나는 녀자다보니 론리를 파고드는 일은 하고프지 않아요. 그런건 남자들이나 할 일이지요.…그럼 내가 무로메쯔장수가 아들과 싸우던 민요이야기나 들려주지요. 무로메쯔장수는 처음에는 제 아들인지도 모르고 한참 맞붙어싸우다가 상대가 아들 쥐도윈이라는걸 알고서야 싸움을 그만두었어요. 글쎄 아들녀석이 적군이 되여 아버지와 싸울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나요. 그래도 아들은 제 혈육은 잊지 않았던지 아버지에게 적장수가 잠들었다는것을 몰래 알려주려고 했던거예요. 하지만 그렇겐 되지 않았어요. 무로메쯔장수를 구원해준건 아들이 아니라 요술막대기와 같은 십자가였어요. 장수는 힘과 지혜가 한창 생길 나이였으니까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옛날 슬라브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마흔살부터 쉰다섯살때까지가 제일 지혜가 트는 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젠 무로메쯔장수와 할데부란드가 부자지간에 베른근방에서 싸웠다는 도이췰란드하류지방의 민요와 대비해보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과 싸우다가 칼을 들어 제 아들을 찌르려던 순간 화해하였어요. 장수의 아들이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하였던거예요. 당신은 켈트족의 까자모르장수와 아들에 대한 전설은 들어봤어요? 그건 정말 로씨야전설과 가

깝답니다. 까자모르장수는 무로메쯔처럼 아들과 싸우다가 그를 죽이고나서야 자기가 누구를 죽였다는것을 알고 아들의 시체에 엎드려 사흘을 울다가 끝내 자살하고말았어요. 보세요. 우리모두가 서로 얼마나 가깝나요?》

슈틀리쯔는 빙그레 웃었다.

《그것만 봐도 서로 합칠 때가 되긴 됐는데…》

《이봐요. 내가 왜 당신을 보고 나한테 남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구말구요.》

《그럼 어디 말해보세요.》

《부인은 아마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내가 옆에 있어주었으면 하는거겠지요.》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건 다른데 있어요. 남자들만 자기들의 마음도 잘 알아주구 곱게 생기고 한이불밑에서 잠도 같이 자고 또 머리가 팽팽 도는 녀자들을 데리고 살아봤으면 하고 꿈꾸는게 아니예요. 우리 녀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섬세하답니다. 우리가 남자들처럼 글재간이나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내용을 담은 책들을 만들었을거예요. 그건 정말 훌륭한 책이 될거예요.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과 같은 남자들을 그려왔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찾아왔군요.…》

…슈틀리쯔는 누군가 자기를 지켜본다는 륙감에서 잠을 깼다.

프라이따흐부인이 침대에 걸터앉아 그를 바라보고있었다.

《당신은 잠결에 무슨 말을 자꾸 하세요. 이건 좋지 않은거예요.》

《내가 뭐 신세타령이라도 하던가요?》

프라이따흐는 호—한숨을 내쉬고 부드러운 손으로 슈틀리쯔의 이마를 가볍게 문지르며 물었다.

《담배를 피우겠어요?》

《난 도이췰란드사람입니다. 커피도 안마시고 담배를 피운단말입니까?》

《커피는 끓여놓은지 벌써 오랬어요.》

《부인, 쉘렌베르그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 소리에 녀인은 의아한 기색을 띠며 슈틀리쯔를 바라보았다. 보매 쉘렌베르그가 그와 만난것 같지 않았다.

《그럼 내가 부인과 만날것이라고 누가 말해주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있어요.》
《이마가 벗어지고 흰머리가 듬성듬성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따금씩 왼쪽볼편이 경련이 일듯 푸들푸들하는 사람말입니다.》
《맞았어요. 다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지 않게 되여있다는걸 알아나두세요.》
《절대로 말해선 안되지요.…자, 가서 커피나 마시고 일을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스웨리예에 있을 때 우리 집에서 로씨야녀자가 보모로 일하였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로씨야에서는 갓난애기를 세례시킬 때 신부가 애기의 머리에 밀납덩이를 매달아 세례용기에 밀어넣는답니다. 만일 밀납덩이가 물에 가라앉지 않으면 어린애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는거지요. 당신의 어머니는 아마 당신의 밀납덩어리가 물에 가라앉지 않았더랬다고 말해주었겠지요?》
《부인, 난 어머니를 보지도 못했답니다.》
《불행하군요. 어머니가 없이 살다니. 아마 퍽 괴로왔겠구만요. 그럼 아버지는 계셔요? 아버지 생각이야 잘 나겠지요.그래요?》
《아버지 생각은 잘 납니다.》
《아버지는 또 다른 어머니를 얻었댔어요?》
《아닙니다. 혼자 살았지요.》
《그럼 밥은 누가 끓여주었나요?》
《우리 아버지가 동자질을 아주 잘했답니다. 그리고 나도 좀 하구요. 그러다가 내가 돈을 벌어 하녀를 하나 구했지요.》
《젊은 녀자였나요?》
《예, 아주 젊었댔지요.》
《그 녀자의 이름이 싸샤가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사랑하던 처녀지요.》
《당신이 간밤에 그 처녀를 부르더군요.》
《지난밤에만 부른것 같지 않습니다.》
《나도 그럴거라고 생각했어요.…당신은 오늘저녁때까지 메밀눈에 머리칼이 검은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신통히 트럼프장의 대왕처럼 생긴자예요. 그자가 당신을 해칠수 있어요.》
프라이따흐는 의자에서 일어나 부엌쪽으로 걸어갔다. 슈틀리쯔는 창문을 통해 한적한 거리를 내다보며 생각에 잠기였다.

(나는 지금 연극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과연 이 연극은 어떻게 끝나겠는지. 나는 뮬러나 쉘렌베르그가 제기한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이였다. 여기까지는 옳게 행동한것 같다. 그러나 비밀기관의 이 거물급들이 나 하나를 대상으로 연극을 놀고있다는것이 이상스럽다. 그들로서는 내가 너무도 작은 존재가 아닌가. 이자들은 숫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총명한자들이다. 이자들은 먼거리조준을 해놓고 책략을 꾸미고있는데 나는 아직 그것이 어떤 무기인지 또 누구를 치려고 하는지 모르고있다. 뮬러와 쉘렌베르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걸 다 알고있는건 아닌가? 그걸 어찌 알랴. 다만 한가지 명백한것은 아직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그러지 않고야 이자들이 장기적인 공작을 꾸미겠는가. 무엇보다도 알수 없는것은 프라이따흐와 공작할 과업을 나에게 준것은 쉘렌베르그인데 어떻게 되여 뮬러가 그 녀자에게 나에 대한 말을 했는가 하는것이다.)

가혹한 처사

에이흐만은 반질반질 윤기가 도는 까만 머리칼이 관자노리까지 내리덮이고 우묵하게 들어간 눈확속에서 작은 눈이 날카롭게 번뜩이였다. 어쩌면 그렇게도 신통히 트럼프장의 그림과도 같아보이는지 볼수록 놀랍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사람에게 인사라도 하는듯 먼곳에서 들려오는 포성에 머리를 기웃했다.

《슈틀리쯔, 나는 아침부터 당신을 기다리던참이요. 이렇게 만나니 반갑소. 어서 앉으라구.》

《고맙습니다. 헌데 내가 아침에 당신한테 올거라고 누가 말해주던가요?》

《쉘렌베르그가 말해주었소.》

《이상한데요. 난 누구한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에이흐만은 후— 한숨을 내쉬였다.

《그러면 쉘렌베르그가 본능적으로 그럴거라고 느꼈을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찌겠소. 지금은 그래야 살아가는 때인데…슈틀리쯔, 내가 한 둬사람 골랐소.》
《아니 두명밖에 못골랐단말입니까?》
《나머지놈들은 다 하늘로 날아나버렸소. 화장터의 연기처럼말이요.》
에이흐만은 빙긋이 웃으며 슈틀리쯔에게 문건을 두통 넘겨주었다. 그리고나서 전기곤로를 켜놓고 함통에서 커피를 꺼내여 슈틀리쯔를 보고 커피에 사탕가루를 두고 마시는지 아니면 그대로 쓴것을 마시는지 물었다. 슈틀리쯔가 사카린을 섞어마신다고 하자 그는 모를 일이라는듯 입귀를 이죽거렸다.
《사카린을 먹으면 간에 나쁜데 당신은 공연한짓을 하는가보오.》
에이흐만은 커피를 두잔에 나누어부은 다음 담배를 붙여물며 물었다.
《난 암만해도 당신들이 이따위 쓰레기같은놈들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구만. 좌우간 그건 내가 상관할바가 아니지만 왈테르 루베나우란놈은 각별히 조심하오. 이놈은 아주 교활한자요.》
《그럼 이 게르만 메르겔은 어떻습니까?》
《그놈은 리해할수 없는놈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구만. 그는 기술자인데 한번은 제 형과 함께 비행기휘발유정제장치인지 뭔지 하는걸 만들어냈는데 한다하는 전문가들도 다 와서 보구 설계가 훌륭하다느니 세계적발명이라느니 하고 평가가 대단했다오. 그런데 게링그부총통이 그의 문건에 붙은 사진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히틀러에게 그가 유태인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히틀러는 이런 훌륭한 발명은 아리아혈통들이나 하지 유태인과 같은 족속들은 생각도 못한다고 게링그의 말을 싹 잘라버렸다는거요.》
《내가 한가지 묻고픈데 쉘렌베르그가 당신에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쉘렌베르그가 한사람 이야기는 하더구만.》
《쉘렌베르그가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지 그걸 말하지 않더냐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소.》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왈테르 루베나우를 권고한단말이지요?》

《그렇소.》
《그를 믿을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슈틀리쯔, 그 어떤 경우에도 유태인은 믿을수 없소. 그대신 이런 자들을 리용할수는 있다는거요. 나를 보고 이런 일을 하라면…》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런 일에 솜씨가 있다는걸 많이 들어왔습니다.》
슈틀리쯔는 속으로 쓰겁게 웃었다.
(더러운 자식, 네놈들은 도이췰란드의 우수한 수재들이였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오쓰까르 꼬꼬슈까까지도 짓밟아버리는 간악한 인종주의도당들이고 유태인 배척자들이며 어제날의 혹독한 종교재판관과 같은놈들이다. 하지만 네놈들은 히틀러, 히믈러와 같은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혀놓은 바보들이다. 네놈들옆에 있는것만해도 무시무시하고 숨막힐것만 같다.)
《그래 당신은 무엇을 념두에 두는거요?》
에이흐만은 바싹 긴장해지며 물었다.
《난 당신의 사업을 념두에 두는겁니다. 수용소의 화장터야 당신의 솜씨가 아닌가요. 그런 훌륭한 기업소의 설비를 놓고서 어찌 감탄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말에 어쩐지 풍자적인데가 있어보이는구만.》
《에이흐만씨, 당신은 선전성에 있는것도 아닌데 문제를 그렇게 보다니요. 풍자적인 말은 선전성에서나 쓰는거지요. 당신은 사실을 똑바로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왈테르 루베나우는 처음 체포되기전까지 변호사로 일하여왔다.
나치스당 부총재였던 헤쓰의 지시로 모든 유태인의사들, 보석공들, 변호사들, 약제사들, 제과공들, 기자들, 연출가들, 간호원들이 자기일을 할수 없게 되자 루베나우는 불잡혀죽을것 같아서 숨어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주일도 못되여 결국 체포되여 십년형을 받고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후 1941년에 루베나우는 공산당원들, 사회민주당원들, 베를린과 퀠른의 지하조직지도자들과 함께 수용소의 같은 감방에 갇혀있었다. 여기에서 그는 거의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행히 히슈펠트라는 좋은 동무를 사귀여 자기 몫으로 차례지는 작은 빵쪼각을

나누어주는것을 얻어먹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다. 루베나우는 륙각별이 새겨진 죄수복을 입고있었지만 히슈펠트는 가슴팍과 뒤잔등에 빨간 표적이 그려진 옷을 입고있었다. 이것은 공산당원이라는 표식이였다. 처음에는 그도 륙각별을 달고있었는데 수용소 소위놈이 그것을 와락 뜯어버렸던것이다.

《너는 본래 혈통이 유태인이기도 하지만 공산당원이기때문에 민족성을 가질 권리가 없어. 우리는 언제나 빨간 표적을 먼저 겨눈단말이야. 그것은 누런 표적보다 더 크니까.》하고 소위는 씨벌였다.

하루는 히슈펠트가 진펄을 메우는 작업을 하다가 기회를 보아 도주하였는데 아쉽게도 그만 총에 맞아 쓰러지고말았다. 그는 다리가 부어 빨리 뛸수가 없었던것이다. 땅에 쓰러진 그의 시체를 보고 모두 눈물을 머금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 지경이 된단말인가. 차마 그 정상을 눈뜨고 볼수 없었다. 칼날같이 앙상한 갈비대는 언제 살점이 있어보았던가싶었고 몸은 졸아들어 한줌이나 되나마나할것 같았다.

수용소에는 루베나우를 지도하여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였다. 그는 사회민주당 게라주위원회 지하조직성원이였다. 그는 히슈펠트와 마찬가지로 루베나우와 같이 신념이 똑똑치 못하고 우연히 수용소에 끌려온 인간은 자기곁에 붙들어두고 늘 깨우쳐주지 않으면 놈들에게 굴복하여 변절자로 굴러떨어질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수용소직원으로 일하고있는 공산당원 우베라는 사람을 통하여 루베나우를 힘든 로동에서 떼내여 쉬운 병원일로 돌려놓았다.

아브람 역시 많은 정치범들처럼 륙각별을 떼우고 나중에는 총살까지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바로 이런 때 게스타포는 그의 안해 파이나가 체스꼬슬로벤스꼬에 가서 히틀러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제네바에 있는 국제적십자련맹과 련계를 가지고있다는것과 모스크바국제혁명투사후원회에도 가고 스톡홀름에도 다니면서 저명한 활동가들과 자주 만나 그들로부터 지지와 방조를 주겠다는 약속도 받고 영국과 프랑스의 출판물에 히틀러의 악랄성을 폭로하는 인터뷰도 몇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는 정보를 쥐게 되였다.

게스타포는 파이나를 도이췰란드로 끌어오기 위하여 그의 남편 아

브람을 리용해볼것을 결심하였다.

수용소에 파견된 제국안전총국 4국 소좌 릭스돌프는 아브람의 문건을 뒤지면서 공산주의사상이 뼈속까지 밴 이런 류의 사람들과는 연극을 놀아야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밀정 클라우스를 붙이면 어떨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그가 아무리 재치있다 해도 아브람의 의지를 꺾을것 같지는 못하였다.

릭스돌프는 제국안전총국본부에 전보를 날려 루베나우를 아브람에게 붙여보자는것을 제기하였다. 도이췰란드에서 첫째가는 리론가로 자처하는 알프레드 로젠베르그는 민족성은 아버지의 혈통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어머니켠을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고보면 루베나우가 어머니켠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켠의 몇대를 거쳐 개량된 유태인의 피줄을 잇고있다면 모험적이기는 하나 그를 위협하여 사건에 침투시킬수 있을것 같았다. 그러나 하이드리흐의 지시에 의하면 그가 한두대 넘어간 유태인 혼혈아인 경우에는 히믈러부총통의 결론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히믈러는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였다. 그는 언제인가 한번 아브웨르에서 에스빠냐 메츠금융공동체의 한 대표와 련계를 가지겠다고 제기하여왔을 때 까나리스에게 양보한 일이 있었다. 메츠는 프랑꼬에게 하나의 조건밑에 신형무기구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프랑꼬가 승리한 후 에스빠냐민족에 대한 대학살을 감행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같은것이였다.

릭스돌프는 에쓰에쓰본부가 자기 제의에 동의하리라고 그리 믿지 않았다. 이것은 제국안전총국에서 강력한 인물이였던 하이드리흐의 밑에서 갓 출세의 길에 들어선 쉘렌베르그가 모스크바, 빠리, 스톡홀름, 베른과 련계를 맺고있는 파이나를 그냥 내버려두었다간 도이췰란드제국에 더 위험한 적으로 될수 있고 큰 손실을 줄수 있다는것을 모르고있으면 더욱 그럴수 있었다. 쉘렌베르그는 하이드리흐에게 파이나를 도이췰란드로 끌어다 재판에 회부하여 처형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할수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다른 망명자들에게 경거망동하다간 그와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하리라는것을 깨닫게 할수 있었다. 이리하여 왈테르 루베나우는 아리아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수용소에서 제국안전총국의 리익을 대표하는 에쓰에쓰의 사업에 인입된 특수밀정카드에 등록되게 되였다.

릭스돌프는 먼저 루베나우의 안해 예바와 그의 두 아이를 잡아오게 하였다. 아이들은 큰 아이가 열살이고 작은것이 일곱살이였다. 루베나우는 가족들이 갇혀있는 뮨헨형무소로 옮겨왔다.

릭스돌프는 그를 심문실로 불러냈다.

《저기 창문으로 다가가서 수인들이 산보하는 마당을 내려다봐. 누가 있나.》

루베나우는 네면이 석축으로 막히고 거기에 또 가시철조망을 둘러친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순간 그는 전류에 닿은듯 몸을 흠칠 떨었다. 자기 두 아이와 안해가 여기에 와있을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아이들은 몸에 어방없이 큰 옷을 걸치고있었다.

루베나우는 귀에서 윙 소리가 나고 눈앞이 혼미해지면서 차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떠보니 뿌잇한 안개속에서 징그럽게 웃는 얼굴이 보이였다.

《그래 가족들이 여기서 나가기를 바라는가?》

루베나우는 헉헉 흐느껴울었다.

《어쩔텐가? 나는 아직 대답을 못받았다. 개자식!》

째는듯한 장교의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루베나우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럼 넌 우리를 위해 시키는 일을 다하겠는가?》

루베나우는 아직도 어깨를 들먹이며 소리없이 울고있을뿐 대답이 없었다. 릭스돌프는 그에게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고 날카로운 눈길로 쏘아보며 다우쳐물었다.

《나는 아직 대답을 못들었다. 네가 〈예〉하고 대답을 해야 이야기를 계속할테다. 네가 만일 침묵을 지키면 지금 당장 네 눈앞에서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될것이다.》

무시무시한 게스타포의 악형도 결국 놓고보면 단순히 마지막운명이 가까와올수록 살기를 바란다는데 기초한것이다. 언제인가 하이드리흐는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암환자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가보라. 환자가 자기의 상태를 가늠할수 없는 정도에 이를 때에도 그가 얼마나 생을 갈망하는가 하는것을 보게 될것이다. 우리가 체포한 범죄자는 암환자와 같다. 범죄자에게 더 고통을 주고 의지를 꺾어놓을수록 더 잘 순종할것이다. 그는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 살기를 바라는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걸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 불쌍한 애들과 녀편네를 내놓아주기 바랍니다.》
루베나우는 간신히 몇마디 말하였다.
《그건 념려말아. 내가 시키는 일만 하면 즉시 내놓아주겠다.》
《난 모든걸 다하겠습니다. 또 할줄도 압니다. 다만 당신의 말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내놓아주면 하라고 하는 일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면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너를 죽이기는 왜 죽이겠는가? 우리는 네가 지켜보는데서 애들을 반주검이 되도록 두들겨팰것이다. 너는 우리가 한번 말한걸 쉽게 잊지 않는다는걸 알고있지?》
마침내 루베나우는 굴복하고말았다. 그는 아브람에게서 안해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으면서 이제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그것을 넘겨주어 쁘라하에 보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브람은 아직 루베나우가 게스타포의 밀정으로 전향된것을 모르고있었다.
파이나와의 연극은 루베나우를 병원으로 옮겨 필요한 준비를 시킨 다음 쁘라하로 떠나보낸 후에 시작되였다. 파이나는 그를 통해 남편과 《련계》를 취하게 되였다. 녀인은 《정치범들의 탈주를 도와주는 지하조직》대표와 만날것까지 약속하였다. 상면은 국경지대에서 진행하기로 약속되였다. 이리하여 순진한 파이나는 놈들의 마수에 걸려 베를린에 끌려가 남편과 함께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고말았다. 그리고 파이나를 동행하였던 두사람도 살해되였다. 이 공작에 참가했던 자들은 히믈러부총통의 감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릭스돌프만은 혼잡통에 관심밖에 밀려났다. 그는 부아가 치민다고 신중성없이 하이드리흐에게 편지를 써보내였다.
《우리가 이번에 루베나우를 쁘라하로 떠나보낸 사건을 통하여 유태인혼혈아들과의 사업은 십분 가능하며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을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이드리흐는 편지를 받고 노발대발했다.
《이 밥통같은 자식이 볼쉐위크물이 들었구나. 우연히 거둔 성과를 원칙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저 얼뜨기같은놈은 민족성이 기본이고 그것이 사람을 규정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에 로골적으로 도전하려고 들거든. 안돼. 유태인혼혈아들과의 사업은 절대로 안돼. 릭스돌프는 해로운 로씨야의 계급의식에 물들었어. 그것은 앞으로도 우월한 민

족주의사상에 기초한 우리 학설의 주되는 적으로 될것이다.》

이쯤 되고보니 릭스돌프가 결코 무난할리가 없었다. 그는 에쓰에쓰대렬에서 쫓겨나 두달후에는 소방대원으로 내리먹었다. 릭스돌프는 정신적으로 타락하여 때를 가리지 않고 망탕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종당에는 소방대열 맥주집 변소에 들어가 목을 매고 죽어버렸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자기에 대한 처사가 너무도 억울하여 《나는 히틀러를 괴수로 한 간악한 놈들의 희생물로 죽는다. 불쌍하게 숨진 이 아리아인의 피값을 치르라!》는 혈서를 남기였다.

쉘렌베르그는 루베나우가 끄나불로 전향되기는 했으나 그에 대한 감시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게스타포는 루베나우의 가족들을 림시로 석방하고는 한달에 한번정도 루베나우를 차에 태워 시내로 끌고가서는 차창을 통하여 가족들을 볼수 있게 하여주었다.

그사이에 루베나우는 자기 동족들을 살륙하는 작전에 두번씩이나 참가하였다. 한번은 에이흐만이 서방과 접촉하고있는 금융업자들과 비밀회담을 하려 부다뻬슈뜨에 가면서 루베나우를 끌고갔다. 금융업자들은 수용소에서 유태인을 한명 석방시켜주는 대신에 휘발유 한 자동차씩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에이흐만은 이 휘발유를 로젠베르그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지금 로씨야, 뽈스까, 프랑스의 박물관에서 빼앗아온 보물들을 도이췰란드로부터 린쯔로 빼돌리는 사업을 맡아보고있었다.

에이흐만은 바로 이런자를 슈틀리쯔에게 넘겨줄 과업을 받은것이였다.

《안녕하오, 루베나우.》

슈틀리쯔는 별로 시답지 않게 인사하고는 감방 한가운데 고정시켜놓은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슈틀리쯔는 자기가 이제 하게 될 담화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조리 록음되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루베나우를 료해하러 온만큼 자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슈틀리쯔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내 이름은 볼젠이라고 하오. 나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야겠소. 그럴 준비가 되였겠지?》

《내가 준비되든 안되든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서는 제 가족을 인질로 잡아두고 자기들이 하고싶은대로 하는걸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난 솔직히 말하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지요.》

《그럼 그렇다고 치자구. 묻건데 당신은 우리나 우리 기관, 도이칠란드민족사회당보다 누구를 더 증오하오?》

갑자기 루베나우의 얼굴근육이 파들파들 떨리고 눈섭끄리가 우로 쳐들렸다. 그러자 불에 구운 사과껍질같이 초들초들한 주름살이 좁은 이마에 가득찼다. 퉁퉁 부어오른 무릎우에 올려놓은 손이 불안에 떨렸다.

《볼젠각하, 당신은 참 이상하게 묻습니다.》

《루베나우, 이상하게 물은게 아니라 당신이 내 말을 잘못들은것 같구만. 난 당신에게 아주 단순한걸 물었소. 그러니 당신도 나에게 단순하게 대답하면 되지 않겠소.》

《나는 도이칠란드를 위기에 몰아넣은 그 무책임한 위정자들을 누구보다 증오합니다.》

《그 위기란 어느 위기말이요? 오늘의 위기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럴리가 있습니까! 나는 1930년대의 위기를 념두에 두는겁니다.》

《우리 신문자료를 보면 1930년대에 도이칠란드를 위기에 몰아넣은것은 볼쉐위크들과 제3국제공산당 유태인들과 미국의 금융재벌들이였소. 내가 당신의 대답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소?》

《옳습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대답하려고 했던겁니다.》

《아니요. 난 당신의 대답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수 있소. 도이칠란드에 좌익세력이 없었거나 혹은 이와 반대로 좌익세력이 좀더 단결되여 힘이 강하고 현명하였더라면 우리가 정권을 쥘수도 없었을것이고 당신도 지금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거라구. 어떻소?》

《볼젠각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있소! 당신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증오하듯이 우리를 증오하고있소. 그렇게 정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감방에 되돌려보내겠소. 당신의 가족들의 운명에 대하여서는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라지. 난 모르겠소. 그렇게 하겠소?》

《내가 옥에 갇힌 초시기에…》

《됐소, 루베나우, 내 말을 듣소. 이제 내가 당신이 생각하고있는걸 말할테니 그 말이 옳으면 머리를 가로젓소.…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있소.

(개자식들, 너희들이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악당같은놈들, 천벌을 받을줄 알아라. 네놈들은 아이들과 안해를 가두어넣고 나를 굴복시켰지만 저주를 받을 날이 올것이다. 개같은놈들, 네놈들은 허황한 꿈을 실현해보려고 별 지랄을 다하지만 안된다, 안돼. 너희들도 나처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거다. 네놈들이 나를 끌고 쁘라하와 노트르담에 갔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파이나에게 네놈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있다는것을 죄다 알려주었던거다. 그래서 파이나가 무장한 자기 두 동무를 데리고 상면장소에 왔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악당들의 수가 더 많았고 이자들은 국경지대의 수림속에서 이 순박한 지하공작원들을 잡기 위한 훈련까지 받은놈들이였다. 그러나 일없다. 개자식들, 난 노트르담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위험신호를 주었다. 아무렴, 내가 너희들보다 똑똑치 못한줄 알았더냐. 천만에. 네놈들의 악독한 통치도 조만간에 무너지고말것이다. 나는 멀리 앞을 보고 생각하고있지만 네놈들은 어리석은 인종주의사상에 물젖어 고작 한해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청맹과니들이다. 에이흐만이 나를 끌고 부다뻬슈뜨에 갔을 때 내가 유태인공동체대표에게 몇마디 여쭈었더니 그는 모든것을 리해하였다. 나는 용서를 받을수 있지만 네놈들은 한놈도 용서받지 못할것이다!)

루베나우는 사뭇 놀라운 눈길로 슈틀리쯔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마와 관자노리에 땀이 송골송골 내배였다. 힘없이 움켜잡은 주먹은 뼈가 앙상한 손가락을 더욱 두드러져보이게 하였다.

《그래 당신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머리를 저었소.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었소?》 슈틀리쯔가 재촉하듯 물었다.

《당신은 무엇때문에 저에게 또 고통을 주는겁니까? 무엇때문에 말입니다?!》

《고통을 당한것은 당신이 아니라 파이나였소. 그는 남편인 아브람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했소. 얼마 안되는 빵쪼각마저 당신과 나누어먹으며 당신을 살려준 그 남편말이요. 파이나는 남편의 손톱밑에 바늘을 찔러넣는것을 눈앞에서 보았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소.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소. 하긴… 이게 내 사업이나 당신의 앞날에는 관계되지 않는 한갖 감상

적인 정서였다고 볼수 있지. 나는 방금 당신이 자기를 리해하여주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의 희생물로서 용서해줄수 있을것이라고 속생각을 굴리고있다는것을 읽으면서 우리 두사람을 다같이 용서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지었소. 우리가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태인들이 미치광이들의 손에 죽지만 않게 하여준다면 내 친구들도 몇명 용서해줄수 있을것 같소. 게다가 유태인들은 스위스로 보내줄거요.… 그건 내가 조직하던지 내 친구가 할수 있지. 그러나 스위스에서 금융계거물들과의 접촉은 당신이 맡아서 해야겠소. 어떻소, 계획이? 그럴듯하지 않소?》

《그럼 내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슈틀리쯔는 책상서랍에서 려권을 꺼내여 책상우에 던졌다.

《일어나서 한번 보오.》

루베나우는 슈틀리쯔의 랭담한 표정을 살피며 주춤주춤 다가와 훔치듯 려권을 집어들고 안해와 아이들의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스위스에서 발급한 사증이 있나 하여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사증이 제대로 되여있음을 확인하자 갑자기 설음이 북받치며 눈물이 왈칵 쏟아져내렸다. 그는 한동안 헉헉 흐느껴울다가 간신히 머리를 쳐들고 물었다.

《그런데 문건에 당신의 출발승인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무사히 갔다오기전에 가족들을 스위스로 떠나보낼줄 알았소?》

《나는 당신이 말한것을 죄다 집행하겠습니다. 이건 쉽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다시 감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뮌헨형무소에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소. 당신은 다시 감방에 갇히지 않을거요. 우리는 이제 스위스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면 여기 호텔에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수용소에 데리고가야 하오. 그리고 당신과 내가 모험하여 빼낸 유태인들을 다른곳으로 실어가는 일을 조직해야 한단말이요. 우리가 스위스손님들과 대화를 끝내면 그들이 돌아갈 때 당신의 안해도 함께 가게 될거요.》

《아닙니다. 먼저 안해를 보내지 말고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다시말하지만 손님들이 석방된 유태인들을 데리고갈 때 우리는 당신의 안해를 함께 보내겠소. 그리고 다음번 그루빠와 함께 첫번째

아이가 떠나가고…》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제 안해의 려권에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따로 보낸단말입니까? 내 아들녀석은 청각이 뛰여나게 발달하여 일곱살에 벌써 작곡을 하였답니다. 그러니 그애를 먼저 보내주십시오. 앞으로 도이췰란드의 명예를 떨칠줄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들도 보내고 딸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슈틀리쯔는 피곤한듯 딱딱한 나무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였다.

《옳게 생각했소. 루베나우, 내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못한것 같구만. 정확히 말해서 실무적문제를 담당한 사람들의 불찰인것 같소. 래일 내가 당신의 안해가 따로 가지게 될 려권을 보여주겠소. 그리고 아이들도 저마끔 따로 려권을 가지도록 하지.》

《좋습니다. 그럼 두번째 아이는 언제 가게 됩니까? 먼저 총각애를 보내주십시오.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그애만은 살아남아야 할게 아닙니까. 언제면 이런 일이 있을것 같습니까?》

슈틀리쯔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되물었다.

《당신에게 신문도 주지 않았던게지? 그러니 방송은 더 말할것도 없겠구만.》

《신문이 다 뭡니까. 못보았지요.》

《좋소. 내가 당신에게 신문도 주도록 하고 전선소식도 듣도록 하여주지. 자, 그럼 내가 종이를 줄테니 이렇게 쓰라구. 〈저의 이름은 왈테르 루베나우입니다. 저는 첩보장교 볼젠각하의 제의를 접수하고 수용소에서 수인들을 끌어내는 공작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당면한 이 인도주의적인 공작에서 볼젠각하와 그의 상급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것을 맹세합니다. 아울러 저는 변절만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저의 가족들도 즉시 처형되리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루베나우.〉그리고 마지막에 날자를 써야겠소.》

슈틀리쯔는 간수를 불러 루베나우를 도로 감방에 데려가도록 하고는 수용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루베나우에게 점심도 푸짐히 차려주고 담배는 하루에 석대정도, 꽉사탕은 두알쯤 주도록 부탁했다. 그리고나서 슈틀리쯔는 뮬러의 부관 숄쯔에게 전화를 걸어 뮬러를 속히 만날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마지막놀음

뮬러는 슈틀리쯔가 모스크바와 련계를 가지고있다는것을 확신한 후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다. 그것은 크레믈리에 대한 자기 공작계획이 총적인 선에서는 하나의 흐름을 타고있으나 단계별로 보면 서로 련결되지 못한채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래서 뮬러는 슈틀리쯔를 만나자 이런 말부터 꺼냈다.

《여보게 친구 이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으라구. 자네 옷장에 연미복이 있을테지?》

《각하, 당신의 부하들이 내 양복안까지 뜯어서 검열하는판이니 이거야 뭘 건사인들 하겠습니까. 내 옷을 당장 같은 실로 꿰매라고 해주십시오. 난 눈이 밝은놈이여서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것도 잘 알아낸답니다.》

《망할자식들, 내가 당장 처벌을 주겠소. 내가 실은 어떻게 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주었는데 그 모양이로군.》

《각하, 그런데 연미복은 왜 입으라는겁니까?》

《음악감상을 좀 하려구 그러는거네. 군수경제상 슈페르박사가 음악보급협회에만은 전기를 주라구 했다 하지 않소. 아마 음악보급협회회장에게 호의를 베푼가보오. 아 글쎄 군수경제상이 겝벨쓰와 다투기까지 했다누만. 겝벨쓰가 악단을 모조리 〈인민자위대〉에 보내라고 했으니 음악을 즐기는 슈페르가 그게 마음에 안들었던 모양이야. 오늘은 귀머거리작곡가… 그 령감의 이름이 뭐든지 그의 음악을 한다오.》

《베토벤말입니까?》

슈틀리쯔는 랭담한 표정으로 뮬러를 쳐다보았다.

《베토벤은 당신과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요. 하지만 당신은 자기를 령감이라고 하지 않는구만요.》

《슈틀리쯔, 죽은 사람때문에 노여워말게. 이건 하나의 감상주의에 불과한건데 그게 우리 사업에 지장을 줘서야 되겠나…》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연미복을 입고 오지요. 그러나 음악보급협

회에 외투를 입고 가지 않으면 얼어죽을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는가?》
《난 거기에 한달에 두번씩은 꼭꼭 간답니다. 당신은 그걸 벌써 잊었는가요?》
《슈틀리쯔, 자넨 내가 자네를 위해 꽁무니에 늘 개인호위병을 달고다니는줄로 생각하는게로구만. 우리는 꼭 필요한곳에서만 자네를 돌보아준다네.》
뮬러는 외투를 벗어 옷보관실에 맡기였다. 거기에는 병원에서 갓 퇴원한 불구자들이 일하고있었다. 이전에는 여기에서 가슴팍과 옷소매에 누런 금줄이 건너간 검은 제복을 입은 로인들이 일하였던것이다. 여기로 찾아오는 베를린사람들은 누구나 다 여기는 의례히 이런 로인들이 있어야 하는곳으로 습관되여버렸었다. 그러나 그들은 태반이 굶어죽고 얼어죽고 얼마 남지도 않았다. 불구자들은 일솜씨가 매우 서툴렀다. 그들은 가끔 가다가 번호패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불편한 몸을 구부려 그것을 겨우 주어올렸다. 그때마다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여나오던지 욕설이 나왔고 고통스러워 얼굴을 찡그렸다.
음악회에 오는 손님들은 연미복밑에 털조끼를 받쳐입었다.
뮬러는 음악에 무슨 조예라도 있는듯 신중한 기색으로 의자에 앉아있었다. 슈틀리쯔는 그 모양이 역겨워서 자리를 옮기고싶었지만 겨우 참았다.
뮬러는 슈틀리쯔의 이런 속생각을 알아맞추기라도 한듯 웃으며 시까슬렀다.
《슈틀리쯔, 자넨 정말 참을성이 대단해. 내가 만약 자네라면 참지 못했을거네.》
《에그몬트》가 시작되자 슈틀리쯔는 은연중 1940년 빠리의 어느 한 호텔에서 모스크바방송을 틀어놓고 음악대학의 강당에서 울려나오던 교향시를 듣던 생각이 났다.
슈틀리쯔는 그때 로씨야연출가들의 창작적구상이 도이칠란드연출가들보다 훨씬 앞섰다고 생각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고전작품을 합창으로 실현해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개인들이 무대에 출연하는것을 꺼려하였다. 어떤 작품에서나 군중은 하나의 무리로 취급되고 민족사회당 성원들만 앞에 내세웠다. 이것이 결코 악영향을 놀지 않

을수 없었다. 물론 나치스트들이 집권하던 시기에 훌륭한 도로들이 건설되고 현대적기계들과 고속도비행기들이 생산되였다. 하지만 천여년의 도이췰란드력사에서 그 발전계선을 넘어섰다고 할만한 책이라고는 한권도 나온것이 없었고 세계사회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영화나 가극, 교향곡, 조각과 그림같은것은 한점도 없었다. 나치스트들은 그 무슨 전통에 대하여 떠들면서 새로운 예술형식을 극력 반대하였다. 그러다보니 사상가들과 시인들의 나라로 불리워온 이 나라 인민들을 정신적빈곤에 몰아넣을수밖에 없었다.

도이췰란드놈들이 강점한 빠리에서 로씨야의 《에그몬트》곡을 들으면서 슈틀리쯔는 크나큰 긍지에 사로잡혀있었다. 바로 그의 혁명, 그의 로씨야가 인류력사에 볼수 없었던 지어 그리스의 예술천재 엘라다의 시기에도 문예부흥기에도 볼수 없었던 새로운 예술적경지를 개척하였다는것을 세상에 소리높이 웨치고있다는 의식에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그는 마야꼽스끼, 아인슈타인, 쇼스따꼬위치, 끈찰롭스끼, 쁘로꼬피예브, 야슈벌리, 예쎄닌, 지가, 싸리야나, 빠스쩨르나끄, 끄로윈, 블로끄, 엘 리씨쯔끼, 따이로브, 숄로호브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세계를 들썩하게 한 영화들인 《차빠예브》, 《어머니》, 《우리는 크론슈따뜨에서 왔다》, 《유쾌한 아이들》이 생각났다. 과연 어느 나라 예술이 십년사이에 이처럼 많은 위인들을 세상에 내놓았던가?!

뮬러는 슈틀리쯔쪽으로 머리를 기웃하며 말했다.

《에그몬트가 타협을 포기하고 분명히 볼쉐위크들쪽으로 기울어지는것 같구만.》

《그렇다고 민족사회당원이야 적과 타협할수 있겠습니까?》

《나같으면 교형리들의 제기를 즉시 받아들이겠네.》

뮬러는 슈틀리쯔에게 눈을 끔뻑했다.

음악회는 십분도 못되여 중단되고말았다. 영국비행기들이 폭격을 개시한것이였다. 베를린사람들은 소리만 듣고도 이것이 영국비행기 《모스키토》라는것을 알았다.

음악회에 갔다가 프리짤브레트슈트라쎄로 걸어서 돌아오면서 뮬러는 오래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게 친구, 자넨 총명한 사람이니까 모든걸 다 잘 알고있을테

지. 내가 전쟁을 평화적으로 끝낼것을 생각하고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으려 한다는거며 또 나와 자네의 상급인 쉘렌베르그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개선된것을 죄다 알고있을줄로 믿어. 하지만 자넨 제일 중요한것을 모르고있단말이야. 하긴 그게 뭐 큰 불행은 아니지. 나도 제일 중요한것이 무엇인지 모르고있네. 그래서 오늘 변변치 못한 합창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나 들어보려구 자네를 끌고왔던거네. 나는 벌써 여러해동안 자네도 잘 알고있는 그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믿는 법을 잊어버렸나보네. 이제는 자기자신도 못믿겠거든. 알겠나? 이건 사실이야. 나는 지금 자네와 놀음을 노는것이 아니네. 루베나우, 프라이따흐, 중단되였던 회담의 재개— 이것이 도대체 뭣에 필요한가?》

《회담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요.》

뮬러는 손을 홱 내저었다.

《슈틀리쯔, 회담은 계속되고있네. 회담은 한순간도 중단된 일이 없단말일세. 쉘렌베르그는 1944년에 벌써 스톡홀름에 날아가 어느 한 호텔에서 미국대표와 단독평화조약에 대한 회담을 가졌댔어. 그때 그는 전 스위스대통령 무지박사와 히믈러부총통과의 회담도 조직했던거지. 이것은 어제 있은 일도 아니고 루베나우를 통해 가졌던 접촉도 아니네. 다섯달전에 우리가 아르덴에서 미영군을 본때있게 답새겨서 쫓아버렸던 그 전투가 있기전에 있었던 일이라네. 히믈러는 우리 수용소들에 갇혀있는 부유한 유태인들과 저명한 프랑스인들을 내놓아줄것을 약속했네. 알겠나? 그후에 히믈러의 지시를 받고 쉘렌베르그가 나한테 찾아왔더군. 그래서 내가 2천여명에 달하는 유태인들과 프랑스인들을 수용소에서 내놓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만 공교롭게도 미영군이 우리에게서 타격을 받고 도망쳐버렸네. 그러자 히믈러도 무지와의 접촉을 끊어버렸지. 바빠맞은것은 쉘렌베르그였네. 그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나한테 다 있어… 올해 정월 쓰딸린이 크라꼬브부근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자 우리가 꼬비브(쏘련군 전선사령관)를 막기 위해 부대들을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시키는통에 미군이 구원된 일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히믈러가 스위스에서 무지와 또 만나 새로운 협정까지 체결했다네. 그게 바로 2월 12일 자네가 스위스로 떠나기전이야. 협정내용이 뭔지 알겠나? 히믈러는 달마다 두 주간동안에 20만명의

부유한 유태인들을 석방시켜 기차로 그것도 1등석에 태워 스위스로 떠나보내겠다고 서명했다네. 그대신 유태인금융업자들은 자기들이 통제하고있는 미국신문들에서 도이췰란드를 반대하는 선전을 중지할것을 약속했지. 만약 3년전에 히틀러가 그들과 약속을 하고 이 금융업자들이 전 스위스대통령 무지를 통해 국제적십자련맹에 금화를 지불하고 무지가 이 돈으로 우리에게 휘발유, 자동차, 의약품을 사서 보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좀 늦은감은 없지 않으나 어쨌든 돈이 오고있네.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가 다시 뜨기 시작했고 자네와 내가 자기 차를 타고 다니지 않나. 더우기 히믈러는 미국 유태인은행업자들과 자기를 보호해줄데 대한 계약까지 체결했다네. 그가 왜 이렇게 했겠는가 하는건 뻔한 일이지. 히믈러가 히틀러미치광이 손에서 다 죽게 된 수많은 유태인들을 살려주었으니 그 값으로 보호를 받자는거지.》

슈틀리쯔는 설레설레 도리를 저었다.

《세계가 그렇게 쉽게 지나간 일을 잊을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뮬러는 입귀를 실룩하며 허구프게 웃었다.

《슈틀리쯔, 기억이라는건 없네. 이걸 명심해두라구. 나에게 방송순서를 짤데 대한 권한을 주면 한달동안에 내가 전체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 과거에 진행한 유태인배척정책은 위대한 총통의 지시에 심히 어긋나는것이다. 총통은 유태인을 살륙할것을 지시한적이 한번도 없다. 이 모든것은 적들의 선전이다. 총통은 오직 하나―불행한 유태인들을 다른 사람들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줄것만을 원하였다 하는것을 증명할테요. 자넨 기억이란 단어를 아예 잊어버리고말게… 앙심을 품는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기억〉이라는 개념과 아무런 련관이 없고 복수를 갈망한다는 뜻에서 쓰이는것이지… 한데 우리는 결국 히믈러의 계약을 파탄시키고말았네. 여기서 〈우리〉라는건 나를 념두에 둔것이 아니라 칼텐브룬너를 말하는거네. 내 생각에는 칼텐브룬너에게 서방과 히믈러주위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원천이 있는가보네… 내가 칼텐브룬너에게 무지와 히믈러간에 있었던 회담에 대한 암호전문(프랑스말로 된 전문)이 마드리드로 넘어가는것을 잡았다고 보고하자 칼텐브룬너는 또 자기대로 총통에게 보고하였던거네. 그러자 총통은 노발대발하여 〈유태인이건

미국인이건 영국인이건 할것 없이 수용소에 갇혀있는자들을 도와준 자는 즉각 총살한다.〉라는 명령을 내렸네.》

《그럼 뽈스까나 프랑스나 유고슬라비아사람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슈틀리쯔, 그러지 말고 자기 머리속에 있는 말을 해야지. 〈로씨야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말이요. 자넨 그걸 묻자고 했던거지. 그렇지 않소? 그 대답은 자네가 벌써 잘 알고있을텐데. 무슨 놀음이 필요하겠나. 자넨 참 지독한 사람이군.》

《하긴 이런 놀음은 바로 지독한 사람들이 놀기는 놀지요.》

하고 슈틀리쯔는 빈정댔다.

뮬러는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끄집어내여 코를 풀었다. 그리고나서야 벙긋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폭격이 있은 뒤의 베를린은 빠리의 가을풍경같다니까. 봄이면 더욱 그러하지. 다만 거기서는 가을이면 밤송이를 굽지만 여기서는 사람고기를 굽고있는것이 차이라고 할가… 자, 그럼 우리 토론을 계속해보자구. 슈틀리쯔, 나는 자네가 지금 벌어지고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걸 듣고싶구만. 쉘렌베르그는 제국안전총국에서 수용소지도국장으로 사업하고있는 베르게르대장을 공작에 끌어들이려 하는 모양인데 그는 지금 수용소를 철수하라는 히틀러의 명령을 집행해야 할 형편일세. 다시말해서 모든 수인들을 전면적으로 없애버리는 일말이야. 전 스위스대통령 무지도 쉘렌베르그에게서 이것을 들어서 알고있네. 그런데 무지는 알고있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쉘렌베르그의 부탁을 받아 아이젠하워를 찾아가서 우리의 모든 수용소들이 표시되여있는 지도까지 넘겨주었다는구만. 그리고 쉘렌베르그는 제가 직접 나서서 미국놈들을 끌고 수용소에까지 다녀왔다 하지 않나. 그는 미국놈들한테서 죄를 용서받는 대신에 수용소에서 에리로와 그의 친구 레이노 그리고 쥐로장군의 가족들을 석방시켜주려고 한다네. 한데 문제로 되는것은 칼텐브룬너가 나를 보고 이자들을 수용소에서 절대로 놓아주지 말라는거야. 내가 이 말을 자네 상급인 쉘렌베르그한테 해주었더니 그가 히믈러를 설복하느라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 히믈러도 좀해서는 결심을 못할걸세. 총통이 무서워서 그러는거지. 사태는 바로 이렇네. 슈틀리쯔, 스웨리예와의 사업은 순조롭게 되여가는것 같네. 두달전에 스웨리예대사

톰쎈이 립벤트로프에게 보낸 전보문이 나에게 있는데 그 내용인즉 베르나도트백작이 히믈러와 만나고싶다는걸세. 히믈러와말이야. 내가 알고있는 자료에 의하면 립벤트로프는 쉘렌베르그에게 자기 고문인 와그너박사를 보냈는데 와그너가 자네 상급을 보고 이게 무슨 영문인가고 물었더니 쉘렌베르그는 제 사람들을 베르나도트에게 파견하여 히믈러와 만날 꿍꿍이를 해놓고도 자기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딱 뗐다네. 그러자 립벤트로프는 제가 직접 히믈러를 만나서 물었는데 히믈러는 베르나도트백작이 스웨리예에서 거물급이기는 하지만 립벤트로프가 만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권고하고 칼텐브룬너에게 에쓰에쓰중장 페겔랴인(그는 히틀러의 녀편네 예바 브라운의 동생과 결혼하여 대본영에 상주하는 히믈러의 개인대표로 되였다.)을 히틀러한테 보내여 베르나도트와 만나는 승인을 받아오라고 명령하였네. 히틀러는 자기 친척벌되는 페겔랴인중장의 말을 듣더니 대번에 성을 벌컥 냈다질 않나.

〈전면전쟁을 하고있는 이때 왕족들과 책상에 마주앉아 공담을 벌릴 겨를이 있는가!〉하고말이야.

하지만 쉘렌베르그는 끝내 베르나도트백작에게 립벤트로프에게서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베를린에 오라고 꾀여냈네. 이리하여 결국 베르나도트백작과 립벤트로프, 쉘렌베르그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졌지. 이밖에도 또 만난 사람이 있는데 자넨 그게 누군지 아나? 칼텐브룬너라네. 베르나도트백작은 단마르크, 노르웨이, 네데를란드의 운명이 몹시 우려된다고 하면서 히믈러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는구만. 쉘렌베르그는 이번에도 그 청을 들어주어 히믈러의 저택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질 않나. 그들은 총통의 명령을 위반하고 단마르크와 노르웨이사람들을 도이췰란드북쪽에 있는 어느 한 수용소에 집결시키기로 약속했네. 그런 대가로 스웨리예는 우리 군대와 에쓰에쓰에 휘발유를 대주기 시작했지. 그래서 내가 자네를 보고 묻고싶은건 쉘렌베르그가 끊어졌던 접촉을 다시 잇는다고 하면서 왜 자네를 이 아리숭한 놀음에 끌어들이려 하는가 하는걸세.》

뮬러는 어제낮 쉘렌베르그와 만나기전까지만 해도 이 회담의 전모를 다는 모르고있었다. 그러다가 뮬러는 모스크바와의 마지막연극을 준비하면서 제 안속은 털어놓지 않고 쉘렌베르그에게 지금 벌어지고있는 사태에 대하여 좀 상세히 말해달라고 간청했다. 뮬러와의 관

계를 좋게 가지는데만 관심을 가지고있던 쉘렌베르그는 뮬러가 엉뚱한 궁리를 하고있는줄은 모르고 그에게 털어놓고 말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것을 그대로 알려주었다.

쉘렌베르그는 뮬러가 슈틀리쯔에 대하여 알고있는 자료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뮬러》라는 이 주패목을 눈동자와 같이 아껴야 한다는 생각만은 확고했다. 그것은 앞으로 자기를 구원해줄 중요한 작전을 바로 이 뮬러와 련결시키고있었기때문이였다. 뮬러는 능력있는 자였다. 그의 민첩한 활동은 헬렌도 따를수가 없었다.

슈틀리쯔는 뮬러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쩐지 갑자기 담배를 피우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그는 싸늘해진 손을 주머니에 넣다말고 이렇게 빈정댔다.

《그러니까 내가 베른에서 한 일은 아무런 보람도 없는 일이였고 나도 알수 없는 그 어떤 중요한 문제의 한갖 방패에 지나지 않았단말인가?》

《그건 나도 알수 없는 일이네. 자네가 베른에서 보람없는 일을 했다고는 볼수 없지. 자네가 나와 보르만이 련결된 사슬의 복잡한 내용을 알도록 도와주었는데 그게 왜 보람없는 일이겠나. 우리는 이 사슬의 한고리를 파괴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다는 몰랐던거지.》

《그럼 신수사나운 월프는 어떻게 되였습니까?》

《지금 당분간 그를 연극에서 떼내였는가보오. 월프를 중요한 예비로 취급하는것 같애. 왜 안그러겠나. 그는 아직 이딸리아에서 50만이상에 달하는 군대를 통솔하고있는데 그게 어디 적은 력량인가?》

《그럼 쉘렌베르그는 무엇때문에 나를 이미 류산되여버린 작전에 끌어들이려 하는겁니까?》

《슈틀리쯔, 바로 그 문제에 대하여 자네보다 내가 더 관심을 가지는거야. 멸망의 지경에 이르면 직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제 살궁리를 더하는 법이거든.》

《내가 쉘렌베르그를 보고 이에 대하여 물어볼가요?》

《그는 당장에 자넬 총살해치우고말걸세. 아니야, 그래선 안되지. 잘 생각해보게. 아직도 생각해볼 밤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나. 래일 또 나한테 오라구. 다시한번 함께 토론해보세.》

그때로부터 세시간후 뮬러는 슈틀리쯔가 본부에 보낸 암호전문을 읽고있었다. 그 내용은 자기가 슈틀리쯔에게 이야기해준 그대로였다.

(그러면 그럴테지! 이제는 쓰딸린이 여기 베를린에서 히믈러의 반대파로 되여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미국놈들에 대하여, 덜레스와 히믈러가 결탁하게 된데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고 그가 스스로 결심을 내리도록 하자.

아무튼 나는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로 한 사람이다. 그런데 보르만은 미국에서 대통령을 반대하고 크레믈리를 로골적으로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더욱더 뭉쳐지고있다고 하지 않는가…)

대통령과 그의 측근자들

시대의 모든 이름있는 정치가들이 그런것처럼 루즈벨트 역시 나라의 정책작성자들속에서 조금이라도 진실치 못한 행동이 허용되면 국사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다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지도부를 굳게 믿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미정탐기관이 스위스에서 월프대장과 만난 문제와 관련하여 로씨야수상이 새로 보낸 서한을 놓고 자기 측근자들중에서 누구와 이 미묘한 문제를 놓고 토론할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되였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무성과도 토론할수 있었고 펜타곤과도 토론할수 있었다. 그리고 도노완이 지도하는 전략정보국도 있었다. 로씨야지도자가 그처럼 불안해하고 노여워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루즈벨트대통령은 지금 워싱톤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후 로씨야가 세계에서 차지하게 될 역할과 관련한 자기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하기에 그는 쓰딸린에게 우정이 넘친 서한을 보냈지만 그를 성나게 했을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루즈벨트대통령은 이번에는 제가 직접 손을 대여 서한을 고쳐보았다. 그는 손에 연필을 쥐고 점 하나 놓칠세라 깐깐히 따져가며 본문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몇번 훑고보니 서한은 나무랄데없이 꾸며지고 동맹국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진실성도 느껴졌다. 그는 매끈한 손을 깍지끼여 책상에 얹고 한동안 방안의 한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였다. 그는 몇가지 문제들이 자기를 괴롭히고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굳이 대답하려 하지 않았고 또 대답하고싶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먼저 쓰딸린은 왜 쳐칠이 도이췰란드사람들과 접촉하고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쓰지 않았는가 하는것이다. 더우기 도노완이 통보한데 의하면 알렉싼더원수를 비롯한 영국사람들이 주역을 했다고 하는데 쳐칠은 어떻게 되여 이 루즈벨트에게 아무런 말도 없는가? 그리고 전략정보국에서 지금까지 이 회담에 대한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전면적인 분석자료를 내놓지 못하고있는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제기된 자료라 해야 극상해서 빠리에 있는 영국친구들한테서 받았거나 여기 영국대사관에서 첩보사업을 맡아보는 사람들에게서 제공받았다고 하는 보잘것 없는것들이였다. 루즈벨트는 어차피 이 물음에 대답하지 않을수 없으리라는것을 알았다. 그것은 로씨야가 전쟁기간에 너무나도 큰 손실을 입었다는 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로씨야의 위신이 세계적으로 부쩍 오른것이였다. 하긴 로씨야가 파쑈도이췰란드와 맞서싸운 기본력량이였으니 그럴만도 한 일이였다.

군부에서는 나치스트들이 서부전선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항복하면 실제적으로 유익할것이라는것을 증명하는 문건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바치였다. 국방성은 로씨야가 이런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있는 책임이 외교관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어느 한 장군도 나치스트들과 접촉한적이 없다고 대통령을 확신시켰다. 그런데 미국무성은 또 국무성대로 쌘프란씨스코에서 있게 될 제1차 유엔총회준비로 눈코뜰새가 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교훈적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만들어 백악관에 올려밀었다. 자료에서 국무성은 적과의 접촉이, 지어 그것이 월프와 같은 너절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적과 접촉하는것이 원칙상 유익한 점이 없지 않다고 고집스레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무성은 유럽에서 미국대표들의 이러한 접촉이 없었노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국무성자료에는 이렇게 지적되여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이 끝난 후의 유럽정세, 특히 베를린상공에 붉은 기발이 휘날리게 될 정세에 대하여 우려하고있는 중립국의 이러저러한 학자들과 기업가들이 개인적인 접촉을 할수 있다는것을 부정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접촉은 유럽에서의 미국의 리익에 대하여 걱정하는것이라고밖에 볼수 없을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실업가》라는 말이 나오자 덜레스형제가 도이췰란드 은행업자 슈레제르와 련계를 가지고있다는 소문이 흉흉히 떠돌던 생각이 문득 났다. 이들 형제는 나치스트들의 시기에도 미국에서 슈레제르의 리익을 대변하고있었다. 그는 부관을 시켜 도노완을 저녁식사에 초청하였던것을 취소케 하고 그에게 베른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묶어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부관에게 《우리 담화가 건설적인 성격을 띠도록 해야겠소. 그럴만한 문제가 있다고 보오. 정보국장이 다 알고있는것을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있는 오늘과 같은 체계가 미국에 무슨 리득을 가져다줄수 있겠는가말이요.》라고 말하였다.

도노완은 루즈벨트에게서 이런 말을 듣자 곧 자기의 오랜 친구이며 변호사회 회장인 데비드 렌쓰를 저녁식사에 초청하였다. 렌쓰는 덜레스형제들과도 친구지간이였다.

도노완은 친구에게 사건내용에 대하여 자초지종 이야기해주었다.

《좋네. 대체로 알만해.》

렌쓰는 흰수건을 앙상하게 여윈 무릎우에 펼쳐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리 유쾌한 일은 못되지만 그렇다고 덜레스가 법에 위반되게 행동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네.》

《설사 법을 좀 위반했으면 어떤가. 이런 말이 루즈벨트의 귀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거지. 그는 신사들의 법전이나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한데 우리가 벌리고있는 공작이 덜레스에게 어떤 화를 미치지 않겠는지 걱정이구만.》

《무슨 소리를 하나. 그 일은 미국에 아주 유리하게 결속될거네. 자네도 잘 알텐데. 만일 루즈벨트가 얄타에서 로씨야사람들이 베를린에 들어가고 그들이 앞으로 몇십년동안 히틀러도이췰란드를 패망시킨 주되는 승리자의 영예를 지니게 하는데 동의하고 쓰딸린이 세운 뽈스까 공산정권을 인정할뿐만아니라 유고슬라비아에서 찌또를 1인자라고 해도 걱정없네. 이 나라에 누군가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게 아닌가?! 나는 덜레스가 월프와 만난 후에 슈레제르로부터 도이췰란드의 모든 항구들을 우리 기업체들의 관할에 넘긴다는 확답을 받았네. 더우기 슈레제르는 도이췰란드가 멸망하리라는것이 확고해지자 작센으로부터 뮨헨에 도

이췰란드의 특별기금을 옮겼다고 하지 않나. 작센에는 루즈벨트가 승인하여 로씨야사람들이 들어갔으니 그런 기금을 둘수가 없었던거지. 아마 300억딸라정도는 되는가보오. 그만하면 적지도 않고 또 많지도 않은 돈이라고 볼수 있지. 문제는 돈보다도 그런 생각이 귀중한거라고 보네. 이것이 다 우리 나라에 차례질터이니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전진할수밖에 없지. 그뿐인줄 아나. 슈레제르는 린쩨에 귀중한 지하보물고가 있다고 알려주었네. 프랑스, 뽈스까, 로씨야, 이딸리아의 미술박물관에서 빼앗아온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쌓여있는데 돈으로 치면 수십억딸라에 달할거라고 하더구만.》

《렌쓰, 이젠 내가 루즈벨트와 할 이야기나 생각해보자구. 이게 그리 간단한 일같지 않구만. 내가 그에게 가기전에 자네와 한번 련습을 해보아야 할게 아닌가… 모든것을 미루어보아 우리가 알렉싼더원수의 이름을 가지고 위장을 하느라고 했지만 모스크바가 덜레스의 공작에 대하여 알고있는것 같은 생각이 드네. 난 크레믈리가 베르나도트백작에 대한 통보와 덜레스가 전 스위스대통령 무지를 통하여 공작을 시작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을거라고 확신할수 없구만.》

《자넨 이게 아주 매력있는 놀음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그건 무슨 말인가?》

《루즈벨트와 쓰딸린이 서로 싸우게 될게 아닌가. 싸움을 붙여놓자구! 난 쓰딸린이 뭘 좀더 알도록 도와주구픈 생각까지 드는구만.》

《맞았어. 렌쓰, 이건 정말 하나의 도락이라고 볼수 있지. 우리는 이 싸움을 방해하지 말아야 해. 한데 내가 한가지 걱정하는건 루즈벨트가 자네가 슈레제르와 접촉한걸 알게 되지나 않겠나 하는걸세. 루즈벨트의 책상우에 슈레제르가 1933년도부터 히믈러의 〈동지회〉회장이라는것과 덜레스가 지금도 여전히 그와 련계가 밀접하다는 자료를 갖다놓으면 아마 기겁을 할거요.》

《그렇게 하는건 좋지 않아… 그만두라구. 지금 루즈벨트의 건강이 나쁘다고 하는 말도 있긴 있으나 이건 대통령이 쓰딸린과 놀아선 안될 놀음을 놀다가 이 나라를 어느 함정으로 끌고가지나 않을가 불안하게 지켜보고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자는거겠지.》

도노완은 설레설레 도리를 저었다.

《아니네, 렌쓰. 루즈벨트는 자기의 온건하고 신사적인 행동으로 이 나라에 적지 않은 일을 해놓을걸세.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더 빨

리 우리 방식으로 하자는거네. 그리고 그 열매도 루즈벨트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차례지게 하자는거지. 대통령의 건강은 지금 대단히 좋네.…》

《그게 믿을만한 소식인가?》

《그렇네. 내가 한 친구에게 대통령주치의사를 보고 좀 물어보라고 부탁을 했던거네.》

렌쓰는 고뿌를 기울여 물을 몇모금 마시였다. 순간 그의 얼굴은 갑자기 퍽 늙어보이는것만 같았다.

《루즈벨트가 오늘 슈레제르와 있은 접촉을 알게 되면 우린 덜레스를 지켜내지 못할것이라는걸 알아두게. 그리고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이젠 로쓰—알라모스(1945년 미국의 핵폭탄 폭발을 위한 비밀훈련장)에서 그로브스의 일군들이 하고있는 일에 대하여 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건 갑자기 무슨 소린가?! 아, 알겠네.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야. 자넨 정말 수법이 보통이 아니군. 쓰딸린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게 하잔말이지. 내가 알기엔 뽀르뚜갈에 있는 자네 친구들이 빨갱이들의 무역기관과 믿음직한 련계가 있는것 같은데 거기를 통해 정보가 모스크바에 새여들어가게 하는게 좋을것 같네. 하긴 이런 일이야 우리가 할것이 아니라 그로브스나 후버가 해야지. 내 생각엔 쓰딸린이 우리 핵폭탄이 터질 날자에 대하여선 그리 관심을 가질것 같지 않구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나라든지 다 꺼꾸러뜨릴수 있는 무기를 만들면서 왜 그처럼 그에게 비밀을 지켜왔는가 하는건 생각하도록 해야 할것 같네. 렌쓰,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네!》

다음날 루즈벨트는 도노완이 제공한 짤막한 자료를 받아보고 오늘부터 도이칠란드사람들과의 그 어떤 회담도 완전히 금지한다는 명령을 담은 암호전문을 덜레스에게 보낼것을 지시하였다. 대통령은 전략정보국장 도노완에게 쓰딸린에게 보내는 서한사본을 넘겨주고 부관을 통해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전략정보국이 제공한 문건에 기초하여 작성된 편지를 쓰딸린에게 보내니 모든 책임은 전략정보국장이 지게 된다. 그러나 이여의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도노완과 함께 책임질것이다.》

미전략정보국의 기도에 관한 통보

쏘련정탐기관의 대좌 막씸 이싸예브는 본부의 지시를 받고 베른에서 베를린으로 떠나왔다. 모스크바는 벌써 오래전에 유럽의 저명한 물리학자들에 대한 동맹국들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정보를 받고있었다. 빠리가 해방되자 미정탐기관에 배속되였던 미국의 학자들이 프랑스학자들에 대한 검질긴 심문을 들이댔다. 그때까지 원자핵폭발에 의한 새로운 무기개발을 연구하고있던 프랑스학자들은 이러한 심문에 의아심을 나타내지 않을수 없었다.

줄리오 큐리는 누구보다 많은 심문을 받았다. 그는 미국과 영국사람들을 반히틀러련합동맹의 전우들로 생각하고 그들이 묻는 말에 순순히 대답하였다. 그러나 미국학자들은 묻기만하고 자기들의 의견은 한마디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자 줄리오 큐리는 분한 생각이 불쑥 치밀었다.

《이건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이요. 당신들은 담화를 하는것이 아니라 심문을 하고있단말이요. 나는 프랑스사람이고 반히틀러련합동맹성원이지 포로된 적이 아니란걸 알아두시오. 나는 프랑스사람으로서 그리고 자기 나라의 애국자로서 내 조국의 과학발전에서 꽁무니에 서는것을 허용하지 않을테요. 당신들이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는것으로 보아 당신들이 무엇인가 연구하고있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는다는것이 분명하오. 그것으로써 우리 프랑스가 세계적으로 응당 차지해야 할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자는거겠지. 그럼 프랑스는 연구사업에서 로씨야에 의거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야지. 드골장군은 나와 나의 동무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있소.》

미국인들은 《원자개발》과 관련한 문제에서 모스크바와는 그 어떤 토론도 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엄격한 비밀에 붙이였다. 미국에서는 공동의 적인 도이췰란드를 두려워하는지 동맹국인 쏘련을 두려워하는지 알수 없었다.

이것은 응당 크레믈리로 하여금 각성을 높이지 않을수 없게 하

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모스크바를 불안케 한것은 미첩보기관이 도이췰란드에서 벌린 수수께끼같은 작전이였다. 그로브스장령이 지휘한 특수작전그루빠들이 집단군과 항공대참모부들에 알려준 주타격방향만 보아도 작전의 목적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다. 미국은 도이췰란드의 군수공업연구소들과 핵물리학자들을 로씨야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몹시 서둘렀다. 도이췰란드가 다 망해가는판에 또 누구를 치려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것인가?

도노완은 렌쓰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방금 렌쓰가 한 이야기를 놓고 오래도록 생각해보았다. 렌쓰는 신형무기설계비밀이 모스크바에 새여들어가게 함으로써 모스크바를 되게 놀래우자는 묘한 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유익한것은 무엇이고 불리한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렇다. 모스크바에 비밀을 주어야한다.

로씨야비밀기관에 지금 알고있는것에 비해 보다 더 많은것을 알게 한다면 정말 루즈벨트와 쓰딸린사이에 더 큰 랭전을 가져올수 있을것이다. 백악관과 크레믈리의 빈번한 충돌은 도노완과 그의 동료들이 내세우고있는 그러한 구상을 리롭게 하여줄것이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믿기 어렵고 기이한 사람이였다. 도노완은 쓰딸린이 《원자무기는 무엇하려 만들려고 하는가? 누구를 치려고 그러는가? 어느때부터 만들고있는가?》하고 물을수 있을것이고 루즈벨트는 틀림없이 이에 대답할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대통령주위의 사람들도 원자무기제작과 관련하여서는 얻어듣는 이야기가 적었다. 그것은 원자무기개발을 책임진 장령 그로브스가 총참모장 마샬로부터 시작하여 최고사령관 아이젠하워에 이르기까지 군부의 수뇌자들을 이 사업에 끌어들여 비밀이 새나가지 않은데도 있겠지만 자기 자본의 대부분을 원자무기개발에 밀어넣은 억만장자 듀폰이 백악관측근자들에게 압력을 가할수 있었기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압력은 없었다.

도노완은 그로브스가 씨칠리아에 상륙한 첫 미군부대들과 함께 자기의 첩자들과 학자들을 파견하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는 또한 그로브스가 수많은 이딸리아 물리학자들을 미국에 끌어다 높다란 담장으로 둘러막은 연구소들에 가두어놓고 심문을 들이댄 사실도 알았다. 그로브스의 소조는 거의 선참으로 빠리에 들어설번했다. 그

리고 2월말경에는 그로브스의 소조가 도이췰란드에 들어가 도이췰란드물리학자들과 그들의 문건, 도서실을 탈취하며 우라니움과 중수보관고를 쟁취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도노완은 그로브스의 첩보기관에 박아넣은 밀정들을 통하여 요즈음 원자무기개발을 지도하고있는 사람들은 도이췰란드의 우라니움광 및 중수생산공장이 로씨야군대가 먼저 들어오기만하면 그들의 수중에 넘어갈수 있다고 매우 불안해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로브스는 로씨야관할에 넘어가게 되여있는 오란넨부르그의 이 공장을 파괴해버리기 위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도노완은 그로브스가 역시 대담하고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란넨부르그의 이 공장에서는 핵물리연구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있었고 여기에서 우라니움과 토리움이 생산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공장이였기에 그로브스는 이것을 고스란히 로씨야에 넘겨줄수 없다고 보았던것이다. 그는 미전략항공대사령관과 그의 관할 첩보장교들과 함께 묘한 수를 한가지 생각해냈다. 로씨야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미국폭격기들은 한날한시에 도이췰란드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두 대상들에 대한 맹폭격을 가하였다. 한 대상은 포츠담근방에 있는 도이췰란드군참모부였고 다른 대상은 오란넨부르그에 있는 공장이였다. 도이췰란드군 참모부에 대한 폭격은 로씨야동맹군을 《안심》시킬수 있었으나 공장에 대한 폭격은 사정이 달랐다. 《공중요새》라고 자랑하는 륙백여대의 전략폭격기들이 갈가마귀떼처럼 날아들어 잠간사이에 공장을 형체도 없이 만들어버렸다.

전략항공대사령관이 오란넨부르그공장에 대한 폭격을 세밀히 준비하게 된데는 또 한가지 사정이 있었다. 그는 총참모장 마샬로부터 명령서까지 받았던것이다. 명령서에는 《그로브스의 요구를 즉시 집행할것》이라고 씌여있고 국장압인까지 찍혀있었다.

1945년 3월 그로브스의 한 소조는 도이췰란드에 들어가 하이델베르그를 포위하고 저명한 물리학자들을 랍치하였다. 그중에는 리하르드 쿤, 오토 간, 왈터 보테와 같은 학자들도 있었다.

보테를 끌어다 심문을 들이대자 그는 삭젠(도시이름)의 소금갱도속에 핵물리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귀중하다고 보아지는 자료들이 구비된 그의 과학도서관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로브스는 지도를 들여다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로씨야군부대들이 세키로메터도 되나마나한곳에 와있었던것이다. 그는 급히 워싱톤에 암호전보를 날려 여기에 항공륙전대를 투하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총참모장 마샬은 그로브스의 제의를 제꺽 받아들이였다. 하지만 국무성은 쓰딸린이 이와 같은 비우호적인 행동을 보고 가만 있지 않으려 할것이라느니, 정치적으로 엄중한 후과가 발생할수 있다느니 하면서 반대하여나섰다.

그로브스는 성이 나서 미칠 지경이였다.

《우리가 원자무기만 손에 쥐면 정치적으로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몇천배나 쉽게 해결할수 있다는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만 쥐면 크레믈리도 감히 우리와 다투려고 못할거요! 결국은 정치적안정도 힘이 규정한다는걸 알아야 한단말이요.》

《어찌겠소. 이제 당신들이 원자무기를 가지게 되면 정치적견해도 다시 새롭게 평가할테지만 지금은 원자외교가 아니라 소총외교를 할 때라는걸 알아야지.》하고 워싱톤에서는 대답하였다.

워싱톤에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있을 때 로씨야군대는 보테와 쿤이 운영하던 도서관이 있던 지역을 먹어버렸다. 그러자 그로브스는 펄펄 뛰며 더욱 미쳐돌아갔다.

도노완은 그로브스가 이처럼 국무성과 엇서나가는것도 속으로 좋게 생각하였다. 그는 그로브스가 국방장관 스팀손을 찾아간것도 알고있었다.

그로브스는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핵연구사업을 하고있는 도이칠란드의 중요한 기업소들이 있는 지역들이 얄타협정에 따라 프랑스에 넘어가게 됩니다. 나는 프랑스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로씨야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지역을 먼저 차지하지 못하면 미국의 리익에 큰 손해가 미칠것이 명백합니다.》

《그래 제기하는건 뭐요?》국방장관의 목소리는 차겁게 울렸다.

《우리는 이 지역을 차지하고 도이칠란드학자들과 문건, 핵물질들을 빼내온 다음 모든 실험실들과 공장건물들을 파괴해버리자는겁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국무성이 드골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려고 할것 같소? 》

《국무성이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을겁니다. 내가 우리 륙전대를 로씨야관할지역에 들여보내는 문제를 국무성과 토론해보았는데 이 신사제씨들은 외교란것이 사소한 가능성도 현실로 전환시키는 과학이라고 오랜 시간에 걸쳐 나에게 장황히 설명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참을성있게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 이렇게 결론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신착란병에 걸린자들이 외교사업을 하고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탐사업을 시키면 거미줄에 걸려 발버둥질치면서 소리만 칠뿐이지 어쩌지 못할겁니다.》

《그럴듯한 말이요.》

스팀손은 차겁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젠 더 그 사람들과 토의하지 말게. 마샬과 토론하여 프랑스에 넘어가게 된 지역들을 우리가 차지하도록 하오.》

《그러다가 소동이 일어나면…》

《당신은 아직 이런 일에 습관이 되지 않은게로군.》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리를 듣든지 해볼 결심입니다. 프랑스사람들이 로씨야사람들과 핵물리분야의 새로운 성과를 나누어먹으려고 하겠는데 그걸 용서할수야 없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나는 싸울 준비까지 되여있습니다.》

그로브스는 이 작전을 암호로《은신처》라고 부르고 자기 방조자들을 유럽 아이젠하워사령부 참모장 스미트에게 파견하였다. 그리고 미국대통령이 얄타에서 서명한 협정에 따라 프랑스군대가 들어오게 되여있는 지역에 미군을 파견하여 그들을 제압하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도노완은 자기 친구 렌쓰와 헤여진 그날 저녁 늦도록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것인지 결심을 못내리고있었다.

덜레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가 크레믈리에 그 정보가 들어갈수 있는 방도를 찾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줄곧 떠나지 않고 머리속에서 뱅뱅 돌았다.

(루즈벨트는 어떤 립장을 취할것인가? 루즈벨트가 철없이 쓰딸린에게 모든걸 털어놓지나 않을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말 렌쓰의 말이 옳단말인가? 그럼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외과적수술의 길밖에 없단말인가? 과연 정치라는것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자기가 구상하고있는것을 실현하는데서 그처럼 가혹한 행동을

요구하는것인가? 타협의 길은 없는가?)
다음 순간 도노완은 단호히 머리를 저었다.
루즈벨트와는 타협할수 없다. 그는 리상주의자다. 그는 천진한 아이들처럼 모든것을 좋게 해결할수 있다고 믿고있다. 미국의 법을 따르면 그는 아직도 4년동안 대통령자리에 눌러앉아서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성을 내는것이 아니라 그 누구와 타협을 하고 설복하고 리해시키는 놀음을 할것이다. 후버! 그렇지, 나에겐 지금 후버가 필요하다. 아직은 후버와 어떤 내용으로 담화하고 그가 어떻게 나오겠는지는 알수 없으나 한가지만은 명백하다. 그것은 이제 후버를 만나면 《후버, 자넨 대통령이 미국공산당 부위원장을 하라면 어쩔텐가?》하고 묻자는것이다. 도노완은 후버를 잘 알고있었다. 그는 자기의 《적수이며 형제》인 후버가 어떤 대답을 하리라는것도 벌써부터 짐작할수 있었다. 오직 명백히 결심하고 말해두어야 할것은 《루즈벨트는 우리를 모스크바앞에 투항하는데로 이끌어간만큼 히틀러를 타승하는데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있다.》는것이다.

가짜정보선을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한다

뮬러는 슈틀리쯔가 방에 들어오자 모를 일이라는듯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자넨 불쌍한 한스를 몇번이나 속여넘기고 뭘하러 다녔는가? 며칠밤을 집에서 자지 않았나? 사흘이요, 닷새요? 뭘하러 다녔냐말이요? 한 백만마르크짜리 보물이라도 얻었나? 아니면 쓰딸린과 루즈벨트의 이름으로 된 베네수엘라 려권이라도 받았는가? 그것만 가지면 국경검사도 받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건 다 갈수 있겠지.》
슈틀리쯔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중장각하, 한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뭔지 말하게.》
벌써 세번째나 공습경보싸이렌이 불안하게 대기를 흔들며 짧게 울리였다.
《지하실에 들어가지 않겠나?》
《원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나는 폭격에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보들이나 무서운줄 모르지. 자네야 바보도 아닌데 그럴리가 있나.》
《언젠가 각하는 저를 보고 숙명론자라고 한적이 있지요. 숙명론자나 바보나 결국 같다고 볼수 있지요.》
《그럼 여기 그냥 있잔말이지. 자네 어디 한번 가지고있는 의견이나 말해보지.》
《나를 이전에 내가 있던 감방에 도로 보내주십시오. 아침이면 일을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감방에 돌아오군하지요. 그러되 이것을 게스타포가 한 일로 되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로씨야군대와 미국군대가 들어온 다음에 인정해줄게 아닙니까.》
《자넨 그때까지 자기가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뮬러는 슈틀리쯔를 통하여 로씨야비밀기관을 도와주며 자기를 어떻게 대해주겠는가 하는 문제를 몇번이나 묻고싶었지만 매번마다 혀끝에서 말이 뱅글뱅글 돌기만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사실 뮬러는 속으로 때를 놓쳤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들면서 자기를 자제하기가 헐치 않았다. 이러한 느낌은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쏟아져내리듯 순시도 머리속을 떠날줄 몰랐다. 만일 괴테가 지금 뮬러처럼 시간에 대하여 느꼈더라면 《순간이여, 흐름을 멈추라!》라는 글을 쓰지 못했을것이다.
뮬러는 슈틀리쯔가 언제 로씨야사람들과 첫 접촉을 가지였고 어떤 연고로 그들과 련계를 맺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알기 위해 슈틀리쯔의 문건을 세밀히 파보고싶었다. 하지만 그가 사업을 시작하였던 그 도시는 지금 미군이 강점하고있었다. 그리고 슈틀리쯔의 당문건들은 그가 미국에서 있었던 무슨 운동엔가 관계한적이 있다고 하여 나치스당해외조직을 책임진 볼레에게 보관되여있었다. 여기 프린짤베흐슈트라쎄에 있는 고문서는 내용이 너무도 빈약했다. 《아리아사람으로서 침착하고 능력있음.》이것이 전부였다. 이것은 허울이지 자료가 아니였다.
뮬러는 자기가 슈틀리쯔에게 로씨야사람들과 련계를 맺고있는데

대하여 묻고 모스크바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해줄터이니 그 어떤 담보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부정적인 대답을 받게 되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혹시 생명을 담보해줄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감방에 갇히여 거기서 생의 마지막날까지 시간을 보내는것도 생이라고 말할수 있을가?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것이라고 말하는것이 더 좋을것이다. 정상적인 생에 대한 담보는 문제의 정치적해결에서만 있을수 있다. 지금 히믈러와 쉘렌베르그는 서방과 회담을 가지고있다. 단독평화조약만 성과적으로 체결되면 이 뮬러에게 하늘밑의 어느 조용한 자리가 차례지던지 아니면 중립국으로 유유히 빠져나갈수 있을것이다. 그에게는 에쓰에쓰구좌의 돈을 찾을수 있는 위임장도 있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된것도 아니고 아홉사람의 이름으로 되여있어 어느것이든지 리용할수 있었다.

그리고 주머니에는 려권이 일곱개나 있었다. 히믈러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보르만이 있다. 그에게는 힘이 있다. 보르만은 베를린방향에 집결된 백여개의 정예사단을 내걸고 쓰딸린에게 손을 내밀것이다. 그 힘만 서쪽으로 돌려세우면 로씨야군대와 함께 아니, 로씨야군대가 없이 단독으로써도 영미군을 답새기고 둬주일사이에 대양 저쪽으로 쫓아버릴수 있다. 하지만 보르만앞에는 어려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무엇보다먼저 총통을 알프스산보루로 떠나보낼것이 아니라 여기 베를린에 남겨두고 그에게서 정권을 넘겨받아야 했다. 게링그가 총통의 후계자라고 한것은 1941년에 당결정으로 채택한것이지 지금 있은 일이 아닌것이다. 다음으로 구데리안을 총참모장자리에서 내쫓고 그대신 로씨야사람들이 알고있는 크렙스를 들여앉히는것이다. 뮬러는 늦어서 모레 중낮까지 보르만에게 구데리안과 헬렌을 깎아내리는 자료를 묶어서 올려바쳐야 했다. 자료에서 그는 구데리안과 헬렌을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총통에게 충실할 각오가 되여있는 위대한 민족의 정신을 믿지 않은 염세주의자들》이라고 찍어서 쓸 생각이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뮬러는 슈틀리쯔에게 자기가 모스크바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생명을 담보받을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 혀끝에서 뱅뱅 돌았지만 묻지 못하였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뮬러는 슈틀리쯔를 자기의 믿음직한 방패로 만들고 그의 선과 연극을 놀아야 했고 그를 통하여 로씨야사람들에게 조만간에 서방과 단독평화조약이 체결되리라는것과 그렇게 되면 70개도 넘는 사단들이

동쪽으로 밀려들어 베를린근방에서 큰 싸움이 붙어 결국 로씨야가 패하게 되리라는 인식을 줌으로써 모스크바를 놀래우려 하였던것이다. 이것은 4년간의 전쟁과정을 통하여 지칠대로 지친 빨갱이들로서는 그 후과를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큰 타격으로 될수 있다.

이런 때 쉘렌베르그가 흥미있는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런던에 있는 그의 첩보망에서 크레물리와 서방간의 심각한 마찰이 일어나고있다는 정보를 보내왔던것이다. 뮬러에게는 런던에 있는 뽈스까 망명정부내부에 박아넣은 첩자가 있었다. 뮬러는 헤그와 하리꼬브에서 빼앗아온 그림 다섯점에 매수한 에스빠냐령사관직원을 통하여 런던에 있는 첩자와 련계를 맺고있었다. 뮬러는 이틀전에 쉘렌베르그에게서 받은 정보를 련락원을 통하여 런던에 보내였다. 시간적으로 보아 오늘 래일안으로 런던에 있는 뽈스까 망명정부가 쳐칠에게 압력을 가하고있다는 소식이 날아올것으로 보이였다. 다리가 든든한지 확인도 없이 공격을 하는것은 위험천만하고 모험적인것이다.

그렇다. 뮬러는 슈틀리쯔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말은 한마디도 할 권한이 없다. 더우기 지금 그가 보내는 모든 전문을 읽고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그의 본부에서 오는 통보도 뮬러가 알고있는 부호로 되여있으면 좋으련만. 하긴 슈틀리쯔의 암호문만 알아도 모스크바에서 오는 암호문은 쉽게 해득할수 있을것이다. 체까에서 슈틀리쯔를 움직이고있는지 붉은군대 정보국에서 움직이는지 하는건 중요치 않다. 누가 움직이든 상관이 뭐랴. 슈틀리쯔는 연극의 대상인것만큼 그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 아차 실수로 한발만 잘못디디면 뮬러는 다름아닌 바로 자기 생명에 큰 타격을 받게 될것이다.

《어디 좀 말해보게. 왜 순진한 내 운전사를 속였나말이야? 그의 신경을 마비시켜놓고 얻은게 뭔가?》

《중장각하, 난 이렇게 감시를 받으면서는 살수 없습니다. 난 지금 바보처럼 제가 생각하고있는것을 말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나를 계속 기다리고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바심이 앞서 일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프라이따흐와 공작을 하고있는데 한스가 차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공작이 제대로 되겠는가말입니다.》

《한스를 함께 데리고갈걸 그랬구만. 거기에 또 빈방이 없던가?》

슈틀리쯔는 하하하 소리내여 웃었다.

《그럼 내가 사업을 못했을겁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녀자인가?》
《당신은 아직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까?》
《사진에는 곱게 생겼더구만.》
퓰러는 프라이따흐를 못본듯 아리숭하게 말했다.
《실물은 더 곱게 생겼지요.》
《자넨 그 녀자를 언제쯤 떠나보낼 생각인가?》
《래일이라도 떠나보내야지요.》
《공작의 기동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돈을 푼푼히 주라구. 나는 그 녀자의 문건을 통해 그가 차를 운전한다는걸 알게 되였네. 스웨리예에서 자동차를 한대 사가지고 쾨뻰하븐이나 플렌스부르그에 자네와 상면하러 올 때 차를 타고 오라고 하게. 좋기는 플렌스부르그가 더 좋지. 거기에는 직통전화도 있으니까. 난 본래부터 단마르크사람들을 믿지 않는데다가 지금 단마르크에는 곳곳에 영국놈들이 들어와있는데 그들은 기술이 발전하여 어디에 도청장치를 하는것쯤은 식은죽먹기로 하지. 만일 이 일이 쳐칠에까지 알려지면 어쩐다. 그들에게도 복종체계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먼저 하바닥에 있는 오장이 중위에게 보고할거란말이네. 그런데 어느 중위치고 대위가 되구파하지 않는 중위가 있겠나. 그러니 중위는 자기가 넘겨받은 정보자료를 들고 소좌나 그이상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보아지는 사람을 찾아갈거란말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기도는 파탄되고말걸세.》
퓰러는 이제 곧 슈틀리쯔에게서 반대의사를 듣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자기도 동의할수 없었다. 녀자가 스톡홀름까지 륙백키로메터의 거리를 차를 몰고 달려온다는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였다. 슈틀리쯔는 물론 운전기술이 높은데다가 늘 차를 다루어온지라 한주야동안이면 그만한 거리를 갔다가 돌아올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마침 다행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당신이 나를 보고 한주일동안에 두번씩이나 스웨리예에 갔다오라고 할것 같아 걱정하던 참이였습니다. 이젠 힘을 깡그리 소비하고보니 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자넨 내가 자네를 평가해주지 않는다고 볼부은 소리를 하는구만. … 그럴리가 있나. 나는 자네를 높이 평가하네… 그럼 스웨리

예—도이췰란드녀자가, 아니 정확히 말해서 도이췰란드—스웨리예녀자가 혼자서 가도록 하지. 생각 좀 해보라구. 거리에는 료정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는곳마다 질좋은 고기지, 로씨야비행기들이 폭격을 해서 물도랑에 엎드릴 걱정이 없는 나라에 간다는것만해도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지만 그 유태인과 함께 스위스에는 한주일에 두번정도씩 갔다와야겠네. 나도 그렇지만 쉘렌베르그도 자네외에 다른 사람은 이 유태인에게 붙일 생각이 없네. 자넨 그걸 잘 알고있지. 하긴 스위스는 가까우니까 거기에 갔다오는것쯤은 자네가 반대하지 않을줄로 믿네. 스위스의 바젤에서 접선하기로 약속해놓게… 참 자넨 우리가 음악보급협회에 갔다오면서 하던 이야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내 생각같아서는 당신이 말한 문제에 대답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런가?》

《그거야 뻔하지요. 쉘렌베르그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그는 자기대로 놀음을 놀고있는데 당신은 그 진속을 모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쉘렌베르그는 히믈러의 총애를 받고있으니까 당신을 에돌수 있지요. 하지만 내가 지금 그가 주는 과업을 수행하고있는것만큼 그의 비밀을 알아맞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쉘렌베르그는 나를 들오리를 유인하기 위하여 발을 매여 물에 띄워놓은 오리처럼 리용하려는것 같습니다. 미전략정보국의 사수들이나 로씨야내무인민위원부의 사냥군들이 나를 조준하게 내버려두자는거지요. 이제 프라이따흐와 루베나우가 나와 가까와지고 공작을 능숙하게 하면 많은것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옳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천박한 생각으로 쉘렌베르그를 보고 이런 문제를 물어보았더라면 그는 나를 그 자리에서 쏴죽이고말았을겁니다. 하긴 죽는것이 숙명적이라면 무엇을 위해서든지 비밀을 밝혀내야 할텐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하고 뮬러는 두덜거렸다.

《그러니까 자넨 이제부터 그 스웨리예녀자와 그리고 루베나우의 스위스에서의 공작—이 두 선을 가지고 일을 벌려보라구. 거기에다 그 슐라그목사까지 인입해보게. 어쩐지 나는 자네가 스위스에서 이 사건의 진속을 밝혀낼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만.》

슈틀리쯔는 뮬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갖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일시에 떠올랐다.

(뮬러는 내가 스위스로 가지 못하게 길을 막을것이다.… 혹시 내가 겁을 먹은것이 아닌가? 만일 뮬러가 나를 의심한다면 스위스에 갈 생각은 감히 할수도 없을것이다. 그럼 스웨리예와 스위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스웨리예땅에서 조국은 지척에 있다. 핀란드만 지나면 우리 땅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제네바에서 빠리까지는 자동차로 다섯시간이면 갈수 있다. 아 그렇지, 머리가 이렇게 돌지 않는다구야. 스톡홀름이나 베른에는 우리 대사관이 있지 않는가!)

뮬러는 시계를 흘끔 쳐다보고나서 의자에서 일어나 어항통에 다가갔다.

《슈틀리쯔, 이 물고기들을 좀 보게. 고기가 사람들보다 더 깐깐한데가 있나보오. 난 본래 경찰이 아니라 어류학자가 되려고 했던 걸세. 우리 부모들에게 돈만 있었더라면 내가 종합대학에 가서 학자가 되였을거네. 그래 루베나우는 어떤가?》

《당신은 내가 이미 그와 사업을 시작했다는걸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뮬러는 고기먹이를 집어서 어항통에 던져넣으며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퉁방울같은 그의 눈에도 웃음이 어리였다.

《아니, 아직 못들었네. 어제 우리는 젤롭스크고지에 에쓰에쓰 한개 대대력량을 파견하느라구 한 십오분 늦어서 일을 시작했네. 이제 보고할 문건을 가져오겠지.… 자, 이야기를 시작해보게. 자넨 정말 일솜씨가 보통이 아니거던. 나는 자네가 로씨야녀자무전수와 한 대화를 세심히 따져보았는데 나무랄데가 없더군!》

《당신은 수인들과 사업한 사람들을 모두 기록해두고있는가요?》

《무슨 소리를 하는가. 개중에 특출한것만 골라서 기록해두지.》

《그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기록해두네. 그런데 자넨 그 유태인이 스위스에서 도망치면 어떻게 하려나?》

《우리가 그의 녀편네와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놓고있는데 어디로 도망친다는겁니까. 그런 걱정은 마시고 아이들에게 출국증명서나 떼주고 그의 녀편네에게 새 려권을 내주게끔 지시해주십시오.》

《그럼 자넨 그들을 놓아줄셈인가?》

《나는 그가 나를 믿도록 해야겠습니다. 내가 우리 공작이 진척되는걸 봐가며 가족들을 하나둘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놈이 베른에 있는 로씨야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건의 내막에 대하여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봉사해줄터이니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면 어쩔텐가?》
《로씨야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도와준다고 그럽니까.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립벤트로프에게 각서를 보내겠습니까?》
뮬러는 피식 코웃음을 쳤다.
《자넨 감방에서 그와 사업을 계속할텐가? 아니면 어느 아지트같은건 요구되지 않나?》
《지금은 아마 잘 먹여주는 그런 아지트를 당신도 구하기가 힘들겁니다.》
《여보게. 이 뮬러를 모욕하지 말게. 강점군이 설사 들어온다쳐도 나한텐 적어도 열개이상의 훌륭한 아지트가 있을거네. 그런데 자넨 무엇때문에 려권이요 뭐요 하면서 지시를 주라고 하는가? 제가 생각나는대로 할노릇이지. 나는 자네 고문이 아니네. 또아리를 틀고 저혼자 살아가는 금사(독이 없는 왕뱀)처럼 하고픈대로 하게.》
《며칠후면 루베나우를 국경을 넘겨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위스로 인차 떠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가 우리가 지적해준 사람과 접선을 하고 그를 발판으로 영미대표, 유태인공동체대표, 무지에게 접근해야 할것 같습니다.》
《내 생각엔 처음에는 자네가 꼭 루베나우와 같이 가야 할것 같구만. 물론 쉘렌베르그와 토론해보아야겠지만 자네가 내 의견을 존중히 대한다면 그렇게 하는것이 좋아. 그를 혼자 보내선 절대 안되겠네. 에이흐만이 그를 데리고 부다뻬슈뜨에 갔을 때에도 그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고 하지 않나.》

쉘렌베르그는 뮬러로부터 슈틀리쯔의 말을 전해듣고나서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안되오. 처음에는 그를 혼자 보낼수 없소. 그는 우리한테서 감방에 갇혀있던자인데 그러다가 미국놈들한테 달려가던지 혹은 더 나쁘게는 로씨야놈들한테 가면 어쩔려고 그러오. 모스크바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일은 끝장이요.》

뮬러는 쉘렌베르그에게 백분의 하나도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 그는 슈틀리쯔가 스위스에서 아리아민족이라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들과 미묘한 접촉을 가졌다고 말하였다. 뮬러가 쉘렌베르그에게 더 이상 털어놓은것은 없었다. 이런 면에서 그는 너무도 수가 어리고 겁이 많았다. 그는 사무실책상밑에 기관총을 두정씩이나 숨겨놓고있었을뿐만아니라 록음장치며 방안에 들어온 사람의 몸에 폭약이 없는가를 알아내는 특수기구같은것도 설치해놓았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진기를 세개씩이나 설치해놓았다. 뮬러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연극을 놀았다. 쉘렌베르그도 례외로 되지 않았다. 그는 쉘렌베르그에게 자기의 중요한 과업이 서방과 진행하고있는 회담에 대하여 모스크바가 점차적으로 알도록 하자는데 있다는것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뮬러가 보르만을 끌어들여 작성한 책략에서 기본으로 되였다. 뮬러는 반대로 보르만이 자기를 리용할 궁리를 하고있다는것도 알고있었다. 그는 쉘렌베르그로 하여금 마치 자기가 그와 한짝이 되여 좋아하는듯이 생각하도록 내버려둘 심사였다.
(밥통같은 자식, 내가 저를 데리고노는줄은 모르고… 너는 지금 뒤등에 표적이 붙은 트럼프장을 들고나와 한상에 마주앉아 놀음을 놀고있는줄은 모르고있겠지. 쉘렌베르그, 네가 좋을대로 생각해라. 우리가 일을 다 끝내고 정식으로 계산할 때가 있을게다. 내가 형사경찰검열관으로 한가하게 지내던 때 뮨헨에서 범죄세계의 〈고객〉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군했지. 보르만은 지금 점잖게 행동하고있다. 그는 나에게 여러 나라 은행에 있는 구좌를 일곱개씩이나 알려주었다. 하긴 나한테도 구좌가 여러개 있으니 걱정할건 없다. 그러나 지금은 떠날수 없다. 히믈러는 전선에서 한개 사단을 떼내여 반역자들(하긴 나도 그렇게 되겠지만)을 색출하는데 동원시키겠다고 한다. 히믈러에게는 전선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나는 많은 비밀을 알고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누가 살려만 준다면 무엇인들 아끼겠는가. 때가 오면 나의 동료라고 하는자들도 나를 배반하고 나에 대한 모든 자료를 미영첩보기관이나 중립국들에 제공할테지. 빌어먹을놈들.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칠수 없다. 머리우에서 포탄이 터지고 이 국가가, 폭압적인 강권과 단말마적인 광증과 무서운 공포로 빚어진 이 국가가 무너질 때라야 도망칠수 있다.)

《각하, 앞으로 프라이따흐와의 련계는 누가 가지게 됩니까? 뮬러는 나를 보고 쾨뻰하븐이나 플렌스부르그에서 그 녀자와 접선하라고 하더군요.》

《프라이따흐는 떠날 준비가 되였소?》

《예, 다 준비되였습니다.》

《당신은 프라이따흐와 대엿새 지난 후 플렌스부르그에서 만나기로 약속해야겠소. 앞으로 정보자료는 우리 대사관에 보내오. 프라이따흐는 국가급에서 종합대학들사이의 교류라는것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접촉해도 일없게 되여있소. 지금 거기도 역시 뒤죽박죽이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우리가 망할것만 기다리고있소. 하긴 거기뿐만아니라 전세계가 그걸 기다리고있지. 스웨리예사람들은 프라이따흐를 방해하지 않으리라 믿소. 더우기 프라이따흐는 보통사람도 아닌 베르나도트백작을 찾아가니 의심받을 념려도 없구. 앞으로 대사관출입은 좀 있게 되겠지만 로씨야대사관에 가는것도 아니고 도이췰란드 대사관을 찾아가니 걱정할건 없소.》

쉘렌베르그는 문밖에까지 따라나와 늘 하던 버릇대로 슈틀리쯔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하였다.

《만일 뮬러가 갑자기 자기 사람을 로씨야사람들에게 보내여 내 목과 히뮬러, 칼텐브룬너 그리고 당신의 목을 잘라 바치겠다고 하면 그들이 접촉에 응해나설것 같소?》

《내 생각엔 응할것 같지 않습니다.》슈틀리쯔는 고르롭고 침착한 목소리로 한마디한마디 힘주어 대답했다.

《나는 로씨야사람들이 누구보다 당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알고있소. 그러나 나는 로씨야사람들에게는 누구도 보낼 생각이 없소. 나는 아리아사람이지만 뮬러는 바바리야촌사람이요.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프로씨야녀자라는 소문이 있소. 뮬러는 이걸 숨기느라고 몹시 고심하는가보오. 왜 그런지 아오? 프로씨야사람에게는 로씨야피가 어느 정도 섞여있다는거요. 그러니까 아직은 뮬러가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가 하는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지 않소?》

《글쎄요. 하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전번에 나를 보고 만일 에이흐만이 선출한 그 유태인이 스위스에서 우리를 배반하면 이마에 총알을 박고 죽고말라고 했지요.

그후 당신은 당면한 공작의 본질적내용이 무엇인가 하는걸 알려주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지요. 나는 루베나우를 철저히 담보할수 있습니다.》

《슈틀리쯔, 지금 나는 트럼프장을 뻐젓이 펼쳐놓고 유태인장사를 좀 해볼 생각이요. 우리 수용소들에 갇혀있는 유태인들을 팔아먹고 그대신 자네와 나 그리고 도이췰란드사람들을 위한 평화를 서방으로부터 담보받자는거요. 인젠 나와 뮬러사이에 〈정화〉가 이루어졌으니 그가 나를 건드릴 념려는 없는데 문제는 칼텐브룬너와 보르만이요.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쉽게 해결될수 있는 두번째 조건을 내놓아볼가 하오. 그건 다름아니라 유태인들을 내놓아주는 대가를 톡톡히 받아내자는거요. 그 값은 발동기마력으로써도 정할수 있고 연유량에 의해서도 정할수 있다고 보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군대에 자동차를 제공해주고 전선을 돕자는거지. 그럴듯하지 않소. 애국자의 외피를 쓰는것이 스위스의 베른에 앉아있는것보다 훨씬 믿음성이 있을것 같구만. 다만 내가 두려워하는것은 모스크바요. 크레믈리가 이걸 알고 또 동맹국들에 압력을 가하는 날이면 우리 일은 끝장이요.》

《크레믈리가 동맹국들에 압력을 가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구. 내가 런던에서 믿음직한 정보를 받은게 있소. 자 그럼 이 문제는 그만하구. 아까 말한것들을 다 알겠지? 나는 당신이 루베나우와 사업한 후 스위스에서 나에게 보고하기를 기다리겠소. 스위스 전 대통령 무지는 나와 어디서든지 당장 만나자는거요. 그리고 프라이따흐와 사업한 후에도 역시 인차 보고해야겠소. 베르나도트백작은 아무때건 스톡홀름에서 도이췰란드로 오겠다는거요. 이게 전부요. 그럼 성공을 바라오.》

《감사합니다, 소장각하.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야 볼수 없지요. 루베나우는 누구를 통해 무지에게 접근해야 합니까? 루베나우가 무지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무지각하. 제가 루베나우올시다. 저는 지금 유태인들을 악착한 나치스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볼 생각을 가지고있는데 저에게 좋은 자동차를 이백대쯤만 주고 거기에 휘발유까지 함께 주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할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쉘렌베르그는 갑자기 하하하 소리내여 즐겁게 웃었다.

《슈틀리쯔, 당신은 정말 해학적이로구만. 그 롱담이야 어디 웃지 않고 견딜수가 있소. 좌우간 고맙소. 마치 칼스바드의 탄산수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난것 같은 기분이요.… 물론 루베나우가 무지에게 전화를 걸어선 안되지. 무지와 전화를 련결시켜주지도 않을거요. 〈전〉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어있으니 그렇지 아직도 그의 이름에는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명칭이 따라다닌단말이요. 또 현실적으로 무지는 아직도 국가적지위를 차지하고있소. 스위스사람들은 련방공화국을 이끌던 사람들을 아주 존경한다오. 슐라그목사가 무지에게 전화를 걸어 지하운동대표를 만나보라고 권고할거요. 물론 슐라그는 그 지하운동대표가 에쓰에쓰와 정치정보국내의 믿음직한 사람들과 련계를 맺고있다는거며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태인들을 구출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해야지. 그때까지 루베나우는 스위스의 몬트리오에서 유태인공동체 회장을 만나 유태인들을 구원하자면 돈이 얼마나 요구된다는것을 말하게 될거요. 처음에는 그리 많은 량을 부르지 말고 오백만프랑쯤 부르는게 좋을것 같소. 그러면 회장이 일부 유태인들만 구원하자고 하면서 한 이백만프랑쯤 부를수가 있을거요. 그는 유태인철학가나 경제사나 력사가들을 구원하는데는 관심이 없을수 있다고 생각하오. 게다가 많은 유태인들이 맑스주의를 따르고있소. 내 생각엔 유태인공동체 회장이 속으로는 우리가 유태인 인테리들을 없애치웠으면 하지 않겠는지 모르겠소. 인테리들을 데리고있어야 괜히 시끄러울수가 있지. 맑스를 제일처음 알게 된것이 누구요? 비스마르크라고 아마 모를거요. 프라이따흐는…》

《프라이따흐는 당신의 부하입니까, 아니면 뮬러의 부하입니까?》

슈틀리쯔는 쉘렌베르그의 장광설에 싫증을 느끼며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슈틀리쯔, 프라이따흐는 당신의 부하요. 내 하나 권고하고픈게 있소. 앞으로는 그렇게 진리를 탐색하는 놀음을 하지 마오. 그런 사람들은 모두 히스테리들과 같다고 말할수 있소. 진리를 사랑하는것은 대체로 억압받는 사람들속에서 생기는 법이요. 자유로운 사람들은 구태여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소. 그저 자기의 말과 행동을 옳은것으로 생각하니까. 개인—이것이 생활에서 최고의 진리라고 말할수 있지.》

《아주 훌륭합니다. 그 내용을 공산주의자들에게서 빼앗은 타자기

로 정서하여 직접 총통에게 올려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요?!》

쉘렌베르그는 차겁게 내쏘았다.

슈틀리쯔는 별로 놀라와하는 기색도 없이 주머니에서 종이장을 꺼내며 침착한 어조로 말하였다.

《각하, 제가 오늘 슐라그의 보고를 가지고왔습니다. 헌데 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월프와 덜레스의 담화내용을 속기한것입니다. 거기에 〈쉘렌베르그는 지성인으로서 총통을 혹독하게 증오하고있다.…〉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는 속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럼 프라이따흐에 대하여 저에게 더 말씀하실것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서방과의 접촉이 필요하다

칼텐브룬너는 제국안전총국에도 들리지 않고 보르만과 만난 다음 곧바로 플렌스부르그수용소로 떠나갔다. 보르만이 주는 과업을 수행해야만 했던것이다.

보르만은 지하본영에서 칼텐브룬너를 맞이했다. 그는 부관을 시켜 찬장에서 커피잔 두개를 꺼내고 푸른 빛갈이 도는 브라질커피를 끓여오게 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즐기는 진짜 바바리야술과 레몬, 소금에 절인 편도를 가져오게 했다.

보르만은 향긋한 냄새가 풍기는 추리－사과술을 두잔에 나누어 부었다. 그런 다음 잔을 들어 칼텐브룬너와 맞쪼으며 말문을 열었다.

《여보, 당신은 자기가 이제 어떤 과업을 수행해야 할지 알만하오?》

《무슨 과업인지 모르긴 하겠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집행하기 힘들다는데 바로 이 과업의 매력이 있다는거요. 당신은 이제 수용소에 갇혀있는 까나리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겠소.

〈지금 에쓰에쓰의 일부 변절자들이 자기 체면과 량심마저 저버리

고 당신의 친구들인 영국사람들에게 수용소에 갇혀있는 부유한 유태인들을 팔아먹고 그 대가로 자기들의 목숨을 건져보려고 하고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변절자들은 총통의 명령마저 거역하고 충직한 에쓰에쓰대원들이 모든 유태인들을 죽여버린 다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들의 시체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버리려 하자 그렇게 못하게 하고있다. 변절자들은 지금 벌써 중립국들에서 회담이 진행되고있는것만큼 유태인들을 스웨리예와 스위스로 옮겨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있는것 같다. 까나리스, 아무리 보아야 가까운 기간내에는 당신을 필요하다고 찾을 사람이 있을것 같지 않다. 당신의 죄상은 이미 다 드러났다. 다만 이 칼텐브룬너의 덕분으로… 옳소, 바로 그렇게 말하오. 목이 살아있는줄 알아야 한다. 지금 당신과 함께 7호감방에는 당신의 상관이 히틀러가 있는데 그는 나를 위한 미래의 도이췰란드복구안을 작성하고있다. 당신이 만일 나에게 에스빠냐, 아랍나라들, 영국, 미국, 라틴아메리카 특히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자기 활동거점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처형해버릴것이며 에쓰에쓰땅크들이 수용소를 짓뭉개버릴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거기에 열개도 넘는 은행과 석유회사들을 가지고있으며 앞으로 그것을 확대하려 한다는것도 알고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은행구좌와 위임장만 넘겨받으려 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과 우리를 위해 일하게 될 사람들의 명단도 넘겨받으려 한다. 당신도 알겠지만 실업계에서 신용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당신은 나한테 돈이 많다는것을 알고있을것이다. 그러나 자본을 실현하자고 하니 신용있는 실업가가 필요하다. 당신이 그럴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주면 내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더이상 살려둘수 없다.〉

과업이 뭔지 대체로 알만하오? 그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꾀를 부릴수 있다는걸 알아야 하오.》

《알고있습니다. 각하, 당신은 나에게 실천적으로 불가능한 과업을 주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 희망없는 대화가 유익한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르만은 또 술잔을 입에 가져다대고 기울이고나서 마치 처음 보듯 칼텐브룬너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였다.

《옛날에 누가 〈빠리는 미사(그리스도교에서의 의식)만큼이나 황홀

하다.〉라는 말을 했던지 당신은 법률가로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는게 어떻겠소.》
《그 표현은 헨리 4세가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명문을 프랑스사람에게서는 기대할수도 없었고 고대로마사람들속에서 그와 류사한 명문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현실에서도 유익한것을 찾아보라는거요. 담화의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압력을 가해보는게 어떨것 같소. 〈쉘렌베르그는 이미 나한테 이런저런것을 알려주었는데 이제 모든걸 몽땅 발가놓을것이다. 당신은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고있을거요. 당신은 자기 제자에게 패하여 왜 그렇게 속절없이 이 세상을 떠나려 하는가?〉 이렇게 말이요. 이게 내가 당신에게 말해주려던 내용의 전부요. 하일 히틀러!》
…칼텐브룬너는 얼굴에 한가득 웃음을 담고 까나리스를 향해 마주 걸어가며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까나리스는 칼텐브룬너가 이처럼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것이 놀랍게 생각되였으나 여전히 못믿겠다는 듯한 눈길로 바라보며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다. 그는 얼굴이 해쓱해지고 전보다 퍽 살이 빠져보였다.
《산보는 여전히 시키고있소?》
《산보나 제대로 시키면 좋기나 하겠소. 이게 아마 내가 당하고있는 고통중에서 제일 힘든 고통인가보오. 하루에 두시간도 산보를 허락하지 않으니 나는 영 병자가 되고말았소.》
《두시간도 산보를 시키지 않은건 당신네 영국친구들이였소.》
칼텐브룬너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였다.
《처칠악당들이 밤낮없이 폭격을 들이대니 야단이요. 우리는 지금이 수용소와 사람들을 모조리 폭격해서 죽일가봐 어지간히 걱정들 하고있소. 그래서 당신을 지하실에 넣어두고 하루에 한 사십분정도 수림속에서 시원한 공기나 마시라고 하였던거요. 자, 함께 나가서 산보를 하지 않겠소?》
칼텐브룬너는 까나리스를 수림쪽으로 안내하기전에 모든 수인들이 제국안전총국장과 이전 아브웨르지도자가 갑자기 친숙해진것을 보도록 하려고 그의 팔을 다정히 부축하고 훈련장을 천천히 거닐었다.
수림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느새 눈은 녹아버리고

나무잎들이 파랗게 피여났다. 도이췰란드사람들이 온 겨울 그리고 늦은 봄까지 방공호에서 시간을 보내더니 나무잎들도 땅속에 숨어있다나온듯 볼수록 정답게 느껴졌다. 이해따라 나무잎들이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지고 무성하게 자라나는것 같았다. 참나무숲속은 인적기가 없어서인지 한적하고 음침해보였다. 여기서는 발동기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이따금씩 이름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숲속 어디선가 사람을 놀래우는 부엉이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에 오니 꼭 무덤속에 온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만. 저놈의 수리부엉이는 불운한 새라니까.》

칼텐브룬너는 부엉이를 찾는듯 나무우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을 뗐다.

《난 한해동안 꼬바기 감방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부엉이소리도 행복하게만 들리는구만.》

까나리스는 입가에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먼저 전선소식이나 좀 들려주지 않겠소? 우리한테는 신문 한장 주지 않는구만.…》

《당신 생각엔 미영군은 어디쯤 와있고 로씨야군은 어디에 있을것 같소?》

《로씨야군대는 우리가 오데르강에서 멈춰세웠더랬지.》

까나리스는 눈을 쪼프리고 한동안 생각을 더듬는것 같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 영미군대야 남쪽으로부터 베를린에 접근하고있겠지.》

《북쪽으로부터도 조여들고있다오. 로씨야군대는 아직도 오데르강계선에서 견지하고있소. 이것도 한때지 오래 계속될것 같지는 못하오.》

《내가 보건대 당신은 무슨 제기할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것 같은데 무슨 문제요?》

《까나리스씨, 당신은 반대로 말하는구만.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구싶어서 찾아왔소.》

까나리스는 걸음을 멈추고 손을 뒤통수에 들어올리며 껄껄 웃었다.

《칼텐브룬너씨, 사형집행자가 사형수에게 왔는데 여기에 무슨 중세기무사들의 격식이 필요하오.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터 수인 52번이 아니라 〈각하〉가 되였겠구만. 아무튼 나쁘지는 않소. 아까 나는

당신과 함께 산보하면서 당신이 꼭 무슨 일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말고 상우에 주패장을 펼쳐놓지 않겠소. 어디 한번 토론해봅시다.》

칼텐브룬너는 성냥을 득 그어 담배불을 붙이고는 성냥가치를 어디에 던질지 몰라 주위를 살펴보았다. 수림속 초막옆에는 휴지와 빈 통졸임통같은것을 버리는 휴지통이 늘 있었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하는수없이 나쁜 습관인줄 번연히 알면서도 불이 죽은 성냥가치를 성냥곽에 밀어넣었다. 그리고나서 보르만이 준 과업을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였다.

까나리스는 머리를 끄덕끄덕하기도 하고 때로는 걸음을 빨리하다가 문득 멈춰서서 칼텐브룬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마침내 칼텐브룬너는 이야기를 끝내였다.

《이게 다요. 이젠 당신이 결심을 내려보지.》

《나는 물론 구좌번호며 위임장이며 일부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대줄수도 있고 내 은행 돈궤를 몽땅 털어줄수도 있소. 그러나 이것은 나를 인차 죽여버린다는걸 의미하지 않겠소. 나는 당신이 말하고있는 연극의 조건이 탐욕적이고 지향적이며 자기자신만을 살찌우는 비도덕적인것이라는것을 알고있소. …내가 당신에게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는 주겠소. 하지만 당신이 정말 성공하고싶으면 가장 가까운 앞날에 자기 가족들을 보호해주듯이 나를 보호해주어야 할텐데 당신이 그런 범죄를 감행할수야 없지 않겠나말이요. 지금 당신의 형편으로써는 이것이 힘든 일이 아니겠소. 젊은 친구.》

《해군제독씨, 당신은 두가지 문제에서는 판단을 잘못하는가보오. 첫째로 내가 당신을 죽이고 우리 사람들의 손에 당신의 위임장을 쥐여가지고 은행에 보내는 모험을 하겠는가 하는거요. 당신네 은행에서는 있을수 있는 정황에 대처할 안들이 다 서있을텐데. 둘째로는 당신을 죽이면 내가 당신이 그처럼 토대를 잘 닦아놓은 에스빠냐를 잃게 될텐데 그렇게 할리가 있나말이요. 에스빠냐는 우리가 림시로 라틴아메리카로 옮겨가기 위한 발판과도 같은것이니까.》

까나리스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칼텐브룬너, 당신은 나와 진행할 담화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은것 같구만. 내가 이렇게 허물없이 말한다고 노여워하지야 않겠지?》

《무슨 말씀이요, 해군제독씨. 그렇게 말하니 오히려 반갑소.》
《나도 반갑소.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왔지 혼자 결심으로는 나한테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하오. 나는 최근년간에 당신을 세밀히 주시해와서 당신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소. 보나마나 보르만이 당신을 보냈겠지. 아직까지 립벤트로프가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들과 무전련락을 가지고있고 또 군대도 역시 스위스, 에스빠냐, 아르헨띠나, 뽀르뚜갈, 브라질, 칠레에 있는 군사무관부와 련계를 가지고있는만큼 당신은 누구도 속일수 없게 되여있소. 이제 당신네 사람들은 당신이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는 그런 첩자들에게 내가 넘겨준 암호를 주어서 떠나보내게 될거요. 한다하는 첩보기관은 어느 기관이나 할것없이 큰 작전을 위해 죽여도 아까울것이 없는 그런 인원들을 가지고있으니까.… 그럼 이를 지나서 내가 당신에게 구좌번호들을 알려줄테니 위력한 내 은행대리인들과 련계를 가지고 자기의 금화를 화폐로 전환하도록 해보오. 이게 첫째고 둘째로는 련계문제인데 에스빠냐에는 나의 강력한 지반이 있었던것만은 사실이요. 이건 우리가 에스빠냐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진압하던 때와 그후 쳐칠이 프랑꼬에 대한 나쁜 소문을 리용하여 피레네산줄기(에스빠냐와 프랑스사이에 있는 산줄기)를 타고앉지 못하도록 쳐칠을 반대하는 작전을 진행할 때 꾸려놓았던거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쳐칠이 그때 아마 지브랄타르문제와 남유럽에서 반나치스트투쟁이라는 구실밑에 성미가 급한 에스빠냐의 바스크사람들과 까딸로냐사람들이 주장하는 공화제에 대한 환상문제를 결정지었을거요. 그런데 지금은 때를 놓쳐버리고 루즈벨트가 광란적인 그들을 제지시킬수 있었소. 나는 힘이 쇠진하여 어쩔수가 없소. 정치에서는 힘이 실천에 옮겨지는 그런 시기가 제일 중요한거라고 볼수 있지. 지금은 보르만이 지도하는 민족사회당이 프랑꼬와 그를 동정하고있는 군부속에서 나보다 훨씬 더 믿음직한 지반을 가지고있다고 보오. 혹시 라틴아메리카나 원동방향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필요하다는 담보를 받으면 내가 쓸모있을지도 모르지.》
《그 필요한 담보라는건 어떤거요?》
《그것은 우리들사이에 진행될 협조의 첫 단계와 같은것이라고 말할수 있소. 이제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것을 글로 쓰고 실무적으로 계약까지 체결해놓으면 나는 더는 물러설 길이 없게 될것이요. 지금은 런던이 나를 믿을리가 없소. 그런데다가 이런 문건까지 영국사람

들에게 보이면 영국첩보기관은 나한테 아예 등을 돌려대고말거란말이요. 당신은 이제 내가 주는 정보자료를 스위스에 보내도록 하오. 그러면 나는 라틴아메리카방향에 대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지. 에른스트 레므가 볼리비아에 있는 스트레스넬중위와 이미 사업을 시작하였소. 나는 그 중위를 장령으로 승급시키고 총통이 제 수표까지 하여 선물한 초상화를 그에게 주었댔소.》

《스위스는 안되오. 어쨌든 우리는 당신의 영국동료들에게 우리 자료를 보여줄 권리가 없소. 설사 그들과 비밀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해도 말이요. 그렇게 되면 런던에다가 당신의 련락선과 기업체들 그리고 내 사람들까지 스스로 들이밀게 될거란말이요. 이렇게 놓고보면 결국 당신이나 나나 다같이 서로 대화에 림할 준비가 없이 만났나보오. 그러니까 우리는 둘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할것 같소. 당신이 나를 믿고 우리 함께 앞으로 살아갈 방도에 대하여 토론하든가 아니면 나는 나대로 받은 명령을 집행하든가 하는 그것이요. 당신에게 이틀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잘 생각해보오. 토요일 낮 열두시에 또 오겠소.》

《오늘 할수 있는 일이야 래일로 미룰 필요가 어디 있소. 게다가 우리는 삼십분도 산보를 하지 못했는데 한 십분만 더 시간을 주지 않겠소. 친구, 내가 이 자리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지. 아마 알고있는 자료를 다 쓰자면 한달은 걸려야 할것 같소.》

《해군제독씨, 당신의 처지에서 누구를 놀리려드는것은 매우 해롭다고 볼수 있소.》

칼텐브룬너의 목소리는 갑자기 차겁게 울리였다.

《그러지 말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한달이란 기간을 받아들일수 없다는것을 알텐데 그러오. 우리는 서로 잘 알고있는 사이가 아니요. 왜 당신의 그 지식을 한달이라는 긴 시간과 바꾸려고 그러는지 알수 없구만. 하긴 삼십분은 시간이 너무 적소. 이틀이면 맞춤하다고 보는데 어떻소? 이틀동안에 무슨 일이 적게 벌어질것 같소? 지금은 순간마다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판인데…》

《칼텐브룬너씨, 만일 당신이 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것을 총통이 알면 어떤 일이 생길것 같소?》

칼텐브룬너는 갑자기 낯색이 하얗게 질려 기여드는듯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나를 위협하는거요? 걱정마오. 나는 자기를 폭로하는 글을 쓰라고 해도 서슴없이 쓰겠소. 해군제독씨, 당신이 영국비밀기관대표와 만나서 모험적인 담화를 진행하던 때 나의 철궤에는 벌써 당신이 카이젤에게 바칠 보고서사본이 와있었소. 당신은 이 보고서에서 적과 접촉할 필요가 제기된다고 카이젤을 설복하려고 들었던거지. 당신은 계교를 꾸미는데서 대단한 전략가라고 볼수 있소. 당신을 선생이라고 부르는것은 헬렌만이 아니요. 나도 역시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소.》

까나리스는 벌쭉 웃으며 말을 건넸다.

《괜히 추켜올리지 마오. 친구, 당신이 어디 한번 솔직히 말해보오. 아돌프 히틀러가 지금 도이췰란드를 위기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보오? 서둘지 말고 잘 생각해보오. 만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더 계속할 필요가 없을것 같지 않소? 그러나 당신이 이 명백한 문제에 대답할 결심을 가지고있다면 당신이 앞으로 나갈 길을 개척하고있다고 볼수 있을것이요. 나는 당신이 내가 말한것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대체로 알수 있소. 당신은 한해전만해도 반란자들, 총통살해음모자들, 서방과 접촉하던자들을 모조리 제거해버릴 것을 결심하였는데 그때 당신은 당신의 동료들이 국가기구의 요직에 앉아있는 조건에서 당신은 당도 해산해버리고 볼쉐위크대군에 맞서서 민족의 구원자로 나설수 있지 않았댔소.》

《해군제독씨, 나는 당신에게 정치가로 찾아왔지 반역자로 찾아온것이 아니요.》

《당신은 〈반역자〉라는 말을 〈민첩한 실천가〉라는 말로 바꾸는게 좋을것 같소. 친구, 연기술이 그만하면 당신을 어느 회관에서든지 나무람하지 않고 받아들일것 같구만. 이젠 총통을 민족의 미래라고 칭송하는 말은 그만두는게 좋겠소.…》

칼텐브룬너는 당황한 몰골을 감추려는듯 고개를 떨구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까나리스는 그가 이틀전에 히믈러에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무섭게 생각하였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였다.

동쪽에서 섬광이 번뜩이였다. 발뜨해쪽에서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나 칼텐브룬너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귀에서 폭탄보다 더 무서운 히믈러의 말이 쟁쟁히 울리는것만 같았다.

《칼텐브룬너, 도이췰란드사람은 지금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도이췰란드의 앞날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하오.》

불행한 녀인 (2)

슈틀리쯔는 프라이따흐의 이야기를 듣고 단호히 머리를 저었다.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화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것 같다고 한 베르나도트 친구들의 말에 당신은 너무 꾸며진것 같은 반응을 보이였습니다.… 당신은 녀자로서 감정이 풍부한데 필요하면 그걸 터뜨려야지요. 또 당신의 아버지가 도이췰란드사람이였으니까 당신의 심장도 반쪽은 도이췰란드에 바쳐진셈인데 민족을 전면적인 파멸에서 구원하려면 공격을 들이대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베르나도트가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고 질책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인은 대상에게 접근하여 소극적으로 그의 말과 행동에 진실성이 있는가 하는것만 살폈으니 되겠습니까.》

프라이따흐는 불안한 표정을 짓고 오래도록 슈틀리쯔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때때로 녀인의 입가에는 비웃는지 슬퍼서 그러는지 알지 못할 미소가 초연히 비껴갔다.

마침내 녀인은 말문을 열었다.

《여보세요, 저를 너무 가혹하게 질책하지 마세요. 녀자들이란 가장 온순한 학생과도 같답니다. 그렇기때문에 녀자는 남자에게 순박한 말만 하지 않아요. 나는 나의 남편에 대하여 말하는게 아니예요. 그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였어요. 저에게는 정탐사업에서 첫 스승이 있었는데 나는 말그대로 그를 모방해왔고 지금도 모방하고있어요. 어려서 나는 체조를 즐겼댔어요. 나는 체육선생을 하느님처럼 따랐답니다. 아마 그가 높은 청사의 창문에서 떨어져죽으라고 하면 죽었을거예요. 하지만 우리또래의 사내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벌써 천성적으로 남의 말을 잘 안듣는 기질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체육선생처럼 좋은분인 당신이 나타나서 진실이요 뭐요 하고 말하는구만요.》

《나는 늘 그렇게 말하는건 아니지요.》

슈틀리쯔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럽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해도 믿을만한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당신은 롱담도 곧잘 하시고 남의 말도 잘 들어줘요. 이젠 훈시를 그만하시고 제가 자신을 녀자로 느낄수 있도록 해주세요. … 제가 고양이처럼 당신에게 착착 감겨든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나한테는 고양이가 아니라 녀학생이 체육선생을 대하듯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까짓거 좋을대로 하자요.》

슈틀리쯔는 의자에서 일어나 전화기에 다가가 전화를 걸어도 좋겠는가고 문의한 다음 송수화기를 들고 번호판을 돌리였다.

《안녕하오, 한스. 오늘저녁 또 갈것 같지 못한데 혼자서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게.》

《각하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스, 뮬러중장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라고 시켰소?》

《아닙니다. 그럴리가 있습니까.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 걱정이 돼서…》

《한스, 참 용쿠만 용해. 자넨 걱정하지 않아도 좋아. 나를 자동총수 세명이 지켜주고있으니까. 래일 내가 전화를 걸지. 열시쯤 해서 갈 생각이야. 내 회색양복을 다려놓고 와이샤쯔도 두벌 다려놓으라구. 하나는 회색이고 하나는 흰색이야. 넥타이는 자네가 좋아보이는걸루 골라놓으라구. 그리고 구두도 닦아놓게. 색갈이 검고 앞코가 길다란 구두말이야.》

한스는 코가 길다는 말이 우스워 헤식게 웃으며 롱조로 말했다.

《코가 긴거야 사람이지요.… 각하, 침실에 있는 구두말입니까?》

《자넨 정말 다 알고있구만. 맞았어. 거기 있는 구두가 맞아. 그리고 치즈와 물고기를 넣은 빵을 좀 준비해야겠네. 이제 멀리 가야 할 일이 생겼네.》

《각하, 량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합니까?》

순간 슈틀리쯔는 자기 실수를 두고 또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지, 도이췰란드사람들은 《빵을 좀 준비해야겠네.》하고 말하지 않는다. 도이췰란드사람이 아니거나 순수한 도이췰란드사람이 아닌 사람들만이 이렇게 말하는것이다.《빵을 일곱개 준비하게.》이렇게 정확히 말해야 한다. 내가 왜 순수 로씨야식으로 《좀》이란 말을 했는가. 뮬러가 알도록 연극을 놀아야겠다.)

《자네 상급이 내가 어떤 부인과 함께 길을 떠난다고 말하지 않던가? 뭐 그리 계산하기 힘들것두 없겠는데 그러는구만. 낮에 우리는 세번 식사를 할게 아닌가. 그럼 매번 빵을 두개씩 소비하니까 모두 합쳐 여섯개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내가 혼자 올테니까 밤에 중식을 한번 먹고 폭격이 없으면 차를 길바닥에 세워둔채 눈을 좀 붙였다가 아침에 또 한번 먹어야지. 그러니까 여섯에 넷을 합하면 몇이요? 열개지. 열개를 준비하게. 커피는 끓여서 보온병에 넣으라구. 자네가 계산하기 그렇게 힘들면 내가 또 알려주지. 고뿌는 여섯개 준비하면 되겠네.》

한스는 가볍게 한숨을 짓고나서 이렇게 물었다.

《그럼 나는 도중에 뭘 먹어야 합니까. 중장각하는 내가 대좌각하와 부인을 태워다주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빵을 열여섯개 준비해야겠구만. 그리고 보온병도 하나 더 준비하구. 자네 상급이 명령을 변경시키면 필요없겠지만 좌우간 지금은 그렇게 준비해두게.》

슈틀리쯔는 송수화기를 놓고 라지오를 틀어놓았다. 마침 방송원이 보도를 전하고있었다.

《우리 용감한 땅크병들은 전동부전선에 걸쳐 차지하고있던 계선에서 적들을 몰아내버렸으며 흉악한 볼쉐위크군대는 난공불락의 오데르요새에 걸려 주저앉고말았습니다. 서부전선에서는 먼저 네데를란드땅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있었고 영미군대는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리 용감한 비행사들은 적비행기 아흔두대를 쏴떨구고 서른두대의 적땅크를 불살라버렸으며 탄약창고 세개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총통의 위대한 사상에 고무된 우리 용감한 군인들은 민족사회주의와 총통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모범을 시위하였습니다. 지칠대로 지친 적들이 단말마적발악을 하지만 승리는 기어이 오고야말것입니다.》

계속하여 방송원은 경가극방송시간을 알리였다. 선전성 부상 나우만(현재 서부도이췰란드 신파시즘운동지도자의 한사람)은 윈경가극을 제일 좋아하였다. 그래서인지 방송순서작성자들은 이런 가극을 하루도 번지지 않고 매일 방송내용에 포함시켰으며 어떤 때는 하루 두번씩도 넣었다. 도이췰란드제국에서 민족사회주의사상분야를 책임졌던 립벤트로프와 겝벨쓰의 공동합의에 따라 미국쟈즈음악과 프랑스류행가, 로씨야로맨스같은 음악을 방송으로 내보내는것을 금지

한 때로부터, 로젠베르그가 고대도이췰란드의 전통을 살리고 보존하는것을 민족사회당의 기본과업이라고 선포한 때로부터 그리고 외국에서 지은 옷을 입은 사람을 총통의 위업에 대한 변절자로 보기 시작한 때로부터, 《피줄과 토대》의 원칙이 사람들을 믿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검열하는 시금석처럼 되여버린 때로부터, 또한 신문들에 오직 도이췰란드정신의 위대성을 증명하는 자료들과 미국, 로씨야, 프랑스, 영국의 문화는 인간에 채 이르지 못한 미개한자들의 말련습, 음악련습에 불과한것이라고 력설한 자료들만 실리던 때로부터 창공에는 무시무시한 전파들만 차고넘치였다. 방송에서 하루 4시간씩은 나치스당, 군대, 《히틀러친위대》, 도이췰란드처녀동맹 《신념과 미》에 바쳐진 노래들을 내보내였다. 물론 나우만이 좋아하는 경가극도 빼놓지 않았다. 최근 몇달동안은 거의 쉴새없이 폭격이 계속되여 매일 주던 식량배급량이 굶어죽지 않을만하게 줄어들었다. 그러자 겝벨쓰는 선전성 음악국의 사상담당전문가들에게 1930년대초 도이췰란드쟈즈곡을 방송으로 내보낼것을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겠소. 굶주린 사람들을 즐거운 음악으로라도 기쁘게 해주어야지. 방송내용을 더 재미있게 짜야겠소. 에스빠냐노래는 내용이 없지만 경쾌하니까 그런걸 더 많이 방송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쟈즈음악도 좋으니 스웨리예와 스위스의 유쾌한 음악들도 내보내시오. 그러되 방송원이 음악을 내보내기전에 이것은 우리와 관계가 좋은 이웃나라 음악이기때문에 방송으로 내보낸다는것을 꼭 강조하시오.》

《당신은 윈사람들을 좋아하세요?》

프라이따흐는 소리없이 슈틀리쯔에게로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 슈틀리쯔는 왼쪽볼에서 녀인의 후더운 입김을 느끼며 귀가 간지러워났다. 그는 프라이따흐가 무엇때문에 이것을 묻는지 알았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태생이고보면 분명 그것을 념두에 두었을것이다.

《왜 그러십니까? 윈사람들과는 타협할수 없다는거겠지요?》

《전 순진한 녀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윈사람들이 마음에 들면 저에게도 마음에 든다는거지요.》

《부인, 당신은 언제인가 자기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껴본적은 없는가요?》
순간 녀인은 크나큰 충격에 굳어진듯 한동안 꼼짝 않고있다가 간신히 입을 놀려 물었다.
《당신은 무엇때문에 그런 말을 물어요?》
《우리는 일을 하여야겠기에 부인을 끝까지 잘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저를 아직 다 알지 못하고계신가요?》
《잘 모르지요.》
슈틀리쯔는 녀인에게 돌아서서 그의 어깨우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프라이따흐는 슈틀리쯔의 품에 점점 깊이 안겨들었다.
《여기 어디에 록음장치를 해놓았습니까?》
슈틀리쯔는 귀속말로 조용히 물었다.
프라이따흐는 머리를 돌려 눈짓으로 커다란 탁상등을 가리켰다.
《록음기는 계속 동작하고있는가요, 아니면 불을 켜야 동작하는가요?》
《계속 동작해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당신은 내가 탁상등접속구를 빼버리는걸 보지 않았나요. 당신이 밤에 잠결에 한 말은 나밖에 들은 사람이 없어요…》
(녀인이 혼자만 잠소리를 들은것이 아닐것이다. 방안에는 분명 녀인도 모르는 또 다른 비밀록음장치가 있을것이다.)
…슈틀리쯔는 차에서 내리며 프라이따흐를 보고 물었다.
《부인은 내가 잠결에 한 말을 다 리해하였는가요?》
그러자 녀인은 가볍게 머리를 저었다.
《우리 집에 있는 로씨야하녀가 저에게 로씨야말을 다 가르쳐주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알수 없었어요.》
식당안에서는 풍짝거리는 손풍금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흘러나왔다. 선전상과 수도방어사령관의 지시로 모든 식당들은 무조건 문을 열어야만했다. 식당에서는 술이면 술, 포도주면 포도주, 무엇이건 요구하는대로 팔았다. 지금까지 계속되여오던 표쭉지놀음도 없어졌다.
슈틀리쯔는 리스링포도주 한병을 요구했다. 그는 씬찌그근방에서

생산하는 이 포도주를 제일 좋아하였다. 전쟁전에 그는 일요일이면 종종 이런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촌으로 나가군했는데 그때 포도주를 만드는 농민들에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농민들은 제일 맛있는 포도는 언포도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첫서리를 맞은 다음에 수확한 포도를 언포도라고 하였다. 바로 이런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제맛이 난다는것이다. 그런데 비가 온 후 포도가 강서리를 맞으면 포도수확은 망해버리고 농민들은 땅을 경매시키고 《로력전선》이 거주지변경을 허락해주면 광부로라도 고용된다고 한다.

《부인, 나는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것을 바라면서 잔을 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미신적인 녀성이여서 성공을 위해서는 잔을 들지 않는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전쟁이 끝난 후 나를 찾아 여기로 돌아와줄것을 희망하여 잔을 듭시다.》

《그건 또 저의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녀성으로서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가 형식상 남편과 안해이지만 어쨌든 제가 당신을 찾아오는것은 나쁘지요. 그는 내가 당신을 위해 일하기때문에 아직도 살아있어요.》

《부인, 그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로렌스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지요. 당신의 남편은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에게서 받은 편지는 그가 죽기 한주일전에 쓴것이였습니다. 남편에게 날자를 앞당겨쓰라고 강요해서 그렇게 했던거지요. 알겠습니까?》

녀인은 입술을 깨물고 알릴듯말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고여오르고 아래턱이 가늘게 떨렸다.

얼마 지나 슈틀리쯔는 아직도 애티가 력력한 어린 처녀가 식당으로 들어오는것을 보았다. 처녀는 식당안을 휘 둘러보고나서 거울에 비친 슈틀리쯔와 프라이따흐에게 시선을 멈추고 유심히 살피더니 슈틀리쯔의 옆에 있는 빈 상쪽으로 사뿐사뿐 걸어왔다.

슈틀리쯔는 프라이따흐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귀속말로 속삭이였다.

《우리를 감시하고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말하는가 엿들을접

니다. 자, 준비하십시오. 내가 부인에게 춤을 청할테니 춤을 추면서 이야기합시다. 어떻습니까?》

슈틀리쯔는 이렇게 어린 처녀까지 동원시킨것으로 보아 자기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를 하고있는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고보면 뮬러의 말이 옳은것 같았다. 감시자들의 태반이 오데르강류역의 젤롭스크고지에 파견한 에쓰에쓰특수대대에 소속된자들이였다. 슈틀리쯔는 제국안전총국의 복도에서 이번 사건에 《신념과 미》라고 불리우는 히틀러도이췰란드의 처녀동맹에서 철저히 검열된 계집들이 인입되였다는것을 엿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로 하여금 자기의 일거일동이 뮬러에게 알려질수 있다는 정확한 결론을 즉시 내릴수 있게 하여주었다. 만일 그렇다면 뮬러가 슈틀리쯔의 무전수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고 말해야 옳을것이다.

슈틀리쯔는 프라이따흐와 천천히 춤을 추면서 생각을 굴리였다.

(혹시 나의 무전수라고 하는자가 뮬러의 방조자일수도 있다. 뮬러는 최근에 내가 하고있는 일을 알고있으니까 암호전문에서 이름과 지명들을 대조해보고 암호문을 해득할수도 있다. 그럼 나는 프라이따흐를 믿어야 하는가? 이 녀인이 뮬러와 쉘렌베르그의 계책에 빠져있다는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들과 련계되여있을것인가? 녀인은 총명하기가 이를데 없는 녀자다. 이것은 나에게도 유익하다. 이 총명한 녀자는 일찌기 나치스트들이 허황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묶어세우려 한다는것을 느끼지 못했을리가 없었을것이다. 그것은 숨길수가 없었다. 곳곳에 밝은 귀가 있는데 그것을 못들을리가 있을라구… 프라이따흐는 뮬러와 같은자들때문에만 불행한것이 아니였다. 그는 녀성으로서, 총명하고 아름다운 녀성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행복을 지니고있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자식들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을 로렌스는 왜 이 녀인을 나를 반대하는 공작에 써먹지 않았을가? 그렇다고 그 누구도 믿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그래서는 안된다! 아니다. 믿을수 있다.)

슈틀리쯔는 속으로 이렇게 묻고 부정하면서 손으로 프라이따흐의 부드러운 잔등이 가볍게 떨리는것을 감촉했다. 녀인은 눈에 눈물이

마르고 뺨에 홍조가 피여났으나 아직도 눈물을 참느라고 어깨를 들먹거렸다.
(지금과 같은 정황에서는 믿어야 한다. 그것은 놈들이 여기에서 나의 동족들에게 매우 위험한 음모를 꾸미고있는데 내가 아직 놈들이 무엇을 하고있는지 모르고있기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나는 이것을 몰라서는 안된다.…)
《부인, 오늘과 래일 우리는 차안에서 아무 말도 해선 안됩니다. 그러나 부인은 길떠날 차비를 하면서 내가 말하는것을 잘 기억해둬야 합니다.… 이제 스웨리예에 도착하면 승용차를 사야 하겠습니다. 증명서는 즉시에 내줄겁니다. 그러면 주위를 세밀히 살펴보고나서 시내를 한바퀴 돌고 큰길로 그냥 차를 몰고가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작은 도시가 나지면 전보를 쳐야 합니다. 전보내용을 잘 기억해두십시오. 〈스웨리예 스톡홀름 울프가탄 7번지 박사 슈나이데르. 인편으로 나의 수면제를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몹시 앓을수 있다. 꾸젠.〉 알겠습니까?》
녀인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볼을 타고 눈물이 쏟아져내렸다.《내가 다음번에 춤을 추면서 다시 말하지요. 부인, 이것은 나한테도 필요하지만 부인에게도 필요하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혹시 부인에게 더 필요할지도 모르지요.》
프라이따흐가 머리속에 기억한 전보내용은 스웨리예에서 누구도 해득하지 못했다. 이것은 위험신호였다. 본부는 이것을 받고 앞으로 슈틀리쯔가 어떻게 행동할것인가 하는 결심을 내려야 했다. 슈틀리쯔는 적들에게 폭로된것이 분명했으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적들이 주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있었던것이다. 슈틀리쯔는 본부에서 적들의 기도를 알고 역공작을 들이댈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본부에 전하고있는 서방과의 회담에 관한 정보가 사실과는 맞지만 뮬러가 누구보다먼저 모스크바가 이것을 알도록 조직했을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거리에 나서보니 꼬리가 달린것 같지 않았다. 슈틀리쯔는 프라이따흐를 집으로 태워다주고는 삼십분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다음 무전수가 살고있는 구역으로 갔다. 슈틀리쯔는 지금 자기를 미행하지 않고있는것은 뮬러가 벌써 그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아지트의 위치를 알아냈으므로 더 감시를 조직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때문이라

고 생각하였다.

무전수는 슈틀리쯔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커피를 권하였으나 슈틀리쯔가 거절하자 놀랍다는 표정을 지으며 본부에서 온 암호전문을 내놓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월프가 회담에서 손을 뗀 다음 서방과의 회담을 누가 조정하는가?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회담은 어디서 진행되고있는가? 회담참가자의 이름을 한사람이라도 좋으니 알려달라. 당신이 처해있는 정세가 복잡한것만큼 자주 련계를 가지도록 하자. 알렉쎄이.》

슈틀리쯔는 무전수에게 방금 작성한 암호전문을 넘겨주었다. 슈틀리쯔는 이것이 모험적이고 복잡한 반공격에서 첫 걸음으로 된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프라이따흐가 전보를 보낸 후에 련락원이 가져올 소식을 기다릴것없이 역공격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던것이다.

슈틀리쯔의 전문에는 이런 내용이 씌여있었다.

《내가 래일 19시 04분 배편으로 스웨리예로 떠나보내게 될 프라이따흐는 쉘렌베르그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녀자이다. 프라이따흐는 앞으로 교제하게 될 사람들을 비쳐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내가 스위스로 떠나보내게 되여있는 루베나우는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태인들을 구원할 방도를 찾을 목적에서 스위스 전 대통령 무지와 접촉을 하게 되여있다. 나는 그와 함께 바젤에 이틀동안 묵게 되는데 본부와의 련계는 도이췰란드에 돌아와서 가지려 한다. 히믈러가 회담을 엄격히 비밀에 붙이고있고 볼쉐위크들이 이 회담에 대하여 알아내지나 않을가 하여 신경을 도사리고있는 조건에서 내가 1차로 스위스에 갈 때에는 그곳에 련락원을 보내주지 말기를 바란다. 나한테 보내주려고 하는 프랑스돈(프랑)은 본부가 마드리드에 지적해준 은행에 보내달라. 유스따쓰.》

슈틀리쯔의 전문에서 프라이따흐는 쉘렌베르그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과 도이췰란드로 돌아온다고 한 말은 역공세에서 기본을 이루는 부분이였다. 그리고 돈을 보내달라는 말은 본부와 미리 약속은 없었지만 그 내용을 음미해보면 알수 있을것이다. 이제 프라이따흐가 스웨리예에 가면 모스크바에서 온 련락원이 그를 찾아갈것이다. 그러면 녀인은 련락원에게 구두로

슈틀리쯔가 부탁한것을 전할것이다. 슈틀리쯔는 녀인을 끝까지 믿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프라이따흐는 스웨리예의 항구에서 접선하기로 되여있는 모스크바련락원에게 아무것도 전달할수 없었다. 항구에서는 석대의 경찰차와 구급차가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있었다. 프라이따흐는 담가에 실려 배에서 내렸다. 그는 이미 죽어서 시체로 변해버렸던것이다. 경찰은 프라이따흐가 사용하던 고뿌에 독약이 들어있다는것을 확증했으며 《국제경찰》카드에 등록되여있지 않는 사람의 지문을 채취했다. 그 지문은 이렇게 된것이였다. 슈틀리쯔는 프라이따흐와 함께 려객선의 1등실에 들어가 이 고뿌로 포도주를 마신 다음 그와 작별하기 위해 갑판으로 나왔다. 바로 이 순간을 노리고있던 뮬러가 파견한 특수공작조의 한 밀정이 선실에 들어가 그 고뿌에 독약을 넣었던것이다. 만일 도이췰란드에서 슈틀리쯔가 도주할 생각을 한다면 그는 세계 어느곳에 가든지 살인자로 락인되여 《국제경찰》의 손에 넘어갈것이다.

그런데 스톡홀름에서는 프라이따흐의 이름으로 된 전보가 슈틀리쯔에게 날아들었다. 그것은 베르나도트주위의 사람들과 사업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였다.

《백작은 도이췰란드수뇌부와 서부전선에서의 정화조건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방금 도이췰란드로 떠나갔으므로 그와 접촉할수 없음.》

슈틀리쯔에게 온 전보와 똑같은 내용의 전보가 모스크바에도 날아갔다. 연극은 어떻게 되였든지간에 전보내용은 사실과 일치했다. 쏘련정탐기관은 《다그마르 프라이따흐》에게서 전보가 온 바로 그날 베르나도트백작이 류베크에 있는 스웨리예령사관에서 히믈러와 만났다는 자료를 받았던것이다. 그러나 슈틀리쯔는 프라이따흐가 죽었다는것을 몰랐다. 모스크바는 프라이따흐가 보낸 전보를 적들이 풀었을수 있다고 보았으나 특수작전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슈틀리쯔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미련방수사국장 죤 후버 (1)

미련방수사국장 후버는 전략정보국장 도노완과 변호사회 회장 렌쓰가 한 담화내용을 벌써 몇번째나 반복하여 읽고있었다. 렌쓰는 도노완을 위해 푸짐한 저녁식사를 차릴 생각으로 식당주인에게 저녁식사를 어떻게 차려달라고 미리 주문했다. 이 낌새를 알아차린 련방수사국 요원들이 식탁에 도청장치를 해놓고 도노완과 렌쓰가 나눈 말들을 모조리 도청하였다. 물론 후버는 이것을 《미국의 국가적리익과 전략정보국장의 신변호위를 위하여》이렇게 한다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도 역시 도노완 못지 않게 고충을 겪고있는중이여서 자기의 강력한 적수이며 동시에 동맹자인 도노완의 주위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을 알고있어야겠기에 한짓이였다. 아직은 대통령이 자기 보좌관인 그 빌어먹을 호프 킹스와 후버의 해임문제를 정식으로 토의하지는 않았지만 후버는 최근에 이전처럼 백악관에 자유롭게 드나들수가 없었고 백악관문턱을 한번 넘어서자면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루즈벨트는 기억력이 비상하여 후버가 과거 어떤 사람이라는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따져놓고보면 흔히 두개의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후대들은 한나라안에서 서로 대치되는 세력들, 례하면 히틀러나 류덴돌프를 한편으로 하고 에른스트 텔만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다른편으로 하는 세력들, 무쏠리니를 일방으로 하고 안또니오 그람쉬, 팔미로 똘랴치, 레나또 후뚜조, 알베르또 모라비아를 타방으로 하는 세력들이 한나라안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왔고 나라를 대표할수 있었는가 하는것을 묻고있다. 또한 후대들은 비스마르크와 맑스, 뽀베도노스쩨브, 쁠레하노브, 할뚜린이 어떻게 더러운 반동사상을 대표하는자들과 동시대에 살수 있었으며 공화프랑스시기에 히틀러의 주구 델 랴 록크 파쑈무리들의 본부와 아라곤과 피카쏘(프랑스의 사회활동가들)의 일터가 한거리에 나란히 있을수 있었겠는가 하는것을 묻고있다.

사실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은 아직도 많은 면에서 물질로부터 출발

하고있으나 현대인들은 물질의 내적법칙을 다 리해하지 못한채 오늘까지 남겨두고있다.

제1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에는 그 어떤 정책변화가 있을것 같은 흥미있는 정세가 조성되였다. 미군병사들은 승리자연하며 기세도드높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그러나 모든 병사들이 다 집으로 돌아온것은 아니였다. 민주주의란 구호밑에 교양된 일부 청년들은 백악관이 강점된 볼쉐위크로씨야땅에 파견한 강점군부대들에서 계속 복무하고있었다. 자기 조국을 처음으로 떠난 이 미군병사들은 왕권주의영국, 군국주의일본, 구친위병뛰르끼예의 지령에 따라 쏘베트공화국에 기여든 다른 침략자들과 하나의 기발밑에 서있었다. 그 시련에 찬 시기에 맥빠진 로씨야의 몸뚱아리를 뜯어먹으려고 매달리였던자들이 어디 적은 수였던가?!

하지만 미국에서 위대한 자유애호투사로 불리워온 죠지 워싱톤과 아브라함 링컨의 교리는 당시 미국에서 허황한 말이 아니였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매 사람들의 권리, 나아가서 국가의 권리는 법에 의하여, 다시말하여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확인되여야 한다는것을 신성하게 믿고있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국의 근로대중은 한때 죠지 워싱톤이 주장한것처럼 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자유, 평등, 단결》의 구호밑에 공화국창건을 선포한 볼쉐위크로씨야를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쏘베트로씨야에서 손을 떼라!》이것은 미국에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파업에 일떠선 로동자들과 반합법적인 직업동맹시위자들의 행동이였다.

《볼쉐위즘—이것은 전쟁보다 더 나쁜것이다.》라는 구호를 선포하고 근로자들의 로임을 낮춘 대가로 강점군에게 재정적방조를 주고있던 은행과 독점체들은 미국의 로동계급이 공공연히 레닌과 쏘베트에 대한 자기들의 립장을 표명하는것을 더는 참을수 없었다.

이로부터 1919년과 1920년에 미국력사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이 사고하고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우익계급의 리익은 언제나 개별적인간들의 야심적인 리익을 통하

여 실현되는것이다. 미국에서 바로 이렇게 되였다.

《스트라우스부르흐 네슌》은행 총재 미췔 팔머는 윌슨대통령의 집무실에 불리워가서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였다. 그는 동시에 《씨티젠스 헤쓰》, 《인터네슌 보일러》, 《스크레톤 트라스트》련합기업체 의장이기도 했다. 팔머는 중병에 시달리고있는 윌슨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장차 좌익세력들과 결별하고 우익적인 미국의 첫 영웅으로 될것만을 꿈꾼것이 아니였다. 그의 눈앞에서는 백악관 대통령의자가 사뭇 떠날줄 몰랐다. 팔머는 자기가 발기한 반헌법운동이 절정에 이르자 이번에는 미국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되여 나라를 전세계적인 반볼쉐위크기지로 전환시켜보려고 꿈꾸었다.

상층부에서 꾸며낸 모든 음모가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역시 공작에서의 성과여부는 은밀성과 돈 그리고 이 거사를 단행하는데 필요한 믿음직한 사람들을 긁어모으는데 달려있었다.

그런데 법무성의 사업자체가 공작의 비밀을 담보하여줄수 있었고 공작비문제 역시 팔머가 윌슨대통령의 《연약한》정책에 불만을 품고있던 대은행가들, 기업가들과 비밀리에 만나 미리 해결해놓았었다. 팔머는 거사에 대한 총지휘를 법무성 검찰국장 윌리암 폴린과 법무성안에 다시 생겨난 일반정보기요부장 죤 후버에게 맡기였다.

그때만해도 후버는 스물다섯살난 청년이였다. 그는 법무성에서 소소한 서기노릇을 하다보니 전쟁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그는 병적이라고 보리만큼 흑인들과 좌익세력들을 증오하였다. 그래서인지 출세도 그만큼 빨랐다.

후버는 급진주의자들(사고와 언행에서 과격한 사람들)에 대한 등록카드를 만들어볼 안을 가지고 팔머를 찾아갔다.

팔머는 커다란 책상우에 놓여있는 필기도구를 천천히 한쪽으로 옮겨놓은 다음 각이한 색갈의 문건철을 책상에 탁탁 그루박아 간종그리고나서 말문을 열었다.

《죤, 이것을 반헌법조치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가?》

《우리가 엉터리기자들에게 인터뷰나 해주면 그렇게도 되겠지요. 제가 하는 사업이 헌법을 옹호하고있는 법무성 내부사업으로 되고있는한 누구도 우리가 나라의 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시비하지 못할겁니다.》

후버는 신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팔머는 자기가 좋아하는 달콤한 병사용담배를 꼬나물고 과시 대통령의 직책에 대하여 생각하는 장관답게 틀스럽게 대꾸했다.

《우리 나라는 언제나 공민들을 신임할데 대한 원칙을 주장하고있소. 만일 당신이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신성한 원칙에 해를 주지 않는다면 공작을 시작해보시오. 당신은 내가 미국의 헌법에 저촉되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걸 알고있겠지?》

그때로부터 넉달이 지난 후 법무장관의 특별보좌관으로 된 후버는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로씨야와의 평화와 미국에서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인종주의반대구호를 들고나선 이단자들과 협회, 동맹, 구락부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법무성청사의 두개 방은 후버가 현존제도의 적이라고 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20여만매의 자료들로 차고넘쳤다.

후버는 비밀인쇄소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공산당선언》과 레닌의 저서들을 인쇄하였다. 이 책들은 모두 금지된 도서들로서 읽기는 고사하고 그것을 보관하거나 배포만하여도 형벌대상으로 되였다.

후버의 철궤속에는 이 책들을 몰래 보내여 탄압의 구실을 들씌울 대상들의 주소들이 들어있었다. 중요한것은 시간을 정하는것이였다. 그후의 일은 면밀히 꾸며져있었다.

후버는 광적이라고 하리만큼 자기에게 충실한 서기를 시켜 당시 법무성에서 사건취급중에 있던 두 깡패집단의 두목들과 세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만나도록 했다. 팔머의 부하들은 마약밀수입과 금지된 알콜판매라는 죄명을 씌워 지하자유직업동맹에서 업무사업을 맡아보는 가장 날파람있는 깽 다섯명을 체포하였다.

후버의 서기는 깽들에게 이렇게 을러멨다.

《나는 한가지 담보를 받고 너희들을 놓아줄수 있다. 그 담보란 그리 큰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감옥에서 자기 사람들만 빼낼수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알고있다. 내가 이런 친절성을 베풀어준 대신에 너희들은 오늘부터 영원히 나의 훌륭한 친우로 되여야 한다. 이러한 친교가 현실적이고 깨뜨릴수 없는것으로 되게 하려면 행동이 필요하다. 그 행동은 좀 가혹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 행동에 림할 준비가 되여있는가?》

깽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나서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을 즐기는자들이였다.

후버의 서기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너희들은 이제 폭탄을 두개 터뜨려 달콤한 향수에 취해돌아가는 자들을 눈이 희뜩 뒤집어지게 놀래워놓아야겠다. 지금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으려 하고있다. 어서 공작에 착수하라.…》

두달후 월가거리에서 이름모를 괴한들이 터뜨린 폭탄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였다.

팔머는 지체없이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지껄이였다.

《빨갱이들은 여기에 은밀히 간첩들을 파견하여 교활하게도 테로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공민전쟁을 강요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처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11월 7일 미국의 근로자들이 로씨야에서의 볼쉐위크혁명승리 두돐을 기념하던 날 법무성의 밀정들은 후버의 자료카드에 등록되여있는 구락부와 협회들에 뛰여들어 고무방망이와 지어는 길다란 나무몽둥이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두들겨팼다. 수백명의 좌익계인사들이 감옥으로 끌려갔다.

이것은 바로 《힘의 시위》였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변은 1920년 정월초순에 있었다. 후버는 뜬눈으로 전화기옆에서 밤을 지새였다. 그의 방에는 열아홉대의 전화기가 주런이 놓여있었다. 《경보》신호를 받은 모든 주들에서 두시간에 한번씩 작전진행과정을 보고하였다.

대검거선풍에 켈리포니야, 뉴져시, 일리노이, 네브라스카주에서만도 5천명이상이 걸려들었다.

교형리들은 사람들을 이전날의 노예들처럼 손에 족쇄를 채운 다음 다시 한줄로 묶어 거리로 끌고다니며 구경을 시켰다. 거리에는 창문도 없는 죄수차들을 미리 대기시켜놓고있었다.

나라는 삽시에 무법천지로 변하였다. 첫 단계의 검거선풍이 휩쓸고 지나자 마싸츄쎄쯔주에서 몇번째 손가락안에 든다고 하는 렌흐리라는자가 기자들앞에 나타나 이렇게 지껄이였다.

《제씨들, 당신들은 나를 알고있소. 나는 언제나 솔직히 말하는 사람이요. 지금도 나는 당신들에게 내가 생각하는바를 말할테요. 내가 하고픈대로 한다면 나는 매일아침 감옥뜨락에 빨갱이들을 무리로 세워놓고 쏴죽인 다음 이튿날에는 모든것이 법대로 무난히 처리되도록 재판놀음을 벌릴테요.…》

인종주의와 반볼쉐위크사상에 미쳐난 아르뚜르 엠피라는 작자는 미국 각지를 쏘다니며 미친듯이 짖어댔다.

《슬라브사람들, 유태인들, 메히꼬사람들, 흑인들은 새로운 볼쉐위크반란을 가져올수 있는 효모와 같은것들이다! 우리와 피줄이 다른자들은 순수한 미국사람들에게 류혈적인 싸움을 걸고들려고 한다!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볼쉐위크병을 막는 약은 병원에서 파는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무기상점에서 팔고있다! 〈빨갱이들을 반대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밖에 없다. 추방하든가 아니면 즉석에서 총살하는것이다!〉 이것이 내가 웨치고싶은 구호이다!》

후버는 그 시기에 이르러 자료카드를 넣어둘 방을 또 세칸이나 받았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수는 미국사람만해도 54만 7천명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미국에서 륙십세대중 한세대가 국외로 추방되든가 혹은 총살당하게 되였다.

감옥들에서 무서운 고문이 시작되였다. 죄수들을 야수적으로 때리고 그들이 보는데서 안해와 아이들을 불러다가 《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를 전복할》목적으로 볼쉐위크들의 음모에 가담하였다는것을 인정하라고 강박하였다.

병신이 되면 감옥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악착한 고문의 흔적을 감추려고 창문에서 산채로 내던지고는 《자살》하였다고 꾸며댔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돌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다.

로동상 보좌관이였던 루이스 포스트는 기자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라는 더는 자유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 나라는 〈무정부주의〉반대투쟁을 구호로 내걸고 과두정치국가로 전환되고있다. 그러나 지금 〈무정부주의자〉로 취급되고있는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의 장래에 대하여, 우리 늙은이들이 습관되여온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우리 자식들에 대하여 생각하려 안하고 또 생각할줄도 모르는 금융자본가들과 우둔하기 짝이 없는 보수주의자들의 갈팡질팡하는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루이스 포스트는 자기 일군들을 체포된 《무정부주의자들》이 고통을 겪고있는 감옥으로 보내였다. 루이스의 일군들은 아무 죄도 없는 미국인들이 족쇄에 묶이고 피투성이가 되여 쓰러져있는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질겁하여 돌아왔다.

루이스 포스트는 우익분자들이 벌리고있는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지지해나설것을 전국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러자 루이스를 국가반역죄로 재판에 회부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후버는 칠십고령의 미국의 애국자 루이스 포스트가 모스크바간첩들과 련계를 맺고있다는것을 꾸며내기 위해 발광적으로 날뛰였다.

사건은 국회에까지 제기되여 결국 루이스 포스트가 승리자로 되였다. 그러나 검거는 계속되고 감옥들은 죄수들로 차넘치였다.

미국의 위력한 신문들은 빨갱이들, 메히꼬인들, 로씨야인들, 우크라이나인들을 반대하여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뒤늦게야 후버는 법무장관 팔머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연할 연설문을 준비하였다. 팔머는 남이 써준 글을 가지고 일장연설을 시작했다.

《나는 우리 성 일군들이 한 행동에 대하여 결코 사죄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들의 행동을 비호하려고도 하지 않을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그들의 사업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있을뿐입니다. 만일 내 사람들중에서 누가 좀 체포된자들과 무리하게 굴었다면 그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사업에 가져다준 리익을 먼저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나는 반란을 선동하는자들을 사형에 처할것을 국회에 제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자들이 두명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맑스주의테로분자들인 싸코와 반쩨티들입니다. 볼쉐위크들이 그들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극우익분자들이 이처럼 무분별한 행동을 벌리고있던 바로 이런 때 아직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있지 않던 상원의원 가딘그의 출현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이런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영웅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병에 특효가 있는 신비로운 약재가 아니라 헌법적인 정치방식이 필요한 때에 살고있다.…》

그때로부터 몇달후 가딘그가 미국대통령으로 되였다.

후버는 가딘그의 밑에서 자기가 어떻게 일해왔던가 하는것을 영원히 잊을수 없었다.

그는 결코 이것을 잊을 권리가 없었다. 련방수사국장으로 임명된 후버는 대통령과 장관들에 대한 호위를 맡고있었으므로 가딘그대통령의 수수께끼같은 죽음에 대하여 응당 파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맡으려하지 않았다. 그가 이렇게 몸을 빼려고 하는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후버는 벌써 몇번째나 문건을 번지였는지 모른다. 문건 매 갈피마다에는 《극비 한부만 작성함. 소각할것.》 이런 압인이 눌려있었다. 여기에는 루즈벨트대통령이 미국의 진정한 애국자들의 숨통을 조이고있다고 도노완과 렌쓰가 대통령을 비난한 글줄이 씌여있었다.

그렇다. 이것은 사실이였다.

루즈벨트는 바로 후버와 도노완 그리고 그들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의 증오만 받을짓을 하고있었다. 그는 쓰딸린과 아무 꺼리낌없이 한상에 마주앉는가 하면 볼쉐위크들이 전후 모든 세계적인 사업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가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실무가들이 도이췰란드를 서방에 유리하게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취하는것마저 반대하고있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대통령이 백성들을 법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사람들이나 월가의 대자본가들과 덜레스, 보스톤 같은 사람들은 밀어제껴놓고 백성들에게서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것이다.

암만봐도 대통령이 환장을 한게 분명하다. 그는 지금 꿈같이 신비로운것을 믿으려 하고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꿈을 믿어서야 되겠는가. 혹 옛말을 즐기는 사람같으면 구수한 이야기를 아무렇게나 꾸며서 해도 별일 없겠지만 대통령이 어찌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만일 루즈벨트가 대통령자리에서 인차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에게 어서 나가라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

후버는 자기 보좌관을 불렀다.

《여보게,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의 신변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구만. 히틀러가 끝장날 때도 오래지 않기는 하지만 그가 최후발악할수 있다는걸 알아야 하네. 난 지금 대통령이 크게 걱정되오. 그래서 자네가 좀 수고스러운대로 링컨과 가딘그의 죽음과 관련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파보라구. 지난 시기의 교훈이 앞으로 참고가 될테니까. …》

《베를린. 유쓰따쓰. 쉘렌베르그와 베르나도트백작사이에 있은 접촉이 어느 정도 중요한것인지 알고싶다. 베르나도트란 〈적십자회〉지도자를 말하는가? 쉘렌베르그는 베르나도트가 서방에서 누구와 련계를 가지고있다는걸 알려주던가? 나치스트들은 그를 보고 누구와 접촉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있는가? 이것이 가짜정보는 아닌가? 본부.》

《베를린. 유쓰따쓰. 쉘렌베르그가 전 스위스대통령 무지의 이름을 상기시킨것이 허위가 아닌가? 그의 아들도 있지 않은가. 무지가 도이췰란드의 어떤자와 만났는가? 무지는 자기 계약당사자들의 이름을 알고있는가?》

사건의 요인은 무엇인가

보르만은 상부오스트리아주당책임자 아이그루버가 린쩨에서 전해온 비밀통보를 받고 매우 불안해졌다.

도이췰란드제국에서 모든 사람들은 (물론 정보를 알고있는 사람들을 말함) 에쓰에쓰가 도이췰란드군장성급들의 폭동음모를 짓부시고 군대를 자기에게 복종시킴으로써 1944년 여름부터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정확한것이였다. 그러기에 보르만은 총통의 주위에 집결된 력량들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무진 애를 썼다. 이를 위해 그는 겝벨쓰를 리용하여 신문과 방송 그리고 대군중집회들을 통해 《민족의 믿음직한 기둥인 에쓰에쓰군인들에게 영광을!》이라는 구호를 떠들썩하게 웨치도록 했다.

하지만 겝벨쓰는 보르만의 숨은 의도는 알지 못하고 보통때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사상》만을 주장하면서 자기대로 일해나갔다. 그는 정말 에쓰에쓰군대의 섬멸적인 타격이 없었더라면 장성급들이 베를린에서 일정한 기간까지는 우세를 차지하였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기에 보르만이 하는 말을 정말인줄 알고 곧이들었다.

보르만은 겝벨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후방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에쓰에쓰성원들을 전선으로 보내

여 군대의 요직에 올려놓아야 할것 같소. 그렇게 하면 적을 타승할 수 있다고 보오. 에쓰에쓰성원들의 도덕적인 강의성과 높은 민족사회주의의식성이 실천적으로 증명되였거든. 레멜의 한개 대대가 우리 장성들을 더러운 딸라로 매수하고 미국금융재벌들이 퍼뜨린 마약에 중독되여버린 베를린수비대를 무릎을 꿇게 한 일이 있지 않소.》

히틀러는 에쓰에쓰성원들을 현역군인으로 전선에 내보낼데 대한 명령서에 수표하였다.

이리하여 1944년말경부터 히믈러는 이전처럼 자기가 의거할 큰힘이 없게 되였다. 에쓰에쓰의 대다수 장교들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의 전호속에 엎디여 뒈질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사실 히믈러를 떠받들고있던 이런 떨거지들이 떠났다고 하여 제국안전총국 기구자체에 영향을 미칠것은 없었다. 그러나 게스타포를 기본으로 하여 에쓰에쓰성원들이 20만이라고 하지만 600만을 헤아리는 민족사회당 당원들과 대비할수는 없었다.

지금 《에쓰에쓰무사들》의 대부분이 히믈러와 총참모부의 2중종속으로 넘어가 병영과 참호에 꼼짝 못하고 엎디여있다보니 보르만의 기구가 현실적으로 나라의 중추적힘을 이루게 되였다.

보르만은 매 주간마다 모든 주들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를 받군했다. 도이췰란드는 서른세개의 주로 나뉘여져있었는데 모든 주들은 이를테면 바바리아, 테쎈, 자유도시 함부르그 등은 거대한 자기 주당조직을 따로 가지고있었다.

보르만은 민족사회당 일군들을 한명도 전선에 내보내지 않았다. 당기구에는 도합 90만도 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모두가 보르만 한사람에게 복종하였다.

보르만은 매달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주군했다. 1944년 11월 베를린에서 진행된 민족사회당 지방일군들의 모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 에쓰에쓰형제들이 도이췰란드제국의 앞날에 대한 책임을 어깨에 걸머지고 전선에서 싸우고있는 이때 당신들, 당일군들이 해야 할 과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후방에서 에쓰에쓰가 하던 일부 사업을 직접 맡아서 하며 그들을 적극 도와주는것이다. 그리고 에쓰에쓰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며 모든 중요한 문제들은 나에게 제기

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히믈러부총통과 신속히 토론할수 있다.》

민족사회당일군들가운데는 렘과 슈트라쎌을 기억하고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히틀러가 이런자들이 없었더라면 정권에 들어앉을수 없었으리라는것도 알고있었다. 에쓰에쓰의 초기 창시자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다. 이들은 오랜 당원들을 무리로 쏴죽이고 아직 코수염도 나지 않은 《보위대》애숭이들의 행동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에쓰에쓰를 도와주라는 보르만의 말을 행동신호로, 에쓰에쓰를 지방당조직에 무조건 복종시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였던것이다.

히믈러는 총통이 그에게 말해준 후에야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되였다.

《보르만이 당신에게 아무런 강요도 안하고 아량을 보인것이 놀랍소. 그는 히믈러, 당신의 방조를 요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친선적으로 손을 내밀었소. 이젠 당신이 자기의 우수한 부대들을 전선으로 떠나보내면서 입었던 그 손실을 회복하게 됐소.…》

그때 히틀러는 히믈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히믈러는 보르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때로부터 특별히 결정된것은 없지만 제국안전총국과 에쓰에쓰지방조직들은 민족사회당에 매달마다 자기 사업을 보고하게 되였다.

이러한 보고들중의 하나가 민족사회당 상부오스트리아주책임자 아이그루버에게 들어왔다. 거기에는 칼텐브룬너의 저택(그는 전선형편이 지금처럼 험악하게 되기전에는 토요일마다 여기에 오군하였다.)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이상한 전파가 날아갔다는것이 지적되여있었다. 모든것을 미루어보아 스위스나 이딸리아에 있는 미첩보망과 련계를 가지고있는 무전기가 틀림없을것 같았다. 아이그루버는 지방게스타포와 에쓰에쓰에 칼텐브룬너대장 저택가까이까지 침투한 적정탐그루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고를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통한 대답을 못받게 되자 그는 재차 물었다. 그러자 게스타포에서는 진행중에 있는 사건을 너무 공개해놓으면 사건수사에 지장을 가져올수 있다고 대답하는것이였다.

아이그루버는 보르만에게 이 미묘한 사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가 관할하고있는 주가 히틀러의 예비본영이 자리잡고있는 알프스보루에 바투 접근해있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더욱 그러했다. 히틀러는 적들과의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여있는것이다.

게다가 여기 린쩨와 잘쯔부르그사이의 소금갱도에는 《린쩨 총통박물관》전시품들이 보관되여있었다. 그 전시품들을 돈으로 계산하면 9억 7천 300만딸라에 달한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통보가 보르만으로 하여금 즉시 뮬러를 자기한테로 불러 그에게 모든 사실을 시급히 그리고 정확히 해결할 과업을 주게 하였던것이다.

《이 지하보물고에 대하여 누구도 알아서는 안된다. 나는 히틀러에게 이 세계적인 걸작들이 절대로 적들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보고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소유로 못될바엔 소금갱도에 수백만톤의 광석을 채워넣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채워서 없애버리자고 제기했소.》

뮬러는 아래사람들을 보고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하지만 대답은 지방게스타포에서 아이그루버에게 한것과 꼭같은 아리송한 대답이였다.

뮬러는 사건수사과정에 문건이나 전화로 감히 상기할수 없는 그 어떤 거물이 여기에 관계하고있는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정말 칼텐브룬너가 베르나도트백작과 접촉한 후 자기대로 연극을 놀고있는게 아닌가?

뮬러는 이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제일 믿음성있고 날랜 사람을 잘쯔부르그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누구를 보낸다? 홀토프가 어떨가? 믿음성은 있으나 둔한 편이다. 실수만 하면 큰일이다. 그럼 아이스만은? 그는 후과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머리

가 쪼개져도 해내는 기질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좋지 못하다. 두말할것 없이 슈틀리쯔가 제일 적임자다. 한데 그는 지금 여기 일이 더 바쁘다.

뮬러는 이것저것 타산해보았으나 결심이 서지 않아 보르만에게 전화를 걸어 한 이틀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했다. 보르만은 동의는 하였지만 어쩐지 얼마전부터 뮬러와 그토록 부드럽게 대하던 목소리는 어디가고 랭랭하게 대하였다.

린쩨와 잘쯔부르그 게스타포는 뮬러가 생각하던바대로 정말 난감한 처지에 빠져있었다. 서방과 련계를 가지고있는 전파는 칼텐브룬너에게 직속된 에쓰디 특수통신처가 있는 곳에서 날아갔던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나치스들이 만들어놓은 체계에 의하면 지방게스타포는 제국안전총국 상부오스트리아 해당 부서에 사건을 의뢰하여야 하며 상부오스트리아 해당 부서는 또 자기대로 이 문제를 아이그루버와 합의한 다음 뮬러와 쉘렌베르그를 거치지 않고 직접 칼텐브룬너의 비준을 받아야 했다. 그러지 않고는 칼텐브룬너의 아래일군들에 대한 사건수사를 진행할수 없었다. 그들은 울타리를 높다랗게 치고 에쓰에쓰기관총수들이 순간도 떠날줄 모르고 지켜서있는 어마어마한 칼텐브룬너의 울타리에 직접 잇닿은 집안에서 살고있었다.

린쩨와 잘쯔부르그 게스타포는 칼텐브룬너가 약이 오르면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모를 일이여서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사건을 질질 끌어왔다. 게스타포는 여기에 칼텐브룬너가 직접 선발한자들이 와있다는것도 알고있었다.

하지만 여기 칼텐브룬너의 개인참모부안에는 1944년 12월에 미국비밀기관에 흡수된 에쓰디장교가 숨어있은것은 사실이였다.

결정적으로 결판을 내야 한다

쏘련국가안전국장은 대좌 이싸예브가 보낸 정보를 두번이나 연거퍼 읽어보았다. 이싸예브의 가명은 슈틀리쯔였다. 이 가명은 국장의 보좌관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보좌관은 베르진 뿌치쯔끼가 국가안전국에 있을 때 벌써 이싸예브와 함께 일을 시작하였다.

안전국장은 정보자료가 들어있는 붉은 뚜껑의 서류철을 옆으로 밀어놓은 다음 송수화기를 들고 보좌관을 찾았다.

《〈9번동무〉가 저쪽에서 무슨 묘한 수라도 찾은게 있소?》

《그는 지금 형편에서 별로 신통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수집된 정보를 보내는데 불과합니다.》

《쓰딸린동지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있는데 나는 뭐라고 보고해야겠소? 동무도 아마 〈9번동무〉의 공작이 어떻게 될지 모를테지. 지금 당장 정확한 자료가 요구되는데…》

국가안전국장은 전화를 끝내고 크레믈리를 향하여 떠났다.

쓰딸린은 국가안전국장의 보고를 주의깊게 듣고나서 조용히 물었다.

《동무는 나한테 뭘 증명하자는거요? 나는 당신네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구만. 우리가 루즈벨트에 대한 보다 강경한 립장을 취할것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히틀러악당들과 접촉할것을 요구하는건지 통 알수 없단말이요. 그 사람을 보고 모스크바에 좀 오라고 할수는 없겠소?》

《지금은 전선을 넘을수 없습니다.》

국장의 목소리는 유감스럽긴 하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라는듯 확고하게 울리였다.

국가안전국장은 사무실로 돌아오자 곧 이싸예브에게 전문을 날려 돌아오게 하려고 하다가 그가 베를린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정보를 보고 생각을 고쳐했다.

그는 자기 보좌관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싸예브가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해있는것 같소. 그는 놈들이 베를린으로 돌아오라고 지시하였을 때 자기가 어떤 길로 가는가를 알았을거요. 따라서 우리는 가혹하기는 하지만 연극을 계속해야겠소. 놈들은 지금 이싸예브를 통하여 우리가 서방과의 단독회담이 진행되고있다는걸 알도록 함으로써 우리를 놀래우려 하고있소. 사실 우리는 이것을 놀랍게 생각하고있소. 우리 비밀기관에서 앞으로 베를린에 보낼 전보내용을 세밀히 따져보아야겠소. 언제인가 돈을 보내달라고 하던 이싸예브의 의도를 우리가 리해하였던것처럼 그가 우리의 의도를 리해하면 곧 회답을 보내올거요. 하지만 이싸예브에게 우리의 의도를 모르게 하는것이 더 좋을수 있소. 그렇소, 모르게 하는것이 더 좋을수 있소. 베른과 스톡홀름, 류베크에서 벌어지고있는 사건은 수백만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겠소. 우리는 큰것을 위해 적은것을 희생하는 법을 배웠지. 수천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는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단말이요.… 달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소. 이것은 생활론리라고도 볼수 있소.》

《쓰딸린동지에게 올릴 특보를 준비할가요?》

국가안전국장은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자기 혼자만 알고있는 그 무슨 일이 우스웠던지 벌쭉 웃었다.

《일곱가지 불행에 한가지 대답이라…》

《그러면 좀 더 기다려볼가요?》

보좌관이 이렇게 묻자 국장은 그제서야 자기를 수습했다.

《아니요. 될수록 빨리 준비해야겠소.》

국가안전국장은 두번째로 쓰딸린의 방에 와있었다.

《그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게 뭐요?》

쓰딸린은 안전국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읽고나서 이렇게 물었다.

《우리에게 줄건 아무것도 없소. 당신이 적들을 데리고 노는게 아니라 적이 당신을 데리고 놀면 적들밖에 리익되는것이 없을거요. 처칠은 자기들이 베를린과 회담하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담하고있다는 거짓말을 날조해낼수도 있소. 아니요. 이건 부질없는 생각이요. 당신네 그 대좌를 보고 조국에 돌아오라고 하시오.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

야겠소.》
《그가 베를린에서 그런 전보를 받으면 도주하려고 할텐데 그러다가는 단번에 죽고말겁니다.》
《그건 무엇때문에? 쥬꼬브가 백이십키로메터지점까지 가있는데 왜 죽는다는거요? 거기에 가면 얼마든지 살수 있을거요.》
《게스타포가 분명 우리가 보낸 전문을 읽고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좌는 자기 전문에서 본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연극을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해있는것 같습니다. 게스타포는 그를 통해 가짜정보를 우리에게 주고있는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믿을만한 정보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아리숭한 대답은 리해 못하오.》
쓰딸린은 웅글한 목소리로 말하고나서 쿨럭쿨럭 기침을 했다.
《그러니까 적들이 우리에게 가짜정보를 주면서 교활한 연극을 놀수도 있고 믿음직한 정보를 줄수도 있다는거겠구만. 당신네 그 대좌가 정확한 답변을 줄수 없겠소? 적들이 연극을 노는가 아니면 믿을만한 정보를 주는가 하는것을…》
국가안전국장은 쓰딸린이 이처럼 성이 나서 말하는것이 자기 의견을 반대하는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았다.
《저는 그에게서 구체적인 답변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그의 보고가 전적으로 정확할것이라는것을 국가보위위원회앞에서 담보할수 있소?》
국가안전국장은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것을 알고 한순간 어정쩡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로숙한 전문가로서 쏘베트정탐기관이 제일 초기에 벌써 알아낸 게스타포의 연극이 자기에게 앞으로 어떤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줄것이라는것도 알고있었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이 쓰딸린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확신성있게 대답했다.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지게 될거요. 나는 당신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정치적결심을 내려야 한단말이요. 당신은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릴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소.》

국가안전국장이 떠나가자 쓰딸린은 쥬꼬브와 로꼬쏩쓰끼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에게 오라고 불렀다.
먼저 쥬꼬브가 찾아왔다.
쓰딸린은 서방동맹국들이 나치스들과 회담을 가지고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나서 쥬꼬브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쥬꼬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영국과 미국이 베를린에서 도이췰란드놈들과 평화적으로 만날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소?》
《쓰딸린동지, 영국과 미국은 나치스들과 손을 잡을수 없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극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화학반응은 그 어떤 요소든지 서로 일치되는것이 있는 시약속에서만 진행되는것입니다.》
《그럼 1918년에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십자군원정을 선포했던 처칠이 쏘련에 대한 태도에서 히틀러와 아무런 공통점도 없겠구만?》
《나는 병사들을 념두에 두는겁니다.》
《병사들은 누구에게 복종하오? 하긴 쥬꼬브의 심장이 좀 누그러졌으니 좋기는 하오. 그러나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전선에서 총소리가 울리고있다는걸 알아야 하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결정권이 군대에 있다고 생각하오. 쥬꼬브, 당신이 베를린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겠소. 될수록 빨리말이요. 될수록 먼저말이요. 할수 있겠소?》
《할수 있습니다. 쓰딸린동지.》
《그러니까 군대가 중요한 정치적문제를 해결해야겠소. 주도권을 잡고 베를린을 장악해야 한단말이요. 파시스트들의 반항을 짓부셔버리고 놈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오. 아마 그러는동안이면 영미군대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대통로를 따라 서쪽에서 진격해올거요. 히틀러란놈이 전쟁준비를 여유있게 한것 같소. 도로 하나는 잘 건설해놓았거던.》
《쓰딸린동지, 당신이 단독회담에 대한 통보를 받고있다는것을 처칠이 알고있습니까?》
쓰딸린은 자기에게 이처럼 직선적으로 묻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한마디로 간단히 대답해버렸다.
《처칠은 자기가 알아야 할 일은 알고있나보오.… 그럼 5.1

절을 도이췰란드의사당옆에서 쇠겠소? 요구되는것이 있으면 말하오. 후방에서 당신들을 도와줄수 있을거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평화도 더 쉽게 이루어질거요. 누구나 자기 힘을 시위한 사람이라야 정치인들을 보고 응당 존경해줄것을 요구할수 있을테니까.…》

쥬꼬브는 쓰딸린의 말을 세심히 새겨듣노라니 문득 뚜하체브윈수가 떠오르면서 인상깊던 그의 얼굴과 쭉 찢어진 사나운 눈초리를 눈앞에 보는것만 같았다. 뚜하체브는 전쟁전 어느 한 국방인민위원부 회의에서 강력한 기계화부대에 의한 땅크전에 관한 자기 리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적이 있었다.

《우리는 파시스트들에게 강력한 힘을 보여주어야 하며 붉은군대를 20세기중엽의 현대적기술에 토대한 완성된 과학적인 군사리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오직 그때라야만 우리는 적들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할수 있다. 히틀러악당들은 우리의 단합된 힘을 겁나한다. 놈들은 번대수리가 피냄새를 맡고 모여드는것처럼 피를 즐기는자들이다. 나치스들은 프랑꼬가 정변을 일으켰을 때 공산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 제2국제당중립주의자들사이에 알륵이 생겨 티각태각하는것을 리용하여 에스빠냐에 간섭하였던것이다. 히틀러는 우리를 눈에 든 가시처럼 밉게 보지만 우리 힘이 무서워 감히 침략을 못하고있소.…》

쓰딸린은 한동안 방안을 거닐다가 창문옆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쥬꼬브쪽으로 몸을 돌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물었다.

《히틀러와 그 아래놈들의 기도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소. 그놈들이 왜 서방동맹국군대에 머리를 숙이는것 같소? 전선을 라인강계선에 고착시키려고 그들을 다치지 않는게 아니요? 무력을 보면 히틀러가 얼마든지 칠수 있겠는데 말이요. 놈들이 자기 군대를 서쪽에서 동쪽 오데르강계선으로 옮겨서 얻자는게 뭣인것 같소? 히틀러는 지금 베를린에 백만의 군대를 집결시켜놓았는데 우리를 멈춰세워보려고 그렇게 한것 같지 않소? 히틀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그의 아래놈

들중에서 누가 할것 같은가? 혹시 놈들이 영미군대가 베를린에 먼저 들어올 때까지 우리를 견제하여보려는 수작이 아닌지 모르겠소.》

쓰딸린은 느린 걸음으로 큰 책상을 에돌아 등받이가 높은 의자옆에 와서 멈춰섰다. 그러나 의자에 앉을 생각은 없는것 같았다. 책상우에는 《노브이 미르》, 《즈나먀》, 《즈베즈다》잡지를 비롯한 갖가지 책들이 질서있게 쌓여있었다.

그는 쥬꼬브의 머리우로 창문밖을 응시하며 웅글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군대가 어느때면 공격을 시작할것 같소? 베를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수 있겠소?》

쥬꼬브는 자기 참모부가 이미 베를린작전계획을 끝내였으며 제1벨라루씨전선의 공격은 늦어서 두주일후면 시작될것이라고 보고를 했다. 그리고 꼬네브원수도 이와 같은 기간에 공격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로꼬쏩쓰끼는 4월중순까지 단찌히(현재는 그단스크), 그디냐(뽈스까 북부의 항구도시)에서 적들을 완전소멸하느라구 좀 지체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공격에 참가할수 없을것으로 보아집니다.》

쥬꼬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을 맺었다.

쓰딸린은 또다시 천천히 방안을 거닐다가 의자있는쪽으로 돌아와 구붓한 대통을 추켜들어 몇모금 빨더니 결론을 짓는것이였다.

《좋소, 로꼬쏩쓰끼를 기다릴것없이 공격을 개시하시오. 결정적으로 결판을 지어야겠소.…》

음모의 고리

뮬러는 타자기로 거의 간격이 없이 촘촘히 타자한 다섯페지에 달하는 자료를 보르만의 책상우에 올려놓고나서 말을 뗐다.
《각하,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보르만은 글을 보는 속도가 놀랄만큼 빨랐다. 그는 보통 처음에는 대각선방향으로 훑어보면서 자기만 알고있는 그 어떤 표식을 했고 두번째 단계로는 연필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자한자 그 뜻을 음미해보았다. 그러나 실무적문제가 적혀있는 대목에는 거의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뮬러는 이 다섯장의 보고서에 최근 게스타포가 보르만의 지시를 받고 구데리안과 헬렌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도청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어넣었다.
보르만은 단번에 이런 문장들에 굵은 연필로 밑줄을 그어나갔다.
《히틀러는 완전히 사기가 저락되였다.》, 《전쟁법칙의 견지에서 놓고볼 때 히틀러가 자기의 본영을 알프스산보루로 옮기지 않는것은 범죄와 같다.》, 《히틀러는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도이췰란드는 분명 5월말경이면 패망할것이다.》, 《히틀러가 꾸를랸지야(발트해연안의 주)에서 한개 군집단을 철수시키지 않고있으며 군대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긴것은 그가 현실과 떨어져 아무것도 모르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히틀러는 지하굴속에 들어박혀있다보니 민족의 감정도 모르고 나라에 식량과 빠다가 부족한것도 모르고있다. 그는 사람들이 불도 때지 않은 추운 방에서 떨고있는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히틀러는 소년들까지 전쟁에 내몰고있다. 이렇게 되면 이십년후면 다시 되살아날 도이췰란드군대를 지휘할 나이에 이른 남자들이 결정적으로 부족할것이다.》, 《도이췰란드민족의 넋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은 베를린주변에 우리 군대를 집결시켜놓고 볼쉐위크들에게 서방을 들썩하게 하는 큰 싸움을 거는데 있다. 이것은 국제주의사상과 로씨야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싸움으로 될것이다.》
보르만은 머리를 쳐들고 이윽토록 뮬러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이런 말들을 총통에게 옮길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을거요. 그렇게 되면 상처입은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게거든.》
《각하, 난 왜 당신에게 이런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맞혔던겁니다. 그래서 제일 부드러운 말을 골라서 쓴것이지요. 이보다 더 험한 말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보, 뮬러, 누구나 성이 나면 아무 말이나 막 한다는걸 알아야지. 구데리안이나 헬렌이나 다 정직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군대들이다나니 너무 직선적인것이 탈이라고 할지.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작성한 이 자료는 필요없을것 같소. 자, 그럼 내가 이제 알려주는 방향에서 자료를 한 반페지정도 되게 묶어보오. 례하면 헬렌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 그는 지금 상태에서 폭격을 더이상 이겨낼것 같지 못하다. 지하본영에 폭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마이바흐－2〉에 보내는것이 좋을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요. 어떻소. 그럴듯하오?》
《아, 그거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구데리안은 그가 원하는 티펠스키흐나 하이리쯔에 보내주기오. 치료를 받고난 다음에는 전선으로 보내면 되지 않겠소. 그는 땅크전에서는 제노라 하니까 앞으로의 싸움에서 땅크를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하잔말이요. 그러니까 구데리안에 대하여서는 부드러운 어조로 써야겠소. 이를테면 카이젤이나 특히 요들과 늘 알륵관계가 있다보니 땅크전을 하면서 이름을 날리던 사령관때처럼 본때를 보이지 못하고있다는 식으로 써보오.…》
《그러지 않아도 구데리안이 히믈러와 그런 말을 주고받은적이 있습니다.》
보르만은 만족한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내가 그를 보고 히믈러와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일러주었던거요. 이제 인차 총통이 구데리안에게 〈위슬라〉군집단 참모부에 내려가보라고 명령할거요. 그리고 히믈러에게서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하구…》
뮬러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우고 쿨럭쿨럭 기침을 하고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히믈러를 군대와 분리시켜놓으면 그가 크게 고립될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써 그의 실제적인 힘을 빼앗을것 같습

니까?》

《뮬러, 내가 앞으로 참고가 될것 같아 한가지 좋은 충고를 주지. 당신은 자기의 상급으로 되는 사람에게 그의 생각을 앞질러 알아맞힐수 있다는 인상을 절대로 주어선 안되오. 반대로 당신은 상급에게 자기가 앞날을 내다볼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걸 보여주기 위해 애써야 할거요. 그쯤하면 지금 당신은 나에게 뭘 말해야겠소?》

뮬러는 하하하 큰소리로 호탕하게 웃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에쓰에쓰부총통이라고 부르고있는 그토록 거룩한 인물인 히믈러가 앞으로도 〈위슬라〉군집단을 이끌수 없다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표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보르만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러면 당신을 바보나 정신병자를 섬기는 사람으로 봐야겠구만. 나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요. 당신은 나에게서 천재적인 인간으로 되여보려는 욕망마저 빼앗아내고있소. 아니요. 뮬러, 당신은 이러한 결정이 전혀 뜻밖이라는듯 놀라움을 표시해야 할것이고 수첩과 연필을 꺼내들고 적을 준비를 해야 할거요. 말하자면 무슨 일이든지 제멋대로 하는 법을 모르고 오직 상급이 지시하는것을 정확히 집행할줄 아는 능력밖에 없다는걸 보여주어야 한단말이요.》

뮬러는 마음속에서 《당신은 나를 보고 자기 행동을 본따라고 강요하고있소. 그걸 반복할 필요가 어디 있소? 바로 탐구만이 새로운 질적변화를 가져오지 않는가.》하는 말이 나오는것을 꾹 참았다.

보르만은 뮬러의 이런 속대사를 알아맞히기라도 한듯 이렇게 빈정댔다.

《그렇소, 그렇소, 바로 그렇소. 나는 당신에게 자기 행동을 강요하고있소. 그것은 더우기 우리들사이의 관계가 요즈음 특별해졌기때문에 그런가보오. 자, 이젠 기본문제를 말해보기요. 당신은 래일중으로 크레믈리가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련관도 없는듯한 두가지 사건에 대하여 알도록 할수 없겠소? 그것은 첫째로 구데리안 대신에 총참모장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있던 크렙쓰가 임명되였다는것이요. 크렙쓰는 처형당한 슐렌부르그백작이 대사로 있을 때 모스크바에서 군사무관을 지낸바가 있어 로어에도 능하고 정치적견해를 보아도 로씨야를 타승할수 없다는 립장을 취하고있는 사람이라고 알려

주오. 둘째로는 크렙쓰를 총참모장자리에 올려놓은것이 총통의 기술서기 보르만이라는것이요. 보르만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것은 크렙쓰가 필요한 시기에 쏘련최고사령부와 류혈적인 싸움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합의할수 있다고 보았기때문이라고 하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뮬러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보르만에게 자기대로 다른 구출계획이 있다는것을 완전히 확신했다. 뮬러는 보르만의 이와 같은 계획이 잘못되면 일부 요소들이 떨어져나갈수는 있으나 총적으로는 성공하리라고 믿었다.

《나는 당신을 믿소. 이젠 모를것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물어봐도 좋소.》

보르만의 말투는 저으기 부드러워졌다.

《제가 물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당신에게 무한히 충실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그처럼 떠받들어올리는것은 당신이 멀리 앞길을 내다보고 모든것을 정확히 타산하기때문이지요. 그러니 제가 무슨 말을 묻는다면 오히려 당신에게 방해를 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르만의 입가엔 야유적인 웃음이 비껴갔다.

《당신은 꼭 쉘렌베르그가 말하듯 하는구만. 너무 말투가 화려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기가 어렵거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실패한 일에 대하여 복수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복수가 불가능하다는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래서 나는 꾀꼴새처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대답이 확신성있소.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겠소. …우선 당신네 기관에서 해군제독 덴니쯔의 플렌스부르그해군기지로부터 경보신호를 받도록 해야겠소. 지금 특수잠수함에 군무하는 해병들이 입밖에 내선 안될 말들을 함부로 망탕 지껄이고있는데 잠수함부문에 있는 당신네 사람들과 합의하여 제일 믿음성있는 놈들을 다섯명 골라서 잠수함선원으로 밀어넣어야겠소. 그들을 속히 그리로 떠나보내도록 하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승인이 없이는 한발자욱도 움직일수 없다고 일러두시오.

마지막으로 루돌프 헤쓰의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적혀있는 사건철은 당신에게 맡기지 않고 당신네 손자들의 기억속에 남겨두려고 하오.
이것이 국가의 중요한 비밀문건인데 읽은 뒤에 보관을 잘해야겠소. 분실하면 큰일이요.》
보르만은 뮬러가 또 무엇을 물을것만 같아 얼른 자리를 차고 일어나 사건철을 뮬러에게 넘겨주고 손을 내밀었다.
《자, 이젠 돌아가도 좋소. 안녕히 가시오!》
보르만은 뮬러를 떠나보낸 다음 칼텐브룬너를 맞이했다. 그는 까나리스가 수용소에서 세페지나 되게 촘촘히 박아쓴 글을 읽어보고 이 자료가 어느 정도 흥미있는것인가 하는것을 알아보았다. 보르만은 제국안전총국의 문건들에는 이런 자료가 적혀있는것이 없다는 대답을 듣자 아브웨르에 대하여 더 묻지 않고 종이장을 철궤속에 넣어버렸다.
《칼텐브룬너, 이것 좀 보오. 나도 모르게 이런 정보가 새여나가다니. 하지만 이것도 진짜는 아닐수 있소. 까나리스는 당신에게 깝대기만 알려주었소. 좀 더 구체적으로 담화해보시오. 이번에도 그가 교활하게 행동하면 없애치워야겠소. 아무 쓸모도 없는자에게 수용소밥을 축내게 하고 커피를 끓여먹일 필요가 없지 않소.…》
보르만은 칼텐브룬너를 보고 빠라파이공사와의 접선을 조직하라는 과업을 주고 이에 대하여 그들 두 사람외에 누구도 알아서는 안된다고 단단히 오금을 박았다. 그러고나서 보르만은 카이젤을 만나러 떠나갔다.
카이젤은 총통에게 전선형편에 대하여 보고하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오군했던것이다.
총통의 대본영에서 협의회가 있기전 깊은 밤중에 슈틀리쯔가 보르만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틀후에 히믈러부총통이 류베크에 있는 스웨리예총령사관에서 베르나도트백작을 또 만나게 되여있습니다. 이 정보는 전적으로 믿을수 있는 정보입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당신에게 통보하는것을 자기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소. 내가 당신을 믿지 않고 이 사실을 검토해볼 과업을 줄수

없었더라면 나는 이걸 헛소리라고 했을거요. …외국도 아닌 여기 도이췰란드에서 왜 이렇게 못해보겠소. 당신은 이에 대하여 뮬러에게 통보했소?》

《하지 않았습니다.》

《슈틀리쯔, 지금 곧 통보하라구. 앞으로 갈수록 내가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것 같소. 지금 정세가 얼마나 엄중한지 당신도 알고있을거요. 뮬러를 믿으라구. 그가 지금 내가 준 과업을 수행하고있으니까.》

보르만은 지하실로 돌아오자 자기 보좌관인 짠더대좌가 들어있는 자그마한 방으로 들어갔다.

여기에는 보르만의 사촌동생 호위경비대장 알브레흐트가 함께 들어있었다.

보르만은 방안에 들어서자 문을 빈틈없이 꼭 닫고 자기 보좌관을 보고 물었다.

《짠더, 게링그원수와 가까운 사람들중에서 누가 자네 말을 잘 듣는가?》

《요한 마이어가 저의 말을 잘 듣습니다.》

《아니야. 그는 지금 게링그원수의 사람이 아니라 총통의 부관이 되였소. 내가 묻는건 늘 게링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묻는거네.》

《그럼 구버대좌가 있습니다. 그는 내 말이라면 어떤것이나 다 듣습니다.》

《이마에 흠집이 있는 사람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알건대 그의 처켠으로 먼 친척벌되는 사람들중에 누구인가 폭동음모자들과 련관이 있었던것 같은데? 사촌이야 아니겠지?》

《바로 그렇기때문에 내가 그에게 의거할수 있다는겁니다.》

《후보자가 좋구만. 자넨 그를 전적으로 믿을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한테는 그를 믿을만한 근거도 있습니다.》

《좋네. 자넨 게링그원수가 적과의 투쟁을 계속하자면 알프스보루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방향에서 그와 사업을 해보라구.… 카린할레에서는 더이상 항공대를 지휘하기 곤난하다구 자꾸 쑤셔야겠네. 자네가 구버에게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라구. 그러면

구버는 또 구버대로 게링그원수를 보고 여기 사무실에 있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자꾸 이야기할게 아닌가. 더우기 변절자들이 적들과의 비밀접촉이 성공하면 게링그를 총통의 후계자로 임명한다고 한 총통의 명령이 민족의 운명을 위해 거대한 의의를 가질수 있다고 하란말이요. …또한 구버가 게링그에게 총통의 병사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낼수 있으나 히믈러와 같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화목하게 지낼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총통이 히믈러를 〈위슬라〉군집단사령관직위에서 해임시켜버린거라고 자주 이야기하게 하란말이요. 게링그가 총통의 병사라는거야 누구도 부인 못하지 않나.

그리고 구버에게 히틀러 지하대본영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에 대하여 늘 알려주겠다고 약속해두게.

다시말하면 자넨 나와 함께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인체하면서 구버와 작당을 하란말이요. 마지막으로 게링그가 알프스보루에 가서 자기를 총통의 후계자로 선포할 때 구버에게 암호문을 보내주겠다는 말도 해두라구.》

슈틀리쯔는 본부에 다음과 같은 암호전문을 날리였다.

《본부 앞.

구데리안은 총참모장직위에서 해임되였다. 그의 후임으로는 크렙쓰가 임명되였다.

뮬러의 말에 의하면 크렙쓰는 〈로씨야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부드러운〉것으로 하여 과거 수뇌부의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유쓰따쓰.》

이어 본부에서도 암호전보가 날아왔다.

《유쓰따쓰. 크렙쓰가 우리들이 지정해주는 사람과 접촉할수 있겠는가를 알아볼수 없겠는가? 본부.》

쏘련국가안전국장은 이 전보가 베를린에서 연극을 꾸미고있는자들에게 커다란 흥미를 끌지 않을수 없기에 인차 회답전보를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슈틀리쯔는 모스크바에서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이제는 본부에서 자기 의도를 알아차렸다는것이 명백하였다. 그러나 슈틀리쯔는 지금 뮬러가 사무실에 앉아서 모스크바에 어

떤 답변을 주는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겠는가 하는것을 타산하고 있으며 보르만과 토론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크렙쓰에 대한 말을(뮬러는 이것이 분명 슈틀리쯔의 관심을 끌지 않을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꾸며낼것이라는것을 알고 본부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뮬러는 아침일찌기 신호도 없이 슈틀리쯔의 방에 뛰여들었다. 그는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병색이 들어보였다.

뮬러는 라지오를 틀어놓고 런던파장을 맞춘 다음 라지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한동안 귀를 기울이였다. 그렇게 하고서야 쏘파에 다가와 무겁게 주저앉았다.

《슈틀리쯔, 내가 이제 자네한테 한가지 중요한걸 보여주지.》

뮬러는 쿨럭쿨럭 기침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보르만이 자기에게 넘겨준 문건철을 가리켰다.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민족사회당원이면 누구나 이것이 무시무시하면서도 황당무계한것이라고 생각할거네. 이 문건에 씌여진 글들이 죄다 사실이라고 하니 얼마나 천치들인가 보라구. 자네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각도에서 보라구. 그리고 나한테 설명해주게.》

아돌프 헤쓰

《우리 〈해외조직〉이 수집한 새로운 자료들은 민족사회당으로 하여금 아돌프 헤쓰사건에 대하여 다시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게 하고있다. 헤쓰는 히틀러와 한감방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자 곧 총통과 한날한시에 당증과 17번이라고 새겨진 황금휘장을 수여받았다. 헤쓰는 감방에 있을 때 히틀러가 불러주는대로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썼다.

이 사건에 대하여 돌이켜보게 되는것은 지금 런던에 있는 헤쓰나 혹은 자기를 헤쓰라고 하는 영국비밀기관의 어떤자가 보냈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보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히믈러 개인보좌기관이 대답을 회피하고있기때문이다.

게링그원수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맡고있는 직무상임

무로 보아 헤쓰가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도주한데 대하여 모를리가 없겠으나 똑똑한 대답을 하지 않고있다. 그들은 군용비행기의 생산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1939년 9월 초하루부터 시작하여 도이췰란드상공에 나타난 모든 비행기들을 감시할 임무를 맡고있었던것이다.

이것을 조항별로 기록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쓸수 있을것이다.

1. 1941년 5월 10일 17시 45분 아우스부르그에서 〈메쎄르슈미트 110〉비행기가 날개밑에 보조휘발유통도 없이 떠올랐다. (헤쓰의 부관을 체포할 때 헤쓰가 타고 도망친 구겨진 비행기사진이 나타났다.)

2. 1941년 5월 10일 22시 영국항공대 레이다는 영국상공에 단독으로 나타난 도이췰란드비행기를 포착했다.

3. 1941년 5월 10일 22시 50분 정체불명의 락하산 하나가 스코틀랜드에 내렸다. 〈메쎄르슈미트〉비행기가 사고를 일으켰던것이다. 비행사는 처음에 자기를 대위 〈호른〉이라고 하였으나 후에는 당 부총재 헤쓰라고 하였다. 그는 하밀톤친왕과 (헤쓰는 친왕을 자기 벗인 알베르트 하우스호페의 친구라고 했다.) 회담을 하기 위해 평화의 사절로 왔다고 하였다. 〈메쎄르슈미트〉비행기는 다음날 사고현장에서 발견되였는데 보조연유통이 두개 있었다.

4. 우리와 만난 〈메쎄르슈미트〉대기업체 연혁기록 부서책임자인 박사 헤버트에게서도 무슨 신통한 말을 들을수 없었다. 그것은 공장에서 생산된 비행기사고중에서 헤쓰가 타고 달아난 비행기는 기록에 없었기때문이였다.

5. 전시법에 따라 어떤 비행기를 막론하고 비행승인이 없이는 공중에 떠오를수 없었고 헤쓰의 〈메쎄르슈미트〉가 뮨헨, 쾰론, 암스테르담과 같은 레이다망이 조밀한 지역상공을 통과하면서 지상감시근무에 해당한 암호를 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류프트바페부대들에 알아보았으나 1941년 5월 10일 도이췰란드상공을 단독비행한 비행기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6. 헤쓰가 연유를 보충받기 위해 쾰론이나 네데를란드의 어느 군용비행장에 내렸을수 있다고 보고 류프트바페부대들에 알아보았으나 대답은 여전히 그럴수 없다는것뿐이였다.

7. 글라스고(영국의 도시이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스코틀랜드

에 떨어진 〈메쎄르슈미트〉비행기의 휘발유통에 휘발유가 남아있었다는것이 알려졌다. 그런데 비행기는 보조탕크가 있는 조건에서도 연유를 보충받지 않고는 영국해안에 이르지 못한다는것이다.

8. 1941년 3월말경 게링그원수의 심복들중 하나인 류프트바페항공대 장령 우데트는 군함들을 호위하기 위해 〈메쎄르슈미트〉편대를 데리고 노르웨이 남쪽지역에 간 일이 있었다. 그의 비행기들은 모두 헤쓰가 아우스부르그에서 타고간 그런 비행기들이였다. 우데트참모부는 1941년 5월 10일 자기 부대의 한개 비행기편대가 비행한 자료를 민족사회당에 보고하지 못했다. 우데트는 그 자료가 폭격에 전부 불타버렸다고 했다.

9. 북해연안에 주둔해있는 〈메쎄르슈미트〉항공대사령관의 말에 의하면 헤쓰가 도망치던 당시 게링그원수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정신착란〉에 걸려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도망치는것을 쏴떨구라고 명령하였다. 이것은 5월 10일 저녁에 있은 일이였다. 즉 헤쓰의 〈메쎄르슈미트〉비행기가 떠난지 한두시간 지난 후였다. 그러나 다음날 헤쓰의 실종사건으로 히틀러의 대본영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게링그는 헤쓰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다고 했다.

10. 런던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의학검진결과 헤쓰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고 한다. 1937년 11월 23일 우리 군대병원에서 검진한데 의하면 헤쓰의 몸에는 전투에서 입은 상처자리가 있었다. 그는 1916년 6월 12일 두만트부근에서 손과 발을 부상당했고 1917년 7월 25일에는 다시 왼손을, 1917년 8월 8일에는 왼쪽허벅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

11. 글라스고에서 받은 정보에 의하면 영국국방성은 영국땅에서 일어난 비행기사고에 관한 자료를 다 가지고있으나 헤쓰가 타고온 〈메쎄르슈미트〉비행기추락사고는 없는듯이 시치미를 떼고있다.

12. 더블린에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쳐칠은 헤쓰를 촬영하는것을 금지시켰다. 1941년 5월 총통은 마취제를 리용하여 헤쓰를 마취시킨 다음 도이췰란드에 대고 방송을 불어대게 하지 않겠는가 걱정하였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도이췰란드에서는 누구나 그의 목소리를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쳐칠관방실에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헤쓰는 수용소에서 자기가 게링그원수와 친한 사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간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하였다

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면서도 헤쓰는 자기와 관계가 좋았던 히믈러를 욕질하였다. 채식가인 헤쓰는 쩝쩝 소리를 내며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고 늘 무엇을 찾는듯 부산하게 움직이는 습관이 있었다.

13. 지금 서방과의 반역적인 회담이 진행되고있는것으로 미루어보아 어제오늘 접촉이 이루어진것이 아니고 그것도 칼텐브룬너나 쉘렌베르그만이 하고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확고히 결론지을수 있다. 헤쓰는 벌써 1940년 4월 27일 지정학(철학에서) 창시자의 한사람인 한스 하우스호페의 아들 알버트를 제네바에 보내여 스위스〈적십자회〉회장과 만나게 했다. 여기서는 도이췰란드와 영국간의 평화협정체결문제가 론의되였다. 알버트는 헤쓰의 직접적인 과업을 받고 런던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기 위해 리스봉에서 영국대표와의 접촉을 가졌다. 따라서 헤쓰는 도이췰란드가 쏘련을 침공하기 직전에 런던과의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믿음직한 련계를 가지고있었다.

이로부터 헤쓰는 스코틀랜드에(거기에는 헤쓰의 계획이 파탄될것을 예견하여 다른 사람을 파견했다.) 간것이 아니라 어느 중립국의 알려지지 않은 비행장에 내려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고 런던에 갈수 있었다. 이리하여 대위〈호른〉은 고위급수인들을 위한 영국의 비밀수용소에 〈평화의 구상〉을 안고 머무르게 되였다.

14. 내가 헤쓰를 대신한 사람으로서 그의 〈평화구상〉(물론 그것을 총통과 합의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알게 되였고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 좋게 가지는것을 나의 신조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남을 의심하는것이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사상과 실천에서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고 놓고볼 때 이런것을 묻고싶다.

도이췰란드 고위지도자들중에서 누가 헤쓰로 하여금 자기 계획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었는가? 전투기의 비행을 좌지우지할 권한을 가진 게링그의 부하들중에서 누가 히믈러와 협력하여 처칠과 평화회담을 가지려는 헤쓰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 헤쓰와 꼭같은 사람을 파견할수 있었겠는가? 혹시 게링그가 헤쓰와 작당한건 아닐가? 아니면 까나리스나 총참모부에 있는 그의 친구들중에서 누가 헤쓰를 도와준건 아닌지? 헤쓰의 지시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것이든 총통의 지시와 같게 평가하고있지 않는가. 만일 헤쓰가 전쟁이 끝난 후에 민족사회주의운동에서 지도권을 노리려 한다면 그의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자료는 충분히 있는가? 만일 없다면 가까운 기간내에 그

것을 어떻게 얻을수 있겠는가? 이 비밀을 루설하는자와 그 가족들은 어디에 살건 민족사회당앞에 쌓은 공적이 아무리 크건 관계없이 처형당할것이다.》

문건에는 보르만의 수표가 없고 그대신 갈구리같이 생긴 표식이 있었다. 보르만은 1945년 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은행에 7천만딸라를 부칠 때에도 문건에 바로 이런 표식을 했던것이다.

슈틀리쯔가 문건을 다 읽고나자 뮬러는 몹시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래 어떤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히믈러가 헤쓰를 밀어낸것 같지 않은가?》

슈틀리쯔는 머리를 가볍게 저었다.

《당신은 누구한테도 이런 말을 들은적이 없는가요? 당신이 이걸 모르다니요? 혹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들은것이 없단 말씀입니까?》

《슈틀리쯔, 난 한해전에야 총통의 〈형제들〉이고 당창건자들인 슈트라쎄와 렘이 살해되였다는것을 알았네. 나는 이들이 총살당하기 직전에 〈하일 히틀러!〉를 소리높이 웨쳤다는걸 들었네. 그들은 총통이 속히우고있다고 하면서 울며 총통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했다고 하지 않나. 얼마전에야 나는 히틀러가 그들을 체포하기전에 보낸 편지를 보았네. 총통은 민족사회주의혁명의 영웅들에게 감사의 정을 표시하고 자기 〈형제들인〉슈트라쎄와 렘에게 글로써 애무하여 주었다질 않나. 총통은 그들과 너나들이로 말하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고싶다고 했다는구만.》

《당신은 보르만이 무슨 수를 꾸미고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때문에 헤쓰를 갈아치울 필요가 있었나 말입니다.》

《슈틀리쯔, 나는 몇가지 예측하고있는것이 있네. 첫째로 보르만이 히믈러를 통하여 스코틀랜드에 헤쓰와 꼭같이 생긴 사람을 보내지 않았는가 하는거야. 진짜 헤쓰는 다른데로 슬쩍 돌려놓고말일세. 이것은 쏘련을 치기전, 다시말하여 전쟁이 일기 사십일전이였지. 정보는 에스빠냐에 있는 민족사회당의 비밀통로를 통하여 들어왔네. 만일 가짜 헤쓰가 영국사람들과 평화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일은 성공한것이라고 볼수 있지. 전쟁은 한 전선에서 시작될테니까 영국인들은 우리에게 가짜 헤쓰를 폭로하겠지만 진짜는 다른데 있을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비밀은 보장된셈이지. 두번째 예측은 게링그나

히믈러를 리용하여 보르만이 헤쓰대신에 슬쩍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지 않겠나 하는거네. 스코틀랜드에는 죽은 헤쓰대신에 그와 꼭같이 생긴 사람이 갈수 있지. 례하면 노르웨이에 있는 우리 항공기지 같은데서 떠나갈수 있단말이야. 보르만은 이제 로씨야사람들을 놀래우면서 이런 놀음을 놀수 있지. 〈진짜 헤쓰는 쳐칠이 감춰놓고있다가 히틀러놈이 멸망한 다음 도이췰란드수뇌자로 내세울것이다. 지금것은 가짜다.〉 이렇게 말이네.》

《내가 이 문건을 언제 당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까?》

슈틀리쯔가 묻는 말이였다.

《여보 슈틀리쯔, 당신 정신나가지 않았나? 내가 이걸 자네한테 맡길줄 알았는가?》

뮬러는 놀라서 펄쩍 일어나기까지 했다.

슈틀리쯔는 그를 현관옆에 대기하고있는 승용차 있는 곳까지 바래우면서 생각해보았다.

(모를 일이군. 나는 그가 크렙쓰에 대한 말을 하려고 온줄 알았더니 딴소리를 하고 가는군. 정말 내가 수세에 빠져버렸는가?)

뮬러는 맥없이 터벅터벅 계단을 내려오면서 드디여 슈틀리쯔가 기다리던 말을 꺼냈다.

《나는 도무지 보르만이 하는 일을 모르겠군. 그는 크렙쓰를 총참모장자리에 올려놓았네. 구데리안은 절망할테지만 크렙쓰는 총참모장이 되였으니 제가 바라던대로 빨갱이들과 회담장에서 한자리에 척 앉을걸세. 우리가 접수할수 있는 조건에서 그들을 끌어들여놓고 말이네. 크렙쓰는 로씨야사람들이 총 한방 쏘지 않고 베를린전투를 승리할수 있게 하여줄거네.》

뮬러는 보르만이 자기에게 넘겨준 자료가 그가 꾸민 교활한 연극의 한 고리라는것을 미처 몰랐다. 자기외에 누구도 믿지 않는 보르만은 〈호른〉이 아니라 헤쓰가 바로 영국에 앉아있다는 믿음직한 정보를 가지고 이런 놀음을 꾸몄던것이다. 만일 〈호른〉이라는 인물이 있었더라면 영국사람들은 그를 없애치워버렸을것이다. 보르만은 이러한 가짜정보가 뮬러를 통하여 모스크바에 들어가면 로씨야사람들이 더 참지 못하게 되리라고 타산했던것이다.

그러나 슈틀리쯔는 보르만의 이러한 기도를 잘못 타산하고 연극은 보르만과 뮬러사이의 모순관계로 보아 가능할뿐아니라 지어 일정한

정세하에서 구원의 수단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리하여 슈틀리쯔는 본부에 무전을 날리게 되였다.
《본부 앞. 뮬러의 의견에 의하면 크렙쓰는 접촉에 응할것 같다. 그러나 이런 접촉은 히틀러의 지하대본영의 정치정세가 결정적으로 변화될 때에만 가능하다. 지난번 정보를 보낼 때 구좌앞으로 보내달라고 하던 돈은 언제 보내주겠는가? 유쓰따쓰.》
국가안전국장은 쓰딸린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당분간 이싸예브에게서 온 전보내용을 보고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안전국장은 그 사이에 베를린에 암호전문을 두번 날렸다. 그는 전문에서 이싸예브가 진행하고있는 공작방법에 다른 의견이 없다는것을 알리고 한주일전에는 무전련계를 가지지 않아도 일없다고 했다. 그것은 이싸예브가 루베나우와 함께 스위스에 갈수 있도록 시간을 주려는것이였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국장은 열흘후에 《련락원》이 베를린에서 이싸예브를 찾을것이라고 통보하여주었다.
쏘련정보기관은 이번 단계의 작전을 시작하면서 이싸예브에게 한순간이라도 시간을 더 얻어주는것이 그의 운명에 대하여서는 말할것도 없고 나아가서 베를린공격을 위한 출발계선을 차지하고있는 수십만 쏘련군인들의 운명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고 보았다.

음모를 꾸미는 게스타포 (2)

뮬러는 모스크바본부에서 슈틀리쯔에게 보낸 마지막 암호문을 오래도록 연구하면서 까다로운 기하학적도형을 그려보았는데 매번마다 한주일전에는 련계를 가지지 않도록 하라는 모스크바의 지시에 와서 걸려들군했다.
(지금은 어느때보다 한초한초가 귀중한 때다. 그런데 모스크바는 어떻게 자기 사람을 보고 정보를 계속 보내라고 하지 않고 한주일의 여유를 주는가? 순간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고 그러는가. 모스크바는 지금 죽어가는 환자의 맥박을 짚고있는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혹시 련락원에게 주되는 관심을 돌리고있는건 아닌가?

슈틀리쯔에게 적극적인 활동만 요구하다가 파멸을 가져올것 같아 두려워 그러는건 아닌가? 내가 오늘 슈틀리쯔를 체포하여 그가 보낸 암호문을 보여주고 나를 위해 봉사할것을 강요해볼가? 거절하면 고문을 들이대여 동의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로 만들어치울수 있지 않은가. 아무리 봐야 이자는 지독한 놈이여서 동의하지는 않을것이 분명하고 자칫하면 정신병자가 될수 있을것 같다. 아무튼 좋다. 그의 의지를 꺾어놓고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해보자. 하지만 그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있지 않는가. 다만 그런줄은 모르고 일할따름이지. 그렇다면 나는 공연히 신경을 돋구고있지 않는가?)

뮬러는 자기 생각을 읽을줄 알았다. 그리고 자기의 말투며 억양도 똑똑히 분간하였다. 그런데 때때로 반점을 헛갈리는가 하면 두점과 이음선을 바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군했다.

그는 갑자기 《신경을 돋군다》라는 말이 떠오르자 혼자서 피씩 웃었다. 뮬러는 이 말을 오래전에 할머니에게서 들어왔다. 할머니는 찍하면 자기는 신경계통이 잘못되였다고 말하군해서 집안사람들을 웃게 했다. 알짜 무식쟁이 할미가 학자들이나 쓰는 이런 말을 어디서 얻어듣고 제소리처럼 하는것일가?

뮬러는 가볍게 웃다가 곧 정색해졌다.

(네가 신경을 돋구고있는것은 슈틀리쯔가 스위스로 떠나갈 날자가 가까와오기때문이 아닌가. 너는 아직 슈틀리쯔를 스위스로 떠나보내지 않을 구실을 생각 못했지. 너는 처음부터 슈틀리쯔를 중립국으로 떠나보내서는 안된다는것을 명백히 알고있었지. 그런데도 한주일전에 벌써 생각했어야 할것을 매일같이 미루어오다니. 이게 어디 될 말인가. 네가 신경을 돋구는것은 바로 이것때문이다. 너는 요즈음 매일같이 슈틀리쯔를 보고있는데 이 한주일동안 그가 얼마나 걸늙었는가 보라. 어느새 귀밑머리에 흰서리가 내려앉고 눈가장자리에 이전에는 볼수 없던 잔주름살인들 얼마나 생겼는가. 슈틀리쯔는 자기가 아찔하게 높은 십층짜리 두 집사이에 매놓은 바줄에서 줄타기를 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밑에서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우를 쳐다보고있다. 이제 그가 균형을 잘못 잡아 떨어만 지면 아스팔트바닥에 부딪쳐 찍소리도 못하고 죽고말것이다. 그래도 떨어지는 순간까지는 그 어떤 희망이 머리속에서 반짝할수 있으나 땅에 부딪치기만 하면 끝장나고만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신경을 돋군다》는 말

대신에 《흥분한다》는 말을 사용하고있다. 이것은 사실상 본래의 의미가 바뀌여진것이고 단어의 리해상 혼탁되여버렸다는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것은 이번에 슈틀리쯔가 크렙쓰문제와 관련하여 왜 보르만의 이름은 상기시키지 않고 내 이름만 상기시켰는가 하는것이다. 내가 그에게 모든걸 똑똑히 알려준것 같은데 왜 그는 본부에 이처럼 조심스럽게 정보를 주고있을가? 그러다가 슈틀리쯔가 사건을 질질 끌면 어떻게 하겠는가? 설마 그러기야 할가. 그는 암호문에서 어디에 있는 자기 구좌에 언제 돈을 보냈는지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프라이따흐문제는 잘 처리되였다. 《프라이따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암호전문을 계속 보내줄것이다. 지금 마르따라고 하는 녀자가 프라이따흐를 대신하고있는데 어찌보면 둘이 비슷한데가 있었다. 마르따는 스웨리예에 있지만 항시적으로 나의 감시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신경을 돋구게 한것이였다. 나는 지금도 우리 군대가 공격하여 들어가기전의 빠리를 잊을수 없다. 우리 땅크들이 빠리에 밀려들자 어떻게 해서라도 혼란을 막고 후퇴에 조직성을 부여해보려던 빠리당국의 기도는 산산이 날아나버리고 정세는 도저히 수습할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여기 베를린에서도 쥬꼬브가 공격을 개시하면 로씨야군대가 오데르요새를 넘어 수도에 밀려들것이고 혼잡탕이 벌어질것이다. 그리고 슈틀리쯔도 사라져버릴것이다. 만일 보르만이 마지막순간에 빨갱이들과 손을 잡지 못한다면 플렌스부르그에 대기시켜놓은 잠수함이 있는 곳으로 가기전에 내가 슈틀리쯔를 통하여 그의 본부와 접촉을 가져야겠는데 그때야말로 나에게는 슈틀리쯔가 필요한것이다. 만일 슈틀리쯔가 사라진다면 로씨야에 타격을 주어보려던 나의 꿈은 실현될수 없게 될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슈틀리쯔를 놓쳐선 안된다. 슈틀리쯔만 사라지면 서방에 의거하려던 나의 두번째 기도는 파탄되고 말것이다. 내가 빈손으로 간다면 서방에서 환영하겠는가. 아니다. 왜 이렇게 맥빠진 생각을 하고있을가. 이래서는 안된다. 혼잡이 벌어지는 순간에도 그것을 수습할 생각을 하는 사람, 귀중한 자료들을 아이들의 완구통에 나누어넣어서라도 보존할줄 아는 사람이 어느때든지 승리할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니 시간이 없다. 우선 나는 첫 사업으로 포츠담에 있는 슈틀리쯔무전수의 집을 오늘 당장 하늘로 날려보내야 한다. 이리하여 슈틀리쯔와 본부와의 련계를 끊어버

리고 그가 련계를 찾아 헤매도록 하자. 이것은 언제나 공작에 유익한것이다. 그리고 국경에 있는 통로를 봉쇄해버리고 슈틀리쯔가 가지고있는 려권과 스위스사증을 불살라버려야 한다. 한스를 처리하는 것은 복잡할것도 없다. 슈틀리쯔가 여사여사하여 중립국으로 가게 된다 해도 내가 프라이따흐를 없애버릴 때 《국제경찰》과 사업을 해놓았으니 그는 결국 고뿌에 남긴 지문때문에 살인범의 혐의를 쓰고 잡히고말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한스를 처리한 후에 슈틀리쯔는 경찰의 손에 잡힐수도 있다. 그러고보면 모든 문들은 굳게 닫겨져버린셈이다. 이제 사건이 어떻게 발전하겠는지 지켜보자. …그렇지, 뮬러, 너는 또 자기자신과 솔직히 털어놓지 않고있다. 너는 슈틀리쯔를 감방에 가두어넣고 본부에 이런 무전을 치라고 강요하려는 거지. 《뮬러는 한때 나를 파멸로부터 구원해주었으며 월프와 덜레스와의 회담을 파탄시키도록 도와주었다. 그 대가로 그는 우리와의 협조를 요구하고 앞으로 신변을 보호해줄것을 요구한다.》 너는 지금 슈틀리쯔가 이 암호문을 쓰는것을 제눈으로 보고싶고 기가 꺾여 주눅이 든 그의 몰골을 보고싶어하지. 그러나 너는 모스크바에서 멸시로 가득찬 전보가 오기를 더 기다리고있지 않는가. 이것은 너에게 혼탁된 정세를 극복하고 살아남아 처음부터 모든것을 다시 시작할수 있는 왕성한 힘과 강한 의지를 줄테니까.)

슈틀리쯔는 무전수 로르흐가 살던 포츠담의 작은 독립가옥이 재무지로 변해버린것을 보고 바벨스베르그의 자기 집으로 왔다. 대문옆에는 뜻밖에도 경찰차가 서있었다. 그는 갑자기 맥이 탁 풀렸다. 연극은 마지막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이 알렸다. 아무리 따져보아야 어디나 갈길은 막히고 빠질 구멍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그는 자동차문을 쾅 닫고 모든것을 운명에 맡긴채 집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경찰에서 나온 경찰관 두명과 사진사는 한스의 시체를 검증하고있었다. 한스는 관자노리에 총알을 맞고 숨졌다. 머리는 반쪽이 부서져나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상급인듯해보이는 경찰 한명이 슈틀리쯔의 증명서를 검열해보고나서 날카롭게 쏘아보며 물었다.

《당신외에 누가 또 여기에 있었소?》

《아무도 없었소. 무슨 흔적이라도 있소?》

《볼젠씨, 이건 당신이 참견할바가 아니요. 우리를 가르치느라 하

지 말고 제 할 일이나 하는게 좋을것 같소.》

《이 집은 볼젠박사의 이름으로 샀지만 나는 대좌 슈틀리쯔요.》

그 말에 경찰들은 놀란듯 서로 마주 바라보았다.

《제국안전총국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란말이요.》 슈틀리쯔는 성이 나서 말하였다.

《여기 전화는 선이 끊어지고 고장이 나서 사용할수 없소. 그러니 우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제국안전총국에 전화를 걸어봐야겠소.》

경찰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좀 누그러졌으나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투였다.

구역경찰서안에 들어서니 석회냄새, 소독수냄새, 곰팡이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선전성에서 내려보낸 갖가지 구호들이 얼룩덜룩 붙어있다. 그중에는 《베를린은 도이췰란드사람들에게!》, 《쉿! 적이 엿듣는다!》, 《도이췰란드무사들은 로씨야야만들을 소멸할것이다!》 이런 구호들도 있었다.

경찰은 슈틀리쯔를 데리고 희미한 불빛이 새여나오는 자그마한 방으로 갔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아빠진 책상이 놓여있었는데 낡은 철테안경을 낀 작달막한 사나이가 책상에 앉아 백지에 뭔가 급히 쓰고있었다. 그는 글을 쓰면서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발바닥으로 쪽무이마루를 빠극빠극 소리나게 문질렀다. 그는 한참만에야 슈틀리쯔에게 눈길을 들어 얄팍한 입술에 가볍게 미소지으며 말을 뗐다.

《볼젠씨, 이거 정말 안됐소.》

《먼저 인사를 해야 할게 아니요. 하일 히틀러! 나는 당신네 사람들에게 내 증명서를 보였소. 물론 성이 맞지 않아 의심을 살수 있다고 보오.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살고있으니까. 공작상 그렇게 하게끔 되였던거요. 알고싶으면 쉘렌베르그소장에게 전화를 걸어보오.》

《볼젠씨, 나도 그런 급의 상급들에게 아직 한번도 전화를 걸어본 일이 없다오. 만일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제국안전총국에 절차를 밟아 문의해보겠소. 당신에게 이걸 약속하는바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하오. 당신네 집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써야겠소.》

《난 묻는 말에 대답할수 없소. 더우기 글로 적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난 오늘저녁 출장을 떠나야 한단말이요. 만일 내 출장이 지체

되면 당신이 책임질줄 알라구.》
《날 감히 위협하는거요?》
작은 사나이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내리쳤다.
《자, 이거나 좀 보란말이요!》
그는 손가락으로 자기앞에 놓여있는 종이장을 가리키며 소리질렀다.
《이 사건은 당신이 집에서 나가기전에 바로 당신네 집에서 발생했소. 다시말하면 당신이 집에 있을 때 총소리가 났다는거요! 당신은 총소리가 난 후에 집에서 나갔소. 그런데도 당신은 내가 당신앞에 차렷자세를 취하라는건가?! 당신이 장령이라도 그렇게는 안되오! 우리는 법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걸 알아야 하오! 모두가 말이요! 당신네 집에서 병사가 희생되였소! 그러니 당신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설명해야 할게 아니요! 싫으면 취조를 받을동안 감방에 들어가있어야겠소! 당신이 정말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당신을 찾는 사람이 나지겠지.》
슈틀리쯔는 하하하 큰소리로 웃었다.
그는 경찰서 상급검열관의 방에 와있었다. 생각하면 이런 처지에 걸려든것이 억이 막힌 노릇이였다.
(아니다. 내가 걸려든것이 아니라 나를 이런 정황에 몰아넣었다. 나는 이러한 정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변시켜야 한다.)
그는 웃음을 거두고 낯빛이 심각해지며 내쏘았다.
《더러운 자식! 너처럼 구린내나 피우는자는 경찰에 있을 자리가 없다. 두엄무지에나 가있으면 어떨는지!》
슈틀리쯔는 상급검열관이 이제 어떻게 나오리라는것을 알면서도 상욕을 퍼부었다. 보건대 이자를 연극에 끌어들인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스는 초기부터 운명이 결정지어진것이 분명했다. 지금 보면 이 키작은 경찰서 검열관은 음모자들이 꾸미고있는 놀음에 멋도 모르고 뛰여든 얼뜨기나 다름없었다. 이제 그는 슈틀리쯔를 공무원모욕죄, 정권과 법앞에서 무례한짓을 했다는 죄를 씌워 기소할것이다. 도이췰란드에서는 일단 기소된 문건은 없어지는 법이 없고 우로 올라가면서 부피가 불어났다. 물러만 여기에 끼여들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그것은 생각도 할수 없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패망을 앞두고 야수와 같이 사나와져서 남을 의심하고 물어먹는것을 예상사로 여기고있다.

키작은 경찰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들문쪽으로 급히 걸어가더니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꽥 소리질렀다.

《그라우스!》

그러자 나이지숙해보이는 경찰과 슈틀리쯔를 련행하러 왔던 경찰 두명이 급히 달려와 상관앞에 꼿꼿하게 멈춰섰다.

《이 악귀같은놈을 감방에 처넣어! 이자는 도이췰란드제국을 함부로 모욕했단말이다!》

경찰들은 슈틀리쯔를 감방으로 끌어갔다.

감방안은 춥고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벽으로는 때국같은 물이 줄줄 흘러내리였다. 슈틀리쯔는 외투도 벗지 않은채 딴딴한 나무침대에 꼬부리고 드러누웠다. 오늘따라 내의도 두툼하게 껴입지 않은것이 후회되였다. 그는 골뱅이처럼 무릎이 턱에 닿도록 몸을 꼬부린채 잠이 들었다.

슈틀리쯔는 비록 불편하기는 하지만 스위스에서 돌아온 후 이처럼 조용히 자보기는 처음이였다.

한편 뮬러는 일이 이렇게 번져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는 슈틀리쯔가 경찰에 잡혀가면 인차 쉘렌베르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할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도 알릴것이라고 믿었다. 쉘렌베르그가 뮬러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을리가 없었던것이다. 뮬러는 일이 일단 이렇게 된 이상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것인가 생각해보았다.

(옳지, 그렇지. 이제 내가 바벨스베르그구역경찰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서 보고를 들어보고 사건현장에 나가보아야겠다. 거기 가면 슈틀리쯔를 경찰서에 끌어온 후 우리 사람들이 꾸며놓은 증거물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나는 슈틀리쯔가 보는데서 땅딸보경찰관을 경찰서에서 내쫓아버리고 슈틀리쯔를 보고 이런 불쾌한 일이 생겨 정말 안됐다고 사과하는척할것이다. 그리고는 우리 사람들에게 집안에서 뭘 중요한것을 발견한것이 없는가고 묻겠다. 그러면 그들은 부엌벽에 묻은 피자욱옆에 이상한 손가락자리가 났다고 하면서 이것이 총소리가 터진 다음에 생긴것인지 감정을 해보아야 할것 같다고 대답할것이다. 나는 우리 사람들이 채취한 지문과 확대경을 책상우에 내놓고 경찰관에게 그자들이 의심하고있는 볼젠의 지문과 우리가 얻은 지문이 같은가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고 들이대겠다. 경찰관은 슈틀

리쯔의 지문을 내가 제공한 지문과 대비하면서 뭐라고 지껄일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의 말을 중단시킨 다음 다짜고짜 슈틀리쯔를 데리고 나올테다. 물론 경찰에서 받은 그의 지문을 잊지 말고 가지고와야지. 그리고 차안에서 슈틀리쯔를 보고 《한스는 왜 죽였는가? 한스가 방해되면 다른데서 죽일것이지 왜 집에서 죽여가지고 말썽인가. 이젠 일이 이렇게 되였으니 국경을 넘기는 틀렸다. 스위스에 가다가는 파멸을 면치 못할수 있다. 경찰들은 모두 격식을 좋아하는 놈들이여서 칼텐브룬너에게 볼젠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뮬러는 그것을 알고도 눈감아준다 하고 보고할것이다. 외국려권은 그 소유자가 취조를 당한 일이 있으면 무효로 되고만다.》 이렇게 말할테다.)

뮬러는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이런 방법으로 결코 슈틀리쯔를 놀래우지 못하리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슈틀리쯔가 베른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가졌던 그와의 담화에서 이런 방법을 써보았고 또 자기 운전사 한스도 붙여보았다. 슈틀리쯔는 한스 몰래 집을 빠져나가서는 프라이따흐에게 파묻혀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다. 뮬러는 이런 일에 대하여서는 별로 탓하지도 않았다.

슈틀리쯔가 경찰에 끌려간지 세시간이 넘도록 어디서도 찾는데가 없었다. 지금 쉘렌베르그의 서기부에는 게스타포에서 박아넣은 녀자밀정이 앉아있어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인차 게스타포에 보고할수 있었으나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네시간가량 지나서 뮬러는 자기가 직접 조직한 감시소조에 슈틀리쯔를 실어간 자동차번호와 거기에 타고있던 경찰들의 외모, 집에서 지체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자세히 보고할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는 아무런 련락도 없이 바벨스베르그구역경찰서에 불쑥 나타났다.

웨르너 슈리프스는 전혀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뮬러를 보자 벌떡 자리를 차고일어나며 《하일 히틀러!》하고 새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뮬러에게 내주고 옆으로 몇걸음 물러나 박힌듯이 서있었다.

《우리 사람이 어디 있는가?》

뮬러는 차겁게 물었다.

《각하, 방금 알렉싼데르플라쯔로 떠나보냈습니다.》

《감옥으로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의 죄가 뭐길래 가두었는가?》
《각하, 그는 정권대표를 모독했습니다! 그는 도이칠란드제국이 준 임무를 수행하고있던 공무원을 모독했습니다!》
《도이칠란드제국의 임무는 당신이 수행하는것이 아니라 총통이 수행하고있단말이요.》
《각하, 미안하지만…》
《당신은 근무중에 있는 사람을 잡아들였다는것을 알고나 있는가?》
《나는 다만 사람을 죽인것으로 의심되고 게다가 공무원을 모독한 자를 억류했을뿐입니다.》
《그가 당신을 보고 제국안전총국에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던가?》
《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의 부탁을 거절했는가?》
《그는 나를 보고 쉘렌베르그소장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근무상 상급을 뛰여넘어 그렇게 전화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거절한 리유는 그가 당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했기때문이겠구만?》
《아닙니다. 이밖에도 나는 볼젠박사에게 그의 집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글로 적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글은 전혀 쓸수 없다고 딱 잡아떼기에…》
경찰서상급검열관은 큰 눈을 데룩거리며 신명이 나서 지껄여댔다.
《그래 그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각하!》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예,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나한테 기소장을 좀 보여주오. 이에 대하여 누구한테도 말해선 안돼, 알겠는가? 볼젠의 집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부책은 내가 가지고가겠소.》
뮬러는 일이 뜻대로 되여간다고 속으로 좋아하였다.
(슈틀리쯔는 자기 행동으로 나를 도와주었다. 그는 내 일을 덜어준

셈이다. 나는 군사재판에 넘어가게 된 슈틀리쯔를 구원해준 은인으로 될것이다. 이제는 스위스에 대한 문제도 스스로 사라지고말것이다. 슈틀리쯔는 미친듯이 갈팡질팡하다가 맥이 빠지면 결국 내가 주는 과업을 고분고분 수행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것이다.)
뮬러는 경찰서상급검열관이 수표한 기소장과 두 경찰이 작성한 증인조서를 눈으로 훑어보고나서 경찰들을 자기한데 오라고 불렀다.
《당신들은 이 종이장에 쓴 글이 애당초 없었던것으로 알고있어야 해.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슈틀리쯔를 데리러갔던 두 경찰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했다.
뮬러는 경찰서상급검열관에게로 몸을 돌리며 쏘아보았다.
《각하, 이건 죄다 사실입니다. 나는 자기가 말한것을 그 어떤 경우에도 취소하는 법을 모릅니다.》
검열관은 자못 만만치 않는투로 대답했다.
뮬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밖으로 나오다가 한마디 던졌다.
《상급검열관은 래일아침 일곱시까지 제국안전총국접수실에 오라.》
그로부터 두시간 지난 후 슈틀리쯔는 뮬러의 방에 와있었다.
《슈틀리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한번 설명을 해보게나.》
《각하, 저는 자고싶은 생각뿐입니다.》
뮬러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쓱 문지르고나서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그것도 설명하는건가?》
《각하,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할 연극에 끌려들어 시달리다보니 이젠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알려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무슨 놀음인지 알것 같지 못합니다.》
《자네가 경찰에 끌려가 거기에 지문을 남기지 않길 잘했네. 불행한 한스의 시체가 있는 부엌에 지문이 하나 나졌더군. 자네가 이번 사건에 관계는 없다하지만 어쨌든 재미야 적지.… 그런데 쉘렌베르그가 왜 공작조건을 위반한것 같은가? 그가 무엇때문에 내 운전사를 죽였는가말이야?》
《쉘렌베르그는 공작조건을 위반한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에게 리익이 될게 없지요.》

《그럼 누구에게 리익이 되는가?》

《그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나를 스위스로 보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리득이 되겠지요.》

뮬러는 이번에도 슈틀리쯔가 자기 속내를 꿰뚫어보았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부러 위엄있게 대답했다.

《그런데 자넨 왜 그 땅딸보를 그렇게 모욕했나? 왜 그렇게 했나말이야? 내가 아침 일곱시에 그를 여기에 오라고 불렀네. 자, 그가 쓴 기소장인데 이거나 한번 읽어보라구. 자넨 전시법이 어떻다는걸 생각해봐야겠네. 어서 읽어보게. 거기에 지문에 대해서도 씌여있네. 내가 힘써 될만한 일같으면 자네를 군법에 넘기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시정시켜주겠다고 법앞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내 힘으로 할수 없다해도 누굴 탓할거야 못되지. 그렇지 않나?》

뮬러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줄곧 자기 생각을 굴리고있었다.

(중요한것은 슈틀리쯔를 내옆에 불잡아두는것이다. 네가 아무리 총명하다고 한들 그처럼 감시를 붙여놓았는데 어디로 갈텐가. 슈틀리쯔는 내 주패장이나 다름없다. 이 주패장은 오직 나만이 리용할수 있을것이다.)

이때 전화종이 요란하게 울리였다. 지금 뮬러는 히틀러의 지하대본영과도 직통전화를 가지고있었다.

《뮬러가 전화받습니다.》

《나 보르만이요. 나는 지금 당장 그 장교를 만나보고싶소. 이름이 뭐든지 생각나지 않는구만, 나한테 데리고오도록 하오.》

《누구말입니까?》

뮬러는 까닭모르게 공포심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그 스위스에 갔다온 장교말이요.》

《슈틀…》

《그렇소. 그렇소. 기다리겠소.》

보르만은 뮬러의 말을 채 들어도 안보고 송수화기를 놓아버렸다.

미련방수사국장 죤 후버(2)

1920년 후버가 좌익세력들에 대한 음모공작을 성과적으로 진행한지 얼마 안있어 숨막힐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시카고에서 대통령후보자선출을 위한 공화당대회가 준비되고있었다.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억만장자인 윌리암 톰프손을 대통령후보로 지목할 의견을 모았다. 윌리암 톰프손은 군대와도 련계가 있었고 모르간의 강철산업이나 은행들과도 깊은 련계를 가지고있었다. 헌데 공화당은 톰프손이 《적십자》사절단을 인솔하고 로씨야에 가서 백파들에게 자기 구좌의 돈 백만딸라를 갈라내여 원조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것도 약품이나 식량으로가 아니라 무기를 주겠다고 하였으니 민주당에서 항의깜빠니야를 벌리지 않겠는가 은근히 걱정하고있었다.

공화당본부에서는 열렬한 토론이 진행되였으나 시간만 가고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 공화당 의장 헤이스는 여러가지 의견들을 조종하느라고 땀을 뺐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톰프손을 후보자명단에서 제명하고말았다.

대회의 결속을 앞둔 전날밤 공화당본부에서는 고위급정치협상회의가 열리였다. 상원의원 헨리 케보트, 제임스 워드수보트는 모르간의 련합기업체를 대표하였고 신문 《시카고 트리분》사장 맥코믹크는 《인터네슌 하베스트》회사의 리익을 대변하였다. 그리고 쿠－ 쿨룩스－클란(미국의 인종테로단체)은 상원의원 워트손을 통하여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바로 이날밤 고위급정치협상회의에 《헤비스비클린》잡지사 사장인 죠지 하비가 초대되여왔다. 그는 날고뛰는 천재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고 멍텅구리를 저명한 사상가로 만들줄 아는 재간있는 사람으로 평판이 높았다.

그는 자기 잡지사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창조도 결국 공상으로부터 시작되는거요. 당신들은 론설을 하나씩 구상해보고 거기에 사람, 나라, 력사, 실제한 사실 등 필요한 것들을 맞추어넣어보시오. 그건 자유요. 다만 잊지 말것은 그러한 구상이 내가 하는 일에 복종되도록 하는거요. 한때 나는 윌슨을 대

상으로 잡고 구상해보았는데 그는 대통령이 되였소. 또 나는 브라질에서 정변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끝내 내 예측대로 정변이 일어났단말이요. 당신들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대담하게 내밀면 그만한 보상을 다해주겠소. 중요한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거요.》

죠지 하비는 시카고에서 워싱톤으로 와서 죤 후버와 함께 점심식사를 나누며 두시간동안이나 대통령후보문제를 놓고 론의를 거듭하였다. 하비가 할소리 안할소리를 탕탕 해가며 묻는데 비하면 후버는 매우 조심스러워보였다. 그는 자기 주패장을 전부 펼쳐보일 생각은 없었다. 그가 지금 좌익계인물들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뒤까지 파고들며 하고있는 카드놀음은 그의 개인적인 비밀이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장관도 모르고있었다.

마침내 하비는 참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말하였다.

《죤, 나와 정 그렇게 숨박곡질을 하겠소? 나는 당신이 많은것을 알고있다고 추측하고있소. 만일 당신이 나에게 대통령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중에서 누가 더러운 속심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귀띔해주지 않으면 당신에 대하여 노엽게 생각할테요. 그리고 공화당이 대통령후보에 대하여 찬성투표한 후에 그의 신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당신도 무사치 못하리라는것을 알아두오. 나는 이에 대하여 당신에게 책임적으로 말하는바요.》

《죠지, 나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는걸 알아두시오. 나는 친절성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만 거칠게 대하면 듣지 않소.》

《만일 우리가 백악관에 들어가면 새 대통령을 지지할것과 미국의 복리를 위한 완전한 행동의 자유가 있게 되리라는것을 당신에게 약속하오.》

《그 말에는 좀 친절성이 있어보이는구만.》

후버는 벌쭉 웃었다.

《나는 당신이 앨버트 헤리를 대통령후보로 내세우지 말것을 권고하고싶소. 그는 〈유스 스틸 코르포레이숀〉련합기업체에서 감독회장이나 하라지.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소. 젊은 시절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는 어느 녀학생에게 모욕을 주었다가 그만 동무들로부터 뭇매를 맞은적이 있소. 그리고 로우덴주지사 역시 대통령후보로

내세우지 말았으면 하오. 그의 아래사람들이 알콜밀매를 하고있는 자들과 사업을 서툴게 하다보니 그가 대통령후보로 출마하면 아마 그에게 깡통벼락이 들씌워질거요. 지금 보도부문에서 그에게 잔뜩 눈초리를 돌리고있소. 좀 더 색갈이 검은 말을 골라보오. 그러지 않다가는 민주주의자들의 몽둥이에 얻어맞을수 있단말이요.》

《직접적으로 당신은 회색이 승리했으면 좋겠소?》

하비가 묻는 말이였다.

《그렇소. 당신은 정말 령리한 사람이요. 당신과는 연극을 놀 필요가 있을것 같지 않구만. 나에게는 회색이 유익하오. 내 나이가 겨우 스물여섯살이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이것은 내 우에 매력없는 인간들이 올라앉아있을 때에만 가능할것이요. 뛰여난 대통령은 내가 제 몸값을 알고있기때문에 나를 용서치 않을거란말이요.》

공화당의장 헤이스가 들어있는 《블렉스톤》호텔의 넓다란 방안에서 벌어졌던 열렬한 론쟁이 가라앉은지도 퍼그나 시간이 흘러 밤 한시경 서기들은 《지금 미국에 영웅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그 상원의원을 급히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바로 가딘그였다. 구척같은 키, 우람찬 체구, 잘 생긴 얼굴, 누구에게나 마음드는 옷차림, 순박하고도 솔직한 성격, 이보다 또 무엇이 미국에 필요하단말인가!

가딘그를 데려왔을 때 하비는 안락의자에서 몸도 일으키지 않고 한모양으로 앉아있었다. 그는 피끗 상대를 쳐다보고나서 담배불을 붙여문 다음 천천히 말을 뗐다.

《가딘그씨, 보매 당신은 취한것 같구려.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우리가 묻는 말에 사려깊게 대답해줄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쉬여야겠습니까?》

《하비씨, 나는 남쪽태생이다보니 술을 꽤 즐기지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대답하기가 더 쉽답니다. 지금은 한잔 하고난 뒤라 말도 퍽 대담하게 하고 쏘는듯한 당신의 독사의 눈초리도 두려울것 같지 않구려. 나는 당신이 자기 일에서 어떤 능수라는것을 알고있지요.》

《독사는 쏘는것이 아니라 문답니다. 당신이 한잔 하고나면 더 대담해진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 말씀해보시지요.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우면 우리 당을 선거전에서 패배시키기 위해 누가 당

신에게 타격을 가하고 당신에게 무슨 트집을 걸어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을것 같습니까?》
《나는 결백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 누구도 나에게 타격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킬수 없지요.》
가딘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하였다. 이 모든것은 뜻밖에 벌어진 일이였다.
1921년 3월 가딘그는 미국대통령으로 되였다.
민주당이 부대통령후보로 내세운 전 해군성 차관이였던 루즈벨트는 선참으로 자기 경쟁자를 축하해주었다.
공화당 의장 헤이스는 체신장관으로 임명되고 강철, 알루미늄, 석탄, 석유기업체의 리익을 대변하고있던 백만장자 멜론은 재정장관이 되였다. 그리고 전 《아라》회사 사장 헤버트는 무역장관으로,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 도헤티가 법무장관으로 되였다.
가딘그는 백악관에 들어앉자바람으로 《미국제일주의》라는 대외정책원칙을 발표하였다. 대내정책전략과 관련하여 새 대통령은 《우리는 종교를 본격적으로 부흥시켜야 한다. 성서는 나의 상용도서이다.》라는 립장을 표명하고 내처 침묵을 지켰다.
재정장관 멜론은 초과리득세를 철폐할데 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창발적인 인간은 법과 세금이 자기를 불구자로 만들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달성할수 있다.》
금융업자들은 납세자들로부터 급기야 돈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대통령은 유쾌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백악관 2층에 있는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매일밤 신임법무장관 도헤티를 비롯한 대통령의 친구들이 모여들어 흥성거리였다.
이른 새벽 대통령은 시원한 공기를 마시려고 자기 저택을 나섰다. 그의 측근자는 대통령을 위해 호텔에 방 하나를 항시적으로 준비해두고있었다. 거기에서는 대통령에게 딸을 낳아준 미모의 녀성이 기다리고있었다.
죤 후버는 자기 망을 통하여 대통령의 밤생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이 자료를 자기 집에 보관하고있는 철궤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법무장관 도헤티는 자기 수하의 정보국장이 하는 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다. 새 법무장관이 스미트를 자기 《특별보

좌관》으로 임명한 때로부터 법무성의 모든 《정책문제》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전에 하비가 약속해준것처럼 독판들이로 후버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든지 정치는 경제와 동떨어질수 없는것이다.

후버는 새 대통령이 《로병지원국장》자리에 올려놓은 찰스 포브스에 대한 자료를 쥐게 되였다. 그는 기업가들에게 국가돈으로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고 병원용유리와 부재를 사들여 적자나는 이 상품을 건설자들에게 눅거리로 팔았다. 그리고는 그 차액을 구매자와 같이 메우느라고 야단이였다. 어느 한 건설회사 사장 제임스 베비크는 포브스에게 바닥도장재를 팔았는데 국가는 이에 대하여 7만딸라의 돈을 지불하였다. 이만한 량의 도장재면 《로병지원국》에서 백년도 쓰고남을 건설용재였다. 《톰프손 엔드켈론》회사는 포브스에게서 백만딸라에 해당한 약품과 붕대를 구입하였는데 후버의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이 상품의 본래값은 6백만딸라라고 한다. 포브스는 이번에도 차액을 메웠다.

내무장관 폴은 대연료자본가 도헨에게 미해군의 원유예비를 팔아먹었다. 내무장관은 여기에서만 40만딸라의 뢰물을 얻어먹었다.

법무장관 도헤티의 솜씨도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그는 《특별보좌관》스미트를 시켜 마약, 알콜밀매업자들과 련계를 맺게 하였다. 법무성 밀정이며 스미트의 부관인 헤스톤 밀스는 충격적인 형사사건들을 무마시키고 범죄를 용서해주는 장사를 전문으로 하고있었다. 그는 여기에서 얻은 돈 7백만딸라를 우에 섬겨 바쳤다. 그는 5만딸라보다 적은 돈은 뢰물로 받지도 않았다.

단 석달동안에 스미트의 손을 거쳐 법무장관의 손에 들어간 돈이 3천만딸라에 달했다.

끝내 뢰성은 울리고야말았다. 내무장관 폴은 자기 죄과가 드러날것이 두려워 사표를 제출했고 《로병지원국장》 포브스는 재판에 회부되였다. 그러자 루즈벨트뿐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련관되여있던 보도분야에서 일시에 소동을 일으켰다.

스미트는 질겁하여 법무장관에게 달려갔다.

《각하, 지금 당장 마약, 알콜밀매업자들과 련계를 끊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누가 감시한다는건가? 누가 이 나라에서 감히 법무장관을 감시

해? 누가 감시의뢰서에 수표를 하는지 알기나 하오? 또 증인심문을 허락하는것은 누구이고? 누가 감시를 시작하라는 비준을 하는가?》
도헤티는 껄껄 웃었다.
《그럴수 없소. 내가 비록 아침마다 〈블라디 메리〉(술의 일종)를 마시기는 하지만 아직 흥분하려면 멀었소.》
《각하, 나는 어쩐지 겁이 납니다.》
《스미트, 오늘 웬일이요?》
도헤티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각하, 저는 사임하는 편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손자까지 손가락하나 까딱하지 않고 흥청거리며 살 돈을 충분히 마련해놓았습니다. 더는 일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리해하여주십시오.》
《스미트, 우리는 여기에 함께 왔으니 가도 함께 가야 할게 아니요. 당신에게 다른 출로는 없소. 이걸 똑똑히 기억해두오. 나는 친구들에게 할수 있는 한 모든것을 용서해주었소. 지어 나의 애첩과 한이불밑에 기여든다고 해도 용서할테요. 그러나 도주자는 용서없소. 당장 총살해치우고말겠소. 알겠소?》
《각하, 충분히 리해합니다. 하지만 각하, 역시 저를 리해해주기 바랍니다. 밀정들의 감시속에 들어있는자들한테서 돈을 받은것은 각하가 아니라 제가 아닙니까. 이 돈을 은행에 넣기전에 시내로 뛰여 다닌것도 각하가 아니라 저였지요. 은행직원이 그 많은 돈을 세고있을 때 혹시 그속에 가짜돈이나 있지 않을가 가슴을 조였고 예리한 초인종소리와 함께 경찰이 달려들어 덮치지나 않을가 땀을 뺀것도 각하가 아니라 저였단말입니다. 각하, 제가 상점을 운영하고있을 때는 정말 좋았지요.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스미트, 가서 잠이나 푹 자게. 안색이 좋지 않아보이는구만.》
도헤티는 자기 보좌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그때로부터 얼마 안있어 스미트는 호텔 어느 방에서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시체로 변해버렸다. 방열기옆에 골트권총이 딩굴고있었다.
스미트가 죽은 그날 저녁 도헤티는 백악관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있었다. 이것은 그가 사건현장에 없었다는것을 전적으로 믿게 하려는것이였다.
다음날 아침 법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스미트는 당뇨병을 앓고있었다. 이것은 무서운 병이였다. 이 병은

수많은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자살케 하였다. 나는 순박하고 인정있고 훌륭한 나의 친구 스미트를 영원히 기억할것이다.
스미트는 내가 사귄 모든 사람들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였다.…》
도헤티의 연기는 참으로 나무랄데가 없었다. 그는 컴컴한 표정으로 오열을 씹으며 한마디한마디 말했다.
온 나라는 달아오른 곤로우에 남비끓듯했다.
연극은 무서운 흑사병이 돌던 시기에 세계를 휩쓴 대소동을 묘사한 그림보다 더 무시무시했다.
법무성 특수정보국장 후버가 백악관에서 있은 어느 한 연회에 초대되였을 때 부대통령 켈비 쿨리즈는 그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어느 강력한 법률가가 지금 일부 신문들이 행정부에 대하여 퍼뜨리고있는 더러운 소동을 공개적으로 취소시킬수 있을것 같소?》
후버는 부대통령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눈도 깜빡않고 이렇게 되물었다.
《각하는 정말 이 소동이 공개적인 조사가 없이 가라앉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때로부터 몇주일이 지난 뒤 대통령은 서부해안지대를 순방하고 돌아오던중 쌘프랜씨스코의 《펠레스》호텔의 어느 한 방에서 불시에 숨져버렸다.
처음에 의학적감정은 대통령이 죽은 원인이 뇌출혈이였다고 하였다. 그후에는 대통령이 배에서 즐겨먹은 게에 의한 중독이라는 설이 돌았다. 그러나 배에는 게라고는 전혀 없었을뿐더러 대통령을 수행한 사람들중에서 누구도 중독이라고 볼만한 근거를 느끼지 못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첫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뜻하지 않게 숨지던 그 순간에 옆에는 부인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대통령의 옆에 그의 주치의사인 장령 찰스가 있었다는것이 밝혀졌다.
똑똑한 원인을 알려면 대통령의 시체를 부검해야만했다. 그러나 부검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죽은 진짜원인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 대통령의 주치의사가 별장안의 자기 집무실에서 숨져버리고 이미 저세상에 가버린 스미트를 대신하여 법무장관의 《특별보좌관》이 된 변호사 토마스 펠더가 재판에 회부당

한 후 귀신몰래 죽어버렸다. 《로병지원국장》 포브스와 법무장관의 사업대상이였던 기업가 톰프손과 공화당지도부성원 죤 킹이 수수께끼같은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내무상 폴에게 뢰물을 먹이던 연료회사 사장 에드와르드 도히는 자기 서기의 골트권총에 맞아 죽었다. 그의 서기도 역시 옆방에서 시체로 발견되였다. 시체는 전형적인 자살처럼 되여보였다.

가딘그대통령이 죽은지 얼마 안있어 부대통령 쿨리즈는 파리하고 창백한 얼굴로 선서를 다지고 미국의 삼십대 대통령으로 되였다.

그는 법무장관 도헤티를 내놓고는 정부의 각료들을 그대로 고착시켰다. 그리고 죤 후버외에 누구도 직무를 바꾸어놓거나 승급시키지 않았다. 후버는 스물일곱살나이에 련방수사국장으로 임명되였다.

쿨리즈는 후버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일장 훈시를 늘어놓았다.

《죤, 당신은 앞으로 있게 될 선거에서 미국을 안정되지 못한 나라로 보려고 하는자들이 우리 당을 비난하리라는것을 알고있을테지. 나라의 안정을 보장하는 문제는 당신에게 많이 달려있소.

가딘그, 도헤티, 폴과 련관된 모든 사건들은 국제공산당의 음모의 결과요. 그렇지 않소? 발생된 비극을 따져놓고보면 동유럽의 적들의 손이 뻗쳐있다는것이 력력히 알린단말이요. 그래 당신은 우리 미국사람들에게 비극의 진짜원인을 밝히기가 그렇게도 힘이 드오?》

쿨리즈는 한해가 지나서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되였다.

미국은 거대한 렬차마냥 낭떠러지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고있었다.

력사에 《검은 일요일》로 기록된 그날까지는 아직도 다섯해가 남아있었지만 사물을 볼줄 알고 느낄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붕괴의 시각이 각일각 다가오고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당국자들은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을뿐만아니라 언제나 그러했듯이 모든 죄가 빨갱이들과 흑인들, 국제공산당과 로씨야국가안전국에 있다고 력설하였다.

인민들의 분노가 누를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백악관이 마비상태에 빠져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못하게 되자 후버는 쿨리즈의 측근자들에 대한 자료를 묶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세를 타개하고 나라에 질서를 세울 위인이 곧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후버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위병대》교대준비를 서둘러

진행하였다.
존 후버는 월가에서 지목하고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꼽아보았다. 그러나 아직 그중에는 루즈벨트의 이름이 없었다.
그러나 후날 루즈벨트가 대통령임기를 한기 지낸 허먹트 후버를 교대하여 대통령이 된 다음 련방수사국에 그 어떤 환상적인 빨갱이 위협에 대하여 떠들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와의 투쟁을 진행할데 대하여 요구하였을 때 후버는 지금은 인내성이 더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때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했다. 루즈벨트와는 공개적으로 싸울 생각도 할수 없다는것을 알았다. 그만큼 그는 미국에서 권위가 높은 사람이였다.
1945년 봄 지금 이 시각에 이르러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만일 루즈벨트가 앞으로도 계속 백악관에 앉아있으면 후버와 그의 사람들이 지켜온 규범과 도덕은 달라지고말것이다.
더는 우유부단하지 말고 결심을 내릴 시각이 되였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있는 사람은 훨씬 과오를 적게 범한다

보르만이 뮬러에게 속히 슈틀리쯔를 데리고오라고 요구하게 된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나치스당 기요부서에서 상부오스트리아에 보내기 위해 작성한 특별암호전문은 보르만의 보좌관외에 누구도 읽지 못하였다. 돈으로 환산하면 십억딸라에 달하는 《총통박물관》이 린쩨에 생겨난 때로부터 이와 관련한 모든 통보는 잘쯔부르그주당책임자 아이그루버가 작성하였으며 베를린에서는 보르만이 제일 신임하는 그의 보좌관 짠더가 그것을 받아서 해득하였다.
한시간전에 아이그루버는 다음과 같은 통보를 보내왔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하면 칼텐브룬너의 측근자들이 많은 량의 금덩이를 비밀리에 운반하여 칼텐브룬너의 저택에 감추고있

다고 한다. 한편 믿을만한 민족사회당 당원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에서 적의 무전전파가 서방으로 날아가고있다고 한다. 제국안전총국지방조직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칼텐브룬너의 특별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수사를 질질 끌고있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총통박물관〉이 숨겨져있는 그 갱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가고있는것이다.》

이 통보는 까나리스가 갇혀있는 수용소 부소장이 민족사회당 지방선을 통하여 방금 보르만에게 정보를 보내온 후에 온것이였다.

수용소 부소장은 칼텐브룬너가 세번씩이나 수용소에 와서 변절자 까나리스를 데리고 으슥한 수림속에 들어갔다온거며 그에게 커피도 끓여먹이고 류별나게 친절하게 대하였다는것을 통보하였다.

수용소 부소장은 어쩐지 의심스러운데가 있어 모험을 해서라도 그 내막을 까밝힐 결심으로 그들이 커피를 마시던 방에 감쪽같이 도청장치를 해놓았던것이다. 그는 무슨 큰 보물이라도 얻은듯이 입이 헤벌쭉해가지고 도청자료를 싸고 또 싸서 극비문건이라는 표식을 붙여 보르만에게 올려보냈다.

보르만은 칼텐브룬너와 까나리스의 담화내용을 들어보니 흥미가 없지 않았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늙은 여우 까나리스와 대학교육까지 받았고 겉으로는 소박한척하면서도 남을 잡아먹는데 이골이 난 칼텐브룬너의 밀담내용은 얼핏 보면 대수롭지 않아보였으나 실은 그런것도 아니였다.

까나리스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것 같은가고 묻자 칼텐브룬너는 껄껄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앞으로 우리 일이 성사되리라고 믿소? 나는 오직 한가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겠는가 하는 한가지 생각뿐이요.》

물론 이 대답은 본심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위장물에 불과한것이라고 볼수 있었다. 까나리스는 전혀 믿을수 없는 교활한자였다. 그에게 전세계적범위에서 민족사회주의사상을 복구개건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해준다는것은 이 《휘황한》 앞날을 망쳐먹는것이나 다름없을것이였다. 등치고 간빼먹기 명수인 늙은 여우가 구좌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무슨 수를 꾸밀지 알수 없는 일이였다.

칼텐브룬너가 까나리스에게 전번에 제공한 자료는 별로 쓸모가 없

는것이라고 슬쩍 건드려보자 까나리스는 단번에 열이 올라 대들었다.
《당신은 전번에 합의한것을 벌써 잊었구려. 내가 뭐라고 말했소. 우리가 여기서 사라진 후에 내가 직접 당신이 있는데서 라틴아메리카의 억만장자들과 담화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들도 내 덕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니까 내 말을 고분고분 듣게 되여있단말이요. 당신들도 그렇지 내가 없이 일이 될것 같소? 당신은 정탐일군이니까 알지 않소.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사람들을 꾸리고 그들이 제 발로 걸어나가게 한다는게 어디 간단한 일이요? 이제부터는 그 억만장자들이 주인이 되고 당신들은 그들에게 매여살게 됐다는것만은 알아야 하오. 당신들이 돈을 좀 달라고 간청하면 그들이 자기 은행구좌에서 돈을 내주겠는데 그럴수밖에 없지.》

까나리스의 말은 옳았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칼텐브룬너는 그와 세번이나 만나면서도 보르만에게 이런 내용을 단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다. 뮬러는 차안에서 느닷없이 슈틀리쯔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자넨 보르만에게 전화를 걸었는가?》

《걸지 않았습니다.》

슈틀리쯔는 이렇게 대답하느라니 전번에 만났을 때 보르만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보르만은 이제부터 자기와의 모든 련계는 뮬러를 통하여 가져야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슈틀리쯔는 이런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았다.

《자네 생각엔 보르만이 왜 부른것 같은가?》

뮬러는 홍미가 동하여 물었다.

《모르지요. 나는 어느때나 그와의 사업에서 당신과 한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슈틀리쯔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모스크바에서 보낸 암호전문을 해득하고있은것은 뮬러 한사람뿐이였다. 뮬러는 자기 사람들을 풀어 직접 슈틀리쯔에 대한 감시를 조직했다. 베를린에서의 성과적인 작전이후 슈틀리쯔에게는 적수들이 너무도 많이 생겨났다. 뮬러는 보르만과 만났을 때 이렇게 된 리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여주었다. 프라이따흐에 대한 살해도 뮬러의 개인친위대놈들이 한 소행이였다. 제국안전총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뮬러가 슈틀리쯔를 리용하여

모스크바와 연극을 놀고있다는것도 몰랐다.

그러나 세상에는 언제 나타날지 모를 우연의 힘이라는것이 있는것이고 쉘렌베르그며 칼텐브룬너가 뮬러와 같은 건물안에서 일하고있다는것을 고려할 때 언제 어디서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예측할수 없는 일이였다.

《보르만이 자네가 체포되였던 일을 알수 있었을것 같은가?》

뮬러는 슈틀리쯔의 대답이 꼭 필요하여 이렇게 묻는것은 아니였다. 시간도 없는 때 이렇게 생각을 굴려보는것이 더 좋을것 같아서 묻는 말이였다. 있을수 있는 일들을 예견해보아야 했다.

만일 보르만이 그 미물같은 루베나우를 즉시 스위스로 떠나보내라고 명령하면 도중에서 슈틀리쯔를 빼내여 어느 아지트에 밀어넣은 다음 그를 굴복시켜 모스크바와 공개적인 연극에 응해나서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보르만은 내가 붙잡혀간줄을 모르고있을겁니다.》

슈틀리쯔의 대답이였다.

《경찰에서 제국안전총국을 통해 보르만에게 보고할수도 있지 않을가?》

뮬러는 이렇게 묻고나서 자기의 말이 스스로도 수가 낮아보였던지 피씩 웃었다. 경찰에서 어느 놈이 감히 직급을 뛰여넘어 보르만에게 전화질을 한단말인가? 그럴수 없다. 이런 일은 도이췰란드가 아닌 다른 곳에서나 있을수 있다.

《슈틀리쯔, 자넨 나와 이야기하면서 내가 뭘 생각하고있는가 알아맞혀보라구. 이건 자네한테 흥미가 없지 않을걸세.》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이 알고있는걸 알게 된다면 아마 나를 보르만한테 데리고갈것이 아니라 다른데로 데리고갈겁니다. 무엇인가 알고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범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슈틀리쯔, 그 말은 참 옳은 말인것 같네. 나는 배신이라는걸 모르는 사람이야. 선량하고 남을 믿기 잘하는 이 뮬러의 게스타포는 언제나 그 선량한 마음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니까. 난 자네한테 조그마한 의견도 없어. 설사 의심하는것이 있다고 해도 그건 내 배속에 간직되여있다가 내가 죽으면 저절로 없어져버릴걸세.》

보르만은 정부청사의 바로 맞은켠에 있는 웅장한 민족사회당청사

2층사무실에서 뮬러와 슈틀리쯔를 맞이했다. 그는 말없이 엄숙한 표정으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손으로 반대쪽 쏘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하였다.
《뮬러, 내가 오늘 당신을 부른것은 슈틀리쯔에게 믿음직한 사람을 몇명 주어 급히 린쩨에 떠나보내려고 그랬소.》
보르만은 인사말도 없이 대뜸 사업에 대한 말부터 꺼냈다.
《알았습니다. 각하.》
뮬러는 저으기 안심이 되여 거침없이 대답했다.
《지금 린쩨에서 적들이 준동하고있소.》
보르만은 슈틀리쯔쪽으로 눈길을 돌려 말마디에 무게를 실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곳 소금갱도에는 우리 당과 민족의 귀중한 재부가 보관되여있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위험에 처해있소. 우리는 여기에 손을 뻗치고있는 자들의 손목을 잘라버려야 하오. 당신은 과업이 무엇인지 알겠소?》
《각하, 이건 우리가 할 일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뮬러가 급히 앞질러 대답했다.
《우리 비밀경찰은 행동이 험악하여 이런 일에 합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적의 마수를 끊어버리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할수 있지 않습니까. 슈틀리쯔는 여기서 나에게 필요합니다.…
만일 그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슈틀리쯔가 그걸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주는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울겁니다.》
《뮬러, 나는 이번 공작의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말하는거요. 오스트리아주당책임자 아이그루버가 슈틀리쯔에게 필요한 방조를 줄거요.》
보르만의 목소리는 그 표정처럼 엄숙하고 차겁게 울리였다.
그러나 뮬러도 이번만은 쉽게 지려고 하지 않았다.
《안됩니다. 아이그루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물인지불인지 모르고 덤비는 미치광이같은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줄 모르고 들을줄도 모릅니다. 그가 하는 일이란 고작 겝벨쓰가 내려보내는 구호를 앵무새처럼 되받아넘기는것뿐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일할수 없습니다. 표현이 지나쳤다면 용서해주십시오.》
슈틀리쯔는 자기가 좋은 방도를 내놓을수 있다고 말하고싶었다.

그는 어차피 여기 베를린에서 빠져나가야만했던것이다. 뮬러가 지금 슈틀리쯔를 상부오스트리아로 보내는것을 그처럼 완강히 반대하는것을 보면 한스를 죽인것도 바로 그를 움직일수 없게 만들려는데 목적이 있은것 같았다. 결국 뮬러의 행동은 그 밑창까지 속심이 빤드름하게 들여다보였다.

뮬러가 저렇게 반대하는것을 보면서도 부득부득 떠나가겠다고 엇서나가면 일을 망칠수 있었다. 만일 보르만이 명령하면 뮬러는 여기 사무실에서는 마지못해 굴복하는척할수 있으나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그는 여전히 슈틀리쯔를 휘여잡게 될것이였다. 아니다. 입을 다물고 듣기만해야 한다. 그리고 운명이 어디로 끌고가겠는지 기다려보자.

한편 보르만은 자기대로 이 어려운 처지에서 출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뮬러는 지려고 하지 않고있다. 뮬러나 보르만이나 할것없이 둘중에서 누구의 처지가 좀 낫다고 말할 형편이 못되였다. 보르만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전에는 행동규범이라고 하던것이 지금은 아이들의 놀음으로 되여버렸다. 하지만 보르만은 자기의 위신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형편을 헤쳐나가는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것을 능히 할수 있었다.

《뮬러, 당신은 여기 꼭대기에 앉아서 잔뜩 위세만 부리고 주일군들, 더우기는 주당책임자까지 믿지 못하면 나는 당신의 그 의심병을 고쳐주는외에 다른 도리가 없소. 모든것을 미루어보아 지금 적이 칼텐브룬너의 저택에 기지를 두고 움직이고있는것이 분명하오. 그렇소. 바로 그렇소. 적은 6국특수공작조가 들어있는 칼텐브룬너의 저택안에 있단말이요. 당신은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칼텐브룬너가 직접 동서방의 모든 전파를 잡고있는 무전탐지수들의 작업을 검토하고있소. 뮬러, 누가 당신을 보고 적이 당신네 사람과 련계를 가지고있다고 알려주면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대하겠소? 당신은 물론 정직한 사람으로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그 사람이 두번다시 그런 말을 옮기지 않도록 혼찌검을 내주었을거요. 나도 당신이 자기옆에 우정 적을 붙들어둘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소.》

슈틀리쯔는 싱긋 웃으며 한마디 던졌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직업을 놓고보면 이것이 때로는 유익할수도 있지요. 멋진 연극을 놀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르만은 의자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방안을 거닐었다.

《당신은 바로 나에게 칼텐브룬너가 교활하게 자기 집에 적을 숨기고있는것이 아니라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 연극을 놀고있다는것을 증명해야겠소. 그리고 당신은 자기 상급이 전적으로 믿을수 있다는 증거를 내 책상우에 가져다놓아야겠소. 그러나 그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데가 있다고 생각되면 나한테 즉시 통보해야겠소. 여기로 해도 좋고 지하대본영으로 해도 좋소.》

슈틀리쯔는 드디여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들이대야 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뮬러를 노엽히지 않으면서 그에게서 벗어날수 있는 방도를 제기해야 했다.

슈틀리쯔는 머리를 쳐들고 침착한 어조로 물었다.

《아이그루버는 특별임무를 받고온 사람을 어떻게 대할것 같습니까? 그가 나를 시기하고 감독하고 지시를 주려고 할텐데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을것 같습니까?》

《내가 그에게 전보를 보내여 당신이 내 지시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할수 있도록 하겠소. 나도 아이그루버가 당신을 시기할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있소. 검토가 성과적으로 끝나면 그를 통해 나와 련계를 가지도록 해야겠소. 그때는 아이그루버에게 사실을 알려주어도 좋소. 만일 당신이 사건을 들춰내든가 칼텐브룬너에게서 의심스러운것을 발견하면 아이그루버에게 알리지 말고 나와 직접 련계를 가지도록 하시오.》

그제야 뮬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참녜를 했다.

《고맙습니다, 각하. 이젠 이 사건에 손을 대기가 훨씬 쉽게 되였습니다.》

뮬러는 슈틀리쯔가 자기를 묘하게 에돌아 빠져나갔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번에도 슈틀리쯔가 지혜있고 빈틈없는 사람이라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 더는 주패목을 붙들고있어야 의의가 있을것 같지 않았다. 뮬러는 자기가 주패목을 펼쳐놓으면 슈틀리쯔가 베를린에 남게 되든지 아니면 설사 린쯔에 간다해도 비릿한 피냄새를 맡은 사냥개마냥 인차 돌아오지 않고서는 못견딜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각하,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헬렌은 내가 부탁했던대로 로씨야, 유고슬라비아, 뽈스까, 프랑스에 대한 자료

를 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희귀한 자료인가 하는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린쩨에 있는 〈총통박물관〉이 수억딸라에 달한다면 헬렌의 자료는 상품으로서는 가치를 정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가 접근할수 있는 빠리와 모스크바, 베오그라드, 와르샤와 고위당국자들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분석하고 등록하는 사업을 슈틀리쯔에게 맡겼으면 합니다. 나는 헬렌의 문건을 한 오십페지정도 되게 정리할 생각인데 슈틀리쯔는 누구보다 이 일을 잘할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슈틀리쯔가 린쩨에 갔다올 때까지 먼저 머리글이나 쓰고 문건을 체계별로 분류나 할만한 사람을 앉혀놓도록 하지.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소?》

《나는 슈틀리쯔를 앞에 놓고 그를 칭찬하고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할것 같지 못해서 그럽니다. 만일 누가 머리글을 쓰고 체계를 세운다해도 후에 다시 그것을 군대, 공업, 사상 등 부류별로 가르자면 힘들것입니다.》

뮬러는 기대에 찬 눈길로 슈틀리쯔를 바라보았다. 그는 슈틀리쯔가 자기를 도와《내가 여기 일을 제꺽 처리하고 린쩨에 떠나가지요.》라는 말이라도 해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슈틀리쯔는 나한테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수다 하는듯이 보르만쪽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있었다.

《안되오. 슈틀리쯔가 꼭 가야 하오. 아이그루버밑에 있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전파는 덜레스와 그의 본부에 날아간다는거요. 군인들은 이제 곧 로씨야가 공격을 개시할거라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아직은 전선이 조용하오. 슈틀리쯔의 수완이면 린쩨에서 사오일정도 걸려 일을 끝낼수 있겠는데 돌아와서 헬렌의 자료작업을 하면 되지 않겠소.》

슈틀리쯔는 또다시 뮬러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갔다. 그는 이미 이야기가 끝나고 보르만의 명령도 명백한것이니 이제는 그것을 집행하는 일만이 남았다는것을 알리기라도 하는듯 먼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러자 뮬러는 어쩔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 응접실에 나가 좀 기다리게. 내가 각하에게 뭘 좀 여쭐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좀 리해해주게.》

슈틀리쯔가 문밖으로 사라지자 뮬러는 일부러 기침을 톺아올리고

나서 입을 열었다.

《각하, 멘겔레박사가 로씨야후방에 침투시키려고 정형수술을 한 위틀로프가 벌써 떠나갔습니까?》

《아직 떠나지 않았소. 왜 그러오? 누구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었소?》

《각하의 아래사람들한테서 들었는데 〈아이－2〉실험실 경비성원중에 나와 뮨헨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꾸짖지 말아주십시오. 위틀로프가 지금 나에게 절실히 필요해서 그럽니다. 얼마전에 내가 각하에게 이야기드린 로씨야를 반대하는 그 연극이 종결단계에 이르고있는데 믿음직한 사람들이 요구됩니다. 당신과 민족사회당에 충실한 사람들말입니다. 저의 계획은 이미 검토되고 확인되였는데 이젠 실천하는 일만이 남아있습니다.》

슈틀리쯔는 응접실에서 뮬러를 기다리면서 고즈넉한 정적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지금은 폭격소리도 들리지 않고 전화종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보르만은 히틀러, 히믈러, 카이젤외에 누구와도 전화련계가 없었다. 슈틀리쯔는 머리속에 이런 생각을 굴리였다. 린쩨로 떠나야 한다. 이것은 마지막기회다. 이젠 내가 알수 있는 일은 다 안것 같다. 자기 키보다 더 높이 도약하기는 힘든 일이다. 보르만이 뮬러가 옆에 적을 붙들어둔다고 한 말은 물론 우연히 한 소리겠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이마에 땀이 내뱄다.

보르만은 방금 소금갱도에 보물이 보관되여있다고 하였는데 나는 그것을 본부에 련락할 수단마저 없다. 지금은 련락원도 없다. 앞으로도 있을것 같지 못하다. 나는 량쪽에서 꾸미고있는 연극의 한갖 대상에 불과하다. 내가 우리쪽의 의도만 알고있어도 적들이 꾸미는 연극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것이다. 과연 본부는 여기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에 대하여 평가할 능력을 잃었단말인가. 나는 베를린을 떠날수 없다. 여기서 동쪽으로 빠져나간다는것은 생각도 할수 없다. 내가 아무리 변장을 한다고 해도 그날로 잡히고말것이다. 그러나 린쩨는 산악지대여서 사정이 다르다. 거기서는 일정한 기간 몸을 피해 숨어있다가 오솔길을 타고 동쪽으로 빠질수도 있을것이다. 뮬러는 거기까지 나에게 감시를 붙이지 못할것이고 극상해야 내 신변을 지켜주라고 지시나 줄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자유롭게 행동할수 있다. 내가 빠져나간 다음에 찾을테면 찾으라지. 뮬러가 헬렌의 문건이요 뭐요 하지만 나는 애당초 그따위 소리는 믿

지도 않는다. 뮬러는 낚시를 던져놓고 내가 그것을 꿀꺽 삼킬것만 바라고있다. 그는 내가 헬렌의 이 자료에 관심을 나타내기를 기다리고있다. 이것이 어느 정탐기관에나 흥미를 끌것은 사실이나 나는 결코 거기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뮬러는 게스타포에 돌아오자 종시 철궤를 열고 얄팍한 가방을 꺼내여 슈틀리쯔의 앞에 내놓았다.

《이건 헬렌의 자료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네. 블라쏘브첩보망에서 준비한거지. 여기에는 강점지역에서 비밀리에 우리를 협력한 프랑스 학자들에 대한 자료가 적혀있네. 이것을 읽어보고 앞으로 첩보망을 우리 목적에 리용할것을 타산하여 어떻게 하면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겠는가 생각해보라구. 옮겨쓰는 일은 일본동료들이 나에게 보내준 종이에다 해야겠네. 로씨야와 체스꼬에 대한 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꾸며졌더군. 자네가 오스트리아에 갔다가 돌아오면 내가 자네를 내 비밀아지트에 옮기게 하고 속기술이 좋은 녀자도 붙여주겠네. 자넨 유고슬라비아와 프랑스를 맡아주게. 이건 그 어떤 그림따위와는 비교도 안되게 비싼거라네.》

따르릉 전화종이 울리며 뮬러의 말을 중단시켜버렸다. 칼텐브룬너에게서 온 전화였다.

《예, 예, 뮬러가 전화받습니다. 예, 예, 곧 가겠습니다.》

뮬러는 의자에서 무겁게 몸을 일으키며 분한듯 도리를 저었다.

《무슨 긴급한 일이 있는것 같은데 응접실에서 기다리게. 숄쯔가 커피를 끓여올거네. 이십분후에는 내가 돌아오겠네.》

슈틀리쯔는 창문결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숄쯔가 전화로 주고받는 이야기에는 개의치 않고 자기 생각을 좇고있었다. 이제 린쩨에 가면 키큰 청년이 나에게 다가와 다섯마디안팎의 암호를 대고 내가 그에 대답하면 이렇게 말할것이다.

《이싸예브동무, 나는 동무를 조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여기로 왔습니다.》라고…

《내가 당신을 방해하는건 아니요? 방해되면 내가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지.》

슈틀리쯔는 갑자기 숄쯔에게 이렇게 물었다.

《중장각하는 당신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숄쯔는 푸접없이 대답하였다.

음모를 꾸미는 게스타포 (3)

《루베나우와의 공작은 어떻게 하렵니까?》
슈틀리쯔는 뮬러를 보고 물었다.
《그의 스위스려행을 취소해야 하겠지요?》
《그건 왜 말이요? 그가 준비되였으면 떠나보내게. 바젤에서 우리 령사관에 있는 내 사람들이 그를 맞이할걸세. 내가 벌써 암호전보를 보냈네. 그와 신호를 약속하라구. 쉘렌베르그에게 루베나우가 무지나 혹은 유태인공동체대표와 련계를 맺으면 그에게 어떤 과업을 주겠는가를 물어보게.… 그런데 왜 그의 스위스려행을 취소하려는건가? 이건 아주 흥미있는 일이야. 우리는 쉘렌베르그의 진짜속심이 무엇인가 하는걸 알게 될걸세. 나는 그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아. 쉘렌베르그는 성년기로 넘어가는 처녀들모양으로 내성적인 인간이여서 통 속을 알수 없다니까. 루베나우는 들오리를 유인하기 위해 발을 동여 물에 띄워놓은 오리처럼 써먹자는거네. 이제 중립국의 수오리들이 그에게 까맣게 모여들걸세. 우리는 쉘렌베르그가 그들의 제의에 뭐라고 하는가 지켜보잔말이야. 루베나우는 은페물에 불과하지. 그런데도 쉘렌베르그는 루베나우를 내세워 무엇을 보호하자는건가? 내가 진짜 관심을 가지는건 이걸세.》
《내가 어느때쯤이면 신호도 약속하고 쉘렌베르그에게 통보도 하고 루베나우를 출발시킬수 있겠습니까?》
《슈틀리쯔, 그건 린쩨에 갔다가 돌아와서 해도 늦지 않아.》
《당신은 내가 거기에 갔다가 돌아올새가 있을것 같습니까?》
슈틀리쯔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념려말게. 시간이야 있고말고.》
《난 어쩐지 그럴 시간이 있을것 같지 않아서 그럽니다.》
《무슨 소리요. 자네한테 복이 차례졌는데… 린쩨는 봄이면 참 아름다운 곳이라오.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조용할걸세. 그리고 시가전이 벌어질 걱정도 없구.》
《그럼 내가 당신을 혼자 내버려둔단말입니까?》

슈틀리쯔는 한숨을 내쉬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하긴 나도 당신의 방조가 없이는 이제 들이닥칠 살륙전을 피할수야 없지요. 린쩨에서도 우리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찾을건 뻔하겠으니까요.》
《살륙전이라. 표현이 적중하구만.》
뮬러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제가 떠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슈틀리쯔는 이렇게 물으며 자기의 행동계획을 더듬어보았다. 이제 곧 바벨스베르구역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쪽무이마루밑에 숨겨놓은 려권을 꺼낼것이다. 려권은 핀란드사람의 이름으로 된것이였다. 그리고나서 차를 몰고 운하쪽으로 가서 사고가 난듯이 차를 물속에 처박아넣고 호수가에 있는 빠울령감의 정미소로 갈것이다. 령감은 두주일전에 세상을 떠나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뒤에는 지하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빠울령감이 밀가루를 저축하려고 밤마다 몰래 땅을 파군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지하실은 건조하여 두석주동안은 얼마든지 견딜수 있었다. 그러느라면 우리 군대가 들어올것이 아닌가. 통졸임과 건빵도 푼푼히 장만해놓았으니 걱정없다. 그래도 무슨 변이 나지 않으면 굶어죽든지 아니면 얼어죽든지 해야지 별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계절이 시작되여 당분간은 걱정이 없다. 꾀꼴새들은 봄이 오니 제 세상을 만났다고 고운 목청을 돋구어 노래부르며 봄의 정서를 한껏 돋구고있다. 새들은 폭탄소리를 천둥소리로 잘못 들은듯 무서워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 빨리 떠나야 한다. 시간이 없다. 어쩐지 린쩨에서는 무서운 함정이 나를 기다리고있는듯한 예감이 든다. 거기에 가면 누구도 나에게 암호를 묻는 사람이 없을것이다. 자기를 속여서는 안된다. …
뮬러는 더수기를 손바닥으로 벅벅 문지르고나서 다시 말문을 열었다.
《정황이 또 변했네. 슈틀리쯔. 자넨 시간이 없어서 나한테서 떠나면 안되겠네.》
《그럼 떠날 준비는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 사람들과 함께 린쩨에 가면 되겠네. 잠간 기다리게. 이제 자넬 린쩨까지 안내하여줄 사람들을 소개하여주지. 여보게 친구.

성내지 말라구. 난 자네를 놓고 모험하고싶지 않아서 그러는거야. 루베나우는 지하실에 있으니 잠간 만나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라구. 떠나보내는건 내가 떠나보내지. 처녀 두명을 붙여보내려고 하네. 장교들은 모두 일이 바빠서 보낼수 없네.》

(이젠 모든것이 끝장이다. 뮬러는 나를 포위속에 몰아넣고 압력을 가할것이다. 나는 이날이 가까와오고있다는것을 느끼고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던거지. 아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차피 인정해야 할 그 순간을 그저 밀어던졌댔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공연히 자기의 감각을 믿으려 하지 않은것 같다. 지금은 이러한 감각과 예측이 리성보다도 더 현명할것이다. 파멸이 오늘인가 래일인가 하는 판국에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는 리성이 지배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한다는 이 한가지 동물적인 감각만이 지배하고있었다. 사람들은 파멸을 눈앞에 두고 어쩔바를 몰라 몸부림치고있다. 이들의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결코 나에게도 옮겨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잘된 일같다. 《머슴들속에 있으면 결코 자유로울수 없다.》 하지만 나는 너무도 오래동안 얻을수 없는 화려한것에 매혹되여 자기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 보복을 받게 되였다. 잠간, 내가 이렇게 쉽게 조성된 정황앞에 무릎을 꿇어서야 되겠는가. 나는 이미전에 행동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던가. 할수있는껏 실천해보자. 모든 감각과 예측을 동원해야 한다. 지금은 이것만이 나를 도와줄것이다. 론리를 따질 계제가 못된다. 하지만 나는 루베나우의 아이들을 구원해주지 않고는 떠날수 없다. 루베나우는 적들앞에 굴복했으나 그 아이들이야 히틀러가 정권에 들어앉든 말든 무슨 잘못이 있는가? 사람은 선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 덕을 입기 마련이다. 세상은 선한 행동에 대하여 잊지 않는 법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더 빨리 알수록 살기는 더 좋아질것이다.)

마침내 슈틀리쯔는 결심을 다지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나는 불행한 한스가 죽은 후 당신이 내 생명에 대하여 걱정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루베나우문제는 제가 인차 처리하지요. 그러나…》

《그러나는 또 뭔가?》

뮬러는 누가 말끝을 채 여물구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성미다. 슈틀리쯔는 이것을 알고 리용해볼 생각이였던것이다.

《아닙니다. 그저…》
《슈틀리쯔!》
《나는 벌써 오래전에 한가지 흥미있는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다만…》
《자, 어서 말해보라구. 뭐요? 지금 일이 얼마나 밀렸기에 그러나. 쭈물쭈물할새가 없네. 방금 련락이 왔는데 예바 브라운이 뮨헨에서 갑자기 온다는구만. 칼텐브룬너가 나에게 그가 타고오는 기차를 맞이하라고 위임했네. 자, 말해보라구. 뭐요?》
슈틀리쯔는 마지못해 그러는듯이 띠염띠염 말을 시작했다.
《각하, 당신은 왜 자기가 직접 전 스위스대통령 무지와 련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태인공동체회장과도 마찬가지지요. 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양보하는가 하는겁니다.》
슈틀리쯔는 뮬러가 이런 질문을 당하리라고는 예상치 않았으리라는것을 알았다.
《잠간만, 난 무슨 뜻인지 잘 리해 못하겠군. 내가 어떻게 무지와 직접 련계를 가진다는건가? 나와 무지가 말이요? 그건 안되네. 슈틀리쯔, 그런 환상적인 소리는 하지도 말라구. 누가 게스타포의 이 뮬러와 대화를 하자고 하겠나?! 엉?》
《그럼 히믈러부총통의 지시를 받아 월프대장을 덜레스에게 떠나보낸 사람은 누군가요? 쉘렌베르그지요? 당신이나 그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무엇때문에 무지와 유태인공동체 회장을 히믈러, 월프, 쉘렌베르그에게 맡기는지 알수 없군요. 독판치기를 한다고 말을 들을것 같아서 그러는가요? 자, 우리도 해봅시다.…》
루베나우의 운명은 슈틀리쯔가 그와 사업을 시작하던 날에 벌써 뮬러에 의하여 결정된셈이였다. 뮬러는 다그마르 프라이따흐도 저세상으로 보내버렸다. 뮬러는 이제 루베나우에게서 소식(이것은 베른에 있는 뮬러의 첩자들이 꾸밀것이다.)이 온듯이 조직해놓고 슈틀리쯔가 이것을 모스크바에 보내게 하려는 심사였다. 모스크바는 《스웨리예에서 온 소식》을 대할 때처럼 게스타포가 조직한 《정보》를 받고도 여간 불안해하지 않을것이다. 중요한것은 히믈러와 덜레스가 가까이 접촉하고있다는것을 슈틀리쯔를 통하여 크레믈리에 통보해줌으로써 크레믈리를 놀래우는것이다. 여기서 루베나우를 없앤

다는것은 슈틀리쯔가 외국으로 빠질수 있는 마지막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을것이다. 스톡홀름이나 베른을 거치지 않고 도이췰란드에서 어떻게 나간단말인가? 갈곳은 없다.

그러나 방금 슈틀리쯔가 말한 내용은 뮬러로서는 너무도 뜻밖의 문제였다. 생각해보면 전망이 없는 일같지는 않았다.

《뭐요?》

뮬러는 순간적으로 얼굴의 주름살이 펴지며 어둡던 얼굴색이 밝아지기까지 하였다.

《생각이 너무 모험적인데가 있어보이는군. 그래 루베나우가 우리를 속이지 않으리라는 담보라도 있소? 그는 유태인공동체 회장이 나를 직접 만나서 토의하겠다고 말할것이지만 내 이름을 그들에게 부르는것조차 겁나할거란말일세.》

슈틀리쯔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담보야 있지요. 당신은 루베나우가 자기 아이들을 얼마나 귀여워하는가를 알고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그를 여기로 부르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그에게 소개하지요. 뭐 숨길것도 없고 솔직히 알려줍시다. 그리고나서 문제를 직접 들이대야지요. 스위스에서 이런 담화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그자는 할수 있다고 대답할테지. 그는 나를 끝없이 존경한다느니 별의별 아양을 다 떨걸세. 그리고 그가 또 무엇을 대답할수 있겠나?》

뮬러는 생각에 잠겨 송수화기를 쳐들고 손가락을 막대기처럼 구부리지도 않은채 번호판을 돌려 에쓰에쓰운수부를 찾았다.

《여보시오, 역교통이 마비되였다더니 어떻게 됐소? 좋소. 내가 기다릴테니 자주 보고하시오. 철길은 폭격당하지 않았소? 뭐요? 어데말이요? 로반이 복구되였소? 알겠소, 알겠소. 우리 사람들을 동원시켰겠지? 좋소.》

뮬러는 송수화기를 제 자리에 놓고 슈틀리쯔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영국놈들이 철길을 폭격했다는구만. 다행히 기차는 사십키로메터 지점에 있어서 피해는 없는 모양이요. 지금 로씨야포로들을 내몰아 철길을 복구한다는구만. 이건 우리 일과는 상관이 없네. 칼

텐브룬너가 수송을 책임지게 될걸세. 자, 시간이 없는데 또 계속 해보지.》

《뭐 계속할거나 있습니까. 당신이 루베나우를 믿지 않을바에야…》

《슈틀리쯔, 나는 유태인은 한놈도 믿지 않아. 그건 사실이야. 난 다만 죽은 유태인만은 믿을수 있네. 유태인뿐만아니라 로씨야, 뽈스까, 유고슬라비아놈들도 역시 그렇게 대하네.》

《그런 말은 말싸움을 즐기는 겝벨쓰에게나 적중한 소리지요. 나는 실천가로서 유리한 기회를 리용해보자는겁니다. 먼저 그의 딸을 스위스대사관에 데려가라고 지시하십시오. 그러면 루베나우의 안해가 딸을 데려갈겁니다. 그다음에 안해와 아들, 루베나우가 만나게 조직해줍시다. 여기선 그의 안해가 제 입으로 당신이 그의 딸을 구원해주었다고 말하게 하잔말입니다. 이때 당신은 루베나우가 무지와 유태인공동체 회장에게서 편지만 받아오면 아들도 역시 스위스대사관에 보내줄수 있다는 약속을 주십시오. 편지내용에는 물론 무지가 당신과 직접 만나자는 의견이 담겨져있어야지요. 그래 이런 훌륭한 일을 쉘렌베르그에게 양보한단말입니까? 아니면 히믈러에게? 왜 당신이 직접 나설 생각을 못합니까? 내가 당신만해도 루베나우에게 무지를 보고 유태인들을 전부 놓아주겠다는걸 전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유태인구원자로 될것이고 유태인인테리들도 모두 쟁취하게 될겁니다.》

뮬러는 아무 말없이 슈틀리쯔의 말을 새겨듣더니 저으기 생각깊은 얼굴로 뜨직뜨직 말하였다.

《아들놈은 여기 유태인거주지역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얽매여 자라겠으니 새로운 씨다구를 퍼뜨리지 못하겠지만 계집애는 남자들보다 인내성이 강하여 사정이 다르거든.…》

슈틀리쯔는 뮬러가 바로 이렇게 말하리라는걸 미리부터 생각하고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서로 반대로 생각하는데 습관되여왔던것이다. 그들은 서로 믿지 않았다. 슈틀리쯔는 루베나우의 딸을 스위스대사관에 보낼데 대한 말을 꺼낼 때 바로 이것을 타산했던것이다.

(루베나우는 아들만이라도 구원해달라고 애걸하였었다. 그 애의 이름이 뭐든지? 옳지, 빠울이라고 했지. 빠울은 일곱살에 벌써 작곡

을 했다고 한다. 뮬러에게는 정말 시간이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뮬러는 내가 루베나우와 진행한 감방공작을 끝까지 다 듣고 딸애와 관련한 제의를 애당초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을것이다. 누가 감방에서 진행한 우리의 담화를 엿들었을가? 지금 뮬러가 루베나우의 안해를 데리러 갔다오라고 하면 좋으련만 그렇게는 하지 않을것이다. 아니다. 눈을 감고 자기 운명과 소경놀이를 할것이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 운명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거 참 생각해보니 해볼만한 일이군. 그런 일을 왜 하지 않는단 말인가? 왜 안해. 엉?》

뮬러는 생각에 잠겨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때로부터 두시간가량 지나서 루베나우는 뮬러의 사무실에 불리워왔다. 그는 헉헉 흐느껴울면서 주먹으로 눈물을 뻑 문지르고는 이따금 어줍게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의 안해 역시 딸애를 품에 꼭 껴안고 흐느껴울면서 벌써 몇번째나 같은 말을 곱씹어했다.

《왈터야. 이건 뮬러각하 덕분이야. 우리 각하를 위해 기도를 드리자꾸나! 아. 얼마나 선량한분이시냐! 왈터야. 넌 이런 은혜를 잊지 말고 갚을줄 알아야 한다. 이건 뮬러각하의 덕분이야.…》

《아주머니. 진정하시오.》

뮬러는 가면을 쓴듯 무표정한 얼굴에 싸늘한 미소를 입가에 띠고 있었다.

《아주머니. 진정하라는데두.… 난 당신의 딸도 스위스대사관에 보내고싶소. 하지만 아주머니는 내가 총각애 하나를 구원하는데도 어떤 모험을 하는지 알레지요? 당신의 남편이 스위스에 가면 로잔느전화번호책을 얻어서 로젠쯔베이그씨 주소를 찾아보라고 하시오. 그는 뮨헨에서 변호사를 하던 사람인데 1938년도에 유태인들에 대한 대검거선풍이 일었을 때 내가 국경을 넘겨준 사람이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유태인을 얼마나 구원해주었는가 물어보라고 하시오. 루베나우. 당신은 우리 사람이 당신과 담화하면서 당신을 조금도 속이지 않았다고 생각했소?》

《그렇습니다. 각하! 나는 그것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 충견과도 같이 봉사하겠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손자들을 보고 당신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자고 말하고 당신의 아이들에

게 행복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뮬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안해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주머니, 우리는 당신을 좋은 집에 들게 해주겠소. 거기는 아주 안전한 곳이요. 당신의 남편이 정직하게만 행동한다면말이요.》

녀인은 딸애를 꼭 껴안으며 울부짖듯 웨쳤다.

《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하, 그는 시키는 일을 모두 어김없이 할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할수 있는건 하느님뿐이요. 사람은 환경의 머슴이나 갈거든.》

《물론 사람은 하느님이 아니란걸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수 있는 일을 모두 해내겠습니다.》

루베나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좋아.》

뮬러는 가볍게 수긍하고나서 어쩐지 미덥지 못한 생각이 들었던지 다시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하겠다고 말은 쉽게 해놓구선 안하면 안돼. 그리고 스위스에 가서 게스타포의 최고책임자인 내가 당신을 보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달아나려 할수 있다는걸 알아야 해.》

루베나우는 도리를 저었다.

《각하, 거기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있다는걸 알아주십시오. 그들도 기업소의 주인과 거래하면 무엇인가 얻을수 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각하가 아니면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기업소의 주인이야 히믈러지. 나는 보잘것 없는 인간에 불과하단 말이요. 난 우에서 지시하는걸 집행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마흔다섯살에 머리가 이렇게 희여지지 않았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가슴을 헤쳐보면 알게 될거요. 내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찢어진 심장을 가지고 살았다는것을…》

이때 갑자기 루베나우가 뮬러의 기상을 살펴가며 조용히 말하였다.

《각하, 그 말씀이 대사원(종교에서)의 연단에서 울리면 더없이 적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만일 스위스각하들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할것입니다. 사

업은 역시 사업이니까 뭐라고 변명할것이 없지요. 누구나 뜻을 이루자면 자기 리익을 내세우는 법이니까요.》

녀인을 데려내가자 뮬러는 술병을 꺼내여 잔에 나누어부은 다음 하나를 루베나우에게 내밀었다.

《마시라구.》

《제가 술을 마시면 당장 취해버릴겁니다. 이젠 술마시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젠 또 배울 때가 됐소.》

뮬러는 벌쭉 웃으며 말했다.

루베나우는 술잔을 입에 기울이기 바쁘게 손바닥으로 입을 싸쥐고 캑캑거리였다. 그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질끔질끔 나왔다.

뮬러는 슈틀리쯔를 흘끔 쳐다보았다. 그는 이 광경이 우스웠던지 빙긋이 웃고있었다.

《슈틀리쯔, 자넨 뭐 무언극을 노는게로구만. 술을 좀 들어보지 않겠나?》

《예, 들겠습니다.》

뮬러는 술잔에 똑같이 술을 나누어붓고나서 누가 볼새도 없이 잔을 비운 다음 의자에서 일어나 루베나우가 앉아있는 쏘파팔걸이에 걸터앉았다.

《내 말을 주의해 들으라구. 나는 누가 한 말이든지 관계없이 말로 전달받는것은 좋아하지 않아. 알겠소? 나는 오직 문건만 인정하오. 당신은 무지나 유태인공동체 회장이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기한 내용이 담겨져있는 문건을 가져와야겠소. 형식이 구비된 계약말이요. 내가 유태인들을 놓아주는 대신에 당신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 모든 책임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어야 할거요. 그런 계약조건을 가져올수 있겠소?》

루베나우는 토끼처럼 툭 불거진 눈으로 뮬러를 쳐다보며 기여드는듯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모르겠습니다.…》

순간 슈틀리쯔는 뮬러가 당장 루베나우를 바닥에 둘러메치고 발로 짓뭉개버릴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뮬러는 오히려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타이르듯 말하는것이였다.

《장하오, 장해. 만일 당신이 서슴없이 그런 문건을 가져오겠다고 하면 나는 당신이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거요. 당신은 옳게 대답했소. 그렇게 정직성을 보여주어 고맙소. 자, 이젠 당신이 직접 말해보오. 여기에 성공할 가망이 조금이나마 있을것 같소? 그리고 유태인공동체 회장이 나에게 그런 편지를 보낼것 같다는 생각은 없소?》

《백중에서 다섯은 가능할것 같습니다.》

루베나우의 대답이였다.

《그만하면 많소, 많아.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더 늘구려면 뭔가 더 할수 있지 않겠소?》

《할수 있다고 봅니다.》

슈틀리쯔가 말참녜를 했다.

그러자 뮬러와 루베나우는 동시에 그를 쳐다보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스위스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실이란것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히믈러는 인질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고 단지 시간을 얻기 위해 인질들을 가지고 흥정하고있습니다. 만일 스위스의 각하들이 뮬러씨와의 회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벌써 모든 수인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겁니다.》

《그들은 나도 믿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들은 저의 안해와 딸애가 여기에 인질로 잡혀있다는것을 알고있으니까요.》

루베나우의 말이였다.

《우리는 필요하면 총각애를 대사관에서 빼내올수 있을거요. 이건 문제가 아니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고있다는것을 알게되면 우리는 가만있지 않을거요. 당신도 알지만 우리는 손이 거친 사람들이요. 당신의 아들녀석은 다시 누이와 어머니가 있는 유태인거주지역으로 오게 될거요. 이것은 위협이 아니요. 당신은 자기 가정의 리익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게고 나는 또 나대로 자기 생각을 해야 할게 아니요. 스위스사람들이 당신을 믿겠는가 어쩌겠는가 하는건데 그건 우리가 믿도록 조직해주겠소. 스위스에서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거요. 그만하면 토대는 마련된것 같소. 한시간후에 내가 거기에 통보해주겠소.》

《그렇다면 가능성이 더 커질거구 내 임무도 훨씬 쉬워질것 같습니다.》
한시간후 루베나우는 역으로 떠나갔다. 슈틀리쯔는 바젤과 베른에 있는 게스타포첩보망에 보낼 전문을 작성하기 위해 무전수들한테로 갔다. 뮬러는 부지중 무서운 생각이 머리속에 번개쳐 지나갔다. 그것은 이 모든것이 자기와 보르만사이의 동맹을 파괴하기 위한 슈틀리쯔의 교활한 연극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슈틀리쯔는 이제 무전수들에게 가서 보르만에게 전화를 걸어 루베나우가 어느 렬차로 떠났다는것을 알려줄것이다. 그러면 루베나우를 다음역에서 끌어내려 곧바로 칼텐브룬너에게로 끌고갈수 있다. 루베나우가 칼텐브룬너앞에 이 모든것을 발가놓으면 일은 끝장이다. 보르만은 아무리 변명한다해도 뮬러를 제거해버릴것은 뻔한 일이다.
뮬러는 무전련계소에 전화를 걸어 소좌 헤슈케에게 슈틀리쯔가 그 누구와도 전화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나서 게스타포운수부에 전화를 걸어 일곱번째 차량의 일등석에 앉아가는 손님과 동행한 두 처녀에게 암호전보를 날려 루베나우를 독살시켜버리게 하라고 지시했다. 뮬러는 그러되 이것을 바젤에서 도이췰란드국경통행검사가 끝난 다음에 하라고 했다. 처녀들은 차칸을 떠나기직전에 차표를 한장 남겨놓기로 되여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씌여있어야 했다.
《불젠박사에게 전할것. 로버트 레이명칭 인민기업소 바벨스베르그 야흐드슈트라쎄 7. 매표구 №24. 출납원 룸케.》
뮬러는 그제서야 한시름을 놓은듯 가볍게 한숨을 쉬였다.
(어쩌면 기억도 삭막해진 뮨헨강도의 이름이 번뜩 생각난담. 하긴 좋은 일이지. 으흐흐흐… 내가 그놈을 리용해본지도 퍼그나 오래전 일이지. 처음에는 차칸에서 도적질이나 하며 돌아가는걸 밀정으로 리용했더니 그놈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렬차원은 스위스땅에 렬차가 들어서면 죽은자와 함께 베를린에서 마흔댓되는 점잖은 지식인같아보이는 사람이 렬차에 올랐다는것을 경찰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고있었다.
얼마후 뮬러는 루베나우의 안해를 자기한테로 불렀다. 그는 천천

히 녀인에게 말을 뗐다.
《아주머니, 마음을 굳게 먹으시오. 나는 소동을 피우는걸 좋아하지 않소. 내가 아주머니를 부른것은 다름이 아니라 슬픈 소식을 전하려고 불렀소. 당신의 남편은 방금 희생되였소. 아주머니가 여기에 왔을 때 저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 당신의 남편을 살해했소. 그의 이름은 슈틀리쯔라고 하오. 그자는 벌써 숨어버렸소. 지금 우리는 그를 찾고있소.》
녀인은 졸지에 의식을 잃고말았다. 구급대책을 세워서야 녀인은 의식을 회복했다. 녀인은 곧 울음을 터뜨리며 설분을 토했다. 그러나 뮬러는 녀자들이 부리는 광기를 당장에 그치게 할줄 알았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아주머니는 아이들의 생명이 귀중하오 귀중하지 않소? 어디 한번 대답해보오!》
《예, 예, 귀중해요.》
녀인은 꺼이꺼이 흐느끼며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쳐들고 간신히 대답했다.
《그럼 진정하구 내가 말하는걸 잘 기억해두시오. 자, 받으시오. 이게 아주머니와 딸이 가지게 될 려권이요.》
뮬러는 녀인에게 려권과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속에는 오백프랑의 돈이 들어있었다.
《아주머니는 지금 곧 기차를 타고 스위스로 떠나시오. 이것이 당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의 사진이요. 그에게는 두가지 이름이 있소. 하나는 볼젠이고 다른 하나는 슈틀리쯔요. 자, 이걸 받으시오.(그는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다.) 이속에 그의 지문이 들어있소. 아직 당신의 아들 빠울이 여기 대사관에 있는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그러나 빠울이 스위스에 간 다음에는 경찰에 가서 전부 이야기하시오. 전부말이요. 알겠소? 그리고나서 남편을 죽인 살인자를 찾기 시작해보시오. 그는 지금 스위스에 가있을수 있소. 아주머니자신과 내 대신에 복수를 해주시오. 알겠소? 그러나 내 이름은 오늘부터 잊어버리시오. 만일 내 이름을 기억하여두면 내가 좋아하지 않을거요.》

마지막기도

잘쯔부르그에서부터는 꼬불꼬불한 산길이 시작되였다. 여기는 아직도 백설이 쌓여있어 스키놀이를 하기에 한창이였다. 더우기 산북쪽 경사면은 5월초순까지도 스키를 탈수 있었다.

슈틀리쯔는 베를린에서부터 내내 요헨과 에쓰에쓰소좌 꾸르트의 사이에 끼워앉아 왔다. 자동차는 게스타포소좌 윌리가 몰았다.

슈틀리쯔가 알트 아우스제에 있는 칼텐브룬너의 저택에서 일하는 모든 장교들의 문건을 료해한 다음 뮬러는 공작조를 떠내보내기 앞서 일장 훈시를 늘어놓았다.

《장교들, 나는 당신들에게 슈틀리쯔를 맡기는바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기억해두시오. 슈틀리쯔도 들어두라구. 슈틀리쯔는 스위스에서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고 돌아온 후부터 항시적으로 생명의 위험을 받고있소. 그는 두번씩이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요. 이제 세번째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번에는 영낙없이 좋지 못할거요. 그래서 나는 장교들에게 한순간도 슈틀리쯔를 방임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말해주고싶소. 일도 같이하고 밥도 같이 먹어야 하며 잠도 한방에서 자야 하오. 장교들, 슈틀리쯔는 보통 대담한 사람이 아니라는걸 명심해두시오. 그는 적과의 싸움이라면 제 몸을 아끼지 않고 뛰여드는 사람이요. 이런 천품은 히믈러부총통의 마음에 들었지만 나에게도 역시 마음에 드오. 그러나 나는 제국의 최고수뇌부앞에서 그의 생명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함께 따라보내는거요.》

《고맙습니다, 각하. 나의 생명에 대하여 이처럼 걱정하여주시니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고싶은것은 린쩨에 가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과 담화도 하고 수사과정에 론의할 문제도 있겠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담화는 단독으로 해야 할텐데. 우리가 무슨 원탁회의를 하듯 모여앉아 담화하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게 될것이 아닙니까.》

《적의 전파가 날아가고있는 저택주변에는 사방 열다섯헥타르의 아

름다운 공원이 펼쳐져있소. 높다란 울타리는 당신들을 호기심 많은 적들의 눈길로부터 숨겨줄거요. 또 저택에 감히 접근하려는자는 망루에서 총질을 하니 얼씬도 할수 없소. 그러니 길을 따라 산보하면서 마음놓고 담화를 해도 좋소. 나는 그곳 칼텐브룬너의 저택에 있는 사람들중에서 누구도 당신들과 속을 주고 이야기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소.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하던지간에 그 말을 엿듣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단말이요. 하지만 슈틀리쯔, 자네는 공원에서 담화한 내용을 기록해서 요헨에게 넘겨주게. 그리고 요헨, 당신은 그것을 받아서 즉시 베를린에 보내야겠소. 슈틀리쯔는 그런 사소한걸 가지고 머리를 쓸새가 없소.》

《그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다른 일군들과 만나기전에 자기가 진행한 담화내용을 다시 들어볼수 없게 되고 사실을 혼돈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기는 곤난합니다.》

슈틀리쯔는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그러나 뮬러의 대답은 단호했다.

《곤난이라는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는걸세. 자, 장교들, 이게 전부요. 내가 당신들에게 사랑하는 슈틀리쯔를 맡긴다는것을 명심하시오. 나는 그를 자랑으로 여기고있소. 당신들은 한주일후 그를 다시 여기로 데려오면 표창을 받게 될거요. 하일 히틀러!》

《각하, 왜 저에게 족쇄를 채워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슈틀리쯔는 느닷없이 물었다.

그 소리에 뮬러는 하하하 크게 소리내여 웃었다.

《만일 정세가 지금같이 긴장하지 않으면 자네한테 달라붙어 자네가 그처럼 완벽하게 소유하고있는 음모의 솜씨를 배웠을거네. 나에게는 살아있는 자네가 필요하네. 슈틀리쯔, 난 자네가 보통 모험가가 아니라는것도 알고있네. 이렇게 말한다고 노여워말라구. 자,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잘 다녀오라구.》

그들은 어두워서야 알트 아우스제에 도착하였다. 윌리는 일시에 긴장감이 확 풀리며 피곤이 몰려왔다. 그는 운전대에 머릴 떨구고 잠간사이에 잠이 들어 코를 골다가 눈을 번쩍 떴다.

《내가 오늘 모든 기록을 돌파했나보오. 팔백키로메터를 열두시간

동안에 달려왔으니까! 친구들, 나를 깨우지 말라구. 여기는 조용하고 공기가 좋아 잠이 저절로 오겠소.》
《나는 자기 차를 타고오지 않아 그런지 머리가 아프구만.》
슈틀리쯔의 말이였다.
그러자 요헨이 차에서 내리며 말을 받았다.
《그건 옳은 말이요. 난 어렸을적에 남의 자전거만 타면 영낙없이 넘어지군했다우. 습관이란 어쩔수 없는거라니까. 영국놈들이 뭐라고 했더라? 〈습관, 이것은 인간의 두번째 속성이다!〉 이렇게 말한것이 맞지?》
《옳게 말했네.》
윌리가 그의 말에 수긍했다.
《당신은 영어발음이 제격이로구만. 영국에서 오래 일했소?》 하고 슈틀리쯔가 물었다.
《한 서너해 령사관에서 일해보았지. 그때는 참 락원같은 생활이였네.》
칼텐브룬너저택의 육중한 대문은 소리도 없이 저절로 열리였다. 윌리가 차를 몰고 어둠이 깃든 공원에 들어서자 차단봉옆에 있는 자그마한 집에서 경비원 두명이 나왔다. 그들은 에쓰에쓰장교들의 증명서에 붙어있는 사진을 실물과 깐깐히 대조해본 다음 모두 차에서 내리라 하고는 뒤좌석을 들어올려보고 트렁크도 검열하였다. 그리고는 가방속에 들어있는것을 꺼내라고 했다. 개인무기도 령수증을 받고 바치라는것이였다.
이런 놀음이 끝나자 또 한명의 장교가 나타나 윌리의 옆에 앉아 침실로 가는 길을 가리켜주었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전조등의 가느다란 불빛은 소나무사이로 요리조리 뻗어간 아스팔트길을 잘 비쳐주지 못했다.
침실로는 두칸짜리 방이 이미 준비되여있었다. 장교가 앞으로 손을 쑥 내뻗쳐 나치스식인사를 하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침식사는 일곱시 반에 여기 유리를 씌운 베란다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과실즙과 빠다표를 주십시오.》
《잠간만, 지금 누가 직일근무를 서고있소?》
슈틀리쯔가 물었다.
《대좌씨, 나는 그런 물음에 대답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대

장의 승인이 없이는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게 되여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교대장의 전화번호를 대줄수 없겠소?》
《무선통신수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면 인차 련결시켜 줄겁니다.》
《고맙소, 친구. 우리 친구들에게 부엌칸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오. 그리고 곤로도 사용해야 커피를 끓일게 아니요.》
《대좌씨, 옳은 말씀입니다. 이제 곧 알려드리지요.》
윌리가 경비장교와 함께 방에서 나가자 슈틀리쯔는 함께 온 두 장교를 보고 물었다.
《여보게들, 어디 한번 솔직히 말 좀 해보오. 여기에 누가 코고는 사람이 없소?》
《내가 코를 고오. 더우기 굳잠만 들면 방안을 들었다놓군하지. 그러나 일없소. 소리만 치면 인차 깨날수 있으니까.》
꾸르트가 하는 말이였다.
《나는 코를 골지 않소. 아마 조용히 잠자는 훈련을 많이 한 덕분인가보오.》
이번에는 요헨이 한마디했다.
《훈련을 하다니? 그건 어떻게 하는건가?》
슈틀리쯔는 놀라와하며 되물었다.
《내가 한번은 동쪽으로 공작을 떠나게 되였는데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겠나. 지도관은 나를 보고 왼쪽 모재비로 드러누워 자기 숨소리를 듣는 습관을 붙이면 코를 골지 않는다고 하더군.》
《정말 그렇게 될가?》
《그렇게 되네. 나는 그걸 확신한 사람일세. 이건 지어 마취제이상이라니까. 자기에게서 제일 귀중한 생각을 꼭 한가지만 해보라구. 틀림없을거네. 웃지 말라구. 사실이야. 내가 직접 해본 사람인데 아무렴 거짓말을 할가. 우리 지도관 스코쩨니은 별걸 다 체험해보라고 지시하군했다오. 그는 자기 공작조성원들을 선발하는데서 아주 세밀했던거지.》
《당신은 테헤란에서 스코쩨니의 방조자노릇을 하지 않았댔소? 〈3국수뇌자〉암살조직때말이요.》
슈틀리쯔가 이렇게 묻자 요헨은 뮬러의 운전사 한스처럼 슈틀리쯔

의 말은 들은듯만듯 제 말만 계속하였다.

《우리한테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웃을 때면 방안이 들썩하게 웃어대군했지. 그래서 스코쩬이 한주일도 채 못가서 그 버릇을 뚝 떼주지 않았겠나. 뭘 어떻게 해놓았는지 청년은 그후부터 교양있는 처녀들처럼 소리없이 점잖게 웃더군.》

《교양된 처녀들은 크게 소리내여 웃지 않는가?》

슈틀리쯔는 트렁크에서 잠옷을 꺼내다 말고 이렇게 물었다.

《내 생각엔 진짜 교양된 사람이란 꾸밈새없이 자기 속심 그대로 나타낼줄 아는 사람이 아닌가보네. 큰소리로 웃는것도 기형적인 사람이 아니면야 인간의 좋은 품성이라고 봐야지.》

월리가 방안에 들어와 물이 벌써 끓고있다고 하면서 슈틀리쯔에게 브란디를 마실줄 아는가고 물었다. 슈틀리쯔는 즐겁게 웃으며 쾌히 마시겠노라 대답했다. 그들은 모두 유리지붕을 한 베란다로 나갔다. 이리하여 격식도 없이 주연이 벌어졌다.

《여보게 요헨, 힘들지 않으면 교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커피나 함께 마시자구 오라고 하게.》

슈틀리쯔가 말하자 요헨은 제꺽 일어나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소좌 효틀은 퍼그나 젊어보이는데 머리는 하얗게 셌다. 그는 잔을 쳐들고 중앙에서 내려온 장교들이 무사히 도착한것을 축하하여 한잔 들자고 했다. 이렇게 술잔이 몇순배 돌아가자 효틀은 오는 도중에 길은 어떻든가, 폭격을 많이 당했던가 하는것을 묻고나서 이처럼 불행한 봄도 이제는 마지막일것이라고 뜻있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가 유태인들이 즐겨하는 우스개소리를 뒤마디 하자 월리는 아이들처럼 좋아서 웃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러자 효틀은 성수가 나서 구수한 이야기를 자꾸만 엮어나갔다.

《내가 또 한마디 우스운 이야기를 들려주지. 옛날에 이 세상 병이란 병은 못고치는것이 없다는 유태인명의가 있었다오. 그런데 하루는 누군가 절름발이를 데리고 의사를 찾아와서 〈선생님, 세상에 그렇게 용하다고 소문이 짜한데 우리 아브람의 다리를 좀 고쳐주소. 저 앤 지팡이없이는 서있지도 못한답니다. 당장 넘어지지요!〉 하고 말하지 않았겠소. 의사는 손톱밑에 때가 새까맣게 낀 굵은 손가락으로 코를 잡고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아브람, 넌 건강한 앤데 지팡이는

뭘하러 짚고다니는거냐. 지팽이를 집어던져라!〉 하더란말일세. 하지만 아브람은 다른 모든 멍텅구리 유태인들처럼 겁쟁이여서 지팽이를 집어던지지 못했다누만. 그러자 의사가 또 꽥 소리질렀지. 〈아브람, 내가 뭐랬어? 막대기를 버리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아브람은 결국 매부리코 의사의 말을 듣고 지팽이를 집어던져버렸다오. …》

효틀은 시치미를 뚝 따고 웃지도 않으면서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꺼냈다.

월리는 참을성없이 이야기를 재촉했다.

《그래 아브람이 어떻게 됐소?》

효틀은 제법 낯빛까지 심각해지며 한숨을 지었다.

《넘어져서 엉치가 깨지고말았다오!》

월리는 너무도 우스워 배를 그러안고 웃어댔다. 그러자 지금껏 심드렁하게 앉아있던 요헨이 입을 삐죽하며 시까슬렀다.

《우리가 로씨야놈들을 베를린에서 쳐물리친 다음 그놈들을 복수하잔말이요. 떨거지같은 유태인놈들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해. 지금까지 우리가 그놈들을 너무 어루만진것 같애. 이 돼지같은 놈들에게 수용소를 지어준것만 해도 아깝지. 그놈들을 모두 화구에 처넣고 총으로 쏴죽여버려야 한다니까!》

이때 슈틀리쯔가 자리에서 일어나 효틀을 보고 물었다.

《여보게 친구, 나와 동무를 좀 해주지 않겠나? 나는 잠자리에 들기전에 얼마동안 산보를 하는 습관이 있다오.》

《그렇게 하세나. 대좌.》

《대좌를 대문밖에 내보내선 안되오. 그는 항시적인 위협을 받고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여기에 온것도 뮬러중장의 위임을 받고 그를 지켜주려고 온거라오.》

요헨은 비록 효틀에게 말은 했으나 여전히 슈틀리쯔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있었다. 그러자 효틀이 그 말에 무엇이 짚이는데가 있었던지 의자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칼텐브룬너대장이 당신들이 여기에 출장온줄 알고있소?》

(아 이거야말로 신통한 질문을 했군.)

슈틀리쯔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알소있소. 베를린에서 다 알고있소.》

요헨의 대답이였다.

《우리는 보르만에게서 당문건보관상태를 감독할데 대한 임무를 직접 받고온 사람들이요. 그런만큼 적들이 여기에 코를 들이밀려고 하지 않았는지 좀 검토해봐야 할것 같소.》

《아, 그렇구만.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 도와주어야지.》

효틀이 대답했다.

슈틀리쯔는 효틀과 함께 공원길을 거닐면서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하늘에서는 뭇별들이 파르스름한 빛을 뿌리며 불안에 깜빡거리였다. 이것은 어딘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헤여질 때처럼 슬프게 느껴졌다. 이제 곧 새날이 밝아올테지. 그러면 절망과 공허한 감정이 찾아들것이고 모든것이 불안하게 느껴질것이다. 성문을 덜커덩하고 잠그고나면 너는 혼자 남게 될것이다. 그러면 추억이 되살아오를것이고 너는 자기가 벌써 마흔다섯살났고 생이 그처럼 흘러갔다는것을 무섭게 깨달을것이다.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중요한 속성이고 또 기적이 오기를 기다리는데서 생기는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적은 없지 않은가.…

《효틀, 내가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당신의 방조를 받아야 할것 같구만.》

《대좌, 그렇게 말하니 반갑구려. 내가 성의껏 도와주지.》

《그럼 먼저 당신네 사람들에 대하여 말 좀 해주게나. 내가 중앙에서 받은 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누구를 나에게 알선해줄셈인가?》

《미안하네만 먼저 임무가 어떤것인지 알아야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쉽게 할것 같구만.》

《한마디로 임무가 좀 복잡하다고 볼수 있지.》

《그럼 독쓰로부터 시작해보지. 그는 1942년도부터 여기서 살고있다오. 이 통신처가 생긴 첫날부터말이요. 아주 훌륭한 일군이지. 총통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가정생활에서도 모범이라오. 어디 그뿐인가. 스키를 잘 타지 사격을 잘하지 행동에선 흠잡을데가 없는 사람이라오.》

슈틀리쯔는 이마를 찌프렸다.

《효틀, 나는 그 사람의 문건을 읽어봤네. 아무런 문제성이 없다는건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것 같구만. 나는 독쓰가 왜 1943년에 칼텐

브룬너에게서 욕을 먹었는가? 이러루한 문제를 알고싶단말일세.》
《대좌, 그건 나도 모르겠소. 그때 나는 전선에 나가있었으니까.》
《어느 전선말이요?》
《민스크부근이지.》
《에쓰에쓰부대에 있었는가?》
효틀은 자기가 미처 대답도 하기전에 슈틀리쯔가 련속 질문을 들이대는것이 불쾌하게 생각되여 말투가 곱지 않게 흘러나왔다.
《대좌, 당신은 칼텐브룬너에게 가서 여기있는 사람들의 문건을 다 보았겠는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는거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도이췰란드군대의 보통병사로 복무한줄 아는게로구만.》
《당신의 문건에는 당신이 하이드리흐때문에 강직되였었다고 씌여있더군. 하이드리흐가 죽은 후에는 직위도 회복되고 표창도 받고 에이흐만의 유태인과에 조동되고… 죽은 하이드리흐가 무엇때문에 당신을 강직시켰댔소?》
《내가 권한밖의 말을 함부로 해서 그렇게 됐나보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루는 내가 술에 취해서 옆에 하이드리흐의 친구가 있는줄도 모르고 슬라브인들을 소멸해야 한다는 사상과 어긋나는 롱담을 했다오. 롱담인즉 로씨야가 우랄저쪽으로 밀려간 후에 로씨야유태인 에렌브르그와 포로된 우리 사람을 교환하자면 일부 슬라브인들을 죽이지 말고 수용소에 가두어넣고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지. 헌데 하이드리흐는 유태인문제와 슬라브인문제에서 대단히 엄격하지 않았댔소.》
《그래 그것때문에 강직되였는가?》
《기본은 그것이였지.》
《그게 기본이 아니라는거야 다 알고있는 사실인데 뭘 그러오.》
《그리고 내가 로씨야를 이겨내자면 서방과 제때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더랬소.》
《당신이 우리 운동에 관계한것은 어느때부터였소?》
《1939년부터였지.》
《에쓰에쓰엔 어떻게 되여 들어오게 되였소?》
《원래 내 고향이 린쯔인데 나는 칼텐브룬너와 한룡마루밑에서 살았댔다오. 그는 우리 가정도 잘 알고있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버

지가 칼텐브룬너와 나를 보고 에쓰에쓰에 들라고 권고하더군. 그것이 1940년이였소.》

《당신은 독쓰에 대하여 또 뭘 알고있소?》

《대좌, 이젠 내가 알고있는걸 전부 말했나보오.》

《좋소. 그럼 내가 질문을 좀 달리한다고 이상하게 생각지 말아주기 바라오. 당신은 독쓰와 함께 어떤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라면 떠나겠소? 례하면 적후방에 함께 가라고 하면 가겠나말이요?》

《그거야 가지 않구.》

《고맙소. 효틀, 계속하오.》

《소좌 슈바네바흐가 있네. 이 사람에 대해선 좀 말하기가 어렵소. 그는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임에 틀림없긴 한데 어쩐지 우리들사이의 관계는 어성버성하단말이요.》

《당신은 그와 함께 임무수행에 떠나라면 떠날것 같소?》

《명령을 받으면야 떠나야지 별수 없지.》

《계속해보오.》

《그다음은 라스터펠드가 있네. 소좌요. 나는 그 사람과 함께 가라면 어떤 곳이든지 다 가겠소.》

《당신은 언제부터 그를 알고있소?》

《1941년도부터 알고있소.》

《당신은 라스터펠드가 당신을 강직시키기 위한 문건을 하이드리흐에게 올려바쳤다는걸 알고나 있소?》

효틀은 놀라서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그럴수 없소.》

《내가 문건을 보여주지. 가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소. 라스터펠드는 당신이 그의 녀편네와 치정관계가 있다는걸 알고있소?》

효틀은 또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슈틀리쯔는 담배를 꺼내여 불을 붙인 다음 성냥가치를 눈우에 집어던지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였다.

《효틀, 사실은 이렇네. 당신은 물론 누구도 감히 자기를 건드리지 못할거라고 생각하고있을거요. 하긴 칼텐브룬너대장이 당신을 동부전선에서 소환해왔으니 그럴만도 하지. 그러나 제국안전총국의 검토체계는 우에서 누구의 보호를 받고있는가에 관계없다는걸 알아둘 필

요가 있소. 아무렇게 하든지 눈에 띄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눈에 띄웠단말이요! 아이쿠!》
슈틀리쯔는 갑자기 신음소리를 지르며 왼쪽 모재비로 나가넘어졌다. 그는 힘들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안주머니에서 몰래 소형록음기를 꺼낸 다음 날랜 동작으로 거기서 록음테프를 분리하고 다시 록음기를 주머니속에 넣어버렸다.
《당신은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진줄로 생각했겠구만? 이제 침실로 돌아가면 동무들이 있는데서 내가 다리를 몹시 상하지 않았는가 물어보게. 그들은 아직 자지 않고있을거요. 모르지. 그들중 누가 또 멀리서 우리를 감시하고있는지도…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가지 말고 여기서 글을 좀 써주어야겠소. 당신이 주당책임자 아이그루버와 민족사회당을 위해 일하겠다는 서약서말이요. 할수 있겠소?》
슈틀리쯔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여 효틀에게 내밀었다.
《효틀, 좀 빨리 써야겠소. 이건 당신에게도 리해관계가 없는게 아니니까.》
《뭐라고 쓰라오?》
효틀은 저으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슈틀리쯔는 어둠속에서도 그의 창백해진 얼굴을 가려볼수 있었다.
《그저 생각나는대로 쓰구려. 상부오스트리아주당책임자가 주는 임무를 수행하겠다. 만일 변절하는 경우엔 … 이런 식으로 말이요.》
《걸어가면서야 어떻게 글을 쓰겠소.》
《내가 기다릴테니 빨리 쓰시오.》
효틀은 잠간사이에 몇자 적어서 슈틀리쯔에게 넘겨주었다. 슈틀리쯔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수첩장을 번지며 물었다.
《당신은 시력이 좋소?》
《좋지, 왜 그러오?》
《여기를 좀 보오.》
효틀은 수첩장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눈이 화등잔같이 커졌다. 슈틀리쯔의 수첩에는 바로 여기 칼텐브룬너의 저택근방에서 서방으로 날아간 무전문이 적혀있었다.
《효틀, 당신이 가지고있는 암호를 가지고 내가 주는 수자를 전해주오. 덤비지 말고 조용히 행동해야겠소. 나도 역시 칼텐브룬너와 마찬가지로 당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는 사람이요. 만일 거절

하면 좋지 못하리라는걸 경고해두오.》

슈틀리쯔는 이렇게 말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았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시도이다. 비록 실현될 가망은 열중에 하나도 되나마나하지만 어쨌든 귀중한 기회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는 모스크바에 보내는 무전문에서 자기가 어디에 와있다는거며 세놈의 게스타포놈들의 감시속에 들어있다고 알리면서 이제는 힘도 마지막고비에 이르렀다는것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만일 본부에서 자기를 구원할 생각이 있다면 알트 아우스제에 있는 칼텐브룬너별장에 대한 폭격을 진행할수도 있을것이다. 별장을 지키는 경비원은 불과 열다섯명뿐이다. 슈틀리쯔는 효틀이 전해주는 답변만 받을수 있다면 자기가 모험을 해서라도 일곱명은 당할 결심이였다.

덜레스는 알트 아우스제에 있는 죠제프라는 가명을 가진 첩자로부터 이상한 암호전문을 받았다. 죠제프의 본명은 효틀이였다. 효틀은 1944년도 가을 부다뻬슈뜨에서 에이흐만과 함께 유태인장사에 참가하였는데 그때 예상외로 일이 잘되여 수백만프랑의 돈을 벌었었다.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휘발유와 군수물자로 받았던것이다. 효틀은 수용소에서 이 물자대신에 석방된 어느 부유한 유태인에게 스위스에 가면 그곳에 주재하고있는 미국대사관에 편지를 전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이 편지가 전달된 이후로부터 그는 미전략정보국에 흡수되여 첩자로 활동하게 되였던것이다.

미전략정보국의 전문가들은 효틀이 베른에 보낸 슈틀리쯔의 암호문을 해득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썼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슈틀리쯔가 어차피 암호전문을 보내는 주소만은 숨길수 없었으므로 덜레스는 즉시 조회를 해보고 이것이 한때 쏘련첩보망《라도》와 련결되였던 사람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덜레스는 보좌관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 효틀이 보낸 무전문을 보여주고나서 담배냄새가 푹 밴 코수염을 우습게 쫑긋거리며 묻기 시작하였다.

《당신들 생각엔 어떻게 하면 좋을것 같소? 문제가 매우 흥미있어 보이는구만. 우리가 로씨야첩보기관과 접촉을 가지겠는가? 아니면 그만두는게 좋겠는가?》

덜레스는 지금 워싱톤에서 벌어지고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받고있었다. 그는 정세가 대단히 복잡하다고 생각했다. 덜레스

는 오래전부터 자기 형제들의 변호사회 《썰리벤과 크롬멜》주위에 뭉쳐있는 사람들을 반대하여 나서도록 국무성에 부단한 영향을 주어오던 보스톤(미국의 도시이름)금융계의 지지를 받고있는 세력들이 오늘은 도리여 루즈벨트를 반대하여 그에게 압력을 가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덜레스는 또한 도이췰란드와 유럽에서 세력권쟁탈을 위한 싸움이 마지막 결정적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알았다. 만일 이 세력권쟁탈전에서 우세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워싱톤은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지금의 직위를 잃게 되는것은 물론이고 그처럼 여러해에 걸쳐 조직하고 아껴온 도이췰란드공업과의 모든 련계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말것이다. 이것은 덜레스의 생명과 출세와 창창한 미래가 허물어진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는 루즈벨트가 도무지 리해할수 없는 정치를 하고있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은 미국공민들에게 세계에는 각이한 국가구조를 가진 나라들이 함께 존재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해보려고 애를 썼다. 이를테면 자유기업을 기본으로 하는 서방과 국가의 계획화를 위주로 하는 볼쉐위크국가가 함께 존재할수 있다는것이다.

덜레스는 루즈벨트대통령이 무엇때문에 그처럼 집요하게 쓰딸린으로 하여금 카사블랑카 3 국수뇌자회의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테헤란회의에 오도록 하였겠는가 하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루즈벨트는 이것을 통하여 자기 정책을 지지하고있는 금융계와 대기업체들에 쓰딸린과의 대화는 능히 가능하다는것을 보여주려고 했던것이다. 그는 물론 자기 나라를 조금이라도 홀시하는데 대하여서는 참지 못할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오만무례할 정도의 자존심이 있는것도 아니였다. 그는 합의된 의무를 지킬줄 알았다.

루즈벨트대통령과 정반대되는 립장을 취하고있는 덜레스와 그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1945년 봄은 참으로 어려운 계절이였다. 세계는 로씨야에 대한 로골적인 질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도이췰란드와의 단독강화조약도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전쟁으로 입은 상처는 너무나도 혹심했고 전쟁의 참화를 기억속에 묻어두기엔 아직은 너무도 비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속에 새겨진것도 점차 없앨것은 없애고 고칠것은 고쳐야 할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재 주되는 임무는 차지한 계선을 견지하는데 있다.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덜레스는 보좌관들을 협의회에 불렀던것이다. 죠제프는 지금 궁지에 빠져 로씨야첩보기관의 압력을 받고있는 조건에서 로씨야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힘들게 되였다. 그렇다고 덜레스가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는 이 지역(여기에는 거의 십억딸라에 달하는 그림들과 조각품들이 보관되여있었다.)에서 로씨야를 도와줄 권리는 더욱 없었다.

덜레스의 한 보좌관은 죠제프에게 그가 부탁한것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런 암호전보를 날리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곳 형편에 대하여 문의해보자고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자고 덧붙였다. 그리고 또 다른 보좌관은 스위스에서 암호문을 받아 중개하고있는 사람의 집을 감시하고있다가 스위스정부와 짜고들어 이 나라에서 추방해버리게 하자고 제기하였다.

그러나 덜레스는 이것도 저것도 다 반대하였다. 그는 길죽한 영국대통에 향긋한 네데를란드담배를 다져넣고 뻐금뻐금 빨다가 이어 대통을 입에서 쑥 꺼내여 손에 쳐들고 말을 시작했다.

《안되오. 이건 옳은 처사가 못되오. 지금 상부오스트리아에서는 뭔가 매우 흥미있는 일이 벌어지고있는것 같은데 우리가 모험을 해서야 되겠느냐 말이요? 린쯔에서 우리 첩자에게 압력을 가하고있는 로씨야망책을 도와준다? 그래서는 안될것 같소. 그러면 그와 연극을 놀아본다? 그건 흥미가 없지 않군. 그런데 이런 놀음을 놀다가 백악관으로부터 책망을 들을것 같거든. 나는 월프와의 공작이 실패한 후에 벌어진 소동이 어떻게 끝날지 아직 모르겠구만. 나는 지금 이런 결심을 가지고있소. 전략정보국장 도노완에게 전보를 보내고 그 사본을 한통 국무장관에게 보내여 조성된 사태에 대하여 통보하자는거요. 더우기 나는 본래의 립장도 바꾸어 현시점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는가 지시를 달라고 요구할테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워싱톤에서 한주일은 실히 론쟁이 계속될거라고 생각하오. 내 생각엔 워싱톤이 죠제프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지시를 줄것 같지 않구만.》

《이건 죠제프의 요구가 아니라 그의 목을 눌러 타고앉아 손까지 못쓰게 하고있는 로씨야망책의 요구지요.》

한 보좌관이 덧붙여 말했다.

《문제는 우리가 전보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보오. 우리가 만일 죠제프를 좌익으로 끌고가서 칼텐브룬너와 가까운 그 에쓰디장교의 요구를 들어주는데만 주의를 돌린다면 우리와 립장이 같은 사람들은 우리 첩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그가 왜 로씨야사람과 접촉하게 되였는가, 여기에 나치스트들의 무슨 장난이 있는게 아닌가고 당장 물을거요. 우리는 회답전보를 준비해야겠소. 그러나 이것을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오. 신중히 생각해봐야겠소. 그래서 당신들에게 한주일이라는 시간을 줄테요. 아마 두석주만 지나면 모든것이 끝장날거요. 다시말하면 우리가 샴팡주(술이름—주로 축하연에서 사용)를 마실 날도 오래지 않았단 말이요. 물론 이렇게 하면 무서운 관료주의라고 할수도 있소. 그렇지만 지금은 관료주의 만세를 부를 때란말이요. 기다려봅시다. 오늘은 기다릴줄도 알아야 하오.》

막씸 막씨모위치 이싸예브 (1)

《효틀, 나를 좀 동무해주지 않겠소? 혼자서는 고독한 생각이 들어 산보하지 못하겠구만.》

슈틀리쯔는 요헨과 윌리가 무전문을 검토하느라고 한참 바삐 돌아가고 꾸르트는 주당책임자 아이그루버에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하려고 떠나가고 없는 이 시간을 택하여 효틀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렇게 하세.》

효틀의 얼굴은 밤새 퍽 수척해지고 늙어보였다.

《잠간만.》

요헨이 갑자기 그들을 불러세웠다.

《대좌, 내가 록음기를 다 수리했는데 필요없겠소?》

순간 슈틀리쯔는 머리속에 뮬러의 훈시가 펀뜻 떠올랐다. 그는 요헨의 말이 보통말이 아니라 명령이라는것을 알았다. 그와 론쟁한다는것은 우둔한 일이였다. 그래서 그의 말을 선선히 듣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친구, 자넨 정말 세심하구만. 난 정말 〈기관총〉에 습관되듯 록음기에 습관되였나보오.》
얼마후 요헨은 슈틀리쯔에게 록음기를 넘겨주며 빙긋이 웃는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부자연스럽고 억지로 꾸며진 웃음이였다.
《자네 그 기술수단을 효틀소좌에게 먼저 시험해보아야겠구만. 효틀, 내가 좀 록음해도 일없겠소?》
슈틀리쯔는 롱조로 물었다.
《아니, 내가 왜 반대하겠소? 적들이나 도청하는걸 무서워하지 정직한 사람은 검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오.》
효틀은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대답했다.
《이것 보오, 요헨. 효틀은 자기 말을 도청하는걸 지어 기뻐하는구만. 정말 진짜배기요. 우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알구싶어한단말이요. 여기에서 자존심이 생기고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의식하게 되는거지.》
요헨은 절망과 악의로 가득찬 눈길로 슈틀리쯔를 바라보며 씨벌였다.
《정말 그런것 같소, 대좌.》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자, 그럼 우리는 가세, 효틀! 직일근무를 서고 피곤할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어 고맙소.》
슈틀리쯔는 겉보기에 아무런 시름도 없는 사람같이 공원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머리우에는 군청색 하늘이 끝간데없이 펼쳐져있고 밑에는 푸른 소나무숲이 우거져있었다.
슈틀리쯔는 걸음을 멈추고 청신한 공기를 한껏 들이켰다. 그속에서는 맑고 물살이 빠른 산골물의 특유한 냄새가 다분히 풍기였다.
그는 빙긋이 웃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제일 놀라운것은 지금 내가 거센 물살을 맞받아 뛰여오르는 산천어를 그려보는거지요. 당신은 산천어잡이를 좋아하오?》
《해보지 못하였소.》
《유감이군, 이건 정말 어느 사냥보다 더 재미있다오. 미끼도 필요없소. 물살 센 곳에 낚시를 잘만 던져넣으면 순간이면 팔뚝같은 고기를 잡아낼수 있다오. 하기에 산천어잡이에서는 서로 승벽내기가

대단하다오.》
《여기서도 누구인가 산천어잡이를 하는 사람이 있다더군.》
효틀은 슈틀리쯔가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나도 알고있소. 여기 당신들한테 있는 산천어는 크지는 않지만 색갈이 특별히 고운것 같더군. 붉고 푸른 화려한 반점은 꼭 자개문양을 박아놓은것처럼 곱지 않겠소. …난 한때 에스빠냐에도 가있었는데 거기서 풍경화를 그렸다오. 그곳 고기잡이풍경은 정말 볼만하지. 물고기를 그리기가 참 힘들다오. 내가 네데를란드사람으로 태여났더라면… 풍경화를 좋아하오?》
효틀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여 불을 붙이려 했으나 바람때문에 라이타를 켤수가 없었다.
《당신은 산보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나쁜 습관이 있구만! 기관지를 좀 아껴야겠소. 당신은 여기처럼 신선한 공기속에서 담배를 피우면 니꼬찐이 산소와 함께 제일 귀중한 페속에 스며든다는걸 모른단말이요. 담배를 피우지 않고는 못견디겠으면 집에 가서 실컷 피우는게 좋을것 같구만.》
《대좌, 난 그렇게는 못하겠소. 당신은 록음기를 틀어놓았소?》
《당신 아까 보지 않았소. 틀어놓지 않았소.》
《어디 한번 보기요.…》
슈틀리쯔는 주머니에서 록음기를 꺼내여 효틀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당신이 가지고있구려. 그게 더 안심되면말이요.》
《고맙소.》
효틀은 가죽잠바주머니에 록음기를 넣어버렸다.
《당신은 왜 네데를란드풍경화에 대하여 물었댔소? 〈히틀러박물관〉이 있는 갱도에 대하여 알고있기때문이 아니였소?》
《효틀, 사람들이 모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안하고 그속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것만 알아내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또 어디 있겠소.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보고 내가 〈총통박물관〉에 관심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했소?》
《당신은 나를 보고 풍경화를 좋아하는가고 묻지 않았소. 그래서 당신도 역시 〈총통박물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구나 하고 생각

하였던거지.》
《당신은 왜 〈나도 역시〉라고 말하오. 그럼 나를 내놓고도 또 누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건가?》
《그거야 게으른 사람이 아니면 다 관심을 가진다는 소리지.》
슈틀리쯔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였다.
《효틀, 당신은 나를 믿어 나쁠게 없을거요. 나는 광신자가 아니라오. 나는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는것도 알고있소. 이제 몇달내에 아니 몇주일도 안걸려서 끝장이 나고말거요. 당신은 지금 저 청맹과니같은자들이 나를 울바자밖으로 못나가게 통제하고있는것을 보고있겠지? 저자들은 당신을 의심하듯이 나도 의심하고있단말이요. 그래도 당신이야 낮이면 린쩨시내에라도 나갈수 있지 않소. 그러나 나는 그렇게도 못하고있으니 문제가 아니요. 그리고 내가 〈총통박물관〉에 관심을 가지고있는것만은 사실이요.》
《그렇다면 당신을 어떻게 리해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만.》
효틀은 깊은 홈타기에 가로질러놓은 좁다란 나무다리로 슈틀리쯔를 앞서 건네우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의심을 받고있다면 어떻게 이처럼 특수한 임무를 맡고 여기 칼텐브룬너의 별장으로 파견되였겠소? 당신은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구만. 하긴 나도 한때 당신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해본 때가 있긴 있었소. 에이흐만이 나를 자기 공작에 끌어들였댔는데 그때 그는 수용소에 갇힌 사람의 〈친구〉의 역을 놀고 나는 심문을 하면서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던거지. 제국안전총국에서 한두해 일해온것도 아니니 그러루한 수법이 허다하다는거야 나두 잘 알지.》
《옳게 말했소. 나도 동감이요. 효틀, 허지만 당신은 나를 믿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을것 같지 않구만. 나도 역시 당신을 믿을수밖에 없소. 난 지금 이런 가정을 해보오. 〈효틀은 칼텐브룬너의 승인밑에 서방을 위해 봉사하고있다. 칼텐브룬너는 벌써 오래전에 효틀이 이런 놀음을 놀고있다는걸 알면서도 눈감아주었다. 효틀은 어제도 칼텐브룬너에게 내 암호전문을 날려보냈을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갑자기 뛰여들었다고 통보하였을것이다.〉 어떻소. 내 가정이 틀리오?》
《당신은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와 사업하자는거요?》

슈틀리쯔는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겠소. 다른 길이야 없지 않소?》
효틀은 정말 그렇다는듯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하긴 다른 방도야 없지.…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나에게 리익이 된다해도 당신네 공작조가 여기에 왔다는것만은 칼텐브룬너에게 통보해야 할것 같구만. 당신에게 해로울것 같으면 당신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하겠소.》
《호상성을 하자는건가?》
《그렇지, 그렇구말구.》
《그러나 벌써 당신은 칼텐브룬너에게 우리가 왔다는걸 통보하지 않았소?》
《우리는 방금 호상성을 하자고 약속하지 않았소? 그러니까 아직은…》
《효틀, 내가 권고하네만 칼텐브룬너에게 보고하는것만은 좀 미루었으면 좋을것 같구만. 이건 당신에게도 유리할거요.》
《그렇게 노력해보지.》
슈틀리쯔는 효틀이 비록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칼텐브룬너에게 아직 보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으로써든지 보고할것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는가? 그리고 그림들이 어디에 보관되여있소?》 하고 슈틀리쯔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국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오.》
《그들이 여기에 들어온지 오래 되는가?》
《그럼 퍼그나 오래 되지.》
《미국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잘쯔부르그근방에 있네.》
《당신은 그들과 접촉해본적이 있소?》
《내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나와 접촉하고있지.》
《아, 그렇댔구만, 친구.》
슈틀리쯔는 이렇게 말하고나자 문득 자기가 뮬러의 말투를 본따고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만도 한 일이요. 지금은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두는것보다 당신이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있는 그런 때이니까.》

그러자 효틀은 단호히 머리를 저었다.

《아니요. 그들이 나한테 더 관심을 둔단말이요. 내가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지 못하면 거의 십억딸라에 달하는 그림과 조각품들이 보관되여있는 갱도가 폭파되고말테니까.》

《여보, 정신없는 소리는 하지도 마오. 그 귀중한걸 폭파한단말이요?》

《이건 총통의 명령이요. 소금갱도속에는 벌써 폭탄이 다섯개씩이나 들어가있고 폭파장치도 다 되여있다오.》

《그럼 폭파명령은 누가 내리게 되는가?》

《베를린이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총통이 내리든지 아니면 칼텐브룬너가 내릴수 있지.》

《보르만이 내리지 않는단말이요?》

《보르만이 내릴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는 칼텐브룬너가 내릴것으로 알고있네.》

《당신이 칼텐브룬너에게 영향을 주어 그러지 않도록 할수는 없겠소?》

《당신도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알텐데 그러는구만.》

슈틀리쯔는 피씩 코웃음을 쳤다.

《하긴 사람이라기보다 짐승이라고 하는 편이 더 낫지. 칼텐브룬너는 당신이 미국사람들과 접촉하고있는걸 알고있소?》

《그는 모르고있소.》

《당신은 그에게 이걸 털어놓을 생각은 못해봤소?》

《아직은 그런 생각을 못해봤소.》

《당신이 사실을 털어놓는다해도 아직 뒤주일은 더 있는게 좋겠소. 그는 무서운 광신자들중의 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밤에는 끝장이 났다고 지껄이다가도 다음날아침 날만 밝으면 목이 날아날것같아 총통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용서를 비는 속물들이란말이요. 당신이 그에게 모든걸 털어놓고싶으면 여기서 포소리가 울릴 때 하는게 좋겠소. 칼텐브룬너가 여기에 오려고 하겠지?》

《그거야 나도 모르지.》

《여기에 도망쳐올거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라구. 칼텐브룬너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도 그렇지만 히믈러나 게링그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소. 이들은 모두 총

통을 우상화하다가 거기에 깔리고말았소. 여기에 바로 이들의 비극이 있다고 볼수 있지. 당신이 칼텐브룬너에게 월프대장이 윱피찌(16세기 문예부흥기의 이딸리아화가)미술박물관을 구원해주겠다는 담보를 준 후부터 덜레스와 동등한 자격으로 한자리에 마주앉게 되였다고 말해주라구. 그리고 당신이 덜레스에게 칼텐브룬너가 좋은 사람이라는걸 말해줄수 있다고 슬쩍 건드려보오. 아마 덥석 받아물거요. 물에 빠진자가 지푸래기도 잡는다고 궁지에 빠지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는 법이거든. 당신이 그에게 영향만 줄수 있다면 이건 정말 당신을 불행속에서 구원해주게 될거요.》

그러자 효틀은 깊은 생각에 잠겨 물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것 같소? 당신이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앞날에 대하여 그처럼 명석하게 예언하는걸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수 있지 않겠소? 내가 힘자라는껏 해보기는 하겠소만 그대신 담보를 받아야겠소. 한마디로 말하여 나는 죽고싶지 않소. 대좌, 난 모든걸 할수 있소. 나한테는 훌륭한 가족이 있소. 나는 이 가족을 위해 에쓰에쓰에도 들어갔던거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나간 일들이 치욕스럽게 느껴지오.》

《효틀, 나에게도 역시 살아있는 당신이 필요하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리해관계가 일치된다고 볼수 있구만. 나에게는 이런 생각이 하나 있소. 정확히 말해서 이 생각을 가지게 된것은 당신이 잘쯔부르그근방에서 미첩보기관과 접촉한바가 있다는 말을 한 후부터였소. 당신은 이제 미국사람들과 접선하자는 약속을 해야 할것 같소. 당신은 미첩보기관 스위스지부와 련계를 가지고있겠지?》

《그렇소.》

《덜레스를 위해 일하오?》

《그건 누구게?》

《미첩보기관 스위스지부장이지.》

《내가 만났던 사람은 키가 크고 살갗이 검실검실한 사람이였소.》

《나이가 서른댓 되고 거만해보이지 않았소?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민족사회주의자들못지 않게 욕을 하고…》

《맞았소. 바로 그 사람이요.》
《그건 헤버니쓰였구만. 덜레스의 대리인인데 도이칠란드계 미국공민이요. 힘이 장사구 턱이 부르독같이 앞으로 쑥 나온게 보기만 해도 스산하지. 그래도 자기 일에서는 명수라고 하더군.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공작하는 사람들이 긴 전문을 날리게 하잔말이요. 그러면 아마 그 위치를 인차 알아낼거요. 그때 당신은 요헨, 윌리와 함께 앉아있고 나는 문건작업을 하겠소. 당신한테는 요헨이 발생된 사건에 대한 보고를 작성하면 더 좋을거요. 요헨은 매우 조폭한 사람인만큼 그와의 관계를 좋게 가지는것이 좋겠소. 무전을 그렇게 날리도록 조직할수 있겠소?》
《할수 있구말구.》
《그리고 스위스에 왜 아직도 나에게 대답을 주지 않는가고 물어볼수 없겠소?》
《그거야 뭐 어려울것도 없지.》
효틀은 벙긋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나한테 맞지 않는 대답을 받게 되면 일이 복잡해질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하오.》
《어떻게 말이요?》
효틀은 다시 긴장해지며 물었다.
《당신은 나를 미국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어야겠소.》
《여기서는 미국사람들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사람들이 일하고있단말이요. 나는 당신에게 그런 접선을 조직해주지 않겠소.》
《그게 절대적이요?》
《그렇소.》
《당신이 미국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지나 않겠는가 겁이 나서 그러오?》
《그렇소.》
《그럼 할수 없지. 요헨과 그의 동료들을 동원시켜 당신과 사업하도록 하는수밖에… 당신은 아마 한시간도 못되여 미국사람들과의 접촉을 조직하게 될거요.》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유익할게 뭐가 있소?》
효틀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당신에게 뭐라고 설명한다?》

슈틀리쯔는 벙긋 웃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면 내가 참나무잎 십자가와 감사를 받게 되겠지.》
슈틀리쯔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머리속에는 다른 생각이 번개쳤다.
(이자에게는 이런 롱담을 주고받을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아마 이제 나를 보고 미국사람들과 협력하는것이 얼마나 유익한것인가를 확신시키려 들것이다.)
효틀은 슈틀리쯔의 속생각을 알아맞히기라도 한듯 말문을 열었다.
《당신은 1943년에 무사의 십자가를 수여받았겠는데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소? 아마 그게 더 우환거리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지. 쓰딸린이 미국사람들에게 에쓰에쓰장교들을 처벌하기 위한 악법을 만들어내자고 강요하고있는판인데…》
《그렇소?! 듣고보니 그 말이 옳은것 같기도 하구만!》
슈틀리쯔는 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하늘은 아까보다 더 캄캄해졌다.
《우리가 산보한지 얼마나 오래됐소?》
《마침 잘 물었소. 저기 꾸르트가 우리 뒤를 따라오는구만.》
효틀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한 삼십분 지났군. 저렇게 나타난걸 보니 또 한가지 묻고싶은게 있소. 여기 게스타포밀정들중에서 누가 지하공작을 위해 남아있는가 하는거요.》
《그건 전혀 알수 없는 비밀이요. 주당책임자 아이그루버가 이 일을 직접 하고있으니까.》
《그는 병자가 아니요?》
《원, 병자라는게 무슨 소리요. 황소같이 건장한 사람인데.》
《나는 그의 정신상태를 념두에 두는거요. 연설할 때 눈물을 뚝뚝 떨구지는 않소? 총통을 위해 축배잔을 들 때면 너무 감동하여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아직도 승리할수 있다고 보는 광신자는 아니요?》
《그런 측면에서는 병자라고 볼수 있소. 그런데 광신증을 굳이 병이라고만 불러야겠소?》
《병이라고도 할수 있고 또 언제나 배신과 한걸음 사이를 두고있는

추악한 출세주의자라고도 부를수 있지.》

《그렇게 놓고보면 첫번째 이름이 옳을것 같소. 〈아이그루버는 병자다.〉라고말이요.》

《옳소. 그는 병자요. 효틀, 내가 당신에게 게스타포의 밀정들에 대하여 물은게 우연한것이 아니였소. 이제 우리는 공작을 벌려야 하오. 당신이 무전을 날린 후에 나는 요헨이 있는데서 당신과 담화를 가지게 될것이요. 담화에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건드리되 여기 주민들속에서 누가 의심스러운가 하는것까지 물을것이요. 그리고 누가 이 지대의 지형을 잘 알고있으며 누가 별장지역에 은밀히 접근하여 스위스와 련계를 취하고는 슬쩍 당신들에게 의심이 쏠리게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것을 물을테요. 알만하오?》

《알겠소. 그런 방향에서 노력해보겠소.》

《모름지기 당신이 오래전부터 증오하고있을 그 게스타포의 손으로 배신자를 한 뒤놈 감옥에 처넣는것도 당신의 성과로 인정될게 아니겠소.》

이때 꾸르트가 슈틀리쯔를 부르며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대좌, 상급에서 보낸 긴급전보요.》

《무슨 일이 생겼다오?》

슈틀리쯔는 걸음을 멈추고 대수롭지 않은 투로 물었다.

《글쎄 우리야 모르지. 하지만 압인이 눌려있는것을 보면 지급전보 같구만.》

슈틀리쯔는 효틀을 쳐다보며 피씩 웃었다.

《전보를 읽어보지 않았다는구만. 우리 사람들은 영국귀족들처럼 남의 일에 참견하는것을 신사답지 못한 행동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요. 그럼 가자구. 이야기는 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내가 한 뒤시간후에 당신을 기다리겠소. 참, 당신 가족들은 어디에 있소?》

《린쩨시내에 살고있다오.》

효틀은 꾸르트의 얼굴에서 겁에 질린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게 사실이요?》

슈틀리쯔는 일순 낯색이 흐려지며 물었다.

《거기가 아니면 또 어디서 살겠소?》

슈틀리쯔는 이번에는 꾸르트를 보고 물었다.

《꾸르트, 여기 일군들의 가족들이 어디서 살고있소?》

《모두 집에서 살고있지.》
꾸르트는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뮬러가 칼텐브룬너일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내비쳐보였다.
《하긴 집에서 살지 밖에서 살기야 하겠소.》
슈틀리쯔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였다.
《커피를 마시고싶구만. 뜨끈한 커피말이요. 요헨이 끝내 코를 고는걸 보면 교판이 코골지 않는 법을 채 배워주지 못했던 모양이지.》
《그렇소. 듣자니 당신은 침실에서 나와 아침까지 식당에 앉아있었다면서?》
꾸르트가 하는 말이였다.
효틀은 슈틀리쯔쪽으로 눈길을 돌려 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보매 슈틀리쯔를 감시하고있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모양이였다. 그의 입가에 가벼운 미소가 어려있었다.
《효틀, 내가 기다리겠소. 우리는 아직 좀 더 일을 해야 하겠소.》
슈틀리쯔가 이렇게 말하자 효틀이 대답했다.
《이제 곧 오겠소. 하일 히틀러!》
효틀이 저만큼 물러가자 슈틀리쯔가 다시 그를 불러세웠다.
《친구, 그 록음기를 돌려주게. 내가 깜빡 잊었댔군.》
꾸르트는 실눈을 짓고 두사람을 번갈아보며 모를 일이라는듯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슈틀리쯔는 꾸르트의 행동으로 보아 이자들이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할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꾸르트와 그 일행이 뮬러로부터 암호편지를 받았던것이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슈틀리쯔는 당신들의 사업에 대하여 다 알고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소?》
슈틀리쯔는 동료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는 이자들이 전문을 이미 다 읽었으리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할게 있는가. 지시를 달라고 해야지.》
윌리가 하는 말이였다.
(혹시 이자들이 연극을 놀고있는게 아닐가? 꾸르트는 공원에서 효틀에게 붙여놓고 윌리는 여기서 음모를 꾸미고… 그러면 무슨 의미

에서 그렇게 한단말인가? 내가 포위속에 들어있고 뮬러의 공작대상으로 되고있다는거야 명백한 사실인데야. 뮬러는 무엇을 얻자는건가? 그는 시간도 없을텐데 또 무슨 음모를 꾸미자는건가?)

슈틀리쯔는 갑자기 꾸르트에게 몸을 돌리며 물었다.

《당신은 나한테 뮬러가 보낸 편지를 읽어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런데 윌리가 나한테 보낸 전보를 함부로 뜯어본단말이요?》

그러자 윌리는 바삐맞아 변명해나섰다.

《누구도 전보를 읽어본 사람이 없네. 내가 그저 당신이 묻는 말을 듣고 추측해서 말했던거지.》

《난 두번씩이나 읽어봤소.》

이번에는 요헨이 말하였다.

《그래서 내가 바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었던거요.》

슈틀리쯔는 성이 나서 말하였다.

《윌리의 말이 옳아. 지시를 받아야지.》

요헨은 굽어들 잡도리가 아니였다.

《어쨌든 효틀과의 사업이나 끝내고보기요.》

《미안하네만 그 록음테프나 좀 돌려주지.》

요헨은 슈틀리쯔의 얼굴표정을 깐깐히 살피며 말하였다.

그러자 슈틀리쯔는 성이 나서 골살을 찡그리며 내쏘았다.

《여보게, 사람을 머저리로 취급하지 말게. 자네가 효틀앞에서 록음기를 내놓으면서 효틀과 한 말을 록음하라고 하니 그래 사업에 대한 말을 하겠나말이요.》

요헨도 결코 지려고 하지 않았다.

《왜 못한다고 그러오. 얼마든지 할수 있지. 우리는 효틀이 자기 말을 록음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을 때의 말투와 상대자가 자기를 믿고 말한다는것을 느끼고 할 때의 말투를 비교하기 위해 꼭 록음해야 한단말이요.》

《여보, 우리한테는 그렇게 빙빙 돌아갈 시간이 없소. 우리가 맡고있는 임무에 비추어 알아야 할것만 알면 그만이요. 알겠소?》

《그건 당신이나 할 일이지 우리는 당신을 보호할 임무밖에 지닌것이 없소.》

《그렇다면 자기 일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남의 일에 참견하는거요.

나를 지켜주는 일이나 하면 될터인데.》
슈틀리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윌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여보, 나를 무전수들한테 좀 안내해주오.》
뮬러는 저녁녘에야 겨우 시간을 내여 슈틀리쯔가 보낸 전보를 읽을수 있었다. 낮에는 에쓰에쓰비밀조직 아지트들을 돌아보고 칼텐브룬너에게 찾아갔다.
칼텐브룬너는 무엇때문에 게스타포공작조를 알트 아우스제에 보냈는가고 묻고나서 이 공작조가 제국안전총국 지방조직을 도와주는 일을 맡아서 해야겠다고 말하였다. 칼텐브룬너는 자기 별장에서 멀지 않은 산간지대에 빨찌산들이 나타나 활동하고있는데 이것으로 하여 총통이 매우 불안해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검토해보아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작정형에 대하여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는것은 물론이고 총통에게까지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일장 훈시를 주고나서 뮬러에게 물었다.
《거기서 누가 책임지고 공작하고있소?》
《슈틀리쯔대좌가 공작하고있습니다.》
《그건 누구요?》
《6국 대좌입니다.》
《왜 첩보기관에서 게스타포의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가?》
《슈틀리쯔는 누구보다도 능력있는 일군이기에 파견했습니다.》
때마침 게링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뮬러는 잠시나마 이 불쾌한 담화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게링그는 스웨리예민용항공기를 어느 정도 리용할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칼텐브룬너는 즉시 류프트바페항공부대들을 담당하고있는 제국안전총국의 해당 일군들을 자기한테로 불러들이였다. 뮬러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칼텐브룬너는 게링그의 매 물음마다에 어떤 간계가 스며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게링그가 총통을 비난하는 말만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히틀러는 이전처럼 게링그를 대하지 않았고 그들 둘사이의 관계는 날을 따라 어성버성해갔다.
히틀러는 주위의 영향을 받아 게링그에 대한 믿음이 점차 식어져갔다. 지금은 게링그가 무슨 말을 하고있는지 알수 없었고 더우기

히틀러는 그가 하는 뒤소리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견할수 없었다.
뮬러는 다시한번 슈틀리쯔의 전보를 읽어보았다.
《소좌 효틀은 삼일이내로 일련의 흥미있는 자료를 준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공작을 계속할수 있다고 본다.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
뮬러는 송수화기를 들고 무전대를 찾은 다음 이렇게 불러주었다.
《알트 아우스제. 슈틀리쯔 앞. 사업정형을 즉시 보고하라. 삼일동안 기다릴수 없다. 뮬러.》
효틀은 다섯시간가량 지나서야 슈틀리쯔를 찾아왔다. 두사람은 다시 공원길에 나섰다. 슈틀리쯔가 눈짓으로 외투주머니를 가리키자 효틀은 록음기가 동작하고있다는것을 제꺽 눈치챘다. 그는 무슨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최근 몇달사이에 미국인 두명이 자주 칼텐브룬너의 별장주변에 나타나군했는데 그때마다 상부오스트리아 주당책임자 아이그루버는 이에 대하여 보고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헌데 두번에 걸친 그들의 행동은 확실히 의심스러웠다고 효틀은 말했다. 날도 어두웠는데 전지불도 없이 무엇때문에 별장주위를 돌아쳤는가 하는것이였다. 바로 이때를 전후하여 이상한 전파가 여기에서 날아갔다는것이 알려졌다.
슈틀리쯔는 눈짓으로 아직 록음테프가 채 끝나지 않았으니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알리였다. 효틀은 머리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슈틀리쯔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나서 소곤소곤 귀속말로 물었다.
《칼텐브룬너는 이 통보를 받고 뭐라고 하던가?》
그러자 효틀은 아침에 슈틀리쯔가 알려준대로 대답했다.
《아이그루버는 공연히 칼텐브룬너에게 좋지 못한 소식을 보내여 그의 신경을 건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통보하지 말라고 하더구만.》
슈틀리쯔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록음기에서 까륵까륵 소리가 나는걸 보니 테프가 끝난것 같았다.
《끝났소.》
슈틀리쯔는 후- 안도의 숨을 내쉬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효틀, 내가 무전수들한테 가서 알아보았는데 스위스에서 전문이

온게 없다는구만. 덜레스가 침묵을 지키는 모양이요. 그러니까 이젠 별수 없소. 당신이 미국사람들과의 접촉을 조직해줘야겠소.》

《그건 불가능하오. 저 사람들이 당신을 감시속에서 놓아줄것 같소?》

《옳은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공원안의 대문옆에서 만나자는거요. 당신은 사람들을 몇명이나 데려올수 있을것 같소?》

《대좌,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구만.》

《효틀, 뭘 모른다는거요. 아주 간단한건데. 당신이 자기 사람들을 데려오면 우리 공작조원들을 쏴죽여버리고 경비성원들도 철수시키잔말이요. 그리고는 모두 함께 산으로 들어가버리면 그만이 아니겠소. 당신 가족들은 오늘중으로 어디든지 멀리 보내잔말이요. 그들이 집에 있어야 할 일도 없겠는데…》

《그건 너무 모험적인데가 있어보이는구만.》

《물론 그렇소. 그러나 안해와 자식들을 인질로 잡아두는거야 더 모험적이지. 당신은 우리 공작조가 여기에 놀러오지 않았다는걸 알고있지 않소. 내가 아니라해도 다른 사람이 당신의 손목을 잡을거요. 다른 사람이면 아마 당신의 안해와 아이들을 지하실에 가두어넣고 그들에게 무서운 고통을 안기는것으로부터 시작할거요. 당신이 보는데서말이요.》

《좋소, 그럼 내가 오스트리아지하공작조를 통해 덜레스에게 문의해보지. 그런데 뮬러가 이 공작조가 사용하고있는 전신부호를 알아내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뮬러가 그걸 밝혀냈더라면 당신은 벌써 화장터의 연기가 되여버린지가 오래 되였을거요.》

슈틀리쯔는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자기가 실수를 저질렀다는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효틀은 슈틀리쯔에게 칼텐브룬너별장에 대한 습격을 조직하기로 약속하고 자기는 오늘밤에 진행할 작전준비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꾸르트들이 들어있는 침실을 찾아갔다. 거기서 그는 또 유태인들이 즐기는 시큰둥한 소리를 몇마디 하고는 다음날 진행할 사업을 토론한 다음 린쩨시내로 떠나갔다.

효틀은 린쩨에서 칼텐브룬너와 련결된 직통전화로 상관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공작조가 흔적을 밟고있습니다. 이자들을 여기서 모조리 잡아치워야겠습니다.》

효틀은 자기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방금 예비선을 통하여 받은 덜레스의 지시를 집행하였다고 생각했다. 덜레스가 효틀에게 보낸 암호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다.

《당신에게 협박을 가하여 로씨야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암호전문을 나한테 보내온 그자를 없애치우라.》

칼텐브룬너는 효틀이 서방과 련계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효틀 역시 칼텐브룬너가 일정한 기간 자기의 보호자가 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효틀은 린쩨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꼬냐크잔을 기울이고있었다.

그러나 취하게 마셔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줄곧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칼텐브룬너에게 전화를 걸고나자부터 이처럼 행동이 조심스러워진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라앉힐수가 없었고 까닭모르게 무서운 생각만 자꾸 갈마들었다. 가족들을 인질로 남겨놓는 모험을 하려는가고 하던 슈틀리쯔의 목소리가 사뭇 귀전을 울리는것만 같았다.

효틀은 누가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고 조언을 주어야지 자기 혼자서는 이 무시무시한 정황을 헤쳐나갈것 같지 않았다. 손을 만져보니 싸늘하게 식어서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내뱄다.

효틀은 무거운 마음을 달래볼 생각으로 녀편네를 보고 주패놀이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주패놀이도 인차 싫증을 느끼게 되자 그는 수면제알약 두알을 삼키고 자리에 드러누웠다. 잠이라도 자서 무서운 생각에서 벗어나보려는것이였다.

칼텐브룬너는 자정도 훨씬 넘어 뮬러에게 전화를 걸었다.

《뮬러, 내 말을 좀 듣소. 나는 어쩐지 알트 아우스제 형편이 께름직하구만. 공작조를 지금 당장 철수시켜 낮에 여기에 도착하도록 해야겠소.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고 적의 무전수를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함께 토론해보자는거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내가 인차 슈틀리쯔에게 전보를 날리

겠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전보를 안보내고 먼저 보르만을 찾아 지하대본영으로 향하였다.
보르만은 묵묵히 뮬러의 말을 듣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칼텐브룬너 역시 자기대로 놀음을 놀고있단말이지. 정직한 사람은 검토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요.… 슈틀리쯔가 잘했소.》
뮬러는 보르만을 만나고나서야 비로소 요헨에게
《이제 곧 슈틀리쯔를 데리고 나한테로 떠나오라.》라는 전보를 날리였다.

진리를 깨닫는 비극적이고 비범한 능력

루즈벨트대통령은 자기 보좌관 호프킹스로부터 최근 전략정보국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고 전략정보국장 도노완이 백악관에 올려보낸 통보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빼버리고 어떤 부분을 슬쩍 건드렸으며 또 어떤 부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가를 제꺽 알아차렸다. 대통령은 해군담당 부관을 보고 쓰딸린과 주고받은 서한철을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자기가 보낸 서한과 로씨야수상의 대답서한을 읽어보았다. 그리고나서 도노완이 기록한 덜레스와 에쓰에쓰대장 월프사이의 회담내용과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기 친구이며 보좌관인 호프킹스가 작성한 자료를 대조해보았다. 순간 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것을 느꼈다.
(마치 내가 할머니한테 묻지도 않고 귤쨤을 훔쳐먹었을 때의 심정이군.—하고 루즈벨트는 생각했다.—집에서는 그것을 크리스마스날에 쓰려고 보관해왔는데 나는 11월에 벌써 훔쳐먹어버렸지. 집식구들이 이것을 알게 되자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활딱 붉히였지.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당한 일이였다.)
대통령은 부관을 쳐다보며 간청하듯 말했다.

《부관, 오늘은 어쩐지 눈이 피로해서 글을 보기가 힘들구만. 수고스러운대로 로씨야수상과 주고받은 서한들을 좀 읽어주게. 내가 이 대화의 대략적인 말투를 알아야 로씨야수상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회담에 대한 나의 립장도 밝힐수 있고 또 베른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 여기 도노완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리해가 부족하여 모스크바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고 어느 정도의 사죄도 할수 있을것 같구만.》

부관은 안경을 끼고 목소리를 높여 고르로운 어조로 읽기 시작하였다.

(대통령은 언제나 이렇게 고르롭게 읽는것을 좋아하였다. 그는 감정을 넣어 읽으면 때로는 말 의미가 왕청같이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공화당출신 대통령후보자 듀의 선거전연설만 들어봐도 뭐라고 열변을 토했으나 정작 글로 쓴 그의 연설을 읽어보면 아무런 내용도 없는 허황한 소리뿐이고 결백하지 못한 사람의 손으로 씌여진 부기문서와도 같았다.

《루즈벨트대통령귀하,

나는 당신이 서한에서 나에게 제기한 질문을 분석해보고 쏘련정부가 도이췰란드군의 항복조항과 영미군에게 북부이딸리아전선을 열어주는 문제와 관련한 베른회담에 자기 대표 파견을 거절당한 후 대답을 줄수 없다는것을 인정하게 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회담에 참가하는것을 반대하지 않을뿐만아니라 도이췰란드군내부의 혼란된 정세를 리용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적들의 항복을 촉진시키며 도이췰란드놈들이 동맹군에게 전선을 열어주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동부전선의 오데르강류역에서 도이췰란드놈들의 항복조건이 조성되고 쏘련군대에게 전선을 열어주는 정세가 조성되면 지체없이 영미군사령부에 이에 대하여 통보하여주고 회담에 참가할 대표를 파견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동맹국들사이에는 이런 문제에서 호상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쓰딸린으로부터.》

《계속하게.》

루즈벨트는 부관을 보고 재촉했다.

《쓰딸린원수귀하,

내가 반복하여 말하지만 베른에서 만나자고 하던 유일한 목적은 권위있는 도이췰란드장교와 접촉해보자는것이지 결코 그 어떤 회담을 가지자는것이 아니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히믈러와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한 도이췰란드장교의 발기에 의하여 시작된것이였습니다. 물론 이 장교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우에서 나는 현정세와 나의 의도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당신이 자기 서한에서 표현한 위구심을 해소시켜주리라고 믿습니다. 루즈벨트대통령으로부터.》

《도노완은 나에게 에쓰에쓰 고위급장령을 〈도이췰란드장교〉라고 했네. 나도 그렇게 믿었던거지. 지금 쓰딸린의 서한을 받고보니 도노완의 말이 거짓말이였소. 수치요, 수치. 자, 또 계속하라구.》

루즈벨트는 부관에게 말하였다.

《루즈벨트대통령귀하,

베른에서의 회담문제에 관한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미군사령부와 도이췰란드군사령부사이에 베른이 아니면 어느 다른 곳에서 회담이 진행되였을수 있다는 소문이 떠돎으로써 〈불신임과 위구심이 생겨나고있다.〉고 한 당신의 말은 전적으로 옳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직 어떤 회담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보매 당신에게 통보를 잘해주는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근거를 가지고있는 우리 군인들은 도이췰란드와의 회담은 이미 진행되였으며 협정까지 체결되였다는것을 의심치 않고있습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도이췰란드군 서부전선사령관은 영미군이 동쪽으로 이동할수 있도록 전선을 열어주며 영국과 미국은 그대신에 도이췰란드에 유리한 방향에서 정화조건을 제기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나는 베른이 아니면 그 어느 다른 곳에서 진행된 단독회담으로 하여 영미군이 일정한 리득을 보고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지금 영미군은 도이췰란드군으로부터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도이췰란드땅 깊이 들어오고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회담결과에 얻어진것이 아니란말입니까? 그런데 무엇때문에 자기 동맹자인 로씨야측에 이것을 감추고있는가 하는것입니다.

지금 도이췰란드는 서부전선에서 영국과 미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사실상 중지하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이췰란드는 영국과 미국의 동맹자인 로씨야와는 전쟁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은 우리 나라들사이의 신임을 강화보존하는데 기여할수 없다고 봅니다.
내가 전번 서한에서도 썼지만 이번에도 역시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우리의 립장을 천명하게 되는바 내자신과 나의 동료들은 눈앞에 보이는 리득이 아무리 매혹적이라 할지라도 동맹자들사이의 신임을 보존강화하는데 저촉된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모험적인 길은 걷지 않을것입니다. 쓰딸린으로부터.》
《쓰딸린이 한 말이 그른데가 없나보오. 덜레스형제의 변호사회와 도노완의 전략정보국이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리득을 보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내가 여러해에 걸쳐 겨우 쟁취한 쓰딸린의 신임을 다 잃게 만들었소. 또 계속하게!》
《각하, 피곤하지 않습니까?》
부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아니요. 어서 계속하오.》
《쓰딸린원수귀하,
나는 알렉산더원수와 도이췰란드군 서부전선사령관사이에 베른에서 협정이 체결되였다는 당신의 서한을 받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당신은 서한에서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영미군은 동쪽으로 들어올수 있게 되였고 그대신 영국과 미국은 도이췰란드에 유리한 정화조건을 제기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낸 지난번 서한들에서 이딸리아에서의 도이췰란드군의 항복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회의를 베른에서 조직할 목적에서 조건부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통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베른에서는 어떤 회담도 진행된것이 없으며 둘째로 이러한 접촉은 정치적성격을 띠지 않으며 셋째로 이딸리아에서의 적군의 부분적항복이 이미 합의한 무조건적인 항복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넷째로 항복문제를 토론하는 어떤 회의든지 쏘련장교들이 참가하면 환영받을것이다.
나는 베른에서 어떤 회담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있는 정보는 우리들사이에 알륵을 조성하고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모면해보려는 도이췰란드놈들이 제공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일 월프가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

였다면 당신의 서한은 월프가 어느정도 성공하였다는것을 증명하여 줄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자신을 믿고있을뿐만아니라 당신과 함께 나치스를 무조건 항복시키고말려는 나의 결심을 믿고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는것만큼 쏘련정부에서 내가 당신의 동의도 없이 적들과 타협하고있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데 대하여 놀랍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나는 승리를 눈앞에 바라보고있는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의심과 불신임이 그렇지 않아도 커다란 인적, 물적손실을 당한 우리들에게 모든 면에서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다주겠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력사에서 가장 큰 비극들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나의 행동과 그리고 내가 신임하고있는 아래 일군들의 행동에 대하여 이처럼 너절하고 비렬한 말을 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가 누구든 관계없이 당신의 통보자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습니다. 루즈벨트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은 사뭇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부관에게 물었다.

《어딘가 옹색하게 생각되지 않소? 생각해보라구. 나를 어떤 처지에 몰아넣었나? 또 계속하게.》

《루즈벨트대통령귀하,

나는 서한에서 그 어떤 정직성과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정직성과 믿음에 대하여 한번도 의심한적이 없습니다. 역시 쳐칠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것은 서로 서한을 교환하는 과정에 우리들사이에 견해상 차이가 나타나고있다는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한 동맹자가 다른 동맹자에 대하여서는 허용할수 있으나 자기자신에 대하여서는 허용해선 안될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견해에서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 로씨야사람들은 적들이 불가피한 멸망에 직면한 오늘의 전선형편에서 어느 한 동맹국대표들이 도이췰란드사람들과 항복문제를 가지고 만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접촉에 다른 동맹국대표들도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로씨야의 견해가 옳지 않은것으로 보면서 이와는 달리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은 스위스에서 진행된 도이췰란드대표들과의 접촉에 쏘련대표가 참가하는것을 거절하였던것입니다. 내가 이미

당신에게 써보낸바와 같이 로씨야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이와 류사한 접촉에 영국과 미국대표들이 참가하는것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로씨야의 이러한 견해가 호상간의 의심을 해소시켜주며 적들로 하여금 우리들사이에 불신임을 조성할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유일하게 정당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통보자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정직하고 순박한 사람들이며 자기 임무에 성실하고 남을 모해할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것을 말해야 할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실천을 통해 검열된 사람들입니다. 쓰딸린으로부터.》

《이것 보라구. 근시안적인 탐욕과 로씨야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인 비우호적인 태도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폭발화약으로 될수 있지 않나. 내가 지금껏 믿어오던 사람들에게 무슨 망신을 당했나보오. 이제 생각해보니 호프킹스가 나에게 아래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말하는걸 밀막아버린것이 가슴에 맺힌단말이요.… 부관, 이젠 그만 읽고 내가 부르는걸 받아쓰라구. 괄호를 열게.》

《쓰딸린원수귀하,

나는 당신이 이제는 아무런 리득도 가져다주지 못한채 지나가버린 베른사건에 대한 로씨야의 견해를 솔직히 설명해준데 대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호상간에 불신임이 있어서는 안되며 앞으로는 비록 사소한것일지라도 이러한 형태의 불화가 생겨서는 안될것입니다.

나는 우리 군대들이 도이췰란드에서 련계를 맺고 일치한 공격을 들이댄다면 도이췰란드군은 붕괴되고말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945년 4월 12일
루즈벨트대통령으로부터.》

《마지막에 점을 찍고 괄호를 닫게. 이게 아마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일치고 전부인것 같네.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차츰 로씨야사람들이 나를 리해할걸세.》

대통령은 부관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이것은 루즈벨트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수표를 남긴 문건이였다. 바로 그날 대통령은 뜻하지 않게 죽고말았다.

붉은군대의 공격과 그 결과 (1)

물리적현상에서 흔히 말하는 물체가 《부서진다》는 개념은 1945년 4월 16일에 있은 일들을 념두에 두어도 틀리지 않을것이다. 이날 쥬꼬브의 군대는 수천개의 탐조등을 걸어놓고 오데르강대안에 저지선을 치고 엎드려있던 도이췰란드군에게 일시에 포탄과 폭탄벼락을 들씌웠다. 순식간에 적의 방어선은 부서져버렸다. 붉은군대의 공격이 있기전 순간까지 강 저쪽에 살아있던 모든것들이 와르릉 무너져내리며 열기띤 흙먼지기둥이 하늘로 솟구쳐올랐다. 도이췰란드제국은 마지막지탱점을 잃고 무너져갔다.

구데리안을 대신하여 총참모장자리에 들어앉은 크렙쓰의 방안에 주런히 놓여있는 전화기들이 그칠새없이 련속 종을 울렸다. 오데르요새에서는 매 십오분마다 정황을 보고하였다.

크렙쓰는 방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댄채 벽에 걸린 작전지도를 들여다보고있었다. 뒤에서 웅성웅성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귀전에 들려왔다. 그들은 조금도 저어하는데가 없이 내놓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크렙쓰는 누군인가 자기 부관에게 하는 소리를 더 똑똑히 가려들을수 있었다.

《아니, 그래 미국사람들이 먼저 들어오지 못한단말인가?! 그들은 지금 엘바강까지 와있는데 전선도 열려있겠다, 땅크들도 지척에 와있는데 왜 못들어오는가? 혹시 그들이 베를린에 먼저 들어오지 않으려는게 아닌가?》

크렙쓰는 돌아서서 참모부장교들속에 있는 자기 부관에게 말하였다.

《부관, 총통의 대본영과 전화를 련결시켜주게. 아무래도 총참모부를 어디로 옮겨야겠는지 알아봐야겠소. 내 의견은 여전히 베흐테스가덴에 총참모부를 옮기자는거요. … 부관, 힘들지 않으면 흰포도주병도 좀 가져오게.》

부관은 송수화기를 들고 총통의 지하대본영을 찾았다. 부르흐돌프가 전화를 받았다. 그는 총참모부 철수문제가 나오자 희떱게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베흐테스가덴으로 옮겨가는 문제는 실천적으로 종지부를 찍으나 다름없소. 총통의 생일축하연에 초대되였다고 알려나주오.》

4월 19일 저녁 보르만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군사회의》참가자들이 헤여져 돌아간 후 총통의 사무실에 남아있었다. 보르만은 요즈음 총통과 단 둘이 만나기도 조련치 않았다. 도이췰란드제국 정부청사밑에 건설된 지하대본영에는 륙십여개의 방이 있었다. 이것이면 많다고도 볼수 없고 적다고도 볼수 없었다. 금년 1월까지만해도 여기에는 경비성원들밖에 없었다. 그때 히틀러는 동프로씨야의 《승냥이굴》에 가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가 여기 지하대본영으로 옮겨온 후부터는 지어 복도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까지 에쓰에쓰친위대성원들이 북적거렸다. 히틀러의 친위병들은 한결같이 키가 두메터이상 되고 금발머리에 눈알이 새파란 젊은이들이였다. 젊은 친위병들은 장령들이 옆으로 지나가도 거들떠보지 않고 제멋대로 웃고 떠들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음탕한 이야기나 하는것이 전부였다. 다만 히틀러가 들어있는 방 주위만은 정숙했다.

히틀러의 이 마지막은신처는 집무실, 침실, 응접실 두개, 목욕탕으로 이루어져있었다. 그리고 집무실에는 회의실이 곁달려있고 멀지 않은 곳에 총통이 애용하는 개가 사는 방이 있었다. 이 방에서 좀 웃쪽으로 치우쳐 자그마한 여덟개의 방이 한줄로 놓여있었는데 여기에는 최신식 통신대가 자리잡고있었다. 이밖에 히틀러 주치의사와 개인교수가 들어있는 방과 베를린방어전권위원인 겝벨쓰의 참모부가 사용하는 방 여섯개를 내놓고는 가까이에 취사장과 채식을 즐기는 히틀러의 식사를 보장하는 료리사가 들어있는 방이 있었다.

장교들과 심부름군들이 사용하는 식당은 따로 있었다. 여기서부터 안쪽계단을 밟아올라가느라면 정원이 나진다. 그리고 이 계단을 따라 얼마간 올라가다가 옆으로 치우쳐 로렌스가 책임자로 있는 공보쎈터가 나진다. 보르만의 집무실은 여기에 나란히 붙어있었다. 그 옆방들에는 히틀러대본영에 주재하는 히믈러의 대표 피겔랴인(그는 히틀러의 애첩 브라운의 동생과 결혼하였다.), 클라우스대좌, 해군제독 포쓰, 히틀러대본영주재 외무성대표 화벨박사, 히틀러의 군대부관 요한 마이어소좌, 히틀러의 비행사들, 대본영주재 선전성대표 나우만 등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또한 장령 부르흐돌프를 비롯한 군사

정탐그루빠들과 장령의 부관 와이스의 방과 크렙쓰의 집무실도 있었다. 이 좁고 침침한 지하은페부에서는 지금 칠백명도 넘는 인간들이 한데 몰켜서 악마구리 끓듯했다. 하기에 총통과는 그의 집무실에서만 만날수 있었다. 여기서는 모든것이 무너져가고 부서지고있는 바깥세상과는 아무런 련관이 없는듯 선풍기가 한가하게 돌아가고있었고 여전히 엄격한 질서가 유지되고있었다.

바로 여기서 보르만은 자기가 지금껏 《천재》로, 《민족의 위대한 아들》로, 《천여년의 력사를 가진 도이췰란드제국의 창건자》로 불러오던 총통을 희생시켜 실현해보려던 자기의 구출계획을 실천에 옮길 결심이였다. 그는 벌써 금년 3월달에 이 계획을 구상하였었다. 총통은 기뻐서 그러는지 슬퍼서 그러는지 모를 이상야릇한 미소를 입가에 짓고 보르만을 바라보았다.

《총통각하, 나는 언제나 각하에게 아무리 가혹한것이라 할지라도 진실만을 말해왔습니다.》

보르만은 목소리를 낮추어 엄숙하게 말을 했다.

사실 보르만은 한번도 진실을 말해본적이 없었다. 그는 다만 총통이 듣고싶어하는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알아맞혀가지고 주위사람들의 말과 신문, 방송을 통해 들은것을 리용하여 앞질러가며 조직해놓군 하였을뿐이였다. 히틀러는 보르만이 하는 말에 쉽게 수긍하였다. 보르만은 잠시 끊었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나는 민족의 장래를 위한 결정적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지금 이 순간 각하에게 몇가지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소, 보르만, 그렇다면 이야기하오.》

《각하, 나도 역시 각하와 마찬가지로 승리를 굳게 확신합니다.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든지간에 꼭 오고야말것입니다. 지금 시내에서는 게스타포 특수재판이 벌어지고있는데 적들에게 매수된 비겁분자들과 도주자들을 현지에서 총살하고있습니다. 군대와 당에서도 이들과 손을 잡고 이 일을 집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격한 질서가 서가고있습니다. 헌데 도이췰란드제국의 거대한 령토가 북쪽에 놓여있고 한때 령토의 남쪽부분이 우리한테서 떨어져나간적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매우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오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일한 방도가 총통께서 히믈러에게 급히 북쪽으로 떠나가 거기에서 민족의 투쟁을 지휘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나는 각하께서 게링그를 남쪽으로 보내여 알프스 보루에 의거하여 싸움을 지휘하게 하는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각하,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 각하께서는 민족이 당신을 하느님이상으로 떠받들고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민족에게서 하느님을 빼앗을수는 없지만 민족이 위협을 당할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르만,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만.》

히틀러는 약간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보르만은 총통이 자기 말을 리해하고있다는것을 제꺽 눈치챘다.

《각하께서는 여기 베를린에 남아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싸움을 지휘하든가 수도의 주민들과 함께 최후를 마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민족에게 커다란 고무와 힘을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겝벨쓰는 총통께서 이 세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동요하고 사기가 저락되여있는 사람들을 더 놀래우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만일 모든 도이췰란드사람들의 힘을 투쟁에 동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보르만이 히틀러를 떠보는 소리였다. 겝벨쓰가 이런 생각을 감히 입밖에 낼리가 없는것이다. 보르만은 이것을 히틀러의 머리속에 굳게 못박아놓고 《놀람》이요, 《압력》이요 하는 말로써 잘 위장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겝벨쓰에게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가 자기 선전성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제의를 감히 각하에게 하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의 이런 생각을 각하에게 전하는 것자체가 모험적인것 같습니다.》

《보르만, 당신은 겝벨쓰의 생각이 무슨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오?》

《난공불락의 알프스요새가 각하를 기다리고있고 각하께서 아무때건 베를린을 떠날수 있는만큼 그러한 극단한 행동, 그러한 정치적모략이 전혀 무익한것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르만은 히틀러를 빤히 마주 쳐다보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좋소, 내가 그런 의미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겠소.》

히틀러의 눈에는 갑자기 본래의 잔인한 빛이 번뜩이였다.

《사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것이 적들의 손아귀에 걸려드는것이요. 나를 잡으면 아마 적들은 쇠살창에 가두어넣고 이 세상 어디건 줄곧 끌고다닐거요. 그렇소. 그렇소, 보르만, 나는 그 악한들

을 알고있소. 보르만, 정말 내가 죽는것이 더 의의있지 않겠소?》
히틀러는 보르만의 마음을 떠볼 생각으로 이렇게 물었다.
《총통각하, 그런 생각 마십시오. 요즘 내가 시내에 나가보았는데 사람들의 결심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적들을 몰아내고 기어이 승리를 이룩하고야말 결심에 차넘쳐있습니다. 베를린사람들은 쾌활하고 긍지에 넘쳐있으며 전주대에 매달린 변절자들의 시체에 침을 뱉고있습니다. 오늘 민족은 그 어느때보다 굳게 단결되여있습니다. 그러니 승리는 반드시 오고야말것입니다. 각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잘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히틀러는 벙긋이 웃으며 마음이 놓이는듯 머리를 끄덕였다.
《좋소, 보르만, 내가 소심성을 나타내는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줄테요.》
보르만이 나들문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뒤에서 히틀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당신이 확신하고있는 그 승리가 오지 않으면 나는 제가 한 말을 실행해야 하지 않을가?》
보르만은 몸을 홱 돌리였다. 히틀러는 오른손으로 가볍게 떨리는 왼쪽팔을 주무르면서 보르만을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눈길에는 무시무시한 옛말을 들으면서 이야기의 주인공의 운명이 어떻게 될것인가 미리 알고싶어하고 그 운명이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는 어린 아이들처럼 애절한 그 무엇이 어려있었다.
보르만은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만일 종말이 다가오면 나는 각하의 눈앞에서 총으로 자살하고 말겠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운명이 각하와 굳게 련결되여있을진대 각하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내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것은 응당한 도리라고 봅니다.》
《보르만, 지금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오?》
히틀러는 말머리를 딴데로 돌리며 이렇게 물었다.
보르만은 이 물음에 흠칠 몸을 떨었다. 그는 길가에 나딩구는 수천의 시체들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이들, 등이 굽은 창백한 얼굴의 로인들, 한덩어리의 빵을 바라면서 상점옆에 줄지어선 사람들, 폐허로 변해버린 주택들, 길바닥에 생겨난 폭탄구뎅이들, 《나는 승리를 믿지 않는다!》라는 글이 씌여있는 판자쪼각을 가슴

에 걸고 전주대에 매달려 시체로 굳어진 병사들을 눈앞에 보는것만 같았다.

보르만은 마음속으로 몸서리를 치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각하, 봄은 언제나 베를린사람들을 즐겁게 하여줍니다. 처녀들은 외투를 벗어던지고 아이들은 와이샤쯔를 입고 뛰놀고있습니다.》

《카페들에서 식탁들을 걸음길에 끌어내다놓았소?》

보르만은 또 어쩔바를 몰라했다. 겝벨쓰가 조금이라도 사실을 이야기했으면 어쩐다? 혹시 겝벨쓰가 적들의 야만적인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의 사진을 보여주지나 않았을가?

보르만은 히틀러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힘주어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하, 비록 공장주변의 술집과 맥주집들은 사람들로 차넘치고있지만 그들은 모두 승리의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있습니다.》

히틀러는 맥주소리가 나오자 알릴듯말듯 입가에 쓰거운 웃음을 지으며 지껄여댔다.

《나는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난 때부터 맥주라고는 입에 대지 않소. 맥주라는 말만 들어도 골살을 찡그리게 된단말이요. 왜 그런지 아오? 나는 한때 어려서 술을 너무 마시다가 몸에 탈이 생겨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요. 그때로부터 주자란 소리만 들어도 입에서 신물이 난다오. 나는 그때 벌써 우리가 뜻을 이루기만하면 술주정뱅이들과 그들의 자식들, 지어 손자들까지 특별수용소에 처넣을 결심이였소. 그런놈들이 우리 아리아인들과 함께 있을수야 없지. 우리는 사상가들이고 그놈들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탐욕스러운 유태인놈들과 박정한 볼쉐위크놈들의 소유물로 되게 하는 키메르(그리스신화에 나오는 괴물)와 같은자들이요. 하지만 나는 우리가 승리한 후에 당신과 함께 운테르덴 리덴에 가서 산보를 하다가 자그마한 보통맥주집에 들어가 부글부글 거품이 피여오르는 우리 맥주를 한고뿌 마실 생각이요.》

보르만의 보좌관인 짠더대좌는 그사이 게링그의 측근자 구버대좌가 게링그와 진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르만에게 보고하였다.

《게링그원수는 20일 저녁 총통의 생일축하연에 가면 모든것을 알게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총통이 만일 알프스보루로 이동하는데 동의한다면 싸움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고 도이췰란드의 운명은 싸움판에서 결정될것이며 만일 총통이 베를린에 그냥 남아있으려 한다면 민족을 전면적인 소멸로부터 구원할 생각을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버가 게링그원수에게 전통적으로 보아도 교전쌍방의 두 적군대표들이 한자리에 마주앉아 평화회담을 진행한적이 허다하다고 말하자 게링그원수는 금시 얼굴에 화기가 돌며 력사에 있은 그런 좋은 실례를 어서 들어보라고 했다합니다. 특히 그는 고대로마와 워텔르로(벨지끄의 옛 전쟁터), 수워로브장군의 이딸리아원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보르만은 뮬러를 자기한테로 불렀다.

그는 지하대본영에 있는 좁다란 사무실안을 오락가락하다가 뮬러에게 얼굴을 쳐들며 천천히 말을 뗐다.

《뮬러, 때가 온것 같소. 당신은 이제 곧 쉘렌베르그가 히믈러에게 영미군에 항복제의를 해나서도록 해야겠소.》

《무조건 항복말입니까?》

뮬러가 이렇게 되묻자 보르만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보르만은 비록 그것이 옳은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묻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속심을 내비치며 다시 물음으로 대답했다.

《그럼 당신은 어떨것 같소?》

《각하와 같은 생각입니다. 내 생각엔 개를 개라고 불러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뮬러는 보르만의 얼굴표정을 슬쩍 훔쳐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보르만은 설레설레 도리를 저으며 왜서인지 입가에 쓴 웃음을 짓는것이였다.

《뭘 좀 마시고싶지 않소?》

《마시고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지금은 맑은 정신에 있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가는 갈팡질팡할수 있지요.》

《뮬러, 우리에게는 한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소. 이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요. 한주일이면 백예순여덟시간이거든. 분으로 따지면 거

의 만분에 달하오. 그럼 내가 마실테니 당신은 부러워하면서 구경이나 하오.》

보르만은 바바리아곡주를 잔에 부은 다음 잔을 입에 가져다대고 천천히 기울이고나서 뮬러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세상에 이 바바리아술만한것도 없거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기쁜게 뭐겠소. 난 술을 마셔 기분을 들뜨게 하고 온갖 시름을 잊는게라고 보오. 안그렇소?》

《그런것 같습니다.》

뮬러는 보르만의 속대사를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보르만은 달콤한 술이야기로써 히틀러에 대하여, 술도 마시지 않는 히틀러의 메마른 생활에 대하여, 자기를 히틀러와 련결시켰다가 빼앗겨버린 모든것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복수하였다. 권력이란 결국 그것이 현실적이고 그것을 타고앉아있을 때에야 좋은것이다. 만일 모든것이 무너지고 영국이나 벨지끄의 총리들처럼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도 목장에 가서 소젖이나 짜면서 출판물을 통해 경쟁자들을 비난하는 그런것으로 되지 못한다면 망쳐버린 청춘시절과 세계제패라고 불리우는 환상을 위해 인간생활의 기쁨을 스스로 저버린것을 후회하게 되는것이다.

《당신은 왜 그렇게 쓸쓸해보이오?》

보르만은 또 한잔 마시고나서 물었다.

뮬러는 부지중 슈틀리쯔의 말이 생각났다. 그는 자기가 남의 말을 옮기고있다는것을 의식하면서도 웬일인지 지금 이 순간 꼭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각하, 나는 연극에서 바보노릇을 하구픈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숨은 의도를 모르고서는 일을 못하겠단말입니다.》

《뮬러, 내가 당신에게 모든것을 말해주겠소. 어제까지는 이걸 말할수 없었소. 아니, 한시간전만해도 할수 없었지. 그러나 지금은 말할수 있을뿐만아니라 꼭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소. 당신도 알고있는것처럼 나는 오직 하나의 립장만을 가지고있소. 나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 방에서는 잠을 잘수 없소. 온갖 악몽이 달라붙어 나를 괴롭히면 다른 문으로 빠져나가야 할게 아니요.… 히믈러가 베르나도트와 합의를 본다고 해도 어쨌든 내가 없이는 도이췰

란드제국을 유지못할거요. 지금 생각해보니 민족사회당이 히믈러의 에쓰에쓰를 가로타고앉기 잘했소. 그에게 굴레를 씌워놓고 고삐는 내가 쥐고있으니 내가 하자는대로 움직일게 아니요. 그리고 게스타포는 여전히 당신이 틀어쥐고있지 않소. 그럼 게링그는 어떤가? 그도 역시 도이췰란드제국을 틀어쥘수 없소. 그것은 오직 우리밖에 할수 없단말이요. 나는 쓰딸린에게 평화를 제기하면서 그의 손에 째인 질서를 가진 도이췰란드, 강력한 힘을 가진 도이췰란드를 넘겨줄테요. 그러면서 그에게 〈우리를 넘겨받으시오. 그렇지 않다간 당신네 동맹국들이 우리를 먹어버릴수 있소.〉라고 말해주겠소. 당신이 모스크바와 연극을 놀기를 잘했소. 그렇지 않소? 크레믈리는 우리가 서방과 접촉하고있다는 정보를 받고 매우 불안해하고있소. 이런 사정만 아니더라도 로씨야는 강물이 줄어들고 비행장으로 쓸 땅이 마른 후에야 공격을 개시하게 될거요.》

《이게 아마 각하가 방금 말한 두 문인것 같군요. 그러다가 이 두 문이 다 막혀버리면 어쩔려고 그럽니까? 창문으로 뛰여나가겠습니까?》 뮬러는 야유조로 물었다.

보르만은 입도 벌리지 않고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따라 측은해보이리만큼 눈시울이 무겁게 내리실리였다.

《뛰여내려야겠소. 별수 없지. 하지만 뮬러, 우리는 1층에서 뛰여내려야겠소.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뛰여내려보는것도 아니고 퍼그나 훈련도 되였으니 걱정할게 없소. 〈창문〉이란 곧 잠수함을 의미하는거요. 아르헨띠나는 이미 잠수함을 받을 준비가 되여있소. 우리 지하운동참모부도 사업을 시작했소. 아르헨띠나에서는 우리에게 헤쎈(도이췰란드의 주이름)과 맞먹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소. 처음에는 이만한 땅이면 충분할거요. 멘겔이 벌써 거기에 가있소. 그리고 또 물을게 없소?》

《〈창문〉은 어디 있는가요? 나는 지금 당장 뛰여내릴 생각입니다. 자, 이젠 모든것이 명백해졌는데 술이나 한잔 부어주십시오. 다문 한시간이라도 마음을 즐겨봅시다.》

뮬러는 약간 낯색이 밝아지며 이렇게 말했다.

《쉘렌베르그가 히믈러를 서방과의 공개적인 접촉에 내몰것 같소?》

《각하, 좀 더 정확히 말씀하실걸 그럽니다. 쉘렌베르그가 히믈러를 반대하는 공작을 하도록 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

면 나는 〈예, 할수 있습니다.〉이렇게 대답할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떠나렵니까?》

《좀 더 기다리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한거요.》

보르만의 말에 뮬러는 단호히 머리를 흔들었다.

《난 각하의 그 문을 믿을수 없습니다. 나는 벌써 내 관을 묻을 묘자리를 파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에 세울 대리석비석도 준비해놓고… 자, 어서 말씀하십시오. 창문에서 언제 뛰여내리렵니까?》

《로씨야사람들에게 손을 내민 후에 뛰여내려도 늦지 않소. 로씨야사람들이 며칠내로 대답을 줄거요.》

그러자 뮬러는 보르만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그를 꽤 처리해낼것 같습니까?》

보르만은 뮬러가 히틀러에 대하여 말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으나 그에는 대답안하고 딴소리를 했다.

《나는 언제나 겝벨쓰를 부드러운 인간으로 여겨왔소. 내 마음에 꼭 든단말이요.》

《이젠 밤도 깊었는데 그렇게 빙빙 돌리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히틀러를 없애치우는데 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뮬러자신이 말입니다. 지금 당신과 꼭같이 생긴 세명의 인원들의 장래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는데서도 내가 필요할겁니다. 당신의 보좌관 짠더뿐만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그들을 살피게 될겁니다. 당신은 피가 랑자하게 흐르는 도이칠란드땅을 지나 잠수함이 기다리고있는 북쪽으로 가는 로정을 세밀히 따져보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혼돈시켜 그들을 가짜통로로 빼돌리고 자기뒤에 수십가지설을 남겨놓은 다음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한 작전계획을 머리속에 구상하고있습니까? 각하, 이젠 자정도 넘었는데 여기 조용하고 따스한 방안에서 한가하게 세월을 보낼 생각일랑 마십시오.》

뮬러는 못을 박듯 한마디한마디 힘주어 말하였다. 보르만은 갑자기 관자노리가 빠개지는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이제는 모든것이 끝장나고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알았다. 이와 동시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뮬러는 어떻게 떠나려고 하는가? 보르만은 더 무엇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

《나를 나무람하지 마오. 나는 한생을 연극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던거요. 당신도 나를 리해하리라고 생각하오. 균형과 연극, 이

것이 두 극단에서 내 생을 받침해주던거지.…》
《내가 만일 그걸 몰랐더라면…》
《뮬러,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약속하기요. 당신은 나한테 나를 기다리고있게 될 아지트의 위치를 알려주어야겠소. 아까 말한것처럼 출발로정도 짜고 나와 꼭같이 생긴 사람들도 처리하시오. 당신이 옳게 말했소. 정말 시간이 없소. 히틀러에 대해서는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일없소. 나는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소.…》

음모를 꾸미는 게스타포 (4)

슈틀리쯔는 이른 아침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도시는 몇차례의 폭격을 겪고난뒤 검붉은 화염에 휩싸여있었다.
슈틀리쯔는 꾸르트와 요헨사이에 끼워앉고 올 때도 린쩨로 갈 때처럼 윌리가 차를 몰았다. 오는 도중에 그들은 세번씩이나 차를 세우고 길옆 물도랑에 몸을 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로씨야비행기들이 나타나서 베를린으로 향한 보병대렬에 대고 기관총사격을 퍼부었던것이다.
슈틀리쯔는 빨간별이 그려진 자기 나라 비행기에서 퍼붓는 기관총에 맞아 죽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으랴. 우리 군대가 베를린에 들어올 때까지 살아있었으면 좋으련만 뮬러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다지도 억울할것 같지는 않았다. 이것은 공작과정에 예견했던 일이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죽어서는 안된다. 이싸예브, 너는 살아야 한다.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던가.
슈틀리쯔는 요헨과 꾸르트에게 이끌리다싶이 하여 제국안전총국건물에 들어섰다. 슈틀리쯔는 이것이 끝장이라고는 믿고싶지 않았다. 이제는 벌써 지척에서 포성이 울리고 빨간별을 그린 로씨야비행기들이 대도로우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있으니 언제 연극에 대해 생각할 새가 없었다.
제국안전총국청사 복도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젊은 에쓰에쓰

대원들이 무슨 상자들인지 쉴새없이 밖으로 날라내오고있었고 정원에서는 매캐한 종이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러나 뮬러가 들어있는 3층만은 이전이나 다름없이 정숙하였다. 짜르릉짜르릉 울려오는 포성은 제국선전성에서 게스타포에 검열을 받으러 가져온 영화를 시사할 때 들리는 록음처럼 느껴졌다. 특히 도이췰란드군의 전투승리에 대한 영화는 어김없이 여기서 검열을 받아야 했던것이다. 복도의 요소요소들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에쓰에쓰의 젊은 장교들이 지켜서서 오고가는 사람들의 증명서를 깐깐히 검열하였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만 보초병들의 옆에 있는 자그마한 책상우에 철갑모와 방독면이 놓여있고 보초병들이 총신이 짧은 기관단총을 목에 걸고있는것이였다.

뮬러의 부관 숄쯔는 슈틀리쯔를 무섭게 쏘아보고나서 함께 온 장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에게서 무기를 회수하시오.》

슈틀리쯔는 공손히 무기를 내놓은 다음 담배를 피워도 좋겠는가고 물었다. 숄쯔가 안된다고 말하자 그는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할수 없다는듯 손을 쩍 벌려보였다. 당장에 총살하려고 서두르지 않는걸 보면 얼마간 시간이 있을것 같았다.

(뮬러는 이제 나한테서 무엇을 요구하겠는지? 그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것은 무엇인가? 그저 직업적인 의무에서 오는 관심일가? 만일 뮬러가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받으려 한다면 그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리라는것을 예측할수 있다. 혹시 뮬러가 중립국에서 내가 접선하려는 사람들의 주소를 알아내려는건 아닌가? 그건 무엇때문에? 그렇지, 이젠 뮬러도 떠나야겠으니 후에 장사할수 있는 예비를 저축해두는것도 결코 나쁜 일은 아닐테지.)

숄쯔는 뮬러의 방에 들어갔다가 인차 되돌아나오며 누구에게라 없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을 기다리고있소. 들어가보시오.》

슈틀리쯔는 이미 자기에게 낯익은 방에 성큼 들어서서 주먹을 움켜쥔 왼손을 쳐들고 벌쭉 웃으며 소리쳤다.

《중장각하, 명령대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오. 슈틀리쯔, 앉소. 이제 일을 끝낸 다음 나와 함께 경치

아름다운 곳에 가자구.》

뮬러는 이전처럼 웃지도 않고 굳어진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에게 깜장콩알을 먹일 준비를 해놓은 곳으로말입니까?》

슈틀리쯔가 이렇게 묻자 뮬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슈틀리쯔, 자넨 어떻게 되여 스위스에서 돌아오게 되였나? 어떻게말이야? 자넨 정말 우리가 자넬 죽이려고 떠나보냈다는걸 몰랐단말인가? 자, 이걸 읽어보라구. 자네가 보낸 전보들이야. 내가 몇곳에 전화를 거는동안 읽어보게. 창문에서 뛰여내릴 생각일랑 말라구. 창문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쳐놓았으니 뛰여내리지 못할걸세.》

뮬러는 한쪽어깨와 턱으로 송수화기를 의지한채 담배를 피우며 전화번호판을 돌렸다. 그러는동안 슈틀리쯔는 한장한장 전문을 뒤져나갔다. 그는 뮬러가 또 무슨 수를 꾸미고있다는것을 제꺽 눈치챘다.

(아니다. 뮬러는 내가 스위스로 가기전엔 전문을 해득하지 못했다. 만일 해득하였다면 나를 스위스로 보냈겠는가. 아마 내가 스위스에서 돌아온 후 무전수 로르흐를 통해 보낸 전문을 해득한게 틀림없는것 같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뮬러는 또 수를 꾸미려 하는가? 그는 언제 한번 쓸데없이 이런짓을 한적이 없었다. 억센 턱을 가진 이 사나이는 모든 일을 깐깐히 계획적으로 해나갔다.)

뮬러는 손바닥으로 송화구를 가리우고 슈틀리쯔를 보고 물었다.

《어떤가? 우리 암호해득자들이 일을 잘한것 같지 않은가?》

《당신이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 전문을 읽기 시작한지 오래 되는가요?》 슈틀리쯔는 빈정대며 물었다.

《금년 2월부터네.》

《무전수 에르빈이 일하고있을 때말입니까?》

《슈틀리쯔, 자넨 모든걸 알구픈게로구만! 여보시오! 예, 예, 뻬레이르참사씨인가요? 접니다. 뮬러올시다. 저녁때면 비행기가 준비되겠는데 우리가 당신을 안전하게 떠나보내지요. 예, 예, 또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에스빠냐군사무관에게 들려서 떠난다고 알리십시오. 전화가 고장나서 내가 알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트렁크를 두개 가져다줄겁니다. 생각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행장에 내리면 우리 사람들이 당신을 맞이하고 짐을 받아줄겁니다. 안녕히 가십

시오. 오늘밤에는 성대한 주연이 있겠구만. 거기 있는 우리 도이췰란드식당에도 좀 들려보십시오. 도이췰란드음식을 아주 잘 만든답니다.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뮬러는 송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가까이에서 울려오는 포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나서 넥타이를 조여매고 품이 후렁후렁한 사복깃을 반듯하게 당겨놓은 다음 자리에서 일어섰다.

《친구, 가세나. 우리한테 할 일은 많고 시간이 없구만.》

슈틀리쯔는 또다시 꾸르트와 요헨의 짬에 끼여앉았다. 뮬러는 늘 뒤좌석에 앉아다녔으나 오늘은 윌리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앞뒤에는 사복입은 경비원들을 주어실은 《벤즈》차가 달렸다. 그들은 자주 파괴된 벽돌무지를 에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병사들이 길에 늘어서서 도로를 정리하고있었고 경찰들은 움직일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일에 내몰았다. 이처럼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질서, 오직 질서가 첫째였다.

뮬러는 머리를 돌리지 않고 물었다.

《슈틀리쯔, 내 생활에서 제일 놀라운것이 뭔지 아오?》

《각하,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내가 이제 말해주지.… 자넨 프라이따흐가 로씨야민요서사시요고대핀란드민요요 하던 말이 생각나나?》

《생각납니다.》

《난 그때 자네 목소리를 듣고 놀랐구만. 자네가 그 녀자에게 뭘 물었을 때말이야. 자네 목소리는 정말 특기할만하더군. 어쩌면 그렇게 비애에 젖어있던지… 난 그때 사랑에 대한 감정이 이처럼 예민한 사람이 어떻게 정탐이 됐을가 하고 생각해봤네.… 비애라… 이건 어울리지 않아.… 자네와 내 직업은 민족밖에 있고 랭정하고 실용주의적인것이라고 볼수 있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어디 한번 증명해보라구.》

《내가 당신을 확신시킬수 없겠는데 공연히 지껄여야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자넨 나한테 문화성없이 말하는구만.》

《문화성이 없단말이지요.…》

슈틀리쯔는 야유조로 웃으며 뮬러의 말을 곱씹어했다.

뮬러는 잠시 생각을 더듬는듯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문화라는것이 일반대중속에서 그 어떤 위대한 정신이 분리되여나올 때 생겨난것 같네. 진짜 문화는 그 어느 산간지대나 풍요한 골짜기, 사람들이 오붓이 모여사는 넓지 않은 지역에 있었다고 보네.… 문화는 신비로운 위대한 정신이 왕성하게 발현되여 고대민요나 민요서사시, 방랑시인들의 가사들에 자기를 나타내다가 강력하게 퍼지는 종교의 영향속에 파묻히고 법률의 조항속에 굳어져버린 후에 자리를 내놓고말았지.… 문화는 고대유물처럼 사그라져간다오. 슈틀리쯔, 그러니 무엇때문에 이미 굳어져버린것을 놓고 가슴을 태울 필요가 있겠느냐말이요?》

《내가 어디서 이와 비슷한 말을 들은것 같습니다.》

뮬러는 슈틀리쯔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코끝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내가 〈라도〉망사건과 〈붉은 관현악단〉사건을 처리할 때 이런 사색을 해보았던거네. 여기에 망라된 사람들이 모두 지성인들이여서 내가 여기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만 했던거지.… 우리한테서는 때로 바보들이 더 좋은 때가 있군한다네. 적들은 그런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바치고있는 일이야 어디 그런가. 우리 일에서는 암둔한것이 허용될수가 없기도 하지만 국가앞에 큰 범죄로 될수 있지. 외교관은 좀 암둔해도 고쳐줄수 있고 또 해임시켜버릴수 있지만 정탐일군이 바보노릇을 하면 국가에 큰 해를 끼칠수 있단말일세.… 자넨 왜 그렇게 밖을 내다보나? 마지막작별을 하는건가? 아니면 우리가 자네를 어디로 끌고가는가 기억해두려는거요? 난 지금 자네를 비밀아지트로 데려가네. 거기는 집안도 잘 꾸려놓았지만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 경치도 참 좋은 곳일세. 게다가 문에는 방음장치를 해서 포소리가 안들리지… 지형상으로도 유리한 지점이여서 당분간은 로씨야사람들을 들여놓지 않을거네. 벤크와 슈타이너의 군인들이 가까이에서 류혈전을 벌릴걸세.…》

베를린교외의 유축진 골목길에 서있는 독립건물의 3층 드넓은 방으로 사람들이 분주히 드나들고있었다. 그들은 모두 사복쟁이들이였다. 방안에는 타자치는 소리, 글읽는 소리, 귀따갑게 울리는 전화종소리, 온갖 소음이 차고넘쳐 귀가 멍멍할 지경이였다. 슈틀리쯔는 복도로 지나가면서 얼핏 골목길을 내다보았다. 그들이 여기

로 온 길과 가지런히 뻗어간 좁다란 골목길에서 군복차림을 한 히틀러청년단의 애숭이소년들이 바리케트를 쌓느라고 볶아쳤다. 건물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서는 《히틀러청년단》기발이 바람에 나붓기고있었다.

뮬러는 슈틀리쯔를 앞세우고 자그마한 방으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의자 두개와 책상이 놓여있었다. 책상우에는 종이와 끝을 뾰족하게 다스린 연필 그리고 담배 두갑과 라이타가 있었다.

《슈틀리쯔, 여기 책상에 앉아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걸 잘 새겨들으라구.》 뮬러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넥타이를 좀 늦추어놓은 다음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슈틀리쯔는 옆방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누구인가 타자수에게 뭐라고 불러주면 이어 타자치는 소리가 기관총련발사격소리처럼 들려왔다. 슈틀리쯔는 문득 로씨야사람들의 이름과 도시명을 가려들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들리였다.

《그후 원사 페오파노브의 조카는 라핀시장에게 불리워갔다. 시장은 그에게 여기 사무실에서 쏘베트정권의 반인민적교육에 대하여 쓰라고 요구하였다. 처음에 원사의 조카는 거절하였다. 그러나…》

뮬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문쪽으로 걸어가서 문을 활짝 제끼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여보, 거기서 떠들지 말고 다른 방으로 옮겨가시오. 타자수가 귀머거리도 아닌데 소리는 왜 그렇게 치는거요.》 뮬러는 다시 의자에 돌아와앉아 찌르는듯한 눈길로 슈틀리쯔를 쏘아보며 손가락마디를 딱딱 소리나게 꺾었다. 그리고나서 천천히 말을 뗐다.

《나는 자네한테 오래전부터 나를 괴롭히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네. 나는 비록 종합대학강의는 못받아보았지만 책은 어려서부터 읽어왔다오.… 그렇지 않으면야 내가 어떻게 되여 이처럼 머리가 텄겠나? 그건 책을 많이 읽은 덕분이지. … 슈틀리쯔, 이게 바로 내가 달성한 성과네. 세계는 지난 세기의 수많은 문화에 대하여 알고있는데 그 개개의 문화는 다 다른것에서 본따온 모조품과 같은거라오. …폴리클레트와 와그너는 쏘포클과 니쯔쉐와 마찬가지로 동시대에 가지런히 존재하여왔네. 그리고 마케돈스끼와 나폴레옹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든 부자들을 때려부신 폭동때에 체결

된 안탈커도브강화조약이 있은 후 고대그리스도시들에서 일어난 보마르세와 루쏘가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것으로 알려져온 바스티유보루를 쳐부시기 위한 폭동을 준비하고있을 때 실현된 빠리평화와 함께 고대문명에 기여하였던거네. 우리는 력사의 각이한 단계에서 시기가 어슷비슷한 사실들을 종종 보게 되지. 군인출신의 황제 나폴레옹이나 농민출신의 황제 뿌가쵸브는 드노니씨예씨라꾸쯔끼, 필리쁘 마케돈쓰끼를 반복해부르는것이라고도 볼수 있네. 자네는 내가 시간도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나?》

《알만합니다.》

《왜 말하는것 같은가?》

《〈이런것도 있었다.〉하고 말하는 총명한 인간들의 파렴치성을 합리화하자는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았네! 10점이네! 장하이! 지금 자네한테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알겠지?》

《알기는 알겠지만 다는 모르겠습니다.》

《난 자네한테 이런걸 요구하려고 하네. 지금 이 건물의 지하실에는 자네 무전수였던 로르호가 갇혀있네. 우리는 그를 설복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놓았네. 자네가 이제 모스크바에 보낼 무전문을 작성하라구. 내가 그걸 암호로 만들지. 지금은 그렇게 하는것이 어려울것도 없네. 자넨 로르호가 무전을 치면서 무슨 위험신호같은것을 보내지 않나 잘 감시해보게. 전문에는 뮬러가 로씨야사람들과 협력하려 한다는것과 그 대가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한다는걸 쓰게. 나는 많은걸 도와줄수도 있지.…》

《실례를 들면 어떤것을 도와줄수 있다는겁니까?》

《이를테면 히믈러같은 사람도 넘겨줄수 있구…》

《보르만은 넘겨줄수 없습니까?》

《먼저 자네의 본부에서 무슨 답변이 오나 보자구. 어떤가? 동의하오?》

《동의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는 음모가 있을테니까요.》

《아주 잘 대답했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어 고맙네. 하지만 그런 전보를 작성해보라구.》

《정 강요한다면야 써야지요.》

《좋아. 고맙네. 이젠 나한테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자초지종 이야기해주게.》
《당신은 내 문건을 보았을텐데 그러는구만요. 거기에 다 씌여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뮬러는 으하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한참 허리를 그러안고 웃다가 손으로 눈을 뻑 문지르고나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슈틀리쯔, 자네가 만일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네한테 의학박사를 붙여 자네 말을 죄다 록음으로 기록할테요. 자넨 아마 프라이따흐와 함께 자면서 꿈에 하던 그런 말로 누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 이야기하게 될걸세. 나는 까자크두목인 크라스노에게 자네 목소리를 들려주었네. 그는 우리한테 고문격으로 앉아있으면서 글도 적지 않게 썼는데 볼쉐위크와 유태인들에 대한 소설만 해도 백권이상 썼다오. 그가 하는 말이 자네가 뻬쩨르부르그출신이 분명하다고 하더군.》
《각하, 내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말해야 그게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할게 있습니까?》
《슈틀리쯔, 나는 장래를 생각하는거네. 게다가 우리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서는 못살아. 지휘자가 없이는 못산단말일세. 우리 생활이란 비유해 말하면 관현악단과도 같다고 볼수 있지.》
《그럼 내가 당신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은 후에 써도 될가요? 아니면 그전에?》
《한순간도 지체말고 써야겠네.》
그러나 슈틀리쯔는 도리를 저었다.
《그러면 내가 너무도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는데요. 나는 자기를 뛰여넘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성내지 말아주십시오.》
《무전문을 쓰게.》
슈틀리쯔는 연필을 들고 무전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본부앞. 나는 뮬러에게 체포됨. 뮬러는 우리와 협력할것을 제의하면서 히믈러를 붙잡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보호해줄것을 요구한다. 유쓰따쓰.》
뮬러는 무전문을 한자한자 따져보고나서 물었다.
《무슨 요술이야 없겠지?》
《여기에 무슨 요술이 있겠습니까? 마치 소의 영각소리처럼 모든것이 단순한걸요.》

붉은군대의 공격과 그 결과 (2)

쥬꼬브의 군대는 적들이 젤롭스크고지에 구축해놓은 방어선을 돌파하고 베를린교외에 접근하고있었다. 그리고 꼬네브는 남쪽에서, 로꼬쏩쓰끼는 북쪽에서 적들을 제압하였다.

4월 20일, 히틀러의 지하대본영에서는 보통때와 마찬가지로 숨막힐듯한 긴박감이 떠도는 가운데 협의회가 진행되고있었다. 카이젤과 크렙쓰는 참모부장교들이 지도에 그려놓은 검은 화살과 붉은 화살을 짚어가며 정황을 설명하였다. 이들의 설명은 비교적 정확했다.

히틀러는 안락의자에 퍼더버리고 앉아 초점잃은 눈길로 멍하니 한곳을 응시하면서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른손으로 푸들푸들 경련에 뛰노는 왼쪽팔을 지그시 누르기도 했다. 그러나 크렙쓰가 베를린 남쪽과 북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있다는 말을 하자 히틀러는 와뜰 놀라며 마치 보이지 않는 그 누구로부터 자신을 방어라도 하려는듯 손을 쳐들었다.

《슈타이너장령은 어디 있는가? 그의 땅크들은 어디 있고? 그의 사단은 어디 있나말이요? 슈타이너는 어째서 아직도 로씨야군대를 쳐물리치지 못했는가?》

크렙쓰는 용서를 빌듯 머리를 수긋하며 대답했다.

《각하, 그에게는 그럴만한 힘이 없습니다. 로씨야는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다섯배는 우세합니다.》

《베크의 군대는 어디 있는가?》

《각하, 그도 역시 어쩔 힘이 없습니다.》

《모두 방에서 나가시오. 보르만, 카이젤, 요들, 크렙쓰, 부르흐돌프만 남고 모두 나가시오!》

히틀러는 광기가 올라 꽥 소리질렀다.

그는 장령들과 장교들이 방에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싸늘한 눈길을 들어 보르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책상을 쾅 두드리며 전과 같이 무엇을 들부실것 같은 위압적인 어조로 고래고래 소리쳤다.

《나는 변절자들의 포위속에 들었소! 어깨에 장령견장을 달고있는 너절한 비겁분자들이 내 일을 망쳐먹었소! 이 세상에 부닥친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는 민족보다 더 가련한 민족은 없는것이요. 내가 당신들을 승리에로 이끌 때 당신들은 나에게 박수를 보냈고 우리 위력이 그 언제보다 강하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보고를 보내왔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로씨야보다 다섯배는 약하단말이요! 왜 당신들은 나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소? 내가 언제 당신들에게 나의 견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달리 보지 않는가 의심할 권리를 주었소? 나는 언제나 당신들이 론쟁하기를 기다려왔소. 당신들의 각이한 견해가 충돌할것을 기다렸단말이요. 그러나 당신들은 침묵하여왔소! 그리고 내 책상밑에서는 폭탄이 터졌댔소. 당신들은 로씨야놈들의 가마속에 들기 싫으면 즉시 베를린을 떠나시오. 그건 자유요. 나는 여기에 남겠소! 만일 전쟁이 패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말겠소! 당신들은 가도 좋소!》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때 요들이 앞으로 한발자욱 나섰다. 그는 어험어험 침묵을 깨뜨리며 기침을 깇고나서 말을 뗐다.

《총통각하, 각하께서는 민족앞에 지닌 책임으로 보아 여기 남아있어서는 안될줄로 생각합니다. 각하는 지금 즉시 떠나 알프스요새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도이췰란드제국을 위한 싸움을 지도해야 할게 아닙니까. 나라의 북쪽과 남쪽에는 싸움을 계속할수 있는 군대가 충분히 있습니다. 군대와 백성들은 언제나 각하에게 충실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각하께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히틀러는 감격하여 카이젤과 요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몇발자욱 걸어나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보르만이 그를 제지하였다.

《제씨들, 총통각하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총통각하는 자기 결심을 바꾸지 않을것입니다. 지금까지 늘 총통각하를 보좌하여온 우리들도 각하와 함께 여기에 남을 결심입니다. 당신들이 알프스보루로 옮겨가서 싸움에서 전환을 가져오면 우리는 살게 될것입니다.》

히틀러는 경련에 떨던 몸같지 않게 홱 보르만쪽으로 몸을 돌리였다.

《겝벨쓰의 처도 아이들과 함께 여기로 옮겨오도록 하시오. 그들

을 위해 내 비행사들의 옆방을 준비해야겠소. 그리고 아이들도 한창 자라나는 때인데 잘 먹여야겠소.》
《알겠습니다. 각하. 이제 곧 선전상과 련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르만은 가볍게 머리숙여 대답하고는 뜻있는 눈길로 장령들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마치 《우리 둘만 남겨놓고 모두 방에서 나가주시오.》라고 하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보르만은 《고맙소. 당신들은 돌아가도 좋소.》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히틀러는 보르만과 단 둘이 남게 되자 어줍게 웃으며 묻는것이였다.
《보르만, 당신은 가족들이 어디에 있소? 당신의 처도 아이들과 함께 여기에 오도록 하지. 자리가 좁으면 내 응접실을 한칸 내주겠소. 친구, 그들을 인차 데려오도록 하오.》
《각하, 저는 벌써 그렇게 하도록 련락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 뮨헨에서 무사히 베를린으로 뚫고들어오도록 빌고있답니다.》
보르만은 히틀러를 슬쩍 업어넘기였다. 그는 한주일전에 벌써 안해에게 뮨헨을 떠나 아이들과 함께 산에 들어가 숨어있으라고 련락을 띄웠었다. 그는 자기 안해에 대한 정이 조금도 없었다. 그래서 이처럼 떨어져사는것을 여간만 다행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대신 아이들은 무척 귀여워했다.
그래도 안해가 아이들을 잘 돌보는 덕분에 그럭저럭 살려두었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없애버린지도 오랬을것이다.
보르만은 총통과 만난지 한시간도 지나기전에 카이젤원수를 밴크의 군집단으로 파견한다는 총통의 지시를 발표하였다. 그는 카이젤에게 포츠담 서남방향에서 베를린을 지켜내라는 총통의 개인명령을 전달하였다.
요들대장은 슈타이너군집단으로 떠나갔다. 이것은 베를린북쪽에서 포위를 뚫기 위한 조치였다.
해군제독 덴니쯔는 도이췰란드해안의 모든 력량을 집결하여 싸우는 베를린을 도울 임무를 받았다.
그리고 수도방어전권위원인 겝벨쓰는 수도의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볼쉐위크군대와 맞서 싸울 책임을 졌다.
항공원수 게링그는 남쪽으로 떠나갔다.
에쓰에쓰사령관 히믈러 역시 임무를 받고 북으로 떠나갔다.
총통의 명령은 지체없이 게링그참모부의 대좌 구버에게 전달되였다. 구버는 보르만의 보좌관 짠더가 최근에 련계를 가지고 사업해온 사람이였다.
짠더는 이밖에 아무런 의의도 없는 개인편지같은것을 구버에게 보냈다. 이것은 게링그의 부관에게 있어서 게링그에게 압력을 가하고 히믈러를 리용하여 그를 놀래우며 그가 총통의 진실한 병사로서 행동하도록 하게 하는 명령과도 같은것이였다. 사실 지금 총통이 교활한 보르만과 광신적인 겝벨쓰의 손안에서 놀아나는 하찮은 존재로 되여버리고보니 제1차세계대전의 영웅인 게링그가 영웅주의를 발휘하지 않으면 누가 그럴만한 사람도 없었다.
짠더의 전보가 구버에게 날아간지 24시간이 지나서 히틀러의 지하대본영에서는 게링그의 전보를 받게 되였다. 게링그는 전보에서 위급한 정세가 조성될 경우 자기가 총통의 후계자로 선포될것이라고 한 1941년 6월 29일부 정령이 효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총통이 확인하여 줄것을 요구하였다. 게링그는 총통이 국가원수로서 더는 베를린에서 활동할수 없게 된 조건에서 자기가 정권의 중책을 걸머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게링그의 전보는 즉시 해득되여 다섯부로 타자된 다음 총통과 보르만, 겝벨쓰, 카이젤 그리고 지하대본영에 주재하고있는 각 기관대표들의 조정자인 폰 벨로브대좌에게 배포되였다.
보르만은 게링그의 전보를 받자 기다리고있은듯 곧 철궤를 열고 그제저녁 짠더를 시켜 준비한 문건을 꺼내가지고 총통을 찾아갔다.
《총통각하, 게링그가 각하를 배반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보르만은 조심스럽게 말을 뗐다.
히틀러는 보르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는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가며 작곡가 바흐너(1813－1883년까지 생존한 도이췰란드의 작곡가)의 편지를 읽고있었다. 총통은 마침 작곡가가 도이췰란드에서 혁명이 진압된 후 스위스로 도주하게 되였던 경위와 망명초기 암담했던 생활에 대하여 쓴 대목을 읽던중이

였다.

작곡가는 민족을 단합시킬 새로운 힘의 출현은 시대의 정신에도 맞는것이므로 모든것이 다시 변하리라는 희망을 표시하였었다.

총통은 이윽토록 보르만을 바라보다가 그제서야 그가 한 말뜻이 짐작이 가는듯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턱에 몸을 기대며 소리질렀다.

《그럴수 없소! 그럴수 없단말이요. 보르만, 난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것을 명령하오!》

《각하, 게링그는 각하를 배반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의 최후통첩장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게링그를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총살할데 대한 명령서에 수표해주기 바랍니다.》

보르만의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침착하던 어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같았다.

《보르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소. 이건 적들의 도발이요. 게링그는 나와 함께 첫날부터 싸워온 사람이요. 보르만, 당신은 너무도 가혹하오. 게링그는 나를 보고 늘 당신이 가혹한 사람이라고 말해왔소.》

히틀러는 풀기없이 내뱉았다.

《돌아가도 좋습니까?》

보르만은 바흐너의 책들과 게링그의 전보 그리고 게링그를 처리할데 대한 명령서초안이 놓여있는 책상에 몸을 기대며 일부러 늘어진 투로 말했다.

《앉으시오. 당신은 량심이 있소? 그리고 심장이 있소? 당신의 가슴에는 심장이 아니라 돌덩이가 있는게 아니요?》

《각하, 저의 심장은 각하에 대한 사랑으로 찢어졌습니다. 나는 벌써 여러해동안 이 찢어진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있습니다.》

히틀러는 단숨에 두번이나 연거퍼 전보를 읽고나서 그것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였다.

《보르만, 난 그의 말에서 변절하였다는 대목을 볼수 없구만. 그는 자기를 후계자로 선포하기전에 대답을 요구했소.》

보르만은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히틀러에게 가볍게 머리숙여 인사한 다음 문쪽으로 걸어갔다.

《잠간 기다리오! 당신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소?》

히틀러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있었다.

《각하, 어린 동생은 부모들이 무서운 욕심쟁이인 맏형만 좋게 대하면서 그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자기에게 매를 들 때 언제나 투정질을 하지요.》
《보르만,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만.》
《내가 만일 각하에게 〈총통각하, 당신이 더는 당사업을 지도할수 없으면 내가 24시간의 시간을 줄터이니 자발적으로 총통의 직무를 넘겨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각하는 이런 불손한 행동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게링그라!》
히틀러는 다시한번 전보를 읽고나서 이렇게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개인생활에서 지나치게 향락을 즐겼고 심한 자유주의를 부린 일때문에 두번씩이나 당재판에 회부된 게링그를 살려주었댔소. 게링그는 늘 나와 함께 있었소. 그는 믿음성있고 좋은 사람이였지. 용감하면서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순진하던 그였소. 게링그!》
그러나 다음순간 히틀러는 보르만에게 히스테리발작을 보여주는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기라도 한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게링그는 더러운 돼지같은 놈이요! 그는 변절자요! 더러운 호색광이요! 그는 호사스럽고 부유한 생활에 타락해버린자요. 나는 그자와 알게 된 그날을 원망하지 않을수 없소. 난 난…》
《각하, 거기에 다 씌여있습니다. 각하께서 수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보르만은 짠더가 미리 준비한 문건을 가리켰다.
《아니요. 난 이걸 수표하지 않겠소. 게링그자신이 심장병때문에 항공원수의 칭호, 독일제국 대통령, 프로씨아 수상, 민족경제발전 4개년계획 총책임자, 나의 후계자의 위치에서 스스로 물러서려고 한다고 문건을 꾸미게 하란말이요. 민족은 우리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합되여있다고 믿고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이 명령이 내린지 7분도 못되여 민족사회당 베르흐테스가덴 주책임자와 장령 부르스에게 보르만의 전문이 날아갔다.
《게링그가 총통의 명령으로 도이췰란드항공원수 및 류프트바페사령관칭호를 박탈당한만큼 그가 어디에 있든지 체포하고 앞으로 그의 운명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을 때까지 억류하여 둘것.》

이 시각 게링그는 어느 한 미군사단 참모부를 방문하기 위해 길을 떠나고있었다. 미군사단장은 총통의 후계자이며 항공원수인 게링그를 맞이할 면밀한 준비를 갖추고 명예위병대까지 정렬시켜놓았다.
그러나 게링그는 미군사단에 채 이르지도 못하고 도중에 민족사회당문서고를 지키고있던 에쓰에쓰친위대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보르만이 수표한 명령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받기 방금전까지도 복종하여온 게링그자신보다 더 높은것이였다. 그들은 《질서가 첫째》인만큼 한급 더 높은 사람의 말이 더 힘있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기에 이들에게 게링그를 없애버릴데 대한 지시를 떨구면 첫마디에 게링그를 지하실에서 끌어내여 처형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었다.

쉘렌베르그

지금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 일하였고 오직 자기 하나만을 생각하고있었다.
동맹이라는것도 자기에게 유리한 순간에 필요한것이였지 자기에게 불리하면 처음 맺었던 동맹도 무자비하게 끊어버렸다.
쉘렌베르그는 요즘 거의나 제국안전총국에 나타나지 않았고 잠도 승용차안에서 자군 했다. 뮬러는 칼텐브룬너로부터 쉘렌베르그를 보호해주고있었다. 쉘렌베르그는 히믈러에게 붙는 편이 썩 유리할것이라고 보고 칼텐브룬너(그는 보르만과 련결되여있었다.)와 관계를 끊기는 했으나 여전히 형식상 련계를 유지하여왔다. 한때는 이런 거물급들이 서로 반목질시하면서도 호상간 돕지 않고는 어쩔수 없는 때도 있었다.
쉘렌베르그는 베르나도트백작과 회담을 가진 후 북쪽에서 곧바로 히믈러가 있는 호헨리헨에 찾아갔다.
《부총통각하, 더는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쉘렌베르그는 벽난로옆에 편안히 앉아 풀로타르흐(그리스작가)의 소설을 읽고있는 히믈러에게 말하였다. 벽난로에서는 나무가지가 활

활 타오르며 열을 뿜고있었다. 어찌보면 여기서는 전쟁과는 인연이 없는 평화롭고 안온한 정서가 느껴졌다. 커피만 보아도 일등급의 브라질커피였다. 석양을 받아 하늘은 피빛으로 불타고있었다. 아무리 보아야 에쓰에쓰 한개 련대가 지켜서있는 이 참나무숲속에서는 로씨야군대가 베를린에 접근하고있으며 미국군대가 튜린게(도이췰란드의 주)와 작쎈(도이췰란드의 주)에 사태처럼 밀려들고 영국비행기들이 쉴새없이 도시와 도로들을 폭격하고있다는것을 믿기 어려웠다. 히믈러가 이 안락한 정서가 깃든 집안에 처박혀 굶주린 아이들이 불도 때지 않은 방에서 죽어가고있고 거리에 여전히 《나는 도주자이고 우리가 전쟁에서 패망했다고 말한 비겁분자다.》라는 글이 씌여진 패쪽을 가슴에 걸고 숨진 병사들의 시체가 매달려있는줄 어떻게 알겠는가.

《쉘렌베르그, 그렇게 과장하지 말라구. 당신은 겁을 먹었소. 군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쓰딸린은 베를린에서 격파당할것이라고 하였소.》

《각하, 군인들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다간 당신이 그들을 총살해치울텐데 왜 안그러겠습니까. 군인들도 살아야겠기에 거짓말을 하지요. 나도 살고픈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괴롭지만 사실을 말하는겁니다. 각하, 베르나도트는 당신의 평화제안을 아이젠하워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에게 승낙해주십시오. 래일부터 회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월프가 아니라 베르나도트백작이 이러한 평화제안을 들고나선단말입니다. 백작은 세계적으로 인망도 높고 모든 유럽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로씨야가 서방을 들이치는것을 반대하고있습니다. 나는 각하에게 저의 행동계획을 승인해달라는 부탁밖에 할것이 없습니다.》

《쉘렌베르그, 나는 당신의 행동에 대해 총통앞에서 책임져야 한단말이요.》

《력사는 각하의 소극적인 태도를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당신은 민족이 빨갱이들의 억압을 받게 된다면 책임을 지게 될줄 아십시오.》

쉘렌베르그는 쓸쓸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러자 히믈러는 소설책을 옆으로 활 밀어놓고 어성을 높여 말했다.

《쉘렌베르그, 당신은 에쓰에쓰조직이 총통의 친위대로 생겨났다는

걸 알겠지! 나는 에쓰에쓰 창건자요. 결코 그것을 배반할수는 없소.》
《배반한다구요? 누구를 배반한단 말씀인가요?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가는 정신병자말입니까?》
《그럼 당신은 나에게 뭘 제기하는거요? 총통을 제거하자는건가?》
히믈러는 쉘렌베르그를 빤히 쳐다보며 야유조로 물었다.
《바로 나는 그것을 제기하려던것이였습니다. 당신한테는 아직도 충실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히틀러를 체포하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히틀러만 없으면 당신은 모든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을겁니다. 우리가 서방에 완전히 항복한다는것은 우리 군대를 동쪽으로 이동시켜 투쟁을 새롭게 시작한다는것을 의미하지요. 각하는 여기에 자기의 임무가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히믈러는 그 소리에 너무도 감동되여 철썩 손벽을 치며 말했다.
《그런데 총통을 하느님모시듯 하는 민족에게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소?》
《민족은 오히려 히틀러를 증오하고있지요! 민족은 언제나 나라를 파멸에로 이끌어간 사람을 증오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을 환영한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도 잘 씌여져있지요.》
쉘렌베르그는 풀로타르흐의 소설책을 가리켰다.
《아니요! 아니요!》
히믈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오락가락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지나간 과거를 배신할수 없소. 당신은 우리가 정권을 잡던 그때가 생각나지 않소? 우리모두가 형제들처럼 지내던 그때,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던 그 3년간을 잊었나말이요?! 그리고…》
쉘렌베르그는 갑자기 온몸을 엄습하는 피로를 느끼며 성이 나서 그의 말을 막아버렸다.
《각하, 무슨 형제란말입니까? 각하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집니까? 그래 렘이 한때 총통의 형제가 아니였던가요? 그리고 슈트라쎄는 어떻고? 그들모두는 미친개처럼 총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각하,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앞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민족에게 빨갱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위해 뭉칠것을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방앞에 항복하였다는것과 히틀러가 중병에 걸려 당신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고 발표하십시오.》
《그러나 히틀러는 건강하지 않소!》

《히틀러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남은것은 그의 허울과 환영, 그림자뿐이지요.… 하긴 사람들은 히틀러가 심장판막때문에 게링그자신이 요구하여 그를 해임시켰다고 떠벌이는것을 믿고있습니다. 사람들은 각하가 하는 말도 믿을겁니다. 지금은 무슨 말이나 다 믿는 판국이니까요.》

다음날아침 쉘렌베르그는 제국보건상 데 크리니교수를 히믈러에게 데리고왔다. 보건상은 불안에 사로잡혀 변절자로 락인된 히틀러의 주치의사 브란트대좌를 보낼가 하는 생각을 하였으나 히믈러가 그에게 뢰물을 안겨주면서 오베르잘쯔베르그로 급히 떠날것을 명령하자 기여드는 소리로(그는 공포의 여운이 의연히 사라지지 않는 모양같았다.) 말하였다.

《총통의 병세가 위험합니다. 그의 정신상태는 돌기직전입니다. 지금 총통의 옆에 브란트의사도 없으니 그가 어느 순간에 돌지 알수 없습니다.》

히믈러는 보건상을 떠나보내고나서 쉘렌베르그에게 물었다.

《보건상이 나와 한 이야기를 보르만에게 할것 같지 않소?》

《각하, 그는 오베르잘쯔베르그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지하대본영에 전화를 걸지 않을겁니다. 아마 이런데서 몸을 빼게 된걸 다행으로 생각하겠지요. 보건상도 사고력은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쉘렌베르그는 야유적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좋소, 그렇게 할거라고 믿어보기요.… 헌데 쉘렌베르그, 암만해도 내가 히틀러를 없애버리는 일이 걱정되는구만. 내가 몇 사람을 데리고 지하대본영으로 간다치기요. 내가 총통의 집무실에 들어가 그를 해임시키려왔다고 하면 몸을 덜덜 떠는 이 병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뻥뻥해할거란말이요. 그는 언제나 어린애처럼 순박하게 사람들을 믿었고 또 우리는 늘 그와 함께 있었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를 쳐다보겠나말이요? 응, 어떻게?》

쉘렌베르그는 부지중 히믈러가 가엾게 생각되였다.

(과연 이런 인간이 지금까지 에쓰에쓰를 이끌어왔는가. 내가 이런 너절한자들에게 복무하다니. 이들은 모두 리성을 잃은자들이다. 이들은 자기들자신이 환상에로 승화시킨 그 공포에 짓눌려버렸다.)

《각하, 당신이 보건상과 이야기하는동안 내가 류베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톡홀름에 국제유태인조직대표 슈토흐가 왔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와의 접촉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월가의 중요한 인물들이 서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슈토흐와 만나면 그에게 유태인들을 증오하고 멸시한건 히틀러의 소행이지 당신은 여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여주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해서라도 수용소에 남아있는 유태인들을 구원해줄수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유태인들을 배척하는 정책을 실시한데 대하여 세계가 다 증오하고있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히틀러와 손을 끊지 않으면 루즈벨트, 쓰딸린, 처칠은 말할것도 없고 력사는 우리들의 이와 같은 야만적인 중세기적만행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을겁니다. 또 도이췰란드사람들도 용서할것 같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들이 유태인들을 불태워죽이고 이 땅에서 모조리 쫓아버렸으니 도이췰란드에는 유태인들이 더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굶주리고있으며 폭격을 맞고있다. 유태인들이 없는데도 전쟁에서 패하고있다.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슈토흐와 장사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슈토흐가 요구하는 것을 실행해주면 그는 당신을 유태인구원자라고 서방에 소개하여줄겁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이걸 용서하지 않을거요! 당신은 히틀러가 유태인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광신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걸 알고있지 않소!》

《에이, 그까짓 유태인문제는 그만 이야기합시다! 지금 우리앞에 나선 기본문제야 도이췰란드문제가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그 저주할 유태인놈들밖에 다른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 미치광이의 잠꼬대같은 소리에만 매달려야 한단말입니까! 그까짓놈들 다 뒈져버리라지요! 각하, 유태인문제때문에 머리를 그만 쓰고 이젠 도이췰란드사람들에 대해서나 생각해봅시다.》

《아니요, 총통이 이걸 용서하지 않을거요. 쉘렌베르그, 나한테 자꾸 압력을 가하지 말고 잠간 기다리오. 당신이 나한테 말한 그 문제를 좀 생각해봐야겠소.》

《그걸 생각해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쉘렌베르그는 피식 웃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은 시간을 적지 않게 잃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나를 믿으십시오. 나는 자기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당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제국의 정권을 대표하고있는만큼 우리를 다같이 구원할수 있다고 보았기때문이지요. 각하,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씨야사람들이 베를린을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는 서방과 어떻게 해보자고 해도 이미 때가 늦을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찌 그렇게 감히 말할수 있소?! 나는 어쨌든 내무상이고 에쓰에쓰부대 사령관이 아니요!》

이렇게 부르짖는 히믈러의 목소리는 너무도 가련하게 들리였다.

《아직은 그렇지요. 내가 지나쳤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더는 거짓말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쉘렌베르그는 어조를 좀 누꾹히는것 같았으나 조금도 양보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뮬러는 여전히 베를린에 나타나지 않고 돌아치고있는 쉘렌베르그의 뒤를 밟고있다가 스웨리예주재 도이췰란드대사관에 박아넣은 자기 끄나불에게 암호전보를 날려 이미 시작한 공작을 결속지으라는 지시를 주었다. 그것은 미국인들이 게스타포공작조의 암호수를 《매수》하도록 하라는것이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인들에게 슈틀리쯔가 모스크바에 보낸 암호문을 풀수 있는 열쇠를 쥐여주게 하려는것이였다.

뮬러는 이것이 미전략정보국장 도노완의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했다. 워싱톤에서 쉘렌베르그가 베르나도트, 무지, 슈토흐와 가졌던 모든 접촉이 《유쓰따쓰》를 통하여 모스크바에 알려지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제 워싱톤이 히믈러에게 손을 내밀고 즉시 그와 볼쉐위크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단독평화조약을 체결할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게 등을 돌려댈수도 있었다. 이렇게만 되면 오직 하나의 력량, 보르만만이 남게 된다. 그러면 보르만은 총통의 후계자로서 그의 사상을 이어받을것은 물론이고 린쩨에 있는 지하보물고와 민족사회당의 해외조직들도 모두 장

악하게 될것이다.

뮬러는 히믈러가 미국 유태복고주의대표 슈토흐와 회담할 결심을 가지고 아직도 독가스시험장에서 숨지지 않은 유태인금융업자들을 석방할데 대한 문건에 수표한 후부터 쉘렌베르그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졌다는것을 알았다. 쉘렌베르그는 한주야동안에 천키로메터도 넘는 거리를 자동차로 달리면서 차에서 침식을 했다. 이러한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초긴장으로 하여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로인들처럼 눈시울이 아래로 무겁게 처졌다.

뮬러는 히믈러가 유태인대표와 회담하기에 앞서 제국로동상과 재정성 부상을 만났다는것을 알았다.

재정성 부상은 때를 놓치지 말고 즉시 아이젠하워와 공개적인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로동상은 히믈러로 하여금 제2야당을 조직하고 나라를 온통 감옥과 교수대천지로 뒤덮어놓은 군사재판소를 해산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음날 계엄상태에 들어간 베를린에 베르나도트백작과 국제유태인조직대표 마주르가 비행기로 날아들었다. 쉘렌베르그는 에쓰에쓰제복차림으로 히틀러의 대본영에서 불과 몇키로메터밖에 안되는 군용비행장에서 손님들을 마중하였다.

히믈러와 국제유태인조직대표 마주르와의 첫 회담은 쉘렌베르그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히믈러의 밑에서 십오년동안이나 서기노릇을 해오는 브란트대좌가 회담내용을 기록하려고 하자 쉘렌베르그가 그것을 쓰지 못하게 했다. 히믈러는 사뭇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유태인조직대표에게 어줍게 웃어보이며 유태인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모든 《불신임》에 대한 책임은 민족사회당의 일부 오랜 활동가들을 혼돈시킨 몹쓸놈의 점쟁이들한테 있다고 구구히 변명하였다. 그러자 유태인조직대표가 히믈러의 말허리를 꺾으며 입을 열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우려하고있는것은 도이췰란드수용소들에 갇혀있는 미국, 영국, 도이췰란드유태인들의 생명문제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우리에게 담보하여주면 우리 역시 당신들의 요구를 전부 들어줄것입니다.》

《그럼 로씨야유태인들과 뽈스까유태인들은 어떻게 하렵니까?》
쉘렌베르그가 관심을 가지며 물었다.
이 물음에 유태인조직대표 마주르는 난감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다.
《나는 그 문제를 결정지을 위임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쓰딸린과 베루트가 토론하도록 내버려둡시다. 나는 내가 관심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명백히 말했다고 보는데…》
《옳은 말입니다. 나는 이미 미국사람들에게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이 갇혀있는 수용소의 명칭을 알려주었습니다. 참, 내가 언제인가 유태인들을 제국에서 외국으로 실어보낼 때 그들을 편리한 시설을 갖춘 배와 려객렬차의 1등석에 앉혀보낼것과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지 말데 대하여 지시를 준바가 있습니다.》
히믈러가 채 말도 끝내지 않았는데 쉘렌베르그가 다시 그의 말을 중둥무이하며 제 말을 덧붙였다.
《마주르씨, 당신은 당신네 출판물이 부총통이며 내무상인 히믈러씨와 그의 〈전우〉들이 베푼 이러한 숭고한 립장에 대하여 소개할수 있다는것을 담보할수 있습니까?》
《그거야 여부가 있을라구요. 당신들이 불행한 사람들의 생명만 보존해준다면 문제없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내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권위있는 기업가들의 가족들이거나 친척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향하에 있는 출판물을 통하여 부총통이며 내무상인 히믈러씨와 당신이 취한 숭고한 조치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 혼자만이 아닙니다. 히믈러씨와 늘 함께 있는 수천명의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면 내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었을겁니다.》
《나도 알만합니다.》
마주르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나는 라벤스브류크녀자수용소에 있는 모든 녀자들을 다 영국이나 뽈스까녀자들이라고 부르라는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폭격에 가족들을 잃은 경비원들의 불손한 행동으로부터 수인들을 보호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워낙 험한 때고보니 사람들이 모두 악에 받쳐 무슨 짓을 할는지 알수 없지요.》
히믈러의 말이였다.

히믈러와 쉘렌베르그는 유태인조직대표 마주르와 모든 합의를 본 다음 그를 스톡홀름으로 떠나보내기 위해 군용비행장에 실어다주고나서 그길로 베르나도트백작이 기다리는 히믈러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히믈러는 베르나도트백작과 인사를 나누고나서 직접 사업에 대한 말을 꺼냈다.

《당신은 내가 아이젠하워와 만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평화에 대해 합의할 생각입니다. 나는 서쪽에서의 항복을 오직 동쪽에서 볼쉐위크들을 저지시키기 위해서만 할것입니다.》

《부총통씨, 내가 할수 있는껏 노력해보지요.》

백작은 조용히 대답하고나서 가볍게 기침을 깇었다.

베르나도트는 히믈러와 헤여져(히믈러는 자기 집무실에 남았다.) 승용차에 오르면서 쉘렌베르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부총통이 두주일전에만 이런 제기를 했어도 늦지 않을건데 이젠 늦었습니다. 그는 로씨야사람들이 아직 베를린을 포위하기전에 서방앞에 항복하겠다는 자기의 의도를 나한테 이야기해주어야 했을것입니다. 이젠 히믈러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자기자신에 대해서나 신중히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방향에서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쉘렌베르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애처롭게 울리였다.

베르나도트는 승용차문을 쾅 닫고나서 대답했다.

《노르웨이와 단마르크에서 당신네 군대가 항복하도록 해보시오. 내 생각엔 앞으로 이렇게 하는것도 계산할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뮬러는 슈틀리쯔의 암호부호를 리용하여 모스크바에다 도이췰란드에서 벌어지고있는 사태에 대한 전보를 날리였다. 지금은 미국인들도 이것을 알고있었다.

뮬러는 모스크바의 의심이 부쩍 커지게 하고 도이췰란드땅에서 서로 마주 향해 접근하고있는 동서방 두쪽 력량이 이발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싸우게 하려고 지금 한초한초의 매 순간을 리용할 결심이였다. 무엇이든 다 좋으나 동요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히믈러도 동요하다가 결국 망해버렸다. 뮬러는 자기가 동요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 행동을 굳게 믿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자기에게는 놀음에서 꼭 이길수 있는 기회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본부에 보내는 《유쓰따쓰》의 암호전보문을 포착한 미해군첩보대

는 그 내용을 해득하여 트루맨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해군첩보대는 전날저녁 스톡홀름으로부터 암호해득열쇠를 받았으므로 어렵지 않게 암호문을 해득할수 있었던것이다.

트루맨은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몇명의 보좌관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베르나도트의 말이 옳소. 히믈러는 때를 놓쳐버렸소. 이젠 로씨야사람들이 모든것을 다 알고있는게 틀림없소. 아마 소동이 일어날거요. 우리가 뭐 그런 소동에 겁을 먹을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 미국의 위신이 떨어질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소. 친구들, 무슨 의견들이 없소?》

트루맨과 그의 보좌관들은 오랜 협의끝에 나치스들이 스톡홀름에 있는 미국대표들에게 제기해온 문제와 관련한 특별통보를 대통령이 쓰딸린에게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다는것을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크레믈리에 알려주기로 결정하였다.

워싱톤은 먼저 구두로 나치스들이 모스크바에다 제기한 단독평화조약제의는 배격당했으나 이것이 히믈러의 도발이 아닌가 하는것을 분석해보려면 시간이 걸릴수 있다는것과 트루맨대통령이 후에 서한을 통해 쓰딸린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것이라는것을 알리기로 했다.

막씸 막씨모위치 이싸예브 (2)

슈틀리쯔는 만일 주인이 갑부라고 우쭐렁거리는 사람이라는것을 보여주는 눈부신 수정장식물들과 인간의 섬세한 손을 거쳐 만들어진 희귀한 세공품들을 수집하여놓은것만 없었더라면 기호에 맞게 잘 꾸려진 방안에 누워있다고 느꼈을것이다. 찬장에는 들꽃을 련상시키는 기묘한 술잔이 목이 길죽하고 배가 불룩하게 생긴 큼직한 물병과 가지런히 놓여있고 그 옆에는 다치면 깨여질것 같은 꼬냐끄잔과 묵직한 술잔들이 주런이 놓여있었다. 이 묵직한 술잔들에 비친 해빛은 반짝반짝 푸른 빛을 발산하며 아롱거리는것이 아니라 어둡고 침침한 색갈을 반사시키면서 그릇안이 재빛으로 보이게 했다.

가느다란 족쇄에 팔을 묶이운데다가 왼쪽다리마저 등받이없는 쏘파다리에 철사로 비끄러매이다보니 슈틀리쯔는 옴짝할수 없었다.
(흥, 내가 이 족쇄를 끊고 달아나는것을 희극배우 챠플린이 본다면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겠군. 한번 그래봤으면…)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생각하였다.
(우리 군대가 빨리만 와주었으면… 그렇지 않다간 내가 여기서 죽을것이 아닌가. 전우들이여, 나에게는 시간이 없다. 빨리 달려오라.… 기나긴 세월 나는 그대들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여왔던가. 나는 이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아마 그보다 더 많은것을 했을수도 있지.… 그대들은 나를 질책하지 말라. 조국에서는 누구나 열몫, 아니 백몫, 천몫을 담당하여 일할수 있는것이다. 나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고충을 겪어왔다. 생활은 덧없이 흘러가면서도 우리에게 귀중한것을 가르치고있다. 생활은 비록 글로 써서 지시해주는것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랭정하게 가리켜주는것을 실행하고있는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이 생활적인 요구, 다시말하여 중요한 임무실행을 위해 할수없이 수행해야 했던 그러한 일들과 내가 진정으로 하고싶었던 일사이에서 늘 모대겨왔다.)
요헨이 문득 기척도 없이 방으로 들어와 슈틀리쯔의 옆에 걸터앉으며 물었다.
《바른쪽으로 돌아눕고싶지 않은가?》
《내가 지금 바른쪽으로 누워있지 않소.》
슈틀리쯔는 시답지 않게 대답했다.
《아, 정말 그렇구만. 나는 늘 상대방과 이야기하면서 오른쪽, 왼쪽을 혼돈한다니까. 왼쪽으로 돌려눕혀달라오? 피곤할테지?》
《돌려눕혀주게. 하긴 일어나 앉으면 더 좋겠구만.》
《앉아서는 안되네. 당신하구 사업하는 의사가 그러는데 모스크바에서 답변이 오지 않으면 자네가 계속 누워있게 하라구 하더구만.》
《그럼 누워있어야지 별수 없군.》
《담배는 피우고싶지 않나?》
《피우고싶네.》
《동정은 하네만 자넨 담배를 피울수가 없네.》
《그런데 묻기는 왜 묻는가?》

《흥미가 있어서 그러는거지. 지금 자네 심리가 어떤가 알구파서 그런단말일세.》

《요헨, 자넨 파시즘이라는게 뭔지 아나?》

요헨은 어깨를 으쓱하며 방심한 투로 대꾸했다.

《이딸리아의 선진적력량들이 벌리고있는 민족운동을 파시즘이라고 한다더군.》

《세상사람들은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 프랑스테로단을 혼돈하고 있는가보네. …》

《혼돈하는거야 학식이 없으니까 그런거지. 그래 그 너절한 프랑스테로단과 아리아민족사회주의를 똑같이 본단말인가?》

《요헨, 똑같이 봐야 하네. 난 처음으로 〈파시스트〉라는 말뜻을 여기 도이췰란드에서 알게 되였네. 들어보고싶지 않나?》

요헨은 담배를 불여물고 대답했다.

《왜 싫겠나. 어디 한번 말해보게.》

《이건 히틀러가 아직 수상이 되기전 1932년에 있은 일이네.… 하루는 내가 샤를로텐베르그에 갔댔는데 어느 좁다란 골목길에 있는 맥주집옆에 승용차가 두대 서있더구만. 승용차옆에서는 갈색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데 몰켜서서 겝벨쓰의 연설에 대하여 말하면서 웃고 떠들며 론쟁하지 않겠나. 보매 에쓰디성원들 같더군. 나는 그들을 보고 운전사가 있으면 차를 길옆으로 바싹 붙여세우고 길을 좀 내달라고 했지. 그런데 그들은 운전사가 없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안된다고 하지 않겠나. 나는 얼마간 더 고집을 부려보다가 할수없이 차를 돌려세웠지. 그러니까 군복차림의 그 사람들이 말없이 나를 지켜보더니 내가 어디서 그처럼 솜씨있게 장애물을 헤치고 차를 빼는 법을 배웠는가고 묻더군.… 내가 아무말없이 차를 길 한쪽에 세우고 내리자 지금껏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중에서 두사람이 차에 앉더니 〈하일 히틀러!〉하고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네. 나는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을 보고 좋아하는것— 이것이 바로 파시즘이라고 보네.… 그러나 자네처럼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민족사회주의가 파시즘이라고 말하는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네. …》

요헨은 솜털이 부르르한 굵다란 손가락마디를 딱딱 소리나게 꺾으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였다.

《슈틀리쯔, 뮬러중장은 나를 보고 자네가 비록 매벌이는 해도 무리하게 대하지 말라고 했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네한테 도이췰란드민족사회주의가 로씨야의 허무주의적볼쉐위크와 맞다들었을 때 그것이 어떤것인가 하는걸 보여준지가 오랬을거네.》

요헨은 악에 받쳐 씨벌이며 머리를 수긋하고 슈틀리쯔의 눈을 쏘아보더니 그의 얼굴에 퉤 하고 침을 뱉았다.

《뮬러중장이 이렇게 침을 뱉는것까지는 금지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한거야 없다고 봐야지.》

그는 문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다시 한마디 던졌다.

《슈틀리쯔, 내가 후에 너에게 볼쉐위크허무주의란 어떤것인지 설명해줄테다.…》

슈틀리쯔는 요헨이 문밖으로 사라지자 키다리짐승같은놈의 침에서 썩은 냄새가 풍기는것을 느끼며 베개에 얼굴을 문질렀다.

그의 눈앞에는 부지중 와쯜라브 보롭쓰끼의 얼굴이 떠올랐다. 보롭쓰끼는 슈틀리쯔의 아버지가 초보적으로 문화분야에서나마 자기와 신념이 같은 사람들과 마르또브의 멘쉐비크파들 그리고 레닌주의자들사이에 타협의 길을 모색해보려고 로씨야문학에 대한 공개학술토론회를 조직하였을 때 츄리크(스위스의 도시)에 있던 그들의 집으로 왔었다.

이싸예브(슈틀리쯔)는 자기 아버지가 레닌과 마르또브사이의 관계가 단절된것으로 하여 몹시 괴로와하고있었다는것을 기억하고있었다.

아버지는 레닌의 립장이 정당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멘쉐비크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왔다. 그는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함께 사업을 시작해온 사람들을 버릴수가 없구나. 우리는 힘이 약하다. 하지만 나는 어쩔수 없이 힘이 약한 이 사람들을 옹호하고있다. 사내 나이 열다섯이면 진리에 대한 감수성이 특별히 예민하고 진취성이 강한 때인줄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것이니 나를 나무람하지 말아다오. 리해력과 동정심은 차츰 나이가 들면서 생긴단다. 나는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련다. 내가 그때를 기다려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싸예브는 난생 처음으로 어른속에 끼여앉아서 그런지 그날 저녁에 받은 인상이 영원히 기억속에 남아있었다. 그는 그때 벌어졌던 일들을 세세히 기억하고있었다. 지어 보롭쓰끼가 입고있던 갈색상의

왼쪽팔굽에서 세번째 단추가 떨어졌던거며 회색와이샤쯔를 흰실로 꿰매였던것까지 지금도 눈앞에 보는것 같았다.

그때 보롭쓰끼는 로씨야문학에서의 허무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로씨야에서는 문자 〈야찌〉와 관련하여 십여년동안 열렬한 론쟁을 벌려오고있다. 사실 이 문자가 필요없다는것은 누구나 잘 알고있다. 아무런 의의도 없는 이 문자가 존재함으로써 그것을 모르는 아이들은 문법에서 2점을 맞고 눈물을 짜고있다. 이 세상의 모든 허망한 일들이 아이들에게 눈물을 짜게 해서야 되겠는가.… 도스또옙쓰끼는 인간의 도덕문제에 대하여 혹독하게 표현하였다. 허무주의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론쟁만 거듭하고 있을뿐이지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있다. 만일 뚜르게네브의 바자로브(소설 《아버지와 아들》의 주인공)로부터 허무주의를 보기 시작한다면 나는 이것을 반대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한 허무주의의 개념속에는 거꾸로 된 자기식의 애국주의가 있는것이다. 사람들은 마치 이전에 그런 애국주의가 로씨야에 없었던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것이다.》

보롭쓰끼는 이런 견해(그는 누구의 말인지 인용하려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왔었다.)를 들어보는것도 흥미있을거라고 하면서 짤막한 대목을 인용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우리 학술토론회를 더 허심탄회하고 민주주의적이고 통속적인것으로 하여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보롭쓰끼는 그때 노래를 부르듯 보지도 않고 문구를 엮어내려갔다.

《모든 인민들에게는 청춘기의 추억과 시문학 그리고 가장 유익한 사상이 생겨나던 때의 열정적인 활동시기가 있고 왕성한 발전시기가 있는것이다. 바로 그속에 장래력사의 원천이 있고 기초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것을 하나도 가진것이 없다.》

그는 거의 거만하다고 보리만큼 얼굴에 랭담한 미소를 지었다.

이 일이 있은지 썩 후에 아버지는 나에게 《얘야, 정말 그가 거만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는 이런 행동속에 자기의 부드러운 마음을 감추고있단다.

그는 어린애들처럼 매우 연약하고 다치기 쉬운 사람이란다.》라고 말해주었다.

보롭쓰끼는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두번째 대목을 읽기 시작하였다.

《우리 로씨야사람들은 예로부터 순박한 사람들이였고 그들의 정신도 그러했다. 교회당이 우리를 그렇게 교양했던것이다. 우리가 종교의 교리를 배반한다는것은 슬픈 일이다. 우리는 자기가 훌륭한 기질, 인민적인 기질을 가지고있고 높은 재능을 가지고있으며 이 세상에서 값있는 존재로 된데 대하여 이 교리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 길은 다른 사람들이 걷고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넓은 방안에는 스무명도 넘는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그들은 웅성웅성하며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들속에서 《벨린스끼》, 《악싸꼬브》, 《호먀꼬브》라는 말들이 들려왔다.

그러자 보롭쓰끼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또다시 웃는것이였다.

《아니요, 동무들, 벨린스끼도 악싸꼬브도 아니요. 나는 이 두가지 글을 다 차다예브가 자기 활동의 초시기와 림종직전에 남긴것을 인용하였던거요.… 첫번째 글은 뿌쉬낀에 대한 슬프고 분한 마음에서 그리고 주위의 모든것이 강요되고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고 그들의 모든 행동이 법으로 얽매였던 그 시기의 로씨야의 넋에 대한 슬프고 분한 마음에서 생겨났댔소.… 행동과 사색에 대한 바로 이러한 제약성이 차다예브의 허무주의를 낳았던거요. 이것은 지적발전을 억누르는 부자연스러운 견해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 그 어떤 신비로운것에 자기의 시선을 돌리려는것이라고 봐야 할것이요.… 허무주의는 나쁜 사람의 타고난 품성이 아니라 경찰제도와 관료주의, 무지막지한 금지조치에 의하여 생겨난것이요. 그러나 여기에서 차다예브의 허무주의는 그 시기 로씨야문학에서 나타난 일종의 거드름과 같은것이였소. 슬라브파사람들(그들은 서유럽을 반대하였다.)이 명백히 규정한것처럼 허무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것은 알고있었으나 자기들이 원하는것은 몰랐던거요. 따라서 차다예브의 거드름을 탓하는것은 니꼴라이 빨낀시기의 로씨야에서 30년동안 참아온 그 시대를 탓하는것이나 같다고 볼수 있소. 지어 그때시기의 허무주의자들이 현실을 부정하여 공개적으로 천명한것들이 지금은 전진도상에서 발현된 긍정적인 행동으로 평가되는것이요. 바자로브는 로씨야의 사회적사상의 발전이였소. 그러나 나는 그것을 차다예브로부터 보지 않고 영예와 량심의 진정한 개념에 관한 문제, 사회력사에서

개성의 내용에 관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라지쉐브로부터 시작하였소.》
…이싸예브는 아버지의 집에서 벌어졌던 그날저녁의 일들을 종종 생각해보군했다. 그는 열렬한 론쟁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연설하면서도 지나치다할 정도로 침착하던 보롭쓰끼의 행동이 어찌하여 그처럼 기억속에 못박히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그날밤 내가 부엌에서 그릇가지들을 가신 다음 넓은 방에서 마루를 닦고있을 때 아버지는 쓸쓸하게 미소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생각해보니 나는 언제나 내가 바라던것과 정반대되는 일을 해왔나 보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화해할 생각을 하는것이 아니라 점점 다툼질만 심해가고 사이가 벌어져가니 야단이 아니냐. 나는 로씨야에서 이제 곧 사변이 터질것이라고 믿는다. 정권은 제가 살 나이를 다 살았는가보다. 우리도 로씨야로 돌아가자. 아들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분오렬되여있으니 얼마나 분한 일이냐.…》
이싸예브는 왜 그날저녁에 있은 일들을 퍼그나 오랜 세월이 흘러간 여기 히틀러도이췰란드땅에서 비로소 회고하게 되였는가를 알았다. 도이췰란드제국에는 사회생활이란 존재하지도 않았고 흐르지 않는 소택지의 썩은 냄새와 같은것이 온 나라에 차넘치였다. 총통의 히스테리발작과 군중의 울부짖음, 거리마다에 때때로 찾아드는 무시무시한 정적, 인간의 개성과 명예, 존엄의 유린—이것이 도이췰란드의 현실이였다.
아득히 흘러간 그해 가을 츄리크에서 이싸예브가 목격한 열렬한 론쟁의 아름다운 정신은 도이췰란드에서 사업을 시작하던 첫시기 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구원자와 같은것이였다. 그는 론쟁자들의 얼굴과 그들의 말투까지 기억하고있었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로씨야민족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은 인민들에게 유익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권리만을 가진다고 주장하던것이 더욱더 큰 감동을 주었다. 이들은 사회를 한모양의 사회적인 동일성으로부터 사고와 행동의 권리를 소유한 인간들의 개성과 자신의 존엄에 관한 숭고한 감정의 결합, 다시말하여 개성과 명예를 의식적으로 결합시킬 책임을 맡아나설 결심이였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들은 나에게 제르쥔스끼, 께드로

브, 아르뚜조브, 뜨리포노브, 안또노브－오브쎈꼬, 블류헤르, 스웨르들로브, 뽀스띄쉐브, 드이벤꼬, 까라한, 리뜨비노브, 멘쥔스끼들을 알게 해주었다. 묻노니 누가 또 자기 생에서 이러한 행복을 지녔던가?! 내가 지금 이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들이 내옆에 있어주는것은 나를 구원해주는것과 같은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먼길에 다리쉼을 하는것과 같은것이고 중태에 빠진 환자가 꿈을 꾸는것과 같은것이다. 어찌하여 나는 그처럼 나에게 필요한 바로 이 시각에 그들을 그렇게 똑똑히 보게 되는것인가? 그렇다. 그것은 요헨이 허무주의에 대하여 말하였기때문이였다. 참 이상한 일이지. 악의 사환군들이 나에게 선을 가져다주다니. 과연 이것도 응당한것이란말인가?)

그는 또다시 시간이 걱정되였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더는 기다려낼수가 없었다. 이 무서운 생각은 머리를 빠개는것만 같았고 온몸을 압박하는것만 같았다. 그리고 비애를 가져왔다.

(우리 군대가 제때에 쳐들어오겠지. 암, 꼭 그래야 하구말구. 아니야, 줄곧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것을 생각해보자.…

그럼 뭘 생각해야 하는가? 만일 우리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면 적들은 나를 죽여버릴것이다. 그러면 모든것은 끝장이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분한 일인가. 나는 오랜 기간 도이췰란드에 있으면서도 이 도이췰란드밖에서 살아온 많지 않은 사람들중에 속하지 않는가.… 하기에 나는 이 나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알고 있다. 도이췰란드가 어떤 나라였는가 하는것을 말하려면 이 나라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이것은 도이췰란드의 새 세대들을 위해서도 필요한것이다. 여기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나에게는 이상한 감정이 생겨났다. 그것은 도이췰란드에 있으면서도 이 나라밖에 있다는 느낌이였고 이러한 현상이 영원한것으로 될수 없다는 리해였다. 누구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기 창작에서 다음세기와 련관되여있다고 옳게 말하였다. 그것은 그 무엇도 그를 형식에서 미껠란젤로의 전형성문제와 련결시키도록 구속하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는 미학적인 내용을 조각품의 겉면에서가 아니라 그 구조에서 탐구하였다. 그는 공간의 본질을 리해하기 위하여 형식에서 육체적인 한계점을 벗어난것으로 하여 첫 인상주의자로 되였다.

레오나르도는 육체를 탐구한것이 아니라 생활을 탐구하였던것이다.
그렇지, 이싸예브, 재주를 계속 부려보라. 그리고 흥미있다고 보는것을 생각해보라. 너는 여기서 살아오는 전기간에 말할 권리마저 지켜야 하는것이 아니였지. 이것만이라 해도 별로 큰 불행이 아닐것이다. 너는 말을 해도 제가 믿지 않는 말을 해야 했고 자기가 증오하는 그런 말들을 되풀이해야 했다. 때로는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용케도 참아내군했지. 그것은 어떤 행동이든지 목적지향성있는것으로 되여야 했기때문이였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한갖 변덕에 불과할것이고 공작에 아무런 리득도 가져다주지 못했을것이다. 참을성이 없고 기다릴줄 모른다면… 참, 또《기다리라》는 이 저주로운 말과 맞다들게 되는군. 설사 이 말이 지금 나를 안타깝게 한다고 한들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나도 사람이 아닌가. 《한계》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고유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한것은 무엇인가?)
《윌리! 나를 위생실로 안내하라구!》
슈틀리쯔는 갑자기 소리질렀다.
윌리가 나타났다.
그는 수갑을 풀어준 다음 슈틀리쯔를 방안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들이 베를린시내의 모든 구식주택들에서처럼 길고 복잡하게 생긴 복도를 지나 빨간 가죽을 씌워 방음장치를 한 문옆에 이르렀을 때 슈틀리쯔는 문득 누구인가 타자수에게 불러주는 말가운데서 뮬러의 밑에서 일하는 헤슈케소좌의 낯익은 말소리를 가려들었다.
《전 프랑스상이였던 레이노가 지금 프랑스에서 소위 〈나치즘〉의 희생자로서 높은 존경을 받고있다는것을 연고로 하여 아브웨르 2과는 상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서기 마들렌 꾸조를 련행하였다. 서기는 체포된 상의 가족들이 마뀌(프랑스빨찌산)들과 련계를 가지고 있다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였을뿐아니라 서기자신이 공작임무를 수행하였다는것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헤슈케는 한마디한마디 씹어뱉듯 억양을 똑똑하게 발음했다.
《조용하시오! 나는 지금 범인을 끌고가고있소! 잠간 일을 중지하시오!》
윌리가 등을 콱 밀치자 슈틀리쯔는 이렇게 소리쳤다.
《왜? 내가 달아날것 같애서 그러는가? 내가 프랑스사람들에게 너

희들의 비밀을 대줄가봐 겁이 나?》

《너는 도망치기 틀렸다. 만일 뮬러중장이 놓아준다면…》

《뮬러가 나를 놓아줄것 같은가?》

《모스크바에서 답변만 오면 즉시 놓아줄수 있지.》

《그런데 족쇄는 왜 채우고있는가?》

《답변이 아직 오지 않으니까 그러는거지. 설사 답변이 온다고 해도 네가 살아날것 같은가. 로씨야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모조리 쏘아죽일텐데. 할수없이 너는 집없는 삽살개모양으로 새 주인의 발목에 매달리지 않을수 없게 될거다.》

슈틀리쯔는 위생실에 들어가 문에 등을 기대고 부러진 안전면도칼날이 보관되여있는 양복앞섶을 뜯은 다음 면도칼날을 엄지손가락과 두번째손가락으로 꼭 쥐였다. 그리고 자기에게 물었다.

(막씸, 이젠 정말 끝장이란말인가? 오분만 지나면 사람의 몸에서 피가 깡그리 마른다고들 한다. 이제 머리속에서 소음이 일듯 웅웅거리고 노근해지기 시작할테지. 그러면 종말이 다가온 이 순간까지도 조용한 방안에 들어앉아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있는 뮬러, 요헨, 윌리와 같은 더러운 놈들의 낯짝을 보지 않게 되겠지.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약한 마음을 먹느냐? 이렇게 맥없이 피를 뿌리고 가다니, 이렇게 하기는 물론 끝까지 견디여내기보다 훨씬 쉬운 일이지. 너는 살아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스스로 죽어버리려 하다니. 과연 네가 자기에게 그렇게 지시할수 있다고 보는가? 나는 그럴 권리가 없다. 나는 그저 살아있는것이 아니라 다만 공작을 진행하여왔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움직여왔을뿐이 아닌가. 내 육체는 나의것이 아니다. 아, 나는 흘려보낸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뜻깊게 살것을 얼마나 갈망하여왔던가. 또 싸쉔까와 함께 살기를 얼마나 기대했고… 그러나 나는 뮬러가 하는 일을 제지시킬수 없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들이 나를 굴복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정신이 돌수 있다. 제발 정신만 돌지 말라. 그럴바엔 차라리 지팽이가 되고 자루가 되는것이 더 좋을것이다. 만일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과연 멍청한 눈길을 가진 정신병자로 살아가야 한단말인가? 아니면 뇌수의 비밀을 연구하고있는 실험실에서 의사들의 실험대상으로 되고있는 동물들처럼 지각도 없고 공상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로 되여야 하는가? 그러나 배신행위는 이보다 더 무서운것이다.

자기를 조국과 분리하여서는 안된다. 조국을 배반하는것은 자기자신을 배반하는것과 같은것이다.)
《어이, 슈틀리쯔, 뭘해? 왜 가만있어?》
윌리는 기다리다못해 꽥 소리질렀다.
《가만 좀 있으라구. 뭘 좀 생각중이야. 네놈은 못나게 위생실안을 들여다보는게 아니야?》
슈틀리쯔는 면도칼날을 얼른 주머니에 넣었다.
《네가 뭘 하는지 내가 다 듣고있다.》
슈틀리쯔는 쓰겁게 웃었다.
《어디 인차 오줌을 눌수 있어야지.
네놈들이 나를 앉지도 못하게 하고 걷지도 못하게 하니 오줌인들 누겠는가. 사람이 노상 누워만 있으면 신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걸 몰라!》
그러자 윌리는 문을 벌컥 열었다.
《자, 그렇게 서있어. 내가 보고있을테니.》
《그러다가 녀자서기들이 방안에서 나오면 어쩔려고 그러는가.》
《그게 어쨌단말이야. 녀자들도 다 우리 사람들이기때문에 일없어.》
《그럼 내가 변을 보면 어찌겠는가?》
윌리는 갑자기 실눈을 지으며 소리질렀다.
《야, 넌 왜 그렇게 얼굴색이 하얗게 되였어? 입을 벌려!》
《왜 독약이 있을가봐 그러는가? 나한테는 독약이 없다. 설사 독약을 먹었으면 이렇게 오래 갈것 같은가? 순간이면 죽는단말이야.》
《입을 벌려!》
윌리는 거듭 소리지르며 주먹으로 갑자기 슈틀리쯔의 턱을 되게 후려갈겼다. 그러자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혀를 내보내!》
슈틀리쯔는 공손히 혀를 내밀어보이고나서 물었다.
《색갈이 누런가? 설태가 많이 앉았지?》
《누렁기는커녕 아이들처럼 새빨갛다. 너는 오줌도 누지 않을걸 왜 변소에 가겠다고 했어, 엉? 이젠 도루 가자.》
《네 마음대로 하렴, 아무래도 한시간후에는 또 와야 될걸 가지구.》
《이젠 데려다주지 않겠다. 너는 한주야에 세번밖에 변소에 갈수 없다. 참아야 한다.》

윌리는 슈틀리쯔를 이끌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슈틀리쯔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그중에서도 고보로브원수의 이름이 번뜩 그의 뇌리를 쳤다. 하지만 그는 고보로브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을수 없었다. 윌리가 또 소리질렀던것이다.

《조용하시오! 내가 사람을 끌고가고있소.》

윌리는 방안에서 슈틀리쯔의 손에 다시 수갑을 채우고 왼쪽발을 쏘파다리에 비끄러맸다. 그리고는 찬장에서 프랑스꼬냐끄병을 내리웠다.

(이제 저놈이 큰 술잔을 내리울테지—하고 슈틀리쯔는 생각하였다. —작고 맵시있게 생긴 꼬냐끄잔은 그의 기분에 맞지 않을테니까. 윌리, 돼지같은놈아, 어서 술잔을 쥐고 처마시기나 해.…)

그러나 윌리는 큰 잔을 내리우지 않고 작은 꼬냐끄잔을 내리워 거기에 꼬냐끄를 꼴깍 채워부은 다음 한동안 술잔을 손바닥으로 싸쥐고있다가 흥흥거리며 냄새를 맡아보더니 《자메이커(까리브해에 있는 섬)냄새가 나는군.》하며 벌쭉 웃었다.

(그렇지, 저놈은 령사관에서 일했다지. 하지만 이상한 일이다. 그는 연회에 참가한것도 아니고 여기에 혼자 있는데 꼬냐끄를 두껍고 말쑥한 잔으로 마셔야 할게 아닌가.…)

어딘가 가까운 곳에서 포탄이 몇방 터지였다.

어느정도 습관되여버렸던 동쪽의 포성이 이제는 아주 바투 다가온것이다. 슈틀리쯔는 지어 기관총련발사격소리마저 분간할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인차 그것을 부정하여버렸다. 자기가 바라는것을 현실로 착각한것이라고 생각했다.

기관총소리를 분간할수 있을 정도면 붉은군대가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도 나와 그들과의 거리는 10키로메터, 아니 20키로메터는 될것 같다.

《슈틀리쯔, 너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추측해봤는가!》

윌리는 슈틀리쯔를 보고 물었다.

《추측해봤다.》

《내가 너를 여기서 도망치게 해주면 돈을 얼마나 줄테야?》

《넌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다가 하면 어쩔텐가? 너는 내가 그럴 힘이 없다는걸 어떻게

알아?… 돈을 얼마나 줄텐가?》
《네가 먼저 요구되는 금액을 불러봐라.》
《10만딸라.》
《그럼 나한테 펜을 줘.》
《그건 왜?》
《행표를 써야 할게 아닌가?》
《아니야. 난 현금을 요구한단말이야.》
윌리는 도리를 저었다.
《나한테 현금이 없는데야 어찌겠는가?》
《그럼 돈이 어디 있는가?》
《은행에 있지.》
《어느 은행말인가?》
《여러 은행에 있지. 스웨리예은행에도 있고 빠라과이은행에도 있구.》
《모스크바에는 없는가? 혹시 빨갱이들한테 은행이 없는게 아니야?》
《은행이 왜 없겠나. 물론 있지. 요헨이 네가 하는 말을 들을가봐 겁나지 않은가?》
《그는 지금 자고있어.》
《뮬러는 언제 오는가?》
윌리는 자그마한 술잔을 본래자리에 가져다놓고 배가 불룩하고 암팡지게 생긴 잔에 꼬냐끄를 넘어나게 부은 다음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자 가느다란 목에서 울대뼈가 게걸스럽게 울뚝울뚝 삐여져올랐다.
《슈틀리쯔, 잘 생각해봐. 10만딸라만 주면 네가 빠져나갈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하겠소.〉하고 대답할수 있는 시간이 적은게 문제다.》
윌리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밖으로 나가 문을 잠그었다. 슈틀리쯔는 생각을 굴려보았다.
(그렇다. 윌리의 말이 옳다. 그는 정말 10만딸라의 돈을 받고 여기서 도망칠자이다. 하졸들이야 도망치지 여기에 뭣하러 남아있겠는가.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해볼가? 바벨스베르그의 지하실 비밀장소에 있는 돈을 알려줄가? 혹시 너는 뮬러가 무엇인가 제기할것을

기대하는건 아닌가? 너는 지금 그것을 인정하기 두려워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없는것도 아니지. 그렇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운것만은 사실이다. 그것은 아직도 뮬러를 끝까지 리해하지 못한데서 오는것이다.)

《어이, 윌리! 윌리!》

슈틀리쯔가 소리치자 윌리는 기다리기라도 한듯 황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좋아, 가령 내가 동의한다고 해보지.》

《슈틀리쯔, 〈가령〉하고 있을 시간이 없네. 동의하면 주소를 대주게. 빨리 가야겠네.》

거칠은 말투가 금시 달라지며 윌리는 삽삽하게 굴었다.

《바벨스베르그에 있는 내 집이네.》

《돈은 어디 있는가?》

《지하실 차고옆에 있는 비밀장소에 있네.》

《그림을 그리라구.》

《윌리, 자넨 똑똑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구만. 그래 내가 략도를 그려주면 자넨 돈을 걷어가지고 가버리고 난 여기 다시 남아있어야겠구만.》

《그렇지, 자네가 여기 남게 되지. 그럼 우리 함께 가세. 내가 족쇄를 풀어주지. 그러면 어디건 가구싶은데로 가라구.》

《다른 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나?》

《그건 내가 상관할바가 아니네.》

《좋네,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게.》

윌리는 주머니에서 만년필과 수첩을 꺼내였다. 그리고는 슈틀리쯔의 손에서 족쇄를 풀어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남쪽과 북쪽이 어딘가 하는걸 잘 표시해두라구. 그러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후에 우리가 잘못 찾았다고 말하지 않게.》

슈틀리쯔는 지하실략도를 그린 다음 비밀장소가 있는 곳에 표식을 하고 설명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망치로 가볍게 벽을 두드려가느라면 어느 한곳에 이르러 궁글은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금속함이 있고 그속에 21만 3천딸라의 돈이 있다는것이였다.

윌리는 지하실략도를 한동안 눈여겨보다가 스위치는 어디에 있는가고 물었다.

《바로 문옆 왼쪽켠에 있네.》

《알만하네. 고맙네, 슈를리쯔. 그런데 불행한건 로씨야놈들이 벌써 바벨스베르그에 들어온거네.》

《언제 들어왔는가?》

《어제 들어왔네.》

《그런데 여기서 이건 무슨 놀음인가?》

윌리는 야유조로 웃으면서 씨벌였다.

《사람이 고통을 겪는것을 보기가 기뻐서 그런거지. 더우기 우리는 자네의 그 지하실벽을 두드려보고 지뢰탐지기로 뒤져보았는데 금속함이 웅웅 울리는것 같더군.》

슈를리쯔는 또다시 1932년 5월 어느날 샤를로텐베르그의 좁은 골목길에서 갈색군복을 입은 에쓰디장교들속에 끼운 《오뻴》차를 되돌려세우려고 애쓰던 일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히히닥거리던 파쑈들의 낯짝이 생각났다. 그때 그들의 옆에는 운전사들이 있었으나 도와주기는커녕 옴짝하지도 않았다. 사람이 고통을 겪는것을 보기가 기뻐서였다.

(만일 나에게도 이런 정신이 심어져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내가 비렬한 놈으로 태여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태여날 때부터 좋고 나쁜 천품을 가지고 태여나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아마 좋은 정권이라면 사람들이 미덕과 동정, 용감성과 관대성을 발현하도록 도와주고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나쁜 품성을 없애버리도록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히틀러가 자기들만이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의 력사가 가장 훌륭하고 자기들의 음악이 가장 천재적인것이고 자기들의 사상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필요한것이라고 사람들의 머리속에 주입하고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히틀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것을 무시하도록 력설하고있다. 그러나 자기인민과 자기자신만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지어 같은 혈통이지만 남이 아니겠는가. 국가자아중심주의는 언제나 제국들을 경제적파산에로 몰아갔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훌륭한 모든것을 야수적으로 자기에게 예속시킬것을 가르치였기때문이였다. 예속보다 더 무서운것은 없다. 이것은 정신적인 녹과 같은것이다. 이것은 사람과 국가를 내부로부터 갉아먹는다. 이것은 좀도 아니여서 나프탈린으로써도 없앨수가 없다. 프라이따흐가 불쌍하다.

녀인은 민요서사시에 대하여 참 훌륭하게 이야기했던거지. 프라이따호와 함께 있으면 모든것이 잘 되였으련만… 프라이따흐가 령리한 아이들처럼 《목소리를 듣고》 민요서사시에 대하여 생각하고 《목소리를 듣고》민요서사시에 대하여 말하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다. 프라이따흐는 자기의 훈련지도원에 대하여 말하면서 만일 지도원이 명령하면 창문에서 뛰여내릴 준비까지 되여있다고 하였다. 민요서사시도 학문이 아닌가. 이것은 력사의 한 부분이다. 력사에서 사실을 외곡하거나 력사적사실을 모르는것은 범죄와도 같은것이다. 이것은 로젠베르그나 겝벨쓰가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고 인민들을 히틀러정신병자의 의지에 순종하는 암둔한 무리들로 만들게 하여주고있다. 프라이따흐는 무로메쯔장수에 대하여, 도이췰란드와 스웨리예어문학이 로씨야어문학과의 공통성에 대하여 말하였고 옛이야기의 줄거리가 고대노르만족들로부터 로씨야사람들에게로 넘어갔다고 하였다.

이것은 맞지 않는 소리다. 아마 이것이 그리스사람들에게서 넘어온것 같다. 블라지미르 모노마흐와 그의 《설교》만 상기해보아도 충분히 알수 있다. 아, 그것은 얼마나 훌륭한 문학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 모르고있는것이 불행이다.)

슈틀리쯔는 아버지가 이 책에서 어느 한 부분을 자기에게 읽어주던 일이 다시금 생각났다. 책은 갈피가 떨어져 없어진 부분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부분만해도 감동적이였다.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여덟마디의 말로써 그의 성격의 고결성을 느낄것 같으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공작이지만 그는 명령하는 법을 모르고 모든 지혜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스개소리를 곧잘하였다. 그리고 호기심이 강하였다. 바로 그래서 선량하였던거지. 그의 단편적인 생각만 보아도 그는 무엇이든지 통채로 먹어보려는 탐욕이 없는 사람이였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승려생활을 지킬것을 요구한 사람들이 우세를 차지하였던 비잔찐에서 성상반대자들이 승리한 후 에게해의 따뜻한 일기와 기름진 땅, 풍만한 해빛이 사람들에게 즐거운 생활을 안겨주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목사들은 다시는 로마의 침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그들을 엄

격한 규률에 묶어놓았다는것이다. 모노마흐는 꼰쓰딴찌노뽈리예가 어머니켠으로 그리스사람이였지만 그를 반대해나섰다. 그는 비잔찐의 교조주의자들과는 달리 기도문을 대함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굳어진 공리를 대하듯 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한갖 인간의 의지를 규률에 익숙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인간들의 사업에 대한 열정을 수도원의 형벌로써가 아니라 리성적인 규률로써 불러일으키고싶었다.

모노마흐는 이렇게 설교하였다.

《누가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자기 형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거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 군대에 나가면 게을러서는 안된다. 먹고 마시는데만 전념하지 말라. 자기 몸에서 총을 벗지 말라. 거짓말을 하고 술주정하는것을 경계하라. 그러면 몸과 마음을 그르칠수 있다.》

무로메쯔장수에 대한 이야기도 남쪽바다에서부터 시작되고있다. 이 민요서사시는 그리스에서 나온것이며 너그러움과 자애로움과 힘이 곧 이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자기 힘을 뽐내지 않으며 약자를 노엽히는것을 두려워하는것이다. 하기에 무로메쯔는 처음에 잘못한 제 아들을 용서해주고 그를 믿었던것이다. 그러면 나는 프라이따흐에게 이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주려고 했던가? 나는 여기에서 공작하는 기간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미 알고있거나 또는 흥미없는 말도 열심히 듣는법을 익히였고 나에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들을 때에는 방심한체하는법을 배웠다. 나는 사업을 위해 배우가 되여야 했고 필요한 답변을 기다리며 살아야 했다.

이제 모든것이 끝나면 내가 프라이따흐에게 모노마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테다. 력사에는 다만 사실만이 요구되는것이고 그에 대한 해석은 후에 따라오는것이다. 나는 그 녀인에게 이것을 말해줄테다. 잠간, 내가 그 녀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단말인가? 나는 아무말도 그에게 해줄수 없을것이다. 그것은 내 주머니속에 예리한 금속쪼각이 있고 벽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겪고있는 고통을 즐겨보고있는자들이 있기때문이다.

《하일 히틀러, 중장각하!》

슈틀리쯔는 요헨의 청높은 목소리를 듣고 뮬러가 왔다는것을 알았다.

통안의 거미들 (1)

지하대본영에서 군사정탐기관의 깊은 리해관계를 대변하고있는 부르흐돌프장령은 보르만이 총통에게서 물러나자 요한마이어부관을 보고 긴급하고도 중요한 용건으로 오분동안만 총통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부르흐돌프는 게링그에게서 온 전보를 히틀러가 먼저 받지 않았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무전수들은 게링그에게서 전보가 올것을 예견하고있었고 보르만의 보좌관 짠더대좌로부터 주의를 받고있은듯 전보를 받자 곧 그에게 가져갔다. 짠더는 지체없이 보르만을 찾아갔다. 군사정탐기관은 헬렌이 《오데르강에서의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후》《자기 핵심들의 공작준비를 위해》 남쪽 산악지대로 《떠나기》직전에 하달한 해당한 지시를 받고 여기 지하대본영에서 질서정연하고 세밀하게 사업을 벌려나가고있었다.

부르흐돌프는 사무실에 들어오는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대조해보고 히틀러가 알프스보루로 떠나지 않도록 한것이 바로 보르만이였다는 것과 또 보르만이 우둔한 광신자이고 죽어가는 병자인 겝벨쓰에게 전쟁은 오직 여기 베를린에서만 종결지을수 있다는 취지로 부단한 영향을 주어왔다고 결론지었다. 사실 겝벨쓰는 제국의 거물급들중에서 유독 혼자서 얼빠진 민족사회주의사상을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있는 광신자였다. 보르만은 이것을 리용하여 능숙하게 피아노건반을 눌러가며 자기에게 필요한 소리를 얻어냈던것이다. 그는 언제나 정면에 나서지 않고 겝벨쓰를 앞에 내세워 그가 노래도 부르고 앞으로의 승리에 대하여 구상하고 기적을 예언하도록 하게 했다. 총통은 겝벨쓰의 말을 들을 때면 얼굴에 만족한 미소를 지었고 눈을 지그시 감군했다. 이럴 때면 그는 이전날의 의지적이고 단호한 표정으로 되돌아가군했다.

부르흐돌프는 보르만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알아보려고 애써왔으나 알수 없었다. 그는 보르만이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농민적인 우악스러운 손아귀를 가지고있다는것

을 알고있었다. 그리고 보르만이 도덕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간이라는것과 누구에게나 세밀히 감추고있는 야심이 있다는것을 알았다. 보르만의 이러한 기질을 통하여 귀족출신이며 경험있고 로숙한 정탐가인 부르흐돌프는 보르만이 히틀러처럼 자살할 결심을 가질수 있다고 가정할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보르만에게는 장령인 자기보다 도망칠 조건이 훨씬 더 많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보르만이 베를린에 적어도 삼백개이상의 비밀아지트를 가지고있으며 전도이췰란드적으로는 칠백사십개의 비밀아지트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부르흐돌프는 지하대본영의 어느 한 무전수를 통하여 보르만이 오스트리아, 이딸리아, 에스빠냐, 라틴아메리카로 뻗은 비밀통로를 가지고있다는것과 여기에서 나치스당지도부와 뮬러를 비롯한 에쓰에쓰의 고위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보르만이 자기자신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러한 비밀통로를 조직하였는가? 가장 단순한 론리에 기초하여본다고 해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줄수 있을것이다. 즉 이 비밀통로는 언제 움직이게 되는가? 그것은 히틀러가 없어진 후일것이다. 히틀러의 운명은 어디서 끝나게 되는가? 그것은 여기 베를린에서 끝나게 된다. 난공불락의 요새이며 남부도이췰란드와 상부 오스트리아의 모든 지역들중에서 제일 높이 솟아있고 세계 모든 지역과의 통신련계가 원만히 되여있는 알프스보루로 히틀러를 옮겨가면 전쟁은 두석달 더 연장될것이며 그동안에 동맹군들사이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조건에서 히틀러를 옮겨가는 문제를 누구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부르흐돌프는 도이췰란드가 항복하리라는것을 예견하였으나 그것은 무조건항복이 아닐것이며 정권의 기능은 영미군을 베를린에 끌어들이려는 군부의 손에 넘어가리라는것을 알았다.

…히틀러는 지체없이 부르흐돌프를 맞아들이였다. 그는 부르흐돌프의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물었다.

《얼굴이 그렇게 축갔는데 왜 내 의사들에게 진단을 받아보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리고는 전선소식을 물었다. 그는 싸움은 이전에 볼수 없었던 힘으로 진행되고있으며 일부 사람들이 말하고있는것과는 달리 아직도 모든것이 끝장나려면 멀었다는 대답을 듣고 만족해하였다.

부르흐돌프는 자기가 보고하는 내용에 대하여 히틀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하는데 관심을 돌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말을 뗐다.

《총통각하, 방금전에 나는 각하께서 게링그원수를 철직시킨 진짜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나는 정치적문제에는 개입하고싶지 않지만 우리 항공무력이 사령관을 잃은데 대하여서는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공동위업에 큰 손실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행사들이 하늘에서 자기들의 지휘관이 없이, 유일적인 지휘가 없이 싸울수 있을것 같습니까?》

부르흐돌프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한순간이라도 말을 중단하거나 보고하는 방법을 달리하여 지내 서두르거나 반대로 듣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속도를 늦추면 총통이 성급히 자기 말을 가로채서 한 삼십분은 실히 장황한 연설을 늘어놓을수 있다는것을 알았다. 만일 그렇게만 되면 요즘 와서 잠시도 총통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맴돌고있는 보르만이 나타날수 있겠는데 이것이 문제였다. 그러므로 부르흐돌프는 말을 지내 느리게 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이어나갔다.

《나는 총통각하께서 뮨헨 제6항공대 대장 폰 그레임을 항공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명령서에 수표를 하여주었으면 합니다.》

《보르만은 어디 있소? 보르만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소.》

히틀러는 어쩔수 없다는듯이 이렇게 되물었다.

《각하, 보르만각하는 방에 누워서 휴식하고있습니다.》

부르흐돌프는 대담하게 거짓말을 꾸며대고나서 말을 이었다.

《각하, 그러면 각하께서 보르만각하와 토론하여 명령서에 수표하기전이라도 제가 뮨헨에 전보를 날려 폰 그레임이 뮨헨에서 베를린에 올라오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비행기를 길바닥에 앉히라 해도 서슴없이 앉힐 유능한 비행사입니다. 나는 그가 올라올 때 레이츠를 함께 데리고 오도록 했으면 합니다.》

《좋소, 좋소. 그에게 보고하러 올라오라고 하오. 항공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는 보르만과 히믈러와 합의하여 내가 직접 여기서 발표하겠소.》

히틀러는 피곤한듯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고 대답해버렸다.

부르흐돌프는 히틀러의 집무실을 나서자 곧바로 통신대로 가서 그레임과 레이츠를 즉시 베를린으로 올려보내라는 전보를 뮨헨에

날렸다.

그때로부터 이십분이 지나 보르만도 이 사실을 알게 되였다. 보르만은 다시 자기가 직접 수표한 전보를 그레임에게 보내면서 베를린에 올라오기전에 항공대의 현 실태에 대한 문건뿐만아니라 앞으로 제국항공무력을 개편하기 위한 구상까지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다. 보르만은 로씨야군대가 베를린에 언제 들이닥치리라는것을 정확히 타산하고있었다. 그레임이 문건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이삼일은 잘 걸릴텐데 그때면 베를린에서 시가전이 한창이여서 그가 비행기를 타고온다는건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였다.

이 일이 있은지 얼마 지나 보르만은 부르흐돌프에게 들려서 이렇게 말하였다.

《부르흐돌프, 당신은 참 좋은 제기를 했소. 내 생각에도 항공사령관후임으로 그레임보다 더 적중한 사람은 있을것 같지 않소. 내가 그레임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준비해오라고 지시했소. 새 사령관이 모든걸 다 알고있어야지 않겠소. 오래지 않아 우리가 그를 총통의 방에서 축하하게 되리라고 보오.》

《그러나 그때면 그가 비행기를 타고 땅에 내리지도 못할겁니다. 각하, 무엇때문에 이런 연극이 필요합니까?》

부르흐돌프는 참지 못하고 말하였다.

보르만은 무거운 안색을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부르흐돌프, 당신은 몹시 지쳐보이는구만. 원한다면 내가 줄터이니 바바리아술이나 한잔 들어보오. 브레흐테스가덴에서 나한테 술을 상자로 보내온것이 있소. 총통의 방에서 있게 될 회의시간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마시고 푹 쉬란말이요.》

부르흐돌프는 뮨헨에 전보를 날려 그레임에게 보고준비를 언제까지면 할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뮨헨에서는 미리 준비라도 하고있은듯 즉시에 이런 답변이 올라왔다.

《지금 모든 부서들이 달라붙어 보고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아마 이틀동안이면 총통에게 보낼 문건을 특별타자기로 타자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레임대장이 얼마전에 입은 상처때문에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의사들이 그를 회복시키려고 최대의 정성을 다하고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엔 수송기로라도 올려보낼 계획

입니다.》
부르흐돌프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히틀러의 방에서 있을 회의시간까지는 오분도 채 못되게 남아있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향하였다. 총통의 호위병들인 에쓰에쓰장교들이 방심한 눈길로 오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들이 앉아있는 상우에는 브란디며 샴팡주병들이 놓여있었다.
부르흐돌프는 응접실로 내려갔다. 여기에는 고대 이딸리아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있었다. 어느때인가 보르만은 이것이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린쯰의 총통박물관을 꾸리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 미술박물관들에서 끌어온 수십만점의 그림들중에서 그 일부라고 설명해주었었다.
그림에서 로인들과 몸집이 풍만한 녀인들의 얼굴은 마치 도적물건을 사는 사람의 인상인데 감방안처럼 어두운 회색벽을 배경으로 더욱 무섭게 보였다. 게다가 전등빛마저 짜증날 정도로 희미하게 비쳐 유화는 색갈이 완전히 죽어보였다. 유화는 너무 오랜것이여서 늙은 로파의 얼굴에 생긴 주름살처럼 몇곳이 터갈라져있었다.
총통의 부관 균쉐가 부르흐돌프를 맞이했다. 그는 총통이 늦어져서 미안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제 곧 아침식사를 끝내고 나올테니 오분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는것을 전하였다.
이때 총참모장 크렙쓰가 응접실에 들어와 부르흐돌프와 묵묵히 악수를 나누었다.
《아직 로씨야땅크가 우리 머리우에 나타나지 않은게 아니요?》
부르흐돌프는 침울한 표정으로 롱말을 걸었다. 크렙쓰는 그런 롱담을 받을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인지
《아직 그런 통보는 받은게 없소.》하고 시답지 않게 대답했다.
얼마후 히틀러는 보르만, 겝벨쓰들과 함께 응접실로 나왔다. 그는 왼쪽 전신을 부들부들 떨면서 심하게 비틀거렸다. 모두 그의 뒤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다. 부르흐돌프는 히틀러를 눈여겨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어려있었고 주름살투성이의 해쓱한 얼굴은 가면을 쓴듯 얼음같이 차겁고 무표정했다.
히틀러가 참모장의 부관에게 여기 모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만한 소식이 없는가고 묻자 부관이 이렇게 대답했다.
《로꼬솝쓰끼의 땅크들이 슈테린에서 동쪽으로 오십키로메터지점

까지 접근하였으며 북부전선에서도 적들은 점차 베를린방향으로 조여들면서 총공격해오고있습니다.》
히틀러는 크렙쓰에게 몸을 돌려 천천히 씹어뱉듯 말하였다.
《오데르강류역이 좀해서는 극복하기 힘든 훌륭한 천연요새인데도 로씨야군대가 제국의 제3땅크군단을 이겨냈다는것은 도이췰란드장군들이 극히 무능력하다는것을 보여주오.》
《총통각하, 지금 소총으로 무장한 적위군 늙은이들이 로꼬쏩쓰끼의 땅크와 맞서 싸우고있습니다.》
크렙쓰가 대답했다.
《허튼 소리요! 모두 건달군들이란말이요! 래일저녁때까지 베를린과 북부와의 통신련계를 복구하고 로씨야놈들의 포위를 분쇄해야겠소. 그리고 전선을 고착시키시오!》
부르흐돌프는 잠시 자리를 떠나 무전실에 갔다가 돌아왔다. 그는 슈타이너장군의 모든 공격이 좌절되고말았다는 소식을 날라왔다.
히틀러는 몸을 더 심하게 떨며 간신히 일어섰다.
《이젠 에쓰에쓰밥통들도 내게 더는 필요없소. 슈타이너를 철직시키시오!》
그는 이렇게 소리치고나서 비틀거리며 천천히 문쪽으로 걸어갔다.
부르흐돌프는 히틀러의 뒤모습을 지켜보다가 보르만에게 얼굴을 돌려 조용히 말을 건넸다.
《각하, 당신이 예견했던것처럼 로씨야포병들이 템펠호프비행장에 대한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젠 거기에 그 어떤 비행기도 내리긴 틀린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히틀러는 문곁에서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려 한마디한마디 똑똑하게 말하였다.
《레이츠는 골목길에도 비행기를 앉히는 기술이 있단말이요!》

음모를 꾸미는 게스타포 (5)

《왜 모스크바에서 대답이 없는가? 자네 본부에서 이를테면 뮬러를 건드리지 않을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후에는 머리에 자루를 씌워 류반까감옥에 처넣을것이다 하는 뜻으로 대답을 안하는가? 혹은 〈게스타포와는 어떤 거래도 안하겠다〉하고 끊어버린다던지 … 그들은 계속 침묵이로구만.… 슈틀리쯔, 자넨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뮬러는 생각에 잠겨 물었다.

《나도 기다리고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생각이 잘 나지 않지요.》

《그런데 자넨 진짜 이름이 뭔가?》

《슈틀리쯔지요.》

《자넨 로씨야에서 태여나서 자라난 도이췰란드사람인가?》

《그와는 정 반대입니다. 나는 도이췰란드에서 자라난 로씨야사람이지요.》

《그런데 왜 슈틀리쯔라고 하는가?》

《당신은 폰비진이라는 성을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뮬러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그는 슈틀리쯔의 말은 어떤 말이건 바싹 정신을 가다듬고 들었다. 그러면서 그 말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음미해보았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폰비진이라구 네이슈타트시 부시장을 한것같은데…》

슈틀리쯔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웃어보였다.

《폰비진은 로씨야의 저명한 작가였답니다. 성이 무슨 사람의 인격을 규정하겠습니까? 로씨야의 이름난 화가들이였던 싸브라쏘브와 유태인 레비딴을 보십시오. 어느 백과사전에 〈저명한 로씨야화가 레비딴은 가난한 유태인가정에서 태여났다〉 이렇게 씌여진것이 있습니다.》

《라지오방송으로 군인들에게 하달하는 쓰딸린의 명령을 읽군하는 방송원이 그의 친척이 아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 정신병자(히틀러를 말함)가 백과사전에 〈도이췰란드의 저명한 학자 아인슈타인이 가난한 유태인가정에서 태여났다〉는것을 써넣으라고 명령한다면 우리는 지금 손에 〈보복〉의 무기를 쥘수 있을걸세.…》

《당신은 정신병자 하나쯤이야 설복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정신병자들이 어디 적은가요. 그들은 적을 만들어내지 않을수 없었지요. 만일 로씨야사람들이나 유태인들이 적이 아니라면 줄루사람들(남아프리카에 있는 한 종족)이나 타이사람들을 적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도이췰란드제국에 기름이 없는것도 줄루사람들탓이고 실업자가 득실거리는것도 타이사람들탓이라고 불어넣으라지요. 겝벨쓰는 이런 일에서 명수가 아닙니까.》

《슈틀리쯔, 자넨 선전을 벌려 나를 설복하려는건가?》

《그런게아니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는거지요.》

《그렇게 되기는 글렀네. 론리적인 고리를 하나 놓쳐버렸네. 자넨 본부에 암호전문을 날렸으니 나를 벌써 끌어당긴셈이지! 하지만 그들은 나같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야. 알프레드 로젠베르그가 로씨야의 중요한 약점은 미국의 실용주의철학을 전혀 믿지 않는 거기에 숨겨져있다고 한것이 공연한 소리가 아닌가보네. 그들은 맑스주의자들이니까. 정신적법칙으로 살아간다오. 자네 바티칸사람들과 친숙해져보라구. 그들도 역시 당신들의 텁석부리스승이 말하듯이 정신이 생활을 규정한다고 하지 않나. 위대한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이며 정치가이며 혁명적철학의 창시자인 맑스는 부유한 유태인가정에서 탄생하였지. 그런데 자넨 로씨야사람들이 자네 구좌로 보내준 돈을 다 어떻게 하려나? 유서는 남기고싶지 않나? 자네가 요구하는데로 보내주지. 짜첸까는 지금 어디에 있나?》

《짜첸까가 아니라 싸쉔까랍니다. 저의 누이동생이지요.》

《거짓말은 왜 하는가? 혹시 자넨 자기가 한 말을 잊은게 아닌가? 자네는 프라이따흐에게 싸쉔까는 자기의 전 생을 련결시키고있는 녀자라고 하지 않았나.》

《프라이따흐가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한단말입니까?》

《그 녀자는 나에게 봉사해왔네. 아주 령리한 녀자였지.》

《그럼 프라이따흐가 스웨리예에 있는 저의 아지트를 당신에게 알

려주었는가요?》
《그야 물론이지.》
뮬러는 어색하게 담배대를 꼬나물고 흘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슈틀리쯔, 내가 자네한테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지. 벌써 스물아홉시간이 흘러갔네. 내가 지하대본영에 가있는동안만 해도 세번씩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그만하면 충분히 기다렸다고 볼수 있지 않겠나? 이젠 기다리자고 해도 시간이 없네. 나의 모든 예비가 없어져버렸단말일세.》
《비스마르크(도이췰란드제국의 첫 수상, 1871－1890년)는 로씨야사람들이 마차에 말을 오래 메우기는 하지만 그대신 빨리 달린다고 말했답니다. 좀더 기다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요구하는걸 글로 적게. 내가 기다릴테니 처음부터 모조리 써야 하네. 아지트주소, 암호, 구좌번호, 련락체계, 지도일군들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나도 자네 모범을 따라 앞으로 써먹을 핵심들을 준비해야겠네. 그런 측면에서 나를 리해해주게. 자넨 정말 머리가 비상할뿐더러 누구에게서나 관심을 끌 특이한 사람일세.》
《뮬러씨, 나는 그걸 쓸수 없습니다.》
《난 자네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걸 다해주었네. 내가 자네를 도와주어야만 하겠구만.》
뮬러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나들문쪽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그러자 방안으로 요헨, 윌리, 꾸르트가 들어왔다.
《여보게들, 이자를 묶어놓고 소리를 못치게 입안에 걸레짝을 틀어막으라구.》
슈틀리쯔는 얼른 눈을 감았다. 뮬러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저도 모르게 볼을 타고 찝찔한 눈물이 흘러내리는것을 의식했다. 순간 그의 눈앞에는 울라지보스또크항구의 방파제우에 서있던 싸쉔까의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놈들은 사방에서 달려들어 그를 떠밀었다. 처녀는 떠밀려가면서도 손에서 자그마한 털토시를 놓치지 않았다. 슈틀리쯔의 가슴은 처녀에 대한 사랑과 슬픔으로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그때로부터 스물세해가 지나는동안 생활은 그로 하여금 다른 녀자들과 아무리 교제를 맺게 해주었으나 그는 늘쌍 아침에 잠을 깨면 달콤한 징벌인양 자기 머리우에서 싸쉔까의 얼굴을 보는것만 같았다. 아마 모든 남자들이 그러할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첫 사랑에 대한 추억이 간직되여있었고 그 추억과 함께 살아갔다. 그는 처녀와 작별하던 그날의 맹세대로 숨질것이다. 싸쉔까는 방파제우에 서서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내렸으나 슈틀리쯔가 우는 녀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애써 웃어보였다. 사실 이 말은 슈틀리쯔가 우연히 한 말이였는데 처녀는 그처럼 똑똑히 기억하고있었던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소한것일지라도 자기들이 한 말을 서로 잊지 않고 기억해두는 법이다.

얼마후 방안으로 의사가 들어왔다. 그는 말없이 치료가방을 열고 주사기를 꺼낸 다음 주사약암풀을 깨뜨려 거기에 약을 가득 채워넣었다.

그리고는 알콜솜으로 살갗을 씻지도 않고 슈틀리쯔의 혈관에 주사바늘을 쿡 찔아넣었다.

《그러다가 오염되지 않겠소?》

뮬러는 껍진껍진한 갈색액체가 슈틀리쯔의 몸안으로 흘러드는것을 보고 호기심이 동하여 물었다.

《주사기를 잘 소독해서 일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매일 목욕을 하여 살갗이 깨끗하고 고급비누냄새까지 풍기는데요…》

의사는 슈틀리쯔를 흘끔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는 주사바늘을 빼낸 다음 주사자리를 약솜으로 문지르지도 않고 의료도구들을 주섬주섬 치료가방에 넣고나서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은 끝냈으니 어떻게 하라는가고 묻기라도 하듯 뮬러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뮬러가 그를 보고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나한테 필요하오. 우리는 특수시험을 해야겠소. 암만해도 주사를 한대나 놓아가지고서는 안될것 같구만.》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의사가 대답하자 슈틀리쯔는 의사의 대답을 들으며 저렇게 이마가 훌렁 벗어지고 손도 큼직하고 면도까지 멀끔하게 하여 신수가 훤해보이는 사람이 세상 몹쓸짓을 하고도 태연스럽게 행동하는것이 놀랍게 생각되였다. 아마 저 사람에게도 자식들이 있고 혹시 손자들도 있으련만 손이 떨리지 않는가?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낯짝을 쳐들고 사람들속에 섞여돌아가? 낮에는 흉악한 짓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어른들을 존경해라, 어머니를 도와드려라, 공부를

해라 하고 훈시를 주겠지…

슈틀리쯔는 마치 척수신경근염치료에 쓰는 진통제약이 혈액속에 스며드는듯 온몸이 서서히 후더워오는것을 느꼈다.

이렇게 처음에는 몸이 후더워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 노근해지면서 아픔이 멎고 쾌락을 느끼게 될것이다. 그리고 침대옆에 친한 동무가 앉아서 무슨 이야기든지 끝없이 들려줄것을 바랄것이다. 좋기는 자기에게 제일 귀중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것이 더 좋지. 그리고 방안에서 커피를 닦는 냄새, 상해에 있을 때 맛있게 끓여주던 와닐라(식물의 일종)반죽냄새가 풍겼으면 좋으련만…

(너는 이제 뮬러가 질문을 들이대면 대답하지 않고는 못견딜것이다. 참 요헨이 스코르쩨니교관이 시키는대로 해보았다는 마취는 어떻게 한다고 하였던가? 너는 덤비지 말고 침착하게 모스크바를 그려보며 대답하라. 너는 제가 살아온 도시를 잘 기억하고있고 그것은 싸쉔까마냥 그립고 너의 아들마냥 심장속에 살아있지 않느냐. 너는 싸쉔까를 울라지보스또크의 《베르샤유》식당에서 처음으로 만나던 일이며 그의 아버지가 앉아있던 상으로 슬그머니 반탐장교 기아찐또브가 다가오던 일이며 네가 니꼴라이 이와노위치 와뉴쉰과 낯을 익히던 때를 그려보라. 그리고 너는 상쾌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에 대하여 대답하라. 듣는가 막씸? 절대로 덤비지 말라. 너는 몹시 덤비는 축이지. 너는 자기를 자제하고 참을성을 키우느라고 많은 정력을 허비했던거지… 아, 어쩌면 이렇게 관자노리를 얻어맞은것처럼 머리속에서 무서운 소음이 울릴가…)

뮬러는 슈틀리쯔의 머리우에 허리를 꺾고 이윽토록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어딘가 전보다 눈동자가 커져보였고 이마와 관자노리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뱄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지금도 모든 힘을 다하고있네. 자넨 나와 형제지간이면서도 원쑤나 같네, 알겠나? 나는 자네 행동에 사뭇 감동을 금할수 없구만. 하지만 나도 자네처럼 직업이 직업이니만치 어쩔수가 없네. 그러니 그런 측면에 대하여서는 량해하고 대답이나 해보지 않겠나. 내 말을 듣나? 대답할텐가? 말이 들리나?》

《예.》

슈틀리쯔는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싶은 욕망을 가까스로 누르며 대답했다.
《들립니다.》
《좋네, 대답해보라구. 우선 자네 상급의 이름이 뭔가? 그는 모스크바에서 어떤 직위에 있는가? 자넨 어디서 태여났고 부모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싸쉔까란 누군가? 그리고 자넨 언제부터 모스크바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나? 지금 자네 마음은 모든걸 그대로 털어놓고싶은 심정이지? 안그런가?》
《그렇습니다. 털어놓고싶지요. 우리 아버지는 키가 크고 강말랐으나 몸매는 보기 좋았지요.》
슈틀리쯔는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속 깊은곳에서는 절대로 진실을 말할 권리가 없다는것을 알았다.
(절대로 덤벼서는 안된다. — 그는 간청하듯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고는 가장 무서운것이 뒤로 물러갔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끝없이 이야기하고싶고 자기의 기쁨을 나누고싶은 욕망이 꿈틀거렸으나 그것을 눌렀다. 하기야 아름다운것에 대한 추억은 인간에게서 최고의 기쁨인데 왜 안그렇겠는가— 막씸, 너는 지금 뮬러가 자기에게 모든것을 이야기해줄것을 초조히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알고있지. 그리고 너도 그에게 모든것을 말하고싶어서 못견딜 지경이지.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고있지 않는가. 하지만 괜찮아, 그리 무서울것이 없다. 사람은 의학보다 억센것이다. 만일 의학이 사람보다 강하다면 누구도 죽는 일이 없을것이다.)
《자, 어서 말해보게.》
뮬러는 성화가 불같았다.
《아버지는 나를 무척 사랑했답니다. 내가 외아들이였으니까 왜 안그랬겠습니까. 아버지의 볼에 김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왼쪽볼인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셌으나 보기는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종종 놀러도 다니였는데 그게 아마 모스크바근방의 어느 작은 촌인가봅니다. 거기에는 뜨루베쯔(로씨야의 저명한 조각가)가 건설한 대문이 있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이 대문우에 걸려있을 때면 그 광경이 얼마나 장쾌하던지… 그런 광경을 보려면 인내성있게 기다릴줄 알아야 하지요.》
《아버지 성이 뭔가?》

뮬러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의사를 바라보며 성급하게 물었다.
의사는 슈틀리쯔의 손을 잡고 맥박을 짚어보고는 모를 일이라는듯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치료가방을 열었다.
그리고는 두번째로 주사기에 약을 채운 다음 주사바늘을 혈관속에 꾹 찾아넣었다.
《이제부터는 좀더 말을 빨리 할겁니다. 당신은 너무 부드럽게 묻지 말고 더 엄하게 물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뭔가? 대답해.》
뮬러는 슈틀리쯔의 코앞에 바투 다가서며 물었다.
《나는 아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저 잠을 잘 생각뿐입니다.》
슈틀리쯔는 눈을 감았다.
(막씸, 자기를 견제하라. 만일 네가 덤비기 시작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너는 자기우에 누가 서있는지 알고있지 않는가. 머리가 몹시 뜨거워나는게지. 아마 주사량을 너무 많이 넣은것 같다. 너는 이것을 리용하여 머리가 아파서 대답을 못하겠다고 해보렴. 안된다. 나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을수 없다. 뮬러는 내가 아버지에 대하여 말해줄것을 바라고있다. 그런 물음에야 대답해서 나쁠것이 있겠는가?!)
뮬러는 슈틀리쯔의 턱을 잡고 머리를 뒤로 확 제끼며 소리질렀다.
《슈틀리쯔, 얼마나 기다려야겠는가?!》
(이놈이 서두르는 꼴을 좀 보지. 네가 이놈을 보고 기다리라고 하렴. 그러나 이놈은 뮬러가 아닌가? 그럼 어쩐다? 뮬러는 너의 아버지에 대하여 알려고 한다. 그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을테지. 그는 스스로 자기를 《뮬러아버지》라고 하였다. —잠간 슈틀리쯔는 마음속 깊은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또 《뮬러의 게스타포》라고 하지 않았던가. 막씸, 게스타포가 무엇인지 기억나는가? 물론 기억하고있지. 이것은 도이췰란드제국의 국가비밀경찰이지. 그 두목이 바로 뮬러가 아닌가. 그가 바로 너의 머리우에 있다. 그의 얼굴이 경련에 푸들거리는것이 보이지. 가련한 뮬러, 막씸, 너는 정말 그릇된 행동을 하는구나. 뮬러가 지금 기다리고있지 않는가.…)
《아버지는 나를 무척 귀여워하였답니다. 언제 한번 나한테 소리치는 일이라고는 없었지요. 그런데 당신은 소리만 쳐요. 그래서는 안되지요.》

슈틀리쯔는 잠에 취한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뮬러는 의사에게 몸을 홱 돌리며 말했다.
《이 약은 이 사람에게 작용하지 않소. 다른 주사를 또 놓아야겠소.》
《각하, 그러다간 혼수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말을 시킬수 있다고 대답했소?》
《그럼 내가 질문을 좀 해볼가요?》
《해보오, 어서! 나에게는 시간이 없소!》
의사는 슈틀리쯔의 머리우에 허리를 꺾고 그의 귀뿌리를 아프게 잡아당기며 다우쳐물었다.
《이름이 뭐야? 이름? 이름?》
《내 이름말이요?》
슈틀리쯔는 귀뿌리를 잡히우는것이 모욕적으로 느껴지자 자기에 대한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누구도 그의 귀를 잡아끄는 일이 없었다. 이런 일은 단지 프리쯔 마클레바흐에게서만 있었다. 그들은 1916년에 아버지가 레닌의 뒤를 따라 모스크바로 떠나기직전에 쮸리흐의 자그마한 계단방에서 살았었다. 그때 큰형이 프리쯔의 귀를 잡고 때리였다. 형의 이름을 윌헬름이라고 부른것같은데 곰곰히 생각해보자. 큰형의 이름을 정확히 뭐라고 불렀던지… 그에게는 자전거가 있었지.
그래서 조무래기 아이들이 그처럼 부러워했으나 그는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았었지. 플라쩬이라고 하는 애는 손잡이에 종이 달려있고 니켈도금을 하여 번쩍번쩍하는 큰바퀴자전거를 타고싶어 울기까지 했던 일이 있었다.
《이거야 아파서 견디겠소.》
슈틀리쯔는 의사가 귀바퀴를 더 아프게 잡아비틀자 소리질렀다.
《이렇게 점잖지 못한 행동을 해서야 되겠나말이요. 내가 젊은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잡아비트는거요?》
《이름이 뭐야?》
의사는 재차 소리질렀다.
《저 사람이 다 알고있소.》
슈틀리쯔는 뮬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하여 모든것을 다 알고있소. 그렇게 그는 령리

한 사람이요. 하지만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오. 지금 그의 가슴은 비애로 차있으니까.》

뮬러는 또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의 손가락이 알릴듯말듯 가늘게 떨렸다. 뮬러는 요헨쪽으로 머리를 돌려 풀기없이 말하였다.

《요헨, 나와 함께 밖으로 좀 나가자구.》

옆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쏘파와 책상, 고급유리그릇들과 포도주병이 이전이나 다름없이 가득 널려있었다 그중에는 《베르디》라고 하는 뽀르뚜갈포도주병도 있었다. 이 포도주는 오래 보관할수 없는것이였다. 틀림없이 뽀르뚜갈외교관들이 선물한것 같은데 그들이 모두 도망쳐 없다는것을 념두에 둔다면 어디서 이런 포도주병이 굴러왔겠는가?

《요헨, 나는 일이 썩 잘되여간다고 생각하오. 당신은 내가 그의 부모들의 이름따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것을 알고있을테지. 그의 애인도 마찬가지요.》

《그럼 무엇때문에 이런 놀음이 필요합니까?》

요헨은 눈이 둥그래지며 물었다.

《요헨, 나에게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슈틀리쯔가 필요하였던거요. 의사요 주사요 심문이요 하는건 다 연극을 계속하자는것이였소.

당신이 만일 이런 놀음을 끝까지 집행한다면 나는 고맙게 생각하겠소.

당신의 손자들도 당신을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거요. 그래 당신에게는 무공훈장이 더 귀중하오 아니면 2만 5천딸라의 돈이 더 귀중하오?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어디 솔직히 말해보오!》

《각하, 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훈장이 더 귀중하다고 소리치지 않은것이 정말 다행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 틀림없소. 자, 받소. 1만딸라요.》

뮬러는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내여 앞으로 내밀면서 말했다.

《나머지 1만 5천딸라는 비스마르크슈트라쎄에 있는 나의 아지트에 와서 받도록 하오. 당신이 나를 찾아와 공작을 끝마치였다고 보고하면 인차 주겠소. 이제 내가 공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려주지. 이건 당신과 나 두사람밖에는 아무도 모르오. 아니요, 보르만이 이에 대하여 눈치챌수 있소.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극비에 속하는 내용

을 알려주는셈이요. 만일 이것을 루설만 했다간 당신의 혈육들은 모두 처형당하고말거요. 나는 당신이 자기 딸 리자와 예바를 끔찍이 귀여워한다는것을 알고있소.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공작을 당신에게 맡기는거요. 의사가 아직 30분정도 심문을 계속하게 하시오. 당신은 방해하지 마오. 의사가 하고싶은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오. 그러되 주사는 더 놓지 말아야겠소. 이제 슈틀리쯔가 의식을 잃으면 그를 여기로 끌어다가 쏘파에 앉혀놓고 손에다는 수갑을 채우고 발은 철사로 동여매도록 하시오. 그리고 잠을 재우시오. 그렇게 하고나서 지베르트와 함께 그루버를 옆방에 데려와야겠소. 지베르트는 우리가 넘겨준 자료를 속기원에게 불러주게 할거요. 이것은 새 프랑스정부를 따르려는 프랑스사람들을 모독하는 극비자료들이요.

당신은 슈틀리쯔를 끌고 위생실로 가다가 그가 그 소리를 듣도록 해야겠소.

하루에 네번정도 위생실로 가는것을 허락해주란말이요. 동시에 소좌 헤슈케 역시 큰소리로 타자수에게 로씨야장군들에 대한 자료를 불러주도록 해야겠소. 당신은 슈틀리쯔가 어느 방에서 헤슈케가 일하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도록 복도로 천천히 끌고가란말이요. 알겠소? 의사가 또 여기로 올거요. 아마 래일쯤은 오겠지. 하긴 그거야 우리들이 빨갱이들의 공격을 어느정도 막아내는가 하는데 달린거라고 볼수 있지. 의사에게 슈틀리쯔를 보고 사람들의 이름과 아지트 그리고 내가 이제 당신에게 알려주는 문제들에 대하여 물으라고 하시오. 잔뜩 성이 난척하면서 빨리 대답하라고 몰아대야겠소. 때려도 좋소. 하지만 그가 제발로 걸을수는 있게 해야 하오. 손과 발, 간장과 폐를 다치게 해서는 안되겠소. 얼굴은 마음대로 하시오. 보기 흉하게 만들어놓을수록 더 좋소.

그러나 눈을 다쳐서는 안되오. 소경으로 만들어놓던지 잘 보지 못하게 만들어놓으면 큰 야단이요. 내가 무전으로 로씨야군대가 어디까지 들어왔다는것을 계속 알려주겠소. 내가 로씨야군대들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 당황해하는척하면서 빈 송수화기에 대고 슈틀리쯔를 어떻게 처리하라는가 대답을 달라고 하시오. 그러면서 가짜대화자에게 로씨야땅크가 지척에 왔는데 슈틀리쯔를 총살해치우던지 아니면 안전한 장소로 옮길수 있게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란말이요.

그때 내가 보낸 사람이 당신에게 찾아가서 <루돌프박사에게서 소

포를 가져왔는데 수표를 해주시오.〉라고 암호를 대고 당신에게 무선장치가 되여있는 가방을 넘겨줄거요. 당신은 헤슈케소좌와 타자수가 일하고있는 방으로 가방을 들고 들어가 책상우에 이런 글을 남기란말이요.

〈오분후에 당신들은 조용히 방에서 나가 아래로 내려가시오.〉

지베르트와 그루버에게도 역시 그런 글쪽지를 써주어야겠소. 당신은 문을 쾅 닫지 말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방에서 나오시오. 폭탄을 터치라고 명령을 내리면 내가 보낸 사람이 요란한 폭음을 울릴거요. 그러나 폭발직전에 당신은 슈틀리쯔의 손에서 수갑을 벗기고 그를 위생실에 가두어야겠소. 그는 감방안에서처럼 계속 위생실문을 두드릴거요. 그때 내놓아주오. 알겠소? 슈틀리쯔는 위생실에 앉아있는만큼 폭풍에 다칠것도 없고 다만 귀가 멍멍해질뿐일거요. 래일 아침에 슈틀리쯔를 위생실로 데려가기전에 헤슈케소좌가 일하고있는 방문이 닫겨져있지 않나 봐야겠소. 슈틀리쯔가 열려져있는 철궤며 문건이 들어있는 트렁크며 타자기를 제눈으로 볼수 있게 하여주고 말소리를 듣도록 하자는거요. 헤슈케를 보고 당신이 슈틀리쯔를 데리고 복도로 지나가는 순간 수용소에 갇혀있는 쏘련의 장군들에 대한 자료를 읽으라고 하오.》

《어느 장군에 대해서말입니까?》

요헨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머리를 기웃거리자 뮬러는 자기가 사람을 정확히 고르기는 골랐다고 다시한번 확신했다.

《쏘련장군들에 대하여말이요, 알겠소?》

《알겠습니다, 각하.》

《이젠 과업이 무엇인지 알겠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거요. 당신이 비스마르크슈트라쎄에 오면 내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알려주지. 당신은 가족들을 베를린에서 빼돌렸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하.》

《전화로라도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해야지. 내가 당신의 가족들을 뮌헨으로 당장 옮기라고 명령하겠소.》

《고맙습니다, 각하!》

《친구, 서로 관심을 돌리는거야 보통일이지 고맙기는 뭐 고마울게 있소.》

통안의 거미들 (2)

보도쎈터책임자 로렌쓰가 히틀러지하대본영의 회의실에 나타났을때 크렙쓰는 보고를 거의 끝내가고있었다. 선전성 무선전신국은 방금 미군이 엘바강류역의 토르가우를 점령하였다는 스웨리예의 보도를 받았다. 이 지역은 얄타협정에 따라 로씨야군대가 통제하게 되여있는 넓은 지역이였다.

히틀러는 두 나라 군대의 병사들이 감격적으로 상봉하였다는 통보를 끝까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도식대로 살아가는 인간이였다. 그는 광기오른 눈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소리질렀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견이 옳았다는 새로운 실례요! 로씨야놈들과 미영놈들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였소! 제씨들, 도이췰란드인민은 나를 범죄자로 부르고있소. 내가 만일 적들의 련합이 붕괴될 이 시각 평화조약에 응한다면 그렇게 말하는것이 옳을수도 있소! 당신들은 오늘 래일, 아니 한시간후에 여기 도이췰란드땅에서 볼쉐위크들과 앵글로쌕손족들간에 치렬한 싸움이 벌어질 현실적가능성을 보지 못하고있소?!》

그러자 새로 《히틀러청년단》단장으로 임명되여 이 회의에 초청되여온 아루뚜르 악싸만(그는 지금 야전참모부와 함께 윌헬름슈트라쎄로 자리를 옮기고 로씨야군대의 공격으로부터 도이췰란드정부청사를 지키고있었다.)이 한발자욱 앞으로 내디디며 히틀러에게 반짝이는 큰 눈을 쳐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총통각하, 수도의 영웅적인 청년들은 각하에게 그 어느때보다 충실합니다! 단 한명의 로씨야군대도 정부청사를 뚫고들어오지 못할것입니다! 우리는 볼쉐위크놈들과 앵글로쌕손족간에 싸움이 붙는 그 순간까지 목숨걸고 싸울것입니다! 각하께서 자기 본영을 알프스성새로 옮겨갈것을 결심하신다면 우리 청년들은 그 앞길을 돌파할것입니다. 청년들은 죽을지언정 각하를 구원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히틀러는 악싸만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나서 좀 두려운듯한 기색으로 보르만을 바라보았다.

《악싸만, 총통각하는 〈히틀러청년단〉의 충실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있소. 그러나 아이들은 죽지 말고 살아야 하오. 여기에 바로 민족앞에 지닌 그들의 임무가 있는거요. 살아남아서 승리를 해야지.》

보르만의 목소리는 차겁게 울리였다.

히틀러는 금방 새여나오려는 한숨을 누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작전협의회에서 총참모장 크렙쓰는 방어상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그는 전투가 벌어진 거리들과 특별히 완강한 방어전이 벌어졌던 청사들의 이름을 렬거하였다.

《총통각하, 나는 각하께서 마지막으로 베를린위수사령관 베이들린그의 보고를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크렙쓰는 자기 보고를 끝마치였다.

베이들린그는 불안한 안색으로 어험어험 기침을 깇고나서 보르만과 겝벨쓰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않고 히틀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총통각하, 베를린방어전투는 끝나고 수도의 운명은 이미 결정지어진거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각하를 포위환에서 무사히 구원하여야 할 책임을 지고있습니다. 그래야 각하께서 적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알프스요새에 의거하여 민족을 계속 령도할게 아닙니까! 각하, 벤크의 군대가 포위환을 뚫으리라고 기대하는것은 무의미한 생각입니다!》

히틀러의 초점잃은 뿌옛한 눈에는 광기만이 살아있었다.

《베를린전투는 투쟁의 전환기로서, 기적으로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으로서, 아니 그것을 더 초월한 싸움으로서 현대문명력사에 기록될것이요. 장군들, 이게 다요. 고맙소.》

히틀러는 조용히 말하였다.

보르만은 한밤중에 히틀러의 새 주치의사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 바바리아술을 몇잔 권한 다음 무릎에 다정히 손을 얹으며 이렇게 물었다.

《선생, 당신은 우리가 베를린전투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믿소? 겁나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오.》

《각하, 오랜 기간 진리라고 믿어오던 진짜거짓말도 갑자기 고쳐말하라고 가르치면 그것을 즉석에서 고치기가 힘들지요.》
《내가 알건대 당신은 언제나 서로 진담만을 하는 우리 민족내에서도 그중 우수한 사람들중에 속하는것 같은데…》
의사는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각하, 당신은 우리들이 서로 총통의 마음에 드는 그런 진담만을 하여왔다는것을 알고있지 않습니까. 진리, 이것은 오직 하나의 실체, 다시말하여 진리에만 필요되는 그러한 객관적실체이지요. 각하, 우리는 늘 거짓말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베를린이 싸움에서 견디여내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도 역시 믿지 않소.》
보르만은 피로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지금 무엇보다 불행한 베를린사람들의 운명이 제일 걱정스럽소. 그들을 도울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뿐이요. 나는 그것이 당신이라고 말하고싶소.》
《각하,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나는 이런걸 념두에 두었소.》
보르만은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우고 피곤이 섞인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총통의 의지와 리성—한마디로 말하여 그 존재가 다른 사람의 의지, 구체적으로는 나의 의지의 영향을 받도록 하려면 총통에게 어떤 주사를 놓아야 하는가 하는것은 오직 당신만이 알고있소.》
《각하, 나는 의사로서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보르만은 피씩 코웃음을 쳤다.
《지금 누구도 당신을 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없소. 그런데도 당신은 거짓말을 한단말이요. 후에 누구한테 죄를 넘겨씌우려고 그러오? 히틀러나 나한테야 그러지 않겠지. 지금 히틀러나 나는 당신을 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소. 당신은 총통이 쉽게 자기 의사를 굽히도록 만들어놓아야겠소. 그래야만 당신이 불행한 도이췰란드민족앞에 지닌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것으로 될거요.》
그들의 이야기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힘들게 진행되였으나 의사는 끝내 주사약속에 진정제농도를 훨씬 높일것을 약속하고야말았다. 보

르만은 더 큰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보르만은 지금 지하대본영에서 살기가 이전에 비해 훨씬 힘들게 느껴졌다. 음침한 지하실벽들이 몸을 내려누르는것만 같고 무덤속같은 정적은 무시무시하고 싫증이 났다.
보르만은 자기 보좌관 짠터에게 이틀후 알프스요새로 떠나야 할것 같으니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알리였다. 그는 패망을 앞둔 이 시각에도 자기 보좌관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오직 뮬러만이 모든것을 알고있었다.
보르만은 총통의 회의실로 갔다. 거기에는 벌써 부르흐돌프와 크렙쓰가 와있었다. 그들앞에는 음식그릇과 흰포도주 두병이 뚜껑이 열려진채로 있었다. 크렙쓰는 위궤양환자라 원래 술을 적게 마시지만 부르흐돌프는 있으면 있는대로 다 마시는 술고래였다. 그러나 지금은 몹시 저어하는것 같았다.
보르만이 옆에 앉자 접대원이 그에게 음식그릇과 바바리아술병을 날라왔다. 여기서는 모두다 보르만의 구미를 알고있었다. 그는 아무 말없이 한잔을 부어 마시고나서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많이 들라고 인사치레를 했다.
《친절한 말씀을 해주어 고맙습니다.》
부르흐돌프의 말투는 어딘가 곱지 않게 들렸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안색이 좋지 못하오?》
보르만은 슬쩍 상대방의 기색을 살피며 물었다.
《보르만씨, 내 안색이 나쁜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요! 나는 모든 일에 불만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것이 더 정확할것 같습니다. 특히 나는 한해전에 이 의자에 앉아 군대와 당을 서로 밀착시키려고 애쓰던 때로부터 마음이 불안해졌지요! 친구들은 나를 장교의 신분을 가진 반역자라고 부르지만 나는 나의 노력이 도이췰란드사람들의 리익에 가장 알맞는것이였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나의 노력이 헛수고였을뿐만아니라 우둔하고 어리석은 짓이였다는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크렙쓰가 자기 손을 부르흐돌프의 손우에 얹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홱 뿌리치며 소리쳤다.
《크렙쓰, 나를 내버려두게! 사람은 자기 생에서 한번은 꼭 하고싶

은 말을 해야 하는 법이요! 때가 지나면 늦거든! 나는 가슴속에 괴로운 마음을 품고있는 사람이요! 우리 청년장교들은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싸움터로 나갔소! 그래 어떻게 됐소? 수십만이 죽어버렸단말이요. 그들이 누구를 위해 죽었소? 조국을 위해? 미래를 위해? 위대한 도이췰란드를 위해? 아니요. 그것은 무의미한 죽음이였소! 보르만씨, 그들은 당신이 더 안락하고 화려하게 살라고 목숨을 던졌단말입니다. 지어 카이제르도 그처럼 화려한 생활을 꿈꾸지 못했지요! 봉건령주들도 부러워할 그런 안락한 생활의 바탕에는 무제한한 권력과 민족의 리익에 대한 희생이 깔려있지요. 수백만 민중은 당신들, 당의 령수들이 민족의 정신적견결성에 대한 말로써 투기행위를 하면서 황금으로 배를 채우라고 싸움판에 나가 목숨을 잃었단말입니다! 당신들은 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략탈해온 그림과 조각품들을 채워넣고 도이췰란드사람들의 슬픔을 짓밟고 살아왔지요. 당신들은 도이췰란드의 문화를 허물어뜨리고 도이췰란드인민을 타락시켜버렸지요. 당신들때문에 도이췰란드인민은 안으로부터 녹쓸어버렸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도덕만이 존재했지요. 누구보다 더 잘 살고 모든 사람들을 내려누르고 그들에게 공포를 주는것—이것이 당신들의 도덕이 아닙니까!

보르만씨, 당신들은 민족앞에 저지른 죄악을 무엇으로써도 영원히 씻지 못하리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르만은 어줍게 웃어보이며 술잔을 쳐들었다.

《당신의 축사는 너무도 일반적이로구만. 만일 나의 친구들중에서 누가 벼락부자가 될것을 꿈꾸었다면 당신은 내가 여기서 잘못했다고 할수야 없겠지! 나한테 죄를 씌우려 하지 말고 좀더 객관적으로 사고해보란말이요!》

《그럼 메클렌부르그에 있는 당신의 령지는 뭔가요?! 당신이 상부바바리아에 사놓은 산림과 토지는 또 어떻구요? 침제야호수가의 성은 누구의것인가요? 이 모든것이 당신한테 언제 생긴겁니까?》

부르흐돌프는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계속 설분을 토하였다.

《나는 군대도 역시 나를 감시하고있는줄은 몰랐소.》

보르만은 피씩 웃고나서 술잔을 비운 다음 의자에서 일어섰다.

《친구들, 일도 바쁜데 편히 쉬기를 바라오.》

새로 항공사령관으로 임명된 그레임은 녀성비행사 레이치와 함께 포위환에 들어있는 베를린에 비행기로 날아왔다. 레이치는 아직까지 《히틀러청년단》 부대들과 에쓰에쓰부대가 통제하고있는 비행장활주로끝에 기적적으로 비행기를 착륙시켰다.

보르만은 그들이 왔다고 하여 조금도 놀라와하지 않았다. 히틀러주치의사가 히틀러에게 놓은 주사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던것이다. 히틀러는 아예 결단성이 없어지고 무맥해져버렸다. 이전에 그처럼 관심을 가지던 녀자비행사 레이치와 담화하는 과정에도 얼굴에는 그런대로 어느 재능있는 분장사가 그려놓은것같은 미소가 어려있었으나 눈은 게슴츠레하여 조는것같았다.

요즈음만 해도 보르만은 정치적유언문제를 가지고 히틀러와 세번씩이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는데 그는 보르만의 말을 통 리해못했거나 혹은 귀등으로 흘려보내는것같았다.

그런데 히틀러는 예바 브라운과 결혼하기 사흘전(이 연극은 보르만이 귀띔해준 말을 듣고 겝벨쓰가 조직한것이였다.) 보르만에게 웬 문건을 한통 넘겨주면서 《읽어보고 무슨 의견이 있으면 말해주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보르만은 자리에 앉아서 읽도록 허락을 받은 다음 《도이췰란드민족에게 보내는 총통의 정치적유언》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총통각하!》

보르만은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서 눈을 쳐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 괴여올랐다.

(보르만은 이런 연기를 곧잘 하군했다.)

《이 문건은 영원히 남아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 정부의 각료명단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문건에 각하께서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넣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정치적유언이 우리의 위대한 투쟁을 계속하기 위한 실제적인 무기로 될것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유언에 제국의 새 정부명단을 포함시키지 않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사상을 사말적인것으로 만들수 있지 않겠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총통각하, 그 반대라고 볼수 있지요! 이것이 각하께서 투쟁을 계속 령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줄것입니다.》

보르만은 열렬히 부르짖었다.

《좋소. 그럼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을 명단에 적어넣소. 내가 타자수를 보고 깨끗한 종이에 타자를 치라고 하지. 그렇지만 보르만, 나는 비행사 그레임, 레이치들과 함께 알프스요새로 떠나는 문제를 거절하고싶지는 않구만. 나는 지금 줄곧 한가지 문제에 대하여 생각중인데 내가 어쨌든 살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거요. 어떻소?》

보르만은 눈을 쳐들수 없었다. 그것은 그 눈길에 반송장이 다 된 이 시각마저 그토록 생에 대한 열렬한 애착을 느끼고있는 히틀러에 대한 혐오감이 력력히 어려있었기때문이였다.

히틀러와 이야기를 마치기 바쁘게 보르만은 뮬러를 자기한테로 불렀다.

《뮬러, 당신은 오늘중으로 스웨리예와 스위스방송으로 히믈러와 베르나도트사이에 회담이 진행된 소식과 히틀러가 영미군에게 서부전선을 열어주겠다고 제의한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겠소. 어떻소. 할수 있겠소?》

뮬러는 첫마디부터 단호한 립장을 취했다.

《그렇게 하긴 곤난합니다. 한주일전 류베크에서 히믈러가 베르나도트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것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혼란이 시작되여 어렵게 되였습니다.》

《그럼 슈틀리쯔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소?》

뮬러는 보르만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러나 랭담한 그 표정에서 아무것도 찾아볼수 없었다. 뮬러는 땅으로 눈길을 떨구며 마뜩지 않은 투로 대답했다.

《내가 준 과업을 수행하고있지요.》

《어떤 과업말이요?》

《나는 그의 도움으로 크레믈리성벽밑에 큰 폭탄을 설치하자고 합니다.》

보르만은 갑자기 놀라와하며 물었다.

《그를 로씨야후방에 파견하자는거요?》

《그렇지요. 내가 가지고있는 폭탄은 종이폭탄이기는 하지만 그 어떤 폭탄보다 위력한것입니다.》

《그에게 스웨리예사람들을 맡겨주면 좋겠소.》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겁니다. 그에게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나한테는 그런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 아마 당신자신에게도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거요. 우리는 늦어지기 시작했소.》

《늦어지기 시작한것이 아니라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속히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슈틀리쯔를 붙들고있어야 아무것도 얻지 못할겁니다.》

보르만은 자기가 생에서 처음으로 늘 마음을 괴롭히던 조심성도 잃고 속마음을 숨김없이 터놓고있다고 생각했다.

《뮬러, 나는 슈틀리쯔를 알고있기때문에 얻을것이 있다고 보오. 만일 당신이 내가 요구하는것을 해주면 나는 자기 목적을 달성할것이요.》

《보르만씨, 빨갱이들이 당신과 회담을 가지려 하지 않을겁니다.》

《당신은 뭔가 혼돈하고있소. 나의 보좌관 짠더가 로씨야출판물을 분석해보았는데 로씨야사람들은 나를 제외하고 도이췰란드제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류형지로 보낼것이라고 하오. 알만하오? 나는 언제나 앞에 나서지 않고 그늘속에 숨어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뒤바라지를 해주었던거요. 그리고 히믈러나 게링그와 같은 고위급인물들처럼 그 어떤 압박감도 느껴보지 못했소. 나는 요란하게 떠들지 않으면서 절정에 올랐던거요. 지금 모스크바는 게링그의 배신행위에 대하여 알고있소. 지금 쓰딸린은 히믈러가 동맹국들에 평화회담을 가질데 대하여 제기하였다는것을 알고있소. 이제는 히틀러도 이것을 알게 될거요. 영미군은 쉬임없이 동쪽으로 밀려가고있소. 쓰딸린은 베를린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됐소. 강점구역을 나누어먹자던 협정도 파탄된셈이요. 그렇게 놓고보면 쓰딸린이 나를 보고 도이췰란드사람들을 서부로 돌려세워달라고 왜 손을 내밀지 않겠소. 뮬러, 이게 얼마나 매혹적이요!》

하지만 뮬러는 도리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였다.

《내가 가지고있는 어느 한 방송국에서 히믈러가 평화회담에 관한 제안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스웨리예말로 공개전파를 날리게 할수는 있을것같습니다. 중요한것은 선전성 방송기술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제때에 포착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신기가 당신들이 가지고있는것보다 출력이 약한것이 결함이지요.》

《겝벨쓰의 방송국은 무엇때문에 필요하오? 출력이 가장 센 방송국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럼 이런 소식이 외부로부터 날아오도록 합시다. 그러면 믿음성이 더 크니까요. 제 말이 리해됩니까? 좋기는 헛소문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도록 하는것이 제일 좋지요.》

겝벨쓰는 히믈러가 서방과의 평화회담을 제안했다는 《스웨리예방송》이 전한 내용을 가지고 히틀러를 찾아갔다. 히틀러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여 얄팍한 입술을 바르르 떨며 꽥 소리질렀다.

《이거야말로 가장 철면피한 행동이요! 히믈러는 더러운 변절자요! 돼지같은놈! 나는 장군들이 암암리에 나를 해칠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히믈러가 그럴줄은 몰랐소! 페겔랴인이 어디 있소? 그를 여기로 데려오란말이요! 그가 내앞에서 히믈러가 변절했다는것을 똑똑히 말하라고 하오! 페겔랴인은 나의 본영에서 히믈러의 대표가 아닌가! 더럽고 음탕한놈, 나한테 진실을 숨기다니. 그놈이 나한테 접근하려고 예바 브라운의 불쌍한 동생 프레이레인에게 장가를 들었어. 그놈을 당장 여기로 끌어와!》

페겔랴인은 어느 한 아지트에서 발견되였다. 그는 북쪽으로 줄행랑을 놓으려고 한창 준비하고있던중이였다. 그는 히틀러대본영으로 오지도 못하고 보르만의 명령으로 정부청사의 정원에서 총살당하고 말았다.

히틀러의 동서벌되는 페겔랴인이 총살당한지 삼십분도 못되여 히틀러는 보르만의 말을 듣고 비행사 그레임과 레이치에게 즉시 비행기로 슐레즈비그－홀슈테인으로 날아가 히믈러를 찾아내여 재판도 없이 총살해버릴것을 명령하였다.

그후 보르만은 무선통신소로 달려가 해군대장 데니쯔에게 도이췰란드군 최고수뇌부가 모두 변절하고말았다고 규탄하는 암호전문을 날리였다. 도이췰란드에서 유일하게 실제적인 력량이라고 보아오던 참모부는 지금 고립되고 공포에 짓눌려있었다. 보르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평화회담에 대한 말을 입밖에 낼수 없었다. 장군들은 게링그가 체포되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이제 또 그들은 히틀러가 히믈러를 처형할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공포는 모든 사람들을 마비시켜버렸다.

보르만은 최고의 지위에 앉아있는자들에 대한 처형을 모든 장성급들이 알게 하는것이 자기 심중에서 일어나는 공포심을 눌러버리는데

서 제일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장군들은 겁을 먹고 더 소심해질것이며 항시적으로 숨막힐듯한 무서운 통제속에서 머리를 쳐들지 못할것이다.

그날 밤 총통은 타자수에게 자기의 유언을 불러주고있었다.
(그는 마지막에 새 정부의 각료들의 이름을 불러준 다음 보르만이 그에게 한 말을 몇줄 더 첨가하였다.)

《1914년 내가 도이췰란드제국을 보위하기 위해 지원병이 된 때로부터 30년이상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 30년동안 나의 가슴은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차있었다.
오직 이 사랑만이 나로 하여금 모든 행동과 생각 그리고 생명까지도 다 바쳐 민족을 떠밀고나가게 하여주었다. 민족에 대한 사랑의 이 30년과 그의 복리를 위한 사업은 나의 모든 정력과 건강까지도 모조리 희생시킬것을 요구하였다.
1939년 누구인가 도이췰란드에서 전쟁을 원하였다고 하는것은 거짓말이다. 전쟁을 도발한것은 유태인계 국제주의자들과 그에 복무한 자들이였다.
나는 무력제한과 그에 대한 통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너무도 많은 일을 하여왔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전쟁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들씌우려는 시도들이 나타난것이다.
내가 세계전쟁마당에 지원병으로 나섰던 때로부터 영국과 미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전쟁을 바란 때는 없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의 도시들과 기념비들이 입은 상처를 통하여 이러한 만행을 감행한 모든자들에 대한 진리는 밝혀지고야말것이다. 나는 이것이 세계유태인들과 그 머슴군들의 만행에 대한 진리로 될것이라는것을 의심치 않는다.
도뽈전쟁이 일어나기 사흘전에 나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바라는 나의 계획을 베를린주재 영국대사에게 전하였다. 그것은 자르주에 생겨난것과 같은 국제감시기구를 만들자는것이였다.
그러나 나의 계획은 토론도 없이 배격당하고말았다. 영국의 우익도당이 전쟁을 바란때문이였다.
영국 우익도당내부에서 일부는 전쟁을 통해 큰 장사를 해보려는

심사였고 또 일부는 국제유태인집단의 선전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던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유태인들이 당한 모든 참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금융자본의 리익을 위해 날치던 유태인들이 져야 한다. 나는 수백만 아리아혈통의 아동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수백만 청장년들이 전쟁에서 죽지 않도록, 수십만 녀성들이 강탈을 면하고 폭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지금은 비록 퇴각하고있으나 이제 여섯해만 지나면 민족이 자기의 존망을 위한 가장 영웅적인 투쟁으로 출로를 열게 될것이다. 하기에 나는 제국의 수도를 떠날수 없다. 적들의 공격을 짓부시기에는 우리 군대가 너무도 무력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기질도 없는자들에게 항전을 조직할것이 맡겨져있었던만큼 나는 나의 운명을 도시를 지킬 결심을 하고 나선 수백만사람들의 운명과 합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적들의 손에 잡히지 않을것이다. 적들은 히스테리발작을 일으키고있는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유태인들의 각본에 따라 새로운 연극을 준비하고있는것 같다. 나는 도이췰란드제국에서 총통의 지위가 절망적이라는것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말것이다.

나는 우리의 농민들과 로동자들이 많은것을 이룩하였다는것을 알고있고 우리 청년들이 나의 위업에 대한 비상한 충실성을 발현하고있음을 보고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숨질수 있다. 나는 이들이 위대한 글라우제비쯔(도이췰란드의 군사리론가이며 력사가, 1780—1831년)의 리상에 따라 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고싶다. 전투에서의 용맹한 희생은 우리 민족의 통일에 기초한 민족사회주의리상의 위대한 재생을 가져올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운명을 같이할것을 결심하였다. 나는 이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나와 운명을 같이할것이 아니라 전선에서 계속 싸울것을 명령한다. 나는 집단군사령관들과 해군사령관, 항공사령관에게 병사들속에서 총통이 투항하기보다 죽는편이 낫다고 한 말을 해석해주면서 그들의 정신을 강하게 키울것을 명령하였다.

세상을 떠나기 앞서 나는 전 항공사령관이였던 게링그를 당에서 제명하며 동시에 1939년 9월 1일부 국회결정과 1941년 6월 29일

정령으로 그에게 주었던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해군대장 데니쯔를 제국대통령으로,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한다.
또한 나는 세상을 떠나기 앞서 전 부총통이며 내무상이였던 히믈러를 당에서 제명하고 그를 모든 직위에서 철직시킨다. 그를 대신하여 까를 한케를 부총통으로 임명하며 내무상으로는 빠울 히즐러를 임명한다.
게링그와 히믈러는 나에게 충실하지 못했을뿐아니라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나의 의사와 배치되게 적들과 비밀회담을 벌림으로써 무어라고 말할수 없는 오점을 남기였다. 나는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자들에게 제국의 정권을 탈취하려는 욕망이 있었다는것을 확신한다.
나는 도이췰란드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를 남기려는 희망에서 민족의 총통으로서 새 정부의 각료들을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임명한다.

제국대통령－해군대장 데니쯔
수상－박사 겝벨쓰
당총재－보르만
외무상－제이스 인크반트
내무상－히즐러
국방상－데니쯔
집단군사령관－쉐르너
해군사령관－데니쯔
공군사령관－그레임
에쓰에쓰사령관－한케
무역상－푼크
농업상－바케
사법상－티라크
문화상－쉘리
선전상－나우만
재정상－슈베린
로동상－하우프파우에르

보르만, 겝벨쓰, 기타 몇사람들은 자기 의사에 따라 운명을 같이할 결심으로 어떤 정황속에서도 수도를 떠나지 않기로 하였다. 그들은 나와 함께 목숨을 끊을 결심이다.
그러나 나는 민족의 투쟁문제가 그들의 희망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죽은 후 나의 넋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들의 위업을 도와줄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과업, 다시말하여 민족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것이 가까운 장래의 과업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미래는 엄밀히 공동의 리익과 결합되여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어야 한다.
나는 모든 도이췰란드사람들—민족사회주의자들, 남자들과 녀자들, 도이췰란드군병사들모두가 새 정부와 대통령에게 마지막순간까지 충실할것을 바란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내가 정부와 인민들에게 인종차별법을 성스럽게 지켜갈것과 모든 힘을 다하여 국제유태인집단을 반대하여 싸울것을 요구하고싶은것이다.
베를린. 1945년 4월 29일 새벽 4시
증인들—겝벨쓰, 보르만, 부르흐돌프, 크렙쓰》

히틀러는 얼굴에 어줍은 미소를 짓고 보르만이 총통의 대본영회의실로 불러들인 사람들앞으로 스적스적 신바닥을 끌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갔다.
그는 매 사람마다 손을 잡고 무엇을 찾는듯한 눈길로 그들의 얼굴을 살피며 《충실성을 보여주어 감사하오. 잘 있소.》하고 같은 말을 되뇌이였다.
그리고나서 히틀러는 책상쪽으로 다가갔다. 거기에는 독약암풀들이 주런이 놓여있었다. 그는 여전히 어줍게 웃으며 독약암풀을 녀자서기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구부정한 몸으로 다리를 절룩거리며 자기 침실쪽으로 맥없이 걸어갔다.
그는 침실문턱을 넘다말고 몸을 돌려 흐리멍텅한 눈길로 다시한번 사람들을 둘러보고는 가련한 생각이 들어서인지 어깨를 으쓱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회의실에 모였던 사람들은 히틀러가 나가기 바쁘게 식당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언제 준비해놓았는지 상이 차려져있었고 레코드에서는 바흐의 음악이 울려나오고있었다. 술잔이 몇순배 돌아갔다. 누구인가 레코드판을 갈아끼우자 이번에는 놀랍게도 부드러운 아르헨띠나무도곡이 울려나왔다.

부르흐돌프는 자리에서 닁큼 일어나 자기 녀자서기의 손을 덥석 잡고 춤판으로 끌어들였다. 그러자 그뒤를 따라 저마다 일어났다. 또 한쪽에서 누구인가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펑! 샴팡주병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히틀러 개인호위대 부책임자라고 하는자는 바이헬대좌가 군복에 샴팡주가 쏟아져 생긴 얼룩을 지우느라고 얼룩진곳에 소금을 쏟아놓는것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이때 돌연히 문이 벌컥 열리며 문지방에 히틀러가 나타났다.

《그렇게 떠들어대니 잠을 어디 자겠는가! 이 추잡한 놀음을 당장 중지하시오!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숙이 요구된단말이요. 다문 얼마동안의 정숙이라도!》

그는 토막토막 끊어지는 째는듯한 목소리로 소리질렀다.

보르만은 이 말을 듣고 곧 겝벨쓰를 찾아갔다. 그는 코구멍만한 자기 방 책상에 앉아 종이장에 복잡한 동그라미를 가득 그려놓았다. 그는 자기도 유언을 쓰려고 했으나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겝벨쓰는 진정으로 히틀러를 믿고있는 유일한 사람이였다. 하지만 보르만은 때때로 겝벨쓰가 모든 사물을 자기처럼 리해하고있으나 히틀러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엉켜있는 관계로 하여 마음속에 품고있는것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고있다고 느끼고있었다.

사람들은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가 패배로 끝나가고 히틀러를 총통으로, 구세주로, 민족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위대한 인물로 떠받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보다 큰 재난을 당하고있는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옳은것인가 하는것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미 굳어져버린 히틀러에 대한 숭배는 허물기가 매우 힘들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허물어버린다는것이 결국 자기 생각과 행동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스스로 바쳐가며 그 숭배에 복종하고 짓눌려온 자기 자신을 허물어버려야 하기때문이다. 히틀러에 대한 숭배를 떠난 생각과 행동은 국가반역

과도 같이 규정될수 있었다. 지어 어떻게 하면 방위를 더 잘 조직하고 군수품생산을 정상화하겠는가 하는 문제며 나치스당 선전일군들이 한 말을 수정하는것도 히틀러에 대한 우상화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었다.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오직 이것만이 최고의 진리이고 그의 의견만이 절대적인 사실로 되였으며 오직 그의 말만이 확정적인것으로 되였다.

보르만은 의자 한쪽모서리에 걸터앉아 얼핏 시계를 보고나서 말을 뗐다.

《겝벨쓰, 우리는 아직까지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결함을 범해왔소. 이제는 우리가 이런 특전도 잃게 됐나보오. 당신은 우리가 만일 래일중으로 새 정부의 이름으로 볼쉐위크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모든것이 끝장나리라는것을 알고있겠지?》

《신은 우리를 불행속에 빠뜨리지 않을거요.》

보르만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오 겝벨쓰, 신은 오래전에 벌써 우리를 저버렸소. 우리는 지금 작은 짐승새끼들처럼 더러운 물웅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소.》

보르만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려다가 자기를 자제했다. 이 미치광이같은자가 무슨 짓을 할지 어찌 알겠는가. 겝벨쓰는 절반은 얼이 빠져 자기의 광신적인 행동을 주체하지 못하였다.

보르만은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가 만일 총통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도이췰란드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거요. 여기에 볼쉐위크들이 달려들면 총통을 산채로 잡을거란말이요.》

《그럼 당신은 무얼 제기하는거요? 엉, 뭘 제기하느냐말이요, 보르만?》

겝벨쓰는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관자노리를 문지르며 물었다.

《당신이 생각하고있는것을 물었소. 총통이 저세상으로 가도록 도와주자는거요.》

《나는 그런걸 제기할 생각이 없었소!》

《겝벨쓰, 당신은 나처럼 이걸 생각했댔소. 거짓말을 하지 마오!》

《그러나 그렇게는 할수 없소. 나는 그것을 용서할수 없단말이요!》

겝벨쓰는 말을 마치자 목청을 돋구어 울기 시작했다.

《좋소. 좀더 몇시간 기다려보기요. 그후에 보기요.》

보르만의 말이였다.
겝벨쓰는 헉헉 흐느껴울었다. 슬픔에 잠긴 그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더 짙어보였다.
희끄무레한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은 부리부리한 큰 눈을 가진 이 체소한 사나이의 체내에 그 어떤 무서운 질병이 있다는것을 말해주었다.
보르만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해보았다.
(이자는 암을 가지고있는것같다. 아무리 보아야 오래는 살것같지 못해. 이자에게는 생의 기쁨을 끝없이 느껴보려는 욕망도 없다. 그를 혼자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내가 히틀러에게 총을 쏠 때 겝벨쓰는 내 옆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 뒤통수에 총알을 박지 않게 해야지. 히틀러가 배를 그러안고 넘어지는것을 보면 까를 한케가 나에게 총을 쏠수 있다.…나는 지금까지 우리의 사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다. 나는 어지러운 일앞에서 손을 떠는 법을 모른다. 겝벨쓰가 내옆에 서있게 하자. 그러되 묶어놓아야 한다. 만일 빨갱이들과의 회담이 성사되면 나는 반역자로 처형된 렘처럼 되고싶지 않다.)
《겝벨쓰, 잘있소. 나는 좀더 일을 해야겠소. 만일 총통이 제스스로 래일아침까지 목숨을 끊지 않으면 회의실에서 만나자구.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간이 없소. 민족은 우리에게 이것을 용서치 않을거요.》
보르만은 이것이 빈말이기는 하지만 꼭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얼마후 보르만은 자기 보좌관 짠더를 불러 그에게 문건을 넘겨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덴니쯔가 제국대통령으로 임명되였다는 서면통지서요. 물러가 말하기를 당신이 로렌쓰, 요한 마이어와 함께 그의 〈등대〉를 리용하면 로씨야전선을 돌파할수 있을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히틀러가 서명한 이 문건을 없애버려야 하오. 히틀러의 유언을 덴니쯔에게 전하는것은 당신이 직접 하시오. 그리고 로렌쓰와 요한 마이어를 덴니쯔에게서 떼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겠소.
당신은 덴니쯔에게 로렌쓰가 겝벨쓰에게 붙어돌아가고 요한 마이어가 총참모부를 각별히 대하고있다는것을 말해서는 안되겠소. 이게 전부요. 성공을 바라오, 친구!》
보르만은 자기 보좌관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꼭 붙이군하던

《하일 히틀러!》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연극은 막을 내렸다. 사람들은 외투를 입으려고 옷장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방금전 무대에서 울며 웃으며 연극을 놀던자들이 무리로 쏟아져나와 길게 줄을 짓기전에 남먼저 지나가는 뻐스에 올라타려는 것이였다.
붉은군대의 땅크와 포들은 이제는 시내에 돌입하여 직접 조준사격을 들이댔다. 베를린전투가 끝나가고있다는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해졌다.

미련방수사국장 죤 후버 (3)

루즈벨트대통령은 백악관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히틀러나치스트들과 무쏠리니파시스트들, 델라 록크테로단의 증오를 받았을뿐만아니라 미국자체내에서도 위력한 반대파세력과 맞서고있었다. 이 세력은 대통령이 내놓은 새로운 로선을 반대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 로선의 본질은 한편으로 세계적범위에서 도래한 새로운 정치적현실을 인정하자는것이고 다른 편으로 나라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내놓고 공정하게 토론하자는데 있었다. 물론 루즈벨트를 좌익적인 경향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인정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였다. 그는 어디까지나 자기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당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외면하지 않았고 자기가 보는 그대로 말하였으며 자유기업세계를 가장 근시안적이며 교조주의적이며 탐욕스런자들로부터 지켜왔다.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수십년동안 내려오면서 굳어져버린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새로운 말이 나오면 세계가 끝장나는것으로, 자기들의 리상이 배반당하는것으로, 그 무슨 전통이 허물어지는것으로, 조국에 대한 배신행위로 생각하였다.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언제나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였고 일보다도 말이 더 믿음직했으며 미래보다 과거가 더 귀중하였다.
루즈벨트대통령이 전체 국민들에게 《로동자들이 하고있는 로동은 소유권과도 같이 존경을 받을만한것이다.》라고 공공연히 연설하였

을 때 우익계층들은 이 연설을 듣고 금시 실신할 지경이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로동자들은 로동에 대한 존경만을 받으려는것이 아니다. 그들은 계속 높아가는 생활수준에 맞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량의 보수를 받을 실제적인 권리를 지키려 하고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대생활도 따져볼줄 모르고 력사의 교훈도 분석해보지 않고있다.

이런 사람들은 로동자들의 단체계약권, 물질적관심성에 관한 권리, 인간생활방식에 관한 권리도 무턱대고 부정하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폭발적위기를 조성하고있는것은 로동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근시안적인 보수주의자들이다.》

그의 연설은 보수주의자들의 분노를 터뜨렸다.

이번에도 출판기업체들과 련계를 가지고있던자들은 기자들을 주물러 출판물들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글을 써내도록 하였다. 신문들은 인기배우 햄프리가 새 련애영화에 출연했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하였고 미국의 경마장들에서 총애를 받고있는 스토우가 경기에 세번 출전하여 이백만딸라의 돈을 자기 주인에게 바쳤다는 소식도 실었다.

또한 신문들에는 풍자배우 챠플린이 새 영화를 찍고있다는 소식도 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파쑈분자들의 반란에 대한 사건은 감감 잊은듯했다. 음모자들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날은 끝내 오고야말았다.

루즈벨트가 교외의 자기 저택에서 숨을 거둔지 열시간 지나 전략정보국장 도노완은 덜레스에게 만일 월프와의 회담이 이딸리아를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서 빼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속히 회담을 재개하여야 할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틀후 월프는 덜레스의 대표와 비밀접촉을 가지였고 스위스와의 마지막단계의 회담준비를 서둘렀다. 월프는 이 소식을 쉘렌베르그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보르만은 이것을 알았다. 그는 인차 결심은 하지 않았지만 머리속에 벌써 흥미있고 대담한 계획이 무르익어가고있었다. 남은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는가 하는것인데 그런 일은 뮬러에게 맡기면 될것이였다.

뮬러는 제꺽 공작에 달라붙었다.

월프는 뜻밖에 보르만으로부터 급히 덜레스를 찾아가 북부이딸리아에 있는 도이췰란드군 전력량이 서방동맹국앞에 항복한다는 문건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보르만은 월프에게 보내는 전보를 로씨야인들이 즉시 알수 있도록 공개문으로 날릴것을 지시하였다.

그의 예견대로 로씨야인들은 이 내용을 즉시에 알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닷새가 지난후 트루맨은 자기의 측근자들을 모아놓고 며칠내로 루즈벨트와 함께 워싱톤에 들어온 주요 각료들을 현 위치에서 해임시킬것이라는 자기 의도를 발표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자기 측근자로 될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두 중요인물들때문에 좌익계층들속에서 틀림없이 소동이 일어나리라고 믿소. 나는 덜레스와 포레스톨을 념두에 두고 말하는거요. 그러나 유럽과 아시아에서 포성이 멎은후 강경로선을 취하자고 하니 나에게는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오.》

트루맨은 이 두사람들이 다같이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 도이췰란드공업에 대한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미국의 정치인들이였다는것을 알고 말하는것이였다. 포레스톨은 월가에서 도이췰란드강철회사《페라이닌흐트 슈딸베르크》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부추기였다. 바로 이 회사가 히믈러에게 에쓰에쓰를 조작해내도록 필요한 자금을 대주었던것이다. 덜레스는 그 자신이 도이췰란드은행가 슈레제르의 동료였을뿐만아니라 도이췰란드에 수억딸라에 달하는 차관을 주고 히틀러수용소에 갇혀있던 수인들에 대한 시험을 전문적으로 진행한 《파르벤인두스트리》회사가 미국에 자기 지점을 열도록 도와주었다.

히틀러는 없어질것이지만 그를 떠받들고있던 사람들은 남게 될것이다. 옛친구 한명이 새로 사귄 두 친구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 트루맨은 자기가 미주리주 상원의원으로 있을 때 자기밑에 있던 사람들을 백악관에 끌어들였다. 그는 대좌 보한을 자기 부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장령의 군사칭호를 주었다. 해군에서 출세의 길을 뚫어보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있던 제임스 와던은 하루밤사이에 대통령의 해군부관이 되여 어깨에 해군대좌의 견장을 얹게까지 되였다. 캔자스시에서 온 트루맨의 주치의사도 장령이 되였다. 대통령은 서부해안과 다른 나라들과의 모든 련계는 자기 친구인 석유의 왕 에디윈 파

울에게 맡기였다.

언제인가 한번은 트루맨의 어느 한 내각성원이 정부에서 이렇게 갑작스레 루즈벨트의 로선으로부터 방향전환을 하면 반향이 좋지 못할것이라고 하자 트루맨은 이마살을 찌프리며 씨벌여댔다.

《대통령은 자기의 로선을 택할 권한이 있는것이요. 만일 좌익에서 공격이 시작되면 우리는 정계에서 가장 우익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의거할것이요. 우리는 루즈벨트가 모스크바와 놀던 놀음에 싫증났소. 이제는 쓰딸린도 본래의 자기 자리에 돌려놓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자들도 한자리에 눌러놓아야겠소. 이제는 그들이 전선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다하였으니 한옆으로 물러서게 해야 한단말이요.》

한주일 지난 다음 미련방수사국장 후버는 반파쑈조직들, 특히 히틀러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발휘한 로씨야인들의 용감성과 영웅주의에 대하여 감동을 표시하고있는 조직들, 그와 좋은 관계를 가져왔거나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공작을 개시할데 대한 지시를 받았다.

막씸 막씨모위치 이싸예브 (3)

슈틀리쯔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혼미한 의식속에 누워있었다.

참기 어려울만큼 구역질이 났다. 육체는 솜처럼 노그라들어 제몸같지 않았다. 손가락을 조금만 놀려도 머리에서 째는듯한 예리한 음향이 울리고 삽시에 얼굴은 땀으로 뒤덮였다. 커다란 마른 덩어리같은 혀가 목구멍을 메우고있는것 같아 숨쉬기도 힘들었다.

(하게 해야 한다. —그는 겨우 자기에게 중얼거리였다. —하게 해야 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엇때문에? 무엇때문에 이 말이 생각났는가? 나는 늘 자기에게 시켜왔고 이것으로 하여 지쳐버렸다. … 아니다. 너는 자기에게 시킬수 있다. … 무엇을 시켜야 하는가? — 지금 그는 자기에게 무엇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겁이 더럭 났다. — 잘 생각해보라. 자기에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아, 그렇지. 나는 자기에게서 귀중한것들을 추억해보려고 했던거지.… 그

러면 산에 있던 쇠바줄다리에 대한 추억으로부터 시작해야지.… 산이라니 무슨 산말인가? 산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옳지, 생각나는군,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갔던 쎈-고타르드였다. 때는 가을철이고 절기가 바뀌는 시기여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없었고 풀을 뜯어먹고있는 짐승들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만이 울리였다. 쟁그랑쟁그랑거리는 방울소리는 황홀할 지경이였다. 네가 아직은 어렸을적에 잠에서 깨여나 오래동안 눈을 감고 누워서 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주겠는가 점을 쳐보던 설전날에도 과연 이런 방울소리가 있었던가… 나는 아직도 뮬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말하지 않았지?
나는 결코 내가 그 어떤 슈틀리쯔가 아니라 쎄바 블라지미로브라는것과 아버지가 씨비리땅속에 묻혀있다는것이며 그를 살해한것도 뮬러와 같은 놈들인데 다만 로씨야사람들이였다는것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좋을수가 없다.
말로써조차 아버지의 이름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그가 만일 이것을 알게 되면 나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있다. 그는 본부에 쎄바 블라지미로브가 모든것을 동의했다는 전보를 날릴것이다. 본부에서는 내가 블라지미로브라는것을 누가 기억하고있는가? 거기서는 이싸예브라는 이름도 세명밖에 모르고있다. 그것 보지. 너는 자기에게 시키고있지 않나. 너는 자기에게 생각해보라고 할수 있었지. 다만 모조리 생각을 쏟아놓지만 말라. 그러면 머리속에서 혼탁이 일어날것이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다. 제발 정신만 돌지 말았으면… 그렇게 될바에는 차라리 지팽이가 되고 자루가 되는 편이 더 좋을것이다. 가만있자. 누가 그렇게 말하였던가. 기억을 더듬어보라. 옳지, 뿌쉬낀이였지. 내가 어찌 그것을 잊겠는가.… 뿌쉬낀에게는 맵시있는 명함장이 있었다. 도이췰란드에서는 명함장에 직무와 직위, 철십자훈장을 몇개 탔는가 하는것까지 적어넣는다. 소좌 멘겔레는 교수이고 박사이며 무공훈장수훈자이고 내과의사라고 했다. 그러지 말고 한마디로 교형리라고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뿌쉬낀의 명함장에는 단지 《아쓰 뿌쉬낀》이라고만 씌여있었다. 명함장의 마지막 끝에 문자《Ъ》가 적혀있었는데 이것은 비록 누구에게도 필요없는것이였지만 그의 이 수표는 뛰여난 허무주의자의 표식으로서 그속에는 저속성에 대한 비난이 숨어있었고 그 어떤 존엄과 개성이 느껴졌다.
뿌쉬낀… 잠간만… 막씸, 잠간만… 너는 무엇때문에 산에 대한 생

각을 하게 되였는가? 그거야 뻔한 일이지, 너는 쎈－고타르드, 체르또브다리, 쑤워로브를 그려보지 않았더냐.… 그런데 쇠바줄다리에 대한 말은 왜 한마디도 안들리는가.…－그는 부지중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벤크의 땅크들이 포위환을 돌파하였으면 어쩐다? 아니면 쉐르너의 에쓰에쓰부대가? 혹시, 히믈러가 덜레스와 합의를 보지 않았을가?)

슈틀리쯔는 이 무서운 악형을 겪는 동안에 처음으로 허리가 아파나는것을 느끼고 일어나보려고 하다가 벌렁 넘어지고말았다. 쇠줄로 다리를 매여놓았으며 손은 등뒤로 결박하여놓았기때문에 움직일수가 없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포성은 울리는것 같은데 윌리놈이 배가 불룩한 술잔으로 내 귀를 쳐갈겨 잘 들리지 않는다. 괜찮아, 이제 나아질텐데. 나를 우리 로씨야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을 하면 제대로 될게 아닌가.…) 그는 안깐힘을 다하여 몸을 움직여보았다. 그제서야 온몸에 심한 아픔을 느꼈다. 이 순간까지는 아픔을 몰랐고 자기자신을 몽롱하게 의식했을뿐이였다. 말하자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있은것이였다.

(너는 살아있다. －슈틀리쯔는 다시금 속으로 되뇌이였다. －너는 살아있다. 그렇기때문에 아픔을 느끼는것이 아닌가.네가 쇠바줄에 대하여 회고하도록 자기에게 명령한것은 산악에서 바줄을 타고 우로 올라가듯 그것을 타고 행복에로 가닿을수 있고 오베르잘쯔베르그에서처럼 멀리 변두리가 다 보이는 꼭대기에 가닿을수 있기때문이였지. 산정에서 내려다보면 광야에 널려져있는 집들이 성냥곽보다 더 작게 보이는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그처럼 넓고 평온해보이는것이다. 네가 배낭속에 들어있는 빵과 순대, 치즈 그리고 커피를 담은 보온병을 꺼내놓고 주연을 차리기 시작하면… 잠간만, 최고의 행복이 결코 세상을 그처럼 우에서 내려다보는데 있는것이 아니지. 여기에는 어딘가 거만한데가 있어보인다. 아니야, 네가 이 땅우의 사람들속에서 살 때 그것이 행복이야, 하지만 추억과 사색으로 나에게 최고의 쾌락을 가져다주는 그곳으로 오를수 있지 않겠나.… 잠간만, 이놈들이 나를 두들겨패는 동안 내가 줄곧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왔는데… 나는 그 이름을 주문처럼 계속 외워왔던거지… 그것은 누구인가? 생각해보라. 너는 자기에게 시킬수 있지 않는가.… 자기를 너무 아끼지

말라. 아픔은 곧 살아있음을 말한다.
너는 어떻게 하든지 그 이름을 상기해야만 한다.)
무엇인가 옆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뒤미처 와지끈 하고 부서져나가는 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씨린! —슈틀리쯔는 기뻐서 환성을 지를번했다. —너는 놈들이 매질을 할 때 그 이름을 그려보며 이를 악물고 자기를 견지해냈지. 씨린은 바로 구명대였다. 너는 자기를 견지해냈다. 판자노리가 그렇게 몹시 아픈것은 결코 놈들이 너의 얼굴에 매질을 하여서만 그런것이 아니라 네가 단 한초도 입을 벌리지 않고 이발을 으스러지게 악물고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럼 씨린이란 누구인가? 어디서 이런 이름을 알았던가? 잠간 그를 예프렘 씨린이라고 불렀지. 그는 수리아의 계몽가였다. 그래서 로씨야에서는 씨린으로 불리웠다. 그럼 너는 그와 무슨 련관이 있었는가? 벌써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가는데 아직도 그것을 알아맞히지 못하다니. 죽음은 머리우에서 너를 지켜보고있다. 세계를 자기들의 글로써 가득 채운 현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들의 창조물로써 세상을 놀래우고 추상적인 사색으로 세상사람들을 매혹시킨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값비싼 옷자랑을 하고 진홍색 비단잠자리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어디에 가있고 자기의 황홀한 외모로 세상을 놀래운 그 미인들은 어디 있는가? 자기들의 명령으로 인류를 전률케 하고 자기 위력을 휘둘러 대륙을 정복한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물어보라. 땅은 너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줄것이다. 그들은 모두 땅에 묻혀 유골로 되여버렸다. 놈들이 나를 고통속에 몰아넣고있는동안 내가 자기를 견지해낸것은 이들때문이였다. 나는 고통을 견디여냈다.)
《어이!》
슈틀리쯔는 이렇게 소리치고나서 자기도 놀랐다. 말이 안나가고 거쉰 소리만 났다. 성대에 무엇인가 변화가 온것 같았다.
(말소리가 련결되지 않을 리유야 없지 않은가. 나는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이놈들이야 이것을 바랐을테지. 내가 고통당하는것을 보는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이겠는데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는 놈들에게 그런 행복을 주지 않았다.
나는 자기에게 소리쳐왔다. 그래서 목구멍에 무엇인가 말라붙은것 같다. 이제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어이!》
그는 또다시 거쉰 목소리로 소리쳐보고나서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일어서야만 했다.
(이놈들이 내 다리를 꺾어놓았을수도 있지. 그러면 나는 더는 걷지 못할게 아닌가. 놈들이 여기로 오도록 해야 한다. 나를 변소에 데려다달라고 해야지. 혹시 뮬러가 나를 어디에 보내지 말라고 명령하였거나 그 의사놈이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을수도 있지. 그래야만 후에 나와 공작하기가 편리할테니까. 놈들은 《의사가 공작하고있다.》는 말을 꺼리낌없이 하고있다. 그가 나와 공작하다니! 원 더러운 놈 같으니라구. 어쩌면 그렇게 《공작한다》는 아름다운 말을 흐리게 만들어놓는단말인가? 놈들은 희생된 동무들이 사용하던 그 말을 못쓰게 만들었다. 이들은 나의 말, 우리의 말, 아름답고 깨끗한 《사회주의》라는 말을 제멋대로 도용하여 그것을 자기들의것으로, 아리아민족의것으로 짓밟아버렸다. 비렬한 놈들, 놈들에게는 민족적인 선의, 민족적인 용감성이 없듯이 민족사회주의란것도 없는것이다. 이 말은 공통적인것이며 이 뜻은 사회주의에 복무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는것이다. 신사들의 민족, 하느님의 선도자들, 더럽다. 채 발달하지 못한 구세주들, 네놈들에게 때가 올거다.…)
《어이!》
《왜 그래?》
윌리가 문을 비스듬히 열고 물었다. 슈틀리쯔는 그가 자기옆에서 엿듣고있었다는것을 또다시 느꼈다.
《나는 변소에 가야겠다.》
《누워있어, 자식.》
윌리는 무엇이 기뻐서 그런지 깔깔 웃었다.
《이젠 춥지 않아, 봄이란말이야 봄…》
(악당같은놈, 술에 취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분간도 못하는구나. 저놈들은 겁쟁이들처럼 늘 술판이야. 저것들은 한데 모여앉아 상관이 있으면 날치다가도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무섬증이 생겨 저렇게 꼬냐끄를 쳐마시지.)
《어이 윌리! 개자식아, 이리 좀 와. 네놈은 뮬러가 명령하면 법에 따라 나를 총살할수 있겠지만 뮬러는 나를 변소에 데려다주지 말라

고 네놈에게 명령할수 없을거야. 어디 두고봐, 그러지 않나.》
월리는 슈틀리쯔에게 다가와 손에서 수갑을 풀고 발목을 동여맸던 쇠줄을 풀어준 다음 의자에 가서 주저앉았다.
(내가 옳게 타산하긴 했구나. 네놈이 아마 급소를 찔리운 모양이지.)
《됐다. 가봐.》
월리는 소리질렀다.
슈틀리쯔는 일어나려다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자기 몸을 가눔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러자 다시 아픔이 사라지고 눈앞에 아지랑이같은 무수한 동그라미가 아물거리며 육체가 솜처럼 노그라들었다. 구역질도 났다. 월리는 하하 소리내여 크게 웃었다. 이때 가까운곳에서 포탄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운 근방같았다. 벽이 드르릉 몸부림쳤다.
월리는 의자에서 일어나 몸을 약간씩 비칠거리며 슈틀리쯔에게 다가와 구두발로 피가 랑자한 얼굴을 걷어찼다.
《일어나, 자식!》
《고맙다.》
그가 이렇게 대답한것은 다시 아픔을 돌려세워주었기때문이였다.
(고맙다, 월리. 악은 선을 가져온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네놈에게서 이것을 확신한다. 그러니 어찌 믿지 않으랴. 이것은 체험이였다. 너는 온몸이 아플테지 응?! 나한테는 지금 얼굴이 없는듯하다.
마치 뜨거운 찜질을 하는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눈은 왜 이렇게 뜰수 없을가? 혹시 의사놈이 자기들의 얼굴을 볼수 없게 눈시울에 주사를 놓지 않았을가? 그러나 어쨌든 나는 전생을 두고 네놈들을 기억할테다.… 가만 있자. 전생이란말이지… 아니다.… 그들은 내 눈시울에 주사를 놓은것이 아니라 담배불로 눈을 지지였을수 있지. 아니야, 그들에게는 아직도 내 눈이 필요할수가 있지.)
슈틀리쯔는 천천히 마루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러나 그는 《참아야 한다.》하고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되뇌이였다. 그는 입안에서 피덩어리를 내뱉은 다음 몇번 기침을 하고나서 더는 거쉰 소리를 내지 않고 전과 같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가자!》
《잠간 기다려!》

윌리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복도에 머리를 내밀고 소리쳤다.
《누가 아직 일을 끝내지 않았는가? 내가 사람을 데리고가는데 조용하시오!》
슈틀리쯔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퉁퉁 부어오른 손으로 벽을 짚고 비칠거리며 걸음을 옮겨갔다. 그는 빨간 가죽을 씌운 문옆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 또 입안에서 피덩이를 내뱉았다. 파란 문양을 놓은 흰 벽지에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는것을 보기란 참으로 통쾌하였다.
놈들이 제손으로 저 피를 씻어내라지. 네놈들도 그런 불패한 일을 하기 좋을리가 없겠지. 이제 윌리놈이 나를 때릴것이다. 아니나다를가 슈틀리쯔의 머리에 주먹이 날아들었다.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의식을 잃고말았다.
뮬러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이제는 모든것이 끝장이다. 요헨과 윌리가 불쌍하다. 그보다 헤슈케가 더 불쌍하다. 참말 똑똑한 청년이지. 하지만 그를 떠나보내주면 모든 연극이 파탄되고말텐데. 그렇게야 할수 없지 않은가. 슈틀리쯔는 특수한 인간이니까 샤슈까놀음(쪽을 다 빼앗긴 측이 이기게 되는 놀음)은 놀려고 하지 않을것이고 모스크바에도 강의한 사람들이 앉아있으니만큼 상품값을 계산할것이다. 그들에게 위조상품을 속여서 팔기는 어려울것 같다.
뮬러는 로씨야군대의 대포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요란히 울리는 지금 이 순간 에쓰에쓰비밀조직의 통로를 리용하여 여기에서 빠져나가기 앞서 이미 벌려놓았던 놀음을 결속짓기 위해서는 령리하고 자기에게 충실한 젊은이들을 없애버려야 했다. 그는 벌써 이것을 자기의 계획에 예견하고있었다. 만일 집에 포탄이 명중하여 슈틀리쯔가 그들과 함께 죽는다 해도 거기에 있는 문건에 기대를 가질수 있는것이다. 로씨야사람들은 슈틀리쯔를 찾다가 결국 피투성이가 되고 고문으로 만신창이 된 그의 시체를 얻어낼것이다. 혹시 기적적으로 목숨이 붙어 슈틀리쯔가 뭐라고 말을 한다면 로씨야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충직한 이 사람의 말을 가짜정보인줄도 모르고 믿을것이다.
뮬러는 송수화기를 들고 전화번호판을 돌리였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비밀통로의 중요지점이 정상이라는것을 말해주었다. 다만 다섯번째로 부른 지점은 대답이 없었다. 아마

포탄이 명중한것 같았다. 여섯번째, 일곱번째도 정상이였다. 그런데 보르만은 어디에 있는가?

겝벨쓰는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빼앗아온 그림들과 조각품들, 성상들이 보관되여있는 알트 아우스제 소금갱도를 폭파시켜버리라는 명령을 떨구었다. 보르만은 마지막 혼잡통에 이것을 감감 잊고있었다.

칼텐브룬너는 간밤에 과음하고난뒤 머리가 몹시 무거웠다. 그는 금시 누가 와서 손을 덮치기라도 할듯 부산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꼬냐끄잔을 기울이였다. 이것은 눈을 뜨면 그가 하는 첫 일이였다.

그리고는 독한 눅거리담배(이전에는 이런 담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를 한대 피워물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서기들이 일하고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베를린에서 무슨 소식이 없는가고 물어보려는것이였다. 그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있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들은 겝벨쓰에게서 온 소식뿐이였다. 효틀은 벌써 명령서를 읽고나서 칼텐브룬너의 옆을 한발자욱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아우스제, 폭파수들의 지휘부가 어디 있소? 전화로 부르시오.》

칼텐브룬너는 또 꼬냐끄잔을 입에 기울이였다.

칼텐브룬너와 함께 얼마전에 베를린에서 온 그의 서기는 이곳 형편을 잘 모르고있었으므로 전화번호를 물어서 알려주겠다고 대답했다. 폭파수들은 비밀아지트에 거처하고있었던것이다.

《각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각하의 방에서 전화를 하도록 하십시오.》

효틀은 칼텐브룬너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제꼈다.

방안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효틀은 문득 슈틀리쯔의 침착한 얼굴과 선망으로 빛나는 쪼프린 눈, 너그럽게 웃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것 같았고 씻을수 없는 죄악을 범하지 않으려거든 칼텐브룬너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하던 말이 귀에 쟁쟁히 울리는것만 같았다.

효틀은 이에 용기를 얻어 대담하게 말을 뗐다.

《각하, 폭파수들에게 전화를 걸지 마십시오.》

그러자 칼텐브룬너는 길다란 말상을 번쩍 쳐들고 의심스러운 눈초

리로 효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섭은 날아날듯 우로 쳐들리고 좁은 이마에 주름살이 한가득 덮였다.
《왜 그러는가?》
《각하,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월프대장이 베른에 있는 미국대표 덜레스와의 회담과정에 우피찌미술박물관(이딸리아의 피렌쩨에 있는 미술박물관)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것만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덜레스가 당신의 용감한 행동에 대하여, 당신이 겝벨쓰의 말을 듣지 않고 세계적인 귀중한 문화재부를 구원하였다는데 대하여 알도록 하여주겠습니다. 더우기 서방동맹국들과의 회담을 앞두고 히틀러가 변절한후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지위를 더욱 높여줄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뭐요? 뭔가 말이요?! 나는 당장 당신을 총살하라고 명령할테요!》
《어디 한번 명령해보십시오.》
효틀은 언제나 환영처럼 머리속에 갈마드는 슈틀리쯔의 피로하고 눈밑에 거밋거밋한 가락지가 둘린 얼굴모습을 지워버리려고 애쓰며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자기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내놓고는 누구도 당신의 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미국인들에게 알려주지 못할겁니다.》
《당신은 이에 대하여 덜레스에게 어떻게 알린다는건가? 당신은 덜레스가 무엇때문에 당신의 말을 들을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말을 들을겁니다. 듣고말구요. 덜레스는 내가 당신의 승인을 받고 그와 접촉하고있다는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매우 유익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통박물관〉을 구원하면 당신의 지위는 더욱 높아질겁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것을 리해한것이 월프였습니다. 그는 지금 북부이딸리아에 있는 자기 별장에서 미국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휴식하고있습니다.》
《그럼 나는 겝벨쓰의 전보까지 받아놓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뭐라고 그에게 대답해야 하오?》
칼텐브룬너는 당황해하며 물었다.
《당신은 겝벨쓰가 아직도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효틀은 송수화기를 들고 번호판을 돌리려다가 슈틀리쯔가 한 말을 다시 상기하여보았다.
…칼텐브룬너에게 행동을 강요하라. 그들은 자기 결심대로 행동할수 없다. 그들은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로 정신적불구가 된자들이다. 여기에 그들의 비극이 있고 당신을 구원해주는 길이 있는것이다.…
《여보시오, 〈매〉를 부탁하오.》
효틀은 한동안 기다렸다가 에쓰에쓰폭파수의 대답을 듣고 말을 이었다.
《〈상급〉의 위임에 의해 〈독수리〉가 말하오. 〈상급〉의 지시가 없이 〈파괴〉작전을 벌려서는 안되겠소.》
저쪽에서 《매》가 히히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다. 그는 자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다시 송화구에 대고 지껄이였다.
《여보 〈독수리〉, 우리는 이미 〈파괴〉작전을 시작하라는 〈상급〉의 명령을 받았소. 우리는 〈상급〉이 직접 명령을 취소하지 않는 한 오늘중으로 집행할것이요. 우리는 벌써 짐들을 다 꾸려놓았소. 우리가 일을 끝내면 당신을 알프스요새로 초청하겠소. 거기는 해바라기를 하는데도 좋은곳이고 소고기도 먹기 싫을 정도라오.》
효틀은 《매》가 곧 전화를 끊으리라는것을 알고 저도 모르게 슈틀리쯔를 본따서 압력을 가했다.
《여보 친구,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리해못한게로구만. 이제 〈상급〉이 당신에게 명령을 내릴거요. 그는 여기 전화기옆에 와있소.》
효틀은 칼텐브룬너에게 송수화기를 쑥 내밀었다. 그는 다람쥐가 호두알을 까먹듯 이발로 손톱여물을 썰다가 문득 피진 눈으로 효틀을 쳐다보았다. 효틀은 손바닥으로 송화구를 가리우고 귀속말로 소곤거렸다.
《선전상 겝벨스에게서 직접 지시가 왔다고 말씀하십시오. 베를린에서 특별명령이 있기전까지 폭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 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다가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찌겠소?》
칼텐브룬너가 묻자 효틀은 어떤 바보가 여러해동안 저런자를 조종

해왔고 저자는 누구의 명령을 집행하고 누구에게 복종하였으며 누가 저자를 저렇게 주대없고 너절한 겁쟁이로, 사람축에 못가는 인간으로 타락시켜놓았는가 하는것을 무섭게 깨달았다.

《말을 안들으면 총살해치우겠다고 위협하십시오. 그러면 들을겁니다.》

칼텐브룬너는 송수화기를 잡고 어험어험 헛기침을 하고나서 말을 시작했다. 제국안전총국에서는 윈억양이 다분히 섞인 개가 짖는듯한 그의 목소리를 누구나 다 알고있었다.

《여기에 〈상급〉이 있다! 방금 〈독수리〉가 전한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라! 도이췰란드제국의 최고의 리익이 이것을 요구한다! 만일 거역만 하면 총살해치우겠다! 내가 직접 명령하지 않는 한 소금갱도를 폭파시켜선 안된다!》

실로 우연과 필연의 결합은 인간생활에서 변증법적현상과도 같다고 볼수 있다.

린쩨에로의 슈틀리쯔의 우연한 려행, 효틀에 대한 그의 필연적인 분석, 나치스트도이췰란드의 복잡한 내막과 도덕, 인간들호상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지식에 기초하여 멸망의 위기가 도래하면 칼텐브룬너가 어떻게 행동할것이라고 한 슈틀리쯔의 예언, 무사상성과 비도덕으로 일관된 히틀러주의에 대한 그의 깊은 리해와 같은 필연성과 우연성의 이 모든 구성요소들은 쏘련정탐대좌이며 인테리인 막씸 이싸예브로 하여금 나치스트들이 략탈해온 세계의 귀중한 문화적재부가 칠백메터를 넘는 린쩨의 지하 소금갱도속에 묻혀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하여주었다.

통안의 거미들 (3)

히틀러는 4월 30일 밤 끝내 자결하지 못했다. 아침에 그는 보통때와 마찬가지로 면도를 말끔히 한 다음 아홉시에 회의실에 나타났다.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손도 여느때보다 적게 떨었다.

먼저 베를린방어사령관 베이들린그가 보고하였다.

《총통각하, 지금 전투는 칸트슈트라쎄와 비스마르크슈트라쎄 사이에서 진행되고있습니다. 쿠르퓨스텐담은 여전히 긴박한 정황속에 있습니다. 로씨야땅크들은 정부청사에서 칠백메터 되는 지점까지 접근하였습니다. 총통각하, 벤크의 군대가 도시중앙을 돌파하기는 어렵게 되였습니다. 나는 믿을수 있는 부대들이 각하께서 지하대본영을 떠날수 있도록 출로를 개척하는데 동의하여줄것을 거듭거듭 제기하는바입니다. 지금 나한데는 포츠담방향에 대한 돌파를 조직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벤크와 합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보르만이 히틀러에게 대답할 여유를 주지 않고 앞질러 말하였다.

《베이들린그, 당신에게는 총통각하가 적들의 손에 잡히지 않으리라는 담보라도 있소? 당신은 있을수 있는 비극이 가장 무서운 현실로 도래한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지겠소?》

《나는 전적으로 담보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총통각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사람까지 싸울것입니다.》

베이들린그는 입술을 깨물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히틀러는 흐리멍텅한 큰 눈으로 보르만과 베이들린그를 번갈아보았다.

때마침 겝벨쓰가 그들의 이야기에 참네하여나섰다.

《베이들린그, 우리는 당신에게서 확고한 대답을 기다리고있소.

당신은 돌파시에 총통각하의 생명이 안전하리라는것을 직접 담보할수 있소? 총통각하가 포로는 되지 않겠소? 만일 그렇게만 되면 당신은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요. 그리고 당신뿐만아니라…》

《겝벨쓰각하, 전쟁은 역시 전쟁이니만큼 싸우는 방법에도 우연적인 요인들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있습니다.》

보르만은 슬프나 할수 없는 일이라는듯한 표정으로 히틀러를 바라보았다. 히틀러는 시틋이 웃으며 기여드는듯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베이들린그, 고맙소. 나에 대한 충실성과 관심을 표시해주어 고맙소. 그러나 나는 여기에 남아있겠소.…》

낮 두시에 히틀러는 자기 료리사와 개인서기, 타자수 두명을 점심식사에 초청하였다. 그는 예바(히틀러와 결혼한후 그는 예바 브라운

이 아니라 예바 히틀러가 되였다.)가 길쑴한 유리잔에 포도주를 나누어 붓는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포도주는 거품이 일며 순식간에 첫서리를 맞은 포도의 달콤한 향기를 온방에 채웠다.

히틀러는 국맛을 보고나서 만족한듯 말하였다.

《언제 봐도 푸라우 마르찌알리의 료리솜씨가 보통이 아니거든.

이 남새국은 정말 별맛이요. 어려서 나는 린쯔시장에 자주 가서 무드기 쌓아놓은 남새더미를 오래도록 보군했소. 하지만 언제한번 이 손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일은 해보지 못했소.…》

식사때 히틀러가 말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조용히 그 말을 듣는데 습관되여버렸다. 이런때 보르만은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그의 말을 유심히 들으면서 자그마한 연필로 이따금씩 성냥곽만한 수첩에 무엇인가 적어넣군했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보르만도 없고 겝벨쓰, 게링그, 히믈러, 카이젤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히틀러가 이런 장소에서 의례히 보군하던 사람들도 없었다. 대본영에서 오래동안 일해왔으나 오늘 처음으로 이런 좌석에 참가한 서기들은 아무 말없이 국만 퍼먹었다. 딸깍딸깍 은숟가락이 접시에 부딪치는 소리는 어쩐지 부자연스럽고 귀에 거슬리게 들려 히틀러는 낯을 찡그리군했다. 그는 얼굴을 돌려 예바를 바라보았다. 예바가 입고있는 화려한 흰색옷은 그 색갈이 백금시계에 촘촘히 박아넣은 금강석처럼 유표하게 두드러졌다. 히틀러는 골살을 찡그리며 무겁게 한숨을 쉬고는 내처 입을 다물고있었다.

얼마후 점심상에는 소를 넣은 토끼고기가 오르고 색소를 넣은 가두배추를 섞어 만든 닭알가쯔레쯔가 올랐다.

히틀러는 구석에 서있는 키높은 시계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흠칫 몸을 떨며 머리를 수그렸다.

그리고는 즉시에 말을 뗐다. 지금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 자기에 대한 구원이였고 기대였다. 그리고 이 말은 그를 아직도 살아있는 아름다운 녀자들속에 있게 해주었다. 녀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부드럽고 충실하며 더 세심한것이다!

《어제저녁 나는 꿈에 어머니를 보았댔소.》

히틀러는 자기 목소리를 검열이나 하는듯 가볍게 기침을 깇고나서 말을 시작했다. 그는 요즘 며칠동안 주사를 맞고난뒤부터 목소리가 자기것 같지 않아 새로 배치된 의사를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물

어보았다. 의사는 이것은 흔히 신선한 공기가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인데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했다. 히틀러는 자기 말에 주의를 집중하고있는가 알아보기라도 하듯 좌우를 둘러보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브라우나우에서 살 때처럼 아주 젊더란말이요. 나는 보이지 않는 파수군이 옆에서 지켜보고있다고 자기를 놀래우면서 매일같이 옛도시의 대문앞을 지나가군했소. 그러다가 어떻게 되여서인지 이 불행한 소년이 식당들과 카페들이 집중되여있는 중앙광장에 나타나게 되였단말이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인형같이 차려입은 아이들의 자지러진 웃음소리가 들리더군. 그들을 보느라니 자연히 내가 신고있는 낡아빠진 구두와 어딘가 모자라보이게 하는것 같은 내 옷주제때문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댔소. 나는 향수냄새를 피우며 거들먹거리는자들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느끼게 되였소. 왜냐하면… 》

히틀러는 갑자기 생각이 뚝 끊어지며 무엇부터 시작했던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지 생각이 나지 않아 이마살을 찌프리였다. 그러나 녀자들은 거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듯 칼로 고기점을 베내여 쉴새없이 먹어대고있었다. 히틀러는 그것을 보자 눈물이 나오도록 분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예바가 회의실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것을 보자 저도 모르게 허리를 굽히며 목을 움츠러뜨렸다. 그는 륙감으로 거기에 보르만이 나타나 자기를 지켜보고있다고 느꼈다.

히틀러는 보르만이 자기에게 《시간이 되였는데 뭘하고있는가. 너의 죽음은 민족에게 유익한것이다. 이것은 너의 위업을 위하여 완강하게 싸워나가려는 사람들의 가슴에 용기를 북돋아줄것이다.》

라고 말해주는것만 같았다.

생이란 그렇게도 가혹하고 박정하단말인가. 그들은 너를 위해 무엇인가 할수 있고 도와주어야만 할게 아닌가. 머리가 부서져 쓰러질때의 모진 아픔과 그리고 위대한 사상으로 충만되여있고 아리아민족의 크나큰 기대로 차있는 이 뇌수가 피범벅이 될 생각을 하니 억이 막혔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싶지 않거니와 할수도 없다.

나는 그저 편안히 이 녀자들속에 앉아있을테다. 녀자들이 음식을 먹고싶은대로 먹으라지. 내가 이야기를 계속할수만 있고 살수만 있으면 그만이다. 아니다. 나는 자총할수 없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죄를 진자들은 나를 떠받들고있던자들이다. 그들은 왜 일이 이 모양으로 되였는가 나에게 설명해야 할텐데 겁에 질려 입을 다물고있다. 이 생쥐같은 놈들은 제가 살 궁리만 하고있다. 아, 내가 이런놈들을 믿고있었단말인가?!

예바가 일어나자 히틀러는 또 몸을 흠칫 떨며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보!》

예바의 목소리는 저으기 불쾌하게 들렸다. 히틀러는 녀자서기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데는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들은 말없이 포도주를 마시고 맛나게 음식을 먹을뿐이였다. 예바가 정식으로 히틀러의 녀편네가 된 이상 《여보!》라고 하는것이 무리는 아니였다. 예바는 히틀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했다.

《내가 이제 곧 갔다오겠어요. 동생한테 전보를 친다는걸 잊었군요. 미안해요.… 》

《이게 만일 변절자 페겔랴인과 관계되는 문제라면 조전이고 뭐고 걷어치우오!》

《여보, 이건 당신과 나 두 사람에 관계되는거예요.》

예바는 문옆에서 이렇게 대답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히틀러는 예바가 지금 자기들을 구원할 그 어떤 대책을 취할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누구든지 기적을 가져오기만 기다렸다. 다만 희망만 보이고 지금의 한초한초를 넘어 한시간 아니 한주야만 넘겼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그 어떤 구원의 순간이 꼭 올것이다.

그러나 예바는 무전실로 가서 오베르잘쯔베르그의 동생에게 《내 일기책을 속히 없애치우라!》라는 내용의 전보를 날렸을뿐이였다.

예바가 이렇게 한데는 그럴만한 일이 있었다. 그가 히틀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것은 1935년이였다. 이때부터 예바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그해 2월 어느날 히틀러가 자기에게 찾아와 집을 한채 선물하겠다고 한 말을 일기책에 적어넣었다. 예바로서는 이것이 그야말로 크나큰 행복이였다. 그러나 그후 히틀러가 가증스러운 뚜쟁이 겝벨쓰에게 다니면서 그의 소개로 녀가수 온두라와 눈이 황소같은 막쓰 슈멜린그라

는 녀석의 녀편네와 붙어돌아가자 예바는 심술이 나서 죽을 지경이였다. 히틀러를 첫 남자로 대상해보는 녀자이고보니 그럴만도 한 일이였다. 예바는 히틀러에게 편지를 쓰면서 회답을 받지 못하면 수면제를 먹고 죽어버리고말겠다고 한 일까지 있었다. 예바 히틀러는 동생에게 전보를 보내는 무전수결에 앉아있었다.

그는 문득 의사가 자기 몸에서 못볼것을 만졌을 때처럼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히틀러는 또다시 자기앞에 서있는 사람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고 무엇을 찾는듯한 눈길로 빤히 쳐다보며 고맙다는 말을 거듭 되뇌이였다. 그러다가도 옆방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군했다.

거기서는 노래소리, 음악소리, 샴팡주병뚜껑을 여는 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히틀러가 사무실문을 열자 현관방에서 무엇인가 덜컹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누구요? 방에 누가 있소?》

히틀러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저올시다, 총통각하, 저야 언제나 각하의 옆에 있지 않습니까.》

보르만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보르만은 겝벨쓰와 함께 있었다. 덜컹 하고 소리가 난것은 그가 가져온 휘발유통 넘어지는 소리였다. 겝벨쓰는 병색이 도는 누런 얼굴로 가볍게 몸을 떨었다.

예바는 쏘파에 앉아 이발로 암풀을 천천히 깬 다음 입안에 독약을 기울여넣었다. 한순간이 지나자 그는 팔을 맥없이 늘어뜨리며 목을 앞으로 꺾었다.

히틀러는 죽어너부러진 녀편네의 시체주위를 오래동안 걸으면서 뭐라고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예바의 볼따귀를 손가락으로 집어당겨보고는 권총을 꺼내여 총구를 입으로 가져갔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소! 이건 진실이 아니요! 거짓이요! 나는 그렇게 하고싶지 않소! 어머니, 나는 잠에서 깨여나야겠소. 깨여나야겠단말입니다!… 》

다음 순간 히틀러의 머리속에서는 갖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뒤엉키는것 같았다. 그는 예바의 시체가 놓여있는 쏘파주위를 재게 돌아가며 무어라고 하는지 혼자서 중얼거렸다.

보르만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어느새 20분이 흘러갔다.

그는 겝벨쓰의 어깨를 건드리고나서 사무실문을 열어제꼈다. 히틀러는 거기에는 아무런 주의도 돌리지 않고 오른손에 권총손잡이를 쥔채 예바의 시체가 놓여있는 쏘파주위를 여전히 잰 걸음으로 돌아갔다.

보르만은 히틀러의 싸늘한 손가락을 펴서 권총을 나꾸어챈 다음 그의 뒤통수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였다.

몇분후 히틀러의 사무실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겝벨쓰는 보르만이 달랬으나 그치지 않고 헉헉 흐느껴울었다.

보르만은 베이들린그를 회의실로 불러내여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나 총통이 죽었다는것을 말해서는 안되오. 데니쯔도 이것을 알아서는 안된단말이요. 알만하오?》

그리고나서 보르만은 이번에는 크렙쓰를 자기한테로 불러 봉인한 편지봉투를 넘겨주며 말했다.

《당신은 이 편지를 쥬꼬브원수에게 직접 전하시오. 당신은 빨갱이들의 평화제안을 가지고 여기로 돌아와야겠소. 서방에서는 히틀러가 죽었다는것을 누구도 모르고있소. 또한 서방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는것도 모르고있소. 우리는 히틀러의 유언을 로씨야사람들에게만 전하려고 하오.

로씨야사람들이 이걸 나쁘다고 하지 않을거요. 우리는 당신이 1941년에 말한바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로씨야사람들을 찾아가고있소. 그때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의 손에 주패장이 쥐여져있단말이요. 우리는 빨갱이들이 좋은 답변을 보내올것을 기다리겠소.》

종 장

뮬러는 거울앞에 앉아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있었다. 포성은 멈추지 않고 울려왔다. 이제는 아주 가까운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빨리 떠나야만했다.

그의 얼굴은 지금 몰라보게 달라졌다. 귀바퀴옆에 난 허물자리는 살이 내려 약간 알릴뿐이고 왼쪽볼은 타박상을 입고난것처럼 눈에 알릴듯말듯 찌그러져보였다.

상고머리로 높이 추어올린 히끗히끗한 반점이 섞인 머리칼은 재빛으로 물들여져있었다. 몸에 맞지 않고 껑충하게 들린 허름한 웃주머니속에는 붉은군대에 의해 수용소에서 해방된 도이췰란드공산당원 버너 드립스의 이름으로 된 증명서와 모든 동맹국들에 협조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팔에는 수인들의 번호와 같은 수자가 새겨져있었다.

뮬러는 거울에 비쳐진 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포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노라니 문득 히믈러가 자기에게 에쓰에쓰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던 때가 생각났다. 그는 뮨헨게스타포회의실에서 울리던 요란한 박수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고 벗들의 웃는 얼굴과 자기 개인적원쑤들의 경멸에 찬 눈길을 보는것만 같았다. 벗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축하해주었다. 공식적인 례식이 끝나자 히믈러는 에쓰에쓰장령들을 축하연에 초청하여 그들을 위해 샴팡주잔을 들었다. 뮬러는 사랑하는 처녀 로따에게 달려가려고 어서빨리 모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로따는 뮬러를 열렬히 사랑하였다. 뮬러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처녀를 사랑했다. 그런데 방정맞게도 회의실에서는 또 연설가락이 벌어졌다. 새로 장령으로 승급된자들은 저마다 부총통 히믈러앞에서 연설을 하고싶어했고 히믈러 또한 자기 부하들의 연설을 듣기 좋아했다. 그러노라니 뮬러는 밤 열시경에야 로따가 살고있는 독립가옥에 차를 몰고갔다. 방에는 불이 꺼져있었다.

뮬러는 귀여운 로따가 잠든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열쇠로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거기에는 로따가 없었다. 뮬러는 3년후에야 비로소 로따가 제국안전총국장이였던 하이드리흐의 밀정이였다는것과 일약 승진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자들을 도와주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러니 결국 로따의 사랑은 연극이였다. 뮬러는 로따가 이런 놀음을 전과 같이 계속한다해도 그것을 용서해줄 생각이였다. 그러나 동료들은 뮬러에게 히믈러가 로따를 애무하고있는것만큼 괜히 그 녀자를 건드렸다가는 출세에 지장이나 받을것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뮬러는 그때 벌써 로따가 히믈러에게 애기를 낳아주었다는거며 히믈러가 로따를 뮨헨근방에 있는 자기 성지에 옮겨놓고 그에게 고급승용차도 사주고 베를린에 독립가옥도 세내여주었다는것을 알았다. 그러니 뮬러는 자기 생애에서 유일한 기쁨마저 잃은것이다. 이것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이때 갑자기 보르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 동료들을 장악하고있겠지?》

《지금까지는 장악하고있습니다. 당신은 인차 자리를 뜨겠습니까?》

《그럴것 같소. 당신네 사람들이 〈47번〉을 감시하고있소?》

《그렇습니다.》

《련계를 계속 가지자구.》

《알았습니다.》

뮬러가 전화를 끊기 바쁘게 이번에는 슈틀리쯔가 갇혀있는 비밀아지트구역을 담당하고있는 게스타포부서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중장각하, 로씨야땅크들이 두키로메터 지점까지 접근하였습니다! 〈히틀러청년단〉의 소년들이 파우스트포를 쏘자 빨갱이들은 공격을 멈추었습니다.》

《고맙소. 문건은 전부 없애버렸겠지?》

《예,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좋소. 다음 지시를 기다리시오.》

뮬러는 조심스럽게 송수화기를 놓고 시계를 들여다보다가 흠칠 놀랐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자기대로의 시간이 있는것이다. 뮬러에게도 자기가 타산하고있는 시간이 있었다. 무엇때문에 보르만과 계속 련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는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눈먼 소경

과 같은자이다! 히틀러와 한짝이 되여 돌아갔으면 그와 같은 운명을 당해야 할게 아닌가! 보르만이 로씨야사람들과 손잡을 생각을 하는걸 보면 정말 눈이 멀기는 멀었다. 로씨야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르만과 손을 잡으려 하지 않을것이다. 이거야 가장 초보적인 론리가 아닌가! 아니, 그러다가 갑자기 로씨야사람들이 손을 잡으려 하지나 않을가? 1939년 8월 영국사람들이 지연전술에 매달리고 하늘에는 화약냄새가 질게 풍기고있을 때 쓰딸린이 립벤드로프와 한자리에 마주앉지 않았던가? 지금도 모스크바에서는 나를 통하여 게링그와 히믈러가 앵글로쌕손족들과 회담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쓰딸린에게 슈틀리쯔가 보낸 전보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을수 없다.

크레믈리가 베른에서의 월프의 사명에 대하여 알고있다고 한 보르만의 말은 옳은것이였다.

슈틀리쯔는 이제 모스크바에 돌아가서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될것이다. 아니다. 쓰딸린은 결코 보르만과 한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을것이다.

뮬러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몇번씩이나 뉘우쳤다.

에쓰에쓰비밀통로를 통하여 혼자서 빠져나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있다.

(민족사회당이 내가 모르고있는 지점들을 손에 장악하고있지만 내가 가지고있는 통로는 보르만의것보다 훨씬 크고 안전하다. 서방으로 빠지는 믿음직한 길을 가지고있으니 아직도 늦지 않다. 그러다가 보르만이 끝내 빠져나가든가 혹은 로씨야와 손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나는 끝장이다. 보르만은 이것을 용서치 않을것이고 나를 죽여버릴것이다. 그러나 슈틀리쯔가 어차피 하고야말 그 일은 나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것이다. 쓰딸린은 슈틀리쯔가 보고하게 될 내용을 믿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내가 거짓말로 가공해넣은 헬렌의 문건은 그 어떤 폭탄보다도 무서운것이다.

내가 이에 대하여 보르만에게 옳게 말한것 같다.)

요제프 루아는 전파가 있은지 십분 지나서 나타났다. 그는 뮬러의 비밀아지트로부터 멀지 않은곳에서 살고있었다.

《친구, 이 가방을 받소. 이 안에 지뢰탄이 들어있소. 당신은 마드리드에서도 이런 일을 했던거지.》

뮬러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럼 이것이 각하가 나를 보고 돌려놓으라고 하던 그 자그마한 장치가 달려있는 지뢰탄인가요?》

뮬러는 만족한듯 빙그레 웃었다.

《바로 그렇소.》

그는 책상서랍에서 돈가방을 꺼내여 루아에게 내밀었다.

《주머니에 넣으라구. 돈가방을 연거퍼 다섯번 열었다 닫았다 하게. 여섯번째만에는 모든것이 산산쪼각이 나고말걸세. 주소를 기억하게.》

루아가 수첩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자 뮬러는 황급히 그를 제지시켰다.

《정신이 있소! 잡범들은 당신과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풋내기들이로구만! 마당에 모터찌클이 있소. 만약 경우를 생각하여 주소를 알려주겠지만 쓰지 말고 기억하란말이요. 제일 좋기는 뒤길로 걸어가는것이요. 당신에게는 시간도 있고 힘도 충분하오.》

뮬러는 주소를 알려주고 루아에게 련속 두번 반복해보라고 한 다음 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지도를 꺼내여 상우에 펼쳐놓고 집과 거리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였다. 그리고는 암호를 알려주고 또 몇번 반복해보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에 〈수표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말로 끝맺어야 한다는것을 잊지 말게. 당신이 만나게 될 젊은이는 요헨이라는 사람이요. 당신이 암호를 똑똑히 대지 못하면 권총으로 당신을 당장 쏴갈기고말거요. 그에게 가방을 넘겨준 다음 그가 슈틀리쯔를 위생실로 데려가면서 당신옆을 지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있소. 당신은 슈틀리쯔가 생각날거요. 당신이 그가 살고있던 집에서 내 운전사 한스를 죽이지 않았소. 아마 내가 백번도 넘게 사진을 보여주었지. 그런 다음 인차 자리를 피해서 누구도 기다리지 말고 돈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란말이요. 그러다가 폭발소리가 나면 도망치시오. 가까운곳에 로씨야사람들이 있소. 아직은 그들을 견제하고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는 못하고 끝장날거요. 당신은 깊이 숨어서 나에게서 련계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오. 아지트주소는 내 머리속에 있으니까 걱정할게 없소. 당신은 백지처럼 청백한 사

람이요. 다행히 당에도 안들었댔소. 내가 당신과 가지고있던 모든 사업적련계는 끊어버렸소. 그러니 당신은 우리한테서 고생한 사람으로 될것이요. 로씨야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오. 그렇다고 특별히 나서지는 마오. 그렇게 하면 위험하오. 하지만 할수 있는껏 로씨야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오. 장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것이 필요할거요.

자, 그럼 성공을 바라오.》

두 사람은 서로 붙안고 한동안 서있었다. 루아가 떠나가자 뮬러는 왼쪽발을 살짝살짝 절군하던 걸음걸이마저 잊어버리고 방안을 돌기 시작하였다.

뮬러의 아들 프리쯔를 살해한 뮨헨경찰서 형사범이였던 로버트는 일곱번째 집 창문옆에 붙어서서 비밀아지트를 감시하고있었다. 그는 별안간 아지트창문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나오고 폭풍에 요헨의 몸뚱아리 웃부분이 포장도로에 날아떨어지는것을 보자 지체없이 송수화기를 들고 뮬러에게 전화를 걸었다.

슈틀리쯔는 신통히 뮬러가 미리 련습시킨것을 수행하듯이 행동하였다.

폭풍에 위생실문짝이 떨어지면서 그는 문짝에 머리를 얻어맞고 거기에 깔릴번했으나 제때에 손을 쳐드는통에 그래도 위기를 면하였다. 다만 왼쪽팔꿈치가 몹시 아파나고 손은 채찍마냥 뻣뻣해져서 감각이 없었다.

그리고 귀에서는 모기가 한창 성한 여름철 북쪽 어느곳에 와있는듯 앵—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복도에 나서자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모든것이 구름같은 회가루먼지속에 잠겨있었고 숨도 쉬기 힘들었다.

슈틀리쯔는 무엇인가 발에 걸채여 허리를 굽혀보니 머리가 박살난 윌리의 시체가 바닥에 딩굴고있었다.

슈틀리쯔는 그의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내여 주머니에 밀어넣은 다음 몇분전 로씨야에 대한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던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것이 바로 뮬러가 말하던 헬렌의 《붉은 성서》라는것을 알았다.

방안의 벽들이 무너지고 먼지가 채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다치지

않은 오른팔을 앞으로 뻗치여 손더듬질해보았다. 무엇인가 쇠붙이같은것이 손에 닿았다. 그렇다. 옳게 찾고있다. 바로 여기에 열려진 철궤가 있었어. 틀림없이 여기에 언제인가 뮬러가 보여주던것과 같은 가방이 있을것이다. 여기서 우리 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볼가? 그들은 지금 지척에 와있지 않은가! 그러다가 뮬러가 제놈의 졸개들을 보내지나 않을가? 뮬러는 이 문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별의별 모험을 다할수 있다. 이것은 말할수 없이 귀중한 가치를 가지는것이다.

아니다. 가지고갈수 있는껏 다 가지고가야 한다. 이곳의 위치를 기억해두고 자기 사람들한테로 가자. 막씸, 너는 그럴만한 권리가 있다. 너는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왔다. 너는 살아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는가.… 아니다. 너는 아직 살아있다. 너는 우리 군대를 만나면 자기가 안또노브— 오브쩬꼬의 명령을 집행하였다는것을 말할수 있다. 가방이 두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다고해도 괜찮다. 헌데 왼쪽손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쩐다? 괜찮아. 그러면 이발로 물고서라도 날라가야지. 한손에 모두어쥘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어디한번 손을 놀려볼가? 물론 무거울테지. 하지만 무겁다, 춥다, 덥다 하는거야 무슨 대수랴. 악당들이 귀를 비틀며 아버지이름을 대라고 하던 일, 발로 얼굴을 걷어차던데 비기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너의 얼굴은 술을 마시고 싸우고난 사람처럼 얼룩덜룩하게 되였다. 보나마나 이 먼지구뎅이속에서 어리광대처럼 되였겠지. 도이췰란드사람들은 어리광대가 얼굴에 흰색과 빨간색으로 알룩달룩하게 칠하고 거기에 빨간 모자까지 쓰고 나서면 그것이 재미있다고 법석이였다. 아니다. 철궤속에는 무엇인가 중요한것이 있다. 어서 갔다가 여기로 돌아와야 한다. 기다리고있어서는 안된다. 어서 가자!

슈틀리쯔는 술취한 사람처럼 비칠거리며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와서는 길가에 나섰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총소리가 울리는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갔다. 총소리는 지척에서 들려왔다. 무거운 가방을 든 오른팔이 떨어져나갈듯 저려났다. 그러나 그는 몸을 수굿한채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줄곧 앞으로만 걸어갔다.

머리속에서는 여전히 앵— 소리가 나고 관자노리가 쿡쿡 쑤셔났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메스꺼웠다. 금시 의식을 잃고 쓰러질것 같아

겁이 났다.

때마침 슈틀리쯔를 향하여 열여덟살난 정찰병 중사 글레브 쁘로술랴꼬브가 벽에 몸을 바싹 붙이고 발볌발볌 다가왔다. 그는 옆골목에 파우스트포로 무장한 《히틀러청년단》소년들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지휘관은 도이췰란드소년들이 가엾다고 하면서 그들을 에돌아가라고 명령하였다.

열다섯살미만의 쿄흘리개소년들이 살아남아 자기들이 속히웠다는것을 알도록 해주며 전쟁에서 승리한후 그들을 모두 다시 교양하자는것이였다. 정찰병이 인적없는 거리로 살금살금 발을 옮겨가노라니 어느놈이 숨어서 총질을 하지 않을가 하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었다. 한쪽에선 이렇게 조용하니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어느 한 모퉁이에서 머리를 내밀고 문득 검은 제복을 입은 도이췰란드장교가 걸어오는것을 보았다. 올테면 오라지. 더러운놈, 겁은 나던게지. 저렇게 술처먹고 비칠거리는걸 보니 가방에는 뭐가 있기에 저렇게 힘들게 들고 다니는가. 아마 시계며 보석반지가 가득 차있을거야. 자식,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대가리를 쳐갈길테다. 혀를 잡자고 했더니 이게 웬 떡이냐! 오라, 어서 오라. 귀여운 토끼…

그 순간 슈틀리쯔도 군복상의우에 가죽잠바를 입고 빨간 별이 달린 모자를 눈섭있는데까지 삐딱하게 눌러쓴 정찰병을 알아보았다.

그는 신발도 1921년경에 군대에서 츔군들이 신군하던 그런 가죽장화를 신고있었다. 멋을 꽤 부리는 놈이군. 하긴 지금 젊은이들이 그때를 잊지 않고있으니 좋은 일이지. 기억하고있어서 고맙소. 병사가 지나간 일을 잊고 살아도 안되지. 그건 수치야, 수치고말고. 후대들이 그걸 용서치 않을테지.

슈틀리쯔는 행복한 마음에 얼굴이 후더워옴을 느끼였다. 그는 이마와 턱에 생긴 상처때문에 웃기가 힘들었으나 가슴속에 솟구치는 행복한 웃음을 어쩔수가 없었다.

한편 정찰병 쁘로술랴꼬브는 자기대로 생각을 굴리고있었다.

(개자식, 이발을 드러내놓는군. 어디를 다쳤기에 상판이 저렇게 온통 피범벅이람. 그래도 저 낯바닥에 어린 악을 좀 보지. 짐승같은 파쑈놈이 분명해.…)

슈틀리쯔는 빨간 별이 달린 모자를 쓴 병사에게 손을 쳐들어보였다. 쳐들기는 두손을 다 쳐들었으나 왼손은 채찍처럼 뻣뻣하여 말

을 듣지 않았다.

(그립던 형제여, 이제 한순간이 지나면 내가 너를 포옹해줄테다.)

(저놈의 가방속에 지뢰탄이 있을수 있지 않은가.— 쁘로슐랴끄브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혹시 저놈이 정신병자일수도 있지. 저것을 내앞에 던지면 나는 없어지고 여기에 구뎅이만 남을테지.)

따따땅! 순간 자동총탄알이 쁘로슐랴끄브의 머리우 벽에 맞고 튕겨났다.

쁘로슐랴끄브는 무릎을 꺾고 땅에 엎드린 다음 자동총을 쳐들고 검은 제복을 입은 도이췰란드장교의 배를 겨냥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장교는 뭐라고 소리질렀다. 쁘로슐랴끄브에게는 그것이 로씨야말처럼 느껴졌다. 그러건말건 그는 또 련발사격을 안겼다. 하지만 에쓰에쓰장교는 로씨야말로 계속 소리치며 헐떡헐떡 달려왔다. 저게 과연 나쁜놈일가?!

쁘로슐랴끄브는 세번째사격을 할수 없었다. 탄알이 정통으로 그의 가슴을 꿰뚫고나간것이였다.

반전차엄페호에 엎드려있던 《히틀러청년단》부대의 클라우스 보르하르드소년은 제가 쏜 총에 맞고 로씨야병사가 넘어지는것을 보자 땅에 꼼짝도 않고 엎드려있는 에쓰에쓰대좌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휘여잡고 목에 둘러멘 다음 그를 웬 건물마당으로 끌고와 지하실로 들어갔다. 지하실엔 전화통신이 중단없이 보장되고 있었다. 전화기옆에 앉아있던 《히틀러청년단》단장은 부상자의 직급을 가려보고 소년들에게 소리쳤다.

《대좌를 지하실을 거쳐 지휘소로 데려가! 어서!》

지휘소에 설치되여있는 확성기에서 겝벨쓰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벤크의 군대는 볼쉐위크진지를 돌파하고 길우의 모든것을 짓뭉개며 베를린으로 들어오고있다! 승리의 시각은 다가왔다!》

지휘소에서는 슈틀리쯔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처맨 다음 담가에 실어 지하도를 통하여 다음 지점으로 날라갔다. 거기서는 마지막 지점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있었다.

돌파를 지휘하고있던 중좌는 슈틀리쯔의 직급을 가려보고 사복차림을 한 대좌 하우스의 귀에 대고 수군거렸다.

《우리 사람입니다.… 》
《끄루제와 련계를 가지시오. 에쓰에스비밀조직의 통로에 대하여서는 그가 책임지고있으니까. 그동안 이 사람에게 옷을 갈아입혀야겠소.》
《이 사람은 오래 살것 같지 못합니다.》
중좌의 대답이였다.
《글쎄 죽게 되면 몰라도 아직은 에쓰에쓰사람이 살아있지 않소!》
하우스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그때로부터 두시간후 《24 － 9》라는 번호를 가진 《떼－34》형 땅크는 소위 니그만 뚤린의 지휘밑에 《히틀러청년단》부대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왼쪽 무한궤도로 게스타포의 복잡하고 모험적인 작전을 거쳐 로씨야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여있던 헬렌－뮬러의 문건들이 들어있는 가방 두개를 단꺼번에 짓뭉개버리며 앞으로 내달렸다.
이 사건은 응당한것이였다. 붉은군대는 뮬러의 도발적인 음모를 꺾어버리고 동시에 헬렌의 문건을 형체도 없이 갈기갈기 짓뭉개버렸다.

제8집단군사령관 와씰리 이와노위치 추이꼬브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그는 보통 자기가 하는 말을 한마디한마디 검토하듯하면서 침착하게 말하군했다. 그러나 쥬꼬브는 5월1일 이른아침 전화로 추이꼬브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쥬꼬브는 처음에 감도가 나빠서 그런줄로만 생각했었다. 추이꼬브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아맞히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거의 쟁쟁하게 울리였다.
《원수동지, 나한테 크렙쓰장군이 왔습니다. 대표로 말입니다! 그가 나에게 가져온 편지를 방금 번역하였는데 내가 읽어드릴테니 들어보십시오. 〈우리곁을 떠난 총통의 유언에 따라 우리는 크렙쓰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할것을 위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쏘련인민의 수령에게 오늘 15시 30분 총통이 스스로 자결하였다는것을 통지하는바입니다. 총통은 법적권한에 기초하여 유언을 통해 모든 권력을 덴니쯔와 나 그리고 보르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나는 보르만에게 쏘련인민의 수령과 련계를 맺을것을 위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련계는 가장 큰 손실을 입은 대국들사이의 평화적회담

을 위하여 필요할것입니다. 겝벨쓰.〉

원수동지, 유언도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속에 새 정부의 명단이 있습니다.》

쥬꼬브는 몸이 오싹해졌다. 갑자기 안면근육이 마비된듯 입을 놀릴수가 없었다. 그는 추이꼬브에게 인차 대답하지 않고있다가 한동안이 지나서야 목구멍에 걸려있던 침을 꿀꺽 삼키고 쿨럭쿨럭 기침을 하고나서 입을 열었다.

《이제 곧 쏘꼴롭쓰끼를 당신에게 보내겠소. 기다리시오.》

쥬꼬브는 쏘꼴롭쓰끼대장을 떠나보낸 다음 시계를 들여다보고나서 고주파전화기로 쓰딸린과 련결시켜줄것을 부탁했다.

이 시각 최고사령관은 크레믈리에 없었다. 그는 주변 별장에 가있었다.

《쓰딸린동지는 방금 누우셨습니다. 지금이 벌써 새벽 네시이니까 오래 주무시지 않을겁니다. 열병식이 있기전에 일찌기 일어나셔야 하니까요.》

블라씨끄장령이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좀 깨워주시오. 긴급한 일이 생겨 아침까지 기다릴수 없다고말이요.》

쥬꼬브는 아직도 기침을 끊지 못하고 말하였다.

쓰딸린은 조용히 두드리는 문기척소리에 와뜰 놀라서 깨여났다.

그는 부드럽고 나지막한 쏘파에서 (그는 침대에서 자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몸을 일으켜 앉았다. 웬일인지 가슴이 세차게 울렁거리였다. 푸름푸름 밝아오는 재빛하늘에 까마귀들이 맴돌았다. 쓰딸린은 분명히 어제저녁 정찰국장이 말하던 문제가 발생하였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드러운 가죽장화에 발을 밀어넣으면서 갑자기 발이 얼음장같이 싸늘함을 느끼였다. 그러자 불쑥 뚜르한스크류형지 생각이 났다. 거기에서는 늘 몸을 이렇게 얼구었던것이다.

그는 송수화기를 잡고 웅글은 목소리로 《쓰딸린이요.》하고 짤막하게 말하였다.

《쓰딸린동지, 방금 추이꼬브에게 도이췰란드정부의 대표가 왔습니다.》

《크렙쓰요? 새 참모장말이요?》

쓰딸린이 묻는 말이였다.

쥬꼬브는 쓰딸린이 어디서 새 참모장의 이름을 알게 되였는지 알수 없었다. 그는 히틀러가 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믿고 최고사령관의 물음에는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으며 도이칠란드제국의 새 정부 수상인 겝벨쓰가 쏘련인민의 수령 쓰딸린에게 보내는 편지와 히틀러의 유언을 읽기 시작하였다.

쓰딸린은 겝벨쓰의 편지에서 보르만이 자기와 련계를 맺으려 한다는것을 알게 되자 언제인가 국가안전국장이 베를린에 있는 자기 사람이 전해온 자료라고 하면서 보르만이 오래지 않아 붉은군대와의 평화회담을 제기할것이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는 국가안전국장이 말하던 그 《10번》이 전해온 정보를 무턱대고 의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영화위원회 위원장 볼샤꼬브가 별장에 종종 가져오군하던 영화화면들에서 보아온 히틀러의 가증스러운 낯짝이 눈앞에 떠오르기도 했다.

《개자식, 끝내 뒈지고말았군! 그놈을 산채로 잡지 못한것이 유감이요. 그래 시체는 어디 있소?》

그는 히틀러란놈이 뒈지고말았다는것을 아직도 믿기 여려웠다.

어찌보면 이것이 독재자의 간악한 음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히틀러는 누구보다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한놈이였고 제스스로 목숨을 끊기는 너무도 살점을 아끼는놈이였다. 자결을 하자면 상당한 정도의 용단이 필요한데 그놈에게 그럴만한 용기가 있겠는가?

《크렙쓰의 말에 의하면 히틀러의 시체는 정부청사 뒤마당에서 화장해버렸다고 합니다.》

쥬꼬브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쓰딸린은 의자 한쪽모서리에(그는 쥬꼬브가 겝벨쓰의 편지와 히틀러의 유언을 읽는동안 전화기들이 주런이 놓여있는 책상옆에 서있었다.) 걸터앉아 이미전에 벌써 머리속에 굳어진 자기 결심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쏘꼴롭스끼에게 크렙쓰나 히틀러의 다른 졸개들과 무조건항복에 관한 회담외에 그 어떤 회담도 해서는 안된다고 전하시오.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침까지 전화를 걸지 말아주오. 눈을 좀 붙여야겠소. 피곤하구만, 대단히 피곤하오. 쥬꼬브, 오늘 여기서는 5.1절시위가 있게 되오.》

크렙쓰는 쥬꼬브에게서 아무런 확답도 못받고 지하대본영으로 돌아왔다. 보르만과 겝벨쓰가 지하회의실에서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부르흐돌프도 이들과 함께 있었다. 그는 파리할만큼 얼굴색이 창백하고 눈에는 벌겋게 피가 졌다. 얼굴에는 무엇인가 기대하는듯한 웃음이 비끼였다.

방안에는 야릇한 향수냄새와 함께 매캐하고 탁한 공기가 떠돌았다.

《무조건항복을 요구합니다. 로씨야사람들은 무조건항복외에 그 어떤 회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침 열시까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크렙쓰는 그것이 마치 제 잘못인듯 말하였다.

《이젠 모든것이 끝장이요. 보르만,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겝벨쓰는 보르만에게 말하였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짧다란 다리에 무겁게 몸을 싣고 자기 사무실로 어정어정 걸어갔다.

삼십분후 겝벨쓰의 녀편네는 자기 다섯 아이들을 모여놓고 죽는 놀음을 벌리고있었다.

《누가 눈을 감고 쓴 약을 먼저 먹나 어디 보자. 자, 어서. 하나, 둘, 셋!》

계집은 아이들이 쓰러지면 자기도 자총할 결심이였다. 그러면 겝벨쓰도 좀 뒤늦어서 권총을 가슴에 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것이다.

부르흐돌프는 자기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면도를 말끔히 하고 깨끗한 백포로 몸뚱이를 감싼 다음 자총할 생각이였다. 이제 예리한 면도칼로 꺼칠꺼칠한 턱수염을 미느라면 언제나 그러하듯 야릇한 쾌락을 느끼게 될것이다. 그의 귀전에는 단기휴가때마다 가군하던 저 멀리 스위스국경근방의 알프스초원에서 들려오던 방울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았다.

크렙쓰는 웨르무트술(흰포도주의 일종)과 함께 로씨야 붉은연어알을 넣고 만든 빵쪼각을 다 먹은후 자결할 결심이였다. 그는 이 붉은 연어알통졸임을 석달째 보관하고있었다. 이것은 스웨리예주재 도이칠란드무관부 장교들이 그에게 사보낸것이였다.

보르만은 황급히 《히틀러청년단》단장 악싸만을 자기한테로 불러들여 이렇게 지시했다.

《돌파를 준비하오. 삼십분후 내가 가겠으니 기다리오.》

보르만은 무전수들이 있는 곳에서 시내 어디인가 또 전화를 걸고 나서 간밤에 뮬러가 보낸 두명의 에쓰에쓰장교와 함께 제국정부청사의 정원에 나섰다.

40분후 보르만이 돌아왔다.
악싸만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웬일인지 보르만은 한마디 말도 없고 동작도 전보다 가벼워보였다. 그리고 키도 작아진것 같았다.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아서 잘 들리지 않으니 일체 명령은 당신이 내리시오.》
보르만은 웅얼웅얼 말하였다.
그는 보르만이 아니라 그와 겉모양이 꼭같은 크라우제였다. 그를 암호로 47번이라고 불렀다.
멘겔레박사가 정형수술을 하여 크라우제를 감쪽같이 변모시킨것이였다.
그는 이마에 있는 흠집때문에 다소 걱정은 했으나 자기 임무를 나무랄데 없이 수행한셈이였다. 차이가 있다면 목소리가 좀 다른것이였다.
스무대의 땅크가 돌파를 엄호하고있었다. 그들은 제52저격사단의 전투대렬을 뚫고 서북방향인 함부르그쪽으로 달리였다. 그들을 따라잡은것은 5월 2일 새벽이였다. 그들에게 집중포화가 들씌워졌다.
(하지만 불에 타고 만신창이 된 시체속에 보르만과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5월 5일 이른새벽 잠수함은 방파제를 떠나 물속에 깊숙이 잠기여 항로를 아르헨띠나로 잡았다. 여기에는 보르만과 뮬러가 타고있었다.

5월 13일 슈틀리쯔는 의식을 회복하였다.
주위는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파도가 수천갈래의 차거운 물방울로 부서져 느물느물 가라앉을 때면 비릿한 바다의 독특한 냄새가 느껴졌다. 갈매기들이 끼륵끼륵 울어댔다. 가극극장의 서투른 무대장치같은 화살모양의 뾰족한 돛폭이 바람에 부르르 떨었다. 저멀리 기슭에서 불빛이 반짝거렸다.
그속에는 가슴을 조이게 하는 그 어떤 기대가 숨겨져있는것 같았

고 흘러간 나날들이 마치 끝을 잘 맺는 옛말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평온이 깃들어있는듯했다.
슈틀리쯔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방안의 벽들은 하얀 색갈이였다. 이것은 에스빠냐를 방불케하였다. 에스빠냐의 집들은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대체로 벽들이 흰색갈이였다. 다만 에스빠냐사람들은 색을 먹이지 않은 원색그대로의 가구를 좋아했다. 가구에는 보일유를 연하게 먹일뿐이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사람들은 의자며 장들에 색칠을 했다. 창문에 나무덧문을 해놓아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렸다. 정말 바다냄새가 풍겨왔다.
슈틀리쯔는 가슴을 찢어내는듯한 동통을 느끼며 앉아있기가 힘들었다.
그는 쿨럭쿨럭 기침을 하다가 왈칵 피를 토하고 신음소리와 함께 베개우에 쓰러졌다.
머리칼이 희슥희슥한 나이든 사람이 방안으로 들어와 그의 얼굴에 묻은 피를 씻어주고 자리에 눕힌 다음 모포를 세심히 덮어주었다.
《안심하라구. 우리는 지금 자기 사람들한테 와있네. 자네는 에쓰에쓰비밀조직의 아지트에 와있으니 걱정할것 없네. 모든것이 잘 되였어. 여기는 이딸리아라네. 래일쯤이면 자네를 에스빠냐로 떠나보낼걸세. 이젠 위험도 지나갔으니 푹 쉬게. 자넨 휴식을 해야겠네.
대좌…
오늘부터 자네이름을 루돌프 드로크라고 하세나. 기억해두라구. 루돌프 드로크.》
1945년 10월 27일 슈틀리쯔는 다시 걸을수 있게 되자 마드리드에서 자기가 알고있는 주소로 스톡홀름에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거기서는 회답이 오지 않았다. 전쟁도 끝났으니 쏘련정탐기지는 이미 철수한것 같았다.
1946년 10월 13일 마드리드에서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묵직한 미국제 구두를 신은 사람이 아베니나 헤네랄리스모에 있는 슈틀리쯔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알렌 덜레스가 책임지고있는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당신이 그 이름을 알고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점심식사나 나누지 않으렵니까? 뭔가 좀 해야 할 이야기도 있는데… 지나간 회포도 나누고 또 앞으로 함께 할 사업에 대하여 구상해보자는겁니다.》